

軍



Military History

2019.3. 제110호

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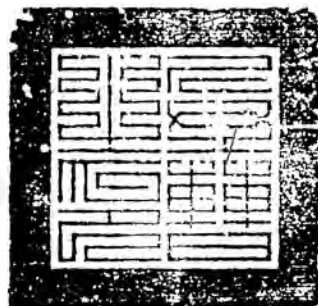
- 삼국시대 '당항성 전투'의 역사적 실상
- 안승(安勝)의 향방(向方)과 고구려 부흥운동
- 후삼국 통일전쟁과 운주전투
- 남한지역 고구려 관방시설의 연구 성과와 과제
- 고려시대 견장출정의(遣將出征儀) 및 사환의(師還儀)의 성립과정과 내용
- 조선전기 동북아의 정세와 전쟁
- 전라도 지역의 반란 대응체제와 운용
- 이순신 해외 전파의 연결고리: 제임스 머독의 <일본의 역사>
- 6·25전쟁 초기 북한군 도하작전의 실패요인 연구
- 인천상륙의 크로마이트 작전 4가지 계획과 그 함의
- 한국전쟁 해전사(海戰史) 연구자료의 발굴과 그 효용성
- 이라크 전쟁의 전쟁양상 변화 원인에 대한 고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

第110號
2019. 3.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Contents | 2019. 3. 제110호

- | | | |
|-----|---|-----|
| 1 | ▶ 삼국시대 '당항성 전투'의 역사적 실상 | 윤성환 |
| 39 | ▶ 안승(安勝)의 향방(向方)과 고구려 부흥운동 | 정원주 |
| 93 | ▶ 후삼국 통일전쟁과 운주전투 | 신성재 |
| 125 | ▶ 남한지역 고구려 관방시설의 연구 성과와 과제 | 윤성호 |
| 165 | ▶ 고려시대 건장출정의(遣將出征儀) 및 사환의(師還儀)의 성립과정과 내용 | 한정수 |
| 203 | ▶ 조선전기 동북아의 정세와 전쟁 | 김경록 |
| 241 | ▶ 전라도 지역의 반란 대응체계와 운용
- 무신란(戊申亂) 당시 경상도 반란군 방어를 중심으로 - | 문경득 |
| 273 | ▶ 이순신 해외 전파의 연결고리: 제임스 머독의〈일본의 역사〉 | 석영달 |
| 315 | ▶ 6·25전쟁 초기 북한군 도하작전의 실패요인 연구
- 한강 도하 사례를 중심으로 - | 정상혁 |
| 359 | ▶ 인천상륙의 크로마이트 작전 4가지 계획과 그 합의 | 이상호 |



軍史



Contents | 2019. 3. 제110호

- 389 ▶ 한국전쟁 해전사(海戰史) 연구자료의 발굴과 그 효용성 김인승
- 영국 해군의 '작전기록'을 중심으로 -
- 427 ▶ 이라크 전쟁의 전쟁양상 변화 원인에 대한 고찰 김현식
- 저항의지와 정치적 행위자의 결합을 중심으로 -

부 록

1. 연구소 동정 461
2.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 안내 464
3. 신간 도서 소개 466
4. 『軍史』誌 投稿案内 468
5. 연구윤리예규 471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0, pp.1-38
<https://doi.org/10.29212/mh.2019..110.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삼국시대 '당항성 전투'의 역사적 실상

윤성환*

1. 머리말
2. 『삼국사기』의 혼란
3. 신라 善德王의 '對唐 구원 요청' 時點과 그 내용
4. 『구당서』의 관련 기록 검토
5. 당항성 전투의 재구성과 백제의 대외정책
6. 맺음말

1. 머리말

역사학은 기본적으로 史料에 근거한다. 달리 말하자면 역사학은 사료의 제약을 받는다. 그런 점에서 사료가 전하는 내용이 부족하거나, 거짓이거나, 오류일 경우 역사학은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관련 사료 자체가 부족하거나 교차 검증에 필요한 제3의 자료가 부재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삼국시대 '党項城 전투' 역시 그러한 소재에 해당된다.

* 성균관대 사학과 졸업

당항성은 현재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九奉山에 소재한 唐城으로 추정되는바, 주지하다시피 신라는 남양만을 끼고 있는 이곳을 553년 한강유역 점령 이후 대중국 교섭의 관문으로 활용하였다. 그런 점에서 당항성은 양국 간 문화 교류의 통로였을 뿐만 아니라 신라 국제정치의 거점이기도 하였다. 이에 신라는 당항성 주변의 교통로상에 다수의 성곽을 배치해 견고한 방어망을 구축하였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백제 義慈王은 재위 초 신라의 對唐 교류를 차단하고자 고구려와 모의해 당항성을 공격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른바 ‘당항성 전투’의 시기 및 전개 양상과 관련해 그 기본 자료인 『삼국사기』에서조차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삼국사기』 新羅本紀에는 642년 8월 백제가 고구려와 화친해 당항성을 공격하려 모의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 百濟本紀에는 643년 11월 의자왕이 당항성을 공격했으나 곧 철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상의 혼란은 당항성 전투 및 그와 관련된 당시의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연구자들의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바, 특히 이 시기 백제와 고구려의 화친 여부(일명 ‘麗·濟連和說’)는 현재까지 학계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¹⁾ 그런데 ‘여·제연화설’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는 당항성 전투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규명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재 ‘당항성 전투’와 관련된 연구를 개관하면, 우선 ‘당항성 전투’를 역사적 사실로 보지 않는 견해가 있다. 이 경우 백제의 당항성 공격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거나²⁾ 신라가 당의 환심을 사기 위해 꾸며낸 술책³⁾ 또는 예견으로⁴⁾ 본다. 한편, 당항성 전투를 역사

1) 이와 관련된 研究史는 윤성환, 「6세기 말~7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연구」, 『향토서울』79, 2011, 7~20쪽; 박운선, 「백제 국제관계사 연구동향과 시기구분 시론」, 『백제학보』13, 2015, 71~72쪽에 정리되어 있다.

2) 주보돈, 「金春秋의 外交活動과 新羅 內政」, 『한국학논집』20, 1993, 30쪽의 註26; 박운선, 「7세기 전반 삼국의 역관계와 백제의 대당외교」, 『역사문화연구』27, 2007, 20~21쪽.

3) 주보돈, 「7世紀 羅唐關係의 始末」, 『영남학』20, 2011, 148쪽.

적 사실로 보는 입장 역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이는 주로 당항성 전투의 시기를 둘러싼 논란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42년 8월 설,⁵⁾ 643년 설,⁶⁾ 643년 8월 설,⁷⁾ 643년 9월 설,⁸⁾ 643년 11월 설로⁹⁾ 대별해볼 수 있는바,¹⁰⁾ 대체로 최근에는 643년 또는 643년 11월 설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642년 10월 고구려에서 '淵蓋蘇文의 政變'이 일어나고, 그해 겨울 김춘추가 평양을 방문한 정황에 주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백제와 고구려가 642년에 화친했다면, 과연 이해 연말 김춘추가 평양행을 택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¹¹⁾

-
- 4) 이호영, 「麗·濟連和說의 檢討」, 『경희사학』9·10, 1982, 29쪽.
 - 5) 황보경, 「7세기 초 삼국의 정세와 당항성 전투 의의」, 『군사』96, 2015, 157~159쪽.
 - 6)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조선전사』3 중세편 고구려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201쪽; 정동준, 「7세기 전반 백제의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46, 2002, 65쪽; 문안식, 「의자왕 전반기의 신라 공격과 영토확장」, 『경주사학』23, 2004, 14-16쪽; 최희준, 「신라 '党項城'의 연혁과 善德王代 羅唐關係」, 『선사와 고대』47, 2016, 62~63쪽; 김지영, 「7세기 고구려와 백제 관계의 변화」, 『인문학연구』32, 2016, 114쪽.
 - 7) 정효은, 『古代韓日關係史の研究』, 立命館大学校 박사학위논문, 1993, 52~53쪽.
 - 8) 박주신, 「百濟 義慈王代の 신라 고립책과 對倭관계」, 『한국사론』61, 2015, 61쪽.
 - 9) 김수태, 「삼국의 외교적 협력과 경쟁」, 『신라문화』24, 2004, 31~32쪽; 노중국, 「7世紀 新羅와 百濟와의 關係」, 『신라학국제학술대회 논문집-7世紀 東亞細亞의 新羅』, 2010, 131~132쪽; 김진한, 「보장왕대 고구려의 대당관계 변화와 그 배경」, 『고구려발해연구』39, 2011, 103쪽; 윤성환, 「6세기 말~7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연구」, 『향토서울』79, 2011, 16~20쪽; 최호원, 「高句麗 寶藏王代 對新羅關係와 認識」, 『고구려발해연구』50, 2014, 198쪽; 임기환, 「연개소문과 김춘추, 국운을 바꾼 선택」, 『쟁점 한국사』전근대편, 창비, 2017, 245쪽.
 - 10) 개별 연구 성과에 대한 비판은 아래 논지 전개과정에서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이다.
 - 11) 글쓴이 역시 일전에 발표한 글에서 이와 같은 정황을 들어 '642년 8월 설'을 비판한 바 있다(윤성환, 앞의 논문, 2011, 16쪽).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연 이 점이 '642년 8월 설'을 부정할 수 있는 논거가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왜냐면 642년 10월 고구려에선 '연개소문의 정변'이 일어나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즉, 642년 8월 고구려-백제 간에 화친이 성립되었더라도 두 달 후 고구려에서 대규모 정변이 발생해 정권이 교체된 만큼, 642년 겨울 김춘추로선 충분히 평양행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기실 신라에 대한 적대적 입장 및 군사적 공세에 있어선 정변 이전 영류왕 정권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다(이와 관련해서, 윤성환, 「624~642년 고구려의 대당(對唐)

한편, 이 같은 정황에 주목해 ‘642년 설’을 비판하면서도 당항성 전투 시기가 언제인지 확실치 않다며 입장을 유보하는 경우도¹²⁾ 있다.

이처럼 ‘당항성 전투’와 관련해선 현대의 연구자들 역시 무척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어쩌면 새로운 제3의 자료가 발굴되지 않는 한 당항성 전투와 관련된 역사적 진실은 계속 미궁에 빠져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글에선 그동안의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다음 몇 가지 측면에 유의해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기왕의 연구에선 ‘당항성 공격 계획’과 ‘당항성 전투’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았던 바, 이는 종래 국내외의 기록들에 대한 기초적 검토를 소홀히 한 것과 연관된다고 생각된다. 기록이 혼란스러울수록 해당 기록의 맥락과 생성 경위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일 것이다. 이와 함께 唐에 구원을 요청했던 신라 사신의 ‘파견’ 시점과 ‘入唐’ 시점을 구분하지 않은 것 역시 기존 연구 상의 심각한 문제점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이 글에선 기왕의 연구에서 간과했던 이 같은 측면에 주목하여 당항성 전투와 관련해 현전자료상에서 확인 또는 추론할 수 있는 최대치에 접근해볼 것이다. 그런 뒤 당시 백제의 대외정책에 관한 소견을 간략하게나마 피력해보고자 한다.

2. 『삼국사기』의 혼란

640년대 초 백제-신라의 당항성 전투를 둘러싼 각종 사실관계와 관련해선, 그 기본사료라 할 수 있는 『三國史記』에서조차 무척 혼란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당항성 전투와 관련해 『삼국사기』 新羅本紀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교와 정국동향』, 『동북아역사논총』59, 2018, 36쪽 참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글쓴이가 ‘642년 8월 설’에 동의하는 입장은 아니다. 이는 아래 논지 전개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12) 최현화, 「7세기 중엽 羅唐關係에 관한 考察」, 『사학연구』73, 2004, 36~37쪽.

① 봄 정월 사신을 唐에 보내 특산물을 바쳤다. 가을 7월 백제왕 義慈가 크게 병력을 일으켜 나라 서쪽의 40여 성을 攻取하였다. 8월에는 또 고구려와 모의하여 党項城을 취해서 당으로 가는 길을 끊으려고 하였다. 왕이 사신을 보내 唐太宗에게 위급함을 고하였다. 이 달에 백제장군 允忠이 병력을 거느리고 大耶城을 공격해 함락시켰다. 都督 伊滄 品釋·舍知 竹竹·龍石 등이 그곳에서 죽었다. 겨울, 왕이 장차 백제를 정벌해 대야의 戰役을 보복하려 하였다. 이에 이찬 金春秋를 고구려에 보내 군사를 요청하였다.¹³⁾(『三國史記』卷5 新羅本紀 第5 善德王 11年)

위 기록은 642년(선덕왕 11)의 사정을 알려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642년 7월 신라의 西邊 40여 성을 함락시킨 백제가 같은 해 8월에는 신라가 중국과 통하던 관문인 당항성을 공격하고자 고구려와 공모했다고 한다. 그 목적은 신라의 對唐 朝貢路 차단에 있었으며, 이에 신라는 遣唐使를 파견해 이를 알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8월에 백제는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해 기어이 함락시켰다. 위 기록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때 백제는 7월에 신라를 상대로 거두었던 대규모 승리의 여세를 몰아 당시 신라 서변의 거점성이었던¹⁴⁾ 대야성 공격을 추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야성 전투에 패배한 결과의 여파로 이해 겨울 신라 조정은 김춘추를 고구려에 파견해 請兵外交를 추진했다. 이 역시 '대야성 전투'와 함께 7세기 삼국 관계사에서 유명한 사실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다. 무엇보다 '당항성 전투'는 백제·고구려가 연합군을 결성한 사건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백제의 '공격 계획' 또는 '단독 공격'에 그쳤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위의 자료①뿐만 아니라 당항성 전투와 관련된 모든 관련 자료에서—중국 측 자

13) “春正月 遣使大唐獻方物 秋七月 百濟王義慈大舉兵 攻取國西四十餘城 八月 又與高句麗謀 欲取党項城 以絕歸唐之路 王遣使 告急於太宗 是月 百濟將軍允忠 領兵攻拔大耶城 都督伊滄品釋 舍知竹竹龍石等死之 冬 王將伐 百濟 以報大耶之役 乃遣伊滄金春秋於高句麗 以請師”

14) 당시 백제가 점령한 지역 및 대야성의 전략적 가치와 관련해선 문안식, 「의자왕 전반기의 신라 공격과 영토 확장」, 『경주사학』23, 2004, 7~9쪽을 참조할 것.

료까지 포함해서— 확인되는 측면이므로 마땅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다만, 백제와 신라가 당항성에서 실제 전투를 벌였는지 여부는 다소 엇갈리게 나타난다. 자료①과 중국 측 사서에선 백제가 고구려와 화친하고 당항성 공격을 모의했다고 기록해 ‘공격 계획’에 그쳤던 것으로 전하고 있지만, 후술할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의자왕이 직접 병력을 동원해 당항성을 공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선 ‘당항성 공격 계획’과 ‘당항성 전투’를 각 사료의 문맥에 맞춰 용어상 구분해야 한다는 점만 일단 확인해두기로 하자.¹⁵⁾

아울러 자료①의 기록대로라면, 백제의 당항성 공격 계획은 대야성 전투와 ‘동시에’ 추진된 셈이다. 자료①에서 백제 장군 윤충의 대야성 공격 사실을 전하면서 유독 “이 달에(=是月)”라고 명기한 것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만일 자료①이 당시의 사실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다면, 이 역시 간과해선 안 될 측면이라 생각된다. 이에선 당시 백제의 전략적 목적이 내재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료①의 신빙성 여부다. 전술했다시피 동일한 『삼국사기』 내에서도 ‘당항성 공격 계획’의 시기를 本紀별로 다르게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료①의 밑줄 친 구절은 실상 『舊唐書』百濟傳를 차용한 것이라 보인다. 왜냐면 『삼국사기』보다 앞서 편찬된 『구당서』 백제전 貞觀 16年 條에 이와 거의 동일한 구절이¹⁶⁾ 전해지기 때문이다. 『삼국사기』의 무분별한 중국 측 기록 답습은, 이 시기 신라의 對唐 구원 요청 時點까지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후술)

이상의 검토 결과만을 놓고 보면, 자료①의 밑줄 친 구절은 『구당서』 백제전의 해당 구절을 무분별하게 차용한 기록에 불과하다.

15) 다만, 불가피하게 ‘당항성 전투’와 ‘당항성 공격 계획’을 총칭해야 할 경우에는 ‘당항성 공격(계획)’이라 표기할 것이다.

16) 『舊唐書』卷199上 列傳 第149上 東夷 百濟. “(貞觀) 16年(642) 義慈興兵伐新羅四十餘城 又發兵以守之 與高麗和親通好 謀欲取党項城 以絕新羅入朝之路 新羅遣使告急請救 太宗遣司農丞相里玄奘齎書 告諭兩蕃 示以禍福 及太宗親征高麗 百濟懷二 乘虛襲破新羅七城”

그런데 이런 자료①에서조차 주목할 대목이 있다. 바로 '642년 8월'이라는 시점이다. '당항성 공격 계획'을 단순히 '642년(貞觀 16)'이라고만 전한 『구당서』와 달리 자료①에서는 그 시기를 '642년 8월'로 특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642년 8월'이라는 시점은 확인 결과 여타의 중국 측 사서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이다. 이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우선 중전의 지적처럼 『삼국사기』 찬자의 杜撰일 가능성이¹⁷⁾ 있다. 즉, 자료①이 의존한 『구당서』 백제전 정관 16년(642) 조의 경우(註16 참고) 실제로는 645년에 해당하는 사실까지 일괄하여 기록하고 있으므로¹⁸⁾ 자료①의 찬자가 643년(선덕왕 12) 조에 기입해야 할 사실을 642년(선덕왕 11) 조에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아울러 642년의 경우 백제가 신라 서변의 옛 가야 지역 장악에 주력하고 있었던 만큼, 당항성 공격을 동시에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정황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¹⁹⁾ 제시된다.

이와 달리 『삼국사기』 찬자가 자료①을 서술하면서 전적으로 『구당서』를 비롯한 중국 측 사서에만 의존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최소한 '642년 8월'이라는 시점은 신라의 고유전승일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다. 가령 자료①에 등장하는 유명한 대야성 전투 장면이나 김춘추의 對高句麗 파견 결정 관련 기록은 분명 『삼국사기』 편찬 당시까지 전해지던 신라 고유의 전승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의자왕이 신라 서변 40여 성을 공격한 시점이 '642년 7월'이라는 자료①의 기록 역시 그러하다. 해당 사실 역시 『구당서』 백제전에 전하지만, 그 시점이 642년 7월이었다는 점은 오직 자료①에서만 보인다. 그런 점에서 '당항성 공격 계획'과 관련된 자료①의

17) 권덕영, 『古代韓中外交史』, 일조각, 1997, 23쪽; 최희준, 「신라 '党項城'의 연혁과 善德王代 羅唐關係」, 『선사와 고대』47, 2016, 62~63쪽; 박주선, 「百濟 義慈王代의 신라 고립책과 對倭관계」, 『한국사론』61, 2015, 61쪽.

18) 노중국, 「7世紀 新羅와 百濟와의 關係」, 『신라학국제학술대회 논문집-7世紀 東亞細亞의 新羅』, 2010, 131~132쪽.

19) 노중국, 앞의 논문, 2010, 132쪽.

기록 역시 서술의 大綱은 『구당서』 백제전을 빌리되, 그 시기(642년 8월)는 신라의 고유 전승에 근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의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쪽이 맞을까. 이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으로, ‘당항성 공격 (계획)’과 관련해 『삼국사기』에 전해지는 또 다른 전승을 살펴보자. 자료①과 달리 『삼국사기』 百濟本紀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② 봄 정월 사신을 보내 당에 들어가 조공하였다. 겨울 11월 왕이 고구려와 和親하여 신라의 党項城을 취하여 入朝 길을 차단하려 모의하고 마침내 병력을 일으켜 공격하였다. 신라왕 德曼이 사신을 보내 당에 구원을 요청하니 왕이 이를 듣고 병력을 철수하였다.²⁰⁾(『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 第6 義慈王 3年)

위 기록은 643년(의자왕 3)의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백제의 당항성 공격은 643년 11월에 추진되었다고 한다. 즉, 신라본기의 기록(자료①)과는 1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그럼에도 위 기록의 밑줄 친 구절(“王與高句麗和親 謀欲取新羅党項城 以塞入朝之路”)에서 드러나듯 ‘당항성 공격 계획’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은 『구당서』 백제전 및 자료①과 거의 흡사하다.²¹⁾ 다만, 백제의 ‘당항성 공격’이 ‘643년 11월’이었다는 점, 의자왕이 병력을 동원해 당항성을 공격한 사실(“遂發兵攻之”), 그리고 신라의 대당 구원

20) “春正月 遣使入唐朝貢 冬十一月 王與高句麗和親 謀欲取新羅党項城 以塞入朝之路 遂發兵攻之 羅王德曼遣使請救於唐 王聞之罷兵.” 여기서 ‘진하게’ 표시한 구절들은 ‘당항성 공격 계획’과 관련해 여타 기록에서 보이지 않는 내용이다.

21) 이 점에 주목해 자료②를 백제의 독자적인 전승으로 보지 않는 견해가 있다. 이 경우 자료②의 “遂發兵攻之”이라는 구절 역시 『삼국사기』 찬자의 과장으로 본다(방용철, 『麗·濟 連和說의 재검토』, 『민족문화논총』62, 2016, 284쪽). 그러나 『삼국사기』 찬자의 찬술태도로 보건대(『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第4 智證麻立干. “論曰 新羅王稱居西干者一 次次雄者一 尼師今者十六 麻立干者四 羅末名儒崔致遠 作帝王年代曆 皆稱某王 不言居西干等 豈以其言鄙野不足稱也 … 今記新羅事 其存方言 亦宜矣”) 해당 찬자가 직접 저본자료를 과장해 서술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요청 소식을 접한 의자왕이 당항성 공격을 중지한 사실(“王聞之罷兵”)은 오직 위의 자료②에서만 보이는 내용으로서 중국 측 사서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다. 이로 보아 자료②는 중국 측 사서(『구당서』)의 기록과 국내 전승 자료를 착종시켜 조합한 기사라 생각된다. 기실 『삼국사기』에는 이 같은 찬술 방식이 적용된 사례가 다수 산견되는데, 가깝게는 자료① 역시 그러한 유형에 속한다. 문제는, 자료②에 활용된 국내 전승 자료의 백제 고유전승 여부일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왕의 지적처럼 백제 멸망기의 史蹟을 백제인이 정리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²²⁾ 그런 점에서 현전하는 백제 멸망기, 특히 武王~의자왕대 관련 기록은 당시 백제의 동향 및 백제와의 관계를 기록한 신라인의 전승에 근거했을 개연성이 높다.²³⁾ 설사 백제인이 정리한 백제 멸망기 관련 사적이 존재했다라도,²⁴⁾ 그조차 백제 멸망 이후 신라인의 손을 거쳤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바, 그 과정에서 백제와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신라인들이 고의로 기록을 왜곡하진 않더라도 자국 중심의 관점이나 사실관계 인식을 바탕으로 1차 자료를 재정리했을 가능성²⁵⁾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²⁶⁾ 그런 점에서 백제본기에 전해지는 백제 멸망기 관련 기록은 신라인의 관점에서 읽어낼 필요가 있다.

22) 강중훈,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사료 계통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42, 2006, 90~91쪽.

23) 강중훈, 앞의 논문, 2006; 임기환, 「삼국사기 백제본기 대외관계 기사의 재구성 시론」, 『한국고대사연구』 52, 2008, 306~308쪽.

24) 최근 『삼국사기』백제본기에 전하는 640년대 관련 기록은 백제인의 입장에서 서술한 백제의 전승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본 견해(전덕재, 「三國史記 百濟本紀 記錄의 基本原典과 改撰」, 『역사와 담론』80, 2016, 183~184쪽)가 제기된 바 있다.

25) 주보돈, 「백제사 관련 신출토 자료의 음미」,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사계절, 2014, 410쪽.

26) 글쓴이는 기왕에 발표한 글에서 이 같은 사항을 미처 고려하지 않은 채 자료②에만 나타나는 기록을 백제 고유의 전승으로 보고 당항성 전투 시기 역시 643년 11월로 추단한 바 있다(윤성환, 앞의 논문, 2011, 19~20쪽). 이 자리를 빌려 당시의 논지를 정정코자 한다.

다만, 자료②가 백제의 고유전승이건, 신라 쪽의 전승이건 간에 여
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위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해당
사실들이 643년 11월이라는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모두 일어
날 수 있었을지 의문스러운 것이다. 자료②의 기록대로라면, 643년
11월 의자왕이 고구려와 화친해 당항성을 공격하자 신라 측은 즉시
당에 사신을 파견해 구원을 요청했고, 이 소식을 접한 의자왕이 자진
해서 병력을 철수시킨 셈이 된다. 그러나 당시는 신라에서 당의 長安
까지 가는 데만도 2~6개월씩 걸렸으므로²⁷⁾ 이를 곧바로 取信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료②는 당항성 공격과 관련된 각종 사
실들을 일괄적으로 기술한 기사라 보인다. 아울러 의자왕이 스스로
철수했다는 결말 역시 어찌 보면 싱겁기조차 하다. 백제의 당항성 공
격은 신라가 당에 구원을 요청할 정도로 성공적인 전략이었음에도,
의자왕은 신라가 당에 구원을 요청하자마자 순순히 병력을 철수시키
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위 기록을 다시 읽어보면, 자료②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의자왕이 병력을 철수시킨 계기가 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이었
다는 사실이 아닐까 한다. 여타 기록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의자왕
의 자진 철병 사실을 굳이 전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당시
신라인의 視點에서 보더라도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
다. 백제 멸망기의 사적을 기록했을 신라인의 입장에서선, 의자왕의
'당항성 공격 (계획)'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당시 신라 조정이 당에
구원을 요청해 그것을 무력화시켰다는 사실이야말로 더욱 중요했을
것이기에 말이다. 그런 점에서 자료②의 초점은, 당항성 전투의 구
체적 양상이 아니라 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에 따른 백제의 당항성
공격 중지에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⁸⁾ 그런 만큼 자료②를 둘러

27) 권덕영, 앞의 책, 1997, 227~230쪽.

28)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료②의 밑줄 친 구절은, 자료②의 저본 자료를 옮겨 쓰던
『삼국사기』찬자가 당시의 정황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구당서』 백제전
을 참고하여 나름대로 추가한 구절이라 생각된다.

싼 사실관계를 검토할 경우에도 이 같은 측면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겠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삼국사기』는 ‘당항성 공격 (계획)’과 관련해 극심한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의 일차적 원인은 『삼국사기』 찬자가 각 본기별로 중국 측 사서의 해당 기록을 무분별하게 답습한 데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료①과 ②는 ‘당항성 공격 계획’과 ‘당항성 전투’를 구별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시사를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당시의 역사적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혹 ‘당항성 공격 (계획)’과 연관된 주변 사건들을 살펴본다면,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 시기 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에 주목해볼 차례다.



3. 신라 善德王의 ‘對唐 구원 요청’ 時點과 그 내용

자료①과 ②에서 ‘당항성 공격 (계획)’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바로 신라 선덕왕의 대당 구원 요청이다. 그런 만큼 ‘당항성 공격 (계획)’의 실체를 탐색하고자 할 때 이 무렵 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과 관련된 사실들을 살펴보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 시기 신라가 당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한 시점을 살펴보자. 이와 관련해 『삼국사기』에서는 세 가지 시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642년 8월(자료①), 643년 9월,²⁹⁾ 643년 11월(자료②)이다. 그런데 각국의 조공 사실을 매년 월별로 기록하고 있는 『冊府元龜』 外臣部에 따르면, 이 무렵 신라 사신이 入唐한 시기는 642년

29)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 第5 善德王 12年.

정월, 643년 정월과 11월이다.³⁰⁾ 물론 이에는 관련 사실이 누락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도 그러하다. 예컨대 역시 동일한 『책부원귀』외신부 및 『資治通鑑』에 따르면 643년 9월 庚辰(=4일)에 신라 사신이 당 태종을 접견해 구원을 요청한 것으로³¹⁾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구체적인 일자까지 적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역사적 사실임이 확실하다. 그리고 해당 기록이 『삼국사기』 신라본기 선덕왕 12년(643) 조에도 그대로 전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중국 측 기록을 통해 볼 때 642년 8월 신라가 당에 구원을 요청했다는 자료①은 따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아마 이는 『구당서』 백제전 정관 16년 조를 답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것이다.³²⁾ 그런데 여기서 ‘643년 11월’의 경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자료②에 따르면 643년 11월은 일견 신라 측에서 당에 사신을 파견한 시점처럼 보이지만, 『책부원귀』에 따르면 해당 시점은 신라 사신이 ‘入唐’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즉, 중국 측 사서에서 각국의 조공 사실을 기록할 경우 해당 사신이 자국에 입국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하는 점을³³⁾ 고려할 때 643년 11월 신라가 견당사를 ‘파견’해 구원을 요청했다는 자료②의 기록은 따르기 어려운 것이다.³⁴⁾ 전술했다시피 실제로도 당시의 여건상 643년 11월 한 달

30) 『冊府元龜』卷970 外臣部 朝貢 第3 (唐) 太宗 貞觀 16~17年 條 종합. 642년 정월, 643년 정월의 遣使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도 확인된다.

31) 『冊府元龜』卷991 外臣部 條禦 第4 唐太宗 貞觀 17年; 『資治通鑑』卷197 唐紀13 太宗 貞觀 17年.

32) 종전에도 이와 같은 지적이 있었다. 즉, 자료①에 전하는 견당사 기사는 『구당서』 백제전 정관 16년 조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두찬일 뿐, 실제로는 이듬해(643) 세 차례 파견한 견당사 중의 하나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권덕영, 앞의 책, 1997, 23쪽).

33) 권덕영, 위의 책, 1997, 228쪽. 물론 그 역도 성립한다. 예컨대 우리 측 사서의 ‘독자 전송’에서 중국에 遣使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 경우 이는 중국으로 떠난 시점을 기록한 것이다.

34) 종래 연구에선 대부분 신라 사신의 ‘파견’ 시점과 ‘入唐’ 시점을 구별하지 않은 채 논의를 전개했던바, 이 역시 ‘당항성 공격(계획)’을 둘러싼 이해에 혼란을 유발한 원인이었다. 그런 점에서 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 시점이 643년 9월이었으므로 당항성 전투는 643년 8월에 있었을 것이라 추정한 견해(정효은, 『古代韓

사이에 백제의 당항성 공격→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의자왕의 병력 철수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자료②의 해당 기록 역시 자료①과 마찬가지로 『구당서』 백제전 정관 16년 조를 傳寫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 생각된다. 따라서 신라 선덕왕의 대당 구원 요청 시점은 643년 9월로 확정할 수 있겠다. 또한 642~643년 사이 신라 사신의 '입당' 시점은 642년 정월, 643년 정월·9월·11월 총 4차례였음도 아울러 알 수 있다. 즉, 신라는 643년 한 해에만 무려 3차례나 당에 사신을 파견한 셈이다. 당시 절박했던 신라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신라 사신의 '파견' 시점과 '입당' 시점을 구별해서 볼 경우 종래 신라 사신의 '파견' 시점으로 파악해왔던 『삼국사기』 내 해당 기록들 역시 재조정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시 신라에서 당나라로 가는 使行에 대략 2~6개월가량 소요된 사실을 고려하면, 643년 9월에 입당한 신라 사절은 대략 643년 3월~7월 무렵, 643년 11월에 입당한 사절은 대략 643년 5월~9월 무렵에 본국을 출발했을 것이라 추산할 수 있다. 즉, 643년 11월에 입당한 사절단은 같은 해 9월에 입당한 사절이 사행을 마치고 귀국하기도 전에 신라를 출발했던 것이다. 아울러 당에서 유학하던 승려 慈藏이 643년 3월에 귀국한 사실을³⁵⁾ 염두에 두면, 643년 9월에 입당한 사절의 경우 자장의 귀국 이후에 출발한 것으로³⁶⁾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은 당항성 전투의 시점을 추론하는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신라 견당사의 渡唐시 당항성 이용이 일반적이었던 만큼, 이들 사절단이 신라를 출발한 시점에는 최소한 당

日關係史の研究, 立命館大学校 박사학위논문, 1993, 52~53쪽)는 다르기 어렵다. 643년 9월에 입당한 신라 사신은 당연히 그보다 수개월 전에 본국을 출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35)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 第5 善德王 12年, “三月 入唐求法高僧慈藏還”

36) 이때 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이 자장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김영하, 「7세기 동아시아의 정세와 전쟁」, 『신라사학보』38, 2016, 11~12쪽).

항성이 백제의 공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상정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시 신라 조정에서 643년 9월에 입당한 사절단이 귀국하기도 전에 재차 견당사를 파견한 사실에 주목한다면, 양 사절단의 출발 시점 사이에 모종의 급박한 위기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 역시 상상해볼 수 있다. 단, 이에 대한 검토는 당시 신라 사절단의 구원 요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보다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시 신라의 구원 요청은 어떠한 내용이었을까. 이와 관련해서 다음 두 종류의 기록이 전해진다.

③ 9월 庚辰(4일)에 신라가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고구려·백제가 臣國을 침범하여 누차 수십 성을 攻襲하고, 양국이 連兵하여 신의 나라를 반드시 취하리라 기약했습니다. 장차 이번 9월에 크게 (군사를) 일으키려 하니 신의 社稷은 반드시 보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삼가 陪臣을 보내 大國에 歸命하니 원컨대 (당나라의) 군대를 편성해주시어 구원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使人에게 말하기를 “내가 실로 너희 세 나라의 (서로) 침략하게 된 바를 안타깝게 여겼으니, (이것 이) 빈번히 사신을 보내 너희 삼국을 화해하도록 한 이유이다. 고구려·백제가 발길을 돌려선 뉘우침을 뒤집으니 너희의 강토를 집어삼키고 나누는데 뜻이 있다. 너희 나라는 무슨 기이한 계책을 두어 패망을 면하려 하는가?”라고 하였다. 使人이 말하기를 “신의 왕이 일이 막히고 계책이 다하여 오직 대국에 급히 고할 따름이니 바라건대 그것으로써 신의 나라를 보전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내가 변방의 군사를 발동해 契丹과 靺鞨을 거느리고 遼東으로 곧장 들어가면 너희 나라는 저절로 풀릴 것이니 너희의 (고구려·백제에 의한) 1년의 포위를 느슨하게 할 만하다. 이후 (요동으로의 공세가) 이어지지 않음을 알면 (고구려·백제의) 군대가 다시 멋대로 침략하고 갈볼 것이니 너희가 편하지 못한 속에 네 나라가 함께 어지러워질 것이다. 이것이 제1책이다. … 너희 나라는 婦人을 임금으로 삼아 이웃나라의 멸시를 받으며 임금이 덕을 잃고 (이웃나라의) 침략을 불려와 해마다 편안할 날이 없으니 내가 일가붙이를 보내 너희의 國主로 삼되, 스스로 홀로갈 수는 없으므로 마땅히 군사를 보내 호위케 하고 너희 나라가 안정되기를 기다려 너희 스스로 지키도록 맡길 것이다. 이것이 제4책이다. 그대는 마땅히 생각해보라. 장차 무엇을 따르겠는가?”라고 하였다. 使人이 단지 “예”라 할 뿐 대답이 없었다. 황제는 그가 용렬하여 군사를 요청하며 위급함을 고할 인제가 아님을 곤란하게 여겼다.³⁷⁾(『冊府元龜』 卷991 外臣部 條禦 第4 唐太宗 貞觀 17年)

④ 9월 庚辰, 신라가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백제가 그 나라의 40여 성을 攻取하고, 다시 고구려와 連兵하여 신라의 入朝 길을 끊으려 모의하니 (당의) 병력으로 구원해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하였다. 태종이 司農丞 相里玄獎에게 명하여 璽書를 휴대시켜 고구려에 내려 말하기를 “신라는 국가를 (우리에게) 맡겨 조공이 그치지 않으니 너희와 백제는 각기 마땅히 병력을 거두어들이라. 만일 다시 신라를 공격한다면, 내년에 병력을 일으켜 너희 나라를 칠 것이다!”라고 하였다.³⁸⁾ (『資治通鑑』卷197 唐紀13 太宗 貞觀 17年)

자료③과 ④는 신라 역사상 최초로 당에 請兵한 기록이다. 두 기록이 신라 사신의 당 태종 접견 및 구원 요청 시점을 643년 9월 4일로 摘記한 것은 공통적이지만, 당시 신라 사신의 메시지와 관련 해선 차이가 확연하다. 즉, 자료③에선 고구려·백제의 거듭된 공격 및 連兵, 그리고 고구려·백제가 9월에 대규모 공세를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구원요청의 근거로 언급된 반면, 자료④에선 백제의 군사적 위협—신라 서변 점령, 신라의 조공로 차단을 위한 고구려와의 共謀—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기록 중 어느 쪽이 맞을까.

이와 관련해 자료④(『자치통감』)의 경우 『구당서』 백제전 정관 16년 조와 유사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해당 사건의 源

37) “九月庚辰 新羅遣使言 高麗百濟侵凌臣國 累遭攻襲數十城 兩國連兵 期之必取 將以今茲九月大舉 臣社稷必不獲 全 謹遣陪臣 歸命大國 願乞編師 以存救援 帝謂使人曰 我實哀爾爲三國所侵 所以頻遣使人 和爾三國 高麗百濟 旋踵翻悔 意在吞滅而分爾土宇 爾國設何奇謀 以免顛越 使人曰 臣王事窮計盡 唯告急大國 冀以全之 帝曰 我少發邊兵 總契丹靺鞨 直入遼東 爾國自解 可緩爾一年之圍 此後知無繼兵還肆侵侮 然四國俱擾 於爾未安 此爲一策 … 帝曰 我少發邊兵 總契丹靺鞨 直入遼東 爾國自解 可緩爾一年之圍 此後知無繼 兵還肆侵侮 然四國俱擾 於爾未安 此爲一策 … 爾國以婦人爲主 爲隣國輕侮 失主延寇 靡歲休寧 我遣一宗枝 以爲爾國主 而自不可獨往 當遣兵營護 待爾國安 任爾自守 此爲四策 爾宜思之 將從何事 使人但唯而無對 帝難其庸鄙 非乞師告急之才也”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 第5 善德王 12年 9月 條에 이 기록이 전제되어 있다.

38) “九月庚辰 新羅遣使言百濟攻取其國四十餘城 復與高麗連兵 謀絕新羅入朝之路 乞兵救援 上命司農丞相里玄獎齎 璽書賜高麗曰 新羅委質國家 朝貢不乏 爾與百濟各宜戢兵 若更攻之 明年發兵擊爾國矣” 『三國史記』卷21 高句麗本紀 第9 寶臧王 上 2年 9月 條에 이 기록이 전제되어 있다.

자료가 아닌 『구당서』 백제전을 참고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3차 사료’에 해당하는 『자치통감』의 사료적 성격을³⁹⁾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와 함께 『구당서』 新羅傳 역시 당시 신라의 구원 요청 내용이 자료③(『책부원귀』)의 것이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바,⁴⁰⁾ 그러므로 643년 9월 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 내용은 자료③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⁴¹⁾

우선 자료③의 밑줄 친 구절을 보자. 이는 일견 신라 사신의 발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시 신라에서 보낸 國書의 일부분이라 생각된다. 밑줄 친 구절 중의 “장차 이번 9월”이라는 표현이 이를 말해준다. 역시 9월에 당 태종을 접견한 신라 사신이 “장차 이번 9월”이라 발언했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해당 국서가 작성되고 신라 사신이 본국을 출발한 시점 역시 643년 9월 이전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인바, 이 역시 신라 사신의 ‘파견’ 시점과 ‘입당’ 시점을 구별해보아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한편, 당시 신라는 국서를 통해 다음 두 가지를 호소했다. 먼저 고구려·백제가 누차 수십 성을 공격한 사실이었다. 아마 중국 측 사서에 특기되어 있는 642년 백제의 신라 서변 40성 점령 사건은 이때 당에 알려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두 번째로 고구려·백제가 군사연합(=連兵)을 결성해 이해 9월 대대적인 신라 공격을 단행할 것이라는 신라의 ‘첩보’ 혹은 ‘예상’이었다(이하 ‘9월 공세설’). 여기서 그 시점을 9월로 특정한 것은, 신라 사신이 당 태종을 접견한 시점이 역시 9월이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아마 해당 국서를 작성할 때 신라 사신이 당에 도착할 시점을 예상하고 그에 맞춰서 쓴 결과가

39) 이와 관련해서, 강종훈, 「晉書 慕容皝載記와 資治通鑑 晉穆帝紀 所載 ‘百濟’ 관련 기사의 사료적 가치」, 『대구사학』121, 2015, 25쪽 참조.

40) 『舊唐書』卷199上 列傳 第149上 東夷 新羅. “(貞觀) 17年 遣使上言 高麗百濟累相攻襲 亡失數十城 兩國連兵 意在滅臣社稷 謹遣陪臣 歸命大國 乞偏師救助”

41) 그런 점에서 자료④를 전제한 『三國史記』卷21 高句麗本紀 第9 寶臧王 上 2年 9月 條의 기록을 토대로 당항성 전투의 시점을 643년 9월로 보는 견해(박주선, 앞의 논문, 2015, 61쪽)는 동의하기 어렵다.

아닐까 한다. 왜냐면 신라의 '9월 공세설'은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보아 종전의 지적처럼 신라가 제기한 '麗·濟連병설'은 허구이거나 과장이었을⁴²⁾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시기 백제 또는 고구려가 신라 조정을 뒤흔들기 위해 이와 같은 허위 정보를 퍼뜨렸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겠지만 말이다. 여하간 신라의 '9월 공세설'은 이 무렵 고구려 침략을 구상하고 있던⁴³⁾ 당 태종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고, 당이 직접 고구려와 백제에 사절단을 파견해⁴⁴⁾ 삼국의 정세를 탐색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즉, 이때 신라의 대당 청병외교는 당 태종의 제안에 신라 사신이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⁴⁵⁾ 신라가 제기한 '여·제연병설'은 그 자체 효과를 발휘한 셈이었다. 아울러 자료③에서 당 태종의 물음에 신라 사신이 “신의 왕이 일이 막히고 계책이 다하여”라고 답한 것은 642년 겨울 김춘추의 대고구려 청병외교가 실패로 돌아간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검토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점은, 643년 9월 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 내용 중 '당항성 공격 (계획)'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는

42) 이호영, 「麗·濟連和說의 檢討」, 『경희사학』 9·10, 1982, 29~31쪽; 윤성환, 앞의 논문, 2011, 33쪽.

43)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 第8 榮留王 24年(641).

44) 상리현장이 이듬해(644) 1월 평양에 도착한 사실로(『資治通鑑』 卷197 唐紀 13 太宗 貞觀 18年 正月) 볼 때 그는 사실상 신라의 구원 요청 직후 당을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당시 고구려-백제의 연합 가능성에 대한 당 태종의 비상한 관심을 반영한 결과라 생각된다.

45) 뒷날처럼 김춘추-당 태종 간의 밀약(648년)이 맺어진 것도 아니었던 시점에서, 신라의 講兵에 대한 당 태종의 이러한 반응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때까지만 해도 당으로선 신라를 파트너로 삼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아울러 신라 사신이 “용렬하여 군사를 요청하며 위급함을 고할 인재”로 여기지 않았다는 당 태종의 반응은 이때 파견된 신라 사신이 당의 시각에서 보기에 신라 조정의 비중 있는 고위급 인사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뒷날 김춘추를 만났을 때와—물론 이때는 당 태종의 고구려 遠征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였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대비되는 당 태종의 태도는 이에서도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장면은 당시 최초로 이루어진 신라 '대당 청병외교'의 미숙성을 시사하고 있다고도 생각된다.

사실이다. 혹, 신라가 제기한 ‘9월 공세설’이 고구려·백제의 ‘당항성 공격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라 여길 수도⁴⁶⁾ 있겠지만, ‘당항성 공격 계획’의 핵심은 신라의 대당 조공로 차단이었지, 국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라 병탄’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즉, 643년 9월 신라가 당에 전달한 국서에서 ‘당항성 공격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단, 643년 9월 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 이전에 백제가 당항성을 공격한 사실이 있었다면, 신라 국서에서 고구려·백제가 누차 수십성을 공격했다고 언급한 내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만일 그것에 당항성 전투가 포함되었다면, 신라의 국서에는 고구려·백제가 朝貢路를 차단하려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있어야 마땅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료①(신라본기)에서 전하고 있는 ‘642년 8월설’을 따르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백제-고구려의 당항성 공격 ‘계획’에 불과한 기록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642년 8월설’은 신라 국서에서 언급한 “고구려·백제의 수십 성 공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인 것이다. 그런 만큼 643년 9월 당나라에 전달된 신라의 국서에는 ‘당항성 공격 계획’이나 ‘당항성 전투’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643년 9월에 입당한 신라 사절이 본국을 출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643년 3월~7월 이전 ‘당항성 전투’가 실제로 일어났을 개연성 역시 낮다고 판단된다. 자료①에서 642년 8월로 기록한 ‘당항성 공격 계획’ 역시 마찬가지다. 적어도 642년 8월 무렵 신라가 당항성 공격 계획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면, 643년 9월 講兵을 위해 당에 보낸 국서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을 리 없는 것이다. 물론 643년 정월에 입당한 신라 사신이 이를 언급했을 가능성을 상상해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왜냐면 지금까지

46)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지만, 종래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와 같이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는 당시 신라 사신의 구원요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살펴본 모든 자료에서 드러나듯 '당항성 공격 계획설'은 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신라 최초의 대당 구원 요청 시점이 643년 9월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나라가 '당항성 공격 계획' 관련 정보를 입수한 시점은 언제였을까?

4. 『구당서』의 관련 기록 검토

전술한대로 '당항성 공격 계획' 관련 정보는 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 과정에서 당에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는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중국 측 사서 가운데 당항성 공격 계획을 최초로 기록한 『구당서』를 검토해보면 약간의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특히 643년 신라의 구원 요청과 그 직후 唐使 상리현장의 파견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구당서』 고려전과 백제전·신라전의 관련 대목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을 보자.

- ⑤ 『구당서』 고려전 : (貞觀) 17년 그 뒤를 이은 왕 藏을 遼東郡王 高麗王에 책봉하였다. 또 司農丞 상리현장에게 새서를 휴대시켜 보내 고려를 설득하고 신라를 공격하지 말도록 하였다. 蓋蘇文이 현장에게 말하기를 “고려와 신라는 원한과 틈이 이미 오래되었다. … 이 兵罅를 그칠 수 없다”라고 하였다. 현장이 말하기를 “기왕의 일을 어찌 追論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개소문이 끝내 따르지 않았다.⁴⁷⁾
- ⑥ 『구당서』 백제전 : (貞觀) 16년 義慈가 병력을 일으켜 신라의 40여 성을 공격하고 또 병력을 발동해 그곳을 지켰다. 高麗와 和親하여 通好하고 당항성을 취하여

47) 『舊唐書』卷199上 列傳 第149上 東夷 高麗. “(貞觀) 17年(643) 封其嗣王藏為遼東郡王 高麗王 又遣司農丞相 里玄獎齎璽書往說諭高麗 令勿攻新羅 蓋蘇文謂玄獎曰 高麗新羅 怨隙已久 … 此兵恐未能已 玄獎曰 既往之事 焉可追論 蘇文竟不從”

신라의 入朝 길을 끊으려 하니 신라가 사신을 보내 위급함을 보고하고 구원을 요청하였다. 태종이 司農丞 상리현장에게 새서를 휴대시켜 보내 兩蕃을 告諭하면서 禍와 福을 보여주었다.⁴⁸⁾

⑦ 『구당서』 신라전 : (貞觀) 17년 사신을 보내 上言하기를 “고려·백제가 누차 서로 攻襲하여 수십 성을 잃었는데, 양국이 連兵하니 臣의 사직을 멸망시키려는 뜻입니다. 삼가 陪臣을 보내 대국에 歸命하니 군사를 편성해 구원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하였다. 태종이 상리현장에게 새서를 휴대시켜 보내 고려에 내려 말하기를 “신라는 국가를 (우리에게) 맡기고 朝獻을 그치지 않으니 너희와 백제는 마땅히 곧 병력을 거두어들이라. 만일 다시 신라를 공격한다면 내년에 마땅히 군사를 내어 너희 나라를 칠 것이다”라고 하였다.⁴⁹⁾

唐使 상리현장의 파견이라는 ‘동일 사건’을 둘러싼 위의 세 기록을 비교해보면서 『구당서』 동이열전 찬자의 서술방식을 살펴보자. 먼저 자료⑤에선 상리현장이 파견된 계기—신라의 구원요청—는 생략되어 있다. 다만, 연개소문과 상리현장 간의 대화 내용을 읊기는 방식으로 당의 요구에 대한 연개소문의 반응을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바, 이는 자료⑥과 ⑦에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다. 자료⑤가 高麗傳인데다, 상리현장의 요구에 대한 연개소문의 반응은 당시 당 측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데에서 기인한 서술이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자료⑦의 서술방식을 살펴보자. 자료⑦에선 앞서 자료③에서 제시한 바 있는 신라 사신의 구원 요청(643년 9월) 내용과 관련된 원 자료를 축약해 기재하고, 당 태종이 상리현장을 고구려에 파견한 사실 역시 당시 고구려에 보낸 국서의 내용을 축약해 기재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해당 국서가 신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던

48) 『舊唐書』卷199上 列傳 第149上 東夷 百濟. “(貞觀) 16年(642) 義慈興兵伐新羅 四十餘城 又發兵以守之 與高麗和親通好 謀欲取党項城 以絕新羅入朝之路 新羅遣使告急請救 新羅遣使告急請救 太宗遣司農丞相里玄奘齎書 告諭兩蕃 示以禍福”

49) 『舊唐書』卷199上 列傳 第149上 東夷 新羅. “(貞觀) 17年(643) 遣使上言 高麗百濟 累相攻襲 亡失數十城 兩國連兵 意在滅臣社稷 謹遣陪臣 歸命大國 乞偏師救助 太宗遣相里玄奘齎書賜高麗曰 新羅委命國家 不闕朝獻 爾與百濟 宜即戡兵 若更攻之 明年當出師擊爾國矣”

만큼, 이를 신라전에 축약 기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서술방식은, 자료⑤와 ⑦ 간에 상호 보완적 관계가 성립되는 효과를 발휘한다.

한편, 자료⑥에선 백제의 신라 40여 성 점령, 고구려와의 화친 및 당항성 공격 시도를 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 및 상리현장의 파견 계기로 적시하고 있다. 이는 자료⑤와 ⑦에선 보이지 않는 내용으로, 역시 자료⑤와 ⑦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한편 자료⑦에선 당에 구원을 요청하는 신라의 국서를 인용함으로써 자료⑥을 보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리현장이 백제를 방문한 사실 역시 자료⑥에만 나타난다. 즉, 三國과 관련된 동일 사건의 경우, 각 열전 간에 존재하는 상호 유기적인 보완 관계는 백제전에도 관철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점은, 가급적 源 자료가 인용되고 있는 자료⑤ 및 ⑦과 달리 자료⑥에선 『구당서』 찬자가 원 자료를 나름대로 ‘가공’해 기술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당시 상리현장이 백제에 전달한 국서의 내용과 이에 대한 의자왕의 반응을 원 자료를 인용하며 기술하지 않고,⁵⁰⁾ 단지 “양변을 告諭하면서 화와 복을 보여주었다”라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구려와 달리 백제의 경우 당시 당의 관심사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던 정황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구당서』 찬자의 백제에 대한 태도를 시사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고구려처럼 오랜 적대 관계에 있지도 않던 백제를 병탄한 당의 입장으로선 가급적 백제의 입장을 기록으로 남기기보다 백제 병탄의

50) 『삼국사기』백제본기에 따르면 상리현장은 644년 백제를 방문했다(『三國史記』卷 28 百濟本紀 第6 義慈王 4年). 그런데 상리현장이 백제를 방문한 사실은 자료⑤에도 나타나지만, 그의 백제 방문시점이 644년이었다는 사실은 백제본기에서만 확인된다. 아울러 『文館詞林』에 전하는 「貞觀年中撫慰百濟王詔」에 따르면, 당시 의자왕은 상리현장이 전달한 당의 국서에 대한 대응으로 이후 당에 夫餘康信을 파견해 백제의 입장과 해명을 담은 表文을 전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이 『구당서』 백제전에는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당위성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구당서』 백제전을 저본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唐會要』 백제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⁵¹⁾ 양자의 畧文을 대조해보면⁵²⁾ 『당회요』 백제전에선 『구당서』 백제전의 기록을 조금씩 축약해 기록하면서 백제 병탄의 당위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역으로 『구당서』 백제전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할 것이다. 당항성 공격 시도가 삼국 모두와 관련되는 사실임에도 『구당서』 동이열전 중 유독 백제전에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구당서』 찬자는 백제가 신라의 入朝路를 끊으려 했다는 사실을 통해 백제 병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삼국이 함께 연루된 사실일지라도, 『구당서』 찬자의 의도에 따라 개별 열전 별로 해당 사실의 취사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항성 공격 계획이 신라에 의해 전달되었음에도 『구당서』 백제전에만 남게 되었던 이유는 이런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자료⑥에서 드러나듯 ‘당항성 공격 계획’을 당에 전한 주체는 신라였다. 문제는, 그 시기다. 자료⑥에선 당항성 공격 계획과 신라의 구원 요청을 642년(정관 16)의 일로 서술하였고, 자료⑦에선 당항성 공격 계획은 기술하지 않고 643년(정관 17)에 있었던 신라의 구원 요청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료⑥이 지닌 연대상의 문제점은 기왕에 적실하게 지적된 만큼⁵³⁾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있다. 전술한대로 『구당서』 찬자가 고려·백제·신라 열전에서 삼국이 연관된 ‘동일 사건’

51) 『唐會要』卷95 百濟. 특히 『당회요』 백제전 중 “與新羅世爲仇讎 貞觀十六年 與高麗通和 以絕新羅入朝之道 太宗親征高麗 百濟懷貳 數年之間 朝貢遂絕 至顯慶五年八月十三日 左衛大將軍蘇定方討平之”라는 구절에서 그러한 면이 확인하다.

52) 지면관계상 이 글에서 兩 백제전의 전문을 대조하는 것은 피하겠다. 다만 『당회요』 백제전이 사실상 『구당서』 백제전의 축약본과 다름없으며 동시에 백제 병탄의 당위성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점만 지적해둔다.

53) 권덕영, 앞의 책, 1997, 23쪽; 노중국, 앞의 논문, 2010, 131~132쪽.

을 서술할 경우 각각 상호 보완관계가 성립하도록 기술한 점을 고려하면, 자료⑥과 ⑦의 비교를 통해 볼 때 당항성 공격 계획이 당에 전달된 시점은 643년 9월을 전후한 시기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643년 9월 신라가 당에 보낸 국서에선 '당항성 공격 (계획)'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643년 11월에 입당한 신라 사절이 당항성 공격 계획을 당에 전달했을 가능성뿐이다.

그런데 현전자료상 643년 11월에 입당한 신라 사절(이하 '11월 견당사')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는 전해지는 바가 전혀 없다. 그저 『책부원귀』에 643년 11월 신라 사신이 입당한 사실만 전해질 따름이다.⁵⁴⁾ 그러나 그 이전, 즉 643년 9월에 입당한 신라 사절(이하 '9월 견당사')이 귀국하기도 전에 해당 사절이 급거 파견된 사실은 분명 주목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한다. 이 같은 정황상 '당항성 공격 계획'을 당에 전달한 주체는 '11월 견당사'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것이다. 즉, '9월 견당사'가 신라를 출발한 시점 이후 언젠가 백제-고구려의 '당항성 공격 계획' 관련 정보가 신라에 입수되었고 당시 위기의식이 충만해 있던 신라 조정으로선, 이미 講兵을 위해 한 차례 파견했던 견당사가 귀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견당사를 파견해 해당 정보를 당에 알리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⁵⁵⁾ 특히 당항성이 공격받을 경우 신라의 대당 교섭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뒷날 당이 '고구려와의 協契' 의혹을 부정할 백제의 해명에도⁵⁶⁾ 불구하고 백제에

54) 『冊府元龜』卷970 外臣部 朝貢 第3 (唐)太宗 貞觀 17年.

55) 그런 점에서 전술한 '9월 공세설'과 달리 '당항성 공격 계획설'은 그 자체 신라가 조작한 허위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만일 그것이 신라의 조작이었다면, 굳이 꼭 '9월 견당사'가 귀환하지도 않은 시점에 재차 견당사를 파견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한 조작은 '9월 견당사'의 귀국 보고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56) 관련 사실이 645년 초 당 태종이 반포한 「貞觀年中撫慰百濟王詔」(일명「唐太宗與百濟義慈王書」)에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주보돈, 「文館詞林에 보이는 韓國古代史 관련 外交文書」, 『경북사학』15, 1992, 164~167쪽 참조.

대한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⁵⁷⁾ 역시 이에서 비롯된 현상이 아닐까. 그리고 『구당서』 찬자는, 삼국이 연루된 동일 사건이 각 열전을 통해 상호 유기성을 지니도록 서술하고, 백제 병탄의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자신의 의도에 맞춰 ‘11월 견당사’가 전한 ‘당항성 공격 계획’ 관련 정보를—혹은 해당 정보가 담긴 원 자료를 ‘가공’하여—『구당서』백제전에 자료⑥처럼 기술했던 것이 아닐까. 자료⑥이 연대 표기상 모호한 기술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도⁵⁸⁾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전자료의 부족으로 추론을 거듭한 감이 있지만, ‘당항성 공격 (계획)’과 관련된 주변 정황을 검토해 볼 때 이와 같이 보는 편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신라가 당항성 공격 계획 정보를 마치 642년 8월에 인지했던 것처럼 기술한 자료①은 기왕의 지적대로 『삼국사기』 찬자가 『구당서』 백제전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두찬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료①에서 본래 ‘11월 견당사’가 신라를 출발한 시점인 ‘643년 8월’을 ‘642년 8월’로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설사 자료①의 기년(642년 8월)을 ‘643년 8월’의 오류로 인정하더라도, 『삼국사기』 신라본기상에서 ‘당항성 공격 (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고유전승이 보이지 않는 점에 있다. 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당항성 공격 (계획)’과 관련된 신라 고유의 구체적인 전승이 부재한 것일까? 당시 신라 사회에서 당항성이 차지하고 있던 위상을 고려하면 이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현상이다.

이와 관련해 일단 『삼국사기』 백제본기 소재 602년 이후의 기사 중 백제본기에만 보이는 고유 기사가 많은 현상에 착안한 견해에

57) 정동준, 「의자왕대 백제에 대한 당의 인식 변화-외교문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사림』55, 2016, 44~52쪽.

58) 종전의 지적처럼 唐使 상리현장의 파견은 643년의 일임에도 『구당서』 백제전의 찬자는 이를 정관 16년(642) 조에 일괄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구당서』 찬자가 상리현장의 파견 시점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이는 자료⑤와 ⑦에서 드러나는 바이다.

주목해볼 수 있겠다. 이에 따르면 이 시기 백제 측 사정에 밝았던 신라가 백제의 사정까지 충실하게 담은 전승 자료를 남겼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러한 자료들의 경우 『삼국사기』 편찬 시 신라본기가 아닌 백제본기에 기록되었다고 한다.⁵⁹⁾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완전한 해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항성 전투'와 '당항성 공격 계획'을 구별해볼 경우 또 다른 가능성 역시 상정해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과연 당시의 역사적 실상은 무엇이였을까? 이는 절을 달리해 살펴보자.

5. 당항성 전투의 재구성과 백제의 대외정책

전술한대로 '9월 견당사'와 '11월 견당사'가 신라를 출발한 시점은 각각 643년 3월~7월 및 643년 5월~9월 무렵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11월 견당사'가 출발한 643년 5월~9월 직전 백제의 '당항성 공격 계획' 관련 정보가 신라에 입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삼국이 첩보전을 치열하게 벌이던 시기였던 바,⁶⁰⁾ 그리하여 현전 『구당서』 백제전에는 '당항성 전투'가 아닌 '당항성 공격 계획'만이 기록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다만, 적어도 '11월 견당사'가 신라를 출발한 시점에는 백제의 당항성 공격이 개시되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역시 주목되는 기사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전하는 자료②이다. 편의상 해당 자료를 다시 한 번 인용해보자.

59) 임기환, 앞의 논문, 2008, 306~309쪽.

60) 『三國史記』卷41~42 列傳 第1~2 金庾信 및 『三國遺事』卷1 紀異 第1 金庾信條에는 고구려의 첩자였던 승려 德昌과 白石, 백제장군 殷相이 신라 진영을 정탐하기 위해 보냈던 첩자 등이 나타난다. 이는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잘 보여 준다. 관련 논문으로는 김영수, 「612년 여·수 전쟁과 고구려의 첩보전」, 『민족문화』30, 2007 등이 있다.

봄 정월 사신을 보내 당에 들어가 조공하였다. 겨울 11월 왕이 고구려와 和親하여 신라의 党項城을 취하여 入朝 길을 차단하려 모의하고 마침내 병력을 일으켜 공격하였다. 신라왕 德曼이 사신을 보내 당에 구원을 요청하니 왕이 이를 듣고 병력을 철수하였다.

전술한대로 643년 11월 한 달 동안 위 기록에서 전하는 사건들이 모두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소한 ‘11월 견당사’가 신라를 출발하기 직전에는 백제의 당항성 공격 계획 정보를 신라가 입수했을 것이므로, 『구당서』 백제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위 기록의 밑줄 친 구절은 643년 11월에 발생한 사건은 아닐 것이다. 위 기록의 “마침내(=遂)”라는 표현도 이를 잘 보여준다. 즉, 의자왕의 당항성 공격 계획은 상당 기간 동안 준비되었던 것이고, 고구려와의 화친 역시 그러한 과정에서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642년 7~8월 신라 서변의 重鎮인 대야성과 그 주변 40여 성을 점령해 신라의 수도 경주를 위협하기에 이른 백제로선 이제 다음 단계로 신라의 대외창구인 당항성마저 공략함으로써 신라를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신라의 명운을 틀어쥐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신라가 당에 “사직의 보전”을 운운하며 강한 국가적 위기의식을 토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백제로선 이번 당항성 공격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기실 신라가 당항성을 방비하고자 지금의 평택 일대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배치시켜두었던 방어망을⁶¹⁾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준비는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아마 백제로선 당시 한강~임진강 하구 일대 및 서해상에서 신라 견당사의 사행을 감시하던 고구려 水軍의⁶²⁾ 호응을

61) 이와 관련해선, 문안식, 앞의 논문, 2004, 15~16쪽 및 황보경, 「7세기 초 삼국의 정세와 당항성 전투 의의」, 『군사』, 96, 2015, 153~157쪽에 잘 설명되어 있다.

62) 645년 당 태종은 백제에 보낸 「貞觀年中撫慰百濟王詔」에서 신라로 파견하는 당의 사신들의 호송을 부탁하면서 해당 사신들이 가는 도중 莫離支(=고구려의 연개소문)에게 「鈔截」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바, 이 밖에 648년 당을 방문한 김춘추가 귀국 당시 해상에서 고구려의 「邏兵」을 만나 위급한 상황이되자 그의 從者 溫君解가 김춘추를 대신해 죽었던 사례 『三國史記 卷5 新

기대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위 기록에서 고구려의 군사적 동향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점에 주목한다면, 당시 고구려는 직접 군대를 출병시켜 호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당시 양국 간에 공조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군사동맹의 형태가 아니라 신라의 (군사)동향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전략적 협력' 수준이⁶³⁾ 아니었을까 한다.⁶⁴⁾

문제는 전술했다시피 위 기록이 백제본기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신라인이 남긴 자료에 근거했을 것인 만큼 당시 백제 측의 구체적인 준비 과정 및 병력 규모, 공격 양상과 관련해서 무척 소략한 사실만을 전하고 있는 데 있다. 위 기록만으로는 실제 당항성에서 전투가 일어났는지조차 불분명하게 보인다. 다만 “병력을 철수하였다”라는 마지막 구절로 보아 643년 11월 무렵 의자왕이 당항성 공격을 목표로 병력을 일으킨 것은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항성 주변의 방어망이 워낙 견고했을 뿐더러, 고구려와의 공조 역시 연합군 결성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면 당항성 공격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미 당항성 공격 계획 정보가 신라로 유출된 상황에선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혹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당항성 전투'와 관련된 고유 전승이 보이지 않는 현상 역시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즉, 당시 백제의 당항성 공격은 병력을 징발해 출병하는 수준에서 그쳤을 뿐, 실제 전투로 비화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제3의 자료가 없는 현재로서는 자세한 실상을 알기는 어렵지만, 만약 실제 당항성에

羅本紀 第5 眞德王 2年) 역시 이를 잘 보여준다. 아울러 이 기록에서 고구려 수군이 온군해를 김춘추라 여겨 죽었다고(“春秋還至海上 遇高句麗邏兵 春秋從者 溫君解 高冠大衣 坐於船上 邏兵見以爲春秋 捉殺之”) 전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고구려는 水軍의 감시망을 통해 김춘추의 訪中 정보까지 입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3) 윤성환, 앞의 논문, 2011, 40쪽.

64) 신라가 당에 '麗·濟連兵說'을 호소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과장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서 전투가 일어났다면 중국 측 기록에서도 642년 백제의 ‘신라 서 변 점령 사건’처럼 이를 특기하지 않을 리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구당서』 백제전에는 ‘당항성 공격 계획’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위 기록상의 “마침내 병력을 일으켜 공격하였다”라는 구절 역시 실제 ‘전투의 발생’이 아닌, ‘병력 동원’ 차원의 맥락에서 읽어야 할 것 같다.

한편, 의자왕의 철병 이유와 관련해 위 기록에선 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을 들고 있는바, 전술한 대로 신라가 당항성 공격 계획과 관련해 당에 구원을 요청했다면 그것은 643년 11월에 입당한 견당사를 통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643년 11월은 해당 신라 사절이 입당한 시점이었지, 위 기록처럼 파견된 시점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위 기록상의 643년 11월이라는 기년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와 관련해선 다음 세 가지 상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백제 멸망 후 신라인들이 백제 멸망기의 史籍을 정리하면서 당항성 공격 계획 정보를 당에 전하고자 파견된 사절단이 643년 11월에 입당한 사실에 착안해 관련 사실을 위와 같이 일괄 조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을 신라인의 관점에서 읽어낼 때 그럴 듯한 추정이라 여겨지지만, 한편으로 신라인들이 견당사 관련 기록을 작성할 때 본국으로부터의 ‘파견’ 시점이 아닌 ‘입당’ 시점을 기록했을지 의문이 남는다.

둘째, 당시 신라 견당사의 사행에 2~6개월이 소요된(편도 기준) 사정을 감안하면, 643년 9월 4일 당 태종을 접견했던 신라 사절단(‘9월 견당사’)이 643년 11월 중에 귀국했을 가능성 역시 상정해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들의 경우 당항성 공격 계획이 아닌, 고구려와 백제의 지속적인 신라 공격을 호소하기 위해 당에 파견되었지만, 여하간 이들 사절 역시 당나라에 백제·고구려로부터의 구원을 요청하였고, 곧이어 唐使 상리현장이 고구려와 백제에 파견될 것이라는 정보가 백제에 알려졌다면, 의자왕의 철병 결정에 영향을

끼쳤으리라 추정해볼 수 있겠다. 더구나 '9월 견당사'의 호소에 당 태종이 제시한 대책 중 제3책은 당의 水軍이 바다를 건너 백제를 直攻하는 안이었다.⁶⁵⁾

그렇지만 '9월 견당사'의 외교적 노력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사실을 고려하면 이 역시 의문은 남는다. 더욱이 위 기록대로 643년 11월 백제가 당항성을 공격하고 있었다면, 과연 이때 '9월 견당사'가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가정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9월 견당사'가 백제의 당항성 공격 이전에 귀국했어야 할 것인바, '9월 견당사'의 대당 외교활동 결과가 백제에까지 알려지는 데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고려하면,⁶⁶⁾ 이러한 가능성은 더 더욱 낮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셋째, 당항성 공격 계획 관련 정보가 신라로 유출되어 '11월 견당사'가 파견된 사실을 전해들은 의자왕이⁶⁷⁾ 당항성 공격을 위해 동원한 병력을 643년 11월에 철수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전술한대로 '11월 견당사'가 신라를 출발한 시점은 643년 5월~9월 무렵으로 추산되는바, 그렇다면 그 이후 11월에 이르기까지 해당 견당사가 출발한 사실이 백제에 전해졌을 시간은 충분한 셈이다. 더구나 당항성 일대에 포진해있던 신라의 방어망을 감안하면, 당시 백제로선 상대의 허를 찌르는 전략을 구사해야 했을 터인데, 이미 공격 계획 관련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선 더 이상 이를 추진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다. 그 결과 당항성 공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종결되었던 것이 아닐까.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당항성 전투'와 관련된 고유 전승이 보이지 않는 문제 역시 이런 추론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65) 『册府元龜』卷991 外臣部 條禦 第4 唐太宗 貞觀 17年. “百濟國負海之險 不修兵械 男女分雜 相好宴聚 我以數十百船 載以甲卒 銜枚汎海 直襲其地”

66) 당시 신라 견당사들이 경주에서 당항성(뒤의 唐恩浦)까지 갈 때에는 대략 15일이 소요되었다고 한다(권덕영, 앞의 책, 1997, 214~215쪽).

67) 만일 의자왕이 해당 사실을 전해 들었다면, 그것은 고구려로부터 전달된 정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자료②에서 굳이 백제와 고구려의 '화친'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의자왕의 철병은 자체의 군사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을 뿐, 신라의 대당 구원요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이 된다. 그리고 이를 두고 신라인들이 선덕왕 당대에, 혹은 백제 멸망 이후 관련 사실을 재정리하면서 선덕왕의 치적을 강조하거나 나당연합군의 백제 병탄을 상기시키고자 마치 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에 의해 의자왕이 철병한 것처럼 기록했던 것은 아닐까. 아울러 이러한 전승이 『삼국사기』에까지 영향을 미쳐 자료②와 같은 기사가 남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세 가지 가능성 중 현재로선 세 번째 가능성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역사상을 그려볼 수 있다. 643년 백제 의자왕은 당항성 공격을 상당 기간 준비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고구려와의 공조 역시 그 과정에서 추진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당항성 일대에 신라가 구축한 방어망을 돌파하기 위해선 고구려의 협조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양국의 공조는 군사연합(또는 동맹)의 수준은 아니었고, 한강·임진강 하구~서해 상에서 신라의 군사·외교 동향을 감시하던 고구려가 관련 정보를 백제에 전달하는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⁶⁸⁾ 그렇지만 이러한 준

68) 한편, 여기서 당시 고구려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 시기 고구려는 백제·신라 간의 적대적 대결이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백제·신라 양국 모두와 선린 관계를 맺을 수는 없었다. 특히 642년 연말 김춘추의 講兵 요청을 거부한 연개소문 정권으로선, 이제 한반도 내에서 남은 선택지는 백제 밖에 없었던바, 이러한 정세조건 뿐만 아니라 610년대 隋의 고구려 침공 당시 신라에 의해 고구려의 남쪽 영역을 공략당한 '역사적 경험' 역시 당시 고구려 집권층의 선택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이 마침내 고구려가 백제의 화친 요청을 수용한 요인이었으리라 생각된다(이상의 내용은, 윤성환, 앞의 논문, 2011, 38~40쪽 참조). 아마 이에는 당시 唐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 속에서 백제로 하여금 對新羅 攻勢에 집중케 함으로써 백제·신라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이를 통해 남부전선의 안정을 도모하려 했던 고구려의 전략적 의도가 깔려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백제의 당항성 공격 구상에 대해 고구려가 양국 간 정보교환 수준을 넘어 연합군을 결성한 흔적은 없는 점에 주목할 때 이 시기 고구려는 백제·신라 간 관계에 대한 적극적 개입은 삼가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와 함께 644년 상리현장의 고구려 방문 당시 이미 연개소문이 신라의 두 성을 함락시

비 기간이 도리어 역효과를 낳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바, 결국 백제의 당항성 공격 계획 정보가 신라에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삼국 간에 첩자를 활용한 첩보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시대였다. 이에 신라 조정은 이미 구원 요청을 위해 파견한 견당사가 귀국하지 않았음에도 643년 5월~9월 사이 재차 견당사를 파견했던바, 해당 견당사는 같은 해 11월 입당해 당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해당 견당사가 급파되었다는—사실이 백제에 알려지면서 643년 11월 당항성 공격을 위해 병력을 징발한 의자왕이 더 이상 '전격적인 공격작전'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여 공격의 실행을 포기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아울러 이상이 당항성 전투의 실상이었다면, 여기서 당시 백제의 대외정책과 관련해 몇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검토한대로 백제의 당항성 공격 시도 자체는 사실이었으며, 동시에 백제의 당항성 공격 중지는 당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기 보다 백제 자체의 군사전략적 판단에 따른 결과였다. 일견 당과의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백제의 행보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러 정황으로 보아 당시 백제가 당과의 관계 악화를 바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644년 당이 상리현장을 보내 백제에 경고하자 의자왕은 이듬해 정월 태자 扶餘康信을 당에 賀正使로 파견해⁶⁹⁾ 표문을 전달했던바, 「貞觀年中撫慰百濟王詔」에 나타나듯 백제는 당의 의혹—백제가 고구려와 協契했다는—을 극구 부인하였다. 심지어

켰던 사실(『三國史記』卷21 高句麗本紀 第9 寶臧王 上 3年)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 고구려는 신라에 대한 단독공세는 지속하되, 백제·신라 간 관계에 대한 적극적 개입은 삼가는 '二重的 對南方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아마 이는 당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남부전선의 안정'과 '대신라 공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했던 당시 고구려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69) 『冊府元龜』卷970 外臣部 朝貢 第3 (唐)太宗 貞觀 19年 正月. “庚午朔 百濟太子扶餘康信延陀新羅 … 遣使來賀 各國方物” 이때 백제태자의 정체를 둘러싼 논란은 이 글의 주제가 아니므로 논급을 피하겠다.

당의 고구려 침공이 이루어지면 자국의 병력을 발동해 돕겠다는 의지까지 천명하였다. 하지만 645년 당 태종이 고구려를 침공하자 정작 백제의 행보는 이러한 약속과는 정반대였다. 주지하다시피 이때 백제는 당에 金鬃鎧와 山五文鎧를 보내⁷⁰⁾ 전날의 言約에 대한 성의만 표시했을 뿐, 唐軍에 호응하는 병력을 동원하기는커녕 도리어 신라의 7성을 습격해 함락시켰던 것이다.⁷¹⁾ 즉, 이때 백제는 對新羅 攻勢를 대당관계와 연관시켜 의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백제에 있어 ‘대당 친선’과 ‘대신라공세’는 擇一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할 대외적 목표였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당시 백제는 고구려와의 공조 역시 ‘대당 친선’이 유지되는 한 ‘군사동맹’이 아닌,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수준에서 유지하면 될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 아닐까. 이를 두고 중국 측 사서에서는 “百濟懷二”라는 프레임을 덧씌웠지만,⁷²⁾ 실상 이 시기 백제의 대외 정책은 한마디로 자국 안위와 목적의 극대화 그 자체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는 父王 무왕이 고구려와 隋 사이에서 도모했던 兩端策을⁷³⁾ 의자왕이 계승한 결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백제가 이러한 대외정책을 견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다름 아닌 643년 9월 신라 사신의 구원 요청에 대한 당 태종의 답변에서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당 태종은 신라 사신에게 백제가 바다의 험함을 믿고 자만에 빠져있다고 논평했던바,⁷⁴⁾ 이 말처럼 당시 백제는 고구려와 다른 지리적 이점을 믿고 당이 바다를 건너 자국을 직접 침입할 수 있다는 상정은 거의 하지 않고 있

70) 『新唐書』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

71) 『三國史記』卷28 百濟本紀 第6 義慈王 5年. 그런 점에서 「貞觀年中撫慰百濟王詔」를 근거로 백제-고구려의 화친을 부정하는 견해는 따르기 어렵다. 당 태종의 면전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백제의 행보로 보아 고구려와의 ‘협계’를 부인했던 백제의 해명 역시 진실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72) 『舊唐書』卷199上 列傳 第149上 東夷 百濟.

73) 武王代 양단책의 실상과 관련해신, 윤성환, 앞의 논문, 2011, 20~32쪽을 참조할 것.

74) 『冊府元龜』卷991 外臣部 條禦 第4 唐太宗 貞觀 17年.

었다고 보인다. 뒷날 백제 지배층 가운데 成忠과 같은 일부 인사가 당의 침입을 예상한 것으로 보이지만,⁷⁵⁾ 이때는 백제의 대당외교가 완전히 단절된 뒤였다.⁷⁶⁾ 훗날 김유신이 백제멸망의 원인을 '백제의 傲慢'에서 찾았던 것은⁷⁷⁾ 이와 관련해 음미해볼 만하다.

6. 맺음말

그동안 '당항성 전투'를 둘러싼 논의는 극심한 혼란을 누적해왔던 바, 관련 자료를 기초적 측면에서 재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역사상을 그려볼 수 있었다.

643년 백제 의자왕은 신라의 대당교섭을 차단하고자 당항성 공격을 추진했던바, 무엇보다 당항성 주변 교통로 상에 밀집되어 있던 신라의 방어망을 돌파하려면 상당기간의 준비와 함께 당시 한강·입진강 하구~서해상에서 신라의 군사·외교 동향을 감시하던 고구려와의 공조가 필수적이었다. 이에 의자왕은 고구려와 '화친'해 고구려의 전략적 협조를 이끌어내는 한편, 자체의 준비를 거쳐 당항성을 '급습'하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 삼국 간 첩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상황에서 상당 기간의 준비는 관련 정보가 신라로 유출되는 역효과를 낳았고, 이에 신라 조정은 이미 643년 9월 구원 요청을 위해 입당한 견당사가 귀국하지 않았음에도 재차 견당사를 파견하였다. 해당 견당사는 같은 해 11월 입당해 당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 유출 사실이 백제에 알려지면서

75) 『三國史記』卷28 百濟本紀 第6 義慈王 16年(656).

76) 주지하다시피 백제 최후의 대당외교는 652년이었다(『三國史記』卷28 百濟本紀 第6 義慈王 12年).

77) 이와 관련해선, 윤선태,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주류성, 2007, 219~225쪽을 참조할 것.

643년 11월 당항성 공격을 위해 병력을 동원한 의자왕은 더 이상 '전격 작전'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고, 공격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의자왕의 당항성 공격 중단은 자체의 군사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을 뿐, 당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이 시기 백제 대외정책의 일단이 드러난다.

당시 백제는 '대당 친선'과 '대신라공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외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고구려와의 공조 역시 '군사동맹'이 아닌 '전략적 협력' 수준에서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뒷날 중국 측 사서에서는 “百濟懷二”라는 프레임을 덧씌웠지만 실상 이는 자국의 안위와 목적을 극대화하고자 했던 당시 백제의 대외정책이었다. 이는 의자왕이 父王 무왕의 '양단책'을 계승한 결과였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백제가 이러한 대외정책을 구사할 수 있었던 요인은, 643년 당 태종의 논평처럼 고구려와 다른 지리적 이점을 믿고 당이 바다를 건너 자국을 직접 침입할 수 있다는 상정을 하지 않았던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투고일: 2019. 1. 11, 심사수정일 : 2019. 2. 1, 게재확정일 : 2019. 2. 14)

주제어 : 당항성 전투, 643년 11월, 의자왕, 고구려, 백제, 양단책, 견당사

〈참 고 문 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舊唐書』 『唐會要』 『冊府元龜』 『新唐書』 『資治通鑑』

影印古籍資料(<https://sou-yun.com/eBookIndex.aspx>)

中華民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漢籍電子文獻資料庫(<http://hanchi.ihp.sinica.edu.tw>)

漢川草廬(<http://www.sidneyluo.net>)

维基文库(<https://zh.wikisource.org>)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강종훈,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사료 계통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42, 2006

강종훈, 「晉書 慕容皝載記와 資治通鑑 晉穆帝紀 所載 ‘百濟’ 관련 기사의 사료적 가치」, 『대구사학』121, 2015

권덕영, 『古代韓中外交史』, 일조각, 1997

김수태, 「삼국의 외교적 협력과 경쟁」, 『신라문화』24, 2004

김영수, 「612년 여·수 전쟁과 고구려의 침보전」, 『민족문화』30, 2007

김영하, 「7세기 동아시아의 정세와 전쟁」, 『신라사학보』38, 2016

김지영, 「7세기 고구려와 백제 관계의 변화」, 『인문학연구』32, 2016

김진한, 「보장왕대 고구려의 대당관계 변화와 그 배경」, 『고구려발해연구』39, 2011

노중국, 「7世紀 新羅와 百濟와의 關係」, 『신라학국제학술대회 논문집-7世紀 東亞細亞의 新羅』, 2010

문안식, 「의자왕 전반기의 신라 공격과 영토확장」, 『경주사학』23, 2004

박운선, 「7세기 전반 삼국의 역관계와 백제의 대당외교」, 『역사문화연구』27, 2007

박운선, 「백제 국제관계사 연구동향과 시기구분 시론」, 『백제학보』13, 2015

박주선, 「百濟 義慈王代의 신라 고립책과 對倭관계」, 『한국사론』 61, 2015

방용철, 「麗·濟 連和說의 재검토」, 『민족문화논총』62, 2016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3 증세편 고구려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 윤선태,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주류성, 2007
- 윤성환, 「6세기 말~7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연구」, 『향토서울』79, 2011
- 윤성환, 「624~642년 고구려의 대당(對唐)외교와 정국동향」, 『동북아역사논총』59, 2018
- 이호영, 「麗·濟連和說의 檢討」, 『경희사학』9·10, 1982
- 임기환, 「삼국사기 백제본기 대외관계 기사의 재구성 시론」, 『한국고대사연구』52, 2008
- 임기환, 「연개소문과 김춘추, 국운을 바꾼 선택」, 『쟁점 한국사』 전근대편, 창비, 2017
- 전덕재, 「三國史記 百濟本紀 記錄의 基本原典과 改撰」, 『역사와 담론』80, 2016
- 정동준, 「7세기 전반 백제의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46, 2002
- 정동준, 「의자왕대 백제에 대한 당의 인식 변화-외교문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사림』55, 2016
- 정효운, 『古代韓日關係史の研究』, 立命館大学校 박사학위논문, 1993
- 주보돈, 「文館詞林에 보이는 韓國古代史 관련 外交文書」, 『경북사학』15, 1992
- 주보돈, 「金春秋의 外交活動과 新羅 內政」, 『한국학논집』20, 1993
- 주보돈, 「7世紀 羅唐關係의 始末」, 『영남학』20, 2011
- 주보돈, 「백제사 관련 신출토 자료의 음미」,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사계절, 2014
- 최현화, 「7세기 중엽 羅唐關係에 관한 考察」, 『사학연구』73, 2004
- 최호원, 「高句麗 寶藏王代 對新羅關係와 認識」, 『고구려발해연구』50, 2014
- 최희준, 「신라 ‘党項城’의 연혁과 善德王代 羅唐關係」, 『선사와 고대』 47, 2016
- 황보경, 「7세기 초 삼국의 정세와 당항성 전투 의의」, 『군사』96, 2015

<Abstract>

The historical reality of the battle of 'Danghang castle' during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Yoon, Seong-Hwan

In the meantime, it has been extreme confusion in the documentary record and researchers' discussions about the battle of 'Danghang castle(党項城)' in the Three Kingdoms period(三國時代).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related historical material from the basic point of view, the following history can be depicted

In 643, Baekje(百濟)'s King Uija(義慈王) pushed the attack on the Danghang castle to block Silla(新羅)'s lines of communication with Dang-China(唐). In order to overcome Silla's defensive network, which was concentrated on the traffic road around the Danghang castle, Baekje's King Uija cooperated with the Goguryeo(高句麗), who was monitoring the military and diplomatic trends of Silla at the Han River(漢江) and the Imjin River(臨津江) estuary toward the West Sea(西海), and prepared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hrough this, the king Uija tried to raid Danghang castle.

However, at the time when the three countries' secret war plans fiercely developed, such preparations had the adverse effect of releasing relevant information to Silla. Although Silla had already dispatched an envoy to Dang-China to ask for salvation, Silla sent another envoy to Dang-China to announce it. The delegation seemed to have delivered relevant information to Dang-China in November 643. And, as Baekje became aware of the information leak, the king Uija, who mobilized troops to attack Danghang castle in November 643, seemed to have stopped the attack, judging that the raid(surprise attack) was no longer possible. In other words, the

king's attack discontinuance on Danghang castle was based on his own military strategic judgment, not on Baekje's relationship with Dang-China. Here, a part of Baekje foreign policy is revealed in this period.

At that time, Baekje had been pushed foreign policies that pursued both 'goodwill against China' and 'attack on Silla'. In this context, cooperation with Koguryo seems to have been maintained at the level of 'strategic cooperation' rather than 'military alliance'. In the later days, Dang-China criticized Baekje for having had duplicity, but it was Baekje's foreign policy to maximize the security and purpose of self-country at that time. This was the result of inheriting his father's 'two-way policy(兩端策)'. The reason why Baekje was able to use this foreign policy seems to be that it did not assume that the Dang-China could directly penetrate across the sea, believing different geographical advantages from Goguryeo as King Dang-China Taejong(唐太宗)'s commentary in 643.

Key words : Danghang castle(党項城) battle, November 643, King Uija(義慈王), Goguryeo(高句麗), Baekje(百濟), two-way policy(兩端策), envoy to Tang(遣唐使)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0, pp.39-92
<https://doi.org/10.29212/mh.2019..110.2>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안승(安勝)의 향방(向方)과 고구려 부흥운동

정원주*

1. 머리말
2. 안승의 금마저(金馬渚) 이치(移置) 시기와 배경
3. 670년~673년의 고구려 부흥운동과 안승
4. 금마저 고구려국의 활동과 멸망
5. 맺음말

1. 머리말

668년 고구려 멸망 후, 보장왕을 비롯한 많은 유민들이 포로가 되어 당으로 끌려갔으며, 이후 당에 의한 지배와 이에 맞선 고구려인들의 저항은 여러 해에 걸쳐 전개되었다. 그 가운데 고구려 부흥을 내세웠던 대표적인 집단이 검모잠(劍牟岑)과

* 한림대학교 강사

안승(安勝)¹⁾에 의해 한성(漢城)²⁾에 세워진 고구려국³⁾이었다. 이들의 활동을 위협으로 인식한 당에서는 군대를 보내 이들을 토벌하게 하였다. 얼마 후 안승은 검모잠을 살해하고 신라로 달아났다고 한다. 신라로 간 안승은 당시 신라의 영역에 속한 백제고지의 금마저(金馬渚)를 할양받아 그곳에 고구려 유민들의 국가를 세울 수 있었다. 그 나라의 명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덕국(報德國)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⁴⁾

- 1) 안승(安勝)에 대해서는 『자치통감』권201, 『신당서』권220, 고려전에는 안순(安舜)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검모잠(劍牟岑)은 『신당서』 본기와 열전에는 검(劍)이 아닌 검(鉗), 『책부원귀』 권429, 장수부90에서는 뉴(鈕)로 사료마다 달리 표기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을 따라 안승, 검모잠으로 하였다.
- 2) 한성은 지금의 황해도 재령으로 비정된다(池內宏, 「高句麗滅亡後の反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12, 1930 : 『滿鮮史研究』上世 第二冊, 吉川弘文館, 1960. 426쪽).
- 3) 검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세워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했던 국가명은 중국측 사료에도 한국측 사료인 『삼국사기』에도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신라 금마저에 세워진 고구려 유민들의 국가에 대해서는 674년 신라 문무왕에 의해 안승이 보덕왕으로 책봉되었다는 기록과 그들 유민들이 거주했던 성을 보덕성이라 불리었다는 기록을 토대로 보덕국으로 지칭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서기』에서는 이들을 여전히 '고려'로 지칭하였을 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보덕국이라 명확하게 지칭한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보덕국'이라 명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고구려 고지에 세워진 고구려 부흥국은 '한성의 고구려국'(임기환, 앞의 논문, 2003)으로 신라 금마저에 이치(移置)된 이후에는 '금마저의 고구려국'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 4) 池內宏, 앞의 논문, 1960 ; 村上四男, 「新羅と小高句麗國」, 『朝鮮學報』37·38, 1966 ; 전준현, 「670년에 재건된 '고구려국'에 대한 연구」 『역사과학』 82-2, 1982 ; 김갑주, 「고구려의 멸망과 부흥운동」 『통일기의 신라사회연구』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7 ; 김수태, 「통일기 신라의 고구려유민지배」 『이기백선생고희기념 한국사학논총 상고대·고려시대편』, 일조각, 1994 ; 양병룡, 「나당전쟁 진행과정에 보이는 고구려유민의 대당항쟁」 『사총』 46, 1997 ; 이선호, 「고구려유민사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 임기환, 「보덕국고」, 『강좌한국고대사』10,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 강경규, 「고구려 부흥운동의 신고찰」 『한국상고사학보』47, 2005 ; 조인성, 「고구려의 멸망과 부흥 운동의 전개」, 『고구려 정치와 사회』, 2007 ; 서영교, 「신문왕대 보덕성민의 반란과 헬리혜성」, 『인문학연구동권』78, 2009 ; 이정민, 「고연무의 고구려부흥군과 부흥운동의 전개」 『역사와 현실』 72, 2009 ; 신은이, 「보덕국의 건국과 그 의미」,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2010 ; 이재석, 「7세기 후반 보덕국의 존재 의의와 왜국」, 『일본역사연구』31, 2010 ; 이형민, 「신문왕대 보덕성민의 반란과 신라의 대응」, 경

이처럼 다수의 논문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이 존재했으며, 그 의미가 작지 않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전 거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견해차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하고 신라로 달아난 시기⁵⁾나 원인⁶⁾에 대한 논의는 연구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개의 연구자들에게 알려진 보덕국이라는 국명조차 확실치 않으며, 행적이 가장 많이 알려진 안승이라는 인물의 행보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 할 뿐 아니라 고구려부흥운동에서 그의 비중이나 역할에 대한 검토 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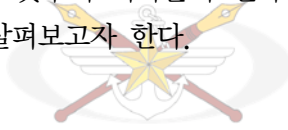
따라서 본고에서는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한 후 신라행을 택하 면서 금마저에 다시 고구려 부흥국을 세우게 된 시기와 배경을 여 전히 고구려고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고구려 유민들의 반당항쟁과 연계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안승이 금마저에 정착하 게 된 시기와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다음 장에서는 고구려

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 ; 정선여, 「신라 신문왕대 보덕국민의 반란」, 『역사와 담론』66, 2013 ; 이상훈, 「검모잠의 최초 거병지 검토」,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노태돈교수정년기념논총2)』, 사계절, 2014 ; 최재도, 「한성의 고구려국 재검토」, 『동북아역사논총』47, 2015 ; 이미경, 「신라의 보덕국 지배정책」 『대구사학』 120, 2015 ; 井上直樹, 「高句麗遺民と新羅七世紀後半の東アジア情勢」 『東洋史研究』 75-1, 2016 ; 김강훈, 「요동지역의 고구려부흥운동과 검모잠」, 『군사』99, 2016 ; 김수진, 『당경 고구려 유민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정원주, 「당의 고구려 지배정책과 안승의 행보」, 『한국고대사탐구』29, 2018.

5) 670년 6월로 보는 견해(신은이, 위의 논문, 2010, 9쪽 : 「보덕국의 탄생과 그 의미」, 『대구사학』132, 2018, 8쪽), 7월로 보는 견해(池內宏, 위의 논문, 1960, 427쪽), 670년 8월 이전으로 보는 견해(김수태, 위의 논문, 1994 ; 양병룡, 위의 논문, 1997), 673년 초로 보는 견해(임기환, 위의 논문, 2003, 300쪽), 673년 윤 5월경으로 보는 견해(최재도, 위의 논문, 2015, 159~160쪽), 673년 말~674년 초로 보는 견해(이정빈, 위의 논문, 2009, 151~153쪽), 674년으로 보는 견해(전준현, 위의 논문, 1982, 39쪽) 등이 있다.

6) 안승과 검모잠의 분열 원인을 고구려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견해(김수태, 위의 논문, 1994, 347쪽 ; 조인성, 위의 논문, 2007, 310~311), 신라에 의존하느냐 독자 노선을 추구하느냐의 향후 진로에 대한 입장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기백·이기동, 『한국사강좌』1 고대편, 일조각, 1982, 297쪽 ;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출판부. 2009, 249쪽) 등이 있다.

고지에서 673년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고구려 부흥운동과 금마저의 고구려국과의 관계 및 이를 통한 신라의 의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후 안승이 신라의 귀족으로 정착하게 된 배경과 금마저에 남겨진 고구려인들의 저항의 원인에 대해서는 마지막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고구려 유민들에 의해 세워진 국가의 등장과 생존 방식 그리고 소멸의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연계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무엇보다 검모잠과 안승의 고구려부흥운동은 당이나 신라 등 그 주변국들의 기록으로만 전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기록의 소략함과 기록의 주체국이 갖는 관심과 의도에 의한 기록의 편향성으로 인해 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논자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있다.⁷⁾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록하는 당사국의 관점에 맞추어 기사들이 전하고자 하는 사실에 주목해 각각의 사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안승의 금마저(金馬渚) 이치(移置) 시기와 배경

고구려 멸망 후 당의 지배에 반발해 저항을 시도했던 고구려 유민들의 움직임은 여러 자료들을 통해 그 일부가 전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이 검모잠과 안승의 고구려 부흥운동이다. 검모잠이 보장왕의 외손(外孫)인 안승을 왕으로 삼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하자 당에서는 고간(高侃)을 동주도행군총관(東州道行軍總管)으로 이근행(李謹行)을 연산도(燕山道)행군총관으로 삼아 이들을 토벌하게 하였다.⁸⁾ 이무렵 안승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

7) 정원주, 앞의 논문, 2018, 78쪽.

8) 『신당서』 권220, 열전 고려전.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고종 함형 원년 4월조.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하 함형 원년조.

다고 한다. 다음은 『삼국사기』에 실린 관련 기사를 기록에 언급된 날짜순으로 나열하였다.

가-1) 함형 원년 경오(670) 여름 4월에 이르러 ①劍牟岑이 나라를 부흥하려고 당나라에 배반하여, ②왕의 외손 안승(安舜)을 세워 임금으로 삼았다. ③당나라 고종이 대장군 고간을 보내 동주도 행군총관으로 삼아 군사를 내어 그들을 토벌하니, ④안승은 검모잡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⁹⁾

가-2) (문무왕 10년(670)) 6월에 고구려 수림성인(水臨城人) 대형(大兄) 모잠(牟岑)이 잔민(殘民)을 거두어 모아 궁모성(鎭牟城)에서 패강 남쪽에 이르러 당 관인과 승려 법안(法安) 등을 죽이고 신라를 향해 가다가 서해 사야도(史冶島)에 이르러 고구려 대신 연정토(淵淨土)의 아들 안승을 만나 한성 안으로 맞이하여 임금으로 삼았다. 그리고 소형(小兄) 다식(多式) 등을 보내 슬피 고하기를 “멸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세대를 이어주는 것은 천하의 공의(公義)인데, 오직 대국에게 바랄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선왕이 도리를 잃어 멸망하였으나 지금 신 등이 나라의 귀족 안승을 맞아 임금으로 받들었습니다. 원하건대 변병(藩屏)이 되어 영원히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왕은 그들을 나라 서쪽 금마저에 살게 하였다.¹⁰⁾

가-3) (문무왕 10년(670) 7월) 사찬 수미산(須彌山)을 보내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봉하였다. 그 책문(冊文)은 다음과 같다. 『함형 원년 경오(670) 가을 8월 1일 신축에 신라 왕은 고구려 후계자 안승에게 책봉의 명을 내리노라. 공의 태조 중모왕(中牟王)은 덕을 북산에 쌓고 공을 남해에 세워, 위풍이 청구에 떨쳤고 어진 가르침이 현토를 덮었다. 자손이 서로 잇고 대대로 끊어지지 않았으며 땅은 천리를 개척하였고 햇수는 장차 800년이나 되려 하였다. 남건(男建)과 남산(南産) 형제에 이르러 화가 집안에서 일어나고 형제간에 틈이 생겨 집안과 나라가 멸망하고 종묘 사직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백성들은 동요하여 마음 의탁할 곳이 없게 되었다. 공은 산과 들에서 위험과 곤란을 피해 다니다가 홀몸으로 이웃 나라에 의탁하였다. 떠돌아다닐 때의 괴로움은 그 자취가 진문공(晉文公)과 같고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그 사적이 위후(衛侯)와 같다. 무릇 백성에게는 임금이 없을 수 없고 하늘은 반드시 사람을 돌보아 주심이 있는 것이다. 선왕의 정당한 후계자로는 오직 공이 있을 뿐이니, 제사를 주재함에 공이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삼가 사신 일길찬 김수미산 등을 보내 책명을 펼치고 공을 고구려 왕으로 삼을지니, 공은 마땅히 유민들을 어루만져 모으고 옛 왕업을 잇고 일으켜 영원히 이웃 나라로서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야 할 것이다. 삼가하고 삼가할지이다. 아울러

9)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하 함형 원년조.

10)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상 10년 6월조.

몹쌀 2천 섬과 갑옷 갖춘 말 한 필, 무늬비단 다섯 필과 명주와 가는 실로 곱게 짠 베 각 10필, 목화솜 15칭을 보내니 왕은 그것을 받으라.』¹¹⁾

위의 가-1)에 언급된 기사를 사건별로 나누어보면 크게 네 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검모잠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하다가 ②안승을 만나 그를 왕으로 세웠고, 이에 ③당에서 고간을 행군총관으로 파견해 토벌하였으며, 그 결과 ④안승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는 것이다. ④는 다시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했다는 사건과 이후 안승이 신라로 달아났다는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모두 5건의 별개 사건으로 이루어진 위의 기사는 함형 원년(670) 4월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그를 둘러싼 정황을 함께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 기사를 통해 사건의 선후관계는 알 수 있지만 각 사건의 발생 시기를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다만 몇 가지 단서를 토대로 한성에 고구려 부흥국이 세워진 시기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나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는 여러 중국 측 사료에도 언급되고 있으며, 함형 원년(670) 4월에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중국측 사료 특히 정사의 편찬 목적은 당의 국가정영에 관한 것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것으로 당 정부의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다. 특히 타국과 관련된 기록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 기사 내용이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지에 맞추어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1)의 기사를 살펴보면, 당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간을 행군총관으로 하는 당군을 고구려고지에 파병해 고구려 부흥을 도모하는 세력을 토벌하게 하였다는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670년 4월 기사는 고간이 이끄는 당병이 고구려고지에 파병되어 토벌을 시행했으며 그 토벌의 결과 안승이 검모

11) 『삼국사기』 卷6 신라본기6, 문무왕 상 10년 7월조.

잠을 살해하고 달아났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기록일 것이다. 어느 사실에 중점을 두었던 이 파병의 원인이 검모잠과 안승의 고구려 부흥운동, 즉 한성 고구려국의 탄생과 그 활동이므로 한성 고구려국은 670년 4월 이전에 존재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¹²⁾

가-2)에서는 검모잠과 안승의 부흥운동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가-1)에 언급된 ③당에서 행군총관인 고간을 파견해 이들을 토벌하게 했다는 기사와 ④안승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검모잠이 안승을 한성으로 맞이해 왕으로 삼았다는 내용 뒤로는 소형 다식(多式)의 신라 파견 기사가 이어지고 있다. 다식을 통해 망한 고구려 사직을 잇기 위해 안승을 임금으로 세웠으며 신라에서 이를 도와준다면 영원히 번영이 되겠다고 고하고 있다. 그리고 신라왕은 그들을 금마저에 살게 하였다고 한다. 금마저는 지금의 전라북도 익산으로 백제 말기 부도(副都)로서 중시되었던 곳이다.¹³⁾ 백제의 고지였지만 신라가 안승집단을 이곳에 정착시킨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신라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2) 기사 역시 여러 사건들을 670년 6월 초 기사에 함께 실어 놓음으로써 각 사건들의 발생순서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시기들을 추정하기는 애매하다. 다만 6월 한 달 안에 모든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가-3)의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 달인 7월에 신라왕이 사찬 수미산을 보내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봉하는 조서를 내렸다고 하였다. 책문에 함형 원년 8월 1일에 책봉한다고 하는 명확한 시간이 제시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사건의 전개 과정에 따른 개별 사실들간의 발생 시기들을 대략적으로나마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12) 필자는 669년 중반기에서 후반기 사이로 보았다(정원주, 앞의 논문, 2018, 97~100쪽). 일반적으로 670년 6월로 보고 있으며(池內宏, 앞의 논문, 1960, 432쪽; 임기환, 앞의 논문, 2003, 295쪽), 이정빈은 669년 4월~670년 3월(앞의 논문, 2009, 146쪽)로 보고 있다.

13) 임기환, 앞의 논문, 2003, 308쪽.

가-2)와 가-3)은 모두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이자 관련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기술한 것이다. 이 기사를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면 안승이 한성 고구려국의 왕이 된 뒤 신라에 사신을 보내 이를 알리자, 신라에서는 이들을 금마저에 살게 하고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였다는 것이다. 사건의 전후 흐름으로 볼 때 안승을 책봉한 장소는 금마저일 것이다.¹⁴⁾ 6월조 마지막 기사가 금마저 이치에 대한 기사이고 7월조 기사가 안승의 고구려왕 책봉기사이므로 금마저로 옮긴 다음에 안승의 책봉이 있었을 것이다. 이로 볼 때 안승 집단의 금마저 이치는 늦어도 7월경에는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면 가-2)의 6월조 기사는 어떤 사건의 발생을 알리기 위한 것인지 기록된 각 사건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소형 다식을 신라에 파견한 것이 6월이라는 견해다. 이는 검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하여 한성 고구려국을 세운 것이 670년 6월 부근이라는 주장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¹⁵⁾ 그러나 가-1) 기사를 통해 한성 고구려국이 세워진 것이 670년 4월 이전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를 알리는 소형 다식의 신라 파견 시기도 4월 이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2)의 6월 기사에서 남는 사실은 금마저 이치에 대한 것이므로 그 이전의 내용은 그 간의 경위를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가-1)의 사실과는 다른 관점에서 안승의 신라행을 기술한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안승과 관련된 기사가 다른 여타의 사서보다 많은 사실을 전해주고 있음에도 중국측 사료 여러 곳에서 언급한 가-1)의 ③과 ④의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신라측에서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한 뒤 신라로 갔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한성에 고구려국이 세워졌으며, 다식을 통해 신라에 이를 알리면서 번병이 되고자 한다하여 금마저에 안치시켰다는 것으로 안승의 신라행을

14) 池内宏, 앞의 논문, 1930, 69쪽.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하고 신라로 간 시기를 670년 6월 경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15) 양병룡, 앞의 논문, 1997, 53쪽; 이미경, 앞의 논문, 2015, 107쪽.

달리 기술한 것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위의 가-2)의 글에 언급된 것처럼 한성에 고구려국이 재건되면서 신라에 그 사실을 알리는 사신을 파견한 목적은 고구려 부흥운동에 신라의 협력과 도움을 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신라와의 연계는 검모잠 세력이 안승과 결합하면서부터 예정된 일이었을 것이다. 안승은 669년 2월에 4천여 호를 거느리고 신라에 투항하였다.¹⁶⁾ 안승은 이후 검모잠을 서해 사야도(史冶島)¹⁷⁾에서 만나 한성으로 간 뒤 왕으로 추대되었다. 신라에 투항했던 안승이 고구려 고지에서 부흥운동을 주도하던 검모잠 집단과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은 신라의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신라에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신라는 당과 군사 동맹을 맺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데 협력하였으나, 당은 신라마저 계림대도독부(鷄林大都督府)라 하여 기미지배하에 두었다.¹⁸⁾ 당은 신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간섭하고 통제하였다.¹⁹⁾ 또한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했음에도 서쪽에는 백제 유민들로 구성된 웅진도독부가, 북으로는 고구려 유민들을 통제하는 안동도호부가 존재함으로써 전쟁 이전의 삼국정립과 동일한 구도로서 신라를 압박하였을 뿐 아니라, 미래의 언젠가는 역공을 받아 존립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하였다. 더구나 삼국 가운데 당의 침략에 유일하게 비껴있던 신라는 중간 경우 없이 당의 공격에 바로 직면하게 되면서 그 위태로움은 보

16)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하 총장 2년.

17) 사야도는 지금의 인천 덕적군도의 하나인 소야도로 비정되고 있다(池內宏, 앞의 논문, 1960, 425~426쪽). 임기환은 황해도 남쪽 해안이나 강화도 부근으로 보는 견해를 제기하였다(앞의 논문, 2003, 296쪽).

18)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상 3년 4월조.

19) 문무왕은 계림주대도독이라 하여 당 황제에 의해 추진 받는 존재로 격하되었으며, 군사 운용에 있어서도 통제와 감시를 받았다. 또한, 당의 요구에 따라 사람이나 물자 등을 제공해야 했는데, 669년 정월 당 승려 법안이 자석을 구하러 왔으며, 그 해 겨울에는 신라의 쇠뇌 기술자를 당으로 데려가 그 제작 기술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정원주, 앞의 논문, 2018, 102~104쪽).

다 가중되었을 뿐이다.

신라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백제고지에 세워진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를 축출함으로써 신라의 서변에서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당과의 물리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웅진도독부의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당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 대책의 하나로 당시 고구려 고지에서 전개되고 있던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이용하고자 하였을 것이다.²⁰⁾ 신라 북쪽방면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 당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육로를 통한 당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고구려 부흥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던 시기에 신라는 웅진도독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 670년 7월에는 82개 성을 함락하고²¹⁾ 671년에는 소부리주(所夫里州)를 설치함으로써²²⁾ 구백제 영역을 거의 장악하였다. 672년에는 고성성(古省城)과 가림성(加林城)을 공격함으로써 잔여세력마저 정리하였다.²³⁾ 이 시기 당과 신라의 충돌은 해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²⁴⁾ 신라는 671년 1월 서해의 용포(甕浦)를 지키며 해상으로 공격하려는 당의 길목을 차단하였고²⁵⁾ 10월 6일에는 당의 조운선 70여 척을 격파하였다.²⁶⁾ 신라는 고구려 고지에서의 부흥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시기에 구백제 영역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당과 일전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이를 위한 선제 작업으로 신라는 669년 2월 자국에 투항했던 안승을 검모잠 세력과 연결시킴으로써 고구려 부흥운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20) 임기환, 앞의 논문, 2003, 290쪽.

21)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상 10년 7월조.

22)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하 11년조.

23)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하 12년조.

24) 임기환, 앞의 논문, 2003, 289~290쪽.

25)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하 11년조.

26)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하 11년조.

끼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부흥운동을 전개하던 검모잠 세력 역시 안동도호부와 당에 효율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흩어져 활동하는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했을 뿐 아니라 외부의 지원도 절실한 상태였다. 고구려 고지는 남생 형제들 간의 내전과 이어진 당과의 수년에 걸친 전쟁으로 인해 전국토가 황폐화되었고 인적 손실도 컸다. 당은 668년 평양성 함락 후에 보장왕을 비롯한 포로들을 대거 당으로 끌고 갔으며²⁷⁾ 다음 해인 669년에도 고구려 고지의 유력자들을 당 내지로 강제 사민하면서 많은 물자도 수탈해 갔다.²⁸⁾ 이로 인해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들은 부족한 물자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이다.

검모잠이 한성을 거점으로 황해도 지역에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이곳이 전쟁의 피해를 적게 입은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²⁹⁾ 무엇보다, 한성 고구려국이 당에 위협이 된다고 느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신라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신라에서 웅진도독부를 장악할 수 있을 때까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이 당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위해 부흥운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왕실 혈통인 안승을 검모잠에게 연결시켰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물자도 지원하였을 것이다.³⁰⁾ 검모잠 세력은 고구려 부흥운동을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을 갖춘 안승을 추대함으로써 황해도 지역에 남아있는 여러 토착세력들과 활동가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³¹⁾ 특히 태대형(太大兄)고연무(高延武)와 같은 높은 지위에

27)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상 10년조.

28) 『구당서』 권5 본기5, 고종 하 오월 경자조.

29) 668년 한성과 대곡성등 2군 12성이 웅진도독부에 복속하였다(『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상 8년 6월 22일조). 큰 전투를 치르지 않고 일찍 항복함으로써 이 지역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지 않았을 것이다.

30) 정원주, 앞의 논문, 2018, 107~109쪽.

31) 정원주, 앞의 논문, 2018, 106~107쪽에서 안승의 세력권을 한성으로 보고 668년

있으면서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추고 있던 인물들을 포섭하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³²⁾ 이처럼 한성 고구려국은 신라의 지원과 안승의 혈통적 정당성 및 황해도 지역이 갖는 인적·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그 세력을 점차 확대해 갔을 것이다.

한성 고구려국과 신라와의 연계는 군사적인 협력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성 고구려국의 성장은 당의 고구려고지 지배에 위협으로 비춰지면서 가-1)에 언급된 것처럼 당에서는 행군총관으로 고간과 이근행을 파병해 이들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고연무와 신라의 사찬(沙飡) 설오유(薛烏儒)는 각각 정병 2만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오골성 부근에서 첫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³³⁾ 670년 4월 4일 먼저 도착한 말갈병과 오골성(烏骨城)³⁴⁾ 부근의 개둔양(皆敦壤)에서 싸워 이겼으나 연이어 도착하는

6월 한성과 대곡성(大谷城) 등 12성을 이끌고 웅진도독부로 투항(『삼국사기』 권 6 신라본기6, 문무왕 상 8년 6월 22일)한 ‘유공자’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검모잡이 안승을 맞이해 한성에서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이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안승의 영향력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32) 많은 연구자들이 고연무를 신라로 귀순한 고구려 장수로 보고 있다(池內宏, 1930, 60쪽; 村上四男, 앞의 논문, 1966, 40쪽; 김수태, 앞의 논문, 1994, 341쪽). 반면 전준현은 고연무를 고구려 멸망 후에도 압록강 이남의 어느 지방에서 당에 투항하지 않고 항전하다가 한성에 고구려국이 재건되자 인입된 부대로 보는 견해(앞의 논문, 1982, 38쪽), 검모잡과 안승 세력과 아무런 관련 없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이었다가 남하 후 결합했다고 본 견해(강경구, 앞의 논문, 2005, 92쪽), 이정빈은 검모잡이 안승을 군주로 추대하기 이전까지는 다른 행보를 걸던 인물로 669년 안동도호부의 이치를 즈음하여 이탈한 서북한 지역 ‘유공자’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고 검모잡과 안승과 관련된 고구려 부흥군이라는 견해(앞의 논문, 2009, 134~140쪽)를 제기했다.

33) 고연무와 설오유가 맞닥뜨린 당병을 고간이 이끄는 당군으로 보는 견해(池內宏, 앞의 논문, 1960, 429~430쪽; 이정빈, 앞의 논문, 2009, 136~137쪽). 반면 이상훈은 안동도호부 영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던 당군으로 보는 견해(『나당전쟁연구』, 주류성, 2012, 96~97쪽)를 제기하였다. 당에서 파견된 이근행은 말갈인으로서 수대에 투항했던 돌지계(突地稽)의 아들로(『신당서』 권110 열전35, 제이반장 이근행), 말갈병으로 구성된 변병을 이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고연무와 설오유가 먼저 맞닥뜨린 말갈은 바로 이근행이 이끌던 변병이었을 것이며, 뒤 이어 도착하는 당병은 고간이 이끄는 군사였을 것이다.(정원주, 앞의 논문, 2018, 97~100쪽).

34) 노태돈은 옥골(屋骨)□□□을 오골성으로 보고 현재 중국 요녕성에 있는 봉황성

고간이 이끄는 당병으로 인해 물러나 백성(白城)³⁵⁾에서 수성전을 펼치며 한반도 진출에 맞서 항전하였다.³⁶⁾ 이 때, 압록강 유역을 방어선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한성 고구려국의 영향력이 황해도는 물론 평양과 압록강 유역까지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³⁷⁾ 그런데 당에서 행군을 꾸려 이들을 토벌하는 와중에 안승은 한성 고구려국을 실질적인 면에서 장악하고 있던 검모잠을 살해하고 신라의 금마저로 근거지를 옮긴 것이다.

안승의 신라행은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 것이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금마저 고구려국에서 일본으로 보낸 사절에 대한 기록으로 볼 때 상당수의 인원이 안승과 함께 신라행을 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황해도 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감안한다면 한성 고구려국을 구성했던 대부분의 인물이 이동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안승과 함께 신라로 간 인물들은 그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었고, 그와 달리 고구려 고지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남게 되었을 것이다. 위의 가-2)와 가-3)을 보면 신라는 안승 집단을 받아들여 금마저에 안치시키고 그를 고구려왕으로 책봉하였다. 신라에서 한성이 아닌 금마저로 옮기고 난 뒤에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한 것 역시 신라의 목적이 있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으로 비정하였다(「대당전쟁기(669~676) 신라의 대외관계와 군사활동」, 『군사』 34, 1997, 3쪽).

35) 池内宏은 설오유와 고연무 연합군의 군사행동이 대동강 유역에서 전개된 것으로 보고 백성을 백수성(白水城)으로 추정(앞의 책, 1960, 430쪽) 반면, 노태돈은 『삼국사기』 권37 잡지 제6, 지리4에 압록강 이북의 미항성(未降城)에 보이는 백석성(白石城)과 동일한 성으로 추정하는 견해를 제기하였다(「5~7세기 고구려의 지방제도」, 『한국고대사논총』8, 1996, 209쪽). 한성 고구려국이 존재한 황해도 지역이나 교전이 일어난 오골성의 위치를 고려할 때 백성은 압록강 유역에 있는 성일 것이다.

36) 정원주, 앞의 논문, 2018, 97~100쪽.

37) 정원주, 앞의 논문, 2018, 109쪽. 검모잠과 안승이 이끄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은 한성을 중심으로 주변으로 점차 세력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평양의 안동도호부마저 점령하여 압록강 부근에서 고간의 당병을 막아낼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당시 웅진도독부가 건재함으로써 신라는 당과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당에 맞설 수 있는 고구려 부흥군의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고구려 고지를 벗어나 일부 세력만을 이끌고 신라로 투항한 안승을 새삼 고구려왕으로 책봉하게 된 것은 안승이 갖고 있는 명분상의 고구려 부흥군의 수장이라는 위치였을 것이다. 따라서 안승을 단순한 투항자로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신라 내의 일부 영역을 떼어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함으로써 보호국이자 동맹국임을 자처한 것이다. 신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안승 집단을 자국에서 포용하였을 뿐 아니라 안승을 고구려 부흥국의 대표자로 인정하는 고구려왕으로 책봉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신라는 고구려 고지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세력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신라 영역 안에 안승을 둬으로써 부흥운동 세력을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³⁸⁾ 한편, 고구려 고지에 남아있던 고구려 부흥군은 당군에 맞서기 위해서 신라와의 협력이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안승의 행보와 신라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기록은 기록자측의 입장에 맞추어 기술되는데, 신라에서는 안승의 신라 투항을 개인적인 것이 아닌 부흥군을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결정이라는 공적인 일로 다루기 위해 가-1)의 ③과 ④의 내용을 생략했을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왕 안승의 도움 요청에 대국인 신라가 부흥국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신라의 입장을 반영한 기록이 가-2)와 가-3)이라 할 수 있다. 신라는 고구려 고지에 남아 여전히 부흥운

38) 이제석도 고구려 유민에 대한 통제책과 그들의 대당 항쟁을 신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의 논문, 2010, 38쪽). 신라에서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한 이유에 대해 신라왕의 위상을 높여 형식적으로나마 당과 대등한 국제적 지위임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는 견해(김수태, 앞의 논문, 1994, 348쪽), 대외적으로 신라왕의 도덕적 명분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임기환, 앞의 논문, 2003, 303쪽)가 있다.

동을 전개하고 있는 유민들의 대표자로서의 명분을 안승에게 부여함으로써 이후 부흥운동을 신라의 통제하에 두고자 하는 계획을 실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670년~673년의 고구려 부흥운동과 안승

검모잠이 살해되고 안승은 신라로 갔지만 고구려고지에서 고구려 유민들의 대당항전은 계속해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 저항운동을 주도한 세력이 누구였는지, 한성 고구려국에 속했던 부흥운동 세력들의 이후 행적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670년 4월에 당의 행군총관으로 파견되었던 고간과 이근행은 고구려고지에서 부흥운동 세력이 소멸될 때까지 토벌을 진행하였다. 한편, 평양을 비롯한 황해도 지역에서 당군에 저항한 고구려유민들의 활약이 673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안승의 신라 내투를 673년 초로 보는 견해가 제기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따르고 있다.³⁹⁾ 그러나 다음의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재고함과 동시에 고간의 이후 행보를 통해 고구려 고지에서의 부흥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나-1) 양방(楊防)을 사평태상백으로 삼아 안동으로 보내 고려의 남은 무리를 안무하게 하였다. 이 때 고려 추장 뉴모잠(鈕牟岑)이 무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

39) 임기환은 안승의 신라 투항을 673년 초로 보고 한성 고구려국이 평양일대와 황해도지역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계속해서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앞의 논문, 2003, 294~303쪽). 이정빈 역시 한성 고구려국은 건재했으며, 부흥운동을 전개한 세력은 안승을 지지하던 세력으로 보고 있다(앞의 논문, 2009, 150~153쪽). 최재도는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한 시점이 672년 8월 이후이며, 한성 고구려국에서 부흥운동 세력과 마지막까지 함께 했다고 보고 있다(앞의 논문, 2015, 159~164쪽). 반면 池內宏은 검모잠의 잔여세력으로 보고 있다(앞의 논문, 1960, 440~441쪽).

고 고장(高藏)의 외손 안순을 세워 임금으로 삼았다. 조칙을 내려 좌간문대장군 고간을 동주도행군총관으로 삼아 병사를 이끌고 토벌하게 했다. ⑤안순이 뉴모잠을 살해하고 신라로 달아났다. ⑥양방과 고간이 비로소 안동도호부를 쳐서 빼앗아 평양성에서 ⑦요동주로 옮겼다.⁴⁰⁾

나-2) ⑤안순이 검모잠(鉗牟岑)을 죽이고 신라로 도망갔다. ⑦고간이 도호부 치소를 요동주로 옮기고 ⑧안시(安市)에서 반란병을 깨뜨렸고 또 천산(泉山)에서 패배시켰으며 신라 구원병 2천을 사로잡았다. 이근행이 발로하(發盧河)에서 깨뜨리고 다시 싸워 사로잡거나 죽인 것이 1만을 헤아렸다. 이에 평양의 패잔병(虜殘)이 싸울 수 없자 함께 신라로 달아났다. 이에 무릇 4년 만에 평정되었다.⁴¹⁾

나-3) (문무왕 11년(671)) 9월 당나라 장수 고간 등이 변병 4만을 이끌고 평양에 이르러 도랑을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았으며 대방(帶方)을 침공하였다.⁴²⁾

나-4) (문무왕 12년(672)) 7월 당나라 장수 고간이 병사 1만을 이끌고 이근행이 병사 3만을 이끌며 일시에 평양에 이르러 8영을 세우고 주둔하였다.⁴³⁾

위의 나-1)에서 고간은 안동도호부에 파견되었던 양방과 함께 비로소 평양에 있는 안동도호부를 쳐서 빼앗아 치소를 요동주로 옮겼다고 하였다. ‘비로소’⁴⁴⁾라는 단어에서 고간이 이끄는 당군에 의해 안동도호부 공격이 매우 힘들게 진행되었음과 바로 앞 사건인 안승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난 일이 계기가 되어 함락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한성 고구려국의 분열로 약화된 틈을 이용해 안동도호부를 함락했다는 것인데 이는 이전까지 평양을 점령했던 세력이 한성 고구려국이 주도한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군이 안동도호부를 함락한 시기는 안승이 신라로 투항한 이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군은 안동도호부를

40) 『책부원귀』 권429, 장수부90 탁토 양방.

41) 『신당서』 권220, 열전 고려전

42)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하 11년 9월조.

43)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하 12년 7월조.

44) 『책부원귀』 권429 장수부90, 탁토 양방, ‘安舜遽殺鈕牟岑走投新羅防侃始拔安東都護府自平壤城移於遼東州’ 위의 밑줄 친 ‘始’의 자전적 해석을 ‘비로소’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하고 신라로 달아나는 사건으로 인해 양방과 고간이 안동도호부를 쳐서 빼앗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함락한 이후 평양성에서 요동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나-2)에서는 도호부 치소를 요동주로 옮긴 뒤에 안시에서 반란군을 깨뜨렸다고 한다.

위의 나-1)과 나-2)의 기록을 시간 순으로 나열해 보면 ⑤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하고 신라로 달아난 뒤에 ⑥고간이 이끄는 당병이 평양의 안동도호부를 함락하고 ⑦안동도호부 치소를 평양성에서 요동주로 옮기고 난 뒤 ⑧안시에서 반란병을 깨뜨렸다는 것이다. ⑧안시는 안시성으로 함형 2년(671) 7월의 일이므로⁴⁵⁾ 안승의 신라행은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하고 신라로 간 시기는 나-1)과 나-2)의 기록을 근거로 671년 7월 이전이 되어야 하며, 가-2)의 기록을 토대로 하면 670년 6월 부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하고 신라로 간 시기를 673년으로 보는 견해는 나-1)과 나-2)의 중국측 기록 및 가-2)의 『삼국사기』 신라본기 670년 6월조의 ‘금마저 이치’ 기사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또한, 앞서의 사실을 토대로 한다면 당군에 의한 평양의 안동도호부 함락은 670년 6월에서 안시성을 토벌한 671년 7월 사이에 있었던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나-3)과 나-4)에서는 그 이후인 671년 9월과 672년 7월 고간이 이끄는 당병이 평양을 새로이 점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이전에 평양이 탈환되었다는 사실에 의혹을 제기하게 만든다. 그러나 나-1)의 평양성 점령과 안동도호부 치소 이동에 대한 기록은 사마광의 『자치통감고이』에도 보이는 내용이다.⁴⁶⁾ 또한 평양의 안동도호부를 요동주로 옮겼다는 기록은 나-2)에서도 보이고 있어 이 당시 고간이 이끄는 당군에 의해 평양의 안동도호부 탈환은 사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안동도호부의 치소를 평양성에서 요동주로 옮긴⁴⁷⁾ 이유로 추정될

45) 『자치통감』 권202 당기18, 고종 함형 2년조.

46) 『자치통감』 권202 당기18, 高宗 의봉 원년 2월조

47) 대개의 연구자들은 평양의 안동도호부 치소를 요동으로 옮긴 시기에 대해서는

수 있는 것은 우선 고구려 고지에서 유민들의 대당항전을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보다 안전한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다. 위의 나-2)를 보면 고구려 부흥군은 발로하 전투에서의 대패로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자 신라로 달아나면서 4년 만에 평정되었다고 하였다. 670년 검모잠과 안승의 고구려 부흥운동을 토벌하기 위해 파견된 고간과 이근행이 이끄는 당군의 임무가 673년에야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년에 걸쳐 당군과 고구려 유민 간에 접전이 계속 되었는데, 특히 위의 나-3)과 나-4)의 기록을 보면 평양 부근에서의 전투가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가-1)에서처럼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하고 신라로 달아나면서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지역에서의 고구려 유민들의 항쟁이 이후까지 계속될 수 있었던 여러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우선 이들을 이끄는 구심점이 존재했기 때문으로, 그 세력에 대해 위의 나-2)에서는 ‘평양의 패잔병’이라고 하였다. 이 평양의 패잔병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의 나-3)에서 고간이 이끄는 당군은 먼저 안시성의 반군을 상대한 뒤에 9월에는 평양에 튼튼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대방을 침공하였다고 한다. 이 기록에서는 공격해 빼앗았다는 언급이 없고 평양에 이르렀다고 하여 전 해에 빼앗았던 평양이 여전히 당군의 수중에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3)에 도랑을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았다는 것은 평양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였다는 것으로 이곳을 둘러싸고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고구려 부흥군과의 충돌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안동도호부의 치소를 요동주로 옮기게 되면서 평양지역의 방어가 보다 허술해지자 다시 고구려 유민들에 의해 이곳을 상실하게 되었다가 재탈환했을 가능성이 다.

나당전쟁 기간인 676년으로 보는 견해를 제기했다. 이는 웅진도독부가 신라에 흡수되었고, 나당전쟁의 전황이 당에 불리하게 돌아감으로써 더 이상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둘 이유가 없어졌으며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요동지역이 유리하였기 때문이었다.

당군이 평양 방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 침공한 대방은 한성을 비롯한 황해도지역을 일컬으며 이곳은 한성 고구려국이 기반을 다져놓은 곳이었다. 이는 고간이 상대할 적이 황해도 일대를 근거로 하는 부흥운동 세력임을 의미한다. 중국측 기록과 한국측 기록 속에서 한반도 북부지역 특히 한성을 비롯한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것은 검모잡과 안승에 의해 세워진 한성 고구려국이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들은 안동도호부의 치소가 있는 평양성을 점령하였을 뿐 아니라 한반도 북부지역을 거의 장악한 상태였다. 그러나 한성 고구려국의 실세였던 검모잡이 살해당하고 명분상의 왕이었던 안승이 신라로 간 이후 지휘부의 공백이 가져온 혼란이 나-1)의 평양의 안동도호부 상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한성 고구려국이 장악했던 황해도 지역에서의 부흥운동은 사그라들지 않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당에 대한 고구려유민들의 저항은 한반도 북부지역만이 아니라 고구려 고지 전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⁴⁸⁾ 위의 나-2)에 언급된 안시성에서의 반당 움직임만이 아니라 부여 권역⁴⁹⁾과 책성 권역⁵⁰⁾에서의 반란도 거셌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곳곳에서 벌어지는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으로 인해 당군은 한성 고구려국의 잔존

48) 『당회요』 권27, 행행조에서 669년 8월 당 고종이 양주(涼州)로 순행을 가려하자 상형대부 래공민(來公敏)이 “근래 고려를 비록 평정하였지만 부여가 아직 거세고, 서도(西道)를 경략하는 일은 군사가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며 만류하였다. 황제의 순행을 만류하기 위한 첫째 이유로 언급될 정도였으므로 당의 고구려 고지 지배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규모였을 가능성이 높다(김강훈, 「고구려 멸망 이후 부여성 권역의 부흥운동」, 『대구사학』 127, 2017, 42~49쪽).

49) 「이타인(李他仁)묘지명」에서 이타인이 부여를 토벌하고 그 공으로 당 고종으로부터 동정원우령군장군(同正員右領軍將軍)으로 제수되었다고 한다.(권덕영, 「이타인묘지」,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388~395쪽).

50) 「양현기(陽玄基)묘지명」에서는 양현기가 검교동책주도독부장사(檢校東柵州都督府長史)로 재임할 때 책성 권역에서 부흥운동을 벌인 고정문(高定問)을 토벌하였다고 한다(김강훈, 「책성 권역의 고구려부흥운동과 고정문」, 『역사교육논집』 65, 2017).

세력들을 완전히 토벌하고 평양지역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로 인해 검모잠 살해 후 안승이 신라로 가면서 혼란에 빠져있던 한성 고구려국의 부흥운동 세력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 지도부의 부재를 서둘러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고구려 전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대당항전을 저지하기 위해 고간 등은 안동도호부의 치소를 요동으로 옮기면서 그 안전을 도모하고 도호부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복구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실제 평양에 두었던 안동도호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을 뿐 도호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669년 5월 고구려인 유력자들을 당 내지로 사민한 뒤 평양에는 빈약자만 남겨 지키게 하여, 실제적인 업무는 안동도호였던 설인귀가 가 있는 신성에서 행하였다.⁵¹⁾ 그러므로, 이 당시 평양은 부흥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중심에 있을 뿐 아니라 고구려 전역에서 벌어지는 대당항전을 저지하기 위해 본국과 연계해 통솔하기에도 적절한 장소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이 당에서 평양성에 두었던 안동도호부의 치소를 요동으로 옮기게 된 이유일 것이다.

나-4)에서 고간이 이끄는 당병은 672년 7월에도 군사를 이끌고 일시에 평양에 이르러 8영을 세웠다고 하였다. 이 전의 전황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아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역시 평양이 전장의 주요 지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전 해에 있었던 평양 점령이 여전히 유지되었던 것인지 새로이 탈환한 것인지 이 기록만으로

51) 설인귀(薛仁貴)는 669년 평양에서 신성으로 옮겼다고 한다(『구당서』 권83 열전33, 설인귀; 『신당서』 권124 열전36, 설인귀). 이때, 함께 평양의 안동도호부에 있던 유인궤(劉仁軌)도 당으로 회군했던 것으로 보인다(『구당서』 권84 열전34, 유인궤). 아마 669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고구려유민들을 당 내지로 대규모 사민한 이후 옮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은 대규모 사민 이후 빈약자만 남겨 안동도호부를 지키게 하였으며, 실제적인 업무는 신성에서 보고 평양의 안동도호부의 역할은 축소되어 소규모 군과 관리만 남아 웅진도독부와 신라 및 주변을 감시하고 정보 수집의 업무만 담당했을 것이다(정원주, 앞의 논문, 2018, 89~91쪽).

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다음의 기록으로 볼 때 평양은 다시 고구려 부흥군에게 재점령되었던 것을 당이 또 다시 탈환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1) (문무왕 12년(672)) 8월 한시성(韓始城)과 마읍성(馬邑城)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군대를 전진시켜 백수성(白水城)과 5백 보 떨어진 곳에 군영을 세웠다. 우리 군사가 고구려 군사와 함께 역전하여 수천 급을 베었다. 고간 등이 퇴각하자 석문(石門)까지 따라가 싸웠는데, 우리 군사가 대패하여 대이찬 효천(曉川), 사찬 의문(義文)·산세(山世), 아찬 능신(能申)·두선(豆善), 일갈찬 안나함(安那含)·양신(良臣) 등이 죽임을 당하였다.⁵²⁾

다-2) (합형 3년(672) 12월) 고간이 고구려의 남은 무리와 백수산(白水山)에서 싸워 깨뜨렸다. 신라가 군사를 보내 고구려를 구원하였으나 고간이 깨뜨렸다.⁵³⁾

다-3) 그 전에 법민왕(法敏王)이 고구려의 반란한 무리를 받아들이고, 또 백제의 옛 땅을 점거하여 소유하니, 당 고종이 크게 노하여 군사를 보내 치게 하였다. 당나라 군대가 말갈군과 함께 석문(石門) 들에 주둔하니, 왕이 장군 의복(義福)·춘장(春長) 등을 보내 방어케 하였는데, [아들인] 대방의 들에 군영을 설치하였다. 이때 장창당만이 따로 주둔하다가 당나라 군사 3천여 명을 만나 그들을 잡아서 대장군의 진영으로 보냈다. 이에 여러 당에서 함께 말하기를 “장창당이 홀로 진을 쳤다가 성공하였으니 반드시 후한 상을 얻을 것이다. 우리들이 모여 있는 것은 한갓 수고로울 뿐이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각각 자기 군대를 갈라 분산하였다. 당나라 군사가 말갈과 함께 [우리 군사들이] 미처 진을 치지 아니한 틈을 타서 공격하니 우리 군사가 크게 패하여 장군 효천과 의문 등이 죽었다.상장군을 따라 무이령(蕪蕪嶺)으로 나오니 당나라 군대가 뒤를 추격하였다. 거열주(居烈州) 대감 일갈찬 아진함(阿珍含)이 상장군에게 말하기를 “공 등은 힘을 다하여 빨리 떠나가라! 내 나이 이미 70이니 얼마나 더 살 수 있으랴? 이때야말로 나의 죽을 날이다.” 하며 창을 비껴 들고 적진 가운데로 돌입하여 전사하였는데, 그 아들도 따라 죽었다. 대장군 등은 슬며시 서울로 들어왔다.⁵⁴⁾

다-4) 연산도총관 우령군대장군 이근행이 고구려 반란군들을 호로하(紇蘆河) 서쪽에서 대패하여 수천 인을 사로잡았다. 나머지 무리는 모두 신라로 도망쳤다.⁵⁵⁾

52)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하 12년조.

53) 『자치통감』 권202 당기18, 고종 합형 3년 12월조

54) 『삼국사기』 권43, 열전 김유신 하

위의 다-1)을 보면 당군은 672년 8월에 한시성과 마음성을 공격해 함락하였다고 한다. 이 두 성은 평양 부근의 성으로 추정되고 있다.⁵⁶⁾ 당군은 이어 백수성 부근으로 이동했는데, 이때 신라군과 고구려 부흥군이 반격해 수천 급을 베었다고 하였다. 이에 퇴각하는 당군을 쫓아 석문까지 갔지만 대패하였다. 당군은 평양에서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의 본거지인 황해도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특히 고구려국이 처음 세워졌던 한성을 목표로 하였을 것이다. 평양을 빼앗긴 부흥군은 다시 한성을 근거지로 대당항전을 벌이게 되었으므로 백수성⁵⁷⁾과 석문은 그 경로상에 있었을 것이다.

백수성은 재령강⁵⁸⁾ 혹은 예성강 하류⁵⁹⁾로 비정되고 있다. 7월에 평양을 점령하고 8월에 평양 부근의 성을 함락하였다면, 고구려 부흥군의 세력권 내로 접어들어서는 쉽게 이곳을 확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호로하가 있는 임진강 유역에 이르는 것은 다음 해인 673년 윤5월경이므로 전쟁의 진행 속도로 볼 때 백수성은 재령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석문은 서흥 서북방에 있는 석문사(石門寺)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⁶⁰⁾ 이 기록은 다-1)에는 8월조에 언급되어 있으나 다-2)에는 12월로 되어 있고, 『구당서』 고종본기에는 동(冬)으로 되어 있다. 이는 8월부터 12월까지 황해도 일대에서 고구려 부흥군과 당 사이에 연이은 격전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당군은 672년 8월에 평양성에 주둔한 뒤에 그 해 말에 겨우 황해도 북부인 서흥까지 고구려 부흥군을 몰아붙였을 뿐이었다. 또한 기록으로는 평양 인근의 한시성과 마음성 공격만을 언급하

55) 『자치통감』 권202 당기18, 고종 함형 4년 윤5월조.

56) 池內宏, 앞의 논문, 1930, 441쪽; 최재도, 앞의 논문, 2015, 153쪽 각주 49)

57)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백수성’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고구려본기에는 ‘백수산’으로, 『구당서』 고종본기에는 ‘횡수’로 쓰여있다. 백수성, 백수산, 횡수는 유사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최재도, 앞의 논문, 2015, 153쪽).

58) 池內宏, 앞의 논문, 1960, 439~440쪽; 최재도, 앞의 논문, 2015, 154~155쪽.

59)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118쪽.

60) 이병도, 위의 책, 1977, 118쪽

고 있으나, 고구려 부흥군은 8월 이전에 평양을 점령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의 나-3)에서 당군이 평양에 보루를 쌓고 대방을 공격했다고 하였으나 그 성과는 미미했거나 오히려 고구려 부흥군에게 밀려났을 것이다. 만약 이때 당군의 고구려 부흥군에 대한 토벌이 성공했다면 다음 해에 잔여 세력 소탕이 훨씬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 부흥군 토벌은 672년에 끝내지 못하고 다음 해인 673년 중반까지 계속 이어졌다. 더욱이 고구려 부흥군은 평양 주변의 성들부터 백수성 전투, 그리고 석문 전투 등 한성이나 황해도 주변에서의 전투가 그해 12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고구려 부흥군의 결집과 항전이 보다 조직적이며, 체계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당측에서 진행한 671년의 토벌이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다시 평양을 뺏기고 북쪽으로 밀려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평양을 두고 당군과 고구려 부흥군 간에는 밀고 밀리는 접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저항군을 위의 나-2)에서 평양의 패잔병이라 하는 것에서도 이들이 평양을 점거하던 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평양에서 밀리면 황해도 지역에서 재정비를 하고 다시 북진해 평양을 재탈환하였을 것이다. 앞의 나-3)에서도 대방으로 지칭되는 이 지역에서의 당의 토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672년 말까지 거센 저항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때 그 세력의 근거지는 황해도였을 것이다. 이 지역의 기반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검모잠과 안승의 한성 고구려국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을 평양의 패잔병이라 한 것은 안승이 신라로 떠난 후 남아있던 저항군들이 그 근거지를 평양으로 옮기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당에서는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하고 신라로 가면서 한성 고구려국이 와해된 것으로 보고 여전히 고구려고지에서 부흥운동을 주도하는 세력들을 그 여당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평양의 패잔병이라 그들을 칭했던 것이다. 한편, 신라에서는 금마저로 간 안승에게

부흥운동의 수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식 책봉하였기 때문에 고구려고지에서 부흥운동을 주도하는 인물이나 세력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한다면 안승이 검모잠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은 고구려 부흥운동의 거점을 옮기는 문제였을 가능성이 있다. 평양은 원 고구려의 국도였으므로 그 상징성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하는 데 유리했을 것이다. 또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고구려 유민 세력들과 연결하기에도 한성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압록강을 넘어 요동지역에서 당군에 저항하는 부흥운동 세력과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평양은 한성보다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이에 한성 고구려국은 평양성의 안동도호부를 점거하게 되자 당군의 공격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기에 적절할 뿐 아니라 고구려 부흥에 유리한 이곳으로 그 근거지를 옮기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신라의 감시와 통제하에 두고자 하는 신라의 의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을 것이다. 신라는 웅진도독부를 몰아내고 백제지역을 장악하는 동안 고구려 부흥군이 당군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만 유지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런데 평양으로 중심지를 옮기게 되면, 그 세력 판도가 더 넓어질 뿐 아니라, 다른 부흥군 세력과 연계함으로써 신라가 개입할 수 없는 독자적 세력으로 커갈 수 있음을 경계하였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처로 한성 고구려국의 본거지를 금마저로 옮기자는 제의를 신라에서 먼저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당군의 본격적인 공세를 핑계로 한성 고구려국 지도부의 안전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이들의 저항운동이 실패했을 경우 최후의 도피처가 될 수 있도록 신라 내에 근거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함으로써 안승과 검모잠의 갈등을 초래하게 만들었을 것이다.⁶¹⁾ 친신라파인 안승을 부추김으로써 검모잠을 살해하도록 유

61) 검모잠과 안승의 분열 원인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는 각주 11) 참조.

도하고 이를 통해 그가 한성 고구려국을 장악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한성 고구려국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 안승과 같은 생각을 하는 인물들은 검모잠 살해에 동참하였을 것이다.

한성 고구려국의 구성원은 고구려와 당과의 전쟁 중에 피난해온 인물들에서, 당의 지배에 반항하거나 특히 669년의 사민책을 피해 달아난 인물들, 검모잠에 의해 부흥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자 이에 가담하기 위해 참여한 인물 등 다양한 인적구성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한성은 고구려 삼경(三京) 가운데 하나임에도 일찍이 웅진도독부에 투항함으로써 그 지역 토착세력들은 전란에서도 피해를 덜 입었을 것이다. 안승이 한성 고구려국의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들 토착세력들과 피난해온 많은 지배층 인사들이 여기에 가담하였을 것이다. 한성의 고구려국에는 옛 고구려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무력을 키워 당에 대항해야 한다는 세력도 있었지만, 자신들의 평안과 안락을 위해 몸을 사리는 계층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당의 압박을 피해 피난해 있던 일부 지배층에서는 자신들의 예전 지위와 세력을 이용해 한성의 고구려국에서도 이를 누리고 있던 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들은 고연무와 안승과 달리 고구려에서 상위관등에 속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지방의 중·하급 귀족층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당이나 신라에 투항했을 때 그들의 기존 권리를 보장받기 힘든 계층이었으므로 고구려 멸망 이후에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졌을 뿐 아니라 당의 대규모 사민책으로 인한 불만이 고구려 부흥운동에 참여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당군의 본격적인 침공에 직면하게 되자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신라행을 택한 안승을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한성은 안승의 본거지였던 곳이므로,⁶²⁾ 이곳의 토착세력들은 검모잠보다는 안승에 보다 협력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 역시 검모잠이 평양으로 근거지를 옮기려는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안승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과 공모하여

62) 정원주, 앞의 논문, 2018, 106쪽.

검모잠을 제거한 뒤, 이들과 함께 신라에서 제공한 금마저로 자리를 옮겼던 것이다.

이당시 검모잠과 뜻을 같이하는 인물들은 당에서 파견된 고간의 당병을 막기 위해 출정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고연무였을 것이다. 고연무에 대해서 안승의 휘하 장수로 669년 2월 신라로 투항할 때 함께 한 인물로 보기도 하고,⁶³⁾ 심지어 검모잠 살해 후 안승과 함께 신라로 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고연무는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하는 시기에 개동양에서 당군과 교전한 뒤 백성에서 신라군과 이들을 막아내고 있었다. 고연무와 안승은 다른 행보를 걸었던 것이다.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 한 뒤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신라로 가자, 신라는 그들을 금마저에 안치하고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했던 것이다. 이로써 고구려 계승의 정통성을 안승이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신라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신라의 결정을 고구려 부흥군 측에서는 신라의 원조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수뇌부가 빠져나간 한성이 아니라 요동에서 오는 당군을 저지하고 고구려 전역에서 벌어지는 부흥운동 세력과 연계하기 위해서 남아있던 부흥군 세력들은 평양으로 본거지를 옮기고 대당항전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를 주도한 것은 아마 고연무가 아니었을까 한다. 오골성 전투에서는 고연무를 태대형이라고 하였는데, 고구려 부흥운동이 실패하고 금마저로 갔던 그가 다시 사서에 보이는 것은 문무왕 20년(680)이었다. 신라에서 안승에게 왕의 여동생을 아내로 주자 이에 대한 답례로 고연무를 사신으로 보내는데 이때, 그를 대장군이라 칭하고 있다.⁶⁴⁾ 이는 금마

63) 池内宏, 앞의 논문, 1930, 66쪽 ; 村上四男, 앞의 논문, 1966, 40쪽 ; 김수태, 앞의 논문, 1994, 339쪽.

64)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하 20년 5월조.

저에서 안승에 의해 대장군의 직위를 얻었다기보다는 한성의 고구려국이 분열되면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끌기 위한 중심인물로서 고연무에게 부여된 칭호였을 것이다.

고연무는 680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사서에 등장하지 않는다. 안승이 신문왕 3년(683) 신라의 진골귀족으로 경주에서 살게 되었을 때 그를 따라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86년 신라가 고구려 유민들을 그들의 관직체계내로 흡수할 때 3등관인 주부(主簿)까지만 보이고 그 위인 태대형이나 대대로에 해당하는 관직은 보이지 않는다.⁶⁵⁾ 한편 보덕성민의 반란에서도 대장군이었던 그는 보이지 않고 대문이나 실복이 주축인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신라가 보덕성민의 반란 기록에서 일부로 그에 관한 기록을 제외시켰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에 대한 다른 기록들은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 그는 이 무렵 병사했거나, 안승이 검모잠을 죽였듯이 그를 제거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죽음은 대외외교가 중단된 672년 무렵이 아니었을까 한다. 부흥운동이 실패하면서 금마저로 가게 된 고구려 부흥군들에게는 고연무의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안승측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고구려 부흥의 의지를 가진 고연무와 그를 따르는 고구려 유민들로 인해 안승은 금마저에서 형식적으로나마 고구려왕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연무가 죽자 그는 훌가분하게 신라 왕경으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라에서는 금마저에 있던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함으로써 고구려 부흥군의 명분상의 주체가 그임을 대외적으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안승은 금마저에서 있으면서 고구려 고지에서 벌어지는 부흥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당군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고구려 고지에서의 전투는 시간을 요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주도한 것은 고연무였으며, 그 중심은

65)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 하.

평양에 있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당측에서는 검모잠이 살해되고 안승이 신라로 달아나자 한성의 고구려국이 해체된 것으로 보고, 이들 부흥군을 ‘평양의 패잔병’이라 칭했던 것이다.

한성 고구려국의 지휘부의 상장과 당군의 토벌로 항전을 계속하던 고구려 부흥군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다시 그 세력을 결집해 무력 항쟁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라군의 본격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670년 초 고연무와 설오유 연합군이 당과 전투를 벌인 것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만 적혀있지만, 위의 다-1)의 백수성 전투는 『자치통감』과 『구당서』 등 여러 중국측 사료에 자세히 언급된 것으로 보아 이 당시 고구려 부흥군과 신라군의 연합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다-1)을 보면 신라군의 지휘관들이 17관등 가운데 5위인 대아찬부터 6위 아찬, 7위 일길찬, 8위 사찬 등 높은 관직을 갖고 있는 다수의 인물들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지원군의 규모가 훨씬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라가 고구려 부흥군과의 군사동맹에 상당한 공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당에서는 고구려 부흥운동에 신라가 개입되어 있음을 알게 되면서 671년 본격적으로 신라에 대한 공세를 취하게 된다. 당에서는 토번전의 실패로 670년 6월 직위를 상실했던 설인귀를 계림도행군대총관으로 삼고 해로를 통해 신라를 공격하였을 뿐 아니라, 설인귀가 직접 신라 문무왕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이러한 신라의 태도를 경고하였다.⁶⁶⁾

그러나 신라는 용진도독부를 몰아내고 완전히 백제지역을 장악하게 되어 당과의 본격적인 전쟁에 임할 수 있게 되자 고구려 부흥운동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위의 다-3)의 석문 전투를 통해 신라의 태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신라군은 석문전투에서 패하자 곧바로 신라로 퇴군해 버렸다. 오골성 전투에

66)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하 11년 7월조.

서 설오유 부대가 부근의 백성에서 항전하며 전력을 가다듬은 태도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렇게 패배해 돌아간 장수들에 대해 신라에서는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았다.⁶⁷⁾ 이는 신라가 670년 대당전쟁 초반과는 달리 고구려 부흥군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고구려 부흥군은 4년에 걸쳐 계속된 전쟁과 신라의 형식적인 지원으로 인해 패배를 거듭하게 되면서 차츰 남쪽으로 밀리게 되었다.

신라는 백제고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 뒤에는 고구려 부흥군을 적절한 선에서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들이 여전히 고구려 고지에 존속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신라의 변경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⁶⁸⁾ 이를 위해 서서히 고구려 부흥운동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한편 형식적인 선에서 원병을 지원하였을 것이다. 위의 다-5)를 보면 다음 해인 함형 4년(673) 윤 5월에는 이미 황해도 지역을 거의 상실하고 임진강 유역의 호로하까지 밀리고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 부흥군은 호로하 부근에서의 전투에서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자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5)에서는 이 전투로 수천 명이 사로잡혔다고 하였으며, 나-2)에서는 죽거나 사로잡힌 수가 1만이라 하였다. 이 패배

67) 김유신은 아들인 원술이 이 전투에 참가했다가 도망해 오자 왕명을 욕되게 하고 가훈을 저버렸으므로 목을 베려고 하였다. 이에 문무왕은 원술이 비장이며, 혼자에게만 중한 형벌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하며 반대하였다(『삼국사기』 권43, 열전 김유신 하). 이로 볼 때 패배해 도망해온 신라장수들에게 어떠한 벌도 시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68) 설인귀 답서에서 문무왕은 웅진도독부를 공격하게 되는 명분이 100년 후에는 그들에 의해 신라가 병합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강조하였다. 신라는 6세기 중반 한수유역을 차지한 후 북으로는 고구려, 서남쪽으로는 백제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수와 당과의 외교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특히 진덕여왕대에 김춘추의 교섭으로 당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고 연호를 쓰고 당의 의복제도를 도입하면서 제후의 예를 취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이었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 한 뒤 이번에는 당으로부터 자립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는 신라에서 고구려 부흥국이 신라의 북쪽 국경에 존재하는 것을 용인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후 살아남은 고구려 부흥군은 신라로 들어가게 되었다. 669년 검모잠의 거병과 한성의 고구려국 재건에서 시작된 고구려 고지에서의 유민항쟁은 673년까지 격렬한 저항을 거듭하다 실패하고 신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후 당군과의 전쟁은 신라군이 주도하게 되면서 나당 사이의 전쟁이 본격화되었다.

4. 금마저 고구려국의 활동과 멸망

670년 6월경 금마저로 간 안승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신라의 승인하에 그곳에서 고구려국을 재건하였다.⁶⁹⁾ 안승 집단이 금마저에서 자치국을 허락받게 된 것은 그 정착과정 중에 발생한 신라의 웅진도독부를 비롯한 백제고지 82성을 취한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신라는 이에 대한 포상과 문책을 하는 시점에서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였다. 이는 안승이 이 전쟁에서 어느 정도 공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⁷⁰⁾ 설인귀가 문무왕에게 보낸 편지에 쓰인 밖에서 강한 군사를 끌어들이었다는 표현⁷¹⁾과 관련지으면 안승은 신라로 갈 때 어느 정도 군사력을 갖춘 상태였을 것이다.

670년 8월 신라는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함으로써 여전히 그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대표하고 있음을 승인하였다. 안승은 고구려 고지에서 대당전쟁을 벌이고 있는 부흥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

69) 신라가 안승과 고구려 유민들을 백제고지인 금마저로 안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웅진도독부와 백제유민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이기백, 『통일신라와 발해의 사회』, 『한국사 강좌 고대편』, 일조각, 1982, 299쪽 ; 김수태, 앞의 논문, 1994, 347~348쪽 ; 조법중, 「고구려유민의 백제 금마저 배치와 보덕국」, 『한국고대사연구』78, 2015, 113~114쪽). 한편, 당의 신라 침공을 대비해 금강일대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신은이, 앞의 논문, 2010, 11쪽)도 있다.

70) 신은이, 앞의 논문, 2010, 14쪽.

71)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하 11년 7월조.

사할 수는 없었지만, 금마저에서 국가로서의 위상과 체제를 갖추어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일본서기』에 보이는 ‘고려사(高麗使)’파견 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라-1) 천지천황 10년(671) 정월, 정미에 고려가 상부(上部) 대상(大相) 가루(可婁) 등을 보내 조를 올렸다.⁷²⁾

라-2) 천무천황 원년(672) 5월, 무오에 고려가 전부(前部) 부가변(富加旆) 등을 보내 조를 올렸다.⁷³⁾

라-3) 천무천황 2년(673) 8월, 계묘에 고려가 상부 위두대형(位頭大兄) 감자(邯子)와 전부 대형 석간(碩干) 등을 보내 조공하였다. 신라는 한나말(韓奈末) 김리익(金利益)을 보내 고려의 사신을 축자(筑紫)까지 보냈다.⁷⁴⁾

위 『일본서기』에 보이는 고려 사신은 금마저의 안승집단이 파견한 사신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⁷⁵⁾ 이미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직후에 고구려 혹은 고려를 칭할 수 있는 집단은 금마저에 정착한 안승의 고구려유민집단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의 라-1)을 보면 고구려에서 일본으로 사신을 보낸 것은 671년 정월이었다. 금마저에서 일본으로 가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670년 말 경에 출발했을 것이다.⁷⁶⁾ 670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안승이 금마저에 정착하고 8월 1일에 신라에서 고구려왕으로 책봉되었던 시기를 고려한다면 일본으로의 사신파견은 빠른 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된 인물들의 관등은 대상, 위두대형 등 상위 오관등 이상의 인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앞의 가-2)를 보면 한성에서 안승이 왕이 된 뒤에 신라에 사신으로 파견된 다식이 10관등인 소

72) 『일본서기』 권27, 천지천황 10년 정월조.

73) 『일본서기』 권28, 천무천황 원년 5월조.

74) 『일본서기』 권29, 천무천황 2년 8월조.

75) 村上四男, 앞의 논문, 1966, 30~31쪽.

76) 최재도는 대외 교섭을 월별로 분석해 고려사가 파견된 계절의 이동 시간을 추정했는데 정월에 도착한 1차 고려사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출발해 북풍의 영향을 받아 짧은 시일이 걸린 것으로 보았다(앞의 논문, 2015, 161~162쪽).

형이었던 반면, 왜에 파견된 가루는 4관등인 대상이었고, 감자는 5관등인 위두대형이었다. 또한 다식은 부명을 칭하고 있지 않은 반면, 일본에 파견된 고구려 사신들은 상부, 전부 등 부명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금마저의 고구려국은 그를 따라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고구려식의 관등체계를 정비하고, 5부도 재편해 나갔던 것이다. 또한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외교업무도 개시하였다.

위의 사실로 볼 때 한성의 고구려국에서는 고구려 부흥을 위해 안승을 왕으로 세웠으나 이는 부흥운동을 이끌기 위한 상징적인 대표라는 의미만 있었을 뿐 국가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우선 시간의 부족을 들 수 있는데, 안승이 왕위에 오른 지 오래지 않아 당의 군대가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파병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불안정한 요소를 안고 있는 고구려 부흥국으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인 군사력과 유민 통합이 더 중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몇 직책 외에는 고구려 멸망 이전의 지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금마저에 정착하게 되면서 안승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서둘러 고구려국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는 고구려 고지에서 활약하는 부흥군보다 유리한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더욱이 금마저는 백제 말기에 일종의 부도와 같은 위상을 지닌 곳이었다. 삼국시대 최대의 사원이었던 미륵사 유적이거나 왕궁리의 궁성이 있던 곳이다.⁷⁷⁾ 그러므로 많은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국가 체제를 갖추기 좋은 상황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그를 따라온 인물들이 고구려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에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를 가능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에서는 이러한 고구려국의 변모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1)과 라-2)의 672년까지 일본

77) 임기환, 앞의 논문, 2009, 315~308쪽.

으로의 사신 파견은 신라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⁷⁸⁾ 이는 금마저로 고구려국의 본거지를 옮기고자 했던 신라의 입장에서는 고구려 고지에 남아 대당항전을 벌이는 고구려인들에게 신라의 우호적인 모습을 선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다. 또한 당시 금마저의 고구려국에 정착한 안승 집단이 먼저 국가 체제를 정비해 그들의 자리를 안정시키면 이후 고구려 부흥군이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유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673년 말 당과의 항쟁에 실패한 고구려 부흥군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는 본격적인 나당전쟁을 앞둔 신라의 제안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당군에 패해 많은 군사를 잃었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고구려부흥군의 전력은 본격적인 나당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한 구백제지역을 통제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신라군의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 고구려 부흥군은 자립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금마저로 가게 되었을 것이다. 안승을 다시 왕으로 받아들이기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이들이 처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금마저의 고구려국에는 먼저 와서 자리를 잡은 안승과 그 무리들에 의해 이미 그들 중심의 체계화된 정치 조직이 갖추어져 있었을 것이다. 뒤늦게 합류한 부흥군은 전쟁에서의 실패로 인해 주도권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 역시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78) 금마저의 고구려국의 대외 사절 파견에 대해서는 청병이 주목적이라는 설(노태돈, 「대발해 일본국서에서 운위한 ‘고려구기’에 대하여」, 『변태섭 화갑기념사학논총』, 1985, 619쪽)과 초기에는 청병이 목적이었으나 신라에 대한 외교지원 목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설(임기환, 앞의 글, 2003, 312~313쪽), 신라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는 설(김은숙, 「백제부흥운동 이후 천지조의 국제관계」, 『일본학』 15, 1995, 178쪽) 그리고 신라의 對外國 관계 강화가 주목적이라는 설(김수태, 앞의 논문, 1994, 348쪽 ; 村上四男, 앞의 글, 1978, 62~66쪽, 350쪽)이 있다.

마-1) (문무왕 14년(674) 9월) 안승을 보덕왕(報德王)으로 봉하였다. (문무왕) 10년(670)에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봉하였는데 지금 다시 봉한 것이다. ('보덕'이란 말은 귀명(歸命)한다는 말과 같은 뜻인지 혹은 땅이름인지 모르겠다.)⁷⁹⁾

마-2) (문무왕 20년(680)) 3월에 금은으로 만든 그릇과 여러가지 채색 비단 100단을 보덕왕 안승에게 내려주고 왕의 여동생(또는 잡찬 김의관(金義官)의 딸이라고도 하였다.)으로 아내를 삼게 하였다.⁸⁰⁾

마-3) (신문왕) 3년(683) 겨울 10월에 보덕왕 안승을 불러 소관으로 삼고 김씨의 성을 두어 왕경에 머물게 하고 훌륭한 집과 좋은 토지를 주었다.⁸¹⁾

마-4) (신문왕) 4년(684) 11월에 안승의 족자되는 장군 대문(大文)이 금마저에 있으면서 반역을 도모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남은 무리들은 대문이 목베어 죽는 것을 보고서 관리들을 죽이고 읍을 차지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군사들에게 명하여 이를 토벌하였는데, 맞서 싸우던 당주 핏실(溟實)이 전사하였다. 그 성을 함락하여 그 곳 사람들을 나라 남쪽의 주와 군으로 옮기고, 그 땅을 금마군으로 삼았다. <대문을 혹은 실복(悉伏)이라고도 하였다.>⁸²⁾

위의 마-1)의 기록을 보면 신라에서는 안승을 보덕왕으로 책봉하고 있다. 신라에서는 다시 한 번 안승을 고구려국의 대표로 승인함으로써 고구려 부흥군이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삼국사기』 찬자인 김부식은 보덕왕의 보덕을 귀명(歸命)으로 보아야 할지 땅이름으로 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미 고려시대에 이르면 이들에 대한 기억은 잊힌 상태였다. 금마저는 오늘날의 익산으로 그 건치연혁으로 볼 때 보덕이라는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땅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보덕을 한자로 풀이한 귀명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귀명은 귀순, 귀부한다는 의미이다. 즉 신라에 귀부한 왕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670년에 고구려왕으로 봉해졌던 안승을 다시 보덕왕으로 봉한 것은 그 의미로 볼 때 격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⁸³⁾ 문무왕이 안승에

79)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하 14년 9월조.

80)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하 20년조.

81)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3년조.

82)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4년조.

83) 노태돈은 신라가 670년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봉하여 이웃나라로서 형제처럼

대한 책봉호를 신라에 대한 종속성이 강한 명칭으로 바꾸게 된 것은 신라의 의도가 이전과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보덕왕은 신라의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로 안승 개인에 대한 압박이자 이곳 고구려 유민들에 대한 신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책봉호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그들의 독자성을 인정한 상태의 연합을 고수하였다면, 이후부터는 신라의 부용국으로서 대우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였다.

고구려 고지에서 격렬하게 치러졌던 고구려 부흥운동은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673년 무렵에는 거의 소멸되었다. 살아남은 많은 고구려인들은 신라행을 택하게 되고 차츰 금마저의 고구려국으로 모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 당시 고구려 부흥군을 이끌고 크게 활약했던 고연무도 금마저행을 택하였다. 이로 인해 금마저의 고구려 집단은 신라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신라 정부의 압박과 우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금마저의 고구려국은 새로이 합류하는 고구려 유민들로 인해 그 세력이 점차 증대되어 갔다. 이러한 모습은 일본으로 파견한 외교 사절의 다양한 소속부 표기에서도 확인된다. 674년 이후 파견된 고구려국의 사신 목록을 보면 고구려의 정치체제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점차 부가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⁴⁾ 그런데 신라는 고구려국의 자립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를 통제하였다. 이후 보덕국의 일본 사신행에는 반드시 신라 사신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다.⁸⁵⁾

선린관계를 맺자고 한 반면 674년 ‘보덕왕’으로 책봉한 것은 신라왕의 덕에 보답하는 왕이라는 뜻으로 번신으로서의 위치를 명백히 규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양의 글, 1997, 98쪽).

84) 서영교는 『일본서기』에 보이는 고구려의 대일외교 사절의 부명을 조사하면서 전후·상하·서남이라는 일률적이지 못한 부명이 공존하게 된 원인을 많은 유민이 보덕국으로 밀려오게 되면서 부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양의 논문, 2009, 234~237쪽)

85) 『일본서기』 권29 천무천황 2년 8월 계묘; 『일본서기』 권29 천무천황 5년 11월 정해; 『일본서기』 권29 천무천황 8년 2월 임자사; 『일본서기』 권29 천무천황

더욱이 신라는 점차 금마저 고구려국의 해체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 위의 마-2)를 보면 문무왕은 안승에게 누이를 시집보내 인척 관계를 맺었다. 이는 결혼을 통한 동맹의 확고한 징표로 볼 수도 있지만 안승을 금마저의 고구려민들과 분리하기 위한 선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마-3)에서 보이듯이 그 얼마 후인 683년 신라왕이 왕도로 부르자 그곳에서 벼슬을 하고 김씨성을 하사받고 집과 토지를 받아 진골귀족으로서 생활하게 된 것이다. 이때 안승은 더 이상 금마저 고구려국의 왕이 아니라 신라의 귀족으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신라에서 안승을 보덕왕으로 책봉했다는 사실로 인해 대개의 연구자들은 이 시기 신라 금마저에 있던 고구려 부흥국을 ‘보덕국’으로 칭하고 있다. 그러나 안승에 대한 책봉호가 고구려왕에서 보덕왕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국호마저 바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기록에서는 ‘보덕왕’, ‘보덕성’, ‘보덕성민’이라는 명칭은 보이나 ‘보덕국’이라는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보덕성’과 ‘보덕성민’이라는 언급도 안승이 신라의 귀족으로 왕경에 머무르게 되면서 금마저에 있던 고구려 부흥국이 해체된 이후에 언급된 명칭일 뿐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금마저의 고구려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원칙을 갖고 이를 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안승을 언급할 때는 반드시 ‘보덕왕 안승’이라고 언급한 반면, 그 외에는 고구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문무왕 20년 대장군 고연무가 신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을 때는 고구려왕이 보냈

9년 5월 정해 ; 『일본서기』 권29 천무천황 11년 6월 임술사.

673년부터 신라가 촉자까지 대일외교 사신을 호송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들의 대일외교활동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村上四男, 앞의 책, 1978, 350쪽 ; 노태돈, 앞의 논문, 1997, 12쪽 ; 양병룡, 앞의 논문, 1997, 54쪽 ; 임기환, 앞의 논문, 2003, 312~313쪽), 이 시기부터 신라를 지원하는 대일외교를 시작한 것으로 보는 견해(연민수, 『고대한일교류사』, 해안, 2003, 234~235쪽 ; 이재석, 앞의 논문, 2010, 44쪽)가 있다. 한편 당의 수군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사신단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앞의 논문, 2010, 43~44쪽)도 제기되었다.

다고 하고 있다.⁸⁶⁾ 이를 오키로 볼 여지도 있으나 다음의 표를 보면 그 원칙은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 신라의 9서당 설치시기와 대상

서 당	설치시기	대 상	비 고
녹금서당	진평왕 5년(583)	신라인	
자금서당	진평왕 47년(625)	신라인	
백금서당	문무왕 12년(672)	백제민	
비금서당	문무왕 12년(672)	신라인	長檣幢
황금서당	신문왕 3년(682)	고구려민	
흑금서당	신문왕 3년(682)	말갈인	
벽금서당	신문왕 6년(686)	보덕성민	
적금서당	신문왕 6년(686)	보덕성민	
청금서당	신문왕 7년(687)	백제 잔민	

위의 표는 신라의 군사조직의 하나인 9서당 설치에 대한 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9서당은 위의 표에 보이듯이 그 설치시기가 각각 다른데 신라의 성장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특히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문무왕 이후의 군 편성은 백제인과 고구려인들을 흡수함으로써 신라의 삼국통일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⁸⁷⁾ 백금서당은 백제인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시기가 문무왕 12년인 672년으로 웅진도독부를 폐하고 이를 신라에 편제시킨 이후였다. 반면 고구려인으로 구성된 황금서당은 신문왕 3년인 673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보덕국의 고구려 유민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신라사회에 편입된 고구려 유민들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견해⁸⁸⁾가 있다. 그

86)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하 20년 5월.

87) 노태돈, 「삼한에 대한 인식의 변천」, 『한국사연구』38, 1982, 136~137쪽

88) 임기환, 앞의 논문, 2003, 318쪽, 이인철은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포로들로 편성한 부대로 해석하는 견해(『고대국가의 군사조직과 그 운영』, 『강좌 한국고대사』 2, 2002, 335쪽), 서영교는 673년 호로하 전투 이후 신라로 향했던 고구려인들 가운데 안승과 다른 계열에 있던 고구려민들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견해(『통일기

러나 673년은 앞의 마-3)을 보면 신라에서 보덕왕 안승이 신라 귀족사회에 편입되면서 금마저 고구려국이 해체된 해이다. 이 무렵 고구려인으로 황금서당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들 고구려인은 안승과 함께 신라 왕경으로 이주한 금마저의 고구려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673년 부흥운동에 실패했던 고구려 유민들이 대거 신라로 들어왔던 시기가 아니라 10년 후 그것도 안승이 고구려왕의 자리를 버리고 신라의 귀족으로 자리잡는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에서 이들은 금마저의 고구려인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당시까지 금마저에서 안승을 왕으로 하는 고구려유민들은 여전히 고구려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국호도 고구려로 불리었을 것이다.

한편 금마저에 남아있던 고구려 유민들의 반란이 끝난 이후에 두 개의 당이 더 만들어지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보덕성민이라 하였다. 앞의 마-4)를 보면 안승의 죽자되는 장군 대문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남은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한다. 또한 대문의 처형 이후 이에 불만을 품은 남은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켜 읍을 차지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읍은 금마저의 고구려국이 있었던 지역일 것이다. 이는 안승이 신라의 귀족으로 편입되면서 금마저의 고구려국이 해체되는 수순을 밟아 신라의 지방행정 체제의 일개 읍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의 반란이 진압된 이후인 686년 보덕성민으로 이루어진 서당을 만들었다는 사실에서 이 읍은 신라 지방제도에서 성단위급이며 그 명칭이 보덕성이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황금서당은 안승과 함께 신라 왕경에 간 인물들을 중심으로 고구려인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여전히 금마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보덕성민으로 구분하여

신라의 백제지역 지배],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7, 345쪽), 한편 정선여는 황금서당의 구성원 중 일부는 안승과 함께 경주로 옮긴 보덕국의 주민들이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앞의 논문, 2013, 56~57쪽)를 제기했다.

그들의 저항을 신라 국토 내의 국내반란으로 치부하고자 하는 신라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문의 처형이 신라 관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신라에서는 이곳을 읍으로 전환하면서 이곳에 신라인 관리들을 파견하여 다스렸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금마저에 세워졌던 고구려유민들의 나라는 여전히 고구려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또 다른 사례가 앞서 언급했던 『일본서기』에 보이는 고려사신 파견기사로, 그들은 안승이 보덕왕으로 칭해진 이후에도 여전히 고려라는 국명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안승은 신라 정부의 지원에 의해 금마저 고구려국을 대표하는 왕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친신라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승의 이러한 정체성은 금마저 고구려국의 자립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신라는 당과의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전히 안정되지 않은 구백제 지역으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금마저의 고구려인들이 고구려의 제도를 유지하고 대외적으로 고구려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들의 대외외교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웅진도독부를 축출하고 당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면서 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때로는 금마저의 고구려국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연합전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급박한 대외적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자 신라에서는 보덕국의 해체를 준비했고 이러한 신라정부의 요구에 안승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국가를 해체하고 신라 왕경으로 가버린 것이다.

이러한 안승의 행적은 여전히 고구려 부흥을 꿈꾸었던 고구려유민들을 좌절시켰고, 마침내 다음 해에는 이들이 신라에 최후의 항거를 하게 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⁸⁹⁾ 보덕성의 반란은 작은 규모가

89) 보덕성 반란의 원인으로는 신라 신문왕의 의도적인 신라통치체제 내로의 편입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기록을 통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바-1) 文明 원년 甲申(신문왕4: 684)에 고구려의 남은 적이 보덕성(報德城)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신문대왕이 장수에 명하여 이를 치도록 하였는데 [취도의 동생] 핏실을 귀당(貴幢)의 제감(弟監)으로 삼았다. [핏실이] 출전에 임하여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나의 두 형이 이미 나라 일에 죽어 이름을 길이 남겼는데, 나는 비록 어질지 못하나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구차히 살겠소? 오늘이 그대와 살아서 헤어짐이요 결국 사별일 것이니 상심하지 말고 잘 있으시오.” 적진에 맞서자 홀로 앞에 나가 용감히 싸워 수십 명을 목베고 죽었다.⁹⁰⁾

바-2) [김]령운은 대대로 고관을 지낸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으므로 명예와 절개를 자부하였다. 신문대왕 때에 고구려의 남은 세력 실복이 보덕성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왕이 토벌을 명할 때에 [김]령운을 황금서당의 보기감(步驍監)으로 삼았다. 장차 떠나려 할 때 말하기를 “나의 이번 걸음에 나의 종족과 친구들이 나쁜 소리를 듣지 않게 하겠다.” 하였다. 실복이 가잠성(假岑城) 남쪽 7리에 나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어느 사람이 말하였다. “지금 이 흉악한 무리는 비유컨대 제비 천막 위에 집을 지은 것이고 솔 안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같으니 만번이라도 죽겠다는 각오로 나와서 싸우나 하루살이의 목숨과 같다. ‘딱다른 곳에 다다른 도둑을 급박하게 쫓지 말라.’ 하였듯이, 마땅히 좀 물러서서 피로가 극에 달함을 기다려 치면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장수들이 그 말을 그럴 듯하다고 여겨 잠깐 물러났다. 오직 [김]령운만이 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싸우려하니 그 따르는 자가 말하였다. “지금 여러 장수들이 어찌 다 살기를 염보는 사람으로 죽음을 아끼는 무리이겠습니까? 지난

시도로 인한 불만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김수태, 「신라 신문왕대 전제왕권의 확립과 김흠돌난」, 『신라문화』9, 1992, 19쪽 ; 한준수, 「신라 중대 당제수용과 통치체제의 정비」,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75쪽 ; 박명호, 「신라 중대 지배체제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54쪽), 고구려 유민으로서 계승의식을 지키고 보덕국의 자치권을 박탈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는 견해(임기환, 앞의 논문, 2003, 316~317쪽), 서영교는 이 시기 혜성의 출현과 연관해 이를 우려하게 되면서 신라정부에서 보덕성민의 반란을 유도한 측면도 있다고 보았다(앞의 글, 2009, 229~232쪽). 한편 이형민은 보덕성민의 반란을 1차 대문의 반란은 신라정부에 의해 안승이 왕경으로 소환되는 것에 대한 불만과 보덕성의 무장조직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에서 반란을 도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의 논문, 2011, 9쪽).

90) 『삼국사기』 권47 열전7, 취도

번의 말을 수궁한 것은 장차 그 틈을 기다려 그 편함을 얻고자 함인데 그대가 홀로 곧바로 진격하겠다고 하니 그것은 옳바르지 못합니다.” [김]령윤이 말하였다. “전쟁에 임하여 용기가 없는 것은 예기에서 경계시킨 바요, 진진이 있을 뿐 후퇴가 없는 것은 병졸의 뒤흔친 분수이다. 장부는 일에 임하여 스스로 결정할 것이 어찌 반드시 무리를 좇을 필요가 있겠는가?” 드디어 적진에 나가 싸우다가 죽었다.⁹¹⁾

위의 기록은 보덕성민의 반란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바-1)과 바-2)를 보면 이 반란의 규모와 영향이 작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보덕성민들의 반란을 진압한 이후에 이들로 두 개의 서당을 꾸릴 수 있었다는 것은 실제 금마저에 남아있던 고구려인들의 수가 안승과 함께 신라로 간 인원보다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673년 고구려 고지에서의 부흥운동이 좌절된 후에 신라로 들어왔던 인물들이 주를 이루었을 것이다. 위의 마-2)를 보면 이 반란군은 금마저를 벗어나 가잠성 부근까지 이르고 있으며, 신라에서는 이들 반란군 진압에 곤란을 겪으면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었다. 이러한 대규모적인 반란의 원인은 이들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들의 반란은 신라정부에서 고려했던 것보다 커다란 여파를 주면서 신라군을 위협했는데 이들의 반란이 그 지역에 남아있던 백제유민들과 연계되면서였을 것이다.⁹²⁾ 앞의 표 1에 보면 백제잔민으로 꾸려진 청금서당은 신문왕 7년인 687년에 꾸려지고 있다. 보덕성의 반란이 해결되고 나서 그들로 벽금서당과 적금서당을 꾸린 1년 뒤에 다시 백제잔민으로 서당을 만든 것은 백제유민들의 반란이 보덕성의 반란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91) 『삼국사기』 권47 열전7, 김영윤.

92) 이형민은 보덕성의 고구려 유민들이 백제 유민들과 결합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를 보다 자세하게 언급했다(앞의 논문, 2011, 29~33쪽). 다만 이들이 결합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불교계, 특히 보덕의 열반종과 관련해 설명해 놓았다. 그러나 금마저 고구려국의 존재 의미가 백제 유민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측면에서는 이들의 결합 이유로는 약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신문왕 6년(686)에는 석산현(石山縣), 마산현(馬山縣), 고산현(孤山縣), 사평현(沙平縣)의 4개현을 새로이 설치했는데 이곳은 구백제 지역으로 금마저에서 가잠성으로 추정되는 안성⁹³⁾ 사이의 주요 지역이었다.⁹⁴⁾ 실제 신라에서 전국을 9주 체제로 개편한 것은 전 해인 685년이었다. 이들 4개 지역만을 따로 다음 해에 설치한 것은 이 지역의 안정이 뒤늦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4개 현을 설치하면서 사비주는 군(郡)으로 웅천군은 주(州)로 삼고, 발라 주는 군으로 무진군은 주로 삼는 조치도 병행하였다. 주를 군으로 낮추는 조치를 취한 것은 그 지역민에 대한 차별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석산현이 부여군 소속이라는 점에서 반란이나 그에 유사한 반신라적 경향에 대한 차별성 조치라 할 수 있다.

보덕성의 반란이 진압되고 이들에 대한 사면조치가 취해진 것은 신문왕 4년(684)이었다.⁹⁵⁾ 그런데 위에 언급했듯이 백제 지역에 대한 조치는 2년 뒤인 686년에서야 시작되었으며, 백제잔민으로 구성

93) 가잠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경기도 안성으로 보는 견해(김태식, 「백제의 가야지역 관계사」, 『백제의 중앙과 지방』,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97, 77쪽 ; 이형민, 앞의 논문, 2011, 14쪽 ; 정선여, 앞의 논문, 2013, 49쪽) 경상남도 거창 지역으로 보는 견해(이병도, 앞의 책, 1977 ; 전용신 편, 『한국고지명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3, 3쪽 ; 신은이, 앞의 논문, 2010, 17쪽), 충청북도 괴산으로 보는 견해(井上秀雄, 『譯註 三國史記』1, 平凡社, 1984, 118쪽 ; 익산의 동편 지역으로 상정하는 견해(윤선태, 「무왕과 미륵사-익산의 역사지리적 환경과관련하여」, 『백제불교문화의 보고 미륵사』,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심포지엄, 2010, 63~65쪽) 등이 있다. 보덕성민들이 안성을 따라 경주로 가지 않고 금마저에 남은 이유는 여전히 고구려 부흥을 꿈꾸며 자립을 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의지가 신라 정부에 의해 꺾이게 되자 그들은 원래 자신들이 왔었던 고구려 고지로 돌아가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가잠성의 위치는 경기도 안성으로 볼 수 있다. 익산에서 고구려 고지로 가는 경로상에 위치한 안성은 서해안 수로를 이용하거나 육로를 통해 갈 수 있는 곳이다.

94)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6년 2월조. 석산현은 부여군 석성면, 마산현은 서천군 한산면, 독산현은 예산군 예산읍, 사평현은 당진군 신평면으로 비정되며(박명호, 앞의 논문, 2010, 158~159쪽), 모두 웅천주 소속의 현이자 군의 영현이다(이형민, 「앞의 논문, 2011, 31쪽).

95)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4년 11월조.

된 청금서당의 설치는 687년에야 이루어졌다. 이는 구백제 지역에서 신라에 대한 저항이 보덕성의 고구려인들의 반란보다 더 지속되었으며, 규모도 보다 컸음을 의미한다. 완산주나 남원소경은 9주가 정비되는 시기에 설치되는 것으로 보아 보덕성이 진압되면서 부근의 전주나 남원의 저항도 함께 정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부여주에 대한 조치나 나주로 추정되는 발라주에 대한 조치로 보아 지금의 전라남도과 충청남도 지역의 반란은 보덕성의 고구려인들을 진압한 이후에도 지속되었기 때문에 9주 정비 이후에 처벌성 조치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백제 유민들의 저항이 보덕성의 반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구백제 지역에서 일고 있던 반신라 감정으로 인한 불손한 움직임을 감지한 신라 정부에 의해 보덕성 반란을 계기로 이듬해 정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보덕성의 고구려인들이 안성까지 복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 백제 유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전제에서는 이들이 처음부터 연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시 신라의 신문왕은 680년에 즉위하였을 뿐 아니라 그 해에 김흠돌의 난을 겪으면서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었다.⁹⁶⁾ 그럼에도 683년 안승을 왕경으로 불러들여 벼슬을 주면서 서둘러 금마저 고구려국을 해체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신문왕의 조치는 구백제 지역에서 일고 있는 불손한 움직임을 간파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보덕성의 반란은 이에 대한 반작용이었을 것이다.

보덕성의 고구려인들은 신라 왕경인 경주가 아니라 북으로 향하였는데, 이는 자립을 위한 격렬한 저항이었을 뿐 신라 정부에 대한 반정부 투쟁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⁹⁷⁾ 이들이 향하고자 한 곳

96) 김흠돌의 난에 대한 연구는 김수태, 앞의 논문, 1992 ; 최홍조, 「신문왕대 김흠돌난의 재검토」, 『대구사학』, 1999 ; 박명호, 「신문왕의 교서를 통해 본 김군관의 정치적 성격 : 진골귀족의 관료화 시각」, 『한국사학보』31, 2008 참조.

97) 금마저의 고구려유민들이 가잠성으로 이동한 이유에 대해서 이형민은 보덕성민

은 고구려 고지로 한성이나 평양방면 이었을 것이다. 이미 당은 안동도호부를 완전히 평양에서 요동으로 옮긴 뒤였다.⁹⁸⁾ 그러므로 평양 부근은 당군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황폐한 지역으로 변모되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그곳 어딘가에 그들의 생존을 위한 터전을 잡기 위해 북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신라 정부에게는 북에서의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에 이들의 행보를 막아지게 되었고 결국 이들은 신라군에 참패하게 됨에 따라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금마저 고구려국의 존재와 소멸은 크게는 거대제국 당의 등장으로 인한 동아시아 변혁기의 산물이며 작게는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으로 신라가 자리매김하게 되는 과정의 하나였다. 무엇보다 고구려 멸망 후 그 유민들의 생존을 위한 지난한 투쟁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5. 맺음말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 고지에서는 당의 지배에 저항하는 유민들에 의해 부흥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이 검모잡과 안승의 세력이다. 검모잡은 안승을 한성에 맞아들여 왕으로 삼아 부흥운동을 전개하자 그 세력 확대를 경계한 당에서는 군대를 파견해 이들을 토벌하게 하였다. 이에 안승이 검

들의 반란이 가잠성과 보덕성 두 곳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보덕성에만 국한될 경우 고립되어 수단과 방법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웅천주 지역의 백제 유민들의 일정한 협조를 얻기 위한 것과 그들의 이전 활동 지역이었던 황해도 일대로 이동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앞의 논문, 2011, 14~15쪽)를 제기하였다. 정선여 역시 이들이 자신들의 옛 세력 근거지 및 활동 지역이었던 곳을 향해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서해안을 통해 요동 지역의 보장왕과 고구려 유민세력과의 결합까지도 예상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앞의 논문, 2013, 48~51쪽).

98) 당은 의봉 원년(676) 2월 안동도호부를 요동군 고성으로 옮기고, 다음 해인 2년(677) 신성으로 이치하였다(『구당서』 권39 지리지2, 하북도 안동도호부).

모잠을 살해하고 신라로 투항하자 670년 6월경 신라에서는 이들을 지금의 익산인 금마저에 안치시켰다. 신라에서 안승을 받아들여 금마저의 땅을 내주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은 그가 갖고 있던 명분상의 고구려부흥군의 수장이라는 위상이었을 것이다. 이는 웅진도독부를 두고 당군과 대립하고 있는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고지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들의 존재가 필요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을 신라에서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검모잠이 살해되고 안승이 신라로 투항한 뒤에도 673년까지 고구려 고지에서의 대당항전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평양을 비롯한 황해도 일대에서는 밀고 밀리는 접전이 이어졌는데 그 세력에 대해 『신당서』 고려전에서는 ‘평양의 패잔병’이라 하였는데, 이들의 주요 활동지역이나 세력 규모와 조직력으로 볼 때 한성 고구려국의 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뒤에 금마저의 고구려국에서 대장군으로 언급되는 고연무가 이들을 이끄는 수장으로 활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의 분열로 인해 한때 밀리기도 했지만, 고구려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당활동으로 인해 서둘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도움이 계속되고 있음도 이들이 다시 당군에 대한 항쟁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라가 웅진도독부가 있는 백제고지를 정복한 이후에 신라의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에 대한 지원은 점차 소극적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더욱이 당에서는 부흥운동 세력이 장기화되고 신라의 후원이 있음을 알고 신라에 대한 공방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자 고구려 부흥군은 점차 밀리게 되었다. 황해도 지역을 상실하고 임진강 유역의 호로하 전투에서 대패하게 되면서 이들은 신라로 향하게 되었고 고구려고지에서의 당군에 맞선 고구려 유민의 저항은 4년 만에 종결짓게 되었다.

금마저에 정착한 안승집단은 신라의 승인하에 국가로서의 위상과 체제를 갖추어 나갔다. 안승과 함께 한 무리들을 중심으로 고구려식의 관등체계를 정비하고 5부도 재편하였을 뿐 아니라 왜국으로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이는 고구려 고지에서 활동하는 부흥군보다 유리한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673년 대당항쟁에 실패한 후 신라에 합류한 고구려 부흥군 역시 금마저에 정착하게 되었다. 뒤늦게 합류한 부흥군은 전쟁에서의 실패로 주도권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이미 기득권을 잡고 국가체계를 꾸려놓은 금마저의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674년 신라는 안승을 보덕왕으로 새로이 책봉하였는데, 이는 안승에 대한 책봉호일 뿐 국호가 바뀐 것은 아니었다. 고연무가 신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안승이 신라 왕경으로 가서 귀족으로 정착하게 되었을 때 꾸려진 9서당의 하나인 황금서당의 구성원을 고구려인으로 지칭하거나, 왜국으로 사신으로 갈 때 고려를 칭하는 것에서 여전히 고구려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승을 보덕왕으로 책봉한 것은 이전과는 달리 금마저의 고구려국을 신라의 부용국으로 선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안승이 신라로 간 뒤 금마저의 고구려국은 해체되면서 신라의 지방체제로 흡수되는데 이때 금마저의 고구려인들이 터전을 잡고 있던 곳을 보덕성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들이 반란이 진압된 뒤에 황금서당과 달리 이들을 중심으로 두 개의 서당을 만드는데, 이들을 보덕성민이라 하였다.

보덕성에 남게 된 고구려 유민들은 신라에 반기를 들게 되었는데, 이들은 지금의 안성인 가잠성까지 진출해 신라에 대항하였다. 이들의 반란 규모가 컸던 것은 백제유민들과 결합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보덕성민들의 반란이 진압된 뒤에도 구백제 영역에서의 반란은 좀 더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 유민들의 반란이 이처럼 거세었던 것은 그들의 반신라 경향이 오래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구백제 영역의 분위기로 인해 신문왕은 금마저 고구려국의 해체를 서둘렀던 것으로 보인다.

보덕성에 잔류했던 고구려인들은 고구려 부흥이 좌절되자 고구려 고지로 되돌아가기 위해 북쪽을 향해 갔지만 결국 신라의 공격에 무너지게 되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금마저 고구려국의 존재와 소멸은 크게는 거대제국 당의 등장으로 인한 동아시아 변혁기의 산물이며 작게는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으로 신라가 자리 매김하게 되는 과정의 하나였다.

(원고투고일 : 2019.1.10., 심사수정일 : 2019. 2. 1, 게재확정일 : 2019. 2. 14)

주제어 : 안승, 금마저, 고구려 부흥운동, 고연무, 보덕왕, 보덕성



〈참 고 문 헌〉

1. 원전자료

『삼국사기』, 『신당서』, 『구당서』, 『자치통감』, 『책부원귀』, 『당회요』, 『자치통감고이』 『일본서기』

2. 저서

국사편찬위원회, 『중국정사조선전 2』, 국사편찬위원회, 1988.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출판부, 2009.
연민수, 『고대한일교류사』, 해안, 2003.
이기백·이기동, 『한국사강좌 1 고대편』, 일조각, 1982.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이상훈, 『나당전쟁연구』, 주류성, 2012.
전용신 역, 『역주 일본서기』, 일지사, 2002.
전용신 편, 『한국고지명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5..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권덕영 외,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井上秀雄, 『譯註 三國史記』1, 平凡社, 1980.

3. 논문

강경구, “고구려 부흥운동의 신고찰” 『한국상고사학보』 47(한국상고사학회, 2005); 89~113, <http://uci.or.kr/G704-000730.2005.47.47.003>

김갑주, “고구려의 멸망과 부흥운동” 『통일기의 신라사회연구』(대구: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7); 351~380.

김강훈, “고구려 멸망 이후 부여성 권역의 부흥운동” 『대구사학』 127(대구사학회, 2017); 39~78.

_____, “요동지역의 고구려부흥운동과 검모잠”, 『군사』99(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6); 1~38, <http://uci.or.kr/G704-001528.2016..99.010>

_____, “책성 권역의 고구려부흥운동과 고정문” 『역사교육논집』65(역사교육학회, 2017); 241~276.

김수진, “당경 고구려 유민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서울: 2017);

1~286.

김수태, “신라 신문왕대 전제왕권의 확립과 김흠돌난” 『신라문화』9(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2); 157~179.

_____, “통일기 신라의 고구려유민지배” 『이기백선생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 1. 고대편·고려시대편』(서울: 일조각, 1994); 328~355.

김은숙, “백제부흥운동 이후 천지조의 국제관계” 『일본학』15(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995); 144~189.

김태식, “백제의 가야지역 관계사 : 교섭과 정복” 『백제의 중앙과 지방』(대전: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97); 43~90.

노태돈, “삼한에 대한 인식의 변천” 『한국사연구』38(한국사연구회, 1982); 129~156.

_____, “5~7세기 고구려의 지방제도” 『한국고대사논총』8(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6)

_____, “대당전쟁기(669~676) 신라의 대외관계와 군사활동”, 『군사』34(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7); 1~17.

_____, “대발해 일본국서에서 운위한 ‘고려구기’에 대하여”, 『변태섭 화갑기념 사학논총』, 서울: 삼영사, 1985); 605~626.

박명호, “신라 중대 지배체제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서울, 2010); 1~228.

_____, “신문왕의 교서를 통해 본 김군관의 정치적 성격 : 진골귀족의 관료화 시각” 『한국사학보』31(고려사학회, 2008); 45~75,

<http://uci.or.kr/G704-000690.2008..31.001>

서영교, “신문왕대 보덕성민의 반란과 헬라혜성” 『인문학연구동권』78(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225~254, <http://uci.or.kr/G704-001795.2009.36.3.010>

_____, “통일기 신라의 백제지역 지배”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공주: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7); 316~345.

신은이, “보덕국의 건국과 그 의미” 경북대학교 석사논문(대구, 2010); 1~40.

_____, “보덕국의 탄생과 그 의미” 『대구사학』132(대구사학회, 2018); 237~273.

양병룡, “나당전쟁 진행과정에 보이는 고구려유민의 대당항쟁” 『사총』46(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97); 29~57.

- 윤선태, “무왕과 미륵사-익산의 역사지리적 환경과관련하여” 『백제불교문화의 보고 미륵사』,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심포지엄(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 이미경, “신라의 보덕국 지배정책” 『대구사학』 120(대구사학회, 2015); 101~131, <http://uci.or.kr/G704-000893.2015.120..006>
- 이상훈, “검모잠의 최초 거병지 검토”,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노태돈 교수정년기념논총2)』(사계절, 2014); 60~77.
- 이선호, “고구려 유민사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서울, 2000); 1~82.
- 이재석, “7세기 후반 보덕국의 존재 의의와 왜국” 『일본역사연구』31(일본사학회, 2010); 35~52, <http://uci.or.kr/G704-001807.2010..31.004>
- 이정빈, “고연무의 고구려부흥군과 부흥운동의 전개” 『역사와 현실』72(한국역사연구회, 2009); 131~157, <http://uci.or.kr/G704-000054.2009..72.012>
- 이형민, “신문왕대 보덕성민의 반란과 신라의 대응”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대구, 2012); 1~41.
- 임기환, “고대국가의 군사조직과 그 운영” 『강좌 한국고대사』2(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2)
- _____, “보덕국고” 『강좌한국고대사』10(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281~320.
- 전준현, “670년에 재건된 ‘고구려국’에 대한 연구” 『역사과학』82-2(사회과학출판사, 1982); 36~39.
- 정선여, “신라 신문왕대 보덕국민의 반란” 『역사와 담론』66(호서사학회, 2013); 35~68. <http://uci.or.kr/G704-001545.2013..66.002>
- 정원주, “당의 고구려 지배정책과 안승의 행보” 『한국고대사탐구』29(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8); 75~118.
- 조법중, “고구려유민의 백제 금마저 배치와 보덕국” 『한국고대사연구』78(한국고대사학회, 2015); 97~138, <http://uci.or.kr/G704-000848.2015..78.008>
- 조인성, “고구려의 멸망과 부흥 운동의 전개”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7); 309~325.
- 최재도, “한성의 고구려국 재검토” 『동북아역사논총』47(동북아역사재단,

- 2015); 139~169, <http://uci.or.kr/G704-002002.2015..47.001>
- 최홍조, “신문왕대 김흠돌난의 재검토” 『대구사학』(대구사학회, 1999); 29~66.
- 한준수, “신라 중대 당제수용과 통치체제의 정비”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서울, 2010); 1~212.
- 新藏正昭, 「天智朝の對外關係と小高句麗」, 『日本書紀研究』20, 塙書房, 1996.
- 井上直樹, 「高句麗遺民と新羅—七世紀後半の東アジア情勢—」 『東洋史研究』75-1, 2016.
- 池内宏, 「高句麗滅亡後の反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12, 1927(『滿鮮史研究』上世第二册, 吉川弘文館, 1960).
- 村上四男, 「新羅と小高句麗國」, 『朝鮮學報』37·38, 1966(『朝鮮古代史研究』, 開明書院, 1978).



<Abstract>

Anseung(安勝)'s Direction during the period of the Revival Movement of Goguryeo

Jung, Weon-joo

After the fall of Goguryeo, the revival movement of former Goguryeo took place in ex-Goguryeo territory, the most well-known is the revival Goguryeo kingdom, which was conducted in Hanseong by Geommozam(검모잡) and Anseung(안승). The Tang Dynasty sent Gogan(고간) as its army commander to punish them, Anseung killed Geomozam and surrendered to Silla, and Silla placed them in Geummajeo(금마제), now Iksan(익산). The period was around June 670, and in July, Anseung was appointed as King of Goguryeo by the King of Silla. Silla fought against Tang Dynasty by force to defeat Unjin Dodokbu(웅진도독부) and was supporting Goguryeo in Hanseong(한성). However, as its influence expanded to the Yalu River(압록강) basin zone, Geomozam was killed in a conflict between the Geomozam factions, which wanted to move to Pyongyang(평양), the capital of former Goguryeo, and the Anseung forces that wanted to move to Silla during the war with Tang Dynasty. This seems to be the first suggestion from Silla to go to Geummajeo, judging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control the 'Hanseong Goguryeo' government located if its base moved to Pyongyang. Silla appointed Anseung, who settled in Geummajeo, as king of Goguryeo, in order to justification for controlling the revivalist forces, which is fighting against the Tang Dynasty in Goguryeo's old territory.

Geomozam was killed and Anseung went to Silla, but the revival movement in former Goguryeo's Territory was fierce until 673. In particular, there were push-and-pull battles in the area of

Hanganghae province(황해도) including Pyongyang, the group of resistance in which was called "the remnants of Pyongyang" in Chinese historical records, which can be regarded as the forces of Hanseong Goguryeor in terms of their major activity area, size and organizational. Goeyeonmu(고연무), who was known as a general in Goguryeo of Geummajeo, appears to have been the leader of the group. Despite the loss of Liaodong Tu-Hu-Fu(안동도호부) in Pyongyang due to the division of the leadership, they seem to have been able to get over the crisis in haste because of their activities against the Tang Dynasty in Goguryeo. The continuing aid of Silla could have made them continue to fight against Tang Dynasty army. However, after Silla conquered Baekjae's old territory with Unjin Dodokbu, Silla's support for the Goguryeo revival movement group was gradually shifting to a formal and demonstrative manner. Moreover, the Goguryeo revival army gradually retreated to the south as it became more aggressive in its fight against Silla and its crackdown on them after learning that the revival movement was prolonged and connected with Silla in the Tang Dynasty. As they were headed for Silla after losing the Hanganghae Province and defeating the Battle of Horoha(호로하) along the Imjin River(임진강) basin, Goguryeo revival movement group's fighting against the Tang army in Goguryeo's Old Territory came to an end in four years.

The Anseung group settled in Geummajeo reshuffled the Goguryeo-style system of lanterns and reorganized it into a five-part system and established its status as a state. They also began diplomatic affairs by sending envoys to Japan. After the revival movement in Goguryeo's former Territory failed in 673, its group was not able to take the lead in Geummajeo due to the power of Anseung, which was already in place. Silla appointed Anseung as the King of Bodeok in 674, which means that his kingdom has been downgraded to Silla's vassal. But the names of

the kingdom still seems to have been called Goguryeo, considering the names used externally.

Silla brought Anseung to Gyeongju(경주) in 683 and incorporated him as a member of the Jingol nobility, disbanding Geummajeo's Goguryeo Kingdom and absorbing it into the local control system of Silla named Bodeok Fotress(보덕성). There was a revolt in Bodeok Fortress, and the rebellion expanded in conjunction with the Baekje Epitaph. The Goguryeo Epitaph of Bodeok Fortress advanced to Gajam Fortress(가잠성), the region of Anseong at this moment, and resisted Silla, but failed. Baekjae Epitaph's resistant continued event after the breakup of the rebellion in Bodeok Fortress, We can know from the records that the local system for its Old Territory was establish and they were reorganized into the Nine Seodang Guard system after a year or two later. Given the scale of Baekjae Epitaph's resistant, the anti-Silla tendency seems to have been formed for a long time. The Silla government, which grasped the atmosphere of the Baekje Old Territory, rushed to dismantle the Goguryeo of Geummajeo in haste, and the reaction could be seen as the rebellion of Bodeok Fotress' s Goguryeo Epitaph combined with the Baekje Epitaph. As the rebellion of Bodeok Fotress's Goguryeo Epitaph was subdued by Silla, their traces disappeared into history.

Key words : Anseung(安勝), Geummajeo(金馬渚), the revival movement of Goguryeo, Goeyeonmu(高延武), the king of Bodeok, Bodeok Fotress(報德城)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0, pp.93-123
<https://doi.org/10.29212/mh.2019..110.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후삼국 통일전쟁과 운주전투

신성재*

1. 머리말
2. 왕건과 궁준의 1차 운주전투
3. 왕건과 견훤의 2차 운주전투
4. 맺음말

1. 머리말

고려와 후백제가 주도하던 후삼국 통일전쟁은 920년 후반대로 접어들면서 전방위적인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다. 내륙의 요충지는 말할 것도 없고 서남해의 해안·도서 지방에서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였다. 경북지역 교통의 요지인 안동·대구·구미 일대와 바닷길로 통하던 서남해역 나주, 남해안의 전략거점 진주지방, 충청지역에 위치한 공주·청주·아산·홍성 등은 그 치열한 전투의 공간이었다. 이 중에서 충청

* 해군사관학교 軍史戰略學科 교수

지역에 위치한 지방은 고려와 후백제가 군사적으로 접경지대를 형성하던 곳이었다. 따라서 장기간 대치 정국이 조성되는 가운데 현지의 유력자 포섭과 지배권 장악을 둘러싸고 대소 규모의 전투가 발생하였다.

후삼국 통일전쟁 기간 동안 충청지역에서 발발한 의미 있는 전투를 꼽는다면 단연 운주전투(運州戰鬪)를 빼놓을 수 없다. 문경현은 일찍이 이 전투의 중요성과 파급 효과에 주목하여 공산전투(公山戰鬪)·고창전투(古昌戰鬪)와 더불어 후삼국 통일전쟁의 3대 전투로 명명하였다.¹⁾ 운주전투가 후삼국 통일전쟁의 흐름에 분수령이 될 정도로 결정적인 전투였음을 시사하는 견해가 아닐 수 없다.

운주전투가 이처럼 중요한 전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성과는 많지 않다. 고려 건국기부터 근대까지 운주지방의 변화상을 정리한 글 속에서 거론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²⁾ 후삼국 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운주지방의 동향과 역할, 현지 세력이었던 공준(恭俊)의 활동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언급되기도 하였다.³⁾ 또 공준이 왕건과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운주지방이 주요 거점 도시로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추적한 성과 속에서 전투 내용이 소개되기도 하였다.⁴⁾ 근래에는 이 시대 전쟁을 다룬 학술서와 대중 서적들이 출간됨에 따라 전투의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⁵⁾ 전쟁사적 차원에서 전문으로 작성한 논고도 제출되었다.⁶⁾ 이에 따라 후

1) 文暉鉉, 『高麗太祖의 後三國統一研究』, 螢雪出版社, 1987, 137쪽.

2) 윤용혁, 「지방제도상으로 본 홍주의 역사적 특성」 『홍주문화』 13, 홍성문화원, 1997.

3) 김갑동, 「고려초기 홍성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史學研究』 74, 韓國史學會, 2004.

4) 윤용혁, 「나말여초 洪州의 등장과 運州城主 恭俊」 『한국중세사연구』 22, 한국중세사학회, 2007.

5) 이도하, 『궁에 진회 왕건과 열정의 시대』, 김영사, 2000; 임용한, 『전쟁과 역사 - 삼국편』, 해안, 2001; 류영철,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景仁文化社, 2004; 문안식, 『후백제 전쟁사 연구』, 해안, 2008;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해안, 2014; 이도하, 『후삼국시대 전쟁 연구』, 주류성, 2015.

6)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공준의 역할」 『軍史』 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삼국시대 운주의 위상과 동향, 공준의 존재 양태와 운주전투에서의 역할, 전투의 전개 과정, 운주의 성장과 거점 도시화 과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검토 및 보완해야 할 점이 남아 있다. 후삼국 통일전쟁의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전투의 발발 배경과 영향, 전쟁사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왕건과 운주성주(運州城主) 공준, 왕건과 견훤이 927년과 934년 두 차례에 걸쳐 운주지방에 대한 지배권 장악을 둘러싸고 전투를 벌였던 전략적인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는 운주전투가 발발하던 시점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지상전과 해상전의 전개 양상을 두루 포괄해야만 전투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후삼국 통일전쟁 전체를 아우르는 안목에서의 서술이 요구된다. 운주전투의 전략적인 배경에 주목하는 문제의식과 선행 연구성과에 의지하여 1·2차 전투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⁷⁾

논지 전개는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927년에 발발한 제1차 전투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왕건과 공준이 벌인 전투의 전략적 배경을 후삼국 통일전쟁의 추이 속에서 정리한 다음 전투 이후 공준의 행보와 운주지방의 동향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3장에서는 왕건과 견훤이 벌인 934년 2차 전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백제 수군이 932년 가을에 고려의 왕도(王都)로 통하는 예성강 수역과 서해 중부 해역을 대대적으로 공략한 사실에 주목하여 전투의 전략적인 배경을 해상전의 전개 양상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이다. 또 전투의 진행 과정을 전술적인 측면에서 상세히 분석하고, 고려의 명장 유금필이 군사적으로 수행한 역할, 전투의 결과가 이후로 전개된 통일전쟁의 흐름에 끼친 영향도 살펴볼 것이다. 이 시대 전쟁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의 아낌없는 비판을 바란다.

7) 1·2차 전투의 명칭 구분은 윤용혁의 견해를 따른다(윤용혁, 앞의 논문, 2007, 15쪽).

2. 왕건과 공준의 1차 운주전투

후삼국 통일전쟁이 격화되어 가던 920년대 후반, 오늘날의 흥성 지방에 해당하는 운주에서 큰 전투가 발발하였다. 927년(태조 10) 3월에 발발한 1차 운주전투가 그것이다. 이 전투에는 고려 태조 왕건과 당시 운주 지방의 세력가로 활동하고 있던 공준이 최고 지휘관으로 참가하였다. 그런데 왕건과 공준이 벌인 1차 운주전투는 전투의 정황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고려사』 기록이나 『고려사절요』⁸⁾의 기록 모두 짝막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고려사』에 전하는 전투 기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신유일에 왕이 運州로 들어가 그 성주 兢俊을 성 아래에서 격파하였다.⁹⁾

독자들이 단출한 전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왕건이 927년 3월에 군사들을 동원하여 운주를 공격하였고, 이 과정에서 운주성주 공준이 거느린 군사들을 성 아래에서 격파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록상의 불비함은 자연스럽게 몇 가지 의문을 갖게끔 한다. 우선적으로 드는 의문은 왕건이 왜 운주지방을 정벌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또 다른 의문은 왕건이 운주를 정벌한 것이 927년 3월인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정벌을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마지막 의문은 전투가 끝난 뒤 공준이 보인 행보와 운주지방의 동향이다.

먼저 왕건이 왜 운주를 정벌하였는가에 대한 의문부터 풀어가보자. 이와 관련해서는 전투가 발발하기까지 나타나는 충청지역의 동향, 운주의 정치적 상황과 군사전략적 위상 등을 살펴보는 가운데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8) 『高麗史節要』 권1, 태조신성대왕 10년 3월, “王敗運州城主兢俊於城下”.

9) 『高麗史』 권1, 세가1 태조 10년 3월, “辛酉 王入運州 敗其城主兢俊於城下”.

선행 연구를 통해 잘 밝혀진 것처럼, 궁예가 집권하던 918년 6월까지 충청지역의 여러 지방들은 궁예정권의 영향력하에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충청지역이 궁예정권에 우호적이었던 것은 궁예가 세력을 확장하던 과정에서 이 지역의 세력가들과 공고한 인적관계를 맺고, 여러 지방들을 복속하면서 투항해온 세력들을 적극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궁예는 청주의 지방세력들과 정권을 수립하던 초기 단계부터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¹⁰⁾ 궁예정권이 충청지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남진공략을 추진한 것은 패서지역(溟西地域)을 확보하여 송악(松嶽)을 도읍으로 삼은 뒤부터였다.¹¹⁾ 관련 사서에서는 그 시기를 900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경신에 궁예가 태조에게 명하여 廣·忠·靑 3주와 唐城·槐壤 등을 정벌토록 하여 모두 평정하였다. 그 공으로 (태조에게) 아찬을 제수하였다.¹²⁾

궁예의 명을 받아 출정한 왕건이 900년에 정벌한 지역은 광주(廣州)·충주(忠州)·청주(靑州)·당성(唐城)·괴양(槐壤) 등지였다. 왕건이 정벌한 지방들 중에서 광주는 오늘날의 경기도 하남시 일대를 가리킨다. 충주는 당시 국원성(國原城)이 있던 곳이었다. 당성은 신라시대 이래 중국과의 해상교통에서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던 오늘날의 화성시 남양만 일대를 말한다. 왕건이 정벌한 여러 지방을 통해볼 때 궁예정권이 한강으로 통하는 경기도 중북부의 일부 지방과 서해와 바닷길로 연결되는 경기 남서부의 해안지방, 중부 내륙의 북쪽에 위치한 충주 지방 등을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 궁예와 청주 지방세력과의 공고한 인적 관계 형성은 다음 성과를 참조. 申虎澈, 「弓裔와 王建과 靑州豪族」 『中原文化論叢』 2·3, 忠北大中原文化研究所, 1999, 73~79쪽(申虎澈, 『後三國時代 豪族研究』, 개신, 2002, 323~330쪽).

11) 『三國史記』 권12, 효공왕 2년, “弓裔取溟西道 及漢山州管内三十餘城 遂都於松岳郡”. 申虎澈, 「弓裔의 政治의 性格」 『韓國學報』 29, 一志社, 1982, 42쪽.

12) 『高麗史』 권1, 세기1 태조 광화 3년, “庚申 裔命太祖 伐廣忠靑三州及唐城槐壤等郡縣 皆平之 以功授阿察”.

경기 일부 지역과 함께 궁예정권은 청주 지방과 오늘날의 괴산에 해당하는 괴양 지방도 복속하였다. 이 지방들은 모두 충청지역에 속한다.¹³⁾ 궁예가 정권 초기부터 충청지역에 속하던 주요 지방들을 석권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런데 이 시기 궁예정권의 영향력하에 들어온 지방은 군사적 위력에 의해서만 복속된 것은 아니었다. 현지의 유력자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회유와 포섭이 병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¹⁴⁾ 동일한 사실을 전하는 다른 사서에는 “겨울 10월에 국원(國原)·청주·괴양의 적수(賊帥) 청길(淸吉)·신훤(莘萱) 등이 성을 바치고 궁예에게 항복하였다.¹⁵⁾”고 기록되어 있다. 해당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세력가들이 궁예정권에 자진하여 항복해오던 사정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다.

그렇다면 운주지방도 이 시점에 즈음하여 궁예정권의 영향력하에 놓이게 되었던 것일까?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기 궁예정권이 정별한 지역적 범위에 운주지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충북지역에 해당하는 충주·청주·괴산 지방만이 언급되고 있을 뿐 그 이서(以西) 방면에 위치한 충남지역의 지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오늘날의 충남지역에 위치한 일부 지방이 궁예정권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 시점으로부터 4년이 지난 904년 즈음이 아닌가 추정된다. 904년, 궁예는 청주지방에 거주하던 인호(人戶) 1천을 철원으로 사민하면서 천도를 추진하였다.¹⁶⁾ 같은 시기의 기록을 보면 충남지역에서 활동하던

13) 조인성, 『태봉의 궁예정권』, 푸른역사, 2007, 193쪽. 이 중 괴산(괴양)은 오늘날의 충청지역에 속하지만 문경·상주 등과 친연성이 많은 지방이었다.

14) 金甲童, 「高麗建國期の 淸州勢力과 王建」 『韓國史研究』 48, 韓國史研究會, 1985, 36쪽.

15) 『三國史記』 권12, 효공왕 4년, “冬十月 國原靑州槐壤賊帥淸吉莘萱等 舉城投於弓裔”.

16) 『三國史記』 권50, 열전 궁예, “天祐元年 甲子 … 秋七月 移靑州人戶一千 入鐵圓城爲京”. 궁예정권이 904년에 철원으로 천도한 배경과 과정은 丁善溶, 「弓裔의 勢力形成 過程과 都邑選定」 『韓國史研究』 97, 韓國史研究會, 1997; 신성재, 「궁예정권의 철원 천도와 전쟁사적 의미」 『韓國史研究』 158, 韓國史研究會, 2012;

공주장군(公州將軍) 홍기(弘奇)가 투항하고 있음이 확인된다.¹⁷⁾ 공주장군 홍기가 자진하여 투항해온 기록은 공주를 비롯한 인접한 지방들 역시 궁예정권에 복속하던 분위기를 짐작케한다. 그러나 기록상 공주지방만이 언급되었을 뿐 인접한 천안이나 아산 등 운주와 인접한 지방들의 동향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궁예의 위사(衛士)로 활약했던 박술희(朴述熙)가 태안반도 북단에 위치한 해성군(槿城郡) 출신이고,¹⁸⁾ 마찬가지로 궁예의 치하에서 활동한 복지겸(卜智謙)이 면천군(沔川郡 : 당진) 출신인¹⁹⁾ 점을 감안하면 궁예정권의 영향력은 태안·당진이 위치한 충남 서해안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충남 서해안 지방의 동향이 이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들과 인접한 운주지방은 궁예정권에 복속되거나 그 영향력하에 있었던 것 같지 않다. 무엇보다도 운주가 궁예에게 복속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이 그렇다. 또 당시 지방사회를 이끌어가던 호족 세력들이 존립과 안위를 위해 정치적 항배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상황도 고려하면 궁예가 통치하던 기간 중 운주지방은 태봉(泰封)과 후백제 그 어느 정권에도 귀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인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²⁰⁾

운주지방이 특정 정권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918년 6월 궁예정권이 몰락하는 상황에서 마련되었다. 왕건이 거병하여 동년 8월에 고려를 건국하자 운주는 그동안 유지해온 독자적인 노선을 철회하였다. 공주를 비롯하여 인접한 지방들이 동요하면서 후백제 쪽으로 붙자 운주도

서금석, 「弓裔의 國都 선정과 國號·年號 제정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42, 한국중세사학회, 2015 참조.

17) 『三國史記』 권50, 열전50 궁예, “伐取尙州等三十餘州縣 公州將軍弘奇來降”.

18) 『高麗史』 권92, 열전5 박술희; 鄭淸柱,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1996, 120쪽.

19)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9, 충청도 면천군 산천. 면천군은 신라시대의 해성군을 말한다(鄭淸柱, 앞의 책, 1996, 126쪽)

20) 이에 비해 당시 운주지방이 궁예 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김갑동, 앞의 논문, 2004, 139쪽; 윤용혁, 앞의 논문, 2007, 9쪽).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계해일에 熊州와 運州 등 10여 군현이 叛하여 百濟에 붙었다. 전 시중 金行濤를 東南道招討使知牙州諸軍事로 임명하였다.²¹⁾

궁예가 실각하자 충청지역의 지방들이 보인 태도는 새롭게 등장한 고려를 대신하여 후백제를 선택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지역적 규모는 熊州(熊州 : 공주), 運州 등 10여 주현에 달하였다. 이는 궁예의 실각이라는 정변과 혼란이 접경지역의 호족들을 동요시켰기 때문으로, 후백제의 군사적 위협을 염려한 충청지역의 세력가들이 자신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²²⁾ 運州 역시 같은 정치적 선택을 하였다. 충청지역에 속한 여러 지방들이 후백제 쪽으로 선회하는 태도를 보이자 더 이상 독자적으로 존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運州의 호족들은 이들과 보조를 같이 하였다.

운주·운주 등 충청 접경지역의 호족들이 후백제 쪽으로 돌아서자 왕건은 군사적으로 토벌하는 강경책으로 맞섰다. 시중을 역임한 金行濤(金行濤)를 東南道招討使知牙州諸軍事(東南道招討使知牙州諸軍事)에 임명하여 아산과 공주 일대를 토벌하도록 하였다. 이는 왕건이 충청지역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金行濤를 파견한 이듬해 919년 8월, 왕건은 貴孫과 반역 사이를 오가던 淸州지방에 행차하여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烏山城(烏山城)을 禮山縣(禮山縣)으로 고치고 대상 애선(哀宣)·홍유(洪儒) 등으로 하여금 지역 유민 500여 호를 안집하도록 하였다.²³⁾ 아산과 예산 일대에 집중된 왕건의 정벌활동은 그 이후로도 이어졌다. 925년 10월, 왕건은 庚黔(庚黔)

21) 『高麗史』 권1, 세가1 태조 원년 8월, “癸亥 以熊運等十餘州縣 叛附百濟 命前侍中金行濤 爲東南道招討使知牙州諸軍事”.

22) 윤용희, 앞의 논문, 2007, 9쪽.

23) 『高麗史節要』 권1, 태조 2년 8월.

彌)을 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에 임명하여 연산진(燕山鎮 : 충북 문의)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유금필은 이 전투에서 후백제의 장수 길환(吉喚)을 죽이고, 임존군(任存郡 : 예산군 대흥)마저 공격하였다. 그는 임존군 전투에서 후백제군 3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는 전과를 올렸다.²⁴⁾

왕건은 충청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벌전으로 건국 초기에 후백제 쪽으로 선회하였던 내륙의 공주지방과 서해의 아산만과 연결되는 예산·아산 지방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왕건의 집념 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백제를 선택한 운주지방의 항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 같다. 기존 연구에서는 유금필군이 임존성을 함락한 것을 두고 고려가 내포지방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성공하고, 운주 또한 고려측의 사정권하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²⁵⁾ 운주가 고려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상황이라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과연 운주가 고려의 영향권에 들어간 것인지는 의문이다. 고려가 1차 운주전투가 발발하던 927년 시점까지 아산과 그 주변 지방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운주 일대는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최후의 방책으로 이 지방을 정벌하는 군사활동을 벌였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점은 왕건이 927년에 1차 운주전투를 계획한 목적이 이 지방을 복속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일깨워준다. 따라서 왕건은 회유나 포섭을 시도하기보다는 운주성을 격파하는 전투를 벌였던 것이다.

왕건과 궁준이 벌인 1차 운주전투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점은 왜 하필이면 927년 3월에 전투가 발발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고려가 해상과 육상을 무대로 추진하던 전쟁 수행전략과 연관성이 있지 않았나 여겨진다. 아래 기록을 통해 그 전략적인 배경을 유추해봄직하다.

24) 『高麗史』 권1, 세가1 태조 8년 冬 10월; 『高麗史』 권92, 열전 5 유금필.

25) 김갑동, 「百濟 이후의 禮山과 任存城」 『百濟文化』 28,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999, 236~237쪽.

여름 4월 임술일에 해군장군 英昌과 能式 등을 보내어 舟師를 거느리고 가서 康州를 공격하게 하였다. (원정군은 轉伊山·老浦·平西山·突山 등 4개 鄉을 함락시키고 사람과 물자를 노획하여 왔다.²⁶⁾

위는 1차 운주전투가 있던 927년 3월 바로 다음 달에 나오는 기록으로 강주(康州 : 진주)를 대상으로 벌인 고려의 수군활동이 주목된다. 왕건이 파견한 해군장군 영창(英昌)과 능식(能式) 등은 원정군을 거느리고 강주와 그 남단에 위치한 여러 도서지방을 정벌하고 귀환하였다. 왕건이 수군을 동원하여 강주를 원정한 것은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호족들을 포섭하면서 경남 해안지방과 경북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병참운송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²⁷⁾ 그 전략적 목표는 보기병과 수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경남 강주와 경북 내륙 지방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병참운송망을 구축함으로써 신라 방면으로 향하던 후백제의 군사활동을 억제하고, 후삼국 통일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²⁸⁾

이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군활동을 추진하기 불과 1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왕건은 운주를 정벌하는 군사활동을 단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운주 정벌이 강주를 원정하던 수군활동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아마도 그것은 경상 지역 병참운송망 구축을 통해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던 왕건이 그와 같은 전략적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운주지방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군사활동을 벌였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왕건이 운주를 정벌하던 927년 이전까지 이 지방은 고려에 복속된 상태가 아니었다. 왕건이 918년에 고려를 건국하자 후백제를 지지하는 방향으

26) 『高麗史』 권1, 세가1 태조 10년, “夏四月壬戌 遣海軍將軍英昌能式等 率舟師往擊康州 下轉伊山老浦平西山突山等四鄉 虜人物而還”.

27) 신성재, 「고려와 후백제의 공산전투」 『한국중세사연구』 34, 한국중세사학회, 2012(『후삼국 통일전쟁사 연구』, 해안, 2018, 37쪽).

28) 위와 같음.

로 정치적 노선을 바꾼 곳이었다. 운주가 후백제의 영향권하에 있던 상황은 수군으로 강주 원정을 추진하던 왕건에게 군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였음직하다. 왕건이 당면하고 있던 군사적 부담은 운주와 인접한 해안 지방을 복속함으로써 해소될 것이었다. 해륙상의 주요 전략거점을 둘러싸고 전개되던 후삼국 통일전쟁의 흐름 속에서 왕건은 927년 3월에 운주를 정벌하는 군사활동을 벌였던 것이다.

한편 1차 운주전투 이후로 나타나는 공준의 정치적 행보와 운주 지방의 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점이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운주성주 공준은 운주지방에 도착하면서 이 지역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호족이었다.²⁹⁾ 이에 주목해보자면 운주성주라는 직함은 중앙정부에서 부여한 것이 아닌 당시 운주지방을 지배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공준이 자칭하였을 가능성이 있다.³⁰⁾ 운주지방의 실력자 공준은 927년 왕건과의 운주성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그런데 전투 이후 그의 종적은 한동안 묘연하다. 그의 이름이 다시금 사서에 등장하는 것은 후삼국 통일전쟁의 최후 결전으로 알려진 936년 일리천전투에서였다.³¹⁾ 이 전투에서 공준은 대상(大相)의 관계(官品)을 띠고 명주(溟州 : 강릉) 지역의 최대 호족인 왕순식(王順式)과 함께 고려군의 중군(中軍) 소속 기병 2만을 지휘하는 장수로 출전하고 있다.³²⁾ 공준이 936년에 대상의 관품을 지니고 일리천전투에 참가한 것을 보면 어느 시점엔가 후백제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왕건에게 귀부하여 고려의 권력구조하에서 일정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음을 짐작케한다.³³⁾

공준이 고려에 귀부한 시점이 언제였는지 명확하게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왕건이 공준의 군사들을 격파하여 운주성을 확보하고,

29) 윤용희, 앞의 논문, 1997, 23쪽.

30) 윤용희, 앞의 논문, 1997, 25쪽.

31) 『高麗史』 권2, 세기2 태조 19년 秋 9월.

32) 『高麗史』 권2, 세기2 태조 19년 秋 9월. 신성재 「일리천전투와 고려 태조 왕건의 전략전술」 『韓國古代史研究』 61, 한국고대사학회, 2011(앞의 책, 2018, 78쪽).

33) 윤용희, 앞의 논문, 1997, 20쪽.

이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였을 것으로 보아서³⁴⁾ 아마도 왕건과의 1차 전투에서 패배한 직후가 아니었나 추정된다.³⁵⁾ 왕건의 재차 출정으로 2차 운주전투가 발발하던 934년 즈음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으나,³⁶⁾ 만약 그렇게 파악한다면 1차 전투에서 패배한 927년부터 934년까지 공준의 행적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합리적으로 유추해본다면, 공준은 1차 전투 직후 고려에 귀부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공준이 떠난 자리에는 고려에 우호적인 인물을 내세워 성주 임무를 수행케하였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현전하는 자료상 그와 같은 인물의 실체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운주성을 관할하는 새로운 인물을 성주로 삼은 뒤, 왕건은 이듬해 운주 옥산(玉山)에 성을 쌓고 지키는 군사들을 배치하였다.³⁷⁾ 이 성은 현재의 홍성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용봉산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⁸⁾ 왕건이 옥산에 성을 쌓고 군사들을 배치한 것은 후백제와의 전쟁에서 방어망을 공고하게 하는 한편 운주성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고려한 것이었다.³⁹⁾

끝으로 운주성주 공준과 홍규(洪規)가 동일한 인물이었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선행 연구에서는 운주성주 공준과 왕건의 12번째 비(妃)가 되는 흥복원부인(興福院夫人)⁴⁰⁾ 홍씨의 아버지 홍규를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인물로 파악하고 있다.⁴¹⁾ 그 이유로 왕건의 개국 1등 공신에 책

34) 왕건의 1차 운주전투 승전에 대해 고려가 운주성을 함락하거나 혹은 운주지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윤용혁, 앞의 논문, 1997, 13쪽).

35) 류영철, 앞의 책, 2004, 216쪽.

36) 윤용혁, 앞의 논문, 2007, 20쪽; 양기석, 「洪城地域의 古代社會」 『百濟文化』 47,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2, 41쪽.

37) 『高麗史』 권82, 지36 병2 진수 태조 11년 4월, “城運州玉山 置戍軍”. 옥산을 평북 운산군에 위치한 산으로 보기도 하나(이기백·김용선, 『고려사 병지 역주』, 일조각, 2011, 202쪽), 취하지 않는다.

38) 윤용혁, 앞의 논문, 1997, 23쪽.

39) 김명진, 앞의 논문, 2015, 196쪽.

40) 『高麗史』 권88, 열전1 흥복원부인 홍씨, “洪州人 三重太臣規之女 生太子稷公主一後”.

41) 윤용혁, 앞의 논문, 1997, 25~26쪽; 김갑동, 앞의 논문, 2004, 152~155쪽(『고

봉된 홍유(洪儒)·배현경(裴玄慶)·신승겸(申崇謙)·복지겸(卜智謙) 등의 짧은 시절 이름이 각각 홍술(洪術)·백옥삼(白玉三)·능산(能山)·사괴(沙瑰) 등이었으나, 이후 왕건으로부터 하사받아 개명된 점을 지목하고 있다.⁴²⁾ 즉 왕건이 운주의 완전한 확보를 위해 지역 세력가 공준과 연대하였고,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어느 시기에 홍규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홍규와 공준은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 그들이 모두 홍주의 유력한 호족세력이었다는 점에서 동일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의 상황에서 개연성이 있는 견해지만, 단정하기에는 조심스런 면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사례로 제시한 왕건의 고려 건국에 기여한 1등 공신들을 보면 사성(賜姓)된 이름과 함께 초명이 기록되어 있다. 홍규의 관품이 삼중대광(三重太匡)에까지 오른 인물이고, 그의 딸이 왕건의 12번째 비가 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이름의 개명 사항에 대해서도 기록으로 남겨졌음직하다. 그러나 공준과 홍규의 경우는 그와 같은 점이 확인되지 않고, 동일인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기록 또한 부재하다. 공준과 홍규를 동일 인물로 보기 위해서는 공준에서 홍규로 개명이 이루어진 시점과 양자간의 관품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후삼국 통일전쟁의 마지막 최대 결전인 일리천전투에 홍규가 아닌 공준으로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 적어도 전투가 발발하던 936년 9월까지의 개명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때의 공적으로 개명이 이루어진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 전투 이후였을 것이다. 관품 역시 일리천전투시 대상에 있었던 것을 보면 이 전투시 세운 공적이나 그 뒤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는 계기가 있었기에 삼중대광에 제수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의문점들이 해소되어야만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이 외에 유의해야 할 점은 1·2차 운주전투

려의 후삼국 통일과 후백제』, 서경문화사, 2010, 216~222쪽); 윤용혁, 앞의 논문, 2007, 18~19쪽.

42) 『高麗史』 권92, 열전5 홍유.

시 왕건에게 조력한 인물로 공준과 다른 홍규라는 인물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운주와 인접한 몽웅역(夢熊驛) 한씨(韓氏)와 같은 존재가 그러하다. 정해현(貞海縣 : 서산시 해미면)의 유래를 적은 기록에 따르면, “세전(世傳)하기를 태조시에 몽웅역리(夢熊驛吏)로 한씨 성을 가진 자가 큰 공이 있어 태광(太匡)을 하사하고, 고구현(高丘縣)의 땅을 떼어 현을 설치하고 그 관향(貫鄉)으로 삼았다.⁴³⁾”고 한다. 한씨의 경우처럼 통일전쟁에 기여한 공적으로 관품을 하사받은 인물이 홍규가 아니었던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공준과 홍규가 동일인이었다고 파악하는 기존 견해를 배제하지는 않으나, 보다 확실한 근거가 있기 전까지는 서로 다른 인물이었을 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두고자 한다.⁴⁴⁾



3. 왕건과 견훤의 2차 운주전투

1차 운주전투가 종료되고 7년여 기간이 지난 934년에 2차 전투가 발발하였다. 2차 전투는 왕건이 운주의 세력이 공준과 싸웠던 것과 달리 후백제왕 견훤과 싸운 전투였다. 2차 전투의 기록은 1차 전투보다 다양하고 자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34년에 왜 또다시 전투가 발발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려주는 직접적인 기록은 부재하다. 1차 전투의 배경을 파악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930년을 전후하게 전개되

43) 『高麗史』 권56, 지10 지리1 홍주 정해현, “世傳 太祖時 夢熊驛吏韓姓者 有大功 賜號太匡 割高丘縣地 置縣 爲其貫鄉”.

44) 정청주는 공준과 홍규를 별개의 인물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양자를 각기 구분하여 서술하는 태도를 취하였다(鄭淸柱,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1996, 172쪽). 신호철은 양자를 동일 인물로 보는 것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신호철, 「高麗初 後百濟系 人物들의 활동」 『한국중세사연구』 22, 한국중세사학회, 2007, 100쪽).

고 있던 전쟁의 추이를 파악하는 가운데 전투의 배경과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927년 1차 운주전투 이후 고려와 후백제가 주도하던 후삼국 통일전쟁은 대구 팔공산에서 벌어진 공산전투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고려가 신라와 정치적으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강주지방을 점령하면서 남해안의 전략거점과 경북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병참운송망을 구축해가자, 수세에 몰린 후백제는 이를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방법은 신라의 왕도인 경주를 공격하는 과감한 전략으로 실행되었고,⁴⁵⁾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달려온 고려의 기병 5천은 공산전투에서 궤멸되었다.⁴⁶⁾ 후백제는 이를 계기로 고려가 장악하고 있던 송악과 나주를 연결하는 해상교통로를 장악하였다. 왕건이 935년(태조 18)에 신료들과 국사를 논의하던 자리에서 송악과 나주를 통항하는 해로가 불통된 지 6년이나 되었다고 개탄하며 이를 재개시킬 적임 장수로 유금필을 결정하였던 것은 이와 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던 전쟁의 추이를 반영한다.⁴⁷⁾

후백제가 나주로 통하는 항로를 통제하고, 경북 내륙지역에서 전쟁 우세권을 장악한 상황은 930년 봄 정월 경북 고창군(古昌郡 : 안동)에서 발발한 고창전투에서 다시금 반전을 맞이하였다.⁴⁸⁾ 왕건이 거느린 고려군은 이 전투에서 후백제군 8천 명을 살상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 전투의 결과는 안동 일대의 30여 군현의 항복과 명주(溟州 : 강릉)로부터 흥례부(興禮府 : 울산)에 이르는 신라의 동쪽 연해에 있던 110

45) 신성재, 앞의 논문, 2012(앞의 책, 2018, 37~38쪽).

46) 『高麗史』 권1, 세기1 태조 10년 9월. 공산전투의 배경과 전개 과정은 閔丙河, 「申崇謙과 公山桐蔭 戰鬪」 『軍史』 29, 國防軍史研究所, 1994; 柳永哲, 「공산전투의 재검토」 『郷土文化』 第9·10合集(斗山 金宅圭 博士 停年紀念 郷土史論叢), 1995; 류영철, 앞의 책, 2004; 신성재, 앞의 논문, 2012 참조.

47) 『高麗史』 권92, 열전5 유금필.

48) 『高麗史』 권1, 세기1 태조 13년 春 정월. 일명 병산전투로 불리기도 한다. 고창전투의 발발과 전개 과정은 柳永哲, 「古昌戰鬪와 後三國의 정세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7, 한국중세사학회, 1999(앞의 책, 2004); 문안식, 앞의 책, 2008 참조.

여성의 항복,⁴⁹⁾ 동해 바다 멀리 떨어진 우릉도(芋陵島 : 울릉도)가 북속해올 정도로⁵⁰⁾ 전쟁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고려가 고창전투에서 승리하여 경북 내륙지방과 신라 동해안의 대부분 지방을 장악하자 위기 상황에 빠진 후백제는 한동안 이를 타개할 방책 마련에 고심하였다. 그리하여 고창전투가 발발한 2년 뒤 후백제는 수군을 동원하여 고려의 예성강 수역을 기습하는 군사작전을 감행하였다.

9월에 견훤이 일길찬 相貴를 보내어 舟師로써 禮成江을 침입케 하였다. 塩·白·貞 3州의 선박 1백 척을 불태우고 猪山島에서 방목하던 말 3백 필을 탈취해 갔다.⁵¹⁾

일길찬 상귀(相貴)가 932년 9월에 감행한 후백제 수군의 예성강 수역 공략은 고려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겼다. 염주(塩州 : 황해도 연안)·백주(白州 : 황해도 배천)·정주(貞州 : 개성 풍덕)에 주둔하고 있던 고려의 선박 1백 척이 분멸되었다. 이때 손실된 고려의 선박에는 다수의 전함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려가 수군활동의 전략기지로 운영하던 정주가 공격받은 것은 너무나도 뼈아픈 손실이었다. 그런데 후백제의 예성강 수역 공략은 그 이상의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었다. 근래 후백제가 송악을 공격하여 왕건을 제거하고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수군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해석한 견해에 따르면,⁵²⁾ 박수경(朴守卿)이 왕건의 목숨을 극적으로 구한 것으로 전하는 발성전투(勃城戰鬪)에 주목한다.⁵³⁾ 발성전투의 발

49) 『高麗史』 권1, 세가1 태조 13년 2월.

50) 『高麗史』 권1, 세가1 태조 13년 秋 8월. 울릉도에서 백길과 토두를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자 고려는 백길에게 정위를, 토두에게는 정조의 품계를 하사하였다.

51) 『高麗史』 권2, 세가2 태조 15년, “九月 甄萱遣一吉黎相貴 以舟師入侵禮成江 焚塩白貞三州船一百艘 取猪山島牧馬三百匹而歸”.

52) 이도학, 앞의 책, 2015, 373~374쪽.

성이 왕건이 공예의 치하에서 활동하던 896년 송악에 쌓은 발어참성(勃禦槩城)을 줄인 표기로⁵⁴⁾ 932년 당시 후백제군의 기습이 고려 왕성에까지 확대되어 전투가 벌어졌다고 한다. 즉 932년 전투는 후백제의 선단이 일제히 개경에 상륙하여 고려의 왕궁을 포위 공격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발성전투에서 위기에 몰린 왕건을 박수경이 분전하여 구했다고 한다.⁵⁵⁾ 상귀가 이끈 후백제의 수군활동이 고려와 국왕 왕건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일깨워준다.

한편 후백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후속 작전을 계획하였다. 고려의 왕도와 예성강 수역을 공략하여 심각한 타격을 입힌 1개월 뒤, 곧바로 대우도(大牛島)와 그 주변 해역을 공략하는 수군활동을 전개하였다.

겨울 10월에 견훤이 海軍將 尙哀 등으로 大牛島를 攻掠케 하였다. (왕건이) 大匡 萬歲 등에게 명하여 구하게 하였으나 불리하였다.⁵⁶⁾

상애(尙哀)가 지휘한 대우도 공략에서 주목해볼 점은 후백제 수군이 공격한 대우도의 존재이다. 이 섬의 위치에 대해서는 마치 소가 누워 있는 형상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 『한국지명유래집』의 서술 내용에 의지하여⁵⁷⁾ 현재의 충남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 앞바다에 위치한 섬으로 추정할 견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⁸⁾ 이 위치는 서해 중부해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나주로 들어서는 서남해역과 고려의 예성강 수역으로 통하는 중간 해역에 위치한다.⁵⁹⁾ 서해 중부와 북부 해

53) 『高麗史』 권92, 열전5 박수경.

54) 『高麗史』 권1, 태조 건녕 3년. ‘禦槩’은 적을 방어하기 위한 참호 즉 垓字가 있는 성의 구조를 의미한다(이도학, 앞의 책, 2015, 375쪽).

55) 이도학, 앞의 책, 2015, 376~377쪽.

56) 『高麗史』 권2, 세기2 태조 15년, “冬十月 甄萱海軍將尙哀等 攻掠大牛島 命大匡萬歲等 救之不利”.

57)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충청편)』, 2015, 481~482쪽.

58) 신성재, 『후삼국시대 수군활동사』, 혜안, 2016, 91·145·179쪽. 대우도의 위치에 대한 여러 견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신성재, 앞의 책, 2018, 187~189쪽 참조.

역으로 해상권을 확대하고자 하던 후백제의 입장에서 고려의 수군을 견제하고자 한다면 그 중간 해역에 위치한 도서나 해안지방을 확보하여 교두보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대우도처럼 그 중간에 위치한 도서를 확보하면 인접한 서산, 당진 등 해안지방으로 진출하여 이 지역들을 차례로 점수하는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 나아가 인접한 홍성지방과 예산, 아산 등 고려와 첨예하게 지배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던 지역들에까지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후백제가 대우도를 공략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와 같은 군사력 운용의 전략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운주지방은 후백제의 수군이 대우도를 공격, 서해 중부해역을 위협해오던 932년 즈음에 고려의 수중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싶다.⁶⁰⁾

후백제가 서해 중부해역으로 해상권을 확대하고 대우도를 공략하면서 서해안과 인접한 서산·당진·운주지방까지 잠식해오자 고려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였다. 고려의 명장 유금필이 백령도에서 벌인 수군활동을 통해 그 대응의 실상을 추정해봄직하다.

14년(931)에 참소를 당하여 鵠島로 귀양을 갔다. 이듬해에 견훤의 海軍將 尙哀 등이 大牛島를 공략하므로 태조가 大匡 萬歲 등을 보내어 구원하게 하였으나 불리하였다. 태조가 이를 근심하고 있었는데, 黔孺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신이 비록 죄를 지어 귀양살이를 하고 있지만, 백제가 우리 해안지방을 침탈한다는 소문을 듣고 本島와 包乙島의 丁壯을 선발하여 군대에 충원하고 또한 전함을 수리하여 방어하게 하였으니 원컨대 주상께서는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하였다.⁶¹⁾

59) 신성재, 「고려와 후백제의 해양쟁패전」 『한국중세사연구』 47, 한국중세사학회, 2016(앞의 책, 2018, 189쪽).

60) 김갑동, 앞의 논문, 2004, 148쪽.

61) 『高麗史』 권92, 열전5 유금필, “十四年 被讒竄于鵠島 明年 甄萱海軍將尙哀等 攻掠大牛島 太祖遣大臣萬歲等往救不利 太祖憂之 黔孺上書曰 臣雖負罪在貶 聞百濟侵我海鄉 臣已選本島及包乙島丁壯 以充軍隊 又修戰艦以禦之 願上勿憂”.

위는 931년(태조 14)에 정치세력들로부터 참소를 당해 곡도(鵠島 : 백령도)로 귀양간 유금필이 후백제 수군이 대우도를 공략해오던 시기에 마련한 방책을 전하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유금필이 마련한 대응책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이는 곧 고려가 마련한 대후백제 해상방어책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후백제의 해상 침탈에 대응하여 고려가 마련한 방어책은 크게 두 가지였다. 고려는 우선적으로 후백제 수군의 재침에 대비하여 백령도와 포을도(包乙島 : 대청도)를 연결하는 해상방어망을 구축하였다.⁶²⁾ 이는 외해측에 위치한 백령도와 내측의 포을도, 인근에 산재한 소도서, 그리고 염주와 백주, 정주를 연결하는 형태로 구축되었다. 고려는 해상방어망 구축과 더불어 수군을 실질적으로 재건하는 대책도 시행하였다.⁶³⁾ 해전을 담당하는 수군병력을 확충하고 상실된 전함을 수리 및 건조하였다. 백령도와 대청도에 거주하던 “정장(丁壯)을 선발하여 군대에 충원하고 전함을 수리하여 방어하게 하였다”고 하는 기록은 고려가 마련한 해상방어책의 실상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고려는 서해 중부해역과 충남 서해안 지방에 집중된 후백제의 군사활동을 억제하고, 당 해역의 해상권을 다시금 확보하면서 대후백제전에서 전세를 전환시키는 방책을 수립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직접적인 기록이 부재하여 추정에 의존하지만, 이로부터 2년 뒤인 934년에 운주지방에서 전투가 발발하고 있음은 그 가능성을 높여준다 하겠다. 이 점에 주목하여 고려 태조 왕건이 2차 운주전투를 벌였던 이유를 해석하자면, 천안과 예산, 아산 일대를 공고하게 한 뒤 운주를 점령하여 부근의 육상로는 물론 해상로까지 봉쇄함으로써⁶⁴⁾ 그동안 막혀 있던 송악-나주간의 해상교통을 재개하고 후삼국 통일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짐작된다. 실제 2차 운주전투가

62) 신성재, 앞의 논문, 2016(앞의 책, 2018, 189쪽).

63) 위와 같음.

64) 주 60)과 같음.

발발한 이듬해 935년에 왕건의 명을 받은 유금필이 나주를 탈환하면서 서남해역 해상교통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은⁶⁵⁾ 이보다 선행하여 충남 서해안 앞 바다를 통항하는 해상교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처럼 2차 운주전투는 왕건이 서해상에 대한 해상권을 다시금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배경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7년(934)에 태조가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운주를 정벌하고자 하여 黔弼을 右將軍으로 삼았다. 견훤이 이를 듣고 甲士 5천을 뽑아 이르러 말하기를, ‘양군이 서로 싸우면 세를 모두 보전하지 못할 것이고, 무지한 사졸들만 많이 살상될까 염려된다. 마땅히 화친을 맺어 각자의 封境을 보전합시다’ 하였다. 태조가 제장들과 모여 이를 논의하자 금필이 말하기를, ‘오늘의 세는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컨대 주상께서는 염려치마시고 신들이 적을 격파하는 것이나 보십시오’ 하였다. 마침내 견훤이 진을 치지 못한 틈을 타 勁騎 수 천으로 이에 돌격하여 3천여 급을 참획하고 術士 宗訓, 醫師 訓謙, 勇將 尙達·崔弼을 생포하였다. 熊津 이복의 30여 성이 이 소식을 듣고 스스로 항복하였다.⁶⁶⁾

934년(태조 17) 운주에서 2차 전투가 발발하였다. 이 전투의 보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위 기록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려사』 세가와 『고려사절요』의 기록에 9월에 있었던 일로 기록된 것을 보면⁶⁷⁾ 934년 9월에 발발하였던 전투로 정리할 수 있겠다. 물론 9월이 아닌 같은 해 봄 정월에 발발한 것으로 쓰여진 기록도 있다.⁶⁸⁾ 그러나 934년 봄 정월에 왕건은 운주가 아닌 서경(西京)에 있었다.⁶⁹⁾

65) 『高麗史』 권92, 열전5 유금필.

66) 『高麗史』 권92, 열전5 유금필, “十七年 太祖自將征運州 黔弼爲右將軍 甄萱聞之 簡甲士五千至曰 兩軍相鬪 勢不俱全 恐無知之卒 多被殺傷 宜結和親 各保封境 太祖會諸將議之 黔弼曰 今日之勢 不容不戰 願上觀臣等破敵勿憂也 遂乘萱未陣 以勁騎數千突擊之 斬獲三千餘級 擒術士宗訓 醫師訓謙 勇將尙達 崔弼 熊津以北三十餘城 聞風自降”.

67) 『高麗史』 권2, 세가2 태조 17년 9월, 『高麗史節要』 권1, 太祖神聖大王 17년 秋 9월.

68) 『三國史記』 권59, 열전10 견훤.

북방 지역의 안위를 염려해 여러 진들을 순행하였다. 또 9월에 노인성(老人星)이 나타난 현상과 연이어 전투 직후 운주의 경계 30여 군현이 왕건에게 항복했다는 내용이 전하는 기록⁷⁰⁾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전투가 9월에 발발했음은 분명하다.⁷¹⁾

왕건은 2차 운주전투를 결행하기에 앞서 전투 준비를 치밀하게 실시하였다. 그는 우선적으로 934년 봄에 북방의 주진들을 순시하여 서경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체제를 점검하였다. 그런 다음 5월에는 운주와 인접한 예산진(禮山鎭)에 행차하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내가 비바람을 무릅쓰고 주진들을 돌아다니면서 성책을 수리하는 것은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도적들의 난을 면하게 하려는 것”⁷²⁾이라며 순행의 취지를 설파하였다. 이는 내포 지역민들의 결집과 협조를 얻기 위한 것이자,⁷³⁾ 동시에 후백제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민심을 고려측으로 유인하는 대민 홍보작전이기도 하였다.⁷⁴⁾ 이와 함께 왕건은 공경(公卿)·장상(將相)과 지역 세력가들이 그동안 백성을 대상으로 자행해오던 자의적 수탈의 문제점을 훈계하는 한편 신상필벌을 엄격히 시행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신하된 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역설하였다.⁷⁵⁾ 이후 왕건은 동년 7월에 발해국 세자 대광현(大光顯)이 민중 수만 명을 거느리고 귀부해오자 그를 왕실 족보에 등록하고, 함께 온 군사들과 더불어 백주의 일을 관장하도록 하였다.⁷⁶⁾ 이는 후백제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던 고려의 수군 전력을 확충하고 백주를 비롯한 염주·정주의 해상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⁷⁷⁾

69) 『高麗史』 권2, 세기2 태조 17년 春 정월, “甲辰 行西京 歷巡北鎭”.

70) 『三國史記』 권12, 경순왕 8년 秋 9월, “老人星見 運州界三十餘郡 降於太祖”.

71) 김갑동, 앞의 논문, 2004, 147~148쪽.

72) 『高麗史』 권2, 세기2 태조 17년 夏 5월, “乙巳 幸禮山鎭 詔曰 … 櫛風沐雨 巡省州鎭 修完城柵 欲令赤子 得免綠林之難”.

73) 윤용희, 앞의 논문, 1997, 24쪽.

74) 윤용희, 앞의 논문, 2007, 15쪽.

75) 주 72)와 같음.

76) 『高麗史』 권2, 세기2 태조 17년 秋 7월.

왕건과 견훤이 대결한 2차 운주전투는 왕건의 완승으로 끝났다. 고려군이 완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형세적인 측면에서나 전투 전술적인 측면에서 고려군이 후백제군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려군이 후백제군에 비해 형세 면에서 우위에 있었던 것은 유금필이 말한, “오늘의 세는 싸우지 않을 수 없으니 주상께서는 염려치 마시고 신들이 적을 격파하는 것이나 보십시오.”라는 확신에 찬 언사를 통해 확인된다. 이는 거꾸로 견훤이 “양군이 서로 싸우면 세를 모두 보전하지 못할 것이고, 무지한 사졸들만 많이 살상될까 염려된다. 마땅히 화친을 맺어 각자의 봉경(封境)을 보전합시다.”며 화친을 제안한 것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형세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던 견훤이 화친을 명목으로 전투를 회피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군이 후백제군에 비해 형세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였다. 먼저 고려군은 전투 능력이 뛰어난 군사들을 적극 동원하였다. 특히 유금필이 지휘한 수천 명의 궁췌 기병들로 구성된 경기(勁騎)는 운주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이었다. 이들은 고려가 건국되던 초기부터 운용하던 기병에 북방지역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투항해온 여러 이민족 출신의 기병들이 포함된 군사들이었다.⁷⁸⁾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고려군의 총 병력은 동원된 경기가 수천 명이었음을 통해 볼 때 최소 5천 명 이상은 상회하였을 것이다.⁷⁹⁾ 후백제 역시 뛰어난 기량을 지닌 군사들을 동원하였다. 이들은 갑사(甲士)로 지칭되었는데,⁸⁰⁾ 후백제의 군사들 중 중무장한 정예군이었을 것이다.⁸¹⁾ 이들은 고려군이

77) 신성재, 앞의 논문, 2016(앞의 책, 2018, 191~192쪽).

78) 신성재, 「고려 태조대 명장 충절공 유금필」 『軍史』 1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앞의 책, 2018, 108~109쪽).

79) 김명진, 앞의 논문, 2015, 200쪽.

80) 후백제군 갑사 5천을 보병으로 파악하면서 이 병력 중 고려의 기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일정 정도 장창을 소지한 인원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주 79)와 같음. 이렇게 본다면 후백제군은 운주전투에 보병만을 출정시킨 셈이 된다. 갑사로 지칭된 후백제군에 대해서는 단일한 보병 병종으로 보기보다는 중무장한 보병을 기병보다 많이 편성한 부대로 이해함이 어떨까 싶다.

기병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데 비해 보병과 기병이 혼합된 형태로 구성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병력 구상상의 차이점이 진형과 전술 구사 문제와 맞물려 승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 같다. 고려군은 형세 면에서 또 하나 유리한 부분을 선점하고 있었다. 이는 “견훤이 태조가 운주에 주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갑사를 선발하여 부라부라 이르렀다.”⁸²⁾는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후백제군이 고려군보다 뒤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⁸³⁾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지 못한 전술적 실책은 진영을 미처 설치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유금필은 전투에 앞서 후백제군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후백제군이 형성하고 있던 진영의 취약한 부분을 간파하고, 그곳에 기동력과 돌파력이 우수한 경기를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면 승산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⁸⁴⁾ “견훤이 진을 치지 못한 틈을 타 경기 수천으로 이에 돌격하여 3천여 급을 참획하였다”고 하는 기록은 후백제군에 노출된 취약한 부분을 간파하고 기동타격 능력이 뛰어난 경기를 활용하는 용병술을 적극 구사하였음을 말해준다.⁸⁵⁾ 유금필은 이 전투에서 다수의 후백제군을 살상함은 물론 책사 임무를 담당하던 술사(術士) 종훈(宗訓), 군사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 훈겸(訓謙), 용맹한 장수 상달(尙達)·최필(崔弼) 등을 생포하였다. 술사 종훈, 의사 훈겸과 같은 인물들이 중군에 위치하여 견훤을 보좌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에서는 용장 상달과 최필은 중군에 있던 견훤과 이들을 끝까지 호위

81) 이도하, 앞의 책, 2015, 392~394쪽. 경장갑을 착용한 군사들로 서술하기도 한다 (임용한, 앞의 책, 2001, 355쪽).

82) 『三國遺事』 권2, 기이2 후백제 견훤. “清泰元年甲午 嘗聞太祖屯運州 遂簡甲士 蓐食而至 未及營壘 將軍黜弼以勁騎擊之 斬獲三千餘級

83) 견훤이 운주에 당도했을 때 이미 고려군이 운주를 장악한 상태였던 것으로 서술하기도 한다(윤용혁, 앞의 논문, 2007, 17쪽).

84) 신성재, 앞의 논문, 2017(앞의 책, 2018, 107~108쪽).

85) 위와 같음.

하던 과정에서 사로잡히게 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기병을 활용한 유급필의 공세적 전술에 따라 왕건은 이 전투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반면 견훤은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

왕건과 견훤이 대결한 2차 운주전투는 충남지역을 둘러싼 고려와 후백제의 각축전에서 고려의 패권을 확실히 결정짓는 분수령이 되었다.⁸⁶⁾ 전투에서 승리한 고려는 항복해온 웅진(熊津 : 공주) 이북의 30여 성을 접수하면서 웅주와 운주 등 충청지역을 석권할 수 있게 되었다.⁸⁷⁾ 뿐만 아니라 그동안 후백제에게 빼앗겼던 서해상에 대한 해상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송악과 나주를 오가는 해상 교통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결국 이듬해 나주로 연결되는 항로의 실질적인 개통을 가능케 하였고, 나주로 도망해온 견훤이 해로를 거쳐 고려 왕조로 입조하는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다.⁸⁸⁾ 이에 반해 후백제는 웅진 이북의 지방들을 상실당함으로써 충청지역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고, 지배 영역마저 축소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서해상의 해상권을 상실당하는 위기에 처해짐은 물론 고려와의 전쟁 의지 또한 크게 약화되었다. 견훤이 병신(丙申) 정월에 “병사는 북군(北軍)보다 배나 되는데도 오히려 이처럼 불리하니 아마도 하늘이 고려를 도우는 것 같다. 어찌 북쪽의 왕에게 귀순해서 생명을 보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⁸⁹⁾라며 아들들에게 드러낸 발언은 그 시점이 명확치 않지만, 운주전투 패배 이후로 조성되고 있던 후백제의 정국 동향을 반영하는 사실이 아닌가 여겨진다.⁹⁰⁾

86) 윤용혁, 앞의 논문, 2007, 17쪽.

87) 이 때 고려가 접수한 30여 군현은 흥주와 공주 소속의 속군현, 서산지역의 속현 등이 포함되었다(김갑동, 앞의 논문 2004, 149쪽).

88) 『高麗史』 권2, 세가2 태조 18년 6월.

89) 『三國遺事』 권2, 기이2 후백제 견훤, “丙申 正月 萱謂子曰 老夫新羅之季 立後百濟名 有年于今矣 兵倍於北軍 尙爾不利 殆天假手爲高麗 盍歸順於北王 保首領矣”.

90) 병신 정월은 태조 19년으로 936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시기는 고려가 통일을 목전에 둔 시점으로 견훤은 이미 고려로 귀부해 있었다. 시점상 오류가 있지만, 대략 934년 말 ~ 935년 초의 상황을 반영하는 기록이 아닐까 추정된다.

이와 같이 2차 운주전투의 결과는 고려와 후백제가 자웅을 겨루던 후삼국 통일전쟁의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고려 태조 왕건은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충청지역을 장악하고 후삼국 통일의 주인공이 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해륙상의 주요 전략거점을 상실당하게 된 후백제왕 견훤은 이 전투를 기점으로 급격히 집권력이 약화되면서 정변이 발생하고, 마침내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4. 맺음말

운주전투는 공산전투, 고창전투와 더불어 후삼국 통일전쟁의 흐름에 분수령이 될 정도로 결정적인 전투였다. 이 전투는 927년 3월과 934년 9월에 걸쳐 2회 발발하였다. 편의상 이 글에서는 전자를 1차 운주전투, 후자를 2차 운주전투로 명명하였다.

1차 운주전투가 발발하던 시기 충청지역은 후백제를 지지하던 상황으로 정치적 입장이 변화된 상태였다. 원래 충청지역의 주요 지방들은 궁예가 집권하던 시기까지 궁예정권에 귀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속해 있던 운주는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운주의 이와 같은 노선에 변화가 발생한 것은 918년이였다. 왕건이 918년 6월에 거병하여 고려를 건국하자 운주는 동년 8월에 후백제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새롭게 고려가 건국된 어수선한 정국에서 운주성주 궁준은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후백제를 선택하였다.

왕건과 궁준 간 1차 운주전투는 왕건이 운주를 복속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전략적으로는 경남 남해안과 경북 내륙을 연결하는 병참운송망을 구축함으로써 후백제의 군사활동을 봉쇄하고 통일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배경하에서 발생하였다. 해륙상의

전략거점을 둘러싸고 전개되던 후삼국 통일전쟁의 흐름 속에서 왕건이 운주를 정벌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결과는 왕건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전투에서 패배한 공준은 고려 정부에 귀부하여 신하가 되었다. 왕건은 공준이 떠난 자리에 고려에 우호적인 세력가를 성주로 임명하고 인근 옥산에 축성한 다음 군사들을 배치하였다. 이는 후백제와 전쟁에서 방어망을 공고히 하는 한편 운주성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고려한 것이었다.

운주성주 공준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의 세력가이자 왕건의 12번째 비가 되는 흥복원부인의 아버지 흥규를 동일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왕건이 사성정책을 통해 지역 호족세력들과 연대한 점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운주전투 시 왕건에게 조력을 제공한 인물로 흥규가 존재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확실한 근거가 부족한 이상 양자가 서로 다른 인물이었음에 무게를 둔다.

1차 전투가 종료되고 7년이 경과한 934년 9월에 왕건과 견훤 간 2차 운주전투가 발발하였다. 2차 전투는 930년대 고려와 후백제가 해륙상으로 추진하던 통일전쟁의 흐름 속에서 발발하였다. 1차 운주전투를 계기로 고려가 장악한 전쟁 주도권은 927년 공산전투에서 참패를 당하면서 후백제로 넘어갔다. 그러나 고려는 930년 초 고창전투에서 대승함으로써 다시금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후백제는 고려의 예성강 수역을 공략하면서 전세를 다시금 역전시키고 서해상의 해상권을 장악하였다. 나아가 운주를 비롯한 서해안 지방을 장악하여 고려의 수군활동을 위축시켰다. 2차 운주전투는 고려가 서해상으로부터 가중되고 있던 후백제의 위협을 제거하고 다시금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던 상황 속에서 발발하였다.

왕건과 견훤이 대결한 2차 운주전투는 왕건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고려군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형세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 모두 우위를 점하였기 때문이었다. 고려군이 기동력과 돌파력이

뛰어난 기병 중심의 병종체제로 대응하였음에 비해 후백제군은 보병과 기병이 혼합된 중무장한 갑사로 대응하였다. 또한 후백제군은 뒤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전투의 유리한 지형을 점유하지 못했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지 못한 전술적 실책은 진영을 미처 설치하지 못한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켰다. 고려의 명장 유금필은 후백제군의 전술적 취약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후백제군의 취약점이 노출된 곳에 기동력과 돌파력이 우수한 경기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기병력을 활용한 유금필의 공세적 전술에 따라 왕건은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던 반면 견훤은 참담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

2차 운주전투는 충남지역을 둘러싸고 전개된 고려와 후백제의 각축전에서 고려의 패권을 확실하게 결정짓는 분수령이 되었다. 전투에서 승리한 고려는 웅진 이복의 30여 성을 접수하면서 충청지역을 석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후백제에게 빼앗겼던 서해 해상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통일전쟁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에는 이렇게 확보한 서해안 항로를 경유하여 후삼국을 통일하는 대업을 이룩하기에 이른다. 이에 비해 후백제는 지배영역이 축소되고, 해상권마저 상실당하면서 전쟁의 의지 또한 현격히 약화되었다. 결국 해륙상의 주요 전략거점을 상실한 후백제왕 견훤은 이 전투를 기점으로 급격히 집권력이 약화되면서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원고투고일 : 2018. 12. 14, 심사수정일 : 2019. 2. 1, 게재확정일 : 2019. 2. 14)

주제어 : 후삼국 통일전쟁, 운주, 왕건, 견훤, 금준, 유금필

〈참 고 문 헌〉

1.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新增東國輿地勝覽』

2. 저서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충청편)』, 2015.

김갑동,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후백제』, 서경문화사, 2010.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혜안, 2014.

류영철,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景仁文化社, 2004

文暻鉉, 『高麗太祖의 後三國統一研究』, 螢雪出版社, 1987.

문안식, 『후백제 전쟁사 연구』, 혜안, 2008.

신성재, 『후삼국시대 수군활동사』, 혜안, 2016.

신성재, 『후삼국 통일전쟁사 연구』, 혜안, 2018.

申虎澈, 『後三國時代 豪族研究』, 개신, 2002.

이기백·김용선, 『고려사 병지 역주』, 일조각, 2011.

이도학, 『궁예 진흥 왕건과 열정의 시대』, 김영사, 2000.

이도학, 『후삼국시대 전쟁 연구』, 주류성, 2015.

임용한, 『전쟁과 역사 - 삼국편』, 혜안, 2001.

鄭靑柱, 『新羅末 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1996.

조인성, 『태봉의 궁예정권』, 푸른역사, 2007

3. 연구논문

金甲童, 「高麗建國期の 清州勢力과 王建」 『韓國史研究』 48, 韓國史研究會, 1985.

김갑동, 「百濟 이후의 禮山과 任存城」 『百濟文化』 28,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원, 1999.

- 김갑동, 「고려초기 흥성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史學研究』 74, 韓國史學會, 2004.
-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공준의 역할」 『軍史』 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 柳永哲, 「공산전투의 재검토」 『鄉土文化』 第9·10合集(斗山 金宅圭 博士 停年 紀念 鄉土史論叢), 1995.
- 柳永哲, 「古昌戰鬪와 後三國의 정세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7, 한국중세사학회, 1999.
- 閔丙河, 「申崇謙과 公山桐藪 戰鬪」 『軍史』 29, 國防軍史研究所, 1994.
- 서금석, 「弓裔의 國都 선정과 國號·年號 제정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42, 한국중세사학회, 2015.
- 신성재, 「일리천전투와 고려 태조 왕건의 전략전술」 『韓國古代史研究』 61, 한국고대사학회, 2011.
- 신성재, 「궁예정권의 철원 천도와 전쟁사적 의미」 『韓國史研究』 158, 韓國史 研究會, 2012.
- 신성재, 「고려와 후백제의 공산전투」 『한국중세사연구』 34, 한국중세사학회, 2012.
- 신성재, 「고려와 후백제의 해양쟁패전」 『한국중세사연구』 47, 한국중세사학회, 2016.
- 신성재, 「고려 태조대 명장 충절공 유금필」 『軍史』 1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 申虎澈, 「弓裔의 政治的 性格」 『韓國學報』 29, 一志社, 1982.
- 申虎澈, 「弓裔와 王建과 淸州豪族」 『中原文化論叢』 2·3, 忠北大中原文化研究所, 1999.
- 신호철, 「高麗初 後百濟系 人物들의 활동」 『한국중세사연구』 22, 한국중세사학회, 2007.
- 양기석, 「洪城地域의 古代社會」 『百濟文化』 47,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2.
- 윤용혁, 「지방제도상으로 본 홍주의 역사적 특성」 『홍주문화』 13, 홍성문화원, 1997.
- 윤용혁, 「936년 고려의 통일전쟁과 개태사」 『韓國學報』 114, 一志社, 2004.
- 윤용혁, 「나말여초 洪州의 등장과 運州城主 兢俊」 『한국중세사연구』 22, 한국중세사학회, 2007.
- 丁善容, 「弓裔의 勢力形成 過程과 都邑選定」 『韓國史研究』 97, 韓國史研究會, 1997.

<Abstract>

The Unification War of the Later Three Kingdoms and the Battle of Unju

Shin, Seong-Jae

The battle of Unju was a decisive battle that marked a watershed in the unification war of the Later Three Kingdoms. The battle broke out twice in March 927 and September 934. The first battle in 927 was fought by Wang Geon and Geung Jun, lord of Unju, and the second by Wang Geon and Gyeon Hwon.

The first battle broke out for Wang Geon to subjugate Unju. The battle also aimed to block Later Baekje's military activities and dominate the unification war by establishing logistics network linking the southern coast of Gyeongsangnam-do and the interior of Gyeongsangbuk-do. It resulted in Wang Geon's victory. Defeated in the battle, Geung Jun defected to Goryeo, while Wang Geon built a fortress at Oksan where he deployed troops. Geung Jun, lord of Unju, is thought to be the same person as Hong Gyu who was the father of Wang Geon's twelfth queen, Madam Heungbok although it is difficult to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he was a different person.

Seven years after the first battle, the second battle broke out in September 934. The second battle was fought for hegemony in the Chungcheong area and the West Sea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 maritime power and the strategic value of Unju were closely related. The second battle ended with one-sided victory of Wang Geon. Goryeo could win the battle because it concentrated on maneuvering strong cavalry that excelled in mobility and penetration. Wang Geon won a perfect victory following Yu Geumpil's offensive strategy that utilized the cavalry whereas Gyeon Hwon was bitterly defeated.

The second battle became a watershed for Goryeo to certainly dominate

the heated war over the Chungcheong area. Having won the victory, Goryeo became able to lead the unification war by conquering the Chungcheong area and securing maritime power in the West Sea. Meanwhile Later Baekje suffered downsizing of its ruling territory and loss of maritime power thereby its will to win the war being remarkably weakened. In the end Later Baekje began to walk down the road of collapse, having lost its hegemony since this battle.

Key words : The Unification War of the Later Three Kingdoms, Unju, Wang Geon, Gyeon Hwon, Geung Jun, Yu Geumpil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0, pp.125-163
<https://doi.org/10.29212/mh.2019..110.4>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남한지역 고구려 관방시설의 연구 성과와 과제

윤성호*

1. 서론
2. 고구려 관방시설의 조사 성과
3. 연구 현황 및 향후 과제
4. 결론

1. 서론

4~5세기에 고구려가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진출을 시작하였다는 것은 『삼국사기』 등의 사료와 1977년에 발견된 『충주 고구려비』 등의 금석문을 통하여 알 수 있으나, 이러한 흔적을 고고학적으로 확인한 것은 30년의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 1980년대부터 고구려 고분은 간헐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하였으나, 고구려의 군사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자료인 관방시설에 대한 논의는 1988년 서울 몽촌토성에서 확인된 광구사이부장경호와 같은 전형적인 고구려 유물이 확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학예연구사

인된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¹⁾

이후 아차산과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고구려 관방시설의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적인 조사가 진행되었으며,²⁾ 1997년 아차산 4보루를 시작으로 남한 지역에서는 20여 개소의 관방시설에 대한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다. 발굴조사와 함께 남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표 조사 성과가 축적되었고,³⁾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남한 지역의 고구려 관방시설에 대한 분석도 계속되고 있다.⁴⁾

또한 고구려 유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아차산 일대의 관방시설 조사 현황과 소실된 유적에 대한 자료도 정리되고 있다.⁵⁾ 이와 같은 기초작업을 통하여 고구려 관방시

- 1) 몽촌토성 조사에 앞서 1977년에 조사된 구의동 보루 출토 유물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고구려의 관방시설임을 확인한 연구가 남한지역 고구려 관방시설 연구의 시발이 되었다(崔鍾澤, 「九宜洞遺蹟出土 鐵器에 대하여」, 『서울大學校博物館年報』 3, 1991).
- 2) 심광주·윤우준, 「문화유적」, 『아차산의 역사와 문화유산』, 구리시·구리문화원, 1994 ;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坡州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1994 ; 『京畿道 漣川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1995.
- 3) 건국대학교 박물관광진문화원, 『서울 廣津區 峨嵯山·龍馬山 地域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8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8 ; 한양대학교 박물관, 『과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 국립문화재연구소, 『軍事保護區域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 京畿道篇』, 2000 ; 서울대학교박물관, 『구리시의 역사와 문화유산』, 2000(a)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 경기도박물관, 『임진강2 : 문화유적(1)』, 2001 ; 서울특별시·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서울소재 성곽 조사 보고서』, 2003 ; 京畿道博物館, 『高句麗遺蹟의 寶庫 京畿道』, 2005 ; 국립문화재연구소, 『남한의 고구려 유적 현황조사 및 보존정비 기본계획(안)』, 2006.
- 4) 남한 지역의 고구려 관방시설에 대하여 기왕에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崔鍾澤, 「京畿北部地域의 高句麗 關防體系」, 『高句麗山城과 關防體系』, 고구려연구회, 1999 ; 「최근 고구려유적 발굴성과에 대하여」, 『韓國先史考古學』 11, 2005 ; 「호서지역 고구려 유적의 조사현황과 역사적 성격」, 『百濟研究』 63, 2016 ; 白種伍, 「臨津江流域의 高句麗 關防體系」, 『臨津江流域의 古代社會』, 인하대학교박물관, 2002 ; 「南韓地域 高句麗 關防體系 -臨津江流域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6, 2007 ; 양시은, 「남한 내 고구려 성곽의 구조와 성격」, 『高句麗渤海研究』 36, 2010 ; 이정범, 「한강유역 고구려 관방유적 발굴조사의 성과와 의미」, 『한중일 고구려·발해사 연구의 새로운 동향(학술대회 자료집)』,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고구려발해학회, 2017 ; 심광주, 「임진강 유역 삼국의 성곽과 관방체계」,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학술대회 자료집)』, 경기문화재연구원·중부고고학회, 2018.

설의 구조와 운영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도 진행되었다.⁶⁾

그렇지만 고구려 관방시설의 조사와 연구는 아직도 풍부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최근까지 지속된 조사 성과를 재분석하여 그 의미를 찾는 작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2장에서 최근 조사된 성과를 크게 4개 지역군으로 나누어 정리한 뒤에 고구려 관방시설의 분포범위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기왕의 조사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크게 고구려 관방시설 유형과 남진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이어서 남한지역 고구려 관방시설의 운영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중부지역 이남과 중국 지역의 유사한 규모와 입지의 관방시설을 살펴보고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남한 지역 고구려 관방시설은 매년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신규 자료가 축적되어 가고 있다. 기왕에도 선학들의 많은 연구가 있지만, 이러한 자료에 최근 조사 성과를 추가하여 살펴봄으로써 향후 군사사 분야의 연구에 조그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고구려 관방시설의 조사 성과

예성강 일대에는 고구려의 수도 인근과 유사한 대형 고구려 산성이 확인되지만, 임진강 이남지역에서는 대규모 관방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남한 지역의 고구려 관방시설을 권역을 구별해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4개 군으로 묶어볼 수 있다.

남한지역의 최남단에 위치한 대전 월평동 유적을 포함하여 “금강

5) 윤성호,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자료와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군」, 『서울과 역사』 96, 2017(a).

6) 심광주, 『남한지역의 고구려 성곽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최중택,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영』, 서경문화사, 2013 ; 양시은, 『高句麗 城 研究』, 진인진, 2016 ; 정원철, 『고구려 산성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7.

-미호천 유역권”, 서울 아차산 일대 보루군을 중심으로 “한강-중랑천 유역권”, “양주 분지권”과 “임진강-한탄강 유역권”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 권역별로 조사 성과와 특징을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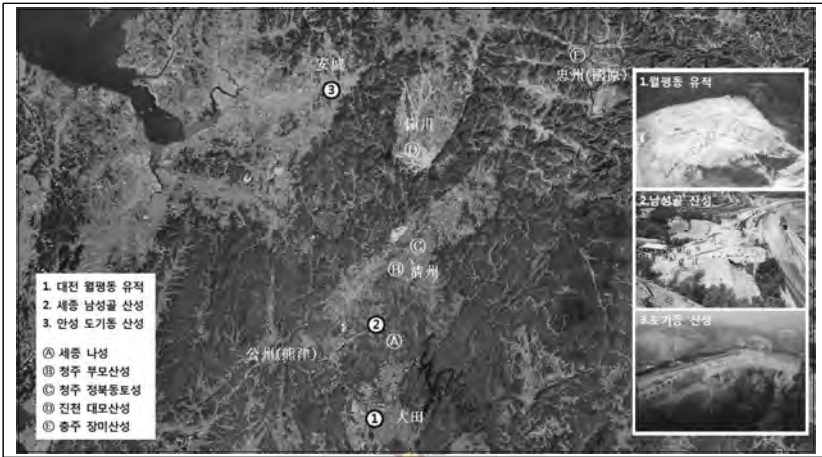
가. 금강-미호천 유역의 고구려 관방시설

“금강-미호천 유역의 범위는 고구려 남진 거점인 국원에서 남쪽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지역에 해당한다. 현재 남한지역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고구려 관방시설은 대전 월평동 유적(圖1-1)이다. 1990년에 조사된 대전 월평동 유적은 백제의 월평동 산성과 연결되는 유적이므로, 이를 묶어 월평산성으로 부르기도 한다. 월평동 유적에서는 1열의 목책으로 된 목책1과 내외 2열로 구성된 목책2가 있고, 목책2와 동일한 방향의 성벽1과 백제의 성벽인 성벽2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목책2의 경우 약 1.5m 간격의 기둥 사이에 할석을 쌓고 외면에 점토다짐을 한 구조이고, 성벽2의 경우 성벽1을 파괴하고 북쪽으로 겹쳐있기 때문에 월평동 산성과 연결되는 후대 백제의 유구에 해당한다.⁷⁾

세종 남성골 산성(圖1-2)은 2001과 2006년에 두 차례 조사가 진행되었다. 전체 둘레 700m 정도로 추정되는데, 내외부 2중의 목책열과 목책 외부에 석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책 내부는 흙으로 다져서 채우고, 석축은 점토를 섞어 쌓아서 외부에는 기초부를 보강한 것으로 파악되어 목책도니성의 구조로 이해되고 있다. 성내부에서는 구들이 설치된 주거지 8기, 원형수혈 251기, 수혈 25기 등의 다수의 유구가 조사되었는데, 백제 토기와 함께 고구려 금제이식을 포함

7) 국립공주박물관·충남대학교박물관, 『大田 月坪洞 遺蹟』, 1999. 조사 면적이 협소하고 자료가 부족하여 연구자 간에 목책과 석축의 조성 주체와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다(최종택, 앞의 논문, 2016 ; 이한상, 「대전 월평산성 축성 주체와 위상」, 『백제연구』 63, 2016 ; 김길식, 「대전 월평산성 출토유물과 점유세력의 변화 관방시설 축조기법과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57, 2017).

한 다량의 고구려 토기들이 확인되어 월평동 유적과 같이 백제의 관방시설을 고구려가 재활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⁸⁾



[圖 1] 금강-미호천 유역 고구려 관방시설과 고구려 유물 출토 산성 분포

한편 『충주 고구려비』와 관련하여 국원의 중심에 위치한 충주 장미산성(圖1-⑧)에서 고구려 토기가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고구려가 조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유구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⁹⁾ 이러한 상황은 고구려 토기가 수습된 세종 나성(圖1-④),¹⁰⁾ 청주 부모산성(圖1-⑤),¹¹⁾ 청주 정북동 토성(圖1-⑥),¹²⁾ 진천 대모산성

8) 忠北大學校博物館, 『清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2004 ; 중원문화재연구원, 『清原 IC~芙蓉面 道路工事區間內 清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2006年度 追加 發掘調査-』, 2008.
 9) 中原文化財研究院, 『忠州 薔薇山城 -1次 發掘調査 報告書-』, 2006 ; 박중균, 「장미산성 출토 토기의 양상과 성격」, 『東亞世亞 歷史文化論叢』, 서경문화사, 2014.
 10) 중앙문화재연구원, 『行政中心複合都市 中央緣地空間 및 生活圈 2-4區域 內 低濕8遺蹟(北岑) 燕岐 羅城里遺蹟』, 2015.
 11) 청주 부모산성 북문지와 수구지 일대에서는 보주형 개편과 부모산성 1보루 북서쪽에서 장동호편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토기들은 고구려토기 혹은 고구려계 토기로 파악된다(박중균, 「父母山城 出土 土器의 樣相과 性格」 『청주 부모산성의 종합적 고찰』, 충북대학교 박물관, 2013, 118쪽).
 12) 청주 정북동 토성 북동편 해자 최상층에서 고구려 토기가 수습되었다(충북대학교

(圖1-①)의 경우와 동일하다.¹³⁾ 그렇지만 고구려의 진출 이전에 백제가 먼저 관방시설을 구축한 것은 확인되고, 월평동 유적이거나 남성골 산성과 입지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직 산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조사를 통하여 고구려의 유구가 확인될 가능성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안성 도기동 산성(圖1-3)은 주변 지역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목책열로 추정되는 유구가 간헐적으로 확인되었는데,¹⁴⁾ 2015년에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도기동 산성은 전체 둘레가 1.4km에 이르는 남한 지역 최대 규모의 고구려 관방시설이다. 도기동 산성은 안성천 지역에 위치하여 금강-미호천 유역과 이격되어 있지만, 백제 토성 위에 이중의 목책을 조성한 방식은 대전 월평동 유적과 세종 남성골 산성과 유사하다.¹⁵⁾

나. 한강-중랑천 유역의 고구려 관방시설

“한강-중랑천 유역권”은 백제 왕성인 풍납토성과 한강을 두고 마주한 아차산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자료에서는 현재의 관방시설보다 많은 수가 확인되는데, 1970년대 이후 도시화 과정에서 일부가 소멸되었기 때문이다.¹⁶⁾ 아차산에는 7개소의 관방시설이 확인되며, 이와 연결된 흥련봉(2개소)과 용마산(8개소), 망우산(3개소)에서 총 20개소의 관방시설이 확인된다. 그리고 아차산 서편에 중랑천을 마주한 배봉산과 북편에 독립된 구릉인

박물관, 『청주 정북동토성』Ⅳ, 2018).

13) 진천 대모산성 내성의 북편에서 고구려 옹 1점이 수습된바 있다(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鎭川 大母山城 地表調查 報告書』, 1996).

14)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안성 도기동 436-1번지 유적』, 2016 ; 세종대학교박물관, 『안성 도기동 산52번지 창고신축부지 유적』, 2016.

15) 김진영, 「안성 도기동산성의 발굴성과와 성벽구조에 대한 소고」, 『高句麗渤海研究』 58, 2017 ; 기념문화재연구원, 『안성 도기동산성』, 2018.

16) 윤성호, 앞의 논문, 2017(a), 76~84쪽.

봉화산에서도 각각 1개소의 시설이 확인되었고, 중랑천을 따라서 아차산 북편으로 연결되는 수락산에서도 3개소의 관방시설이 확인된다.

이러한 관방시설은 아차산 일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기존의 산성과는 구별하고자 보루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보루는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아군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석으로 축조한 성채를 가진 소규모의 군사시설을 의미하는데, 규모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한강유역에서 임진강을 연결하는 지점의 관방시설을 참고하여 둘레 300m를 보루의 범위로 설정한 연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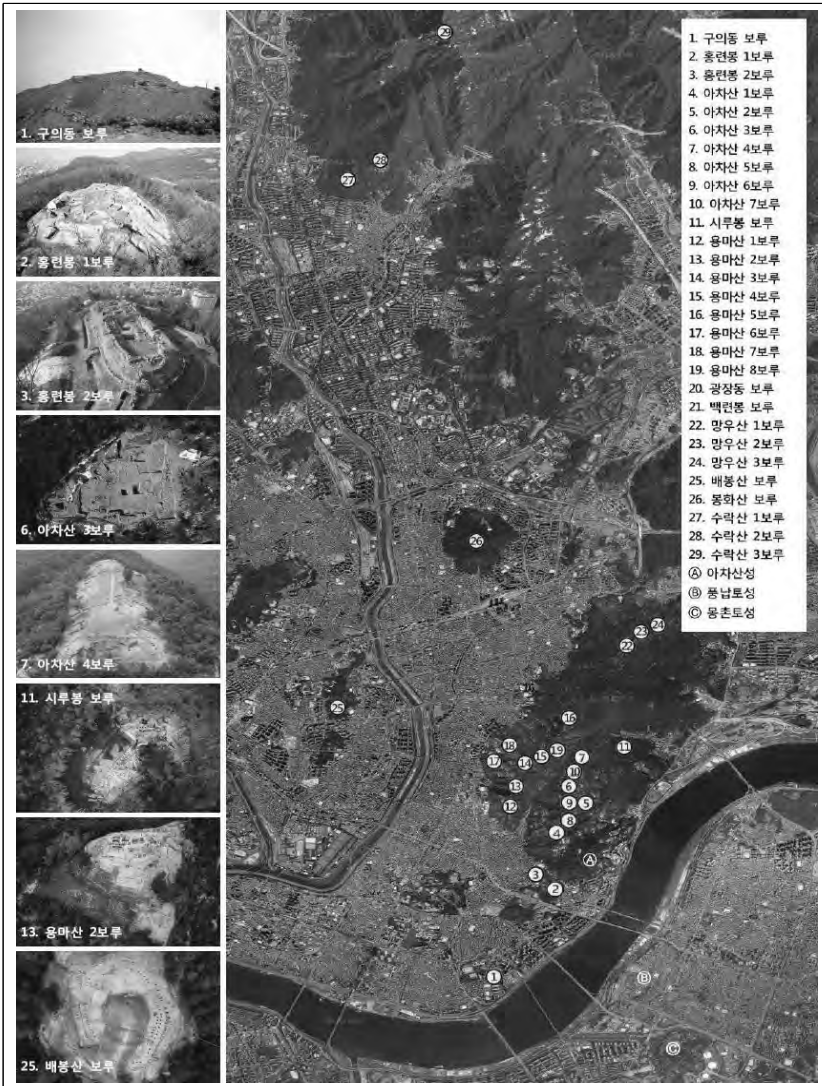
현재는 소멸되었으나 아차산에서 남서편으로 한강변에 독립된 소구릉에 위치한 구의동 보루(圖2-1)는 남한 지역에서 최초로 조사된 고구려 관방시설이다.¹⁸⁾ 구의동 보루는 둘레가 46m의 소형 보루이지만 화재로 붕괴되어 다양한 유물이 남아있었고, 건물지가 목구조에 판재를 붙여 올린 벽체가 있는 구조임이 밝혀졌다.

아차산 남서편의 독립된 구릉인 흥련봉에는 2개소의 보루가 있다. 흥련봉 1·2보루는 2004~17년까지 3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성벽과 성내부 건물지뿐만 아니라, 보루의 외곽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외곽과 보루를 연결하는 도로 유구도 확인되었다.

흥련봉 1보루(圖2-2)는 둘레가 140m의 석축으로 된 이중성벽과 내부 판축대지 위에 20여 기의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아차산 일대 보루 중에서 유일하게 연화문 와당 7점이 확인되어, 한강유역에서 가장 위계 있는 건물이 설치된 보루임을 알 수 있다. 흥련봉 2보루(圖2-3)는 둘레가 204m로 내부는 고대지와 함몰지로 구분된 내부 구획에 11기의 건물지와 저장시설 4기가 확인되었으며, 계단시설과 암거식 배수시설이 완전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또한 축조 당시에

17) 白種伍, 「京畿北部地域 高句麗城郭의 分包와 性格」, 『京畿道博物館年報』 3, 1999, 61쪽.

18) 華陽地區發掘調查團, 『華陽地區 遺蹟發掘 調查報告』, 1977 ; 구의동보고서 간행위원회, 『한강유역의 고구려유새 -구의동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1997.



[圖 2] 한강-중랑천 유역 고구려 관방시설과 고구려 유물 출토 산성 배치

토사를 확보하고, 운영시 배수기능과 성벽을 높여주는 기능을 부가하고자 외황을 외곽으로 돌린 것도 확인되었다.¹⁹⁾

아차산 정상부에 위치한 아차산 3보루(圖2-6)는 2005년에 남쪽

치와 내부 건물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잔존한 성벽을 기준으로 전체 둘레는 431m에 이르러 소형 산성에 가깝지만, 남쪽 지역에 대한 부분적인 조사에서도 건물지 8기, 배수시설 3기, 방앗간 1기 등이 확인되었다.²⁰⁾

또한 아차산 정상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능선상의 구릉에 위치한 아차산 4보루(圖2-7)는 몽촌토성(圖2-㉠)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남한 지역에 고구려 토기의 존재가 확인된 후 최초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1997~98년의 조사에서 아차산 4보루는 둘레가 256m이며, 내부에서 건물지 7기, 집수시설 2기, 구들시설 13기 등이 확인되었다.²¹⁾ 2007년의 성벽에 대한 보완조사에서 총 5개의 치를 조사하였다.²²⁾ 아차산의 서편에 위치한 용마산에서는 8개소의 보루 중에서, 용마산 2보루(圖2-13)만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2005~06년에 진행된 발굴조사에서 둘레 79m의 소규모 보루임에도 4기의 건물지와 집수시설이 조성된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남동편으로 아차산 4보루의 남쪽치와 같은 이중 구조로 된 치가 조사되어 주목을 받았다.²³⁾

용마산과 연결된 망우산에서는 3개소의 보루가 확인되었으나, 발굴조사는 진행되지 않아서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아차산 북동편으로 연결되는 봉우리에 위치한 시루봉 보루(圖2-11)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2차례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둘레 205m의 규모로 성내부에서는 여타 보루와 유사한 건물지와 집수시설이 확인되었으나, 성 외곽으로 연결된 이중 석렬이 조사되어 흥련봉 2보루 외황과 비교 자료가 되고 있다.²⁴⁾

19) 高麗大學校 考古環境研究所, 『紅蓮峰 第1堡壘 -發掘調査綜合報告書-』, 2007(a) ; 『紅蓮峰 第2堡壘 -1次 發掘調査報告書-』, 2007(b) ; 韓國考古環境研究所, 『흥련봉 1:2보루』, 2015 ; 『흥련봉 1:2보루 3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7.

20) 高麗大學校 考古環境研究所, 『峨嵯山 第3堡壘 -1次 發掘調査報告書-』, 2007(c).

21) 서울대학교박물관, 『아차산 제4보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2000(b).

22) 국립문화재연구소, 『아차산 4보루 발굴조사 보고서』, 2009.

23) 서울대학교박물관, 『용마산 제2보루 발굴조사보고서』, 2009.

그리고 기왕에 지표조사에서 고구려 관방유적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던 배봉산에서도 배봉산 보루(圖2-25)가 확인되어 2016년에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전체적으로 상단부의 유실이 심하고, 석축의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지만, 성내부의 판축다짐 구조와 외곽 석축 성벽의 축조방식은 대체로 흥련봉 1보루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²⁵⁾

또한 수락산 1보루(圖2-27) 성벽의 2지점에 대한 표본조사가 진행되었다. 2개소의 트렌치 조사였으나, 토축부에 석축을 붙인 성벽의 구조와 출토 유물 양상은 아차산 일대 보루와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²⁶⁾ 봉화산 보루(圖2-26)도 아직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시굴조사를 위한 정밀 지표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조사결과 서벽과 남벽에서 잔존 성벽이 확인되었는데, 전체적인 외형은 수락산 1보루처럼 아차산 일대 보루의 구조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²⁷⁾

한편 아차산의 남쪽 자락에서 풍납토성(圖2-㉔)과 마주한 아차산성(圖2-㉓)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고구려 토기와 기와가 출토되었다. 특히 흥련봉 보루와 동일한 모티브의 와당이 확인되었다.²⁸⁾ 이는 금강-미호천 유역의 고구려 유물이 출토되는 백제 산성과 유사하여, 향후 기타 보루와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한강-중랑천 유역의 고구려 관방시설은 작은 봉우리를

24) 서울대학교박물관, 『아차산 시루봉 보루-발굴조사 종합보고서-』, 2002 ; 『시루봉보루』Ⅱ, 2013.

25) 서울문화유산연구원, 『배봉산 보루 유적』, 2018(a).

26) 국방문화재연구원, 『수락산 보루 종합정비 계획』, 2018.

27) 서울문화유산연구원, 『서울 중랑구 봉화산보루 사전현황조사 보고서』, 2018(b). 앞서 봉화산 보루 내부에 대한 시굴조사에서는 고구려와 관련된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중랑구 봉화산 도당 부속건물 개축 및 정비사업 부지 문화유적 시굴조사』, 2007). 성벽 상단부와 내부는 조선시대 이후에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28)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아차산성 남벽 및 집수지 발굴조사 2차 자문회의 자료집』, 2016 ; 『아차산성 남벽 및 집수지 발굴조사 3차 자문회의 자료집』, 2017 ; 『아차산성 남벽 및 집수지 발굴조사 4차 자문회의 자료집』, 2018.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아차산 3보루를 제외하면 둘레 300m 미만의 보루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루는 중랑천을 따라 북쪽으로 양주분지까지 연결된 것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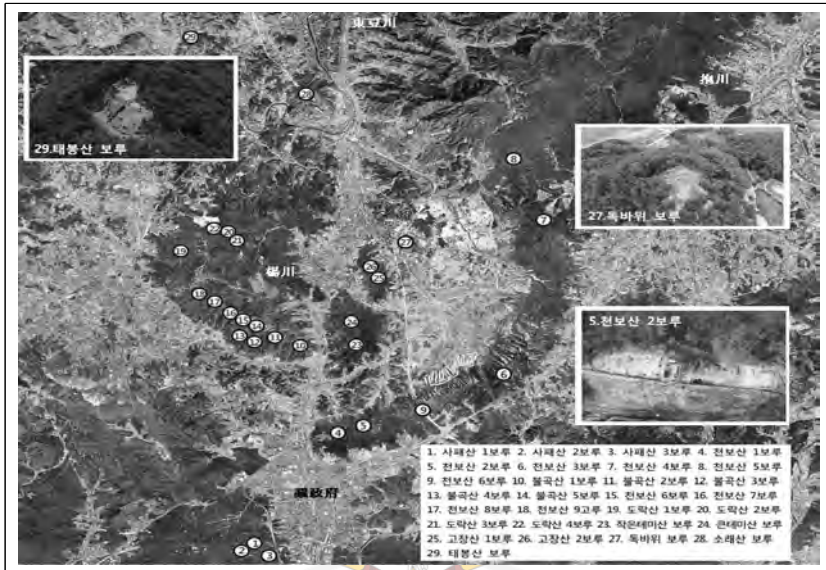
다. 양주 분지의 고구려 관방 시설

“양주 분지권”의 남쪽 입구에 해당하는 중랑천의 서편에는 의정부 사패산 보루군(3개소)이 위치한다. 양주분지의 동편으로 천보산 보루군(6개소)과 서편으로는 불곡산 보루군(9개소)과 도락산 보루군(5개소)이 원형으로 촘촘하게 분지를 감싸고 배치되었다.

양주 분지 내부에도 주요 교통로의 요충지에 위치한 구릉 일대에는 고장산 1~2보루, 큰테미산 보루, 작은테미산 보루, 독바위 보루가 위치하며, 양주 분지에서 동두천-연천 전곡 방향을 연결하는 교통로상에는 소래산 보루, 칠중성이 위치한 파주 적성의 임진강에 연결되는 교통로에는 태봉산 보루가 위치한다. 총 30개소의 보루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지만 3개소만 조사가 진행되어 타 지역에 비하여 조사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천보산 정상 서편 봉우리에 위치한 천보산 2보루(圖3-5)에서는 보루의 북쪽편을 대상으로 2012년에 조사가 진행되었다. 추정 성벽 둘레는 약 106m인데, 성벽 일부와 치 1개소, 구들 건물지 3기, 집수지 1기 등이 확인되었다. 치 내외부에서 목책 수혈이 확인되었는데, 훼손이 심하여 성벽 구조를 검토하기는 어렵지만 출토되는 유물과 유구의 양상은 아차산 일대 보루군과 큰 차이가 없다.²⁹⁾

29) 서울대학교박물관, 『양주 천보산 2보루』, 2014.



[圖 3] 양주분지 고구려 관방시설

태봉산 보루(圖3-28)는 2014~17년에 4차례에 걸쳐 둘레 143m의 성벽과 내부를 절반 정도 조사하였다. 성벽의 축조 방식은 아차산 일대 보루군과 유사하였으나, 여타 보루와 달리 신라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서 순수하게 고구려가 축조하여 사용하고 폐기된 보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³⁰⁾

한편 2018년에 발굴조사가 진행된 독바위보루(圖3-27)에서는 석축 성벽, 구들 건물지, 집수시설이 확인되었는데, 기왕의 조사된 보루 중에서 유일하게 한성백제 타날문토기편이 고구려·신라 토기와 함께 출토되었다.³¹⁾

30)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양주 태봉산 보루』 I, 2016 ; 『양주 태봉산 보루』 II, 2017 ; 『양주 태봉산 보루』 III·IV, 2018.

31) 화서문화재연구원, 『고구려유적 독바위보루 시굴조사 및 1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8.

라. 임진강-한탄강 유역의 고구려 관방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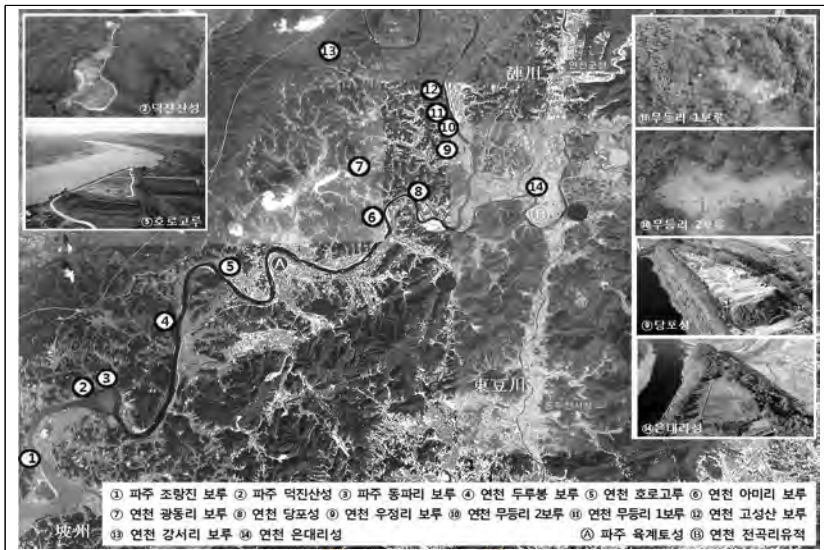
“임진강-한탄강 유역권”은 임진강과 한탄강의 북쪽에 관방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강의 주요 도강 지점에 작은 천이 합류하는 삼각형 지형을 활용하여 축조한 호로그루, 당포성, 은대리성이 위치한다.

임진강 최남단에서부터 파주 조량진 보루, 덕진산성, 동파리 보루, 연천 호로그루, 아미리 보루, 광동리 보루, 우정리 보루, 무등리 1·2보루, 고성산 보루, 강서리 보루가 있고, 임진강을 따라서 북한 지역에서도 소규모 관방시설이 위치한다.³²⁾ 임진강과 한탄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당포성이 위치하고, 한탄강을 따라 동편에 은대리성이 있다. 은대리성보다 한탄강 상류(연천군 전곡읍 동편)에서 고구려 관방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연천 호로그루(圖4-5)는 2001~16년까지 총 5차례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전체둘레는 401m 중에서 동벽 93m만 성벽이 축조되었다. 동벽하단부에서는 선대 목책의 존재가 확인되어 현재의 성벽이 조성되기 이전에 시설물이 존재하였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목책의 상단부에 판축을 한 뒤에 외벽에 석축으로 마감하고, 성벽 외부에 보축성벽을 축조한 점에서 한강유역과 양주분지 일대 보루의 구조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확인되었다. 내부에서는 목구조로 보강한 집수시설도 확인되었다.³³⁾

32) 북한 지역의 임진강변에 위치하는 이천 성산고성, 철원 망경산성, 노기산성, 삭령산성은 둘레 600m 미만의 산정식 관방시설이며 고구려 기와가 출토되는데, 한강 이북 지역의 보루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33)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漣川 瓠蘆古壘 (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9 ; 『漣川 瓠蘆古壘』Ⅲ(第2次 發掘調査報告書)』, 2007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漣川 瓠蘆古壘』Ⅳ(第3·4次 發掘調査報告書), 2014 ; 한울문화재단연구원, 『연천 호로그루 동벽 남측 치성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6.



[圖 4] 임진강-한탄강 유역 관방시설

당포성(圖4-8)은 2000~06년까지 2차례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둘레 50m의 동벽은 호로고루와 유사한 입지에 동일한 방식으로 판축토성 외벽을 석재로 마감하고 보축을 붙인 구조임이 확인되었다.³⁴⁾

은대리성(圖4-14)은 2003년~17년까지 3차례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역시 동일한 입지에 판축 중심의 성벽인데, 내외벽을 석축으로 보강한 정도의 구조라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며, 타 관방시설과 다르게 5세기대의 토기만 확인되어 중요한 편년기준이 되고 있다.³⁵⁾

임진강 하류에 위치한 파주 덕진산성(圖4-2)도 2012~18년까지

34)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천 당포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6 ; 경기도박물관-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천 당포성 II -시굴조사 보고서-』, 2008.

35)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원, 『연천 은대리성 지표 및 시·발굴조사 보고서』, 2004. 기존 조사에서 성 내부에서 확인되는 석축을 근거로 복곽식의 내외성 이 중구조로 이해되었으나, 최근 조사에서 성 내부에 조선시대 건물의 축대인 것이 밝혀졌다. 즉, 은대리성의 내부 구조도 호로고루, 당포성과 유사한 것이다(중앙문화재연구원, 『연천 은대리성 성내부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7).

6차례 조사가 진행되었다. 덕진산성은 고구려-통일신라-고려-조선 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수개축이 진행되어 장기간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치와 서벽에서 고구려의 초축부가 조사되었다. 고구려 초축구간 외곽으로 통일신라시대에 2차례 수축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조선시대에는 고구려의 초축성벽 상단을 보강하여 수축한 것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고구려의 축조 구간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보루의 축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³⁶⁾

그리고 임진강과 한탄강의 하안에 위치한 성곽과는 다르게 다수의 보루형 관방시설들이 강의 북편과 서편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이 확인되는데, 연천 무등리 보루군만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무등리 1보루(圖4-11)는 2017년 조사에서 둘레가 약 200m이고, 단순히 토축부에 석축을 붙인 구조가 아닌 석축에 뒤채움이 들어간 특이한 축성방식이 확인되었다.³⁷⁾

2010~12년까지 조사한 무등리 2보루(圖4-10)는 둘레가 350m인데 토축부에 석축을 붙인 구조는 타보루와 유사하지만, 성벽 하단부에 불다짐층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³⁸⁾

한편 유구는 명확하지 않지만, 파주 육계토성(圖4-㉔) 내부에서 5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고구려 토기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기존에 연천 전곡리 유적(圖4-㉕)에 대한 조사에서 구릉이 토성이 아닌 것은 확인되었으나, 내부 평탄면에서는 고구려 토기들이 확인된바 있다.³⁹⁾ 한탄강을 따라 철원 방면으로 연결되고, 양주분지에서 추가

36) 中部考古學研究所, 『坡州 德津山城 -1·2次 學術發掘調査』, 2014 ; 『坡州 德津山城 -3次 學術發掘調査 中間 報告書』, 2016 ; 『파주 덕진산성(6차)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학술발굴조사 결과보고서』, 2017 ; 『파주 덕진산성(6차)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제3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18.

37) 서울대학교박물관, 『연천 무등리 1보루 정밀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7 ; 이정은·김현우, 『연천 무등리 보루군 발굴조사의 성과』, 『연천 무등리 보루군의 성격과 의미(무등리 보루군 사적 등재를 위한 학술 세미나 자료집)』, 연천군·고구려발해학회, 2018.

38) 서울대학교박물관, 『연천 무등리 2보루』, 2015.

39)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연천 전곡리성 -전곡선사박물관건립부지 내 문화재

령구조곡으로 철원으로 가는 합류지점인 포천 반월산성의 북쪽 고대지 등지에서 고구려 토기편이 수습되었는데, 현재의 산성 내부에 고구려가 소규모 관방시설을 축조하였을 가능성도 있다.⁴⁰⁾

3. 연구 현황 및 향후 과제

가. 고구려 관방시설 유형과 남진 방향

앞서 발굴조사를 통하여 구조가 밝혀진 20개소의 고구려 관방 시설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① 백제 토성을 재활용하여 목책을 세운 뒤 내부에 점토 등으로 다지고, 목책 외면에 석축과 점토로 보강한 목책도니성이다. ② 구릉 정상부에 외면에 석축을 붙이고 내면에 영정주를 넣어 판축으로 다져올리는 구조이고, 산정상부에 여타 보루와 균집을 이루면서 조성된 보루이다. ③ 임진강과 한탄강의 도강이 가능한 교통의 요지에 작은 하천과 합류하는 삼각형의 하안단구 위에 보루와 같은 구조로 한쪽면만 성벽을 구성하는 강안평지성의 관방시설이다. 이중 목책도니성은 금강-미호천 유역과 인근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임진강변의 호로고루는 동벽하단부에 선대의 목책이 확인된 바 있다. 보루는 한강 북안에서 중랑천을 따라서 양주분지와 임진강까지 연결되는 두 지점에 집중되어 있다. 하안단구 위에 이등변 삼각형의 성곽은 임진강-한탄강변에 위치하며, 임진강 북안의 관방시설은 한강-중랑천, 양주분지의 보루와 구조나 입지는 대동소이하다.

발굴조사 보고서』, 2010 ; 서울대학교박물관, 「전곡리토성 시굴조사 보고서」, 『연천 무릉리 2보루』, 2015.

40)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 반월산성 -종합보고서(I)-』, 2004 ;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6, 96~101쪽.

아직 고구려 관방시설 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이러한 유형별 차이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는 고구려 장수왕이 475년에 남진을 개시하여, 백제의 한성을 점령하고 그 기세를 몰아서 남진한 결과 대전 월평동 유적과 세종 남성곡 산성이 축성된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⁴¹⁾ 또한 보루 내부에서 확인되는 일정한 간격의 수혈을 목책도니성의 목책과 동일한 성격으로 파악하여, 목책단계에서 내부에 판축을 하면서 외부에 석축이 부가되는 단계로 발전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연구도 있었다.⁴²⁾

그렇지만 흥련봉 1·2보루에 대한 2차 조사 이후 목책성의 축성 방식과 보루는 구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⁴³⁾ 다만, 초축단계부터 판축으로 구성된 토성과 외면의 석축부를 동시에 조성하는 토심석축 방식으로 조성되었다는 견해와 토성과 같이 판축부를 조성하고 외면을 깎아내어 석축을 붙이는 구조로 이해하는 견해가 상충하고 있다.⁴⁴⁾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는 『충주 고구려비』의 조성시기와 연결되는 문제이다. 비의 건립 시기에 대해서도 학계의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연구는 449년 이전에 고구려가 충주 지역으로 남하하여 국원을 설치하고, 신라와 백제를 압박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지지를 받고 있다.⁴⁵⁾

41) 최종택, 앞의 책, 2013, 267쪽.

42) 기왕의 연구자들도 최근에 발굴조사된 성과를 바탕으로 목책에서 석축으로 개축되는 단계 설정은 철화하였다(최종택, 앞의 책, 2013, 193~202쪽 ; 양시은, 2016, 앞의 책, 95~97쪽).

43) 심광주, 「고구려 성곽 발굴조사 성과와 축성기법」, 『아차산 일대 보루군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방안, 광진구·한강문화재연구원』, 2014, 37~45쪽 ; 「덕진산성 축성법 검토」, 『파주 덕진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및 활용 방안』, 중부고고학연구소, 2015, 121~149쪽.

44) 안성현, 「흥련봉 1·2보루의 축조방식과 구조에 대한 연구」, 『百濟文化』 55, 2016, 130~133쪽.

45) 『충주 고구려비』가 449년에 건립되었다는 견해(金貞培, 「中原高句麗碑의 몇 가지 問題」, 『史學志』 13, 1979, 89~92쪽 ; 鄭雲龍, 「5世紀 高句麗 勢力圈의 南限」, 『史叢』 35, 1989, 4~7쪽 ; 篠原啓方, 「「中原高句麗碑」의 釋讀과 내용의 의

즉, 금강-미호천 류역의 대전 월평동 유적과 세종 남성골 산성은 5세기 중엽 이전에 고구려가 진출한 국원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일시적으로 진출한 결과로 이해하는 견해가 주목되는 것이다.⁴⁶⁾ 구조적으로 동일한 안성 도기동 산성도 출토되는 유물이 6세기를 넘는 것이 확인되지 않고, 한강 이남에서 안성천 유역에 이르는 지역에 고구려의 관방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충주-진천-죽산-안성으로 고구려가 서진한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구려는 475년에 한성을 공격하기 이전에 남한강-달천 유역의 충주 방면으로 남진하였고, 충주를 중심으로 미호천을 따라 금강 유역까지 진출하여 백제의 관방시설을 점령하여 수개축한 뒤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여 나제동맹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목적도 수행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⁴⁷⁾

이에 앞서 고구려는 5세기를 전후하여 임진강 일대에서 백제와 공세를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파주 육계토성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고구려 토기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5세기 이전에 임진강-한탄강 유역으로 남진하여 관방시설을 구축하였고(圖5-I기), 5세기 중반경에 춘천-홍천-원주-충주의 경로로 남진하여 충주를 국원으로 삼아 남쪽 대전까지 진출하여 백제를 압박하였다(圖5-II기). 그리고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이 한성 백제의 수도를 함락시키면서 고구려는 다시 한강을 도하하여 탄천을 따라서 용인 일대까지 남하한 뒤에 백제와 한강 유역을 두고 공방을 벌

의」, 『史叢』 51, 2000, 28~36쪽; 朴京哲, 「中原文化圈의 歷史的 展開 -그 地政學的·戰略的 位相 變化를 中心으로-」, 『先史와 古代』 15, 2000, 283쪽;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景仁文化社, 2014, 380~391쪽.

46) 정운용, 「淸原 南城谷 高句麗 山城의 構造와 運用」, 『동북아역사논총』 39, 2013, 53~91쪽; 白種伍, 「中原地域 高句麗 遺蹟 遺物の 檢討」, 『高句麗渤海研究』 50, 2014, 240쪽; 이정범, 「5~6세기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형태」, 『高句麗渤海研究』 51, 2015, 95쪽; 신광철, 「고구려의 중원 지역 진출에 대한 소고」, 『高句麗渤海研究』 51, 2015, 62쪽.

47) 尹星鎬, 『新羅의 漢江流域 領域化 過程 研究』, 高麗大學校 韓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017(b), 66~67쪽.

인 것(圖5-Ⅲ기)임을 관방시설의 배치와 유형 구분을 통하여 추정해 볼 수 있다.



[圖 5] 고구려 관방시설의 배치와 남진 단계

반면에 기왕의 통설을 보완하여 월평동 유적, 남성골 산성, 도기동 산성 등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토기가 5세기 후반대로 편년되기 때문에 475년에 고구려가 한성을 공략한 대전까지 남하하였고, 관방시설을 운영하며 백제를 압박한 것으로 파악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⁴⁸⁾ 따라서 고구려 남진의 방향성은 향후 추가 조사와 논의를 통하여 계속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 고구려 관방시설의 운영시기

기왕에 한강-중랑천 유역의 고구려 보루의 축조와 운영시기에 대

48) 양시은, 「백제 웅진기 동북쪽 영토와 지방지배」, 『백제 웅진기 영역과 지방통치』, 한성백제박물관, 2018, 114~120쪽.

해서는 6세기 초반에 축조되어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이 한강유역을 차지하는 551년까지 운영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몽촌토성에서 5세기 후반의 고구려 토기가 확인된 것을 근거로 475년에 고구려가 한성백제를 멸망시킨 후에 한성 지역을 중심으로 지배력을 미쳤으나, 백제가 국력을 회복하자 한강 이북 아차산을 중심으로 보루를 구축하여 방어선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⁴⁹⁾ 그런데 최근에 475~551년까지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었다는 견해에 대한 반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529년 오곡 전투 이후에 한강유역을 고구려가 완전히 차지하게 되었다는 입장에서 한강-중랑천 유역 보루의 축조 상한을 529년 이후로 상정하는 견해들도 나오게 되었다.⁵⁰⁾

또한 기왕의 연구에서는 551년에 백제와 신라가 한강유역을 확보하는 기록에 착안하여 이 시기에 고구려 보루가 폐기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지만 551년 이후 신라의 주가 치폐를 거듭한 것과 영역의 변동을 결부하여 고구려는 6세기 중반 한강 일대를 방어하기 위해 아차산에 보루를 재사용하였고, 북한산주를 다시 설치한 604년에 폐기된 것으로 추정한 견해가 나온바 있다.⁵¹⁾

이에 더하여 5세기 후반부터 7세기 중반까지 6기의 획기로 나누어 529~551년, 568년~604년 사이에 아차산에 고구려 보루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⁵²⁾ 그리고 고구려가 장기간 운영한 연천 호로고루 토기를 분석하여 아차산 일대 보루군의 초축 시기를 ①호로고루 1기(5세기 중엽~후엽)-구의동 보루, ②호로고루 2기(6세기 전엽~중엽)에는 흥련봉 1·2보루, 아차산 3·4보루, ③호로고

49) 최종택, 「아차산 고구려 보루의 역사적 성격」, 『郷土서울』 64, 2004, 117~122쪽; 양시은, 앞의 논문, 2010, 54~58쪽.

50) 金榮官, 「百濟의 熊津遷都 背景과 漢城經營」, 『忠北史學』 11-12, 2000, 86~89쪽; 沈光注, 「南韓地域의 高句麗 유적」, 『高句麗研究』 12, 2001, 483~490쪽.

51) 서영일, 「京畿北部地域 高句麗 堡壘 研究」, 『文化史學』 17, 2002, 73쪽.

52) 金英燮, 『峨嵯山 高句麗 堡壘群의 재고찰』, 檀國大學校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2009, 34~50쪽.

루 3기(6세기 후엽 이후)에는 용마산 2보루, 시루봉 보루로 구분한 연구도 있다.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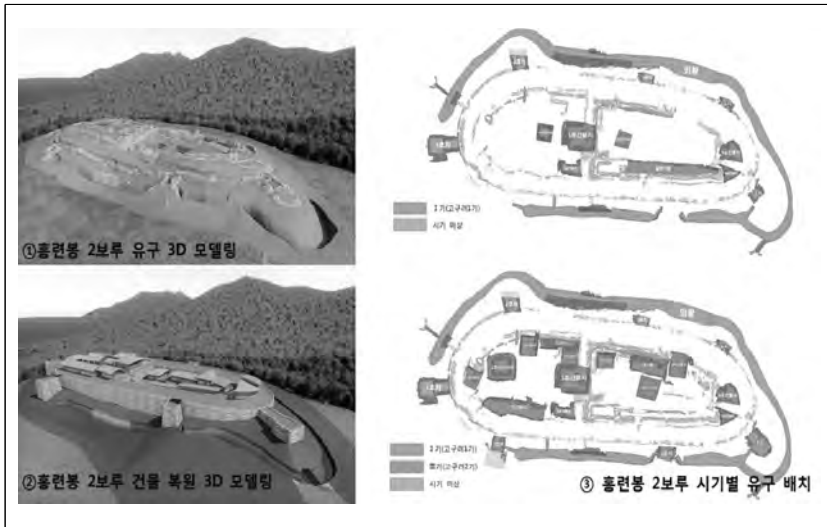
이와 같이 연구자 간에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보루의 수개축의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왕에 조사된 구의동 보루, 흥련봉 1·2보루와 아차산 3·4보루에 대한 보고서에도 수개축이 있었던 흔적을 확인한 바 있지만, 흥련봉 2보루의 잔존 유구를 3D모델링 작업을 해보면 건물 간 중복이 확인된다(圖6-1·2).⁵⁴⁾ 이에 유구 간의 중복 관계를 분석해 보면 4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 [Ⅰ기-고구려 1기, 529년 이후~551년] 고구려가 529년 이후에 보루를 초축하여 주둔하다가, 백제에게 한강유역을 상실하는 551년에 철수하는 시기이며, 2호 목곽저장시설과 1호 석곽저장시설에서 폐기 후 자연퇴적 양상이 확인된다. ②[Ⅱ기-신라 1기, 551년 이후~572년경] 신라는 고구려의 보루를 수개축하여 재사용하지 않았지만, 수개축된 고구려 건물의 벽체에 혼입된 신라 토기가 확인된다. ③[Ⅲ기-고구려 2기, 572년경~590년 이전]신라 북한산주가 폐지되고 남천주가 설치된 567년 이후부터 572년 팔관연회가 개최되는 시기 사이에 고구려가 아차산 일대를 탈환하여 보루를 수축한다. 치가 증설되고, 내부의 동선이 바뀌어 저장시설이 증설되며 대지를 조성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 ④[Ⅳ기-신라 2기, 나당전쟁기] 672년 주장성(남한산성)이 축조되는 나당전쟁기에 신라는 폐기된 흥련봉 보루의 성벽의 치나 내부 석축과 건물지를 개축하여 북한산주의 치소인 아차산성(북한산성)의 보조 시설로 재활용하였다. 흥련봉

53) 이형호, 『南韓地域 出土 高句麗土器 研究』, 高麗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碩士學位論文, 2014, 63~74쪽. 6세기 후반~7세기대 고구려 토기 편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고구려가 재점유를 한 것인지, 신라가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인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양시은, 「서울지역 고구려 보루 유적 조사 성과와 과제」, 『서울지역 고중세 성곽유적에 대한 주요 조사연구 성과와 과제(제60회 전국역사학대회 고고학부 발표자료집)』, 서울특별시·한국고고학회, 2017, 66~69쪽).

54) 광진구, 『아차산 일대 보루군(흥련봉 제1·2보루) 보호시설 설치 기본계획 및 중간설계』, 2018, 118쪽.

2보루의 1호 목곽저장시설의 자연퇴적층의 상단부에 매납된 외반구 연호와 흥련봉 1보루에 조성된 석곽묘의 토기가 7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므로, 나당전쟁 이후에는 관방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⁵⁵⁾



[圖 6] 흥련봉 2보루 유구 3D 모델링 및 단계별 유구 배치

여기서 2004년에 조사된 흥련봉 2보루에서 출토된 2점의 ‘庚子’ 명 토기(圖7-1·2)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왕의 연구에서 판독에 이견이 있었다.⁵⁶⁾ 그렇지만 이를 간지로 하고 경자년을 520년으로 파악한 견해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⁵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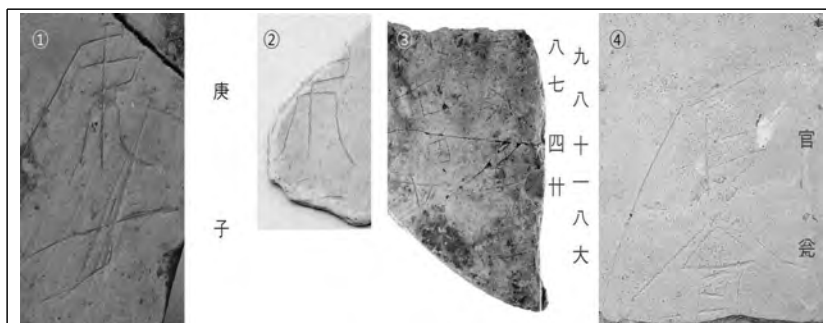
흥련봉 보루에서 출토된 명문이나 기호명 토기 중에서 사용자를

55) 尹星鎬, 앞의 책, 2017(b), 151~156쪽.

56) ‘虎子’로 판독하는 견해도 주목을 받았다(金賢淑, 「高句麗의 漢江流域 領有와 支配」, 『百濟研究』 50, 2009, 35~37쪽; 金榮官, 「웅진시대 백제의 한강유역 영유권 연구 -문헌과 고고학 자료의 재검토를 통한 이해 서설-」, 『百濟文化』 52, 2015, 138~139쪽).

57) 崔鍾澤, 「南韓地域 高句麗 土器의 編年研究」, 『先史와 古代』 24, 2006, 285~286쪽; 高麗大學校 考古環境研究所, 앞의 책, 2007(b), 179쪽.

파악하거나 습자용으로 새겨진 것도 있지만(圖7-3), ‘경자’명 토기는 소성 이전에 의도적으로 문자를 새겼다. 홍련봉 2보루 출토 ‘官瓮’의 명문이 있는 호(圖 7-4)도 사용 목적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사한 필체의 두 점의 ‘경자’명 토기편은 제작 시기를 표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圖 7] 홍련봉 2보루 출토 고구려 토기의 명문 자료

그런데 이를 고구려가 홍련봉 2보루를 운영한 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경자’명 토기는 1호 석곽저장시설이 폐기된 이후인 Ⅲ기에 조성된 2호 석곽저장시설에서 수습되었다. 앞 시기의 유물이 혼입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한 점은 완형으로 접합이 되는 상태이므로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재점령한 Ⅲ기에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경자’명 토기의 경자년이 580년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⁵⁸⁾ 이러한 점에서 향후 고구려 관방시설의 축조와 운영 시기와 관련하여 유구와 유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한강유역-중랑천-양주 분지 일대에 보루가 밀집되어 배치되어 있으나, 모든 보루가 고구려가 초축하여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금강-미호천 유역과 같이 백제의 시설을 재활용한 것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아차산 5보루, 천보산 3보루에서는 고구려 유물

58) 尹星鎬, 앞의 책, 2017(b), 152~155쪽.

이 수습되지 않고 신라 유물만 수습된바 있다. 이는 고구려가 축조한 보루 외에도 신라가 축조하거나 개축한 산성의 가시권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축한 보루가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루의 가시권 분석을 통하여 축조와 운영주체를 검토한 연구가 주목된다.⁵⁹⁾ 따라서 향후 조사를 통하여 고구려와 신라의 수개축 관계나 신라가 초축한 보루가 없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다. 유사한 백제 및 중국지역 관방시설과 비교

남한 지역의 고구려 보루에 대한 개념과 분포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백제나 신라의 보루에 대한 검토는 미진한 편이다. 양주 독바위 보루에서 한성기 백제토기가 확인되어 고구려가 보루를 축조하기 이전에 백제도 감시초소 정도의 역할을 부여한 시설을 축조하였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⁶⁰⁾ 그리고 흥련봉 1·2보루를 포함하여 고구려의 보루를 신라가 재사용한 것도 확인된다. 이와 같이 한강 유역에서 양주 분지 일대에서는 신라에 의해 사용된 보루의 존재가 확인되지만, 타 지역에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 반면에 백제의 경우는 보루를 축조하여 운영한 사례가 대전 주변지역과 서부경남 지역에서 확인된다.

대전지역의 동편과 동남편의 경우 계족산성이 위치한 계족산 북편 능선을 따라서 질현성 1~6보루가 배치되어 있으며, 식장산 일대에도 국사봉 2보루, 꾀꼬리봉 보루, 독수리봉 보루, 곤륜산 보루가 군집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⁶¹⁾ 그리고 보루군의 남쪽으로도 식장산 능선을

59) 이정범, 「감시권역 분석을 통해본 경기북부지역 보루의 사용주체와 기능」, 『高句麗渤海研究』 37, 2010.

60) 화서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2018, 23~30쪽.

61) 심정보, 『백제산성의 이해』, 주류성, 2009 ; 백제문화재연구원, 『대전의 산성 분포조사』, 2012, 254~256쪽.

따라서 계현성, 마달산성, 황골산 보루가 배치되어 있다. 계현성과 마달산성의 경우도 규모는 다소 크지만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발굴조사가 진행된 황골산 보루의 경우 백제 유물이 수습되었다.⁶²⁾ 대전지역의 남편에 해당하고 옥천 지역의 북쪽에 해당하는 환산 일대 환산 1~6보루가 군집을 이루고 배치되어 있다.⁶³⁾ 이러한 대전 일대의 보루군은 중심 방어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요 능선상에 소규모 보루를 배치하여 신라의 공격을 방어한 것으로 생각된다.

서부경남지역인 진주 서편의 월아산과 장군대봉 일대에도 환상으로 9개소의 보루가 축조되어 있는데, 월아산 보루군에서 붕괴된 석축 유구와 삼국시대 토기편이 수습된바 있다.⁶⁴⁾ 입지상 동쪽에서 들어오는 적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로 추정되므로 7세기대 서부경남 지역으로 진출한 백제가 신라에 대항하여 축조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백제의 보루군도 확인되고 있으나, 아직 조사가 미비하여 고구려 보루와의 비교 검토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시기적으로는 고구려의 보루 운영이 백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향후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 지역 고구려 보루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못했다.⁶⁵⁾ 중국에서 기왕의 조사는 대형산성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왕에 중국지역의 고구려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정리된 성곽의 분포를 살펴보면 보루의 특징을 지니는 산정식에 소규모 관방시설로 분류가 가능한 사례들도 확인된다.(表1-10~18, 24~28) 그리고 보루와 유사한 성격의 관방시설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圖8)

62) 백제문화재연구원, 『대전 황골산 보루 유적』, 2014, 22~27쪽.

63)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新羅 百濟激戰地(管山城) 地表調査報告書』, 2003, 90~9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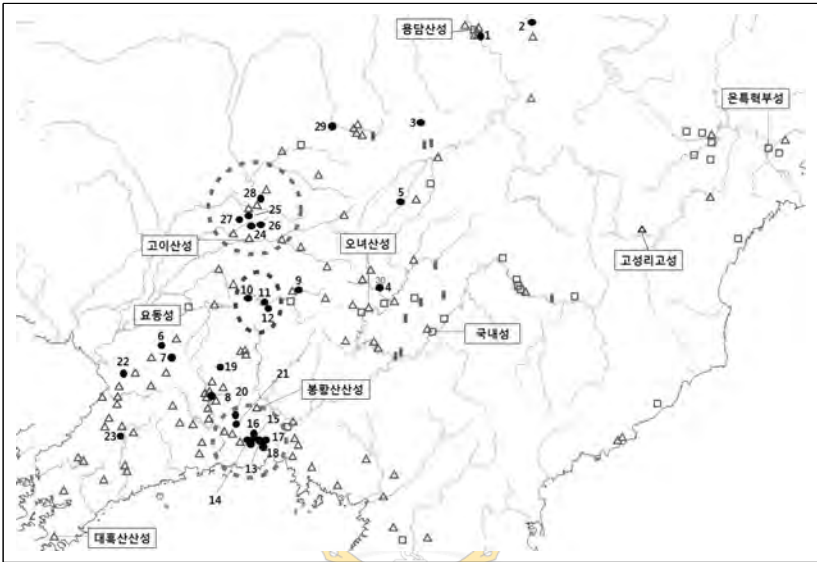
64)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경남의 성곽』, 2008, 65쪽 ; 국립진주박물관, 『서부 경남의 성곽』, 2011, 66~71쪽.

65) 王綿厚,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2002.

연번	명 칭	위 치	둘 레(m)	축성방식
1	東團山城(內城)	吉林省 吉林市	500	토석혼축
2	東山山城	吉林省 吉林市/蛟河市	200	토석혼축
3	大馬宗嶺山城	吉林省 吉林市/磐石縣	300	토석혼축
4	建設山城	吉林省 通化市/通化縣	300	석축
5	釣魚臺城址	吉林省 通化市/輝南縣	200	토석혼축
6	南臺山城	遼寧省 鞍山市/海城市	200	토축
7	窯溝山城	遼寧省 鞍山市/海城市	200	석축
8	茨溝山城	遼寧省 鞍山市/岫岩縣	(장축 45)	석축
9	黃嵐山城	遼寧省 撫順市/新賓縣	200	석축
10	有官山城	遼寧省 本溪市/本溪縣	400	석축
11	下堡山城	遼寧省 本溪市/本溪縣	300	석축
12	馬平溝山城堡址	遼寧省 本溪市/本溪縣	(남북23, 동서19)	석축
13	雪洼城址	遼寧省 丹東市/東港市	200	석축
14	樓房屯城址	遼寧省 丹東市/東港市	100	석축
15	佛老房城址	遼寧省 丹東市/東港市	200	석축
16	常家溝城址	遼寧省 丹東市/東港市	100	석축
17	高家堡山城	遼寧省 丹東市/東港市	300	석축
18	周家溝遺址	遼寧省 丹東市/東港市	400	석축
19	靑城山山城	遼寧省 丹東市/鳳城市	100	토석혼축
20	尖砬山城	遼寧省 丹東市/鳳城市	200	석축
21	團結山城	遼寧省 丹東市/鳳城市	200	석축
22	五官山城	遼寧省 營口市	300	석축
23	高力城山城	遼寧省 營口市/蓋州市	300	석축
24	長樓子山城	遼寧省 鐵嶺市/鐵嶺縣	-	토축
25	嶺西山城	遼寧省 鐵嶺市/鐵嶺縣	-	토석혼축
26	后營盤山城	遼寧省 鐵嶺市/鐵嶺縣	(남북100, 동서50)	석축
27	靑山山城	遼寧省 鐵嶺市/鐵嶺縣	80	석축
28	下裕山城	遼寧省 鐵嶺市/鐵嶺縣	-	석축
29	缸窯山城	遼寧省 鐵嶺市/西豐縣	70	토석혼축

[表 1] 중국 지역의 소형 산정식 산성 현황⁶⁶⁾

66) 양시은, 앞의 책, 2016, 252~268쪽, 고구려 성 일람표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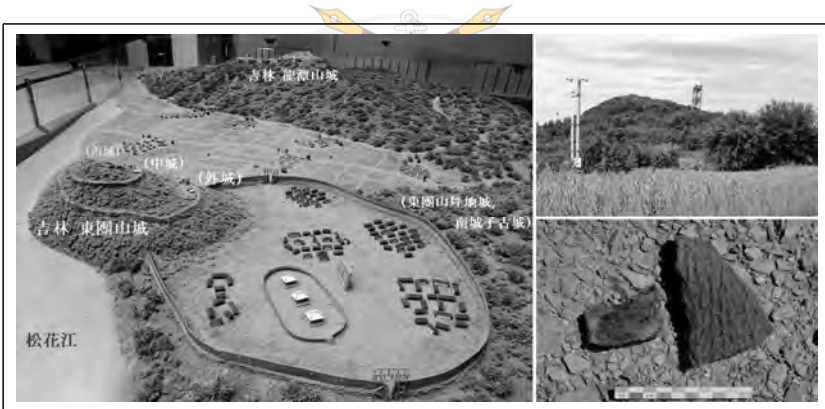


[圖 8] 중국 지역 고구려 관방시설과 소형 산정식 산성의 배치⁶⁷⁾

요령성 本溪 지역의 有官山城, 下堡山城, 馬平溝山城堡址는 석축 성벽에 둘러 300~400m의 규모이다. 丹東 지역의 경우 雪洼城址, 樓房屯城址, 佛老房城址, 常家溝城址, 高家堡山城, 周家溝遺址가 있으며 둘러 100~400m의 석축 성벽이 확인된다. 또한 요령성 鐵嶺 지역의 長樓子山城, 嶺西山城, 后營盤山城, 靑山山城, 下裕山城도 규모가 미상이나 소규모 관방시설로 토축, 토석혼축, 석축의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소규모 관방시설은 정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한지역의 보루와 구조를 비교하기 어렵지만, 철령 지역-본계지역-단동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치는 대체로 요동에서 주요한 교통로를 차단하고 대형 성곽들의 중간에서 방어선을 보강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관방시설에 대한 조사와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67) 양시은, 앞의 책, 2016, 21쪽, 삽도Ⅱ-2 편집.

남한 지역의 고구려 관방시설의 입지와 정반대로 고구려의 북쪽 변방에 해당하는 吉林 東團山城과 龍潭山城은 부여를 거쳐 고구려 까지 사용되었다.⁶⁸⁾ 이 중에서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지만 동단산성 내성(表1-1, 圖9)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단산성의 내성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훼손이 심하게 진행되었으나 대체로 둘레 500m의 산정식 토석혼축성으로 추정되며, 내부에서 고구려 외편이 수습되고 있다. 또한 송화강을 전망하는 입지나 구조에서 남한 지역 보루와 유사하다. 즉, 길림 동단산성 내성의 경우 기존 외성과 중성이 폐기되고 최후 단계에 정상부에서 동단산성의 보조성 또는 별도의 감시용 관방시설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남한 지역의 보루와 성격이 유사하다.



[圖 9] 길림 동단산성 내성 모형(吉林市博物館), 동단산 원경과 수습된 고구려 외편

한편 앞서 남한 지역의 고구려 관방시설 중에서 연천 임진강과 한탄강 일대에서 작은 하천과 합류하는 삼각형 하안단구에 한쪽면만 성벽을 축조한 호로그루, 당포성, 은대리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유사한 구조의 관방시설로 두만강변의 吉林省 和龍 古城里 古城

68) 서길수, 「吉林 東團山 주위의 고구려 유적유물에 관한 연구」, 『文化史學』 6:7, 1997; 董學增, 『夫餘史迹研究』, 吉林出版集團吉林文史出版社, 2011.

이 주목된다.(圖10) 고성리 고성은 두만강과 흥기하의 합류지점 서쪽 단애에 위치하는데, 전체 둘레는 710m이다. 호로그루를 비롯한 임진강 일대의 강안성은 두 면의 자연절벽을 이용하고 평지와 연결되는 한쪽면에 성을 쌓았으나, 고성리 고성은 동서벽과 북벽 일부에서 석축이 확인되고 남벽은 자연 절벽을 이용한 구조이다. 아직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성내에서도 유물이 수습되지 않아서 정확한 고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나, 이러한 지형의 유사성과 성의 형태는 임진강 유역 강안평지성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⁶⁹⁾



[圖 10] 삼각형 하안단구에 축성된 관방시설과 화룡 고성리 고성⁷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 지역의 고구려 관방시설과 유사한 구조나 성격의 백제 보루와 중국 지역의 소형 산정식 관방시설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남한 지역 고구려 관방시설의 기술적인 기원이나 전파양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69) 동북아역사재단, 『高句麗城 사진자료집 -中國 吉林省 東部』, 2010, 216~217쪽. 인근 화룡 대동촌에서 확인된 발해 유적과 관련하여 고성리 고성을 발해 성곽으로 파악한 견해도 있다(吉林省文物編纂委, 『和龍縣文物志』, 1984). 향후 구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축조 주체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70) 화룡 고성리 고성 도면 및 사진 출처는 동북아역사재단, 앞의 책, 2010, 218~220쪽.

4. 결론

지금까지 남한 지역의 고구려 관방시설의 조사 성과와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한지역 고구려 관방시설을 금강-미호천 유역권, 한강-중랑천 유역권, 양주 분지권, 임진강-한탄강 유역권의 4개 지역군으로 구분하고, 최근까지의 발굴조사 성과를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지표조사 등을 통하여 70여 개소 이상의 고구려 관방시설이 확인되었고, 20개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남한 지역의 고구려 관방시설은 사용 시기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단시간 내의 수개축 상황이나 지역별 특징을 파악하기에 용이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반면에 소규모의 관방시설이라는 점과 유구의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는 한계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전히 축조기법에 대해서도 연구자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 고구려 관방시설이 초축된 시기나 운영된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여러 설이 제기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관방시설이 고구려만 사용한 것인지 재활용된 것인지에 대한 운영양상에 대한 연구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에 남한 지역 고구려 관방시설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보았다. 첫째 금강-미호천 유역권의 백제의 판축 토성을 고구려가 재활용하여 축조한 목책도니성 유형, 둘째 한강-중랑천 유역권과 양주 분지권의 산정식의 둘레 300m 미만으로 군집을 이룬 보루 유형, 셋째 임진강-한탄강 유역의 자연 지형을 이용한 이등변삼각형 모양의 강안 평지성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 구분을 고구려의 남진과 결부하여 5세기 이전에 임진강-한탄강 유역을 중심으로 관방시설을 구축한 I기와 5세기 중반경에 춘천-홍천-원주-충주의 경로로 남하하여 충주를 국원으로

삼아 남쪽 대전까지 진출하고 백제를 압박하기 위하여 목책도니성을 설치한 Ⅱ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이 한성 백제의 수도를 함락시키면서 한강을 도하하여 탄천을 따라서 용인 일대까지 남하한 뒤에 백제와 한강 유역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보루를 설치한 Ⅲ기로 남진의 방향과 단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단계의 설정이나 남진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는 추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남진의 단계를 설정하고 학계의 논란이 많은 한강유역의 고구려 보루를 중심으로 운영시기를 재검토하였다. 고구려토기의 정치한 편년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편년안이 제기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한강-중랑천 유역 관방시설의 운영시기에 대한 통설은 6세기에 초축되어 6세기 중반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상실하는 시기에 폐기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러한 통설에 대하여 보루의 수개축과 유구의 중복관계 및 신라토기의 분석을 통하여 6세기 중반 이후에 고구려가 재남진 하였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운영시기에 대한 연구도 향후 발굴조사를 통하여 연구 성과를 축적해 나가면서 보다 정치한 분석과 검토가 지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한 지역 고구려 관방시설과 유사한 시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남한 지역에서는 고구려의 보루와 유사한 백제의 보루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보루는 고구려 보루보다 늦은 6~7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구체적인 조사가 미비하여 선후관계나 기술적인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 지역에서도 보루의 특징인 산정식의 둘레 300m 미만의 소형 관방시설이 확인된다. 대형 산성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소규모 산성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분석이 어렵지만, 길림 동단산성 내성의 구조나 입지에서 남한 지역 보루와 유사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화룡 고성리 고성의 경우에도 임진강-한탄강 유역의 호로고루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의 강안평지성의 형태를 보여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지금까지 고구려 관방시설에 대한 연구는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임진강-한탄강 이남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중국 지역에서는 소규모 관방시설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에서도 고구려 관방시설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중국 지역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성곽에 대한 조사 성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다. 따라서 임진강-한탄강 이북지역과 강원도 일대에 대한 고구려 관방시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중국의 북쪽과 서쪽 변경지대에 대한 소규모 성곽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향후 이러한 대형 관방시설과 소규모 관방시설의 조합이나 배치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자료가 축적된다면, 남한지역 관방시설의 기술적인 계보나 영향에 대한 연구도 보다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2018년 제3회 한중 고구려사 신진학자 학술회의” 사업으로 수행한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임)

(원고투고일 : 2019. 1. 9, 심사수정일 : 2019. 2. 1, 게재확정일 : 2019. 2. 14)

주제어 : 고구려, 관방시설, 산성, 보루, 토성, 금강, 한강, 임진강, 양주분지, 야차산

〈참 고 논 제〉

1. 저서 및 논문

- 김길식, 「대전 월평산성 출토유물과 점유세력의 변화 -관방시설 축조기법과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57, 2017.
- 金英燮, 『岷嗟山 高句麗 堡壘群의 재고찰』, 檀國大學校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2009.
- 김진영, 「안성 도기동산성의 발굴성과와 성벽구조에 대한 소고」, 『高句麗渤海研究』 58, 2017.
- 金賢淑, 「高句麗의 漢江流域 領有와 支配」, 『百濟研究』 50, 2009.
- 박중균, 「父母山城 出土 土器의 樣相과 性格」, 『청주 부모산성의 종합적 고찰』, 충북대학교 박물관, 2013.
- 박중균, 「장미산성 출토 土器의 양상과 성격」, 『東亞世亞 歷史文化論叢』, 서경문화사, 2014.
- 白種五, 「京畿北部地域 高句麗城郭의 分包와 性格」, 『京畿道博物館年報』 3, 1999.
- 白種五, 「臨津江流域의 高句麗 關防體系」, 『臨津江流域의 古代社會』, 인하대학교박물관, 2002.
- 白種五, 「南韓地域 高句麗 關防體系 -臨津江流域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6, 2007.
- 白種五, 「中原地域 高句麗 遺蹟 遺物의 檢討」, 『高句麗渤海研究』 50, 2014.
- 서길수, 「吉林 東團山 주위의 고구려 유적·유물에 관한 연구」, 『文化史學』 6-7, 1997.
- 서영일, 「京畿北部地域 高句麗 堡壘 研究」, 『文化史學』 17, 2002.
- 신광철, 「고구려의 중원 지역 진출에 대한 소고」, 『高句麗渤海研究』 51, 2015.
- 심광주·윤우준, 「문화유적」, 『아차산의 역사와 문화유산』, 구리사·구리문화원, 1994.
- 沈光注, 「南韓地域의 高句麗 유적」, 『高句麗研究』 12, 2001.
- 심광주, 「고구려 성곽 발굴조사 성과와 축성기법」, 『아차산 일대 보루군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방안』, 광진구·한강문화재연구원, 2014.

- 심광주, 「덕진산성 축성법 검토」, 『파주 덕진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및 활용 방안』, 중부고고학연구소, 2015.
- 심정보, 『백제산성의 이해』, 주류성, 2009.
- 안성현, 「홍련봉 1·2보루의 축조방식과 구조에 대한 연구」, 『백제문화』 55, 2016.
- 양시은, 「남한 내 고구려 성곽의 구조와 성격」, 『高句麗渤海研究』 36, 2010.
- 양시은, 『高句麗 城 研究』, 진인진, 2016.
- 양시은, 「서울지역 고구려 보루 유적 조사 성과와 과제」, 『서울지역 고중세 성곽유적에 대한 주요 조사연구 성과와 과제(제60회 전국역사학대회 고고학부 발표자료집)』, 서울특별시·한국고고학회, 2017.
- 양시은, 「백제 웅진기 동북쪽 영토와 지방지배」, 『백제 웅진기 영역과 지방통치』, 한성백제박물관, 2018.
- 王綿厚,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2002.
- 윤성호,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자료와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군」, 『서울과 역사』 96, 2017(a).
- 尹星鎬, 『新羅의 漢江流域 領域化 過程 研究』, 高麗大學校 韓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017(b).
- 이정범, 「감시권역 분석을 통해본 경기북부지역 보루의 사용주체와 기능」, 『高句麗渤海研究』 37, 2010.
- 이정범, 「5~6세기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형태」, 『高句麗渤海研究』 51, 2015.
- 이정범, 「한강유역 고구려 관방유적 발굴조사의 성과와 의미」, 『한·중·일 고구려·발해사 연구의 새로운 동향』(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고구려발해학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17.
- 이정은·김현우, 「연천 무등리 보루군 발굴조사의 성과」, 『연천 무등리 보루군의 성격과 의미(무등리 보루군 사적 등재를 위한 학술 세미나 자료집)』, 연천군·고구려발해학회, 2018.
- 이한상, 「대전 월평산성 축성 주체와 위상」, 『백제연구』 63, 2016.
- 이형호, 『南韓地域 出土 高句麗土器 研究』, 高麗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碩士學位論文, 2014.
- 정원철, 『고구려 산성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7.

- 정운용, 「清原 南城谷 高句麗 山城의 構造와 運用」, 『동북아역사논총』 39, 2013.
- 崔鍾澤, 「京畿北部地域의 高句麗 關防體系」, 『高句麗 山城과 關防體系』, 고구려연구회, 1999.
- 최종택, 「아차산 고구려 보루의 역사적 성격」, 『郷土서울』 64, 2004.
- 최종택,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영』, 서경문화사, 2013.
- 최종택, 「호서지역 고구려 유적의 조사현황과 역사적 성격」, 『百濟研究』 63, 2016.

2. 관련 보고서

- 건국대학교 박물관·광진문화원, 『서울 廣津區 峨嵯山龍馬山 地域 文化遺蹟 地 表調査 報告書』, 1998.
-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안성 도기동 436-1번지 유적』, 2016(a).
-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양주 태봉산 보루』 I, 2016(b).
-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양주 태봉산 보루』 II, 2017.
-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양주 태봉산 보루』 III·IV, 2018.
- 경기도박물관, 『임진강2 : 문화유적(1)』, 2001.
- 京畿道博物館, 『高句麗遺蹟의 寶庫 京畿道』, 2005.
- 경기도박물관·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천 당포성 II -시굴조사 보고서-』, 2008.
- 高麗大學校 考古環境研究所, 『紅蓮峰 第1堡壘 -發掘調査綜合報告書-』, 2007(a).
- 高麗大學校 考古環境研究所, 『紅蓮峰 第2堡壘 -1次 發掘調査報告書-』, 2007(b).
- 高麗大學校 考古環境研究所, 『峨嵯山 第3堡壘 -1次 發掘調査報告書-』, 2007(c).
- 광진구, 『아차산 일대 보루군(홍련봉 제1·2보루) 보호시설 설치 기본계획 및 중간설계』, 2018.
- 구의동보고서 간행위원회, 『한강유역의 고구려요새 -구의동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1997.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경남의 성곽』, 2008.
- 국립공주박물관·충남대학교박물관, 『大田 月坪洞 遺蹟』, 1999.
- 국립문화재연구소, 『軍事保護區域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 京畿道篇』, 2000.

- 국립문화재연구소, 『남한의 고구려 유적 현황조사 및 보존정비 기본계획(안)』, 2006.
- 국립문화재연구소, 『아차산 4보루 발굴조사 보고서』, 2009.
- 국립진주박물관, 『서부 경남의 성곽』, 2011.
- 국방문화재연구원, 『수락산 보루 종합정비 계획』, 2018.
- 기남문화재연구원, 『안성 도기동산성』, 2018.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연천 은대리성 지표 및 시·발굴조사 보고서』, 2004(a).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 반월산성 -종합보고서(I)-』, 2004(b).
- 동북아역사재단, 『高句麗城 사진자료집 -中國 吉林省 東部』, 2010.
- 백제문화재연구원, 『대전의 산성 분포조사』, 2012.
- 백제문화재연구원, 『대전 황골산 보루 유적』, 2014.
- 서울대학교박물관, 『구리시의 역사와 문화유산』, 2000(a).
- 서울대학교박물관, 『아차산 제4보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2000(b).
- 서울대학교박물관, 『아차산 시루봉 보루-발굴조사 종합보고서-』, 2002.
- 서울대학교박물관, 『용마산 제2보루 발굴조사보고서』, 2009.
- 서울대학교박물관, 『시루봉보루』 II, 2013.
- 서울대학교박물관, 『양주 천보산 2보루』, 2014.
- 서울대학교박물관, 『연천 무등리 2보루』, 2015.
- 서울대학교박물관, 『전곡리토성 시굴조사 보고서』, 『연천 무등리 2보루』, 2015.
- 서울대학교박물관, 『연천 무등리 1보루 정밀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7.
- 서울문화유산연구원, 『배봉산 보루 유적』, 2018(a).
- 서울문화유산연구원, 『서울 중랑구 봉화산보루 사전현황조사 보고서』, 2018(b).
- 서울특별시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서울소재 성곽 조사 보고서』, 2003.
- 세종대학교박물관, 『안성 도기동 산52번지 창고신축부지 유적』, 2016.
-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坡州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1994.
-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漣川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1995.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천 당포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6.
- 中部考古學研究所, 『坡州 德津山城 -1·2次 學術發掘調査』, 2014.
- 中部考古學研究所, 『坡州 德津山城 -3次 學術發掘調査 中間 報告書』, 2016.
- 中部考古學研究所, 『파주 덕진산성(6차)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학술발굴조사

- 결과보고서』, 2017.
- 中部考古學研究所, 『파주 덕진산성(6차)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제3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18.
- 중원문화재연구원, 『淸原 IC~芙蓉面 道路工事區間內 淸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2006年度 追加 發掘調査-』, 2008.
- 中原文化財研究院, 『忠州 薔薇山城 -1次 發掘調査 報告書-』, 2006.
- 중양문화재연구원, 『行政中心複合都市 中央綠地空間 및 生活圈 2-4區域 內 低濕8遺蹟(北岫) 燕岐 羅城里遺蹟』, 2015.
-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新羅 百濟濼戰地(管山城) 地表調査報告書』, 2003.
- 忠北大學校博物館, 『淸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2004.
- 충북대학교박물관, 『청주 정북동토성』 IV, 2018.
-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鎭川 大母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1996.
- 韓國考古環境研究所, 『흥련봉 1·2보루』, 2015.
-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아차산성 남벽 및 집수지 발굴조사 2차 자문회의 자료집』, 2016.
- 韓國考古環境研究所, 『흥련봉 1·2보루 3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7(a).
-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아차산성 남벽 및 집수지 발굴조사 3차 자문회의 자료집』, 2017(b).
-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아차산성 남벽 및 집수지 발굴조사 4차 자문회의 자료집』, 2018.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8.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漣川 瓠蘆古壘 (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9.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漣川 瓠蘆古壘』Ⅲ(第2次 發掘調査報告書)』, 2007.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漣川 瓠蘆古壘』Ⅳ(第3·4次 發掘調査報告書)』, 2014.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연천 전곡리성 -전곡선사박물관건립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2010.
- 한양대학교 박물관, 『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 한울문화재연구원, 『연천 호로고루 동벽 남측 치성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6.
- 화서문화재연구원, 『고구려유적 독비위보루 시굴조사 및 1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8.

<Abstract>

Achievements and Tasks of the Researches about Goguryeo's Facilities in the area of South Korea

Yun, Sung-ho

The number of military facilities left after Goguryeo's entry into the area of South Korea has been 70 places, and 20 ones have been excavated.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Goguryeo's Military facilities in the area of South Korea by combining them with the four regions of the Geumgang River- Mihocheon stream basin zone, the Hangang River-Jungnangcheon stream basin zone, the Yangju basin zone, and the Imjingang River-Hantangang River basin zone.

The results of major excavation surveys in each region were reviewed, and the pres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study of the Goguryeo's Military facilities were described.

First of all, we looked at the types of Goguryeo's Military facilities. The first is the type of breeze castle recycled Baekje's Earthen Fortification in the Hangang River -Mihocheon stream basin zone, the second is the type of Fort in the Hangang River-Jungnangcheon stream basin and the Yangju basin zones, and the third is the isosceles triangle in the isosceles triangle using the natural topography of the Imjingang River-Hantangang River basin zone.

We divided the time period by associating these types of military facilities with Goguryeo's southern region. The 1st Period of the three ones was the time when the Imjingang River-Hantangang River basin zone was constructed before the 5th century and constructed Military facilities. In the middle of the 5th century, the 2nd period was a time when Chungju was used as a Gukwon. And the 3rd period was the time when King Jangsu of Goguryeo captured the capital of Hansung Baekje in 475 and Goguryeo built a Forts by fighting against Baekje in the Hangang river basin zone.

Next, the operation period of the Goguryeo's Military facilities in the Hangang River basin zone was reviewed. It is common idea to use it from the 6th century to the mid-6th century. However, recent analysis of the Forts confirmed the possibility that Goguryeo had come back south after the middle of the 6th century

Finally, we looked at facilities similar to Goguryeo's Military facilities in South Korea. The Forts of Baekje in the 6th to 7th century, similar to the Forts of Goguryeo, have been identified in South Korea. In addition, there is a small Fort in China tha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mall fortress

It is not yet investigated, but if these data are secured in the future, I think that it will be an important foundation to restore the genealogy and operation method of the Goguryeo's Military facilities and to fill the vacancy of the ancient military History of Korea.



Key words : Goguryeo, Military facilities, Mountain fortress, Fort, Earthen Fortification, Geumgang River, Hangang River, Imjingang River, Yanagju basin, Mt. Ahasan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0, pp.165-202
<https://doi.org/10.29212/mh.2019..110.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고려시대 견장출정의(遣將出征儀) 및 사환의(師還儀)의 성립과정과 내용*

한정수**

1. 머리말
2. 군례(軍禮)의 의미와 수용
3. 견장출정의(遣將出征儀)
4. 사환의(師還儀)
5. 맺음말

1. 머리말

왕조국가에서 국가의례의 정비는 국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운영 질서의 정립을 의미한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국왕과 왕실을 축으로 한 국가의례의 정비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적어도 성종 대 예제의 정비를 거쳐 인종 및 의종 대에는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로 예제

* “이 논문은 2016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건국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가 종합 정리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¹⁾

그러나 주지하듯이 『상정고금례』는 현재 전하지 않는다. 이에 『고려사』 예지를 통해 고려의 예제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예지는 『고려사』 찬자들이 정리한 결과물에 해당한다. 찬자들은 『상정고금례』를 중심으로 사편(史編)·『주관육익(周官六翼)』·『식목편록(式目編錄)』·『번국예의(蕃國禮儀)』 등을 참조하여 고려의 의례를 길·흉·군·빈·가의 오례로 분찬(分纂)한 것이다.²⁾ 이를 토대로 본다면 예지는 고려왕조에서 완전하게 정비된 의례를 분류 편찬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당시 구체적인 의례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고려의 예제는 왕권을 최고의 위상으로 분류하고 국왕에게 최고의 권위를 향유토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고려의 왕권과 정치 질서는 의례의 틀로 명분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³⁾

이러한 예지 오례 중 군례는 견장출정의(遣將出征儀)·사환의(師還儀)·구일월식의(救日月食儀)·계동대나의(季冬大難儀) 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이 소략해진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군례 편찬 시 기본 자료가 되었을 『상정고금례』의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⁴⁾ 더구나 군제 및 병제사 연구에서처럼⁵⁾ 군례와 관련해서는 그 성립배경과 과정, 그리고 내용 및 성격 등에 대한 이해가 제시되었

1) 이는 『詳定古今禮』의 편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상정고금례』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이범직, 『韓國中世禮思想研究』, 일조각, 1991 ; 김당택, 「『상정고금예문』의 편찬 시기와 그 의도」, 『호남문화연구』21, 1992 ; 김해영, 「『상정고금례』와 고려조의 祀典」, 『국사관논총』55, 1994 ; 김철용, 「『詳定古今禮』의 편찬 시기와 내용」, 『동양학』33, 2003 ; 김창현, 「『고려사』 예지의 구조와 성격」, 『韓國史學報』44, 高麗史學會, 2011.

2) 『고려사』 권59, 지13 禮志序.

3) 이 같은 오례의 의미에 대한 정리로는 다음을 참조. 이범직, 앞의 책, 401~402쪽 ; 한정수, 「고려시대 국가의례의 設行과 統合意識」, 『한국중세사연구』55, 2018.

4) 김창현, 위의 논문, 76쪽.

5) 李基白,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 권영국, 『高麗後期 軍事制度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尹薰杓, 「高麗時代 軍制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軍史』34, 1997 ; 홍원기, 『高麗前期軍制研究』, 혜안, 2001 ; 송인주, 『고려시대 친위군 연구』, 일조각, 2007 ; 이기백·김용선, 『고려사 병지 역주』, 일조각, 2011 ; 김중수, 「고려전기의 무반과 군반」, 『韓國史研究』164, 2014.

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군례에 대한 개관적 검토를 시도한 연구가 있을 따름이다.⁶⁾ 이 연구에서 주목되는 것은 고려의 군례가 대외적 군사행위의 일면을 담고 있어 당(唐) 시기에 설정한 군례의 개념을 반영하려 했다 본 점과 군례 운영에 있어서의 고려의 독자성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즉, 황제 친정을 반영한 당과 달리 고려에서는 국왕이 출정하지 않고 장수만을 파견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점, 당에서의 강무(講武)·수전(狩田)·사(射)에 관한 항목이 고려의 군례에서는 빠져있다는 점, 당의 군례와 달리 고려에서는 구일월식의와 계동대나의를 군례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이 독자적 면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고려시대 군례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형성되고 운영되었는가, 이를 통해 고려왕조가 목적인 바와 의미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 정리가 미흡한 면이 있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⁷⁾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 가운데 군례의 의미와 「예지」 군례편의 구성 등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실제 군례의 내용이 고려에 어떻게 존재했는가와 관련한 이념적 토대를 찾고자 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견장출정의의 성립과 내용, 실제 사례 등을 검토하여 어떠한 의례절차와 운영이 이루어졌는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고려왕조가 군사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자 했는가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정에 따른 의

6) 이범직, 앞의 책, 159~170쪽. 이와 함께 신라의 경우 적어도 문무왕 대 이후 『開元禮』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군례를 수용하였으며 이는 신라에서 행한 大閱觀射凱旋獵巡幸 등 여러 양상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는 연구가 있어 참고가 된다. (채미하, 「신라의 軍禮 수용과 王權」, 『韓國史研究』149, 2010) 더불어 조선 초 군례 특히 射禮를 중심으로 이해를 도모하면서 중국사 속 군례의 이해와 변화에 대한 정리와 그 수용 등을 살펴본 논고도 있어 참고할 수 있다. (李旺茂, 「조선전기 軍禮의 정비와 射禮의 의례화」, 『東洋古典研究』54, 2014)

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본격적인 軍旅 운용과 관련한 의례로서 『고려사』 예지상의 군례로 분류하고 있는 견장출정의와 사환의를 중심으로 그 형성과정과 내용, 의미 파악에 집중하고자 한다. 고려시대의 군례와 직접 관련이 있을 親征 및 講武, 狩田, 射, 閱兵 등의 의례 존재 양상에 대해서는 후고를 통해 밝혀 나갈 것이다.

례에 짝하는 것으로서 ‘사환의’의 내용과 사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었는가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고려가 개환한 원수와 삼군 등을 어떻게 위로하고 이를 통해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는가를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리라 본다.

이상 군례 가운데 실제 출정과 개선과 관련한 견장출정의 및 사환의에 대한 조명을 통해 고려시대 군례의 중요 내용과 그에 대한 성격 규명이 이루어진다면 이 연구는 예제(禮制)에 기초한 고려시대 통치원리와 그 기제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2. 군례(軍禮)의 의미와 수용



군(軍)은 군사 혹은 군사를 운영하는 방식 등을 의미한다. 군사를 모으고 무력을 갖추며 훈련을 통해 외국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혹은 참일하게 왕권을 도모하는 모반세력의 도전을 예방하고 정벌하기 위한 위엄과 억지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의 정비는 내외의 평화와 안녕을 도모함으로써 왕실과 천하를 지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왕조사회에서 군주와 장수, 병사 등이 각기 질서를 갖추고 강무열병 등 훈련을 행하며, 군량을 쌓아 실제 전란에 나아감과 함께 전후 축성 등 영토 확보와 유지 등을 전개하는 내용은 일찍이 치군(治軍)으로 정리되었다.

이는 『예기』 곡례상에 보인다. 즉, 예가 있어야 도덕인의로부터 조정 반렬과 치군(治軍), 기도와 제사를 통해 귀신에게 공급하는 일 등이 이루어지며, 때문에 군자는 공경하고 준절하여 사양하고 물러서서야 예를 밝힐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⁸⁾ 이는 예가 수양으로부터

8) 『禮記』曲禮 上, “道德仁義 非禮不成 教訓正俗 非禮不備 分爭班訟 非禮不決 君臣上下 父子兄弟 非禮不定 宦學事師 非禮不親 班朝治軍 蒞官行法 非禮威嚴不行 禱祠祭祀 供給鬼神 非禮不誠不莊 是以君子恭敬撝節退讓 以明禮”

터 국가운영, 군대 통솔, 종교적 기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필요한 가치이자 의식임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서도 치군을 통해 위엄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 예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예기』 곡례상에서는 “예가 아니면 위엄이 행해지지 않는다.”라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 실천에는 공경(恭敬)·준절(樽節)·퇴양(退讓)의 원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⁹⁾ 이를 보면 치군하는 데 있어서도 세 가지 원리가 반영되어야 하며 치군의 예로서 군례가 필요함을 읽을 수 있다.¹⁰⁾

그런데 이 같은 군례와 관련하여 그 의미와 내용에 대해 밝힌 것으로 『주례(周禮)』가 있다. 그 가운데서 군례가 갖는 대의(大義)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와 관련해 다음의 사료를 주목해 보자.

가-1) 군례로 방국(邦國)을 동화(同和)한다. 【동화란 불협(不協) 참차자(僭差者)를 위엄으로 다스림을 말한다. 군례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대사례(大師禮)는 군중을 동원하는 것이다. 【그들의 의용(義勇)을 쓰는 것이다.】 대균례(大均禮)는 군중을 진흥하는 것이다. 【지정(地政)·지수(地守)·지직(地職)의 부세를 균등하게 하는 것으로 백성을 아껴서이다.】 대전례(大田禮)는 군사를 간택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전야에서 군사 훈련을 행하여 거도(車徒)의 수를 열병하였다.】 대역례(大役禮)는 군중에게 부역을 맡기는 것이다. 【궁음을 쌓는 데에 민력(民力)의 강약에 따라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봉례(大封禮)는 무리를 합하는 것이다. 【봉강(封疆)과 구도(溝塗)를 견고하게 하여 백성들을 합취(合聚)하게 하는 것이다.】¹¹⁾

9) 앞과 같음.

10) 물론 이때의 공경·준절·퇴양은 비단 治軍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禮 전반에 걸치는 것이었다. 치군에 이러한 세 가지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는 지적은 그만큼 군례 威儀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11) 『周禮』春官宗伯 大宗伯, “以軍禮同邦國【同謂威其不協僭差者 軍禮之別有五】大師之禮 用衆也【用其義勇】大均之禮 恤衆也【均其地政 地守 地職之賦 所以憂民】大田之禮 簡衆也【古者因田習兵 閱其車徒之數】大役之禮 任衆也【築宮邑 所以事

『주례』에서는 예에 대해 길례를 포함해 군례 등 오례로 나누어 그 의의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¹²⁾ 위의 내용은 『주례』 춘관종백(春官宗伯) 대종백(大宗伯)조에 있는 내용이며 한대 정현(鄭玄)이 쓴 주(注)가 부기되어 있다. 이 군례에서는 위에서와 같이 불협 참차자 즉 참월한 제후 등에 대해 군사의 위엄을 보여 화합하는 것으로 보았다. 『주례』에서 이 같은 예를 세우고자 한 데에는 주(周)의 천하질서가 주 왕실과 제후 간의 질서로 구축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었다.¹³⁾

『주례』에서의 군례는 크게 대사·대군·대전·대역·대봉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각기 용중(用衆)·홀중(恤衆)·간중(簡衆)·임중(任衆)·합중(合衆) 등을 행하는 것으로 군정(軍政)에 대한 언급에 가깝다. 그만큼 군례와 군사 및 군정의 부분이 구분되지 않고 있었음이 느껴진다. 그렇지만 점차 군사를 운용하는 군사 및 군정의 일은 대체로 ‘병(兵)’으로 구분되어 갔다.¹⁴⁾

또 한편으로 주제(周制)로 소개되고 있는 군례와 관련한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天子將出征 類於上帝 宜於社 造於禰 肆師爲帝位 禡於所征之地”라 한 내용이 보이고 있는데,¹⁵⁾ 내용의 면만 본다면

【民力强弱】大封之禮 合衆也【正封疆溝塗之固 所以合聚其民】”

12) 五禮와 관련한 언급은 이미 『書經』 虞書 舜典 皋陶謨 편에 보인다. 순임금이 즉위한 2월에 동쪽으로 巡守하면서 차례로 산천에 望을 행하고 東后를 만나 時月日을 바로잡고 악률과 도량형을 같게 하였으며 五禮 등을 정리한 것으로 나온다. 물론 이때의 것이 길·흉·군·가·빈의 오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기는 하지만 최초의 오례에 대한 언급인 것만은 분명하다. 즉, “歲二月 東巡守 至于岱宗 柴望秩于山川 肆觀東后 協時月正日 同律度量衡 修五禮 五玉 三帛 二生 一死 贊如五器 卒乃復”이라 하고 있다.

13) 이에 대해서는 이범직, 앞의 책, 161쪽 참조.

14) 二十五史 중 志 부분에 兵을 둔 것은 『新唐書』 권50, 志 40 兵조에서부터였다. 또한 杜佑가 찬한 『通典』 卷148, 兵 1부터 卷162, 兵15에 걸쳐 兵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15) 『通典』 卷76, 禮36 沿革36 軍禮1에 소개되어 있는 관련 내용 중 세주를 뺀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周制 天子將出征 類於上帝 宜於社 造於禰 肆師爲帝位 禡於所征之地 受命於祖 以遷廟主載於齊車以行 無遷主 以幣帛皮珪告於祖禰 遂奉以出 載於齊車以行 每舍奠焉 而後就舍 反必告 設奠 卒 斂幣玉 藏諸兩階之

위에서 소개한 『주례』의 군례와는 차이가 있다.¹⁶⁾ 그렇지만 출정 때 류(類)·의(宜)·조(造)의 제사를 행하여 승전을 기원함으로써 예를 갖추었음을 읽을 수 있다. 이 같은 출정 시 제사는 이후의 왕조에도 보인다.

춘추전국시대와 흉노와의 전쟁을 거치면서 치군의 내용은 점차 강무(講武)·수전(狩田)·사(射), 친정(親征)·평탕구적선로포(平蕩寇賊宜露布)·노군장(勞軍將), 합삭벌고(合朔伐鼓)·대나(大難) 등으로 분화, 정리되었다. 특히 『사기』 및 『한서』 등에는 군례와 관련한 명확한 표현이 보인다. 한 문제 6년 하내수(河內守) 주아부(周亞夫)는 황제가 세류영(細柳營)을 방문했을 때 문제에게 갑주를 착용하고 있어 절을 올리지 못하니 군례로서 보아달라고 한 바 있는데,¹⁷⁾ 이는 『예기』 곡례상에 갑옷을 입은 자는 절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통한다.¹⁸⁾

군례가 왕조운영을 위한 오례의 하나로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서진(西晉) 초 신례(新禮)가 제정되어 『주례』의 오례 구조에 따라 왕조례를 분류 적용한 『진서(晉書)』에서부터였다.¹⁹⁾ 『진서』 예지에서는 군례를 오례의 네 번째로 구별하고 그에 대해 정의하길, “외국과 화친하고 안으로는 평안하게 하고자 군사를 강대하게 하고 공업을 정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의례 내용 서술은 보이지 않으나 ‘견장출정’에 대한 간단한 의례절차가 소개되고 있다.²⁰⁾ 그

間 乃出 蓋貴命也 受成於學 過大山川 則用事焉 出征執有罪 反 釋奠於學 以誡誠告 諸侯將出征 宜社造禰及無遷主以主命 並如天子之制”

16) 이 부분은 『禮記』王制 편에 보인다. 즉, “天子將出 類乎上帝 宜乎社 造乎禰 諸侯將出 宜乎社 造乎禰”라 하고 있다.

17) 『史記』卷57, 世家 27 絳侯周勃世家, “至中營 將軍亞夫揖曰 介胄之士不拜 請以軍禮見”. 같은 내용이 『漢書』卷40, 열전 10 張陳王周傳 周勃 附 周亞夫에 실려 있다.

18) 『禮記』曲禮 上, “介者不拜 爲其拜而蓐拜”

19) 이를 대체로 晉禮로도 호칭하는데, 『진서』와 『통전』 등에서 확인되는 오례로는 길례 5조항, 흉례 6조항, 빈례 2조항, 군례 1조항 등 모두 14조항이 있다.(洪承賢, 「晉代 喪服書의 편찬과 성격」, 『東洋史學研究』102, 2008, 13~15쪽)

20) 『晉書』卷21, 志11 禮 下, “五禮之別 其四曰軍 所以和外寧內 保大定功者也 但兵者凶事 故因搜狩而習之 (중략) 漢魏故事 遣將出征 符節郎授節鉞於朝堂 其後

내용은 『주례』에서의 군례에 소개된 대사대군·대전·대역·대봉의 예와 차이가 있다.

한편 양(梁) 무제(武帝)는 오례의 직을 두어 예제 운영을 도모한 바 있다. 서면(徐勉)은 양 무제 보통(普通) 6년(525) 오례를 갖출 것을 청하는 표문을 올렸고, 나라를 위하고 수신을 위해서는 이것이 시급함을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례의주(嘉禮儀注)』(507)·『빈례의주(賓禮儀注)』(507)·『군례의주(軍禮儀注)』(510)·『길례의주(吉禮儀注)』(512)·『흉례의주(凶禮儀注)』(512) 등이 이루어졌다. 구학사우군기실참군(舊學士右軍記室參軍) 명산빈(明山賓)은 길례를, 중군기병참군(中軍騎兵參軍) 엄식지(嚴植之)는 흉례를, 중군전조행참군겸태상승(中軍田曹行參軍兼太常丞) 하창(賀瑒)은 빈례를, 정로기실참군(征虜記室參軍) 육연(陸璉)은 군례를, 우군참군(右軍參軍) 사마경(司馬駿)은 가례를 맡게 할 것을 청한 바 있다. 특히 서면은 군례에 대해 “군려(軍旅)를 예(禮)로서 운영하지 않으면 곧 사율(師律) 즉 군울에 치란(致亂)이 있게 된다.”라고 밝혔다.²¹⁾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으나 오례와 관련한 의주가 마련되었고 그에 기반하여 오례 각각의 직을 맡은 이들을 정해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서(隋書)』에서는 오례를 길·흉·군·가·빈의 순서로 구성하면서 군례에 대해 ‘以軍禮誅不虔’이라 하여 군례로서 참월한 이를 벌하는 것이라 하였다.²²⁾ 『진서』에서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다만 『수서』 단계에서는 군례의 내용에 변화가 보인다. 분명하게 친정(親征)·순수(巡狩)·명장출정(命將出征)·춘추수선(春秋蒐獮)·나(讎)·일식(日蝕)·노포(露布) 등을 나눠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²³⁾

이 같은 면은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로 이어졌다. 여기서는 군

荀顛等所定新禮 遣將 禦臨軒 尚書受節鉞 依古兵書跪而推轂之義也”

21) 『梁書』 卷25, 列傳 19 徐勉, “軍旅不以禮, 則致亂于師律”

22) 『隋書』 卷6, 志1 禮儀1.

23) 『隋書』 卷8, 志3 禮儀3.

례를 황제친정유상제(皇帝親征類于上帝), 황제친정의우태사(皇帝親征宜于太社), 황제친정고우태묘(皇帝親征告于太廟), 황제친정마어소지지지(皇帝親征禱於所至之地), 친정급순수교사유사발우국문(親征及巡狩郊祀有司較于國門), 친정급순수등소과산천(親征及巡狩登所過山川), 평탕적구선로포(平蕩賊寇宣露布), 견사로장군(遣使勞將軍), 황제강무(皇帝講武), 황제전수(皇帝田狩), 황제사우사궁(皇帝射于射宮), 황제관사우사궁(皇帝觀射于射宮), 제견대장출정유사의우태사(制遣大將出征有司宜于太社), 제견대장출정유사고우태묘(制遣大將出征有司告于太廟), 제견대장출정유사고우제태공묘(制遣大將出征有司告于齊太公廟), 사마조(祀馬祖), 향선목(享先牧), 제마사(祭馬社), 제마보(祭馬步), 합삭별고(合朔伐鼓), 합삭제주별고(合朔諸州伐鼓), 대나(大難), 제주현나(諸州縣難)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통전(通典)』 권76~권78의 군례와 관련한 연혁을 보면 군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그 연원과 역사적 전개를 소개하였다. 권76에서는 천자제후장출정류의조마병제소과산천(天子諸侯將出征類宜造禱并祭所過山川), 발제(較祭), 천자제후사시전수(天子諸侯四時田獵) 출사의제(出師儀制) 【양병강무(揚兵講武)】, 명장출정(命將出征), 선노포(宣露布) 등을, 권77에서는 천자제후대사향사(天子諸侯大射鄉射) 【삼월삼일 구월구일 사부(射附)】를, 권78에서는 천자합삭별고(天子合朔伐鼓) 【제후부(諸侯附)】, 동하지침고병(冬至至寢鼓兵), 마정(馬政) 【마제부(馬祭附)】, 시나(時難) 등으로 구성하였다.²⁴⁾ 전반적으로 류(類)·의(宜)·조(造)·마(禱)·발(較) 등의 제사와 마정마제 및 시나(時難), 출사, 전렵, 강무, 노포, 습사, 합삭별고 등이 갖춰졌다 하겠다.

한편, 『대당개원례』나 『통전』보다 늦게 편찬된 『신당서』에서는 군례의 구성을 큰 폭으로 재정비하였다. 크게는 황제친정류어호천상제

24) 『通典』 卷76, 禮36 沿革36 軍禮1 ; 같은 책, 禮37 沿革37 軍禮2 ; 같은 책, 禮38 沿革38 軍禮3.

(皇帝親征禩於昊天上帝), 의어사(宜於社), 조어묘(造於廟), 마어소정지(禡於所征之地), 발어국문(較於國門), 강무(講武), 황제수전지례(皇帝狩田之禮), 사(射), 합삭별고(合朔伐鼓), 대나지례(大讎之禮) 등으로 구성하였다.²⁵⁾ 『구당서』 등과는 달리 사마조(祀馬祖), 향선목(享先牧), 제마사(祭馬社), 제마보(祭馬步) 등은 길례 소사(小祀)로 편제하였다. 군례와 길례 소사의 구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흐름을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군례는 초기에는 황제친정을 전제로 하면서 류(類)·의(宜)·조(造)·마(禡)·발(較), 마조(馬祖)·선목(先牧)·마사(馬社)·마보(馬步)로 이어지는 제사가 이루어졌지만 점차 류·의·조·마·발은 포함하되 마조·선목·마사·마보 등은 길례 소사로 편제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 같은 많은 군례상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군례의 항목이 당시의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였다는 점, 두 번째로는 내용상 황제친정 및 명장출정(命將出征)이 있으면서도 개선·노포와 관련한 부분은 친정 항목에 부기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의례 명칭을 간명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강무와 전렵 혹은 수전(狩田), 사(射) 등이 훈련과 관련해 빠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일식과 같은 때 합삭별고나 대나의 예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다섯 가지 점을 토대로 볼 때 중국에서의 군례는 당대에 이르러 황제친정 및 고유(告由)의 제사, 강무, 수전, 사, 합삭별고, 대나 등의 예로 유형화되었다 할 수 있겠다.

한편 이 같은 군례에 대한 고려왕조의 이해를 살펴보자. 당의 『개원례』 등을 수용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볼 때 「예지」의 길례가 대체로 대·중·소사, 잡사 체제를 갖춘 것과 비교하면 군례의 항목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후백제와의 전쟁과 통일, 모반의 평정, 그리고 외적과의 잦은 전

25) 『新唐書』 卷16, 志6 禮樂6 軍禮.

쟁을 겪으면서 고려왕조에서는 군례와 관련한 친정 혹은 견장출정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었다. 또 이를 반영하면서 견장출정의나 사환의, 구일월식의, 계동대나의 등이 의례로 정리 운영되었음이 『고려사』 예지 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지」 군례의 구성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 고려에서 행해진 군례 관련 군례적 성격을 가진 의례는 대열, 강무, 전렵, 습사 등 여러 양상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밝혔듯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마조·선목·마보 등은 길례 소사로 편제되고 있어 중국사에서의 군례 관련 제사의 흐름을 따랐다.

다만 견장출정의나 사환의의 성립과, 그 의례의 내용이 어떠한 면을 갖추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 성과를 먼저 보면, 견장출정의와 관련해 국왕 친정의 의식은 빠져 있으나 대사(大社)에 대한 의제(宜祭) 및 태묘에의 고제(告祭), 경령전에서의 월(鉞) 관련 출환(出還)과 고유(告由) 등의 제사가 있음을 읽을 수 있다 하였다. 또한 이때 국왕이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의식을 행한다는 점을 볼 때 국왕의 위엄을 중국 황제에 비견하려는 의식이 잠재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어 사환의 부분에서 노연례(勞宴禮) 후 강사포를 입고 부월을 받으면서 원수 등이 국왕과 접견하는 의식이 있다 정리하면서 이 또한 국왕의 위엄을 높이려는 것이라 하였다.²⁶⁾

『고려사』에서 이 같은 견장출정의와 사환의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비되어 전개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기록은 분명치 않다. 태조 대 기록을 통해 먼저 이를 간단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태조가 삼군을 거느리고 신검의 후백제군을 치기 위해 나아간 친정을 보면 구체적 내용은 찾기 어렵지만 태조 대 친정 혹은 견장출정 관련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먼저 태조 19년 6월에는 정운인 혜종과 장군 술희에게 보기(步騎) 1만을 거느리고 천안부로 가게 했고, 이어서는 9월

26) 이범직, 앞의 책, 165~167쪽.

좌익·우익·중군의 삼군과 함께 삼군 원병을 두어 이들에 대해 태조는 견훤과 함께 관병(觀兵) 즉 대열(大閱)을 행한 바 있었다. 태조 자신이 친정을 하게 되는 경우이기에 정윤인 혜중에게 지휘권을 주었다 보기는 힘든 면은 있다.²⁷⁾

이들 과정을 고려하면 이때의 군려(軍旅)는 친정과 견장출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의례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이미 태조 원년 9월 상주적수 아자개(阿字蓋)의 귀부에 따른 환영의례의 행행과 관련해 습의(習儀)토록 하면서 “겸양은 예의 으뜸이고 공경은 덕의 근본이다”라 한 내용이 있다.²⁸⁾ 이를 고려하면 의례 정비와 그 가치에 대한 이해를 태조는 충분히 하고 있었다 여겨진다.²⁹⁾ 따라서 태조 19년 9월의 출정 관련 기사를 볼 때 완전히 정비되지는 않았더라도 친정의와 견장출정의, 대열의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 행해졌다 보아야 한다.

이는 승리 후 사환(師還) 관련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당시 기록을 보면 태조는 곧바로 귀환하기 보다는 현지에서 백제군 대부분은 석방하고 혼강·부달·우봉·견달 등 40명을 처자와 더불어 개경으로 압송토록 하는 한편 능환을 처형한 뒤 양검과 용검은 진주(眞州)로 유배하였다가 죽이도록 하였으며 신검에게는 관작을 내려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어 후백제 도성에 들어가 민심을 다독였으며 언제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같은 달에 위봉루(威鳳樓)에 나가 문무백관 및 백성들의 조하를 받았다 하고 있을 뿐이다. 「예지」상의 사환의의 내용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기」에서의 “출정하여 죄 있는 자를 잡아 돌아왔을 때에는 대학에서 석전(釋奠)의 제사를 올리고, 신문할 자와 귀를 벤 자의 수를 고유(告由)한다.”는 내용

27) 『고려사』 권2, 태조 19년 6월 ; 같은 책, 태조 19년 9월 및 9월 갑오.

28) 『고려사』 권1, 태조 원년 9월 갑오.

29) 태조 대 외교의례의 정비 과정과 관련한 연구이기는 하나 ‘讓=禮宗’, ‘敬=德本’으로 이해하면서 집반의 예를 갖추도록 한 태조의 이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정수, 「고려 太祖代 대외 교섭과 外交儀禮」, 『韓國史研究』170, 2015, 157쪽 참조)

역시도 확인할 수 없다.³⁰⁾

따라서 군례에서의 관련 내용과 실제 현실에 반영된 면 등을 연결해 견장출정의와 사환의의 실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고려에서는 태조 대부터 이미 많은 군사 활동이 있었다. 이에 점차 군례에 해당하는 의례의 마련을 통해 국왕과 왕실, 신(臣)-군사(軍士)-민(民)이 위계를 갖추어 나갔으리라 생각된다.

3. 견장출정의(遣將出征儀)

『고려사』 예지에는 국왕 친정 관련 의례가 보이지 않고, 군례와 관련해서는 견장출정의와 사환의가 정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먼저 견장출정의의 성립과 그 내용에 대해 정리토록 하겠다.

『예지』에 수록된 견장출정의의 정리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보인다.³¹⁾ 예컨대 경령전(景靈殿)의 경우는 현종 2년 거란 침입으로 궁궐이 불타 현종 5년에 일차 완성된 뒤 현종 11년~12년에 중수할 때 갖춰진 왕실의 원묘(原廟)였다. 사료에 등장하는 것은 덕종이 즉위하면서 6월에 경령전을 참알하고 즉위 사실을 고한 때였다.³²⁾ 견장출정을 보면 ‘월(鉞)’을 내리고 다시 받을 때 국왕이 친히 경령전에 고하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적어도 덕종

30) 『예기』 제5, 王制, “出征 執有罪 反 釋奠于學 以詛 誡 告”

31) 여기서의 견장출정의 성립과 운영 시기와 관련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이 『예지』 견장출정의의 규정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의 의미이며, 고려 초부터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견장출정의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32) 이 같은 경령전 설치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철웅, 「고려 경령전의 설치와 운영」, 『정신문화연구』 통권114, 2009 ; 장동익, 「고려시대의 景靈殿」, 『歷史教育論集』43, 역사교육학회, 2009 ; 홍영의, 「고려 궁궐내 景靈殿의 구조와 운용」, 『한국학논총』37,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 한정수, 「고려시대 태조 追慕儀의 양상과 崇拜」, 『사학연구』 107, 2012.

이후에야 견장출정의의 내용 규정이 성립되었음을 뜻한다.

다음으로는 국왕이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나와 대전에 앉는 장면
에 대한 서술이 있다. 여기서 강사포는 본래 의례를 행할 때 착용
하는 조복이었다. 문종 12년 4월의 기사를 보면 문종이 어복(御服)
착용과 관련하여 예를 행할 때 홍(紅)·황(黃)의 색 외에 입을 수 있
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라 한데 대해 예사(禮司)에서 아뢴 내
용이 나온다.³³⁾ 예사에서는 『율력지(律曆志)』와 『당사(唐史)』, 『개원
례(開元禮)』, 그리고 고사(古史)를 살펴보고, 『개원례』의 사례를 들어
황제가 원구에서 기곡할 때 강사포를 입는다는 내용을 언급하였으
며, 또한 황(黃)·자(赭)·강(絳) 세 색을 편의대로 입을 수 있을 뿐
이라 답하였다. 이 같은 논의를 본다면 강사포는 적어도 문종 12년
전후 입기 시작하였다 할 수 있겠다.

세 번째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이 견장출정의의 의례 내용 뒤에 실
린 연대기사이다. 이를 보면, 예종 2년 10월 임인일 윤관과 오연총
을 각기 원수와 부원수로 삼아 여진을 정벌하게 한 기사로부터 시
작되고 있다. 물론 연대기사가 실려 있다 해서 이것이 절대적 기준
이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예종 2년을 전후로 해서는 견장출정의가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예종 8년에 설치된 예의상정소(禮
儀詳定所)를 주목할 필요도 있겠다.³⁴⁾ 고려왕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례 전반에 대한 정비가 이 기구를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
이다.

네 번째로는 의례 내용에 보이는 전각 및 궐문 명칭을 통해서이
다. 견장출정의에는 대관전(大觀殿)이 등장하고 태정문(泰定門)이 보
이고 있다. 대관전은 인종 16년 5월 경술일에 여러 전각의 이름을
고칠 때에 건덕전(乾德殿)을 고친 이름이며, 태정문은 태초문(太初
門)에서 바뀌었다.³⁵⁾ 이렇게 본다면 견장출정의의 의례 내용은 인

33) 『고려사절요』 권5, 문종 12년 4월.

34) 『고려사』 권77, 지31 백관2 제사도감각색 예의상정소.

35) 이에 대한 지적은 김창현, 「『고려사』 예지의 구조와 성격」, 『韓國史學報』44,

종 16년 이후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의례 내용 중에 산호만세, 산호재배 등의 표현도 의례 실시 기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 이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산호(山呼)~’이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충렬왕 27년 4월 활리길사(闊里吉思) 등이 원에 올린 글에 나타난다. 즉 그들은 충렬왕 25년(1299) 11월 15일 팔관회와 충렬왕 26년 2월 15일에 있었던 연등회 등 두 차례 대회 때의 참월한 일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³⁶⁾ 세 번 정편(淨鞭)을 들고 산호만세(山呼萬歲)를 행한 것은 천자(天子) 의제(儀制)와 같은 것으로 참월한 것이라 지적하였었다.³⁷⁾ 이후 산호만세나 산호재배 등은 쓰이지 않게 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예지 군례에 정리된 견장출정의의 성립 및 전개 시기는 인종 16년 5월 이후 충렬왕 27년 4월 이전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군례에서의 견장출정의의 의례 규정은 인종 16년 5월 이후에서 충렬왕 27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의례 내용 자체는 이미 예종 2년 10월 임인일의 윤관과 오연총에 대한 출정 기사가 있으므로 이것만 보더라도 내용은 이미 예종 2년 이전에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었다 하겠다.

이러한 견장출정의의 성립 시기를 전제로 하면서 실제 의례의 분석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1, 52쪽 참조.

36) 『고려사』 세가 편에서는 충렬왕 25년 11월 팔관회 기록은 없지만 충렬왕 26년 2월 연등회 관련 기록은 단지 경신일에 연등하고 왕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는 정도만 보인다.

37) 『고려사』 권32, 충렬왕 27년 4월.

〈표-1〉 견장출정의 절차

구 분	내 용
① 제 사 및 告景 靈殿	遣將出征 宜大社告太廟 竝有司行事 如奏告之儀 出鉞還鉞 王皆親告景靈殿
② 1일 전 陳設	前一日 尚舍局設王座於大觀殿上 如常儀 設元帥副元帥褥位於殿庭中心 北向 守宮署設元帥副元帥次於殿門外朝堂
③ 當 日 陳設	其日 依時刻 仗衛入陳於殿庭如儀 樞密及左右侍臣 入就殿庭位 元帥副元帥 服戎服【前一日 有司奉宣賞征袍戎衣 到尚書兵部 准舊例 頒賜元帥以下從軍 文武員寮】率兵馬鈐轄【以承制 充之】及諸軍從事官 俱詣殿門外 重行 北向立
④ 國 王 出坐殿	訖 王服絳紗袍 出坐殿 鳴鞭 仗衛奏山呼 再拜 訖 舍人喝 樞密以下侍臣常起 居 訖 閣門引宰臣 入就位 舍人喝 宰臣再拜 訖 閣門引宰臣 自東側階升殿 近東南向 北上立 次 引宰樞 自西側階升殿 近西東向 北上立 訖 引元帥副元 帥 入殿庭 就褥位 北向立 舍人喝 元帥副元帥再拜 閣門稱有勅 舍人喝 再 拜躬聽口宣 訖 舍人喝 元帥副元帥再拜 閣門引元帥 自西階升殿 進王座之右 稟諸方略
⑤ 斧 鉞 授受	上將軍奉斧鉞 詣王座右 跪進 王降座 執斧鉞 授元帥 元帥跪受 降自西階 閣門引元帥副元帥 由正門出 郎將傳奉斧鉞 在前先導 閣門引兵馬鈐轄 及諸 軍使副判官以上 入殿庭 重行北向 東上立 舍人喝 鈐轄以下再拜 又再拜 訖 閣門引 自西偏門出 錄事以下 於殿門外 禮數如上儀
⑥ 國 王 入內殿	王入內殿 宰臣樞密以下左右侍臣及仗衛 以次出 元帥副元帥出泰定門外 樂作 至兵部 樂止 鈐轄以下諸軍使副判官 於階上俱重行 再拜 錄事以下 階下祇揖 吏拜 訖 便行師 如軍令式

먼저 ①제사 및 고경령전(告景靈殿)의 부분을 보자. 여기서는 출정과 관련해 유사(有司)에서 대사(大社)에서의 의제(宜祭)와 태묘에서의 고유제(告由祭)를 행하는 내용이 보이며, 이어 국왕이 친히 경령전에 월(鉞)을 내고 다시 들이는 것을 고하도록 되어 있다. 대사는 사직을 말하며 의제는 지기(地祇)에 드리는 제사를 뜻하고, 고태묘(告太廟)는 『예기』 왕제편의 ‘조호예(造乎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조의 묘 즉 태묘에 이르러 고하는 것을 뜻한다.

견장출정의에서는 이 ‘의대사(宜大社)’와 ‘고태묘(告太廟)’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태종 4년 2월 신묘일의 기록을 보면 겸지예조사(兼知禮曹事) 김첨(金瞻)이 성수초례(星宿醮禮)를 상정하면서 올린 글에 주목할 내용이 나타난다. 즉, 전조 고려에서 태일(太一)을 섬겨 군사를 움직일 일이 있으면 장수가 태청관에 이르러 재숙(齋宿)하고

초례(醮禮)를 올린 후 행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조선에서도 장수를 보내 류제(類祭)의 예에 의해 장수를 관(觀)에 보내 하루 재속토록 하고 제사를 행할 것 등을 청하고 있는 것이다.³⁸⁾ 구체적으로 고려에서 하늘에 대한 제사, 즉 『예기』 왕제 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류호상제(類乎上帝)’의 언급은 없지만 천신으로서의 태일에 대한 초례가 행병(行兵) 때에 있었음을 짐작하기에는 충분하다.

이 류(類)를 포함한 의(宜)와 조(造) 등은 『고려사』에 잘 나타나 있지 않으나 『동국이상국집』에 실린 다양한 초(醮)·소(疏)·제문(祭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이규보가 동경초토병마(東京招討兵馬) 때에 지은 글들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 하늘에 대한 초례로서 태일초례문(太一醮禮文)과 천황초례문(天皇醮禮文)·정단행천황초례문(正旦行天皇醮禮文)이 있으며, 삼군이 모두 행한 태일초례문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³⁹⁾ 이는 태종 4년 2월에 언급한 류제(類祭)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사(大社)에서의 의제(宜祭)와 관련해서는 그 사례로서 선종 4년 정월 사직에 제(祭)하여 신병(神兵)이 전쟁을 도와 줄 것을 빈 데서 그 시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⁴⁰⁾ 더불어 봉은사(奉恩寺)에서 고태묘진전문(告太祖眞前文)을 지어 예묘(禰廟)에서의 조제(造祭)에 해당하는 제사를 행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이규보는 당시 기주(基州) 태조진전제문(太祖眞前祭文)과 함께 개태사(開泰寺) 조전원문(祖前願文), 태조전별제문(太祖前別祭文) 등을 써 전승을 기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¹⁾ 또한 군신(軍神)에게 행하는 제사인 마제

38) 『태종실록』 권7, 태종 4년 2월 신묘.

39) 『동국이상국전집』 권38, 道場齋醮疏祭文, 天皇醮禮文·正旦行天皇醮禮文·太一醮禮文.

40) 『고려사』 권59, 지13 예1 길례대사 사직 선종 4년 정월 기사.

41) 『동국이상국전집』 권38, 道場齋醮疏祭文, 奉恩寺告太祖眞前文·基州 太祖眞前祭文·開泰寺祖前願文·太祖前別祭文. 이는 『통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受命於祖’라 하여 조묘 등에 아뢰어 명을 받는다는 의미와 통한다. 실제로도 고려에서는 태묘나 경령전에서 국가 중대사 등에 대해 大筮(인종 4년 3월 을미) 卜遷都(공민왕 9년 정월 병진) 등을 행하고 있음이 보인다.

(禡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공민왕 18년 11월 이인임을 서북면도 통사로 보내자 그가 대청관에서 마제를 지냈다는 것이 보인다.⁴²⁾ 승전을 비는 제사로서의 발제(輓祭)와 관련한 기록도 확인되는데, 목종 11년 10월에 발제를 고쳐 압병제(壓兵祭)라 하였다고 한다.⁴³⁾

이외에도 각 지역신에 대한 제사를 올린 내용을 담은 제문 등이 전하고 있다. 이규보는 동경초토병마로서 승전을 기원하는 제문을 지었다. 예컨대 산해신합굴제문(山海神合屈祭文), 황지원법화회문(黃池院法華會文), 황지원용왕제문(黃池院龍王祭文), 부석사장육전원문(浮石寺丈六前願文), 지리산대왕전원문(智異山大王前願文), 제공산대왕문(祭公山大王文), 북형산제문(北兄山祭文), 경주동서양악제문(慶州東西兩岳祭文), 제소정방장군문(祭蘇挺方將軍文), 헌마공산대왕문(獻馬公山大王文)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승전을 위한 기도를 다각도로 올리고 있다.⁴⁴⁾

다음으로는 ①에서의 출월환월(出鉞還鉞)과 관련해 경령전에 고하는 의식이 보인다. 동시에 ⑤에서는 부월(鈇鉞) 수수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월(鉞)은 달리 절월(節鉞) 혹은 부월(斧鉞)이라 하여 국왕이 군을 통솔하는 원수나 병마사에게 내리는 것이었다. 다만 의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출월 및 환월 때 왕이 모두 경령전에 고한다는 내용이 곧바로 경령전에서 부월을 하사한다는 내용은 아니었던 듯하다. 그렇지만 ⑤에서처럼 부월을 국왕이 내려주는 것이 의례로 정해진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

예컨대 국왕의 부월 하사 기록은 성종 8년 3월 처음으로 동북면 및 서북면에 병마사를 두고 문하시중·중서령·상서령을 판사로 삼아 이들에게 국왕이 직접 부월을 내려 변방을 전적으로 다스리게 한 데에서 시작되었다.⁴⁵⁾ 이후 이루어진 국왕의 부월 하사와 환월(還

42) 『고려사』 권41, 공민왕 18년 11월.

43) 『고려사』 권63, 지17 예5 길례 잡사 목종 11년 10월.

44) 『동국이상국전집』 권38, 道場齋醮疏祭文.

45) 『고려사절요』 권2, 성종 8년 3월.

鉞) 관련 기록을 연대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2〉 부월 하사 관련 기록

	시기	授鉞	장소	전거
1	성종 8년 3월	始置東西北面兵馬使, 以門下侍中中書令尚書令爲判事 (중략) 判事留京城 兵馬使赴鎮 親授鉞 使專制閭外	?	『절요』 권2
2	숙종 9년 정월 계미	王以門下侍郎平章事林幹判東北面行營兵馬事 御宣政殿 授鉞 往備之	宣政殿	권12
3	숙종 9년 2월 을축	以樞密院使尹瓘爲東北面行營兵馬都統 御重光殿 授鉞 遣之	重光殿	권12
4	예종 2년 12월 임오삭	王御威鳳樓 瓘延寵率三軍將士 以次入庭拜 訖 賜鉞 遣之	威鳳樓 (西京 祖眞殿)	권64, 지18 예6 군례(『동인지문 사록』 권10)
5	예종 3년 4월 계묘	遣兵馬副元帥吳延寵 授鉞 往救雄州	?	
6	예종 4년 4월 무인	東界兵馬副元帥吳延寵陞辭 王詣景靈殿 親授鉞	景靈殿	
7	예종 4년 7월 임술	任懿等辭 王御重光殿 親授鉞	重光殿	
8	인종 13년 정월 갑인	王御天福殿 富弼以戎服入見 命上陞 親授鉞 遣之	天福殿	권64, 지18 예6 군례
9	고종 3년 12월 기미	幸順天館 御文德殿 群臣入謁 分立左右 叔瞻·冲以戎服 率諸忽管 入庭行禮 王親授鉞 遣之	文德殿	권64, 지18 예6 군례
10	고종 5년 9월	趙冲等陞辭 王御大觀殿 授鉞 遣之	大觀殿	『절요』 권15
11	원종 14년 2월	中軍行營兵馬元帥金方慶率精騎八百 隨忻都等討三別抄于耽羅 王授鉞 遣之	?	『절요』 권19
12	공민왕 5년 9월 계미	以曲城伯廉禧臣爲都元帥 刑部尚書柳淵等副之 以備西北 賜貂裘·金帶 授鉞 遣之	?	권64, 지18 예6 군례
13	공민왕 10년 12월	王遂以世雲爲摠兵官 (중략) 今分遣諸將 合兵攻賊 乃授鄭世雲鉞 往董厥師 賞罰用命不用命	?	권113, 열전26 정세운(『절요』 권27)
14	공민왕 23년 7월 기축	七月以瑩爲楊廣全羅慶尚道都統使 (중략) 今授瑩節鉞往征 其督諸軍 剋期殄殲	?	권113, 열전26 최영
15	우왕 3년 9월	倭又寇海平二州. 禍賜崔瑩鉞 使與元帥李希泌金得齊楊伯淵邊安烈禹仁烈等擊走之	?	『절요』 권30
16	우왕 14년	時議按廉秩卑 不能舉職 選兩府有威望者 爲都觀察黜陟使 授教書鉞以遣 云佗爲西海道都觀察使	?	권112, 열전25 조운홍(『절요』 권33)

위의 <표-2>에서 확인되듯이 국왕이 경령전에 나아가 친히 원수에게 부월을 내린 사례로는 적어도 『고려사』 및 『고려사절요』에서 살펴볼 때 ⑥의 예종 4년 4월의 것이 유일하다. 또 위의 사례들을 보면, 견장출정의 의례에 보이는 경령전에서의 부월 하사 기록이 예종 3년까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경령전에서 국왕이 친히 부월을 하사하는 내용은 예종 4년 4월에 시작되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때 오연총은 동계병마부원수였다.⁴⁶⁾

이 기록이 유일하다 해서 궁궐의 편전 등에서 하사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것이었다 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병권을 상징하는 부월을 견장출정의나 다음에 살펴볼 사환의에서 보듯 경령전에 두었다가 국왕이 관련 사유를 고하고 이를 출환(出還)하였을 가능성이 커서이다. 실제로 ⑥의 예종 4년 4월 기록에 앞서 예종 3년 4월 기록에 윤관과 오연총이 개선한 후 경령전에서 복명하고 부월을 환납한 내용이 보이고 있기도 하다.⁴⁷⁾

한편 <표-1> 견장출정의의 절차에서 ②~④를 보면 강사포를 입은 국왕이 대관전에 설치된 왕좌에서 만세 후 원수와 부원수 등의 재배를 받고 원수의 여러 방략 보고를 받는 장면이 정리되고 있다. 물론 <표-2>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어렵다. 이후 ⑤에서는 국왕이 상장군이 올리는 부월을 받아 원수에게 내려 주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⑥에서처럼 국왕이 내전으로 들어가고 원수와 부원수가 태정문을 나서 병부에 이르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이상에서처럼 각 왕대 사례 가운데 예종 3년 및 4년 무렵 내용의 것이 가장 견장출정의 의례와 유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사실 부월의 하사는 이미 성종 8년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경령전에서의 고유는 예종 이전에도 전개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부월 출환, 강사

46) 『고려사절요』 권7, 예종 4년 4월.

47) 『고려사』 권12, 예종 3년 4월 기축.

포, 원수·부원수, 대관전과 태정문, 만세 등의 내용이 갖춰져 있음을 볼 때 예지 군례에서의 구체적 절차 등은 예종 대에 완성되었다 할 수 있겠다. 특히 전승을 위한 유불도의 제사가 류(類)·의(宜)·조(造) 등과 함께 갖춰졌고 원묘인 경령전에서 고유와 부월의 출환이 이루어지고 강사포를 입은 국왕이 부월을 하사하는 등의 내용이 전개되었다는 점은 고려적인 군례의 일단을 보여준다.⁴⁸⁾ 더구나 경령전과 편전 등에서의 원수부원수의 전승방략 보고와 부월 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신료들의 만세와 재배, 원수·부원수의 재배가 의례 절차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왕조의 상징이라 할 국왕이 원묘인 경령전에서 부월을 내어 하사함으로써 왕권과 왕실의 위상을 구축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여겨진다.



4. 사환의(師還儀)

군례에서 사환의의 절차 등을 의례 항목으로 규정한 고려의 방식은 독특한 면이 있다. 그것은 사환의의 명칭이 『신당서』 등에 이르기까지는 그 항목 명칭이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과 함께 사환의의 절차에 개선하는 군대에 대한 영접과 원수가 부월을 바치는 행사, 국왕의 선지(宣旨) 전달, 선로포(宣露布)에 해당하는 선사주식(宣賜酒食) 등이 함께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왕조에서 사환의와 관련성이 있는 기사로 먼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태조의 일리천전투 승리 후 귀환 및 하례 기록이다. 국왕 친정에 해당하는 것인데다 그 귀환이 갖는 정치적 역사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이는 고려왕조에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

48) 고려시대 유불도 삼교와 국가의례와의 관련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한정수, 「고려시대 국가의례의 設行과 統合意識」, 『한국중세사연구』55, 2018.

다. 태조 19년 9월 삼군을 거느린 태조가 일리천에서 신검 등을 무너뜨리고 삼한일통의 위업을 달성한 후 사환, 개선(凱旋)과 관련하여 행해진 내용을 확인하면 위봉루에 나아가 문무백관 및 백성의 하례를 받았다는 내용만이 보인다.⁴⁹⁾ 평탕적구선로포(平蕩賊寇宣露布) 및 견사로장군(遣使勞將軍)과 관련한 내용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 태조 이하 7대 실록을 다시 편찬하는 과정에서 소략해진 것이었다. 유금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유금필이 출정할 때마다 명을 받들어 곧 행했으며, 개환(凱還)함에 미처 서는 태조가 반드시 맞이하고 노고를 치하했다는 내용이 보이기 때문이다.〔太祖必迎勞〕⁵⁰⁾ 국왕이 직접 영접하고 노고를 위로했다는 면이 확인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보다 구체적 의례는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 개환에 따른 의례 등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고려사』에서 관련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고려사』에서의 개환 관련 기사

	시기	내용	迎返 방식	전거
1	태조?	每出征 受命即行 不宿於家 及凱還 太祖必迎勞 終始寵遇 諸將莫及	太祖必迎勞	권 92, 열전 5 유금필
2	성종 12년	熙留契丹營七日而還 遜寧贈以駝十首馬百匹羊千頭錦綺羅紈五百匹 成宗大喜 出迎江頭 卽遣良柔爲禮幣使入覲	成宗 出迎	권 94, 열전 7 서희
3	현종 10년 2월 갑오	甲午 姜邯贊凱還 王親迎于迎波驛 壬子 婁將帥于明福殿 并勞三軍	王親迎	권4

49) 『고려사』 권2, 태조 19년 9월.

50) 『고려사』 권92, 열전5 유금필.

	시기	내용	迎迓 방식	전거
4	문종 34년 12월	東蕃作亂 正爲判行營兵馬事 與兵馬使崔爽廉漢兵馬副使李頰 將步騎三萬 出屯定州 … 攻破廬落凡十餘所 哺後凱還奏捷 王喜遣左司員外郎裴緯勅曰 近緣邊事未息 宵旰軫慮 今省所奏 婉畫降戎 掃除民害 使朕無東顧之憂 惟乃之功	遣左司員外郎裴緯 勅	권95, 열전8 문정
5	예종 3년 4월 기축	尹瓘吳延寵凱還 王命員鼓吹軍衛以迎之 遣帶方侯備齊安侯偕 勞宴於東郊 瓘延寵詣景靈殿復命 還納鈇鉞 王御文德殿 引瓘延寵及諸宰樞上殿 親問邊事 入夜乃罷	鼓吹軍衛以迎之 및 勞宴	권12
6	인종 14년 4월 경자	金富弼凱還 王謁景靈殿 告平西賊		권16
7	명종 4년 11월	景升迎擊于大同江 凡二十戰皆捷 西兵大敗 景升還至平州 王遣知奏事李光挺 郊迎勞問 及至 王曰 卿以死許國 使兇徒挫氣 功不細矣 然大怒尚存 社稷之眇也 卿其勉之 仍命爲後軍總管使 復遣之	遣知奏事李光挺 郊迎勞問	권 100, 열전 13 두경승
8	명종 24년 12월 辛巳	南路兵馬使高湧之 班師 王引見 獎諭甚厚		권20
9	고종 6년	時趙冲破契丹兵凱還 忠獻忌功 停迓迎禮 私宴將帥于竹坂宮 銀餼百官 以供其費	停迓迎禮 私宴將帥于竹坂宮	권 129, 열전 42 반역 최충헌
10	원종 14년 6월 丁酉	方慶入珍島 得米四千石·財寶器仗 悉輸王京 其陷賊良民 皆令復業 凱還 王遣使郊迎 以功加守大尉中書侍郎平章事	凱還 王遣使郊迎	권 104, 열전 17 김방경
11	공민왕 9년 4월 계미	大饗征北將士(홍건적)		권39
12	공민왕 13년 2월 戊戌	濡奉德興渡鴨綠江 崔瑩安遇慶等諸將 擊敗之 濡渡江而走 復興遣錄事金南貴獻捷 王賜南貴銀一錠 遣人賜復興酒 拜左侍中 凱還 王命有司(郊迓) 如迎駕儀 令百官 宴于國清寺南郊慰之 賜諸將賊臣田宅貨產	王命有司郊迓 如迎駕儀	권 111, 열전 24 경복흥
13	공민왕 13년 2월 壬子	(東北面都指揮使韓方信·都兵馬使金貴凱還) 賜方信綵帛 以旌其功 及凱還 賜宴內殿 尋封西原君	及凱還 賜宴內殿	(권40) 권 107, 열전 20 한방신
14	우왕 2년 7월	至鴻山 大肆殺虜 勢甚盛 … 瑩凱還 禡幸樞郊迎 具雜戲儀衛如迎詔禮 及入見 賜酒 問曰 … 乃封鐵原府院君 論賞將士有差	幸樞郊迎 具雜戲儀衛如迎詔禮	권 113, 열전 26 최영
15	우왕 2년 10월	辛禡初 賜推忠亮節宣威翊贊功臣號 出爲楊廣全羅道都指揮使 兼助戰元帥 倭寇扶寧 登幸安山 安烈與羅世趙思敏柳實 督兵進攻 大破之 斬獲甚多 獻捷 禡賜白金一錠鞍馬衣服 凱還 都堂出天水寺 設儼戲迎之 進門下贊成事	設儼戲迎之	권 126, 열전 39 간신 변안렬

②성종 12년 10월의 기록을 보자. 성종은 거란을 막기 위해 시중 박양유(朴良柔)를 상군사(上軍使), 내사시랑 서희(徐熙)를 중군사(中軍使), 문하시랑 최량(崔亮)을 하군사(下軍使)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게 하여 북계로 보낸 바 있다.⁵¹⁾ 이때 성종 역시도 서경까지 함께 동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고려와 거란은 각기 서희와 소손녕이 담판을 벌였고, 결국 고려가 거란에 대한 교빙을 약속하고 거란이 고려의 여진 축출 및 강동 6주에 대한 축성을 보장하게 되면서 전쟁은 마무리되었다. 이 때 서희가 돌아오에 미쳐 성종은 직접 강가에 나가 맞이했다는 기사가 보인다.⁵²⁾ 더 이상의 세부 기사가 없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사환에 대해 국왕이 친히 위로영접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비슷한 사례로 ③을 보자. 현종 10년 2월 거란군을 대패시킨 상원수 강감찬 및 부원수 강민첨 등과 삼군이 개선하자 이들을 맞이한 일이 보인다. 당시 강감찬은 포로와 노획물을 바쳤고, 왕은 영파역(迎波驛)까지 직접 나와 영접하면서 잔치와 함께 금화팔지(金花八枝)를 강감찬의 머리에 직접 꽂아주었다. 또 주연과 함께 위로와 감탄을 그치지 않았다 하였다. 이어 명복전(明福殿)에서 장수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삼군의 노고를 치하한 내용이 확인된다.

현종 10년 2월의 사례에서도 사환의의 절차를 적용했다기보다는 국왕이 직접 나와 영접연을 베풀고 명복전에서 노연례(勞宴禮)를 행한 것이 보이는 것이다. 다만 강감찬의 머리에 금화팔지를 꽂아준 면은 주목할 부분이었다. 이후의 사환의에 해당하는 사례 등에서 더 이상 금화팔지 기록은 나오지 않아 매우 특별한 은례에 해당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④를 보면, 문종 34년 12월 동여진 반란 사건과 그 정벌에 나섰던 중서시랑평장사 판행영병마사 문정(文正) 등이 보기 3만을 거느

51) 『고려사』 권3, 성종 12년 10월.

52) 『고려사』 권94, 열전7 서희.

리고 적을 소탕한 내용이 확인된다. 이들이 개환하자 문종은 이듬해 2월에 태묘 및 6릉에 고유하고자 하였다.⁵³⁾ 사환에 따른 조치라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관련 기록이 상세치 않아 개선에 따라 사신을 보내 영접례를 행하고 노연이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부월의 출환 등과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단지 태묘 및 6릉에 동북로의 용추(戎醜)를 소멸시킨 공업에 대한 고유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성종 12년이나 현종 10년, 문종 34년 및 35년의 사례만으로 논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문종 대까지 사환의에 해당하는 군례는 「예지」의 사환의와 다른 면이 있었을 것이다. 즉, 서희나 강감찬, 문정 등의 개환에 따른 조치 등에서 서희나 강감찬의 사례에서는 국왕이 직접 영접하여 그 기쁨을 나타내고 있지만 문정의 사례에서는 그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아 국왕 영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종 12년 및 현종 10년의 사례에서는 태묘나 선왕의 능, 경령전에 고유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고 있다가 문종 35년에 이르러서야 태묘 및 6릉에 고유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부월의 환납에 대한 내용이 찾아지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 장의 <표-2> 부월 하사 기록 중 ②③의 숙종 9년 정월과 2월을 보면 동여진의 적에 대비하고 토벌하기 위해 임간(林幹)에게 부월을 내렸으나 그가 패배하자 윤관에게 부월을 내렸던 기록이 확인된다. 이때 수부월(授鈇鉞)의 의식은 이루어졌지만 부월의 환납에 대한 기록은 없다.⁵⁴⁾

그런데 <표-3>의 ⑤를 보면, 예종 3년 4월 기축일에 개선한 윤관과 오연충이 직접 경령전에 이르러 복명하고 부월을 환납하고 있다. 그 후 예종이 문덕전에 나아가 윤관 등과 재추와 함께 변방의 일을 물었다는 내용도 확인된다.⁵⁵⁾ 경령전에 원수가 직접 복명하고

53) 『고려사』 권9, 문종 35년 2월 병자.

54) 그러나 여기에는 환납 관련 의례 내용이 기사에서 생략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부월을 환납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적어도 『고려사』에서 이는 유일한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김부식은 서적(西賊)을 평정한 후 우선 평서경헌첩표(平西京獻捷表)를 국왕에게 올린 후 개선하여 돌아왔다.⁵⁵⁾ 그런데 관련 기사를 보면, 부월에 대한 언급이 없이 왕이 경령전을 참알하고 서적 평정을 고하였다는 내용이 <표-3>의 ⑥인종 14년 4월 경자의 기사에서 확인된다.

사환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견장출정의와 짝하여 정리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앞서 견장출정의가 예종 2년을 전후해 정비되기 시작해 인종 16년 5월 이후 충렬왕 27년 4월 이전 성립된 것으로 보았는데 사환의 역시도 그와 비슷하다 볼 수 있다. 실제로도 영접례나 노연, 부월환납, 경령전 고유 등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례에 있는 사환의의 절차를 편의상 6단계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4> 사환의(師還儀)의 절차

구분	내용
①사환 1 일 전 진 설	師還前一日 尚舍局設王座於大觀殿 設元帥副元帥拜位於殿庭 守宮署 設元帥副元帥次於殿門外朝堂 又於宿亭 設元帥副元帥座於東邊 筵伴宰臣座於西邊 又設拜命禱位於庭中
②영접례	筵伴到宿亭 閣門引元帥以下 出門 相揖 入門 各就禱位 鈐轄及諸軍使副判官錄事 每等異位重行 立定 舍人喝 元帥以下向闕 再拜 問聖體 舍人喝 元帥以下再拜 筵伴口宣 訖 舍人喝 元帥以下又再拜 訖 閣門引筵伴及元帥副元帥 各從東西階 升亭上 就禱位 立定 執禮官交呈起居狀 筵伴及元帥起居 訖 閣門引各就座 赴勞宴 禮畢 閣門引筵伴及元帥副元帥以下 降就庭中禱位 舍人喝 元帥以下再拜 元帥奉謝表 詣筵伴前 跪進 筵伴小前 接表 俱退復位 舍人喝 元帥以下又再拜 訖 筵伴以表傳於持函 持函者先出 元帥及筵伴 伴行出門 相揖分位
③ 當 日 師 還 儀 陳 設	其日晝 亭設筵伴公侯伯座於東邊 元帥副元帥座於西邊 其餘 拜命勞宴附表禮數如上儀

55) 『고려사』 권12, 예종 3년 4월 己丑.

56) 『동인지문사록』 권10, 表 平西京獻捷表.

구분	내용
④개선의례	元帥勒所部兵衛 鼓吹 令押凱歌 分左右二部 以次陳列 鼓吹振作 至廣化門 樂止 依時刻 禁衛入陳於殿庭 如常儀 樞密以下左右侍臣 入就殿庭位 元帥副元帥率諸軍寮佐 至殿門外 閣門引元帥副元帥 入次
⑤ 국왕의 坐殿과 執斧鉞, 山呼	訖 近臣奏 外辦 王服絳紗袍 出坐殿 禁衛奏山呼 再拜 舍人喝 樞密以下侍臣常起居 訖 閣門引宰臣 入就位 舍人喝 宰臣再拜 訖 閣門各引宰臣樞密 自東西側階升殿 就位立 閣門引諸軍使副判官錄事諸領府部將以上 入殿庭 每等異位重行立定 閣門引元帥 捧斧鉞 入殿庭 自西階升殿 詣御座之右 跪上斧鉞 王降座 執斧鉞 傳授上將軍 訖 元帥降自西階 就拜位 舍人喝 元帥以下再拜 閣門引出殿門外 元帥副元帥及諸軍使副判官錄事從事官 各服公服 閣門分引元帥以下 入就殿庭 重行北向 立定 舍人喝 元帥以下再拜舞蹈 又再拜 奏聖躬萬福 舍人喝 元帥以下再拜 元帥出行 致辭復位 舍人喝 元帥以下群官再拜舞蹈 又再拜
⑥ 국왕의 宣旨와 宣賜酒 食, 王入 內殿	訖 近臣承旨降自東階 詣元帥東北 西向傳宣 稱 定難功業 惟朕乃嘉 元帥以下再拜舞蹈 又再拜 閣門傳宣賜酒食 舍人喝 元帥以下再拜舞蹈 又再拜 訖 閣門引元帥以下 西出 王入內殿 宰臣樞密左右侍臣及仗衛 以次退

앞서 살펴본 견장출정의에 이어진 사환의의 의례 구성 시기는 같은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사환의가 견장출정의에 짝하고 있음과 함께 대관전이 등장하고 연반(筵伴)의 영접, 만세 및 성공만복, 재배무도, 선사주식, 정난공업에 대한 선지 등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①사환 1일 전 진설을 보면, 자리 배치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즉, 상사국(尙舍局)에서 국왕의 자리를 대관전에, 원수부원수의 배위(拜位)를 전정(殿庭)에 설치하였다. 이어 수궁서(守宮署)에서는 원수·부원수가 머물 막차(幕次)를 전문(殿門) 밖 조당(朝堂)에 설치하고, 또한 숙정(宿亭)에는 원수와 부원수의 자리를 동변(東邊)에, 그리고 연반의 자리는 서변(西邊)에 두는 한편, 뜰 중앙에는 분부를 받들 옥위(褥位)를 두었다.

이 같은 진설이 이루어진 뒤 실제 국왕의 명을 받든 연반이 개성한 원수 이하 각군(各軍)에 대한 영접례를 행하는 장면이 ②영접례에 정리되었다. 이를 보면 자리가 마련된 숙정에서 연반과 원수 등

이 예를 행하고 국왕의 구두(口頭) 선지(宣旨)가 전해지면 원수 등이 재배하고 이후 노연이 전개되고 있다. 이어 연반과 원수가 동서 계단으로 숙정 위에 올라 자리하고 기거장(起居狀)을 올려 문안을 나누었다. 다음으로 원수가 국왕에 대해 사례하는 표문을 올리고 예를 다하게 되면 영접례가 마무리되었다.

②영접례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보자. 예종 3년 4월 기축일에 윤관 등이 개환하자 예종이 고취군위(鼓吹軍衛)로 맞이하도록 하는 한편 대방후 보(輔)와 제안후 서(僞)를 연반으로 삼아 동교(東郊)에서 노연을 베풀었음이 확인된다.⁵⁷⁾ 또 이규보는 『동국이상국집』에서 동교 노연 광경에 대해 묘사하였다. 내용을 보면 공경(公卿)이 동교에 나와 영접 및 노연을 행하는데, 미인이 대기하고 술자리가 베풀어졌으며 홍패(紅旆)가 세워졌음이 나타난다.⁵⁸⁾

이를 보면 사환의 영접례에서는 국왕이 친히 행하기보다는 고취군위를 성대하게 배치토록 하고 연반을 보내 숙정을 마련해 영접과 연회를 베풀도록 하는 한편 국왕의 선지와 원수의 표문, 연반과 원수 등의 기거 등이 행해진 것이 확인되며, 이때 숙정은 동교에 두어지고 있었다. 물론 노연에는 미인과 술 등이 갖춰져 즐거움과 흥취를 돋우고 있었다. 연반은 공경의 지위에 있는 자를 보냈다 여겨지지만 앞서 성종 12년과 현종 10년의 기록으로 볼 때 국왕이 직접 맞이하는 조치도 있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반은 예종 3년 4월의 경우처럼 공(公)·후(侯)·백(伯) 가운데 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연반을 보내 사환을 맞이하는 영접례는 ‘영아례(迎迓禮)’, ‘교아(郊迓)’, ‘교영(郊迎)’ 등으로도 불렸다. 고종 6년 조충이 강동성에서 거란군을 격파하고 개선하여 돌아오자 최충헌이 그 공을 꺼려하여 영아례를 중지하고 죽판궁(竹坂宮)에서 장수들에게 사연(私宴)을 베풀었다라 하고 있는 것이다.⁵⁹⁾ 공민왕 13년 2월 무술의 기록

57) 『고려사』 권12, 예종 3년 4월 己丑.

58) 『동국이상국집』 권12, 고을시 幕中書懷示同營諸公.

59) 『고려사』 권103, 열전16 조충 ; 『고려사』 권129, 열전42 반역 최충헌 ; 『고려사

을 보면 서북면도원수 경천흥과 도순위사 최영 등이 덕흥군의 병사를 물리치고 개환하자 유사에 명해 교아(郊迓)를 행하는데 어가를 맞이하는 의례(迎駕儀)처럼 행할 것을 명한 바 있다.⁶⁰⁾ 영아례를 성대하게 행하라는 의미가 반영된 것으로, 때로 이는 조서를 맞이하는 의례(迎詔禮)처럼 하라 한 기사로도 확인된다.⁶¹⁾

③당일 사환의를 보면 진설과 개선, 그리고 국왕에 대한 부월 환납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일 개선까지의 부분을 보면 ②영접례에서 두어졌던 숙정에 연반 및 원수의 자리를 전과 달리하고 있다. 즉 이때에는 연반(筵伴)인 공후·백의 경우는 동변에, 원수부원수는 서변에 자리를 두고 배명(拜命)·노연(勞宴)·부표(附表)·예수(禮數)의 의례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④개선의례를 보자. 전일에 우선 영접 및 노연이 행해진 후 개선의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때 고취 연주와 함께 개가(凱歌)가 불렸으며, 이는 황성의 정문인 광화문(廣化門)에까지 지속되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궐문 밖에 원수부원수 등이 이르면 합문이 이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막차로 들어가게 하였다. 악지(樂志) 아악(雅樂)에서 고취악을 쓰는 절도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보면 사환 때 주정(晝亭)에서 진열하였다가 돌아오면 광화문에 이르러 그친다하고 있다.⁶²⁾ 사환의나 용고취악절도(用鼓吹樂節度)를 보면 개선 사환은 광화문에서 일단락되고 있는 것이다.

전승 및 정난 후 원수를 중심으로 한 개선군은 ④의 개선의례에 서처럼 개선가를 불렀던 듯하다. 이규보가 남긴 개선 관련 시구를 보면 ‘개선가 부르는 속에 박수소리 요란하며(奏凱聲中千指拍)’라 하였고,⁶³⁾ 고려 말 민사평(閔思平)도 개선가와 관련하여 시로서 표현

절요』 권15, 고종 6년 3월.

60) 『고려사』 권64, 지18 예6 군례 사환의, 공민왕 13년 2월 戊戌.

61) 『고려사』 권113, 열전26 최영.

62) 『고려사』 권70, 지24 악1 아악 用鼓吹樂節度.

63) 『동국이상국전집』 권12, 고을시 幕中書懷示同營諸公.

한 바가 있는데, ‘개선가 소리 속에 경직(耕織)이 편안해 지니(凱歌聲裏安耕織)’라 하고 있다.⁶⁴⁾

광화문에까지의 개선의식이 정리되면 이어서는 ⑤국왕 좌전(坐殿)과 집부월(執斧鉞), 산호(山呼) 등이 절차대로 전개되었다. 이 단계에서의 초점은 원수가 부월을 바치면 국왕이 이를 받아 보관토록 하는 것과 이후 원수와 재추 등 신료들이 산호, 무도(舞蹈)와 함께 성공만복(聖躬萬福)을 아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의례 절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근신이 ‘외판(外辦)’이라 하여 각기 자리에 맞춰 정돈하게 하면 이어 국왕은 견장출정의 때와 마찬가지로 강사포를 입고 대관전 왕좌에 앉았다. 다음 금위(禁衛)가 산호재배(山呼再拜)를 아뢰면 사인(舍人)의 구령으로 추밀이하(樞密以下) 시신(侍臣)은 평상시처럼 기거(起居)를 행하였다. 이를 마치면 합문이 재추를 인도하여 전위에 서게 하고 이어 원수를 인도하여 부월을 받들고 전정으로 들어가 서쪽 섬들로 전(殿)에 오르게 하여 어좌 우측에서 무릎을 꿇고 부월을 올렸다. 국왕은 이를 받아 상장군에게 전해주고 원수는 서계로 다시 내려와 배위에서 재배하며 원수 이하 휘하인은 꺾문 밖으로 나갔다. 이어 공복(公服)을 입도록 한 뒤 북면하여 두 줄로 서게 하고 무도(舞蹈)와 국왕을 위해 ‘성공만복(聖躬萬福)’을 아뢰었다.

특히 무도가 이 시점에 행해진 면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기』 악기편을 보면, “그래서 시가(詩歌)란 길게 말하는 것이고, 길게 말하여도 부족하기 때문에 탄식(嗟歎)을 하며, 탄식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으로 춤을 추고 발로는 뛰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대목이 있다.⁶⁵⁾ 정현의 주를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과 발이 춤추는 것은 기쁨이 지극한 것(不知手之舞之 足之蹈之 歡之至也)이라 해설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무도의 행위는

64) 『금암시집』 권5, 시 牧丹詩.

65) 『예기』 樂記, (중략) 故長言之 長言之不足 故嗟歎之 嗟歎之不足 故不知手之舞之 足之蹈之也”

군주의 은혜에 대한 환희를 자신도 모르게 보여주는 신체의레이자 신종의례(臣從儀禮)의 하나라 여겨지는 것이다.⁶⁶⁾ 따라서 무도는 군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종의 신체의례로 행해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공복을 입기 전 단계까지의 복식은 갑주를 착용한 상태였는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 『예기』 곡례상에서는 “갑옷을 입은 자는 절하지 않는다. 그것은 절하면 좌배(笄拜)가 되기 때문이다.”라 한 대목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갑주를 착용한 상태로는 재배할 할 수 없는데, 공복을 입기 전 원수가 부월을 올리고 재배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단계에서의 복식은 견장출정의에서처럼 용복(戎服)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리라 본다.

국왕이 대관전에 나아와 원수가 올리는 부월을 받고 이를 상장군에게 전하는 의식과, 그리고 성공만복 등을 아뢰는 행사가 끝나면 국왕은 이를 받아 원수 및 신료들에게 ⑥에서처럼 ‘정난(定難)의 공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짐은 매우 기쁘노라(定難功業 惟朕乃嘉)’는 내용을 담은 선지(宣旨)를 전하도록 하였다. 이어 원수 이하에게 선사주식(宣賜酒食)을 행하도록 하고 이것이 끝나면 원수 이하 등은 서쪽으로 나가고 국왕은 내전으로 들어갔다.

다만 사환의에서는 원수가 경령전에 복명하면서 부월을 환납하거나 국왕이 경령전에서 원수의 복명이나 원수가 바치는 부월을 받아 경령전에 환납하는 등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단지 견장출정의에서 부월의 출환과 관련해 경령전에 친히 고한다는 조목으로 유추할 따름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의례의 내용은 각각의 사환의 의례 단계에서 언급하기도 했지만 ⑦~⑮에 이르기까지 사료에서는 사환의의 내용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사환의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은 ‘영아(迎迓)’가 쓰이고 있는 점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66) 이에 대한 지적으로는 다음을 참조. 渡邊信一郎 지음, 문정희임대희 옮김, 『중국 고대제국의 조정과 의례 天宮의 玉座』, 신서원, 2002, 136~141쪽.

〈표-3〉과 〈표-4〉를 고려할 때 사환의의 전체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적어도 현종 대까지는 출정하였다가 승첩을 보고하고 돌아오는 원수 및 삼군 등에 대해 국왕이 직접 출영(出迎)하여 맞이하였음이 보이고 있다. 이는 태조나, 성종, 현종 대 기사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승리 후 개선한 이들에 대해 군주가 직접 출영하지 못하자 연반(筵伴) 혹은 공후백, 사신을 보내 환영 및 선지를 전하도록 하고 이들을 맞이하는 예를 영가의(迎駕儀)나 영조례(迎詔禮)에 준해 그 성대함을 다하도록 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있음이 보인다. 그만큼 개선하는 원수와 삼군 등의 막료 등에 대한 위로가 성대히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원묘인 경령전에서의 부월 환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사환의의 의례 단계에서는 ⑤국왕 좌전과 집부월(執斧鉞)이 있는 뒤 산호와 함께 원수가 어좌의 우측에서 부월을 무릎 꿇고 올리면(跪上) 왕이 자리에서 내려와 부월을 잡고 상장군에게 전수(傳授)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만큼 부월을 왕명이자 군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요소들이 상징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산호를 행하고 군주의 행위에 따라 무도를 전개하며, 성공만복을 아뢰면서 군주의 ‘정난공업(定難功業) 유집내가(惟朕乃嘉)’의 선지와 술과 음식을 선사(宣賜)토록 한 데 대한 무도 등을 행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하겠다. 독특한 것은 견장출정의에서는 산호가 보이지만 무도 이하 성공만복 등은 행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도나 성공만복 등이 국왕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는 당연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것은 군주의 은혜에 대한 신종(臣從)이자 충성 맹세의 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사환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례에서는 의례 절차에 맞게 정확히 거행하기보다는 의례가 갖는 기본 정

신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전승을 축하하고 원수 및 부원수와 그 휘하를 격려하고 부월을 환납토록 한 뒤 국왕의 노고 치하가 행해지면서 선지와 주식을 내려 대연(大宴)을 베푼 점이 이를 말해준다 하겠다.

5. 맺음말

이상을 통해 고려시대 군례의 성립과 관련한 이해를 살펴보고 대표적 군례로서 「예지」 견장출정의와 사환의를 중심으로 관련 사례와 구체적 성립시기, 의례 내용 및 특징 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각 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예기』와 『주례』 및 여러 사서, 『대당개원례』와 『통전』 등을 통해 군례가 어떻게 이해되면서 의례로 구성되었는가를 정리하였다. 먼저 군례는 치군(治軍)으로 접근되어 공경(恭敬)·준절(撙節)·퇴양(退讓)의 내용을 담은 예를 통해 위엄을 행할 것이 그 이념 토대로 구성되었고, 이어 방국을 동화(同和)하는 예이자 위엄으로 다스리기 위한 군례가 갖춰졌다. 이와 함께 『통전』에서 주나라 제도로 소개된 출정 시 류(類)·의(宜)·조(造)의 제사가 있는 이래 마(禡)·발(輶), 마조(馬祖)·선목(先牧)·마사(馬社)·마보(馬步)가 갖춰졌고 이 중 마조·선목·마사·마보 등은 길례 소사로 편제되어 군례에서 벗어났다. 이처럼 크게 본다면 치군의 의미와 군례의 대강이 정리되는 가운데 승전을 위한 제사 등이 갖춰진 것이다. 그리고 『신당서』 단계에서는 류(類)·의(宜)·조(造)와 함께 마(禡)·발(輶)의 제사, 강무, 수전(狩田), 사(射), 합삭별고(合朔伐鼓), 대나지례(大難之禮) 등이 정리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군례는 황제친정 및 고유(告由)의 제사, 강무, 수전, 사, 합삭별고, 대나 등의 예로 유형화되었다 하겠다.

고려는 이러한 군례에 있는 예와 치군의 이념을 수용하면서 류

(類)·의(宜)·조(造)와 함께 마(禡)·발(輓) 등의 제사, 그리고 친정 및 고유(告由)의 제사, 강무, 수전, 사, 합삭별고, 대나 등의 예를 갖췄다 여겨지지만 실제 『고려사』 군례에는 견장출정의나 사환의, 구일월식의, 계동대나의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실제 사료로 본다면 류(類)·의(宜)·조(造)의 제사나 친정, 견장출정, 사(射) 등 다수의 군례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3장에서는 군례의 구체적 사례로서 견장출정의의 성립과 내용, 실제 사례 등을 검토하여 어떠한 의례절차와 운영이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견장출정의의 의례 규정은 인종 16년 5월 이후에서 충렬왕 27년 이전의 것이었다. 그러나 의례 내용 자체는 이미 예종 2년 10월 임인일의 윤관과 오연충에 대한 출정 기사가 있어 예종 2년 이전에도 어느 정도 정리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전승을 위한 유·불·도의 다양한 제사가 류(類)·의(宜)·조(造) 등과 함께 갖춰져 행해지고 있었다. 원묘인 경령전에서의 고유와 부월의 출환이 이루어질 때 강사포를 입은 국왕은 부월을 하사하여 제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췄다. 이처럼 경령전과 편전 등에서의 원수부원수의 전승방략 보고와 부월 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신료들의 만세와 재배, 원수부원수의 재배가 의례 절차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치군(治軍)과 방국(邦國) 동화(同和)를 위한 위엄을 군주가 인식하고 이를 군례로서 반영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는 출정에 따른 의례에 짝하는 것으로서 ‘사환의’의 내용과 사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었는가를 정리하였다. 사환의에서는 개선하는 군대에 대한 영접과 원수가 부월을 바치는 의식, 국왕의 선지(宣旨) 전달, 선로포(宣露布)에 해당하는 선사주식(宣賜酒食) 등이 함께 행해졌다. 사환의 관련 사례로 볼 때 적어도 문종 때까지 「예지」 사환의 의례와 같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견장출정의처럼 그 성립은 예종 2년 전후 정비되기 시작하여 인종 16년 5월 이후 충렬왕 27년 4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이 시기 사례에

영접례나 노연, 부월환납, 경령전 고유 등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태조나 성종, 현종 대의 경우 국왕의 직접 출영을 통한 영접이 이루어졌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연반(筵伴) 혹은 공후백, 사신을 보내 환영 및 선지를 전하도록 하면서 어가를 맞이하거나 조서를 맞이하는 예에 준하여 시행하였다. 이어 왕명과 군령을 상징하는 부월을 받아 경령전에 환납하게 되면 국왕의 노고 치하가 있었다. 즉, 선지와 주식을 내려 대연(大宴)을 베풀면서 이를 실현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사환의 속에는 견장출정의에서와는 달리 무도나 성공만복이 행해지고 국왕의 ‘정난공업(定難功業) 유집내가(惟朕乃嘉)’의 선지를 통해 읽을 수 있듯이 국왕에 대한 신종(臣從) 의식이 구현되었다.

이처럼 고려에서는 국내외를 예 및 위엄으로 다스려 동화(同和)하기 위해 치군(治軍)을 의례화한 군례(軍禮)를 정비하였으며, 류(類)·의(宜)·조(造) 등의 승전을 위한 제사를 갖추고 있었다. 『고려사』의 군례에 정리된 것은 견장출정의(遣將出征儀)·사환의(師還儀)·구일월식의(救日月食儀)·계동대나이의(季冬大難儀)에 불과하였다. 대략 예종 및 인종 대에 의례로 정비되었을 견장출정의와 사환의를 통해 고려는 경령전에서의 부월 출납과 환납을 국왕을 중심으로 행함으로써 신성한 왕권의 권위를 높이려 하였다. 특히 사환의에서는 국왕을 중심으로 그 덕을 나누는 면을 무도나 성공만복, 선지 및 선로포·선사·주식 등으로 상징화하여 재삼 고려 왕실과 국왕에 대한 신종(臣從) 의식을 강화하였으며, 개환한 이들과 그 기쁨을 나누는 동락(同樂)의 면이 반영되었다.

(원고투고일: 2019.1.4., 심사수정일: 2019. 2. 1, 게재확정일: 2019. 2.14)

주제어 : 군례(軍禮), 견장출정의(遣將出征儀), 사환의(師還儀), 경령전(景靈殿), 부월(斧鉞), 무도(舞蹈), 류(類)·의(宜)·조(造), 동락(同樂),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

〈참 고 문 헌〉

- 김당택, 「『상정고금예문』의 편찬 시기와 그 의도」, 『호남문화연구』21(1992)
- 김창현, 「『고려사』 예지의 구조와 성격」, 『韓國史學報』44(2011):37-83,
<http://uci.kci.go.kr/G704-000690.2011..44.009>
- 김철웅, 「『詳定古今禮』의 편찬 시기와 내용」, 『동양학』33(2003):233-253,
<http://uci.kci.go.kr/G704-000715.2003..33.008>
- 김철웅, 「고려 경령전의 설치와 운영」, 『정신문화연구』 통권114(2009):101-127,
<http://uci.kci.go.kr/G704-000772.2009.32.1.014>
- 김혜영, 「『상정고금례』와 고려조의 祀典」, 『국사관논총』55, 1994
- 渡邊信一郎 지음, 문정화·임대희 옮김, 『중국 고대제국의 조정과 의례 天空의 玉座』, 신서원, 2002
- 尹薰杓, 「高麗時代 軍制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軍史』34, 1997
- 이범직, 『韓國中世禮思想研究』, 일조각, 1991
- 李旺茂, 「조선전기 軍禮의 정비와 射禮의 의례화」, 『東洋古典研究』
54(2014):319-348, <http://uci.kci.go.kr/G704-001739.2014..54.003>
- 장동익, 「고려시대의 景靈殿」, 『歷史教育論集』43(2009):487-512,
<http://uci.kci.go.kr/G704-002017.2009..43.013>
- 채미하, 「신라의 軍禮 수용과 王權」, 『韓國史研究』149(2010):107-139,
<http://uci.kci.go.kr/G704-000361.2010..149.011>
- 한정수, 「고려시대 태조 追慕儀의 양상과 崇拜」, 『사학연구』 107(2012):1-44,
<http://uci.kci.go.kr/G704-001261.2012..107.006>
- 한정수, 「고려 太祖代 대외 교섭과 外交儀禮」, 『韓國史研究』170(2015):137-175,
<http://uci.kci.go.kr/G704-000361.2015..170.009>
- 한정수, 「고려시대 국가의례의 設行과 統合意識」, 『한국중세사연구』
55(2018):319-360
- 洪承賢, 「晉代 喪服書의 편찬과 성격」, 『東洋史學研究』102(2008):1-39,
<http://uci.kci.go.kr/G704-000250.2008..102.001>
- 홍영의, 「고려 궁궐내 景靈殿의 구조와 운용」, 『한국학논총』37(2012):67-91,
<http://uci.kci.go.kr/G704-SER000013600.2012.37..012>

<Abstract>

The Formative Process and Contents of the military rites, Gyeonjangchuljeugeui(遣將出征儀) and Sahwaneui(師還儀) in the Period of the Goryeo Dynasty

Han, Jung-Soo

This study dealt with three research tasks in a broad sense. The first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military rites and the composition of the volume 'military rites' of 『Yeji(예지)』. The second is to examine the establishment, contents and actual case of Gyeonjangchuljeugeui(遣將出征儀) and thereby attempt to understand what ritual procedures and operation occurred. The final task is to examine the contents, cases and operational methods of Sahwaneui(師還儀) paired with the rites of going into battle.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The Goryeo Dynasty organized the military rites ritualizing the military control by administering domestic and foreign affairs by means of courtesy and dignity for the purpose of their assimilation. The military rites in Goryeo Dynasty were composed of Gyeonjangchuljeugeui(遣將出征儀), Sahwaneui(師還儀), Guilwolsikeui(救日月食儀) and Gyedongdaenaewi(季冬大儺儀). But it is judged that the actual rites differed from the military rites of 『Goryosa(History of the Goryeo Dynasty)』. First of all, Gyeonjangchuljeugeui(遣將出征儀) were equipped with the ancestral rites for a successful war such as Ryu(類), Eui(宜), Jo(造) and so on. The Goryeo Dynasty enhanced the dignity of the holy royal authority by performing the rites for taking and returning battle-axes and halberds(斧鉞) at Gyeongryeongjeon(景靈殿) with the king at the center through Gyeonjangchuljeugeui(遣將出征儀) and Sahwaneui(師還儀) probably organized in the reigning period of kings Yejong and Injong. In

particular, Sahwaneui(師還儀) again reinforced subjects' loyalty towards its royal family and kings of the Goryeo Dynasty by symbolizing the facet of sharing virtues with the king at the center by means of dance(舞蹈), Seonggunmanbok(聖躬萬福), Seonji(宣旨), Seonropo(宣露布), Seonsajusik(宣賜酒食) and so on. It mirrored the aspect of sharing the triumphant joy with those making a triumphant return from the battle.

Key words : military rites, Gyeonjangchuljeugeui(遣將出征儀), Sahwaneui (師還儀), Gyeongryeongjeon(景靈殿), battle-axes and halberds(斧鉞), dance(舞蹈), Ryu(類), Eui(宜), Jo(造), sharing joy, 『Sangjeonggogeumryeo(詳定古今禮)』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0, pp.203-239
<https://doi.org/10.29212/mh.2019..110.6>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조선전기 동북아의 정세와 전쟁

김경록*

1. 머리말
2. 원명교체와 조선의 건국
3. 국제질서의 유지와 분열
4. 명 중심 국제질서의 임진전쟁
5. 맺음말

1. 머리말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국가에 있어 전쟁과 평화는 상반되면서 동시에 매우 긴밀하게 연관된 개념이다. 조선의 경우, 고려말 정치, 사회, 경제적 혼란을 역사적 유산으로 물려받아 1392년 개국되었다. 건국초기 조선은 국내의 정치, 군사적 복잡한 관련성 못지않게 원명교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직면하여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면서 대외적으로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조선의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치열한 국방정책을 시행했다.

*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 선임연구원

일반적으로 평화시기는 국왕을 중심으로 한 지배층의 장기적인 국방정책을 시행할 수 있지만, 건국과 내우외란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면 국가의 국방정책과 외교정책은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변화를 거듭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의 군사관련 정책이 변화되고 수정되는 과정은 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전쟁은 국가의 안위를 좌우하는 중대사였기에 국가는 총력을 동원하여 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방지가 어려워 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승리하고자 노력했다.²⁾

조선전기 국제정세는 조선이 경험한 전쟁과 연관되었다. 원명교체의 국제질서 재편과정으로 명 중심 국제질서가 형성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요동의 복원세력, 초원지대의 몽골세력, 한반도 북부의 여진족, 전국시대의 혼란으로 인한 왜구의 준동 등이 발생했다. 이들 동북아 여러 국가와 세력은 명과의 관계, 조선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간 치열하게 충돌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로 조선은 국방정책의 수립·변화를 경험하고, 여진정벌, 대마도정벌, 삼포왜란, 니탕개의 난, 임진전쟁 등 대외전쟁을 치렀다.

조선전기 역사전개에서 전쟁이 가지는 의미가 높았기 때문에 여말선초에서 임진전쟁, 병자호란에 이르는 시기동안 조선이 직면한 전쟁관련 연구는 방대하게 축적되어 전쟁의 개략적인 모습을 이해 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쟁중심으로 서술된 연구성과는 대체적으로 대규모 전쟁 중심으로 주요전투, 참전병력, 승패에 따른 결과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전쟁의 주체인 국가간의 정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쟁의 원인, 과정, 결과를 정리한 경우는 임진전쟁과 같은 대규모 전쟁에 한정된다.³⁾

2) 전쟁은 물론 내부적인 반란이나 민란 등을 戰亂이라 하여 포함할 수 있지만, 본 글에서는 대외적인 적대국과의 전쟁으로 한정하여 살펴본다.

3) 이형석, 『임진전란사』(상·중·하),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왜란사』, 1987; 최영희 외, 『임진왜란의 재조명』, 국사편찬위원회, 1992;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정두희, 이경순 엮음,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기존 연구는 대체적으로 여말선초 왜구, 대마도정벌, 여진정벌, 삼포왜란, 임진전쟁 등을 중점 조망하였다. 물론 이들 전쟁이 조선의 전쟁관련 역사에서 중요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과연 개별 전쟁들이 어떠한 시대상황에서 발생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들 전쟁들의 서술에 있어 일본, 여진 등의 개략적인 시대상황을 설명하며 전쟁 배경이라 하지만, 단편적인 설명이라 판단된다. 전쟁은 장기 지속적인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연관되어 발생하여 전쟁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의 흥망에 큰 영향을 주었다.

조선은 건국과 함께 명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되어 국가의 안위를 확보하기 위해 명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명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정세변화는 조선의 전쟁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비록 직접적인 군사 충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조선의 국방정책 및 국방체제의 변화를 추동하기도 했다. 이에 조선건국에서 임진전쟁까지 조선은 대내외적으로 전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비하였으며, 수행하였는가를 살펴봄에 조선의 전쟁역량, 전쟁대비 등과 함께 국제질서, 국제정세, 황제국으로 명의 통제력이 어떻게 연관되었는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조선전기 국제정세의 변화를 개관하고, 국제정세 변화와 명의 통제력이 가지는 상관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조선이 직면하게 되는 국제정세와 전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정리의 대상시기는 여말선초에서 임진전쟁까지이며, 기존 연구성과를 전적으로 참조하되 상대적으로 연구관심이 많지 않은 국제, 국내정세 변화 및 전쟁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보다 세부적인 국방체제 및 국방정책의 관련성에 대한 정리작업은 차후 연구과제로 기약한다.

2. 원명교체와 조선의 건국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에 대한 기존 연구는 중국적 세계질서가 고전적인 형태로 중화세계를 형성하고 주변 국가들과 조공체제를 맺어 발전했다는 견해⁴⁾와 교역을 중심으로 국제무역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견해가 있다.⁵⁾ 최근에는 이를 수정하여 조공체제로 설명하기에 부족한 측면을 보완한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⁶⁾ 전근대 동아시아 역사를 조공체제로 설명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시대별로 유력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국가간 관계를 조공체제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본 필자는 중국 중심 국제질서(예를 들면, 원 중심 국제질서, 명 중심 국제질서, 청 중심 국제질서 등)로 설정하였다.⁷⁾

국제질서는 다양한 국가들 간의 충돌과 화합으로 변화되지만, 무엇보다 중심 국가의 국제정세에 대한 통제력 및 영향력의 범주에

4) Fairbank, J. K. "A Preliminary Framework," Fairbank(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Walker, Hugh D. "The Yi-Ming Rapprochement: Sino-Korean Foreign Relations, 1392-1592" Ph.D.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71; 黃枝連, 『天朝禮治體系研究』(上·中·下),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2; 王正毅, 『世界體系論與中國』 商務印書館, 2000; 李雲泉, 『明清朝貢制度研究』 暨南大學博士學位論文, 2003.

5) 濱下武志, 『近代中國の國際的契機: 朝貢貿易システムと近代アツア』 東京大學出版部, 1990; 『朝貢システムと近代アツア』 岩波書店, 1997; 荒野泰典,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出版會, 1988; 高橋公明, 『朝鮮外交秩序と東アジア海域の交流』, 『歴史學研究』573, 1987.

6) 김영진, 「전통 동아시아 국제질서 개념으로서 조공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38, 2016; 최희재, 「‘중화제국질서’를 둘러싼 논의의 확산과 수렴 -조공체제론과 다중체제설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65, 2018; 윤영인, 「전근대 동아시아 천하체제와 조공체제」, 『동양문화연구』29, 2018.

7) 김경록, 「명대 공문체도와 행이체제」, 『명청사연구』26, 2006;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 『역사와 현실』64, 2007; 「조선시대 국제질서와 조명관계」, 『세계 속의 한국사』, 태학사, 2009; 「조선시대 국제질서와 한중관계의 전개양상」, 『중국학보』60, 2009; 「여말선초 홍무제의 고려조선인식과 외교관계」, 『명청사연구』35, 2011; 「조선시대 국제질서와 해양정책」, 『명청사연구』48, 2017.

의해 안정 및 동요가 일어나고 최종단계에 새로운 국제질서로 전환되기도 한다. 조선의 건국은 원 중심 국제질서에서 명 중심 국제질서로 전환되는 전환기에 이루어져 조선이 직면하는 전쟁은 중심국가의 통제력 여부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원명교체의 전환은 이미 고려말 시작되었다.

전대미문의 대제국을 건설하였던 몽골의 몰락은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몽골지배체제의 다양한 모순점으로 유발된 내부적인 반발은 민족적 대립과 연관되어 이어졌다. 몽골의 몰락은 고려말 恭愍王代에 이미 표출되어 고려의 정치, 군사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대륙에서 빈발하는 반란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원에 대해 반원 세력들이 화남, 강남지역 등을 근거지로 성장하였다. 강력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공민왕은 원 중심의 국제질서를 인정하면서 개혁정치를 추진하였다.

국제정세의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본 공민왕은 원 중심 국제질서를 인정했다. 왕권강화 및 중앙집권적 개혁정책을 추진하고(공민왕 즉위~공민왕 9년), 원의 통치체계가 붕괴되자 명 중심 국제질서를 인정하고 고려의 안정적 통치를 추구하였으며(공민왕 10년~공민왕 16년), 명 중심 국제질서하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였던 복원세력을 외교카드로 활용하여 요동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공민왕 17년~공민왕 23년)하기도 했다.⁸⁾

공민왕대 중원대륙의 정세변화는 고려에 흥건적의 침입이란 북방의 대규모 전쟁을 가져와 고려국왕이 피난하는 큰 피해를 가져왔다.⁹⁾ 여전히 원 중심 국제질서에 속한 고려의 입장에서 흥건적의

8)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 『역사와 현실』64, 2007. 참조.

9) 金正義, 「흥건적의 침입에 관한 고찰」, 『군사』17, 1988; 이경희, 「고려말 흥건적의 침입과 안동임시수도의 대응」, 『역사와경계』24, 1993;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 『역사와현실』64, 2007; 閔賢九, 「高麗 恭愍王代 중엽의 정치적 변동」, 『진단학보』107, 2009; 이익주, 「14세기 후반 고려-원 관계의 연구」, 『동북아역사논총』53, 2016; 홍영의, 「이방실 장군의 생애와 군사활동」, 『군사』103, 2017; 박진훈, 「고려 후기 흥건적의 침입과 安祐의 군사활동」, 『사학연

침입은 분명한 외침으로 고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였으며, 원의 명분적인 지원을 받았다. 즉, 원 중심 국제질서에서 공동의 적이었던 홍건적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과 격되는 고려의 입장에서 고려의 명운을 건 전쟁이면서, 여원관계에서 유리한 전쟁이었다.

고려 우왕대 국제정세는 명의 공세적인 대몽골정책 추진과 요동 經略 추진으로 고려와 명 사이에 갈등상황이 초래되었다. 요동의 나하추가 투항하여 복원세력이 소멸되자 홍무제는 본격적으로 요동통치를 강화하고 여진족에 대한 회유정책을 추진했다. 우왕대 고려와 신흥 명의 관계는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고려는 적극적으로 명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길을 선택하고, 여명관계를 원활하게 맺음으로써 대외적인 위협을 상쇄시키고자 했다.¹⁰⁾

조선의 건국과 동시에 고려의 군제를 개편하여 국방력을 확립하고자 했다. 우선 都總中外諸軍事府를 혁파하고 義興親軍衛를 설치하고, 뒤이어 三軍總制府를 고쳐 義興三軍府로 고치고, 重房을 폐지하였다.¹¹⁾ 이는 고려의 남겨진 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군제를 건국 주도세력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조선 건국초기 국방개혁은 군제 개편, 사병혁파, 방어체제(관방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치세력의 개편과 연관되어 점진적으로 왕권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국가의 국방력은 전근대에는 무엇보다 병력의 숫자와 훈련정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를 잘 인식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건국과 동시에 개혁을 주도했던 정도전은 사병혁파를 우선시했다. 건국직후 정치, 군사세력투쟁이 벌어져 사병혁파를 왕실세력의 축소로 인식하였던 왕자를 비롯한 세력은 반대하였다. 이후 왕자의 난 이후 권력을 장악한 이방원은 1400년 4월 오히려 자신이 나서 사병혁파를

구」130, 2018; 이정란, 「1361년 홍건적의 침입과 공민왕의 충청지역 피난정치」, 『지방사와 지방문화』21-1, 2018.

10) 김경록, 「명대 符驗제도와 한중관계에서 符驗의 의미 -홍무연간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49, 2018.

11) 『조선태조실록』권1, 태조 1년 7월 정유; 권4, 태조 2년 9월 병진.

추진하여 완성했다.¹²⁾ 즉, 권력투쟁 과정에서 자신의 세력약화를 염려하여 일시적으로 사병혁파에 반대할 수 있지만, 국가의 군대로 확립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지배층이 동일하게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관제개혁에서 사병혁파를 명시한 것은 법제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병의 보유가 왕조국가에서 불법이자 국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당시 臺省에서 올린 交章에 의하면 사병혁파는 관제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지만, 핵심은 병권을 국왕에게 일원적으로 통속시키는데 있음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조선의 군사지휘체계를 바로잡고, 향후 발생하는 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병권은 나누어 통솔할 수 없으며, 또한 편중되어 일부가 專掌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 통속이 없으면 그 (지휘의) 위엄이 나누어지고, 편중되어 혼자 전장하면 그 권세가 (그에게) 옮겨지니 위엄이 나누어지고 권세가 옮겨지면 난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즉, 국방력으로서 군권은 국왕을 정점으로 일원적으로 지휘되어야 하며, 자칫 군권을 가진 인물이나 세력은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논리였다. 평시에 국왕을 정점으로 군사지휘권을 체계화함으로써 전시에 발생하는 전시지휘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

조선이 건국된 다음 해 1393년에 파악된 조선의 군사력은 軍役者 200,800명, 有役者가 100,500명이었다. 이는 각 도에서 작성된 군적에 이름을 올린 병력이었다. 군역자는 마병·보병·驕船軍 등 군인으로 종사하는 병력이며, 유역자는 자제·鄉吏·驛吏 등 군사관련 역을 부담하는 인원이었다.¹³⁾

명 중심 국제질서가 어느 정도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왜구의 준동이였다. 여말선

12) 『조선정종실록』권4, 정종 2년 4월 신축.

13) 『조선태조실록』권3, 태조 2년 5월 경오.

초의 가장 지속적으로 전국규모의 병란을 일으킨 왜구는 조선의 전쟁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 조선의 영토를 벗어나 대외정벌을 조선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을 만큼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왜구는 공통의 문제였다. 고려말 정벌을 제외하고도 조선은 두 차례 정벌을 통해 왜구침입의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1396년(태조 5) 12월 조선은 金士衡을 五道兵馬都統處置使로 삼아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여 일기도와 대마도를 정벌하도록 했다. 정벌군 파견의 근거였던 敎書를 통해 조선이 당시 인식하고 있던 전쟁관을 살펴볼 수 있다. 교서에서 태조는 동양사회에서 국왕이 국내 외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치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진리에 따라 건국초기 전쟁으로 백성들이 동요할까 싶어 최대한 전쟁을 자제하고자 하였음을 밝혔다. 그러나 왜구의 침입이 많아져 신생국 조선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조선의 전체 군사력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왜구의 소굴 일기도와 대마도를 정벌한다고 천명했다. 건국초기 조선의 군사지휘체계와 국방력이 정립되지 못한 시점에 대규모 정벌군을 파견한다는 점은 조선의 지배층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왜구의 침입으로 인한 조선의 피해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불가피하였음과 전쟁의 원인이 왜구에게 있음을 거듭 밝힌 것이다. 또한, 태조는 정벌군의 지휘관에게 지휘체계를 엄정히 하고 정벌임무를 완수하여 정벌군이 재출정하는 부담이 없도록 지시했다.¹⁴⁾

14) 『조선태조실록』권10, 태조 5년 12월 정해. “自古王者，常以撫綏中外爲務。不幸而有鼠竊狗偷之虞，則專責方伯，以驅逐擒制之，至於其勢昌熾，方伯不能制禦，然後命大臣出征，若召虎之征淮夷，吉甫之伐玁狁是已。予自卽位以來，凡用兵之道，一遵古昔，未嘗輕舉，恐致斯民之擾動也。今叢爾島夷，敢肆猖狂，侵我邊鄙，至於再四，已遣將師，出而禦之。然非大興師旅，水陸相迫，一舉而殄滅之，則邊境無時得息矣。卿衣冠胄族，廊廟宏才，稟氣森嚴，立志弘毅，揆度庶政，咸當於理，薦進人材，允適其宜，明足以識虛實，智足以制寇亂。是用命爲諸道兵馬都統處置使，授以節鉞，佐以同列，廣置僚案，以重其威，庶幾諸將，俯伏以聽命，盜賊聞風而破膽，卿其坐運籌策，指示將師，謀無再舉，以圖萬全，以副予懷。其有將師之失律，守令之稽緩，法所當懲，無問大小，便卽處決”。

조선은 각 도의 병마도절제사를 혁파하고 각 진에 첨절제사를 두어 부근 州의 병마를 지휘하여 방어하도록 하고, 도관찰사가 첨절제사의 업무를 고과하도록 하였다. 이때 첨절제사가 설치된 진은 경상도에 合浦·江州·寧海·東萊, 전라도에 木浦·兆陽·沃溝·興德, 충청도에 蕞城·藍浦·伊山, 풍해도에 豊州·甕津, 강원도에 三陟·杆城 등이었다.¹⁵⁾

1399년 1월 조선은 태조말 일기도, 대마도 정벌을 통해 왜구의 침입이 줄어들자 일반 수군역의 어려움을 줄여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동북면·강원도의 선군을 혁파하고, 경기도·경상도·충청도·전라도·풍해도·서북면의 선군을 줄였다. 지역별로 수군을 혁파하거나 줄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군력의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 수군력을 요해처에 배치하고, 봉화를 통해 통신망을 확보하고자 하였다.¹⁶⁾ 조선의 정세변화에 따른 군사인식도 변화됨은 수군력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수군력을 줄였던 조선은 같은 해 9월에 왜구 침입의 우려가 높아지자 각 도의 기선군을 다시 설치했다.

한편, 조선은 원 중심 국제질서에서 명 중심 국제질서로 전환된 국제환경에서 북방의 여진족이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여진전쟁을 수행하였다. 여진족은 원 중심 국제질서에서 요양행성 통치하에서 거주하다 원명교체기에 독자적인 세력화를 거쳤으며, 뒤이어 명의 요동경략으로 변화의 시대를 맞이했다. 홍무제는 1387년(홍무 20)에 나하추가 항복하자 요동 북서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大寧城에 大寧都指揮使司 설치하였다. 나하추의 투항으로 명의 요동경략은 일대 전환점을 가졌는데, 요동에서 명에 대항할 거대세력이 사라진 점과 요동과 요서를 연결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요동경략을 전개할 수 있었다. 홍무제는 1389년(홍무 22)에 몽고인의 귀화를 통제하기 위해 太寧, 朵顏, 福餘 三衛指揮使司를 兀良哈에

15) 『조선태조실록』권11, 태조 6년 5월 임신.

16) 『조선정종실록』권1, 정종 1년 3월 갑신.

설치하였다. 이들 우랑하이(兀良哈) 삼위가 1420년대 이후 세력을 확대하면서 여진족은 상대적으로 밀려 남하하였다.

요동과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로 조선의 국경에 거주하는 여진족은 북쪽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남쪽으로 조선의 적극적인 여진정책에 직면하자 조선과 수시로 무력충돌을 일으켰다. 조선은 외부의 침입으로 인한 군사적 위협상황이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내부적으로 정치대립이 반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1402년(태종 2) 11월, 안변부사 趙思義가 태종의 집권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군은 여진세력과 연계되어 조선 중앙정부를 위협하기도 했다. 조사의 반란이 일어난 해, 조선은 여진뿐만 아니라 동북아정세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에 직면했다.

동북아의 정세가 조선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가 靖難之役의 발생과 漫散軍의 조선 유입이었다. 燕王의 군대가 황제의 군대와 본격적인 전투를 전개하기 전에 배후에 위치한 遼王과 寧王은 최대 위협세력이었다. 연왕은 배후의 요왕과 영왕을 격퇴시킨 뒤, 본격적으로 남하하였지만, 건문제에 통치하는 황제의 군사력에 비해 열세에 있었다. 정난지역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요동전역은 전쟁터가 되었으며, 전란을 피해 도망하는 명군이 조선으로 유입되었다. 1402년 4월, 林八刺失里가 3천여 호를 거느리고 조선으로 넘어왔다. 1399년 6월에 연왕이 기병한 뒤, 3년간을 치열하게 공방하던 전쟁은 결국 연왕군이 1402년 6월, 남경을 점령함으로써 종료되었다.

조선은 정난지역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중원에서의 전쟁이 조선에 유입되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문제의 요구에 소극적인 자세로 말을 보냄으로써 연왕군과 적대관계를 맺지 않고자 하였다. 전쟁 중 유입된 만산군을 삼남지방에 분배하여 거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중원에서 전황을 유심히 살피보았다. 영락제가 등극하여 만산군을 효유하자 조선은 만산군의 송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¹⁷⁾ 조선은 명과 말교역 및 군인송환이란 군사외

교를 통해 새로 등장한 영락제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중원을 전란으로 몰아갔던 정난지역의 풍파에 조선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했다.

몽골의 강압적인 통치 및 지배층의 이완된 도덕관념에서 기인한 통치모순이 노출되자 원말 사회혼란 및 국제정세의 변동이 일어났다. 원말 사회모순을 개혁하고 황제 중심의 일원적인 통치질서 및 명 중심 국제질서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명 홍무제는 예제의 정비, 법제의 정립, 종교제도 마련, 군사개혁, 통일전쟁 및 몽골전쟁을 수행했다.¹⁸⁾ 홍무제는 복원에 대한 정벌을 통해 마련된 명의 영토와 국제사회를 안정화하기 위해 원대에 부재했던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예제에 근거한 세밀한 조공제도를 정비했다.¹⁹⁾ 또한, 홍무말기에 전쟁보다 회유와 외교로 주변 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동북아시아는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안정화되었다. 이에 조선은 건국이후 원명교체의 대륙정세변화, 요동과 여진족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명과의 긴장관계, 왜구의 준동 및 대마도정벌, 정난지역과 만산군 등의 국제정세와 관련된 전쟁을 경험하거나 방비함으로써 건국과 수성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3. 국제질서의 유지와 분열

조선전기 동북아시아 국제정세는 명 중심 국제질서의 변화를 통

-
- 17) 김경록, 「조선초기 귀화정책과 조명관계」, 『역사와 현실』83, 2012; 「조선초기 군인송환문제의 조명간 군사외교」, 『군사』83, 2012.
- 18) 김경록, 「명대 공문제도와 행이체계」, 『명청사연구』26, 2006; 「명초 홍무제의 국가통치 구상과 대명률」, 『법사학연구』53, 2016; 「명초 홍무제의 군사인식과 군사정책」, 『군사』99, 2016; 「명초 홍무제의 종교정책과 통치구상」, 『명청사연구』46, 2016; 「홍무연간 명의 봉진 정비와 조명관계」, 『중국사연구』106, 2017.
- 19) 김경록, 「여말선초 홍무제의 고려·조선 인식과 외교관계」, 『명청사연구』35, 2011; 「홍무제의 대외인식과 조공제도의 정비」, 『명청사연구』37, 2012

해 확인할 수 있다. 명 태조 홍무제이후 영락제를 거쳐 홍희, 선덕 연간까지 명은 최대의 번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이후 정통제의 치세부터 정덕제의 치세까지 명은 시대발전의 동력을 상실하고 내부적 정체의 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정통연간에서 정덕연간 80여 년간의 정치적으로 아둔한 황제가 연속으로 즉위하였으며, 권력은 환관이 장악하고, 황제의 총애를 받는 이들의 천단이 일상화되어 행정체계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경제적으로 지주에 의한 토지집중이 가중되고 유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 사회갈등의 모순이 격화되었다. 군사적으로 변방의 외침이 빈번하고, 내부적으로 농민과 소수민족의 봉기가 일어나 군사 위협이 증대되었다. 1436년(정통 1)부터 15세기 말까지 군사적 측면에서 정체와 약화의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²⁰⁾ 명 건국이후 70여 년의 경과하면서 명의 군사력은 점차 변화되었다. 그 변화의 최고 결정권자이자 원인제공자는 영종 正統帝였다. 37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한 선덕제를 이어 9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 인물이 정통제 朱祁鎮이다.²¹⁾

정통제는 즉위초반 三楊(楊榮, 楊士奇, 楊溥) 등 선덕연간의 내각 대학사와 誠孝昭皇后 張氏의 지도와 보좌를 받아 황제의 역량을 키웠다. 그러나 정통연간의 불행은 내부와 외부에서 서서히 다가왔다. 내부적으로 선덕연간에 설립된 內書堂 출신의 환관 王振이 정통제와 사제관계를 맺으면서 명대 환관정치의 극적인 장면이 나타났으며, 외부적으로 영락제의 정복전쟁 결과 회유책으로 마시형태의 교역을 허가하면서 점차 세력을 키웠던 몽골부족 가운데 야선이 지도하는 오이라트가 흥기하여 명 변방을 침략하기 시작했다.

중국역사에서 환관에 의해 초래된 정치혼란은 수도 없이 많다.

20) 李龍潛, 「明正統年間葉宗留鄧茂七起義的經過及特點」, 『歷史教學』1957-3; 陳濟時, 「明代正統一天啓年間主要農民起義圖」, 『歷史教學』1981-5; 董玉瑛, 「明正統末景泰初女眞的動亂」, 『史學集刊』1983-4.

21) 中國軍事科學院, 『中國軍事通史』第15卷-明代軍事史, 軍事科學出版社, 1998.

명나라는 정치와 군사적 능력을 인정받은 鄭和와 달리 명대 환관정치를 열었던 王振, 이후 汪直·劉瑾·馮保·魏忠賢·王承恩 등이 있다.²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을 패망으로 몰아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자 명대 정치체계의 특징으로 내각정치와 함께 거론되는 환관정치를 실제 열었던 인물이 왕진이다. 명대 환관이 이전 시대의 환관과 가장 큰 차이점은 철저히 황제에게 예속된 존재로서 환관이란 점이다. 그러기에 앞에서 언급된 인물들은 개인적인 치부와 권력 남용을 하였더라도 황제의 의지에 의해 일시에 제거되기도 했다. 즉, 명이란 국가에서 황제에게 기생하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더라도 황제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못하는데, 왕진은 황제가 적의 포로가 되도록 하고 폐위되는 전대미문의 결과를 초래시킨 인물이었다.

한편,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예속된 존재로서 환관은 나름의 황제에 대한 충성심으로 명 정국운영에 순기능을 하기도 했다. 물론 후대의 평가가 분분하기는 하지만, 고력사, 풍보, 왕승은 등은 해당 시기에 정치에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환관의 정치적 역할은 이미 환관의 전횡을 엄금했던 홍무제마저 주변국에 사신으로 그 국가출신의 환관을 활용한 환관외교를 시행하기도 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²³⁾ 환관의 정치 간여를 엄금하였던 홍무연간을 지나, 영락제의 등극과정에 환관의 지대한 공로는 환관에 대한 인식과 대우를 변화시켰다. 왕진 이전까지의 변화는 이전의 비루한 인식과 대우가 그나마 나아졌다는 수준이라면 왕진 이후는 환관에 의한 정치라는 말이 적당할 수준으로 변화되었다. 그 변화의 정점에 왕진이 존재했다.

스스로 자진하여 환관이 된 왕진은 영특하고 학문적 소양도 있어 선덕연간에 동궁을 모시는 역할이 주어졌다. 정통제가 등극한 뒤 신

22) 전순동, 「명조 전기 환관 세력의 추이와 기능」, 『중국사연구』61, 2009.

23) 孫衛國, 「論明初的宦官外交」, 『南開學報』1994-2; 임상훈, 「홍무제, 명대 환관 외교의 창시자 - 홍무제의 환관 억제와 그 실제」, 『동양사학연구』129, 2014.

임을 받은 왕진은 환관의 최고관직인 司禮監의 秉筆太監이 되었다. 이후 왕진은 정통제의 신임을 바탕으로 절대권력을 행사하여 내각 조차도 왕진에게 영합할 정도였다.²⁴⁾

환관의 권력이 강하더라도 군국의 사무는 예외였는데, 왕진은 몽골 오이라트부의 지도자 也先과의 교역에 이익을 보고자하여 1449년 야선의 침입을 초래했다.²⁵⁾ 자신의 사적 이익추구에서 비롯된 외부의 침입을 자신이 직접 진압하여 무공을 세우고자 했다. 자신이 정벌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황제의 친정이 필요하였기에 왕진은 정통제를 부추겨 친정에 나서도록 했다. 결국 군사지휘능력이 전무한 정통제와 왕진의 명군은 土木堡에서 야선에 의해 포위되고 정통제가 포로가 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다.²⁶⁾

토목보의 변은 명대 정치사에서 태상황제의 존재라는 아주 비정상적인 현실을 초래했다. 정상적인 황위계승은 선황제의 사망과 새로운 황제의 등극으로 이어지며, 一代에 一年號를 지향하였던 명대 황제권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통제가 토목보의 변으로 야선에게 사로잡히자, 처음 황태후는 황제의 장자 朱見深을 황태자로 세울 것을 명하고 郕王 朱祁鈺이 황태자를 대신하여 국정을 총괄케 했다. 당시 조정의 논의가 국난의 시기에 장성한 황제를 세우도록 건의하자 황태후는 태감 金英을 보내 성왕의 황제 등극을 명했다. 이에 성왕이 景泰帝로 등극하고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 생존한 정통제를 태상황으로 높였다. 황제의 권력이란 측면에서 현재의 황제에 미치지 못하지만, 태상황의 존재는 명 제국에 두 명의 황제가 존재함으로 의미한다. 태상황이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복벽의 가능성이 있어 현재의 황제권력에 최대 위협요소가 되었다. 정통제의 정치·군사적 의미가 없음을 확인한 야선은 정통제를 명에 송환시켜

24) 『명영종실록』권137, 정통 11년 정월 경진.

25) 南快莫德格, 「论瓦剌蒙古与西域社會」, 『中国民族学类核心期刊』2005-2.

26) 中國軍事通史編委會, 『中國軍事通史15-明代軍事史 上冊』, 軍事科學出版社, 1995. 399~408쪽.

황제국가 명의 분열을 발생시키고자 했다.²⁷⁾

야선의 의도와 같이 귀환된 정통제는 경태제로 부터 태상황으로 받아들여지지만 迎接儀節만 봐도 경태제에게 정통제가 가지는 부담감을 확인할 수 있다. 정통제의 영접은 매우 간단하여 정통제가 북경에 도착하자 安定門 밖에 어가가 준비되고, 어가가 東安門으로 들어오자 경태제가 맞이하여 절하고, 정통제가 답례한 뒤 南宮으로 들어가자 백관이 알현하고 물러갔다. 이후 실제 정통제는 유폐되어 만수성결과 원단에 백관의 하례가 허락되지 않았다. 태상황의 귀환은 경태제의 위기감을 고조시켜 안정적인 황위계승을 위해 기존의 태자 주견심을 폐위시켜 沂王으로 삼고 자신의 아들 朱見濟를 황태자로 봉책하였으며, 정통제의 심복이었던 태감 阮浪 등을 죽였다. 1453년(경태 4) 황태자 주견제가 사망하자²⁸⁾ 예부 儀制司 낭중 章綸, 감찰어사 鍾司 등이 다시 태자를 세우자고 청하니 모두 의금위 옥에 가두어 杖刑에 처하였으며,²⁹⁾ 남궁의 南城 가운데 큰 나무를 잘라 버리자 정통제는 목숨의 위협을 절감했다. 경태제가 와병 중에 전격적으로 石亨, 徐有貞 등이 정통제를 맞아 복위시켰다.³⁰⁾

토목보의 변과 뒤이어 발생한 야선의 北京포위는 명의 정치, 군사에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 군사적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홍무제~영락제까지 명은 여진족을 회유하여 명의 기미위소로 편입시켰는데, 여진족의 편입은 여진족의 군사력을 명의 대외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명은 여진위소를 확보함으로써 몽골세력을 견제하고자 했다. 우량하이 3위가 비록 명에 복속되었지만, 마시를 비롯한 이익관계의 충돌로 명의 위소체계에서 벗어나게 되고, 오이라트의 세력확대에 의해 야선의 세력권에 편입되었다.

27) 華實, 「“土木之變”與土木堡」, 『文史知識』1983-2.

28) 『명영종실록』권235, 경태 4년 11월 신미.

29) 『명영종실록』권241, 경태 5년 5월 갑자.

30) 『二十二史劄記』卷13, 太上皇帝.

우량하이 3위는 남쪽의 여진위소를 압박하자 여진위소는 조선의 북방지역으로 옮겨와 군사분쟁을 유발했다.

황위계승권과 관련된 정치상황은 극단적인 정치사건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6대 황제로 환관에게 정치를 일임하였던 정통제가 몽골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결정하고, 친정하는 도중에 몽골군의 포로가 되자 명의 관리들은 정통제를 볼모로 명에 과도한 정치·외교적으로 공세를 강화할 것을 염려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황태후의 승인을 받아 경태제를 옹립하여 위기의 명조를 안정화시켰다. 뒤에 몽골의 손에서 풀려 나와 명으로 인도된 정통제는 황성에 연금되었다. 한 국가에 두 명의 전·현임 황제가 존재하는 상황은 이를 중심으로 정치세력화하려는 관리들에 의해 분열되어 상호간에 치열하게 충돌했다. 황성에 연금된 지 7년 만에 정통제를 합법적인 황제로 복원시키려는 세력에 의한 반란이 성공하자 정통제는 자신의 복위가 천명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 날 경태제를 옹립했던 이들을 철저히 숙청했다.

한편, 명은 국가재정의 확충을 위해 홍무연간에 浙江의 溫州, 處州, 福建의 浦城 등지에 銀鑛을 개발하고, 매년 채광된 은을 징수했다.³¹⁾ 이후 점차 納銀量이 증가되자 채광하는 백성이 도망하여 납은량을 맞추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한편, 은광개발은 명의 경제 발달과 연관되어 유민들이 은광지역에 몰려 개간하기도 했다.

1436년(세종 18, 정통 1) 선덕제를 계승한 정통제가 즉위하면서 점진적으로 환관정치가 시작되자 명은 정치의 부패와 과도한 탐학으로 인하여 지방에서 대규모의 반란이 일어났다.³²⁾ 특히, 명대 대규모 반란의 본격적인 시작은 환관정치로 인해 부패의 만연과 밀접

31) 『명태조실록』권178, 홍무 19년 6월 기축; 권206, 23년 12월 무자; 『명선종실록』권12, 홍희 원년 12월 무자.

32) 何鹏毓, 「明正統年間東南地區的農民大起義」, 『新史學通訊』1951-10; 李龍潛, 「明正統年間廣東黃自養的起義」, 『理論與實踐』1959-11; 鄭鎮峰, 「明正統年間“三征麓川”之役」, 『歷史教學』1963-8; 萬泳延, 「明代麓川治理問題研究」, 中央民族大學博士學位論文, 2013.

하게 연관되었다. 정통연간에 葉宗留와 鄧茂七의 반란, 성화연간에 劉通·李原의 반란이 일어나고, 정덕연간에는 劉六·楊虎의 반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정통연간 농민반란은 주로 절강 處州를 중심으로 葉宗留, 陶得二 등이 주동하여 贛, 閩 지방뿐만 아니라 복건, 절강, 강서 등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들 반란군은 관군을 공격하고, 城邑을 공략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와 잠적하는 등 지방통치에 큰 충격을 주었다. 명 건국이후 80여 년이 지난 뒤 황제의 통치에 저항하는 조직적인 투쟁의 성격이 있었다.³³⁾

섭종유는 慶元의 빈한한 집안 출신으로 流民을 모아 산에 들어가 採鑛하였다. 명은 국가에서 공적으로 운영하는 은광이외 사사로운 채광을 금지하였다. 1442년(정통 7) 浙閩山區에서 採銀하던 섭종유는 관리를 살해하는 사건을 일으키고, 1444년(정통 9) 7월에 경원에서 礦工을 선동하였다. 다음 해 12월에 섭종유는 은산의 채광을 청원하나 허가받지 못하자 본격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명 조정에서 은광개발에 집중하고, 납은량을 증가시키자 광공들의 불만이 높았기 때문에 섭종유의 반란군은 수천명으로 늘어나고, 1448년(정통 13) 정월에 建陽을 점령하자 많은 농민이 참가하여 반란군은 만명으로 늘어났다.

섭종유는 복건에서 반란을 일으킨 등무칠과 연계하여 공동작전으로 두 길로 진공했다. 은광의 礦徒를 중심으로 한 유민폭동이었던 섭종유의 반란에 영향을 받아 복건에서 佃戶를 중심으로 한 등무칠의 농민반란이 일어나 호응하자 정통제의 명은 큰 혼란에 빠졌다. 기존에 군사분쟁은 주로 서북쪽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체계화된 농민반란이 동남지방에서 일어난 점에 대해 명은 충격을 받게 되었다.

섭종유와 등무칠의 반란군은 한편으로 명의 주요 은광채굴지였던 복건의 浦城을 공격하고, 한 부대는 車盤嶺을 공격했다. 사태가 위급해지자 정통제는 右僉都御史 張楷를 파견하였지만, 반란에 대한

33) 陈玉彬, 「明朝中期(1442年-1450年)的处州农民起义」, 『丽水师专学报』1982-1, 71쪽.

소탕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448년(정통 13) 11월에 정통제는 寧陽侯陳懋, 保定伯 梁瑤, 平江伯 陳豫, 都督僉事 范雄, 董興, 刑部尙書 金濂 등으로 하여금 在京의 神機五軍 및 浙江都司와 江西都司의 군대를 통솔하여 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태감 吉祥·王瑾을 提督으로 임명하여 神機營의 銃砲를 동원하여 반란을 소탕하도록 했다.³⁴⁾ 증원군의 투입으로 겨우 섭중유의 반란은 진압되었다.³⁵⁾ 섭중유의 반란은 다른 반란과 달리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등무철의 반란군과 연계된 점에서 반란의 성격이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시대문제에 의해 발생하고, 동일한 문제로 발생한 다른 반란과 연계될 수 있다는 중대성을 잘 보여준다.³⁶⁾

이와 같이 조선 세종대의 대륙정세는 격동의 연속이었다. 마시를 매개로 한 몽골과 명의 충돌과 갈등, 명의 확장적 대외정책에서 소극적 변방방어로의 전환, 명의 환관정치로 인한 반란의 빈발, 명 변방 군대의 이탈과 몽골의 침입, 몽골 내부 타타르와 오이라트의 세력다툼, 오이라트에 의한 세력 확장으로 남하하는 여진족, 왜구의 준동과 명의 해금정책, 여진족에 대한 조선과 명의 대단위 정벌전쟁, 전대미문의 토목보의 변과 명의 군사정책 변화 등 군사·정치·경제적 충격이 조선에 전해지자 조선은 외교·군사에 큰 변화를 경험했다.

조선 세종대 강력한 왜구근절의 의지는 대마도 정벌로 나타났다. 대마도정벌은 조선의 전쟁인식을 잘 보여주는데, 최소한의 전쟁 수요를 통해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고 전쟁관련 체제를 평시체제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즉, 여말선초 최대의 외부로부터 군사적 위협이었던 왜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규모 정벌을 단행할 정도로 전쟁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때의 전쟁도 최소한 기간과 전쟁동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다. 이는 대규모 정벌군의 편성에서 대마도의 투항의사를 받고 바로 회군하여 해산한 점에서

34) 『명영종실록』 권172, 정통 13년 11월 병술.

35) 李龍潛, 「明正統年間叶宗留鄧茂七起義的經過及特點」, 『歷史教學』1957-3, 11쪽.

36) 于貴信, 「關於葉宗留鄧茂七起義的幾個問題」, 『史學集刊』1956-1, 60~61쪽.

확인할 수 있다.

국제정세의 변화는 핵심적으로 명의 통제력 약화로 인한 몽골세력의 흥기와 여진족의 남하로 정리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륙정세는 명의 소극적인 대외정책 결과로 몽골의 흥기가 결국 토목보의 변이란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되었으며, 명은 건국이후 처음으로 수도 북경이 포위되는 위기를 맞았다. 직접적으로 토목보의 변은 조선에 전달되었으며, 조선은 몽골군의 조선 침입을 염려하여 방어력을 강화했다.

몽골의 흥기는 이미 요동지역에서 몽골의 남하, 여진족의 조선국 경유역 유입으로 나타났다. 조선시대 조·여진관계에서 발생하는 전쟁은 기존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다.³⁷⁾ 세종대 여진정벌은 북방개척이란 명분으로 진행되었지만, 적극적인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정벌이 아닌 국경의 안정을 위한 수성목적의 토벌이었다. 조선은 건국 이후 북방으로 침입하는 외부세력은 중원의 명은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여진족, 몽골 등을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몽골이 조선에 침입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했지만, 토목보의 변은 몽골침입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북방의 여진족이 실제 침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문제는 조선이 인식한 여진족은 조선의 국방을 위협하는 존재

37) 강성문, 「朝鮮시대 女眞征伐에 관한 연구」, 『軍史』18,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989; 정해은, 『한국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민덕기, 「임진왜란기 조선의 북방 여진족에 대한 위기의식과 대응책-‘南倭北虜’란 측면에서」, 『한일관계사연구』34, 2009; 김구진, 「조선시대 女眞에 대한 정책」, 『白山學報』88, 2010; 한성주, 『조선전기 수직여진인 연구』, 경인문화사, 2011, 156쪽; 정다함, 「征伐이라는 戰爭/征伐이라는 祭祀-世宗代己亥年“東征”과 婆猪江“野人征伐”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52, 2013; 정해은, 「16세기 동아시아 속의 조선과 <國朝征討錄>의 편찬」, 『장서각』29, 2013; 장정수, 「선조대 對女眞 방어전략의 변화 과정과 의미」, 『조선시대사학보』67, 2013; 「16세기 말~17세기 초 朝鮮과 建州女眞의 배후 교섭과 申忠一의 역할」, 『한국인물사연구』25, 2016; 「선조대 말 여진 변호 로툰(老土)의 건주여진 귀부와 조선의 대응」, 『조선시대사학보』78, 2016; 한성주, 『조선시대 변호 연구』, 경인문화사, 2018.

라기 보다는 변방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부족 정도로 인식했다. 이는 우호적인 여진족을 藩籬, 藩湖로 삼아 보다 북방의 여진족과의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완충세력으로 삼았던 점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변방의 소요 정도가 높으면 조선이 토벌을 통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인식한 점에서도 확인된다. 세종~성종대까지 조선과 여진과의 군사충돌 및 조선의 대여진정책은 강력한 해외원정의 개념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조선이 최대한 전쟁을 억제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한 토벌개념의 전쟁이라 할 것이다.

조선전기의 중간시기였던 명 중기 명은 환관정치에 폐단이 노출되고, 황제의 혼탁함이 겹쳐지면서 내부적으로 통치질서가 문란해졌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착취에 시달리던 하층민의 반란이 전국적인 규모로 일어나 군사적 위기를 초래했다. 이를 수습하지 못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대외 교역을 통해 무마하던 몽골에 대한 통제가 부재하자 토목보의 변과 같은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다. 명은 토목보의 변 이후 군사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불안하지만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통제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조선의 입장에서 북쪽의 여진족이 몽골의 영향력으로 남하하면서 변방을 침입하였지만, 여진정벌을 통해 제압할 수 있었다. 반면에 명의 해금정책으로 해역에서 활동하는 일본과 왜구에 대한 통제력이 부재하자 조선 연안에 삼포왜란과 같은 지역단위 전쟁이 벌어졌다. 조선은 명 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조명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며, 여진정벌과 회유, 삼포왜란의 진압 등으로 전쟁을 억제하였다.

4. 명 중심 국제질서의 해체와 임진전쟁

동아시아 국제정세는 명과 주변국의 관계에 의해 상호 유기적으

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되었다. 홍무제는 복원을 비롯한 주변 세력에 대한 명의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군사충돌 및 회유 정책을 펼쳤으며, 그 결과 계서적인 명 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국제정세는 나름 안정화되었다. 홍무, 영락연간이 경과한 뒤 명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몽골, 여진, 일본 등의 흥기에 따른 급격한 정세변화는 극단적인 형태로 대규모 전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정덕, 가정, 만력으로 이어지는 명말에 명 중심 국제질서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이었으며, 명의 국제정세에 대한 통제력은 무력함을 노출했다.

명 중심 국제질서가 역할론을 수행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은 명 후기에 접어들면서였다. 명 무종의 폭정을 극복하고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재확립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한 몸에 부여받고 즉위한 명 嘉靖帝는 부분적인 정덕연간의 폐단을 개선하는 수준에서 개혁을 진행하였다. 이후 명대 최대 예제문제였던 大禮儀사건을 일으켜 지식인관료집단의 실망을 초래하였다.

가정연간 국제정세는 명의 국제질서에 대한 영향력이 무너지고, 다양한 세력들이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충돌하였다. 알탄칸(俺答汗)이 몽골세력을 통합하여 명을 정치·군사·경제적으로 압박하자 명이 군사력을 서북쪽에 집중하였음에도 국제분쟁이 지속되었다. 명 가정연간이었던 1550년 몽골 투모터(土默特, Tūmòtè)부락의 알탄칸(阿勒坦汗, Altan Khan)이 명에서 신하를 칭하고 조공할 것을 요구하며, 통상교역을 거절하자 이에 반발하여 10만 병력으로 명조를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북경을 포위하여 가정제가 급하게 근왕을 변진에 요구할 정도로 위기상황을 초래한 몽골의 침입을 “庚戌之變”, “庚戌虜變”, “庚戌之亂” 등으로 부른다.³⁸⁾ 경술의 변은 명조

38) 许宏芝, 「土木之变与庚戌之变实质初探」, 『雁北师范学院学报』2003-4; 刘能成, 「“土木之变”前明朝北方边防考略」, 『贵阳金筑大学学报』2005-1. 1550년 6월, 몽골 알탄 칸이 대동을 공격하자 대동총병 仇鸞은 몽골군의 진격방향을 북쪽으로 유도했다. 몽골군은 고북구를 통과하여 북경성을 포위하고 주변을 약탈했다. 당시 4만 명의 경군이 존재했지만, 노약자의 비중이 높은 등 전투력이 현저하게 낮아 수성이 어려웠다. 이에 가정제는 긴급하게 藩鎮에 勤王의 조서를 내렸다. 6월말

의 부패한 통치와 지배층의 무능을 노출한 군사상황으로 국제정세에 명의 군사적 통제력이 부재함을 잘 보여준다.

토목보의 변을 경험한 명은 京軍을 강화하여 일정하게 군사력을 강화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홍치, 정덕연간을 경과하면서 군사력은 또다시 급격하게 저하되었다.³⁹⁾ 특히, 명대 군제의 핵심편제였던 衛所의 군대가 점차 軍戶에서 民戶로 전환되면서 군사적 기능을 유지하지 못했다.⁴⁰⁾ 군사력 저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국가재정의 고갈로 인한 군직을 매관하는 경향이였다. 가정제의 치세 중반기였던 이 시기 명은 과도한 토목공사와 재정낭비로 捐納이 성행하여 군직을 매관하여 재정을 보충하고, 군비를 조달하였다.⁴¹⁾

경술의 변으로 국가위기를 맞이한 명은 군사체제의 핵심사항으로 북경방어를 강화한 방어체계를 갖추었다. 중앙의 12團營을 3大營으로 고치고, 戎政府로 삼는다.⁴²⁾ 또한, 북경의 방어시설로 외성을 보수하고,⁴³⁾ 薊遼總督을 두어 薊州·保定·遼東 3진을 통할하도록

大同·保定·延綏·河間·宣府·山西·遼陽 등 변진의 군대가 북경에 5만 명이 상 집결했지만, 군량조달 등의 문제로 여전히 전투력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몽골군을 몰아내지 못했다. 무엇보다 수보였던 嚴嵩의 소극적인 대응과 협상수용 주장이 제기되어 명군의 군사활동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배상금, 통공무역 허용 등 알찬 간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여 몽골군이 포위를 해제하고 물러나면서 상황은 종료되었다.

39) 孟修, 「土木之变新论」, 『黑龙江教育学院学报』2009-7; 连少亮, 「论明代顺天府民兵的组织与职能」, 『首都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0.

40) 杨晨宇, 「明中后期的卫所“民化”」, 『三峡论坛(三峡文学, 理论版)』2014-1. 세부적으로 명 전기 주요 군사제도였던 위소가 명 중후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군사력이 저하되었는데, 營兵制, 募兵制가 확대된 측면이 주요 원인이었다. 또한, 위소의 내부기능에 있어 토지, 인구 등이 점차 민간사회에 의해 운영되면서 위소 전반의 분위기도 民化되었다.

41) 서인범, 「명 중기 捐納入監에 대하여」, 『역사학보』185, 2005; 「명대 嘉靖年間の 재정조달과 연납제」, 『명청사연구』35, 2011; 「明天啓年間の 陵工과 殿工 재원조달」, 『동양사학연구』125, 2013; 「명 말 崇禎年間の 재정과 군비 조달: 加派와 捐納 등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44, 2015; 「明 萬曆年間の 재정 위기와 捐納 시행」, 『역사학보』230, 2016. 연납제와 명말 재정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서인범의 연구가 참고된다.

42) 『명세종실록』권389, 가정 31년 9월 21일(경자).

43) 『명세종실록』권496, 가정 40년 5월 23일(임오).

함으로써⁴⁴⁾ 이후 임진전쟁까지 명 최대 군사지휘권이 주어졌다.⁴⁵⁾ 일례로 兵部右侍郎이었던 宋應昌은 1592년 8월 18일에 欽差經略遼薊保定山東等處防海禦倭軍務兵部右侍郎으로 임명되었는데, 이때 保定, 薊州, 遼東, 산둥 등지에 주둔하며, 일본을 방어하는 事宜를 경략하도록 명을 받았다.⁴⁶⁾ 뿐만 아니라 산둥·산서·하남의 병력을 계절별로 북경에 집결시켜 북경방어를 강화했다. 이러한 북경방어 중심의 군사력 운용은 상대적으로 변방 및 남방의 군사충돌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명초 영락연간의 적극적인 원정을 통한 군사정책과 달리 이후 명은 명 제국의 영역을 방어하는 성격으로 전환되면서 요동에 長城을 구축했다. 이후 명의 요동정책은 요동의 방어선을 중심으로 소극적인 대외군사정책으로 일관했다. 이 상황에서 북쪽의 몽골, 한반도 북쪽의 여진족의 세력확장이 있었다. 경술의 변이후 명은 보다 강화된 방어정책의 일환으로 장성을 축성하였다. 이때 동쪽의 산해관에서 서쪽의 산서 황하변까지 장성을 축조하고 9번 변진체제를 완성했다.

장대한 길이의 명대 장성을 구축한 명은 河套戰爭이후 陝西三邊總督을, 北京東部防禦의 薊遼保定總督을, 京師西部防禦의 宣大山西三邊總督을 九邊長城總督으로 운영했다.⁴⁷⁾ 뿐만 아니라 명은 왜구토벌에 큰 전공을 세운 복건총독 戚繼光을 계진총독으로 임명하여 북방세력에 대한 대응에 투입하고, 양광총독 譚綸과 같은 군사지휘관을 통해 방어력 강화에 치중했다.

44) 『명세종실록』권370, 가정 30년 2월 7일(을축). 1551년 巡按直隸御史 趙紳이 건의하여 居庸關, 黃花鎮이 북경으로 들어오는 요충지이므로 별도로 都御史를 두어 방어를 강화하고, 渤海에서 황화진, 거용관에 이르기까지 防守를 위해 參將 2명을 두어 통솔하되 薊遼總督이 이를 통괄하도록 했다.

45) 경술의 변이후 북경방어를 위한 계주, 보정, 요동의 일원적인 통솔체계는 지속되어 임진전쟁시 파견되는 명군의 최고지휘관인 경략의 경우, 송응장이 欽差經略 遼薊保定山東等處防海禦倭軍務兵部右侍郎이란 직명을 받은 점에서 확인된다.

46) 『明神宗實錄』卷251, 萬曆 20年 8月 18日(乙巳).

47) 趙現海, 『明代九邊長城軍鎮史』, 中國社會科學院青年學者文庫 歷史考古研究系列, 2012.

이와 같은 명의 방어적 군사정책은 몽골, 여진족 등 주변 세력의 확장을 가져왔으며, 몽골은 지속적으로 서북쪽에서 교역과 군사충돌을 거듭하고, 여진족은 요동 동쪽에서 자체적인 세력확대 및 통합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북부까지 세력을 확대한 여진족은 조선의 변경을 침입하여 조선과 충돌했다.

한편, 가정연간에 절정을 이루었던 왜구의 준동은 국제정세에 대한 명의 통제력 부재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왜구는 국제정세와 연동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14세기 몽골제국의 동요와 붕괴로 일본에 대한 통제가 부재하자 왜구가 동아시아 사회에 출몰하여 세력을 확장했다는 견해이다.⁴⁸⁾ 명 중심 국제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던 명은 홍무·영락연간에 적극적으로 대일정책을 펼쳐 왜구의 준동을 방지하고자 했다. 그 결과로 영락이후 왜구의 준동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명말에 해당되는 정덕연간에 들어서면서 왜구는 조선뿐만 아니라 명 동남 해안에 출몰하여 심지어 내륙깊이 세력을 확장하기도 했다.⁴⁹⁾

왜구는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해역이란 공간을 통해 동아시아 각국의 정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해상세력이었다.⁵⁰⁾ 가정연간에 최고조에 달한 왜구의 침입에 대해 명은 물론 적극적인 대응을 취했지만, 몽골과 같은 북방의 침입과 달리 지역단위 준동으로 인식하고 국가적인 대응보다 지역병력을 동원한 대응으로 임했다.⁵¹⁾ 이는 왜구의 침입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주요 군사지휘관과 병력을 북방으로 이동시킨 점에서 확인되며,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통

48) 이영, 「전환기의 동아시아 사회와 왜구 - 경인년 이후의 왜구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123, 2003;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왜구」, 『한일관계사연구』36, 2010.

49) 윤성익, 「정통연간의 왜구와 대마도 - 왜구 발생구조에 대한 일고찰」, 『한일관계사연구』43, 2012.

50) 윤성익, 『명대 왜구의 연구』, 경인문화사, 2007.

51) 최준식, 「홍무-가정 연간 명-일본의 해상무역과 왜구의 활동 - 동아시아해역에서 왜구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복현사림』32, 2014.

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임진전쟁의 발발이란 결과를 초래했다.

일반적으로 16세기 명의 국제정세를 북로남왜라 분석하는데, 이 때 북로의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경술지변이었다. 명은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토목보의 변 이후 또 다시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에 손상을 입고 국제정세에 직접적인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⁵²⁾ 그 결과로 지속적으로 침입과 수비를 거듭한 몽골과의 전쟁상황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동쪽 요동지역에서 점차 성장하는 만주족의 흥기에 대해 속수무책이었다. 여진족의 한 족속이었던 니탕개의 조선침입을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며, 이후 여진족을 통합한 누르하치가 만주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七大恨을 명분으로 대명전쟁을 일으켜 명 청교체의 격랑으로 국제정세가 흐르게 된다.⁵³⁾

한편, 조선은 건국이후 지속적으로 북방지역에 대한 통제에 전념했다. 대륙의 정세변화에 따라 여진족이 유동적으로 움직임을 보이면 이에 대한 征伐과 같은 군사대응과 회유를 비롯한 유화적인 대응을 거듭했다. 세종대 4군 6진을 개척함으로써 여진족을 藩籬와 藩湖로 포용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두만강과 압록강의 변방을 지키고자 했다. 특히, 두만강 유역의 6진에 藩籬를 구축함으로써 조선과 여진 사이에 평화지역을 만들었다.⁵⁴⁾ 조선 중기에 이르러 藩籬를 조선에서 藩湖로 부르면서 조선의 변방을 방어하고 안정화시키는 지역으로 인식하였으며, 여진족은 조선의 경제적 우대와 같은 적극적인 정책과 농경화를 통한 부락의 집중화가 진행되면서 발전하기도 했다.⁵⁵⁾

태조대에서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북방 변호는 조선과 여진족의 관계사 측면에서 어느 정도 역사가 밝혀져 있지만, 16세기 변호는

52) 张真源, 「嘉靖隆庆时期明蒙关系研究」, 黑龙江大学硕士学位论文, 2012.

53) 滕绍箴, 「试论明与后金战争的原因及其性质」, 『民族研究』1980-5; 哈恩忠, 霍华, 「后金“告天七大恨”榜文」, 『历史档案』2012-2.

54) 한성주, 『조선시대 변호 연구』, 경인문화사, 2018, 46~63쪽.

55) 한성주, 위 책, 경인문화사, 2018, 85~111쪽.

분명 조선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충돌과 화해가 거듭되었을 것임에도 현재 학계에서 니탕개의 난 이전까지 별다른 연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15세기 연구도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라는 큰 관점보다는 조선과 여진족의 관계라는 제한된 관점에 집중되어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 16세기의 경우, 물론 사료의 부족이 큰 원인일 수 있지만, 역사연구가 주요 사건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향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크게 부각되는 사건이 니탕개의 난, 누르하치의 흥기, 후금의 건국, 명·후금의 전쟁 등에 제한되어 정작 7~80년의 시간은 건너뛰어 세조·성종대 여진정벌에서 100여 년을 뛰어 니탕개의 난으로 이어진다.

과연 이 시간동안 조선은 군사적으로 국제정세 및 여진족과 문제가 없었을까? 분명 그렇지 않을 것이다. 먼저 명은 正統연간에서 正德연간에 이르기까지 昏君이 연이어 등장하여 宦官이 정치를 장악하여 환관정치가 절정에 이르렀으며, 백성들에 대한 관료사회의 탐학도 심했다. 이처럼 정치적 혼탁과 경제적으로 토지집중이 심화되고, 대규모 유민이 발생하여 사회체계가 더욱 혼란해졌다. 그 결과로 농민과 특정 계층의 반란이 일어났다.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중심국가인 명 국내의 통치질서가 붕괴되면서 대외적으로 정치, 외교, 군사적 영향력이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명의 구심력이 약화되면서 주변 영역의 원심력이 강화되어 몽골, 여진, 일본 등의 독자적인 발전이 이어졌다. 먼저 요동과 만주 지역을 살펴보면, 遼東邊疆을 중심으로 명의 영향력이 후퇴하면서 여진족은 점진적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다. 16세기 중후반 海西女眞의 哈達(Hada), 輝發(Hoifa), 烏拉(Ula), 葉赫(Yehe) 등과 建洲女眞의 湄都里(Odoli) 등 5개의 강력한 부족이 등장했다.⁵⁶⁾ 이들 부족들은 결국 건주여진을 통합한 누르하치와 해서여진을 대표하는 부잔타이(布占泰)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56) 서병국, 『선조시대 여진교섭사 연구』, 교문사, 1970.

두만강 유역에 인접한 부잔타이는 조선의 藩胡를 조선에서 이탈 시키고자 하여 조선과 충돌했다. 그 일환으로 조선의 기존 여진족과의 전쟁에 대한 인식을 크게 변화시키는 변란이 1583년 1월부터 7월까지 일어났다. 이른바 "니탕개의 난"이다. 수백 내지 수천 명의 침범병력을 뛰어넘어 최대 3만 명의 병력이 동원되면서 조선은 국방의 국지전 수준을 넘어 조선의 총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였다.⁵⁷⁾ 이이의 병제개편을 불러올 정도로 니탕개의 난은 조선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니탕개의 난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여진족과의 전쟁은 대규모 전쟁이 아닌 변란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은 후금의 침입으로 인한 정묘호란, 청의 침입으로 인한 병자호란에 대응하였던 조선의 인식과 전쟁준비를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여진족과의 전쟁을 변란으로 인식하였듯이 왜구의 침입으로 인식한 일본과의 전쟁은 여전히 지속되어 임진전쟁의 준비 역시 동일하게 분석할 수 있다. 임진전쟁의 경우, 조선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크게 주목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미 명은 만력연간에 명 중심 국제질서의 중심국으로서 통제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주변국뿐만 아니라 국경지역에서 발생하는 군사충돌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흔히 萬曆三大征이라 불리는 임진전쟁은 명의 입장에서 파병이 불가능하지만 명 중심 국제질서의 황제국이 행해야 하는 역할론으로 인해 파병한 것이다.⁵⁸⁾

16세기의 명은 명 중심 국제질서의 중재자이자 중심국가로서의

57) 송우혜, 「조선 선조조의 니탕개란 연구」, 『역사비평』72, 2005; 민덕기, 「임진왜란 직전 조선의 국방 인식과 대응에 대한 재검토 : 동북방 여진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57, 2010; 윤호량, 「선조 16년(1583) '尼湯介의 亂'과 조선의 대응」, 『군사』82, 2012; 민덕기, 「이율곡의 십만양병설은 임진왜란용이 될 수 없다 : 동북방의 여진 정세와 관련하여」, 『한일관계사연구』41, 2012; 박정민, 「임진왜란과 여진인 '來朝'의 종언」, 『만주연구』18, 2014; 한성주, 「임진왜란 전후 女眞 藩胡의 朝鮮 침구 양상과 조선의 대응 분석」, 『동양사학연구』132, 2015; 金世容, 「宣祖朝 尼湯介亂 研究」, 成均館大博士學位論文, 2016.

58) 김경록, 「명대 監軍제도와 임진왜란시 파병 明軍의 監軍」, 『동양사학연구』137, 2016; 「정유재란기 파병 명군의 구성과 조명연합군」, 『한일관계사연구』57, 2017.

역할을 수행하기에 통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었다. 이는 내부적인 통치질서의 이완, 대외적인 몽골, 왜구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실패에 기인하며, 명은 적극적인 대외 군사정책보다 장성을 구축하고, 북경방어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극적인 군사정책을 펼쳤다. 명의 통제력 밖에 존재하였던 몽골, 여진족의 세력확장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만주족에 의한 후금의 건국과 명청전쟁으로 이어졌다. 또한, 왜구에 대한 방어적인 군사정책은 전통적인 해금정책과 연결되었으며, 일본에 대한 통제력 부재를 반영했다. 내부적으로 전국시대를 종식하고, 통일을 달성한 일본에 의한 임진전쟁 발발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국제정세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된 명 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조명관계에 중점을 둔 조선은 선조대 북쪽으로 니탕개의 난, 남쪽으로 임진전쟁이란 전쟁을 경험하면서 광해군대 국제정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5. 맺음말

이상과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국가가 직면하는 전쟁은 해당 침략국과 자국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받아 발생한다. 특히 국제정세는 해당 시기의 국제질서를 운영하는 중심국가의 통제력 여부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조선의 경우,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명나라,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청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통제력 정도에 의해 주변국과 군사충돌 및 평화를 공유했다. 조선전기 동아시아 국제정세는 원 중심 국제질서가 붕괴되고 명 중심 국제질서가 성립되어 명의 국제사회에 대한 통제력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다원적인 국제질서하에서 격랑의 시대에 고려는 국운을 좌우할 전

쟁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고려의 역량을 총동원하면서도 국제정세 변화를 활용하여 전략적 외교관계를 맺어 대응했다. 요, 금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송이란 대안을 활용하였지만, 대륙에서 절대 강국이 등장하여 원 중심 국제질서가 성립되면 이에 편입되어 여원관계를 맺었다. 이와는 달리 조선은 건국이후 명 중심 국제질서를 중시하여 외교, 군사적 대안을 무시하였다. 물론 이는 조선이 현실적으로 북방에서 침입하는 외부세력을 여진족으로 한정하는 이점이 있었고, 조선은 북방의 전쟁대상으로 조선의 통제가 가능한 여진족을 상대하였기에 대외정벌 보다 국경안정의 관점에서 토벌을 필요시 시행했다.

조선전기 명 중심 국제질서는 원명교체기에서 15세기 중엽까지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15세기 중엽이후 몽골의 침입으로 인한 토목보의 변으로 대변되는 군사적 무능력을 노출하면서 국제정세에 미치는 통제력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체적인 군사개혁을 비롯한 혁신의 노력으로 여전히 명 중심 국제질서를 유지하며 황제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했다. 이 시기에 조선은 몽골의 흥기에 따른 여진족의 남하와 변방침입을 경험하고 회유와 정벌의 대응을 시행했다.


16세기에 접어들면서 명의 내부적 통치질서의 문란, 군사력 저하는 명 중심 국제질서의 해체과정으로 이끌었다. 명은 경술의 변을 경험하고 더욱 몽골침입에 대비하여 북경방어체제를 강화하고, 장성을 통한 소극적인 군사정책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명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지역의 세력은 확장을 거듭하여 명 중심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왜구는 동북아 정세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조선과 명 연안을 침범했으며, 조선은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공동의 적으로 왜구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시행하여 대마도정벌을 단행했다. 대마도정벌이후 일정하게 왜구의 침범이 줄어들었지만, 대외적으로 조선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어려웠던 일본은 삼포의 개방이후에도 이익관계에 따라

삼포왜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속적인 왜구와 왜관을 중심으로 한 일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군사충돌은 조선이 일본을 군사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남겼으며, 이는 임진전쟁에 대한 조선의 소홀한 준비를 가져왔다.

북방 여진족의 움직임은 조여진관계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동북아 국제정세를 간과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니탕개의 난을 경험하면서 조선은 여진에 대한 군사대응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군사체제와 군역제도를 가져왔지만, 건국이후 지속적으로 여진관계를 군사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이 남아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큰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다.

(원고투고일 : 2019. 1. 11, 심사수정일 : 2019. 2. 1, 게재확정일 : 2019. 2. 15)



주제어 : 국제정세, 전쟁, 조선전기, 명청교체, 명 중심 국제질서, 여진정벌, 대마도정벌, 삼포왜란, 니탕개난, 임진전쟁, 병자호란

〈참 고 문 헌〉

사료

『조선태조실록』, 『조선정종실록』, 『조선태종실록』, 『조선세종실록』, 『조선세조실록』, 『조선중종실록』, 『조선명종실록』, 『조선선조실록』, 『조선연산군일기』, 『조선인조실록』, 『명태조실록』, 『명태종실록』, 『명선종실록』, 『명세종실록』, 『명영종실록』, 『二十二史劄記』

단행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왜란사』, 1987.
 서병국, 『선조시대 여진교섭사 연구』, 교문사, 1970.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7, 육군본부, 2012.
 이형석, 『임진전란사』(상·중·하),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6.
 정두희, 이경순 엮음,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정해은, 『한국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최영희 외, 『임진왜란의 재조명』, 군사편찬위원회, 1992.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한성주, 『조선시대 변호 연구』, 경인문화사, 2018.
 한성주, 『조선전기 수직여진인 연구』, 경인문화사, 2011.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연구논문

강성문, 「朝鮮시대 女眞征伐에 관한 연구」, 『軍史』18,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989.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 『역사와 현실』64, 2007. UCI:G704-000054.2007..64.009
 김경록, 「명대 監軍제도와 임진왜란시 파병 明軍의 監軍」, 『동양사학연구』 137, 2016, DOI:10.17856/jahs.2016.12.137.51
 김경록, 「명대 공문제도와 행이체계」, 『명청사연구』26, 2006, DOI:10.31329/JMHS.2006.10.26.123
 김경록, 「명대 驛傳제도와 한중관계에서 符驗의 의미 - 홍무연간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49, 2018. DOI:10.31329/JMHS.2018.04.49.1

- 김경록, 「명초 홍무제의 국가통치 구상과 대명물」, 『법사학연구』53, 2016, UCI:G704-001302,2016..53,002
- 김경록, 「명초 홍무제의 군사인식과 군사정책」, 『군사』99, 2016, UCI:G704-001528,2016..99,005
- 김경록, 「명초 홍무제의 종교정책과 통치구상」, 『명청사연구』46, 2016, DOI:10.31329/JMHS.2016.10.46.171
- 김경록, 「여말선초 홍무제의 고려·조선 인식과 외교관계」, 『명청사연구』35, 2011, DOI:10.31329/JMHS,2011.04.35.1
- 김경록, 「정유재란기 파병 명군의 구성과 조명연합군」, 『한일관계사연구』57, 2017, DOI:10.18496/kjhr.2017.08.57.123
- 김경록, 「조선시대 국제질서와 해양정책」, 『명청사연구』48, 2017, DOI:10.31329/JMHS.2017.10.48.185
- 김경록, 「조선초기 국제정세와 국방정책」, 『군사연구』146, 2018
- 김경록, 「조선초기 군인승환문제와 조명간 군사외교」, 『군사』83, 2012, UCI:G704-001528,2012..83,006
- 김경록, 「조선초기 귀화정책과 조명관계」, 『역사와 현실』83, 2012, UCI:G704-000054,2012..83,003
- 김경록, 「홍무연간 명의 봉전 정비와 조명관계」, 『중국사연구』106, 2017, UCI:G704-000580,2017..106,007
- 김경록, 「홍무제의 대외인식과 조공제도의 정비」, 『명청사연구』37, 2012, DOI:10.31329/JMHS.2012.04.37.1
- 김구진, 「조선시대 女眞에 대한 정책」, 『白山學報』88, 2010.
- 김세용, 「宣祖朝 尼湯介亂 研究」, 成均館大博士學位論文, 2016.
- 김영진, 「전통 동아시아 국제질서 개념으로서 조공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38, 2016, DOI:10.18206/kapdh,38.1,201608,249
- 金正義, 「홍건적의 침입에 관한 고찰」, 『군사』17, 1988.
- 민덕기, 「아울곡의 십만양병설은 임진왜란용이 될 수 없다 : 동북방의 여진 정세와 관련하여」, 『한일관계사연구』41, 2012, UCI:G704-001395,2012..41,006
- 민덕기, 「임진왜란 직전 조선의 국방 인식과 대응에 대한 재검토 : 동북방 여진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57, 2010, UCI : G704-001545,2010..57,001

- 민덕기, 「임진왜란기 조선의 북방 여진족에 대한 위기의식과 대응책-‘南倭北虜’란 측면에서, 『한일관계사연구』34, 2009. UCI:G704-001395.2009..34.002
- 閔賢九, 「高麗 恭愍王代 중엽의 정치적 변동, 『진단학보』107, 2009. UCI:G704-000336.2009..107.006
- 박정민, 「임진왜란과 여진인 ‘來朝’의 종언, 『만주연구』18, 2014. UCI:G704-SER000010200.2014..18.002
- 박진훈, 「고려 후기 흥건적의 침입과 安祐의 군사활동, 『사학연구』130, 2018. DOI:10.31218/TRKH.2018.06.130.97
- 송우혜, 「조선 선조조의 니탕개란 연구, 『역사비평』72, 2005. UCI:G704-000293.2005..72.003
- 윤영인, 「전근대 동아시아 천하체제와 조공체제, 『동양문화연구』29, 2018.
- 윤호량, 「선조 16년(1583) ‘尼湯介’의 亂과 조선의 대응, 『군사』82, 2012. DOI:10.29212/mh.2012..82.41
- 이경희, 「고려말 흥건적의 침입과 안동입시수도의 대응, 『역사와경계』24, 1993
- 이여,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왜구, 『한일관계사연구』36, 2010. UCI:G704-001395.2010..36.006
- 이영, 「전환기의 동아시아 사회와 왜구 - 경인년 이후의 왜구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123, 2003. UCI:G704-000361.2003..123.010
- 이익주, 「14세기 후반 고려-원 관계의 연구, 『동북아역사논총』53, 2016. UCI:G704-002002.2016..53.016
- 이정란, 「1361년 흥건적의 침입과 공민왕의 충청지역 피난정치, 『지방사와 지방문화』21-1, 2018.
- 임상훈, 「흥무제, 명대 환관 외교의 창시자 - 흥무제의 환관 억제와 그 실체, 『동양사학연구』129, 2014. UCI:G704-000250.2014..129.008
- 장정수, 「16세기 말~17세기 초 朝鮮과 建州女眞의 배후 교섭과 申忠一의 역할, 『한국인물사연구』25, 2016. UCI:G704-002031.2016..25.004
- 장정수, 「선조대 對女眞 방어전략의 변화 과정과 의미, 『조선시대사학보』67, 2013. UCI:G704-000303.2013..67.004
- 장정수, 「선조대 말 여진 변호 로툰(老土)의 건주여진 귀부와 조선의 대응, 『조선시대사학보』78, 2016. UCI:G704-000303.2016..78.001

- 전순동, 「명조 전기 환관 세력의 추이와 기능」, 『중국사연구』61, 2009. UCI:G704-000580.2009..61.010
- 정다함, 「征伐이라는 戰爭/征伐이라는 祭祀—世宗代己亥年“東征”과 婆嚮工“野人征伐”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52, 2013. UCI:G704-000690.2013..52.006
- 정해은, 「16세기 동아시아 속의 조선과 〈國朝征討錄〉의 편찬」, 『장서각』29, 2013. UCI:G704-001808.2013..29.005
- 최희재, 「중화제국질서를 둘러싼 논의의 확산과 수렴 -조공체제론과 다중체제설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65, 2018
- 한성주, 「임진왜란 전후 女眞 藩胡의 朝鮮 침구 양상과 조선의 대응 분석」, 『동양사학연구』132, 2015. DOI:10.17856/jahs.2015.09.132.101
- 홍영의, 「이방실 장군의 생애와 군사활동」, 『군사』103, 2017. DOI:10.29212/mh.2017..103.279

해외연구논저

- Fairbank, J. K. "A Preliminary Framework." Fairbank(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Walker, Hugh D. "The Yi-Ming Rapprochement: Sino-Korean Foreign Relations, 1392-1592" Ph.D.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71
- 高橋公明, 「朝鮮外交秩序と東アジア海域の交流」, 『歴史學研究』573, 1987
- 南快莫德格, 「论瓦剌蒙古与西域社會」, 『中国民族学类核心期刊』2005-2
- 董玉瑛, 「明正統末景泰初女眞的動亂」, 『史學集刊』1983-4
- 滕紹箴, 「试论明与后金战争的原因及其性质」, 『民族研究』1980-5
- 李龙潜, 「明正統年間广东黄肖养的起义」, 『理论与实践』1959-11
- 李龙潜, 「明正統年間叶宗留邓茂七起义的经过及特点」, 『历史教学』1957-3
- 万泳延, 「明代麓川治理问题研究」, 中央民族大学博士学位论文, 2013
- 濱下武志, 『近代中國の國際的契機: 朝貢貿易システムと近代アヅア』東京大學出版部, 1990
- 濱下武志, 『朝貢システムと近代アヅア』岩波書店, 1997
- 孫衛國, 「論明初的宦官外交」, 『南開學報』1994-2

- 王正毅, 『世界體系論與中國』 商務印書館, 2000
- 于贵信, 「關於葉宗留鄧茂七起義的幾個問題」, 『史學集刊』1956-1
- 李龍潛, 「明正統年間葉宗留鄧茂七起義的經過及特點」, 『歷史教學』1957-3
- 李雲泉, 『明清朝貢制度研究』 暨南大學博士學位論文, 2003
- 鄭鎮峰, 「明正統年間“三征麓川”之役」, 『歷史教學』1963-8
- 趙現海, 『明代九邊長城軍鎮史』, 中國社會科學院青年學者文庫 歷史考古研究系列, 2012
- 中國軍事科學院, 『中國軍事通史』第15卷—明代軍事史, 軍事科學出版社, 1998
- 中國軍事通史編委會, 『中國軍事通史15—明代軍事史 上冊』, 軍事科學出版社, 1995
- 陈玉彬, 「明朝中期(1442年—1450年)的处州农民起义」, 『丽水师专学报』1982-1
- 陳濟時, 「明代正統一天啓年間主要農民起義圖」, 『歷史教學』1981-5
- 何鵬毓, 「明正統年間东南地区的农民大起义」, 『新史學通訊』1951-10
- 哈恩忠, 霍华, 「后金“告天七大恨”榜文」, 『历史档案』2012-2
- 華實, 「“土木之變”與土木堡」, 『文史知識』1983-2
- 荒野泰典,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出版會, 1988
- 黃枝連, 『天朝禮治體系研究』(上·中·下),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2

<Abstract>

International Situation and War in Northeast Asia during early period of Joseon

Kim, Kyeoung Lok

In a country, war and peace are both contradictory and very closely related concepts as well. Joseon, which inherited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turmoil as a historical heritage at the end of the Goryeo, was established in 1392 and influenced by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f changing Ming from Yuan(元明交替). Under the pluralistic international order, Goryeo had many times of war to influence the national destiny, and while taking full advantage of Goryeo's capabilities, it made strategic diplomatic relations by utilizing the change of international situation. However, after the founding, Joseon focused on the Ming central international order(明中心 國際秩序) and ignored diplomatic and military alternatives. Of course, this has the advantage of limiting the external forces that invade Joseon from the North. Since Joseon dealt with the ruling class of North, it was punished in terms of border security.

In the early days of the founding, Joseon faced internal confusion in the face of changes in international affairs, which were replaced by the Ming from the Yuan, as well as domestic political and military complexity. In addition, Joseon has implemented a fierce defense policy to secure security in the Ming central international order. During the peace period, Joseon could implement long-term and systematic defense policies, but the national policy, which was the national policy for the war, changed due to the initial confus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early Joseon period, the international situation was the decline of Mongolia, a northern n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Ming Dynasty. In this proces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changed suddenly due to the North Yuan forces of the Liaodong, the Mongol forces in the grassland, the Ruzhen in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have caused frequent military conflicts around Joseon, resulting in massive wars. As a result, the Joseon changes in the defense policy and experience the Campaign against the Jurchen tribesmen(女眞征伐), Tsushima Subjugation(對馬島征伐), Japanese Riots in the Three Ports(三浦倭亂), Nitangga Invasion(尼湯介亂), Imjin war(壬辰戰爭), Manchu War in 1636(丙子胡亂).

Key words : International Situation(국제정세), War(전쟁), Early Joseon period(朝鮮前期), Changing Ming from Yuan(明清交替), Ming central international order(明中心國際秩序), Campaign against the Jurchen tribesmen(女眞征伐), Tsushima Subjugation(對馬島征伐), Japanese Riots in the Three Ports(三浦倭亂), Nitangga Invasion(尼湯介亂), Imjin war(壬辰戰爭), Manchu War in 1636(丙子胡亂)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0, pp.241-272
<https://doi.org/10.29212/mh.2019..110.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전라도 지역의 반란 대응체계와 운용

- 무신란(戊申亂) 당시 경상도 반란군 방어를 중심으로 -

문경득*

1. 서론
2. 전라도 지역의 반란 대응체계
 - 가. 지방관의 군사지휘체계
 - 나. 지방군의 규모
3. 반란 대응체계의 실제 운용 양상
 - 가. 반란 인지와 초기 대응
 - 나. 병력 집결과 팔랑치 수비
4. 결론 : 전라도 지역 반란 대응체계의 문제

1. 서론

무신란(戊申亂)은 영조 4년(1728)에 경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서 영조의 왕위계승 정통성을 부정하며 일어났다. 이에 조정에서는 병조판서 오명항(吳命恒)을 사로도순무사(四路都巡撫使)로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

임명하고 중앙군을 파견하여 반란을 토벌하고자 했고, 지역의 지방관도 각자 병력을 소집해 반란에 대응했다. 경상도와 충청도의 경우에는 민간에서도 창의(倡義)하여 반란 진압을 돕고자 했다. 그 결과 반란군은 초반에 일부 지역을 점령하는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국 토벌당하면서 무신란은 실패로 끝났다.

이러한 무신란 당시 반란 대응에 관한 연구는 무신란 관련 연구와 군제사 관련 연구에서 각각 언급하고 있다. 무신란 관련 연구에서는 반란과 더불어 대응도 연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 각각 중앙에서 파견한 도순무사 오명항이 지휘한 중앙군의 활동은 물론 각 지방의 지방관이 동원한 관군과 자발적으로 토벌에 가담한 ‘의병’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¹⁾

하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전라도 지역의 반란 대응은 대체로 소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즉, 경상도 반란군이 전라도로 진출하려 하자 전라도 운봉영장(雲峯營將) 손명대(孫命大)나 무주의

1) 기존 무신란 연구 중 토벌과 대응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우성, 「지방토호 대 중앙권력층의 투쟁」, 『경상남도지』 상, 1959, 726~727쪽; 이상욱, 「영조 무신란의 연구」, 『우석사학』 2, 1969; 이원균, 「영조 무신란에 대하여-영남의 정희량 난을 중심으로-」, 『부대사학』 2, 1971, 75~77쪽; 오갑균, 「영조 무신란에 관한 고찰」, 『역사교육』 21, 1977, 90~96쪽; 이재철, 「18세기 경상우도 사림과 정희량난」, 『대구사학』 31, 1986, 65~66쪽; 이종범, 「1728년 ‘무신란’의 성격」, 『조선후기 정치사의 재조명』, 범조사, 1985(태학사, 2003에서 재인용), 259~261쪽; 정석중, 「영조 무신란의 진행과 그 성격」,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 한길사, 1995, 139~148쪽, 152~158쪽; 이종범, 「3. 여러 지역의 항쟁과 ‘무신란」, 『한국사』 36, 국사편찬위원회, 1997, 203~204쪽; 이영춘, 「정치적 변란인가 민중의 반란인가 - 영조 무신란」, 고성훈 외, 『민란의 시대 - 조선시대의 민란과 변란들』, 가람기획, 2000, 122~123쪽; 고수연, 「청주지역 영조 무신란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42, 2007, 178~179쪽; 고수연, 「1728년 무신란과 청주지역 사족 동향」,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50~81쪽, 116~120쪽; 이근호, 「영조대 무신란 이후 경상감사의 수습책」, 『영남학』 17, 2010; 이욱, 「조선 영조대 무신란과 안동 지방의 ‘의병」, 『한국사학보』 42, 2011; 고성훈, 「영조의 정통성을 묻다 - 무신란과 모반사건」,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49~55쪽, 67~70쪽; 장필기, 「영조 대의 무신란 - 탕평의 길을 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47~54쪽, 58~70쪽, 98~103쪽; 허태용, 「1728년 무신란의 진압과 『감략록』의 편찬」, 『한국사연구』 166, 2014, 110~111쪽.

지방관이 병력을 동원해 막아섰다는 내용만 간략히 언급된다.²⁾ 그나마 전라도 지역 무신란을 다룬 연구 중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의 「무신의적(戊申義蹟)」을 활용한 연구에서 전주성 수비와 경상도 반란군 방어 등의 대응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정리하였다.³⁾

군사사의 관점에서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반란 대응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연구되었다. 즉, 도순무사 오명항이 이끈 중앙군의 규모와 활동을 검토하거나,⁴⁾ 영장제의 관점에서 지방관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검토한 연구 등이 있다.⁵⁾ 하지만 역시 전라도 지역의 반란 대응에 관해서는 소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외에는 무신란 이후 화약 공납체계의 변화 양상이나⁶⁾ 지방군제의 정비를 다룬 내용으로⁷⁾ 무신란 당시의 토벌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무신란 당시 일정 지역을 잠깐이라도 점거하는 데 성공한 경기·충청도와 경상도의 반란군과 다르게 전라도 지역에서는 시도 단계에서 실패하여 대응할 반란 자체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둘째, 전라감사 정사효(鄭思孝)와 전주영장 이경지(李慶祉)가 반란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은 탓에 연구자들은 이들을 비롯한 지방관의 대응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2) 전라도 지역의 반란 대응을 거론한 무신란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우성, 앞의 책, 727쪽; 이상옥, 앞의 논문, 13쪽; 이원균, 앞의 논문, 75~77쪽; 오갑균, 앞의 논문, 84~88쪽; 정석중, 앞의 책, 152~153쪽; 고성훈, 앞의 책, 67~68쪽; 장필기, 앞의 책, 63~64쪽; 고수연, 「조선 영조대 무신란의 실패 원인」, 『한국사연구』 170, 2015, 239쪽.

3) 유한선, 「영조 4년 戊申亂과 전라도 의병」, 『전북사학』 39, 2011, 144~154쪽; 고수연, 「1728년 호남 무신란의 전개양상과 반란군의 성격」, 『역사와 담론』 60, 2011, 50~56쪽.

4) 조준호, 「영조대 「수성절목」의 반포와 수도방위체제의 확립」, 『조선후기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1998, 108~109쪽.

5) 서태원, 『조선후기 지방군제연구 -영장제를 중심으로-』, 해안, 1999, 211~214쪽.

6) 유승주, 「朝鮮後期 貢人에 관한 一研究(下) -三南月課火藥契人의 受價製納實態를 中心으로」, 『역사학보』 79, 1978.

7) 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사』, 경인문화사, 2000, 195~204쪽; 서태원, 앞의 책, 215~216쪽.

않았다. 특히 『호남절의록』을 근거로 전라도 지역의 무신란을 다룬 연구에서는 전주성 수비의 주체로 아예 다른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무신란 당시 전라도 지역에서는 비록 시도에 그쳤지만, 박필현이 태인의 관군을 거느리고 전주성에 입성하려 했고, 경상도 반란군이 팔랑치(八良峙)를 넘어 전라도로 진입하려고 했다. 전라도 지방관이 이러한 반란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은 『무신별등록(戊申別騰錄)』 등에 남아있다.⁸⁾ 또한, 일부 연구에서 인용한 『호남절의록』은 후대에 민간인이 편찬한 자료로, 당대에 국가에서 편찬한 『무신역옥추안(戊申逆獄推案)』이나 『무신별등록』과 다른 내용이 많다.⁹⁾ 따라서 전라도 지역에서 무신란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응에 관한 연구는 정치사적 측면에서 1728년 무신란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재현하는데 필요한 연구일 뿐만 아니라, 18세기 초에 지역의 군사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주제이다. 이중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지방관의 대응은 기존 연구에서 어느 정도 다루었으므로,¹⁰⁾ 본 논문에서

8) 『무신별등록』은 총 5권으로 무신란과 관련된 보고 등의 기록을 모은 등록(騰錄)이다. 1728~29년에 작성된 원본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하여 『영조무신별등록(英祖戊申別騰錄)』이라는 이름으로 『각사등록』 67~69, 1993에 수록하였다. 이외에 1910년대에 필사한 판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http://yoksa.aks.ac.kr>)에서 원문을 서비스하고 있다. 다만 책 제목 중 ‘영조(英祖)’라는 시호는 고종 27년(1890)에 추증되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원본의 제목을 존중하여 『무신별등록』으로 표기하였다.

9) 다른 사료와의 비교를 통해 『호남절의록』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연구가 있다(김동수, 「호남절의록의 사료 가치 검토(1)」, 『역사학연구』 44, 호남사학회, 2011). 다만 이러한 사료적 한계와 별개로 전라감사 정사효나 전주영장 이경지, 운봉영장 손명대 등 주요 전라도 지방관이 실제로 반란에 대응한 주체인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논증이 필요하다. 『호남절의록』 「무신의적」에서는 전주성 수비의 주체에 대해 전라감사 정사효와 전주영장 이경지가 반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그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좌수 오진형(吳震亨), 천총 이주연(李周衍), 이기만(李起萬) 등을 주목해서 거론하고 있다. 경상도 반란군을 막아낸 주체에 대해서도 운봉영장 손명대 이외에 여러 민간인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원종공신 책봉과 관련된 공식 기록에는 이름이 보이지 않아 실제 활동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반란 대응의 주체 문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는 군제사의 관점에서 경상도 반란군의 전라도 진출을 방어하기 위한 실제 활동을 중심으로 전라도 지역 지방군의 지휘체계와 병력 동원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제도와 군사사에 관한 연구성과를 검토하여 전라도 지역의 반란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무신란 당시 지방관의 보고를 수록한 『무신별등록』 등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지방관들이 경상도 반란군을 맞이해 대응한 양상을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라도 지역의 반란 대응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2. 전라도 지역의 반란 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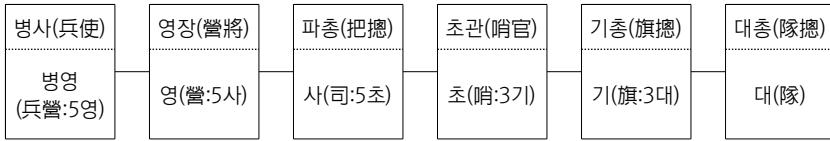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지방관은 왕의 대리인으로서 행정뿐만 아니라 사법과 군사 등등 다방면에 걸친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였다. 그렇기에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도 최일선에서 대응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기존의 지방통치와 군사사 관련 연구성과를 검토하여 전라도 지역의 군사지휘체계와 병력 규모 등을 살펴보았다.

가. 지방관의 군사지휘체계

조선시대 군사제도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장기간에 걸쳐 변화하였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영장제(營將制)의 시행과 속오군(束伍軍)의 편성이다. 이러한 지방군제에서 지휘체계와 편제는 다음 <표 1>과 같이 구성되었다.¹¹⁾

10) 문경득, 『전라도 지역 무신란(戊申亂) 연구』, 전주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163~186쪽 참조.

〈표 1〉 속오군의 편제와 지휘계통



즉 무신란 당시의 조선후기 지방군은 병사를 정점으로 하는 지휘 체계 아래에 속오군 편제의 기본이 되는 진영(鎭營)이 설치되었고 그 책임자로 영장이 있었다. 특히 무신(武臣)인 전임영장은 대음을 포함한 소음의 군사지휘권을 장악하여, 평상시에는 속오군을 조련하고 비상시에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는 체계로 구성되었다.¹²⁾

그러나 이처럼 지방군의 주력이 병사와 영장을 중심으로 하는 속오군으로 구성되었다고 해도, 지방관의 군사지휘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형태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군사조련은 영장이 담당하고 군사행정은 수령이 분담하는 방식이었지만,¹³⁾ 유사시의 군사지휘권은 여전히 수령에게 있었다. 이는 여전히 수령들이 발병부(發兵符)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각 읍의 병마 책임자의 직함을 겸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수령들이 유사시에 군대를 지휘하여 방어하는 진관체제를 기초로 지역방어체계가 운영되었다.¹⁴⁾ 실제로 무신란 당시에도 안성군수 민제장(閔濟章), 진위현령 조동빈(趙東彬),¹⁵⁾ 양주목사 유척기(俞拓基), 춘천부사 정도원(鄭道元)¹⁶⁾ 등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정한 사실도 확인된다.¹⁷⁾

11) 송양섭, 「지방군의 개편과 지역방어체제의 정비」, 『한국군사사』 8, 육군군사연구소, 2012, 3쪽.
 12) 송양섭, 앞의 책, 4쪽.
 13) 차문섭, 「조선후기의 영장」, 『조선시대 군제연구』, 단국대 출판부, 1977, 229~233쪽.
 14) 이희권, 「조선후기 수령의 통치행정기능」, 『조선후기 지방통치행정 연구』, 집문당, 1999, 137쪽.
 15) 『영조실록』 4년 3월 22일 임신.
 16) 『영조실록』 4년 3월 24일 갑술.
 17) 이희권, 앞의 책, 137~138쪽.

또한 감사(관찰사) 역시 한 지역의 최고 책임자로 병사와 수사를 겸하면서, 조선전기 이래 자신의 발병부 우부(右符)와 함께 도내 각 진(鎭) 발병부의 좌부(左符)를 가지고 있어 국왕의 명령을 받아 도내의 모든 군사를 동원하고 지휘할 권한이 있었다.¹⁸⁾ 그러므로 전라도 지역의 반란 대응체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감사, 병사, 영장, 수령 사이의 지휘체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감사는 명목상 병사를 겸하는 도내 최고 지휘관이었지만, 병사도 감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발병부 우부와 함께 휘하 영장의 발병부, 각 읍 수령 발병부의 좌부를 가지고 있었다.¹⁹⁾ 이는 감사와 병사 모두 속오군에 대한 군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에 명령체제상의 혼란을 피하고자 을묘왜란 이후 감사가 순찰사를 겸하면서 상하관계를 확립하였으므로,²⁰⁾ 감사가 병사를 지휘·감독하는 체계였다고 할 수 있다.²¹⁾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사는 도정(道政) 전체를 책임지는 역할이었으므로 전적으로 군사업무에 전념할 수 없었다. 또한 속오군은 병사를 정점으로 하는 군사조직이었으므로, 현실적으로 병사가 지방의 육군에 대한 군사행정과 지휘를 총괄하는 직책이었다. 그렇기에 제도적인 상하관계와 별개로 병사는 군무에 관해서는 감사와 거의 대등한 지위와 권세를 유지했다.²²⁾

다만 전라병영이 남부 해안가에 치우친 강진(康津)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는 겸병사(兼兵使)로서 병사의 업무 일부인 마병도시(馬兵都試) 등의 업무를 나누어 담당할 사례가 있다.²³⁾ 그러므로 비록 병사가 실질적인 지휘자라고 해도 거리상의 한계로 전라도 전체를 바

18) 이희권, 「조선후기 관찰사와 그 통치기능」, 위의 책, 63쪽.

19) 이희권, 위의 책, 65, 121쪽.

20) 『명종실록』 10년 10월 18일 기묘.

21) 이희권, 앞의 책, 67~69쪽; 유동호, 『조선후기 지방군제의 변화와 하삼도 병영 운영』,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32쪽.

22) 유동호, 앞의 논문, 132~134쪽.

23) 송양섭, 「조선후기 강진병영의 지휘체계와 군수조달」, 『역사학연구』 52, 2013, 39쪽.

로 지휘하기가 어려우므로, 유사시에는 겸병사인 감사가 전주감영 인근 고을의 지휘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했을 가능성도 있다.

영장은 병사의 지휘를 받아 속오군을 조련하고 비상시 속오군을 지휘하여 대적하는 직책이었다. 특히 조선후기 지방군제는 진관체제에서 거진수령(巨鎭守令)의 역할을 영장이 대체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므로, 군무에 관해서 속읍의 수령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²⁴⁾ 다만 현종 1년(1660) 이전에는 병부의 왼쪽을 가진 감사와 병사의 동의 없이 군사를 동원할 수 없었다. 이에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영장도 좌우측 병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속읍 수령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발병부 좌부를 갖게 되었다.²⁵⁾

따라서 18세기 초 무신란 당시에는 기본적으로는 감사-병사-영장-수령의 지휘체계가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감사가 최상위로 병사를 감독하고, 병사가 지역의 육군을 총지휘하며, 그 휘하에서 영장이 속오군을 이끌면서 속읍 수령을 통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감사와 병사, 영장이 모두 유사시 지방군을 동원할 수 있는 발병부를 가지고 있었고, 수령도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었으므로 지휘체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즉, 서로 다른 명령이 수령에게 내려올 경우,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혼란의 여지가 있었다. 특히 군무에 있어서 감사가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병사의 지휘권도 감사와 대등한 측면이 있었고, 영장이 수령에 대한 지휘권이 있다 하더라도 수령 역시 군사지휘권이 있으므로 서로 충돌할 여지가 있었다.

나. 지방군의 규모

다음으로 무신란 당시 전라도의 감사와 병사, 영장, 수령이 각각

24) 서태원, 『조선후기 지방군제연구 -영장제를 중심으로』, 혜안, 1999, 83, 94~97쪽.

25) 『현종실록』 1년 6월 5일 무자.

지휘할 수 있는 병력에 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이를 추적하기는 쉽지 않다. 첫 번째는 사료의 문제이다. 우선 무신란 이후 속오군에 대한 정비 노력으로 「속오절목(東伍節目)」을 마련하거나,²⁶⁾ 이노작대(吏奴作隊)가 공식화되는 등 여러 조치가 시행되었다.²⁷⁾ 이로 인해 현존하는 기록들은 대체로 무신란 이후의 내용으로 그 이전의 지방군제를 파악하기 어렵다.²⁸⁾ 또한 『무신별등록』 등의 기록에서도 무신란 당시 감영의 아병

26) 「속오절목」의 제정과 속오군의 운영에 관해서는 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의 변천」, 앞의 책, 195~199쪽, 204~212쪽 참조.

27) 김우철, 앞의 책, 199~204쪽; 송양섭, 앞의 책, 108~115쪽

28) 예를 들어, 전라감사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규모에 관해 영조 40년(1770)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서는, 검병사로서 휘하에 중군 1명, 별장 1명, 천총 3명, 파총 6명, 초관 42명, 지구관 2명, 기괘관 161명, 별군관 200명, 마병 2초(보 444명), 아병(牙兵) 35초, 표하군(標下軍) 683명, 당보군(塘報軍) 96명, 수솔군(隨率軍) 225명, 치중군(輜重軍) 380명을 거느린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군액 관련 내용은 이후 계속 수정되어 편찬되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서도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반면 편찬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완영병제총록(完營兵制總錄)』에서는 아병의 규모가 조금 적은 30초라고 되어 있다(『완영병제총록』 전라감영; 유동호·이석린, 「조선후기 하삼도 지역의 군사편제와 군병조직」, 『군사』 93, 2014, 225쪽). 이러한 아병은 전라감영 인근 29개 지역을 속읍으로 설정하여 인원을 충원하였다(『군국총목』, 전라도; 송양섭, 앞의 책, 108쪽; 유동호·이석린, 앞의 논문, 225쪽).

전라병사의 경우, 전임병사로 중군 1명(우후), 천총 3명, 파총 9명, 초관 45명, 지구관 17명, 기괘관 88명, 군관 230명, 아병(=친병) 66초, 표하군 1,200명, 수솔군 90명, 수용군 700명이 배속되어 있었다(『동국문헌비고』 54권, 병고3; 『증보문헌비고』 118권, 병고 10; 송양섭, 앞의 책, 46~47쪽). 군액 자료를 중심으로 병력 규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743년 『양역총수(良役總數)』에서는 병영에 속한 친병의 규모는 군관과 병사를 모두 합쳐 10,309명이라고 기록되고 있다(『양역총수』; 송양섭, 앞의 논문, 2013, 42쪽. <표 4>). 이러한 군액의 규모는 1794년의 『군국총목(軍國總牧)』, 1895년 『병영영지』까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반면 『완영병제총록』에서는 친병의 규모가 다소 적은 45초로 군관과 병사를 모두 합쳐 7,046명이며, 이중 군인 6,944명은 수포군으로 운영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완영병제총록』 병영; 유동호, 앞의 논문, 91~92쪽).

이상에서 대략 살펴본 바와 같이, 『동국문헌비고』나 『양역총수』 등의 17세기 후반의 기록부터 19세기 말의 기록까지 일정한 액수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완영병제총록』에 수록된 아병과 친병 규모는 감영이 5초, 병영이 21초가 적다. 속오군의 경우, 군액수는 인조 때까지 10만 내외를 유지하다가 숙종 대

(牙兵)과 병영의 친병(親兵) 등이 얼마나 소집되고 동원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둘째로 후기로 갈수록 많은 병력이 수포군화 되었기 때문에 규정만으로는 실제 동원 가능한 병력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1895년 『병영영지(兵營營誌)』에 따르면 강진병영의 신역자 10,850명 중 물납화 비율이 전체 액수의 94.8%에 이르러 실역자는 고작 559명에 불과할 정도였다.²⁹⁾ 아직 균역법이 도입되기 이전인 1728년 시점에서는 수포군화 비율이 이보다 낮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1728년 시점에서 전라도 지방관들이 실제로 동원할 수 있었던 병력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라도 지역의 속오군, 그중에서도 무신란 당시 실제로 소집되어 경상도 반란군의 전라도 진출을 막아내는 활약을 펼친 운봉 좌영진의 속오군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전라도에 설치된 진영의 영장 중 순천과 전주, 나주의 영장은 전임 영장이 별도로 파견되었고, 운봉과 여산은 수령이 겸하는 겸영장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중 운봉 좌영에 속한 고을은 남원·곡성·장수·창평·옥과·구례였고, 진영의 병력은 마병 2초(보인 436명),

인 17세기 말에 20만 정도로 증가한 뒤 18세기 말까지 유지되는 추세를 보인다(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의 강화」, 앞의 책, 127쪽. 각주 137). 감영과 병영의 병력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17세기 말에 증액되었다고 가정하면, 1728년 무신란 당시 감영 아병과 병영의 친병 규모는 18세기 후반보다 다소 적은 30초와 45초에 가까운 숫자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29) 『병영영지』 군병; 송양섭, 앞의 논문, 44~45쪽. 감사의 직할병력으로 만들어진 아병의 경우, 17세기에 정식으로 제도화될 때부터 이미 재정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포군의 성격이 있었다고 한다(김우철, 앞의 책, 190~192쪽). 다만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무장(茂長)에 설정된 아병과 이를 담당할 아병장관이 무신란 당시의 기록에 보인다(변주승 역, 『추안급국안』 47권, 흐름출판사, 2014, 118~121쪽. 영조 4년 12월 9일 김몽좌 진술; 같은 책, 276~279쪽. 영조 4년 12월 25일 김상채 진술 참조). 이 기록을 통해 1728년 당시 전라감영의 아병 전체가 수포군이 아니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무신별등록』 등에서도 감사와 병사가 지휘한 구체적인 병력 규모에 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다.

속오 34초(보인 4,656명)·표하군 287명·당보군 120명·수술군 492명이었다.³⁰⁾ 군액 관련 자료로 병력의 규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완영병제총록』에서는 총 10,032명, 『군국총목』에서는 총 10,733명이라 하고 있다.³¹⁾ 이중 장교와 군관 등을 제외하고 『동국문헌비고』 등에 기록된 역종을 중심으로 병력 규모를 정리하면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운봉 진영의 군액수 비교

역종	『완영병제총록』의 군액수	『군국총목』의 군액수
마병	230	218
마병보	460	436
속오군	4,059	4,070
속오군보	4,142	4,656
표하군	439	
당보군	144	125
수술군		492
기타	431	430
합계	9,905	10,427

즉, 두 자료의 기타 역종에서 일부 차이가 있어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주력인 마병과 속오군의 규모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좌영장 겸 운봉현감이 무신란 당시 속읍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대 병력은 마병 2초, 속오군 34초에 표하군과 당보군, 수술군 등을 포함해 약 5,000명 내외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수령의 경우, 기본적으로 군사지휘관으로 병사를 이끌고 토벌에 참전할 수 있었다.³²⁾ 그러나 대체로 자기 고을의 속오군 등

30) 『동국문헌비고』 54권, 병고 3 ; 『증보문헌비고』 118권, 병고 10; 송양섭, 앞의 책, 47쪽.

31) 『완영병제총록』, 운봉진 ; 유동호·이석린, 앞의 논문, 217쪽 ; 송양섭, 앞의 논문, 45~46쪽. 논문의 오기 및 오류 일부를 수정하여 정리하였다.

32) 각 속읍 별로 수령에게 배속된 병력의 규모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전라병사 조경은 운봉과 남원, 장수 세 고을의 군병 수가 3,482명이라고 하고 있다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국사편찬위원회, 1993, 497쪽. “...雲

을 진영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지방군이 운용되었으므로, 병력을 인계한 이후에는 자체 병력이 없었다. 그래서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수령이 효과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이노작대를 편성하지는 건의가 간헐적으로 제기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무신란 이후였다.³³⁾ 그러므로 무신란 직전의 수령은 속오군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수하에 별다른 병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³⁴⁾

3. 반란 대응체계의 실제 운용 양상

본 장에서는 무신란 당시 운봉현감 겸 좌영장 손명대가 경상도 반란군이 넘어오려 했던 주요 고지인 팔랑치를 선점하고 반란군과 대치한 과정을 분석하여 실제로 반란에 대응한 양상을 중심으로 정

峰, 南原, 長水, 三邑軍兵, 摠以計之, 合爲三千四百八十二名是白在如中...”). 태인 현감 박필현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관군을 속여 전주성으로 끌고 갔을 때의 인원은 병사 8초에 별군관 100명이었다(『무신별등록』 권1, 『각사등록』 67, 279쪽. 영조 4년 3월 22일 전라감사 정사효 장계. “各人等招內…本縣舊官, 聞新官之猝至, 急發本縣軍兵八哨及軍官百餘人...”). 전라병사가 거론한 세 고을의 병력은 <표 2>를 고려해보면, 보인까지 포함한 최대 동원가능 병력으로 보인다. 또한, 태인 지역은 전라 좌영장 소속이 아니지만, 이 기록은 한 고을에서 현실적으로 최대 동원 가능한 병력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을의 규모에 따라 가감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방관은 대략 700~800명 정도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3) 이노작대에 관한 내용은 송양섭, 앞의 책, 108~115쪽; 김우철, 앞의 책, 199~204쪽 참조.

34) 다만 이노작대가 제도화되지 않았을 뿐, 무신란 당시에도 일부 지역에서 수령의 재량에 따라 조직된 사례가 보인다. 즉, 전주성에서는 전주진영 이숙의 하인인 백문채(白文采)가 이노작대에 소속되어 성머리에서 보초를 섰던 기록이 있다(『추안급국안』 47권, 40쪽. 영조 4년 8월 5일 백문채 진술). 또한, 박필몽(朴弼夢)이 반란에 가담할 의도를 숨기고 유배지인 무장의 현감 김몽좌(金夢佐)에게 병력을 요청하자, 이노작대 30명을 박필몽에게 내주어 함께 가도록 한 사례도 확인된다(『추안급국안』 47권, 2014, 118~121쪽. 영조 4년 12월 9일 김몽좌 진술과 같은 책, 276~279쪽. 영조 4년 12월 25일 김상채 진술 참조).

리하였다. 이를 위해 『무신별등록』의 전임 전라감사 정사효(鄭思孝)와 신임 전라감사 이광덕(李匡德), 전라병사 조경(趙敬), 남원부사 김유(金澁), 운봉현감 겸 전라좌영장 손명대의 보고를 주로 활용하였다.

가. 반란 인지와 초기 대응

영조 4년(1728) 3월 15일에 이인좌가 지휘하는 경기·충청도의 반란군은 청주성을 기습적으로 점령했다. 이 소식은 충청감사 권첨(權詹)이 전라감사 정사효에게 비밀공문[秘移]을 보내면서 전라도 지역에 전해졌다.³⁵⁾ 이러한 소식이 전라도에 도착한 날짜에 대해 당시 전라감사 정사효의 장계와 진술에서는 3월 19일이라고 하고 있다.³⁶⁾ 하지만 청주성 함락 소식 자체는 18일 늦은 오후에 도착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⁷⁾

이처럼 반란 소식이 전해지자, 전라도 지역의 지방관들은 19일부터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였다. 먼저 전라감사 정사효는 19일에 바로 강진의 전라병영에 있는 전라병사 조경을 포함해 각 지역의 지방관에게 청주의 반란 소식을 알렸다.³⁸⁾ 다음날인 20일에 정

35) 『무신별등록』 권1, 『각사등록』 67, 국사편찬위원회, 1993, 128~129쪽. 영조 4년 3월 19일 전라감사 정사효 장계. “卽刻到付, 忠淸監司臣權詹秘移內, 道內淸州賊徒, 本月十五日夜半陷城, 兵使及中營將, 俱被殺害, 變起倉卒, 凶檄凶關, 遍行道路, 事極驚心痛惋是去乎. 貴道與本道連境, 不可不急速通報乙仍于, 如是文移是如爲白有臥乎所. … 忠淸監司, 必已以此啓聞是白乎矣, 或慮道路梗塞, 未卽傳達, 自臣營, 茲以急急馳啓事. 三月十九日封啓.”

36) 『추안급국안』 43권, 76쪽. 영조 4년 4월 7일 정사효 진술.

37) 이 장계를 작성하기 전인 18일 저녁때 무장현감 김몽좌(金夢佐)가 전라감영에 가는 도중 태인현에 묵었을 때, 병영 소속 군관이 강진으로 내려가면서 청주성 점령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진술했다(『추안급국안』 47권, 115~116쪽. 영조 4년 12월 9일 김몽좌 진술). 이에 김몽좌는 바로 태인을 떠나 무장으로 돌아가면서, 정읍현감 목중형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다. 목중형은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반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소식을 전해준 군관을 의심하여 잠시 가둬두기도 했다(『추안급국안』 44권, 228~229쪽. 영조 4년 4월 26일 목중형 진술).

사효는 다시 장계를 올려 어떻게 대응할지 속히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³⁹⁾

전라감사 정사효가 중앙의 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21일에 전라감사의 공문을 받은 전라병사 조경은 즉시 속오군을 소집하라고 도내 각 영장에게 명령을 내렸고, 병사 자신도 병영 인근에 거주하는 친병을 소집하고 있다고 조정에 보고했다.⁴⁰⁾ 이러한 전라감사의 공문과 병사의 명령을 받은 전라도 지역의 지방관들은 각자 병력을 소집해 기다리고 있었다.⁴¹⁾

이런 중에 경상도에서도 반란이 일어났다. 영조 4년 3월 20일에 안음(安陰: 현재 안의면)에서 정희량(鄭希亮)과 이웅좌(李熊佐=李熊輔) 등이 거병하였다.⁴²⁾ 20일 당시 운봉영장 손명대는 19일에 전라감사 정사효가 보낸 공문을 받고서 바로 전라좌군영 소속의 7읍에 공문을 보내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조정의 후속 명령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다음날인 21일에 함양군수(咸陽郡守) 박사한(朴師漢)이 보낸 편지를 보고서야 경상도 안음에서 반란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다.⁴³⁾

38)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48쪽. 영조 4년 3월 21일 전라병사 조경 장계. “節當日到付, 今月十九日, 所出本道巡察使臣鄭思孝關內, 卽刻到付, 忠淸監司秘移內, 道內淸州賊徒, 本月十五日夜半陷城 … 貴道與本道連境, 不可不急速通報乙仍于, 如是文移是如爲有臥乎所…”; 『추안급국안』 44권, 228~229쪽. 영조 4년 4월 26일 목중형 진술.

39) 『무신별등록』 권1, 『각사등록』 67, 218~219쪽. 영조 4년 3월 20일 전라감사 정사효 정계. “昨伏見忠淸監司臣權詹秘關, 知淸州變作之報, 卽爲馳啓, 未知無中路梗塞之患, 而已爲得達是白乎旂, 自聞此報心墜膽裂, 以滅此賊, 辦一死爲期爲白乎矣. 未聞朝廷命令, 罔知攸措是白置, 令廟堂急速區劃指教, 以爲奉行之地爲白只爲. 三月二十日封啓.”

40)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48~449쪽. 영조 4년 3월 21일 전라병사 조경 장계. “…軍務凡事各別整待, 以待朝家分付, 宜當向事, 關是白置有亦. … 束伍軍兵, 各別整齊, 以待朝令之意, 星火嚴飭於道內各營將處爲白遣, 臣營親兵居在營下者, 一邊聚集, 調點整待, 緣由馳啓事. 三月二十一日封啓.”

41) 『추안급국안』 47권, 117~118쪽. 영조 4년 12월 9일 김몽좌 진술.

42) 『영조실록』 4년 3월 27일 정축.

43)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547~548쪽. 영조 4년 3월 27일 운봉좌영장 손명대 장계. “本月二十日, 到付本道觀察使臣鄭思孝秘關…軍務凡事, 各別預爲整

이에 손명대는 먼저 가까운 남원부사에게 공문을 보내 남원부의 병력 3초를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아직 병력을 소집하는 중이라 운봉영장이 동원할 수 있는 병사는 잡색병(雜色兵) 수백 명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⁴⁴⁾ 그리고 경상도로 군관을 파견해 박사한이 전한 반란 소식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였다.⁴⁵⁾ 이렇게 확인까지 마친 손명대는 23일에 전라감사 정사효와 전라병사 조정, 호남별견어사 이광덕 등에게 일단 현재까지 파악한 반란군의 상황을 보고했다.⁴⁶⁾

박사한은 반란군이 함양을 거쳐 팔랑치로 향할 가능성이 있으니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여 반란군의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⁴⁷⁾ 이러한 박사한의 편지에 더해 정찰을 통해 반란을 확인

待, 以待朝家處分亦爲白有遺, 同日良中, 又以本鎮所管軍務申飭等事, 發關分付是白乎等以, 臣不勝驚痛, 卽發關分付于所屬七邑, 使之急急整勅軍馬, 以待朝家處分是白如乎. 意外今二十一日, 慶尙道咸陽郡守朴師漢, 飛書告急內, 有大賊結陣於安陰古縣…”

- 44)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549쪽. 영조 4년 3월 27일 운봉좌영장 손명대 장계. “…鎮邑雲峰軍額至少, 雜色并不過數百, 以此零些羸弱之卒, 難拒浩多方張之賊是白乎等以, 爲先以本鎮附近邑, 南原東伍三哨, 把守嶺阨之意…”;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56쪽. 영조 4년 3월 26일 남원부사 김유 장계. “本月二十一日, 到付左營將孫命大關內 … 自嶺南踰八嶺峙是如, 傳說不啻狼籍, 本鎮所屬兵馬, 所當聚會於此, 以爲共濟之道, 而本府城守, 亦不可少緩, 至於雲峰, 軍額雜頃, 并二哨而已, 則其在防守嶺阨之道, 不可分而二之, 本府三哨軍, 叵夜起送, 以爲合力分守之地亦爲白有矣…”
- 45)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548~549쪽. 영조 4년 3월 27일 운봉좌영장 손명대 장계. “…臣卽使軍官朴完業, 全始大, 金允壽等, 密密偵探於安陰居昌等地, 則賊中事情, 果如朴師漢所報, 而軍官朴完業回告內, 賊將鄭舜陽, 盧益萬是如爲白遣, 朴師漢書中云, 首賊則李熊輔, 副賊則鄭希亮是如爲白遣, 軍官金允壽回告內, 賊將鄭希亮, 李熊輔, 鄭遵儒, 盧世梓是如爲白有矣…”
- 46)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321쪽. 영조 4년 3월 24일 전라감사 정사효 장계. “卽刻到付, 今三月二十三日成貼, 左營將兼雲峰縣監孫命大馳報…”;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549~551쪽. 영조 4년 3월 27일 운봉좌영장 손명대 장계. “…爲先以本鎮附近邑南原東伍三哨, 把守嶺阨之意, 馳報本道, 兩營, 及別遣御史是白如乎…”
- 47)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548쪽. 영조 4년 3월 27일 운봉좌영장 손명대 장계. “…意外今二十一日, 慶尙道咸陽郡守朴師漢, 飛書告急內, 有大賊結陣於安陰古縣…賊鋒自本郡將向八良峙, 不可不急速防守, 以爲遮截賊路之計是如爲白去乙…”

한 손명대는 반란군이 전라도로 넘어올 경우를 대비해 팔랑치를 최우선으로 방어하기로 했다. 함양에서 안음까지의 거리는 40리이고 함양에서 운봉까지의 거리는 50리로, 만약 반란군이 함양까지 진출한다면 하루 안에 전라도 진입이 가능한 거리였기 때문이었다.⁴⁸⁾

그러나 23일 시점에 바로 팔랑치 수비에 나서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 번째는 아직 병력을 소집하는 중이라 운봉영장이 동원할 수 있는 병사는 수백 명에 불과했다. 앞서 21일 가까운 남원부에 공문을 보내 병력 3초를 먼저 보내달라고 급히 요청하긴 했으나 여전히 부족했다.

두 번째는 병력을 집결시키려 해도 조정의 명령 없이 함부로 군사를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이었다. 영장이 비록 속읍의 발병부를 가지고 있어 군사를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상급 지휘관인 감사나 병사의 지시, 더 나아가 조정의 명령 없이 함부로 병력을 움직일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남원부사 김유는 손명대의 병력 지원 요청을 즉각 수락하지 않았다.⁴⁹⁾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손명대는 감사나 병사의 명령이 없음에도 23일에 부족하나마 운봉의 병력을 이끌고 팔랑치로 먼저 이동했다.⁵⁰⁾ 같은 날에 경상도 반란보고를 받은 전라감사 정사효가 남원의 병력을 손명대에게 보내도록 했다. 이러한 지시가 당일 남원에 도착하고 나서야 김유는 손명대에게 병력 3초를 보냈다.⁵¹⁾

48)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548쪽. 영조 4년 3월 27일 운봉좌영장 손명대 장계. “…二十一日, 慶尙道咸陽郡守朴師漢飛書告急內…本郡距安陰, 纔四十里許…本鎮之距咸陽, 堇五十里, 雖曰他道, 實爲接界叱分不喻…”

49)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321~322쪽. 영조 4년 3월 24일 전라감사 정사효 장계. “一時到付, 今三月二十三日成貼, 南原府使金漣馳報內…左營將, 亦以此通報, 本府三哨軍, 刻期發送亦爲乎矣, 以未有發軍之朝令, 未即舉行矣…”;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53~462쪽. 영조 4년 3월 26일 남원부사 김유 장계. “…其時不但軍兵未盡來會亦無發兵之朝令故以不得起送之意論報…”

50) 『영조실록』 4년 3월 28일 무인.

51)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321~322쪽. 영조 4년 3월 24일 전라감사 정사효 장계. “…一時到付, 今三月二十三日成貼, 南原府使金漣馳報內…即到付, 左營將關內, 卽回咸陽郡守, 送書細探安陰賊報, 則其勢甚盛…越境之患, 迫在朝夕,

정사효는 24일에 다시 장계를 올려 경상도의 반란 소식과 남원·운봉의 병사가 팔랑치를 지키고 있다는 등의 수비상황을 보고했다. 그러면서 남원이 뚫릴 경우를 대비해 전주 인근의 병력을 소집해 변란을 대비하고자 하며, 새로 감사로 임명된 이광덕이 도내에 있으니 빨리 부임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⁵²⁾

3월 24일에 손명대의 보고를 받은 전라병사 조경은 팔랑치는 중요한 고지인데 동원된 병력이 너무 적으니 추가로 병력을 동원하도록 했다. 즉, 남원 이외에 팔랑치와 가까운 장수까지 포함해, 운봉·남원·장수에서 먼저 병사를 징발하도록 했다. 이외에 옥과, 창평, 곡성, 구례 등 좌영장 관할 지역에서도 병력을 징발해 운봉영장이 지휘하여 수비하라고 지시했다.⁵³⁾

나. 병력 집결과 팔랑치 수비

반란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감사와 병사, 영장과 수령

咸陽郡守回營門關文，今方發軍守八良峙，道亦方爲領軍往住，以爲遮絕之地爲去乎，三哨軍兵分定，本府急急起送云，而以本府之未卽發送，視若故爲推托者然，而責之甚截是乎等以，不得已束伍軍三哨，令座首張愜，把總金萬光領率，卽刻發送爲有如乎…”；『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57쪽. 영조 4년 3월 26일 남원 부사 김유 장계. “…二十三日，左營傳令，又爲來到，而亦令發軍，令座首，吏兵房，領付亦爲白有遣，同日來到巡營題本府報狀內，有曰賊勢如此，雲峰營將關辭又如此，則不可不急時調軍起送，以爲遮絕嶺阨之地爲白有去乙，不得已調發三哨軍兵，令座首，將官領付爲白乎矣…”

52)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322~323쪽. 영조 4년 3월 24일 전라감사 정사효 장계. “…任實全州，卽自南原西上之直路，備禦之道，不容少緩是白乎等以，預爲整飭軍兵，以爲待變之地爲白乎矣，臣旣已遞職，新監司方在道內，斯速赴任事，自朝家急速下諭之意，并以馳啓事。三月二十四日封啓。”；『승정원일기』 영조 4년 3월 28일 무인 31번째 기사.

53)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97쪽. 영조 4년 3월 24일 전라병사 조경 장계. “…防守軍兵之說調發者，旣如是零星，則嶺阨緊要之處，勢難分排堅守是白乎以，南原府軍兵，先發三哨外，餘數未及徵發者，及附近長水軍兵，并令徵發，使之急急分守，而雲峰，南原，長水，三邑軍兵，摠以計之，合爲三千四百八十二名是白在如中，八良之於南原，長水最是附近是白乎等以，先發三邑之軍，而其外玉果，昌平，谷城，求禮，俱是左營將所管乙仍于，亦令徵發軍兵，一從左營將號令舉行之意，亦爲發關嚴飭爲白乎矣…”

사이에 여러 보고와 지시가 오고 가는 와중에도, 손명대는 계속 경상도 반란군을 정탐하면서 팔랑치를 지킬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24일 시점에서 경상도 반란군이 안음, 거창, 산음 등을 점령하여 관청 창고의 식량과 무기 및 사근역(沙斤驛)의 역마를 약탈하여 무장을 갖추고 함양 인근까지 진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반란군이 팔랑치를 넘어 전라도로 진군할 것이라는 예측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이었음에도 당시 팔랑치에 모인 군사는 남원의 병사 3초와 운봉의 병사를 포함해 10여 초에 불과했다.⁵⁴⁾

이 때문에 손명대는 다시 남원부사 김유에게 공문을 보내 추가병력을 요청했다. 이번에는 남원부에 있는 어영청과 금위영 소속 군인과 대솔군관(帶率軍官) 100여 명을 빨리 보내달라고 했다. 하지만 김유는 어영청과 금위영 소속 병사는 좌영장이 함부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아니고, 남원부의 대솔군관은 별로 모이지도 않았는데, 이 병력까지 보내게 되면 남원이 텅 비게 되어 위험하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⁵⁵⁾

이렇게 추가 병력 동원 문제를 두고 운봉영장 손명대와 남원부사

54)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399, 403쪽. 영조 4년 3월 26일 전라감사 정사효 장계. “卽刻到付今三月二十五日…一時到付, 左營將孫命大馳報內, 本鎮偵探將校連次回告內, 嶺南賊勢, 日益鷄張, 橫行於安陰, 居昌, 山陰, 三四邑之間, 盡掠其官庫軍物, 又盡取沙斤驛騎卜馬, 成陣於咸陽境是如爲臥乎所, 其越境之患, 迫在頃刻, 南原三哨軍, 及各邑軍兵折半段, 已爲聚待於嶺扼是乎矣. 以如千十餘哨軍兵, 萬無防備之路…”

55)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399, 401~404쪽. 영조 4년 3월 26일 전라감사 정사효 장계. “卽刻到付, 今三月二十五日成貼, 南原府使金濰馳報內…卽到付, 左營將關內, 賊兵已到咸陽, 咸陽之距八良嶺, 不過數十里, 方與咸陽郡守, 合力守嶺, 而兵力單弱是如, 本府所在御營, 禁衛軍, 善放者, 及善射帶率軍官, 百餘名, 急速領付亦爲有在乎. 御營, 禁衛軍, 及本府帶率軍官, 既非左營之所調發者此分不諭, 昨日起送三哨束伍軍, 以爲防守八良嶺之地. 今又加送御營, 禁衛軍官, 合三哨軍兵, 則本府便作空城, 設有意外之變, 誰能禦之…”;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57~458쪽. 영조 4년 3월 26일 남원부사 김유 장계. “…本月二十四日…今日暮夜, 又以書飛傳, 且聞其傳書兩禱之言…本府禁衛御營軍, 善放者二哨, 及善射帶率, 百餘名, 親率領付, 而歸亦爲乎矣. 第御營, 禁衛軍, 乃是輦下親兵, 不知何時, 有徵發之朝令, 則非臣所可擅送遠地是白遣, 所謂帶率軍官段, 近來募得之人, 不過四十餘人, 雖欲起送百餘名, 其勢未由乙仍于, 具由論報…”

김유가 논쟁하던 도중에 전라감사 정사효의 답변[回題]이 도착했다.⁵⁶⁾ 즉, 운봉영장 손명대에게 병력을 소집해 팔랑치를 방어하라는 지시로, 필요하다면 손명대가 남원에 공문을 보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운봉영장 손명대는 즉시 좌영장 관할 지역의 수령에게 모든 병사를 이끌고 팔랑치로 오라는 전령을 보냈다.

이후 이러한 조치에 대한 추인(追認)을 얻기 위해 감사와 병사, 호남 별견어사에게도 다시 보고를 올렸다.⁵⁷⁾ 또한 감사와 병사, 영장에게도 각각 지휘권이 있었지만, 그래도 조정의 명령 없이 병력을 팔랑치로 소집한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있었으므로, 27일에 따로 조정에 장계를 올려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조정의 명령 없이 함부로 병사를 동원한 점에 대해 사죄하였다.⁵⁸⁾

25일에 신전(信箭)과 함께 남원부사 김유에게 남원의 속오군 전부를 끌고 오라는 손명대의 군령이 담긴 공문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56)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549쪽. 영조 4년 3월 27일 운봉좌영장 손명대 장계 “...觀察使臣鄭忠孝回題內, 賊勢如此, 不勝驚訝. 營將卽爲領率軍兵, 以爲遮截八良嶺之地爲旴. 南原三哨軍, 急速調發事, 今方分付爲在果. 三哨果不單弱是乙喻, 營將量度事勢, 這這發關於南原府, 宜當是旴. 八良峙, 乃一夫當關, 萬夫莫開之地, 營將若善爲防守, 則豈有任賊踰嶺之理哉. 各別出方略, 盡心舉行亦爲白遣...” 전라감사의 회신이 도착한 날짜와 시간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전주-운봉 간의 거리와 보고의 전후 관계를 따져볼 때 24일 밤이나 25일 아침에 도착했다고 추정된다.

57)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549~550쪽. 영조 4년 3월 27일 운봉좌영장 손명대 장계. “...兵使及御史回題, 遠不及來到爲白有矣, 事機緩急在於頃刻呼吸之間, 而南原三哨勢, 亦單弱不足抵當乙仍于, 屬邑軍兵, 竝爲調赴本鎮之意, 一報于兩營, 及別遣御史, 一邊星火傳令于南原府使金濰, 谷城縣監李東弼, 求禮縣監申璧, 長水縣監權萬斗, 玉果縣監嚴漢重, 昌平縣令朴壽仁, 使之火急調兵, 罔夜領付爲白有如乎...”;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03쪽. 영조 4년 3월 26일 전라감사 정사효 장계. “...一時到付, 左營將孫命大馳報內...屬邑軍兵, 各邑守令沒數領赴之意, 傳令分付爲乎旴, 舉行形止, 爲先星火馳報爲臥乎所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57~458쪽. 영조 4년 3월 26일 남원부사 김유 장계. “...本月二十四日...報狀發送移時之後, 左營將關文, 及信箭來到, 令臣調發軍兵, 刻期餘領付亦爲白如乎...”

58)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550~551쪽. 영조 4년 3월 27일 운봉좌영장 손명대 장계. “...凡係徵發之事, 宜待朝令是白乎矣, 急於登時捍賊, 只據巡營回題, 先調屬邑軍兵. 臣伏不勝惶恐埃罪...”

감사의 위임을 받은 군령이었기에 김유는 거부하지 못하고 2초의 병력을 추가로 선발해 남원에서 출발했다.⁵⁹⁾ 이외에 전령을 받은 다른 속읍의 수령들도 속오군을 이끌고 팔랑치에 집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26일까지 도착한 지방관은 곡성현감 이동필(李東弼)뿐이었고, 남원부사 김유와 장수현감 권만두(權萬斗)는 병력을 직접 이끌고 오다가 병이 나서 병력만 보냈다. 창평현령 박수인(朴壽仁)과 옥과현감 엄한중(嚴漢重), 구례현감 신벽(申璧)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도 일단 26일까지 도착한 병력을 팔랑치와 황산(荒山)의 요충지에 배치하였다.⁶⁰⁾

이후 27일까지 팔랑치에 집결한 병력은 원래 있던 운봉 2초에 남원에서 5초, 곡성에서 2초, 장수에서 3초, 옥과에서 2초, 구례에서 1초, 창평에서 3초, 총 18초였다.⁶¹⁾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운봉

59)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399, 402~403쪽. 영조 4년 3월 26일 전라감사 정사효 장계. “卽刻到付, 今三月二十五日成貼, 南原府使金濰馳報內…左營將送信箭, 及關文本府束伍軍兵, 全數徵發, 使之赴八良嶺, 協守亦爲有臥乎所, 營將旣送信箭, 則不可不赴, 今方調發軍丁爲乎矣.”;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57~462쪽. 영조 4년 3월 26일 남원부사 김유 장계. “…本月二十四日…移時之後…左營將關文, 及信箭來到, 令臣調發軍兵, 刻期餘領付亦爲白如乎, 本府城守, 雖萬分緊急是白乎乃, 營將旣送信箭, 則其在軍法, 不可不承, 而本城安危, 有不暇恤是白乎等以, 臣又選二哨軍兵, 親自領出城門, 則滿城男女, 哭聲徹天, 將爲四面分散之計是白去乙, 臣駐兵路上, 多般曉諭言, 吾之妻孥, 尙留城中, 領付軍兵後, 卽當還歸, 與爾等以死守堞, 慎勿驚恟申申言說, 始乃鎮定爲白乎旵…” 3월 26일 남원부사의 보고에서는 마치 3월 24일 밤에 모든 군사를 이끌고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더라도 늦은 밤에 군사를 거느리고 이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출발하면서 겪은 일들도 한밤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3월 25일에 전라감사에게 보낸 보고 마지막 내용이 남은 병력 2초를 거느리고 남원성을 떠나기 직전의 상황을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5일에 운봉영장의 관문과 신전이 도착해 남원부사가 남은 병력을 이끌고 출발했다고 추정하였다.

60)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563~564쪽. 영조 4년 3월 28일 전라감사 정사효 장계. “…卽到付, 雲峰縣監孫命大, 今月二十六日, 成貼牒呈內…本鎮所屬各邑軍兵段, 南原起送五哨兵, 而府使金濰以身病, 不得領付是如爲乎旵, 谷城縣監, 當日朝, 親自領付, 長水縣監, 到中路得病是如, 軍兵叱分沒數來付爲有旵, 昌平縣令, 玉果縣監, 求禮縣監, 姑未齊到爲有旵, 上項各邑軍兵, 來赴者, 則隨到隨赴於八良, 荒山要害險阨處, 以盛軍威誓, 使賊兵不得踰嶺是遣…”

61)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550쪽. 영조 4년 3월 27일 운봉좌영장 손명

영장이 속읍을 통해 동원할 수 있는 최대 병력은 마병 2초와 속오군 34초에 표허군, 당보군, 수솔군 등을 더해 약 5,000여 명 내외였다. 그러므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약 2/3만 소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세를 불린 경상도 반란군은 28일에 함양까지 진출하였다. 이때에는 이미 손명대가 소집한 전라도 관군이 고지를 점령한 뒤였고, 운봉영장 손명대도 직접 팔랑치에 올라와 있었다. 함양이 함락되기 직전에 팔랑치로 피신한 박사한이 반란군의 접근 소식을 알렸고 손명대가 바로 정찰을 보내 상황을 확인하니 이미 반란군이 함양으로 들어온 상황이었다. 이에 손명대는 적극적으로 함양으로 내려가 반란군을 토벌하는 계획도 고려했다. 그러나 조정의 명령 없이 경계를 넘어가는 행위는 함부로 제멋대로 구는 죄[專輒之罪]가 될 수 있었다. 그렇기에 함양에 주둔한 반란군의 상황을 계속 정탐하면서, 부대의 진용을 펼쳐 팔랑치와 황산 등을 굳게 지키며 경상도 반란군의 월경에 대비했다.⁶²⁾

결국, 경상도의 반란군은 이런 지방군의 대응에 팔랑치를 넘기 쉽지 않음을 깨닫고 하루 정도 대치하다가 별다른 군사적 충돌 없이 30일 새벽에 부대를 둘로 나누어 각각 안음과 거창으로 돌아갔다. 대신 최존서(崔存緒)를 가짜 함양군수로 임명해 관아를 장악하게 하고 관아의 무기 등을 거창과 안음의 반란군에게 수송하도록

대 장계. “...南原兵五哨, 谷城兵二哨, 長水兵三哨, 玉果兵二哨, 求禮兵一哨, 昌平兵三哨, 已爲來赴, 與雲峰兵二哨, 合力把守, 控制八良, 誓使此賊, 不得越嶺爲白在果...”

62) 『사변일기(事變日記)』 권3(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영조 4년 8월에 도착한 운봉영장 손명대 장계. “...臣以二十八日, 親自巡視嶺上, 軍陣爲白如乎. 咸陽郡守朴師漢, 奔告內, 賊兵直擣咸陽是如爲白乎所, 臣急使走探, 則賊已陷城入據. 聞來不勝驚駭, 直欲領兵進討, 決死一戰是白乎. 不待朝令, 行軍出境, 尤有專輒之罪是白乎等以, 臣盛張軍容, 固守諸處險要...” 이 장계의 원문은 『무신별등록』에 보이지 않아 작성일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무신별등록』 권2 끝 부분과 권3 앞부분에 각각 낙장이 있어, 4월 3일에 도착한 보고 일부와 4월 4일부터 9일 사이에 도착한 보고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했다. 이에 운봉영장 손명대 등은 병력 수십 명을 보내 반란에 가담한 최존서 등을 사로잡고 함양을 탈환하였다.⁶³⁾

4. 결론 : 전라도 지역 반란 대응체계의 문제

이상에서 전라도 지역의 대응체계와 병력 동원 규모 등을 검토하고, 무신란 당시 경상도 반란군이 전라도로 넘어오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실제로 병력을 소집해 대응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반란군이 주요 고지인 팔랑치까지 진출하기 전에 관군이 먼저 집결해 경상도 반란군의 전라도 진입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라도 지역의 반란 대응체계는 지휘체계와 병력동원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분석·정리하였다.

먼저 지휘체계의 혼선과 지휘관의 역량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지방군의 지휘체계는 기본적으로 감사-병사-영장-수령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감사와 병사, 영장이 모두 병사를 동원할 수 있는 발병부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명목상 감사의 지위가 병사보다 높았지만, 실제 병무에 있어서는 병사도 대등한 지위에 있었다. 반면 지리의 한계상 전주감영 인근 고을의 지휘는 겸병사인 전라감사가 지휘해야 했다. 이러한 지휘체계상의 난맥상은 실제 반란 대응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명령을 내리는 혼란상을 연출했다.

특히 경상도 반란군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접경지역을 수비하는

63) 『사변일기(事變日記)』 권3, 영조 4년 8일에 도착한 운봉영장 손명대 장계. “…晦日曉頭良中, 賊兵二派, 盡爲退走, 而一派則還屯居昌, 一派則還屯安陰爲白遣。賊將以咸陽人崔存緒, 留爲僞郡守, 入居官衙, 因以行公, 又爲輸送軍器於賊中是如爲白去乙。臣即發手下精兵數十人, 使軍官張漢三, 朴起龍, 領往而咸陽郡守朴師漢, 亦送其所帶下吏徐文徵, 使令宋有發, 捉得存緒縛縛以來爲白有置。此賊罪惡誠不容一刻置之於覆載間是乎等以, 卽爲臬示陣前爲白遣…”;

전략에서도 감사와 병사는 서로 다른 지시를 내렸다. 전임 전라감사 정사효는 소극적으로 팔랑치의 수비만 운봉영장 손명대에게 지시했다. 전라병사 조경은 3월 24일에는 무주(茂朱)의 수비를 지시하면서, 후영장 겸 여산부사 유성징(柳聖澄)이 용담(龍潭)과 금산(錦山)의 군대를 동원하여 수비하도록 지시하였다.⁶⁴⁾ 27일에는 운봉에 모인 병력이 고작 10여 초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보고 즉시 운봉 좌영 속읍의 수령에게 모든 병사를 소집하도록 지시했다.⁶⁵⁾

반면 후임 전라감사인 이광덕은 이와 다른 지시를 내렸다. 즉, 3월 30일에 운봉 팔랑치는 전라병사 조경과 좌영장 손명대가 운봉, 남원, 임실, 곡성 등 네 고을의 병력을 동원해 수비하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팔랑치를 수비할 병력이 부족해질 수도 있으므로 전라감영에서 정병 2초를 뽑아 보내주어 보완하였다.⁶⁶⁾ 팔랑치 이외에 반란군이 넘어올 수 있는 다른 경로인 화개동(花開洞)은 구례 현감이 지키고, 육십령(六十嶺)은 진안 현감 이정(李淨)이 진안과 장수 두

64)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97~498쪽. 영조 4년 3월 24일 전라병사 조경 장계. “…且念自安陰, 由知禮縣, 作路於茂朱, 則乃是到清州之路, 而其間道里若由直路…今此賊徒, 若欲合勢於清州, 則徑到茂朱之弊, 難保其必無乙仍于, 亦令茂朱, 調探賊情, 果由千萬嶺而來, 急發本府軍兵, 先爲進守嶺陔. 而茂朱軍兵, 並計赤裳山城之屬, 不過八百七十名, 則以此疲殘些少之軍, 難以防遏方張之賊勢. 故茂朱近邑, 龍潭, 錦山之軍, 亦令調發添數防守之意, 後營將柳聖澄處, 及龍潭, 錦山, 兩邑良中, 一體發關嚴飭爲白遣. 自臣營定送軍官於雲峰, 茂朱兩處, 使之調探, 星火馳告是白在果…”

65)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590~591쪽. 영조 4년 3월 27일 전라병사 조경 장계. “…同月二十七日卯時到付, 左營將孫命大馳內…其越境之患, 迫在頃刻, 南原三哨, 各邑軍兵折半, 已爲聚待於嶺陔是乎矣, 不可以如十餘哨之軍, 萬無防備之路乙仍于, 屬邑軍兵, 各邑守令, 沒數領赴之意, 傳令分付爲乎於…自雲峰由南原, 至任實全州, 則卽西上之路, 而任實全州, 乃是中營將管邑是白遣, 礪山亦, 亦後營將所住之處, 而與全州相接, 一串沿路, 直由礪山是白乎等以, 速發屬邑軍兵, 整待於防守之處事. …緣由爲先馳啓事. 三月二十七日封啓.”

66)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600쪽. 영조 4년 3월 30일 전라감사 이광덕 장계. “…其中八良嶺段, 自是湖嶺間大路, 賊兵且近同嶺, 若使彼賊, 終有越境之舉, 則勢將必取此路, 其爲防守, 非比他路. 故以兵使趙徹, 左營將孫命大, 領雲峰, 南原, 任實, 谷城等, 四邑軍兵, 使之合力防守, 而自臣營, 亦擇精兵二哨, 別定將校二人, 罔夜領送于八良, 使助軍勢爲白乎於…”

고을의 병력으로 지키도록 했다. 지례와 무주의 경계는 무주부사 조유수가 진산(珍山)과 금산, 무주, 용담 등 네 마을의 힘을 합쳐 수비하게 했고, 섬진(蟾津)은 광양에서 홀로 지키도록 했다.⁶⁷⁾

이러한 두 지시에서 무주 지역의 수비에 관한 명령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지만, 운봉 좌영장의 속읍인 장수와 구례에 대한 감사와 병사의 명령은 서로 상충하고 있다. 즉, 병사는 속읍의 모든 병사를 소집해 팔랑치를 지키라고 했는데, 감사는 구례의 병력으로 화개동을 지키고 장수의 병력은 육십령으로 보내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감사의 지위가 높다고 하지만, 이처럼 감사와 병사의 서로 다른 지시가 도착했다면 각 지역의 지방관은 어떤 명령에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와 같은 감사와 병사의 지휘체계 혼선은 이미 제도상에서 예견되었던 문제가 결국 현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 병폐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휘체계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지휘관의 개인 역량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지방관이 근무에 익숙할 수 없었으므로 긴급한 순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남원부사 김유는 반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정찰보고에서 반란군이 집결한 장소를 안음과 거창이 아닌, 지리산 남쪽 산자락에 있는 연곡사(鸞谷寺)와 쌍계사(雙溪寺) 사이로 잘못 보고했다.⁶⁸⁾ 게다가 경상도 반란군이 넘어올 수 있는 거점

67) 『영조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599~600쪽. 영조 4년 3월 30일 전라감사 이광덕 장계. “...凡所防備之道, 今若失措, 終至越境, 則禍將難測, 而其所踰越之處, 不特八良一路而已. 河東, 求禮界之花開洞, 安陰, 長水界之六十嶺, 智禮, 茂朱地境, 與光陽地, 蟾津, 俱有大小間通路, 不可不一體防守乙仍于, 臣於到營之日, 參酌大小路形勢, 卽爲部署各邑. 河東求禮界花開洞段, 使求禮獨力防守. 安陰長水界六十嶺段, 以鎮安縣監, 李淨, 督戰將差定, 使鎮安長水兩邑, 合力防守. 智禮茂朱地境段, 以茂朱府使, 趙裕壽, 督戰將差定, 使珍山, 錦山, 茂朱, 龍潭等四邑, 合力防守. 光陽地蟾津段, 使光陽, 獨當防守, 以備不虞爲白乎旅...”

68)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399쪽. 영조 4년 3월 26일 전라감사 정사효

인 팔랑치 수비보다 남원성 수비를 더 중시했다. 즉,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계속된 운봉영장 손명대의 병력 지원 요청은 거절하였다. 반면 남원성 수비를 위해서 남원 경내의 승군(僧軍)까지 동원하여 수비의 요충지인 교룡산성(蛟龍山城)의 성가퀴를 보수하려 했다.⁶⁹⁾ 심지어 김유는 손명대가 징발한 병력 중 옥과(玉果)의 병력이 25일에 남원성 밑에 도착했을 때, 이를 다시 돌려보내 구례를 지키게 하려고 했다.⁷⁰⁾ 이는 팔랑치가 소수로 다수를 막을 수 있는 거점이므로 운봉영장 손명대가 단독으로 지킬 수 있지만,⁷¹⁾ 반란군이 거짓으로 팔랑치를 넘는 척하면서 구례 방면으로 우회해서 진출할 경우 남원이 위협하게 되므로 구례 방면을 지켜야 한다⁷²⁾는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월권이었다.

병력 동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신속한 소집이 어려웠다는 점과 실제 모인 병력의 규모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우선 소집의 문제는

장계. “卽刻到付, 今三月二十五日成貼, 南原府使金灘馳報內…昨日, 偵探將校來言內, 河東, 燕谷, 雙溪之間, 賊兵大聚…”; 『영조실록』 4년 3월 29일 기묘;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55쪽. 영조 4년 3월 26일 남원부사 김유 장계. “…臣聞甚驚駭, 枚報營門, 而死病未蘇, 精神昏錯, 賊將留屯古縣一款, 誤以留屯燕谷, 書之. 賊騎往來燕谷雙溪一款, 誤以出沒, 安陰, 咸陽, 書之爲白有如乎. 賊情探報, 何等重事, 而如是大錯, 惶恐死罪, 恭俟誅罰是乎玆…”

69)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02쪽. 영조 4년 3월 26일 전라감사 정사효 장계. “…本府在兩南要衝之處. 又是必爭之地, 賊徒之四面屯聚者, 又如甚是甚多. … 蛟龍山城, 城堞頽圯, 且無守直軍兵許多, 軍糧, 軍器所在之處, 不可無備. 故調發境內僧軍, 且定將校二三人, 城堞頽圯處, 伐木作柵, 募軍堅守, 爲本城犄角之計是乎玆…”

70)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01쪽. 영조 4년 3월 26일 전라감사 정사효 장계. “…而求禮附近是在谷城兵, 自左營, 昨日徵赴是遣, 玉果兵又爲徵發. 今日玉果兵, 到本府城下是去乙. 府使欲玉果領兵將, 姑爲留屯城下, 以求禮可憂之端, 論報營門及左營, 而還送玉果軍, 以爲求禮路防守之計矣…”

71)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55쪽. 영조 4년 3월 26일 남원부사 김유 장계. “…安陰之賊, 若欲作亂湖南, 則當從雲峰來. 而安陰, 雲峰之間, 有所謂八嶺時, 嶺路絕險, 號稱一夫當關, 萬夫莫開之地. 此則雲峰左營, 猶可以防守是白乎矣…”

72)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59쪽. 영조 4년 3월 26일 남원부사 김유 장계. “…竊伏念, 若或見欺於賊兵踰嶺之虛聲, 都聚各邑軍兵於八嶺是白如可, 賊尙從求禮來出其後, 則不但八嶺失守, 臣府亦不得守矣. 其在慎戎機之道, 固當堅守八嶺, 分兵守求禮路, 以備不虞是白遣. 況臣所守之城, 實是三南要害之地…”

우선 영장과 수령 사이의 지휘권 문제와도 관련이 있었다. 즉, 영장이 수령에 대한 지휘권이 있다고 해도 남원부사 김유의 사례에서 보듯 조정의 명령이 없었다는 핑계로 거절할 수 있었다. 게다가 설령 바로 소집에 응한다고 해도 병력이 집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쉽게 단축할 수가 없었다. 앞서 사례에서 보면 21일에 반란을 인지하고도 23일에 처음 소수의 병력만으로 팔랑치로 이동했고, 24일까지도 모인 병력은 10여 초에 불과했다. 이후 27일에서야 겨우 병력의 집결이 완료되었는데, 이는 반란군이 팔랑치 인근 함양을 점령하기 하루 전이었다. 또한 27일까지 팔랑치에 집결한 병력은 18초로, 운봉 좌영장이 소집할 수 있는 명목상의 최대 병력 규모인 5,000여 명의 2/3에 불과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전라도 지역의 반란 대응체계를 평가하자면, 첫째, 남포군화의 진행으로 속오군 중심의 지방군 동원 체계가 이미 상당 부분 무너져 있었다. 둘째, 지휘체계의 혼선과 군사동원의 문제를 지방관 개인 역량으로 떠안는 체계였다. 즉, 그나마 반란군보다 주요 고지를 먼저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반란군이 민간인들로 조직되어 있어 전체적인 숙련도와 군사역량이 부족했던 반면, 일부 전라도 지방관, 특히 운봉현감 겸 좌영장 손명대가 적극적으로 활약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라도 지역의 군사 대응체계는 반란은 제압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처럼 미리 준비하고 기습적으로 침공하는 외적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평할 수 있다.

다만 사료상의 한계로 전라감영의 아병이나 전라병영의 친병을 비롯한 전라도 지역 지방군 전체의 병력 동원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경상도나 충청도 지역의 대응 양상과 비교하지 못해, 전라도 지역 대응체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 해도 본 연구는 전라도 지역의 반란 대응체계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무신란이라는 실

제 사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운용을 살핀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원고투고일 : 2019. 1. 6, 심사수정일 : 2019. 2. 1, 게재확정일 : 2019. 2. 14)

주제어 : 무신란, 영조, 대응체계, 군사제도, 지방제도, 지휘체계, 병력동원, 손명대, 팔량치



〈참 고 문 헌〉

-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사변일기(事變日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무신별등록(英祖戊申別騰錄)』 1~5, 『각사등록(各司騰錄)』 67~69, 국사편찬위원회, 1993
『완영병제총록(完營兵制總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고정훈 저, 김동수 교감·역주, 『호남절의록』, 경인문화사, 2010
고정훈,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 『호남임진왜란사료집』 4, 전라남도, 1990
변주승 역주, 『추안급국안』 41~47권, 흐름, 2014
고성훈, 『영조의 정통성을 묻다 -무신란과 모반사건』,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고수연, 『1728년 무신란과 청주지역 사족동향』,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사』, 경인문화사, 2000
문경득, 『전라도 지역 무신란(戊申亂) 연구』, 전주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서태원, 『조선후기 지방군제연구 -영장제를 중심으로-』, 혜안, 1999
송양섭, 「지방군의 개편과 지역방어체제의 정비」, 『한국군사사』 8, 육군군사연구소, 2012
유동호, 『조선후기 지방군제의 변화와 하삼도 병영 운영』,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이영춘, 「정치적 변란인가 민중의 반란인가 - 영조 무신란, 고성훈 외, 『민란의 시대 -조선시대의 민란과 변란들』, 가람기획, 2000
이우성, 「지방토호 대 중앙권력층의 투쟁」, 『경상남도지』 상, 1959
이종범, 「1728년 ‘무신란’의 성격」, 『조선후기 정치사의 재조명』, 범조사, 1985
이종범, 「3. 여러 지역의 항쟁과 ‘무신란」, 『한국사』 36, 국사편찬위원회, 1997
이희권, 「조선후기 수령의 통치행정기능」, 『조선후기 지방통치행정 연구』, 집문당, 1999
장필기, 『영조 대의 무신란 -탕평의 길을 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정석중, 「영조 무신란의 진행과 그 성격」,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 한길사, 1995

- 조준호, 「영조대 『수성절목』의 반포와 수도방위체계의 확립, 『조선후기 수도방위체계』, 서울학연구소, 1998
- 차문섭, 『조선시대 군제연구』, 단국대 출판부, 1977
- 고수연, 「1728년 호남 무신란의 전개양상과 반란군의 성격, 『역사와 담론』60, 2011 (UCI : G704-001545,2011..60.005)
- 고수연, 「조선 영조대 무신란의 실패 원인, 『한국사연구』 170, 2015 (UCI : G704-000361,2015..170.012)
- 고수연, 「청주지역 영조 무신란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42, 2007 (UCI : G704-000303,2007..42.002)
- 김동수, 「호남절의록의 사료가치 검토(1), 『역사학연구』 44, 호남사학회, 2011 (UCI : G704-001257,2011..44.001)
- 문경득, 「무신란(戊申亂) 당시 남원·태인 지역 반란군의 입실 집결과 특징, 『전북사학』52, 2018 (DOI : 10.28975/jha,2018.03.52.163)
- 송양섭, 「조선후기 강진병영의 지휘체계와 군수조달, 『역사학연구』 52, 2013 (UCI : G704-001257,2013..52.002)
- 오갑균, 「영조 무신란에 관한 고찰, 『역사교육』 21, 1977
- 유동호·이석린, 「조선후기 하삼도 지역의 군사편제와 군병조직, 『군사』 93, 2014 (DOI : 10.29212/mh,2014..93.191)(UCI : G704-001528,2014..93.004)
- 유승주, 「朝鮮後期 貢人에 관한 一研究(下) -三南月課火藥契人の 受價製納實態를 中心으로-, 『역사학보』 79, 1978
- 유한선, 「영조 4년 戊申亂과 전라도 의병, 『전북사학』39, 2011 (UCI : G704-002047,2011..39.010)
- 이근호, 「영조대 무신란 이후 경상감사의 수습책, 『영남학』 17, 2010 (UCI : G704-002018,2010..17.001)
- 이상욱, 「영조 무신란의 연구, 『우석사학』 2, 1969
- 이욱, 「조선 영조대 무신란과 안동 지방의 ‘의병’, 『한국사학보』 42, 2011 (UCI : G704-000690,2011..42.007)
- 이원균, 「영조 무신란에 대하여-영남의 정희량 난을 중심으로-, 『부대사학』 2, 1971
- 이재철, 「18세기 경상우도 사림과 정희량난, 『대구사학』 31, 1986
- 허태웅, 「1728년 무신란의 진압과 『감란록』의 편찬, 『한국사연구』 166, 2014 (UCI : G704-000361,2014..166.007)

<Abstract>

Response System to Rebellion and Its Operation in Jeolla province

—Focusing on the defense against rebel forces in Gyeongsang province during the rebellion in the year of Musin—

Mun, Gyeong-deu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mmand system and mobilization patterns of the local forces in Jeolla province with the activities to defend the Gyeongsang rebel forces' advance to Jeolla Province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of military system. For this purpose, I searched the studies about the local systems and military ones to review the response system to rebellion in Jella province. And then, using "the official document file of the Musin Rebellion(『戊申別膽錄』)", which included the reports from local governors during Musin rebellion, I could confirm how the local governors responded to the rebel forces from Gyeongsang under the military system at that time.

In the beginning of 18th century, the command system of regional military consisted of provincial governor(監司), provincial military commander(兵使), local divisional commander(營將), and district magistrate(守令) in order. In addition, the troops that could be mobilized in the Jeolla province were the ivory soldiers(牙兵) of headquarters of the provincial governor(監營), the personal troops(親兵) of provincial military commander's headquarters(兵營) and the regimental troops(東伍軍) in local divisional commander's garrison(鎮營). But as the cases of exemption of military service were spreaded out at that time, it is impossible to estimate the number of soldiers to have been mobilized from the headquarters of the provincial governor(監營)

and the provincial military commander's headquarter. However, the maximum troops that could be nominally mobilized by the local divisional commander of Unbong(雲峯) included around 5,000 people, 2 companies of horsemen, 34 companies of infantry and so on.

The news that the rebellion occurred in Chongju(淸州) on March 15 was delivered to Jeolla province on the evening of 18th. In response to this, Jeolla province mobilized military forces. In the middle of it, the news that the rebellion in Gyeongsang Province occurred on 20th was delivered to Jeolla Province on the 21st. From the moment, Son Myeongdae(孫命大), county magistrate of Ungong and local divisional commander, made a reconnaissance to confirm the rebellion and urgently mobilized the troops to defend the Hill of Pallyang(八良峙), a very important strategic point.

However, Kim Yu(金維), district magistrate of Namwon(南原) refused because there was no official order by royal court, and it was not until he received the order of provincial governor that he supported soldiers. What's worse, it was not easy to gather soldiers quickly, so that only 50% of their troops were gathered on the 27th. The next day, on the 28th, the rebel occupied Hamyang(咸陽), nearby area, and proceeded to the Hill of Pallyang. But the rebels retreated at dawn on the 30th after the provincial troops preoccupied the highlands first.

After examining the response system to rebellion and the mobilization of troops, it is certain that there was a problem in the commander's capacity due to the confusion of the command system resulting from the structural defects of the system, and the military command of the non-specialist. Also, the troops couldn't be quickly mobilized, and the mobilized troops were only 2/3 against the nominal number. This shows that the regional response system to the rebellion had already been largely collapsed, and that the institutional and structural problems had to be supplemented by individual capabilities.

Key words : Musin Rebellion(戊申亂), Yeongjo(英祖), response system, military system, local system, command system, troop mobilization, Son Myoengdae(孫命大), Hill of Pallyang(八良峙)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0, pp.273-314
<https://doi.org/10.29212/mh.2019..110.8>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이순신 해외 전파의 연결고리: 제임스 머독의 <일본의 역사>

석영달*

1. 들어가며
2. 머독의 생애와 일본사 집필의 계기
3. 머독의 일본사 서술 재평가와 이순신-넬슨 담론
4. 머독 커백션 : 이순신 해외전파의 연결고리
5. 나가며

1. 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역사학이 오랜 세월 동안 ‘숭고한(noble)’ 학문으로 대접받아왔던 것은 역사학 그 자체가 갖는 학문적 가치와 성과뿐만 아니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민족주의 역사학’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민족주의 역사 서술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과 같은 수사(rhetoric)는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

*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을 때 국민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동원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의 역사 서술에서도 유사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이뤄지던 20세기 초의 역사서술에서 여러 ‘민족영웅 담론’으로 발현되어 나타났다.

이 시점에 주목받았던 여러 민족영웅 가운데 ‘이순신’은 당시 조선의 상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인물이었다. 일제 강점기에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직접적으로 침략의 당사자인 일본과 싸워서 이긴 인물인 이순신은 ‘민족의식 고취’라는 대의에 가장 잘 부합했다. 때문에 당시의 민족 영웅 담론에서 이순신은 다른 영웅들보다 더욱 부각되어 다뤄졌고, 이런 담론 속에서 신채호, 박은식 등의 글을 통해 ‘조선의 영웅 이순신과 영국의 영웅 넬슨(Nelson)의 비교’라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구도가 등장하게 된다.¹⁾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이순신과 넬슨을 비교하는 담론이 단지 ‘민족주의 역사’를 서술하고자 했던 조선의 역사가들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구도는 이미 조선의 민족주의 역사서술 이전부터 일본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서양의 역사가들에 의해 형성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국내에서는 이런 ‘외국의 시선에서 쓰인 역사’를 근거로 하여 ‘이순신과 넬슨의 비교’를 우리의 입맛대로, 때로는 다소 우쭐해하며 받아들여 왔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에 이르러서는 국내에 “외국에서도 이순신이 넬슨과 같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라는 인식이 거의 굳혀져있는 상태이다.²⁾

물론 이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세계의, 특히 일본과 영미권의 여러 학자들이 이순신

1) 노영구, 『영웅만들기』 역사 속의 이순신 인식, 『역사비평』 통권 69호(2004), pp. 348-350.

2) 이순신-넬슨 비교 담론의 등장과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김준배, 「근대 일본 이순신(李舜臣)·넬슨(Nelson) 비교 담론의 등장과 변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담론의 영향을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제38집(2017)을 참고할 것.

이라는 인물이 남긴 업적과 그의 역량에 대해 연구하고 높이 평가하였으며, 넬슨을 인용하며 이순신에 대해 서술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이순신이 해외에서 넬슨과 동등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식의 일반화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이것이 ‘세계 4대 해전’과 같은 근거 없는 담론의 등장이나,³⁾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Tōgō Heihachirō)가 스스로를 “넬슨과는 비교할 수 있지만, 이순신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는 허구적인 이야기를 재생산하는 배경이 되어서도 안 된다.⁴⁾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의 학계나 언론에서는 서구의 과거 문헌들에서 얼마나 이순신을 대단한 영웅으로 그려냈는지를 번역, 나열하는 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⁵⁾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이순신이 왜 그러한 구도로 서술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은 없이, 그것을 맹목적으로 ‘이순신에 대한 찬사’로만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필자는 지난 몇 년간 ‘서양에서 바라본 이순신’이라는 연구 갈래에서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서양의 이순신 관련 저술들을 들여다보고자 노력했다. 이를 통해 한국사를 최초로 영어로 저술한 미국인 학자 호머 베잘렐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1863~1949)의 서술, 그리고 ‘이순신-넬슨’ 비교로 국내에 가장 잘 알려진 영국의 해군 장교 조지 알렉산더 벨러드(George Alexander Ballard)의 일본사 서술 속 이순신

3) ‘세계 4대 해전’의 근거에 대한 논의는 석영달, 「‘세계 4대 해전’의 근거에 대한 고찰 - 국내의 ‘세계 4대 해전’ 담론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군사』 제101호(2016)를 참고할 것.

4) 이소오의 이순신에 대한 언급과 관련한 논의는 김주식, 「이순신에 대한 일본인의 연구와 평가」, 『해양문화재』 제4호(2011), pp. 215-220을 참고할 것.

5) 국내의 학계에서 이뤄진 ‘서양에서 바라본 이순신’ 관련 연구 중 김주식의 논문은 이순신을 언급한 서양 학자들의 계보를 정리하는 데에는 큰 도움을 주지만 그 학자들의 텍스트가 갖는 함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조덕현의 논문은 김주식의 논문에서 미국 학자들과 관련된 내용만 간추려 정리하고 좀 더 보완한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어 학문적 가치를 논하기는 어렵다. 김주식, 「이순신에 대한 서구의 연구와 평가」, 『해양평론』 (2011); 조덕현, 「미국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순신 제독」, 『이순신연구논총』 통권 제27호(2017).

관련 내용을 재조명해보았다.⁶⁾

그런데 이처럼 ‘서양의 이순신 서술’이라는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지는 헐버트와 벨러드라는 인물 사이에는 오랜 세월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중요한 미싱 링크(missing link) 하나가 남아 있다. 그것은 바로 스코틀랜드인 제임스 머독(James Murdoch, 1856-1921)이라는 인물이다. 머독은 1903년부터 3권이 되는 방대한 분량의 일본사 저서를 차례로 발간하면서 그 속에서 헐버트와 벨러드 못지않게 이순신과 임진왜란을 자세히 다루었다. 머독의 일본사 3부작 가운데 2권에 해당하는 책에서는 임진왜란이 6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에 걸쳐 서술되었으며,⁷⁾ 이것을 헐버트와 벨러드의 글과 함께 살펴보면 머독이 헐버트의 글을 인용하였고 훗날 벨러드가 머독의 글을 인용하였다는 명확한 연관 관계도 살펴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계에서는 이순신의 해외 전파와 관련하여 머독이 앞의 두 학자와 주고받은 영향이나 그의 저술 자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⁸⁾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6) 이 두 명의 학자들은 이순신과 임진왜란 속 해전에 대해 자세히 다루면서 이순신의 역량을 벨슨과 비교하며 극찬하였다는 이유로 국내의 이순신 연구자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었지만, 그들이 이순신에 대하여 서술한 동기와 텍스트에 담긴 함의 등은 이전까지 다루지지 않았다. 여기서 필자의 두 연구의 핵심은 이 두 서양인이 단순히 이순신을 칭송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그들의 저술 목적에 맞게 이순신을 적절히 전유(appropriation)했음을 보이고자 한 것이었다. 석영달, 「1920년대 초 영국 해군 장교의 일본사 서술 속 이순신 읽기-조지 알렉산더 벨러드의 『해양이 일본 정치사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제55집(2016); 석영달, 「세계 속의 충무공 읽기-호머 헐버트의 이순신 관련 서술들을 중심으로」,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 해양』 제3호(2016)을 참조.

7) 2권에 해당하는 책은 총 74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임진왜란이 적지 않은 분량으로 다루지고 있다.

8) 일본에서는 머독이 소설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Natsume Soseki)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으며, 머독의 생애에 대해 히라카와 스케히로(平川祐弘, Hirakawa Sukehiro), 스키야마 타마키(杉山環, Sugiyama Tamaki) 등의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도 머독의 이순신 관련 서술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다. 平川祐弘, 『漱石の師マードック先生』(講談社学術文庫, 1984); 杉山環, 「James Murdoch-1-書誌的研究」, 『岡山商大論叢』 18 (1983); 杉山環, 「James Murdoch-2-書誌的研究」, 『岡山商大論叢』 19 (1983) 등을 참조.

국내의 연구들 가운데 ‘서양에서 바라본 이순신’이라는 주제의 가장 초창기 연구로 손꼽히는 김주식의 「이순신에 대한 서구의 연구와 평가」는 머독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은 하고 있으나, 머독과 그의 서술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오히려 김주식은 이 글에서 머독과 관련하여 독자들에게 다소 오해를 가져다 줄 소지까지 남기고 있다. 그 중 특히 머독이 임진왜란과 이순신을 다룬 일본사를 서술할 때 1905년에 출판된 헐버트의 책을 인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머독의 책이 헐버트의 책보다 오히려 2년 더 이른 1903년에 출판되었다는 의문은 독자들에게 큰 혼동을 가져다줄 수 있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머독이 책을 쓰면서 대부분 일본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오류가 많다는 주장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⁹⁾

그리고 국내에서 머독이 평가절하 받아왔던 또 다른 이유인, 일제 치하 통감부의 기관지 『서울프레스』(*The Seoul Press*) 사장이었던 야마가타 이소오(山縣五十雄, Yamagata Iso, 1869-1959)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편향적으로 역사를 서술했다’는 부분 역시 재고가 필요하다.¹⁰⁾ 머독의 역사 서술 과정에 있어 이소오라는 인물이 마치 그의 보조처럼 언급되고, 이소오가 조선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머독의 글에 이소오의 영향력이 얼마나 작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이순신과 관련한 학계의 논의에서 소외되거나 오해를 받아 왔던 머독의 존재와 그의 저술의 가치에 대해 분명히 밝히면서 ‘헐버트-머독-밸러드’로 이어지는 이순신의 해외 전파 계

9) 김주식, 「이순신에 대한 서구의 연구와 평가」, 『해양평론』 (2011), p. 15.

10) 명지대학교도서관 한국관련 서양고서DB 검색시스템, 「<A History of Japan> 해제」 (접속일: 2019. 1. 10. URL: http://www.e-coreana.or.kr/classic/fractionate_se_04_popup.jsp?book_id=AC_ENG_0515&vol_id=01&lang_flag=e&cmd=haeje);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 『성웅 이순신-그의 생애와 업적에 대하여』 (서울: 용화출판사, 2005), p. 21.

보를 명확히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당시에 머독이 어떤 상황에서 일본사 집필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일본사 속에서 이순신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볼 것이다. 또한 이소오와의 관계와 그로부터 받은 도움의 범위를 명확히 밝히며 머독의 일본사 서술이 ‘일본인 조수에 도움을 받고, 일본의 자료로만 서술된, 오류가 많은 역사’ 정도로 치부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고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머독이 남긴 3권의 일본사 저서 『일본의 역사 I, II, III』(*A History of Japan Vol. I, II, III*)¹¹⁾와 머독의 저서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리뷰 등을 살펴보면서 논지를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먼저 2장에서는 머독의 생애에 대해 간략히 다루면서 그가 일본으로 가게 된 배경과 일본사 집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일본사를 서술해 간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의 일본인 조수였던 이소오와의 관계 역시 함께 다룰 것이다. 이어 3장에서는 머독의 저서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이 책이 쓰였던 시점에 일본 내에 성행했던 담론들과 책 내용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헐버트, 벨러드의 글과 머독의 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가운데 머독의 저술이 이순신의 해외 전파 과정에서 갖는 함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1) James Murdoch, *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1542-1651)* (Kobe: The office of the “Chronicle”, 1903); James Murdoch, *A History of Japan: From the Origins to the Arrival of the Portuguese in 1542 A.D. Vol. I* (Yokohama: Kelly & Walsh, Ltd., 1910); James Murdoch, *A History of Japan Vol. III The Tokugawa Epoch 1652-1868*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 Co., Ltd., 1926).

2. 머독의 생애와 일본사 집필의 계기¹²⁾

영국에서의 머독의 삶

제임스 머독(James Murdoch, 1856-1921)은 1856년 9월 27일 스코틀랜드 킨카딘셔(Kincardineshire, 현재의 스톤헤이븐 인근) 페테레스소(Fetteresso) 교구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윌리엄 머독(William Murdoch)은 농가에 고용된 가난한 농부(farm servant)였으며,¹³⁾ 어머니 헬렌(Helen)은 머독이 태어난 지 10달 만에 결핵으로 사망했다. 머독의 유년시절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루고 있는 자료가 없어 정확하게는 알 수는 어렵지만, 이러한 출생 배경만으로도 그의 유년기가 그다지 평탄하지는 않았음은 짐작할 수 있다.¹⁴⁾

어려운 유년기 시절을 겪으면서도 머독의 학업에 대한 열망은 컸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일을 돕느라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았음에도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유명했던 머독은, 11살이라는 다소 늦

12) 머독의 생애와 관련해서는 데이비드 칼라일 스탠리 시슨스(David Carlisle Stanley Sissons)의 머독의 일생에 다룬 논문과 제임스 머독의 『일본의 역사』 3권의 서두에 실린 「제임스 머독(James Murdoch)」을 참고하였다. 『일본의 역사』 3권 서두에 실린 「제임스 머독(James Murdoch)」의 경우 이 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머독이 작고하여, 조셉 헨리 롱포드(Joseph Henry Longford)와 L. M. C. 홀(L. M. C. Hall)에 의해 완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롱포드나 홀, 혹은 그 외의 다른 인물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D. C. S. Sissons, “James Murdoch(1856-1921) - Historian, Teacher and Much Else Besides,”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Vol. 2(1987); James Murdoch, *A History of Japan Vol. III The Tokugawa Epoch 1652-1868*, ed. Joseph Henry Longford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 Co., Ltd., 1926), pp. vii-xvi.

13) Murdoch, *A History of Japan Vol. III*, p. vii.

14) 가난한 농민의 집안이었던 머독의 집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머독이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몇 달 이후에 써냈던 짧은 이야기인 『웹스터의 구애』(*The Wooing of Webster*)에는 그의 자전적인 이야기로 추측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머독은 이야기의 등장인물인 프란시스 웹스터(Francis Webster)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그려낸 것으로 보인다. Sissons, “James Murdoch,” pp. 2-3.

은 나이에 페테레스 교구 학교의 학생이 되었고,¹⁵⁾ 올드 애버딘(Old Aberdeen)의 문법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때 머독은 문법학교에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애버딘 대학(the University of Aberdeen)¹⁶⁾ 입학에 위한 장학 시험(Bursary examination)을 준비하는데, 그는 이 시험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하여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¹⁷⁾

대학 시절에도 머독은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특히 그리스어나 라틴어, 영어, 고전학 등에서는 독보적으로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이처럼 언어와 관련된 학문 분야에서 머독이 보여줬던 능력은 훗날 그가 고대 일본 사료를 직접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일본어를 습득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애버딘에서 훌륭한 학생으로 인정받은 머독은 장학금의 혜택과 함께 좀 더 높은 수준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잉글랜드의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나갈 기회를 잡았다. 머독은 1879년 10월 전도유망한 몇몇 스코틀랜드 학생들과 함께 옥스퍼드로 가게 되었고 옥스퍼드 대학의 우스터 칼리지(Worcester college)에 등록하였다.¹⁸⁾

그러나 머독이 옥스퍼드에서 보낸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는데, 첫째로 옥스퍼드에서 애버딘보다 크게 더 배울만한 것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고,¹⁹⁾ 둘째로 1880년 6월 목사의 딸이었던 루시 파크스(Lucy Parkes)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학생의 신분으로 생활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했던 머독에게 옥스퍼드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은 사치였고, 곧 아이가 태어나게 될 상황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애버딘으로 돌아와 그리스어 수업의 조교를 맡아 생계를 꾸리게 된다.²⁰⁾ 그리고 머독은 제대로

15) Murdoch, *A History of Japan Vol. III*, p. vii.

16) 애버딘 대학은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으로 평가되었다. Murdoch, *A History of Japan Vol. III*, p. viii.

17)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 4.

18)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p. 5-7.

19) Murdoch, *A History of Japan Vol. III*, p. viii.

취업하여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오스트레일리아의 학교에서 선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그는 1880년 11월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Queensland) 동부 항구도시인 메리보로(Maryborough)의 새로 생긴 문법학교에서 낸 교장 구인 공고에 지원하였고, 1881년 3월 임용되었다는 전보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머독의 본격적인 해외 생활이 시작된다.²¹⁾

해외에서의 머독의 삶

머독은 1881년 7월 30일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메리보로에 도착하여 교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주 이전에 교장 임용 공고에서 읽었던 “성직자나 목사는 받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반교권주의(anti-clericalism) 및 불가지론(agnosticism)의 입장이었던 머독에게 종교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그곳에서 지낼 수 있으리란 희망을 품게 했었다. 하지만 그곳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머독은 종교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로 보수적인 지역사회와 부딪쳤고, 부임한 지 불과 3년 6개월이 된 시점인 1885년 2월 첫째 주에 “그 해 6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사임하겠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학교의 이사들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다음 달인 3월에 머독을 해임했다. 이 해임의 표면적인 이유는 학교의 교직원 구성에 있어 머독이 이사들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그의 무신론적인 성향과 부인과의 원만하지 않

20) 1881년 4월 머독의 아들인 케네스 맥도날드 머독(Kenneth Macdonald Murdoch)이 태어났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결혼 직후 부인 루시가 임신하게 되었고, 머독은 아이가 태어난 이후의 가정생활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 8; Murdoch, *A History of Japan Vol. III*, p. viii.

21)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p. 7-8.

은 관계 등으로 인해 그를 학교의 교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²²⁾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부인과의 원만하지 않은 관계’는 이후 머독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메리보로에서 해임된 후 브리즈번(Brisbane)의 문법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된 머독은 지난 학교에서 처럼 자신이 맡은 임무는 훌륭하게 처리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그는 가정에서의 행복은 찾지 못했는데, 1888년 머독은 돌연 브리즈번의 일을 관두고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고 이 여행에 그의 부인은 동반하지 않는다. 이 여행이 부인과의 힘든 관계를 잠시 떠나고 싶었던 것인지, 혹은 아예 오스트레일리아를 떠나 일본에 정착할 것을 계획하고 시작된 것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이 시점 이후 머독이 부인과 다시 만났다는 흔적은 찾을 수 없고, 이후 머독의 생애에서 부인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여행이 그가 부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명확하다.²³⁾

이때 머독이 일본을 여행지로 선택한 것은 당시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의 여행 경향을 고려할 때 꽤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19세기 후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일본 여행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었는데, 머독이 저널리스트로 몸담고 있었던 브리즈번 지역의 급진주의적인 성격의 주간지 『부메랑』(*The Boomerang*)의 관계자들이 머독의 일본 방문을 전·후로 하여 대부분 일본을 다녀왔던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²⁴⁾ 머독이 이 『부메랑』의 관계자들과 평생 동안 꾸준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머독의 일본 여행 결

22)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 8.

23) 이후 머독의 부인은 장례식이나 사망 신고의 기록도 없이 머독의 인생에서 사라진다. 머독의 부인에 대한 언급은 머독의 친구이자 과거 그의 학생이었던 야마가타 이소오가 ‘그녀가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했을 것’이라고 짐작한 것이 전부이다.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 10.

24) 머독은 메리보로에서 지역 신문에 프리랜서로 글을 쓰던 경험을 살려 브리즈번에서도 급진적인 주간지 『부메랑』의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다.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p. 10, 15.

정에 그들의 권유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일본을 방문한 머독이 그곳에서 받은 인상은 나쁘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오스트레일리아에 중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만연해있었고 머독 역시 그에 동조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다소 흥미로운 부분이다.²⁵⁾ 머독은 19세기 중반 이후 서양에 만연했던 우생학적인 견해나 인종차별적인 사고에 상당히 동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그의 서술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다.²⁶⁾ 하지만 그의 일본에 대한 표현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추함(Ugliness)에 대한 느낌에 있어서도 중국의 추함이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다면 일본의 추함은 그에게 연민을 자아내는 것이었다.²⁷⁾ 일본에서의 생활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머독은 결국 도쿄의 고등학교(Higher School)에서 유럽사를 가르치는 교사 자리를 구하고 일본에 영구히 정착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이후 머독은 브리즈번으로 잠시 돌아가 그곳에서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아들만 동반하여 1889년 7월 일본으로 돌아오게 된다.²⁸⁾

머독이 일본에 정착하기 시작했던 1890년대는 메이지 유신(1868) 이후 일본이 서양의 문물을 한껏 받아들이고 있던 때였다. 당시 일본에서 머독과 같은 유럽인 교사는 훗날 제국을 경영하게 될 우수한

25) 중국인에 대한 머독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는 그의 글을 하나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창살이 없는 중국 창문에 철봉을 꽂으면, 먹이를 주는 시간에 동물원의 원숭이 집 앞에서 있는 자신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를 따라 걷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은 하얀 이빨을 지닌 황갈색의 유인원처럼 보이는 것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의지와 나무 덩어리에 웅크리고 앉아, 열심히, 그리고 게걸스럽게 더러운 기름투성이의 그릇에 담긴 내용물을 지저분한 한 쌍의 뜨개질바늘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들의 목구멍으로 쑤셔 넣는다. 그들은 마치 잔뜩 먹어야 하는 장애가 있는 것처럼 그들의 목구멍 가까이에서 그들의 접시를 붙잡고 먹는다.” James Murdoch, *Boomerang*, 9. June. 1888,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 13에서 재인용.

26)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p. 13-16.

27)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 17.

28) Murdoch, *A History of Japan Vol. III*, p. xi;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 19.

일본 학생들이 유럽의 언어와 문화를 직접 배울 수 있는 귀한 존재였다. 때문에 머독은 동료 일본 교사들의 10배에 달하는 봉급을 받으면서 그의 생애에서 거의 처음으로 누군가로부터 융성한 대접을 받게 되었고, 이런 환대는 그에게 일본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소설가인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Natsume Sōseki, 1867-1916)나, 앞서 언급했던 야마가타 이소오와 같은 총명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사로서 상당한 보람도 느꼈을 것이다.²⁹⁾

이런 만족스러운 일본 생활 속에서 머독은 다양한 저술 활동을 계획하는데, 그의 초창기 저술은 많은 오리엔탈리스트들이 그랬던 것처럼 동양을 배경으로 한 전형적인 소설이었다. 이러한 동양 배경 소설들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서구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교역하면서 유럽 내에 유행하게 되었던 자포니즘(Japonism)의 영향과 함께 성황리에 소비되었다. 그리고 이런 동양 배경 소설의 흥행은 머독이 일본 관련 저술 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³⁰⁾

그러던 와중에 1893년 머독은 주간지 『부메랑』의 동료였던 윌리엄 레인(William Lane)의 요청으로 파라과이에서 펼쳐진 사회주의 운동의 일환인 ‘뉴 오스트레일리아 협동 정착 협회(New Australia Cooperative Settlement Association)’에 참여하게 되어 파라과이를 방문할 기회를 얻는다. 이 운동의 목적은 파라과이 정부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그곳에서 생산 수단과 수익을 공유하는 사회주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것으로서, 오랫동안 머독이 『부메랑』에 몸담으면서 공유했던 정치적 의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다.³¹⁾ 하

29)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 20.

30) 실제로 머독의 초창기 저서 중 『호주와 일본으로부터』(*From Australia and Japan*, 1892)는 출판된 이후 3권의 얇은 페이퍼백(Paper-back) 판형으로 재출판되어 인도, 호주 등에서도 판매되었다.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 22.

31) Murdoch, *A History of Japan Vol. III*, p. xii; D. C. S. Sissons, “James

지만 레인이 초기에 보여줬던 평등주의적 지도자의 모습에서 독재자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그 와중에 공동체의 앞날을 종교적인 영감에 따라 좌우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머독은 이에 실망하여 일본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³²⁾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는 파탄에 이른 결혼생활과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한 문제 등을 정리하기 위해 런던에도 잠시 들리게 된다.³³⁾ 여기서 머독은 자신의 향후 저술활동의 방향을 결정짓는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런던의 영국 박물관(the British Museum)에 방문하여 오리엔탈리스트들이 남긴 일본에 대한 기록들을 열람하면서 아직까지 일본에 대한, 그리고 특히 일본의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저술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³⁴⁾

잠시 일본을 방문하고 체험했던 오리엔탈리스트들이 남긴 기록들은 일본에 오랜 세월 거주하면서 일본을 실제로 느끼고 이해한 머독의 경험과는 상당한 간극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참고한 자료나 글의 수준 역시 머독에게는 대단치 않아 보였을 것이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록물들이 자포니즘의 성행과 함께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은³⁵⁾ 머독에게는 상당한 자극이었을 것이다. 이에 머독은 마치 일본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와 저술 활동을 결심한 것처럼 런던에서 5개월 동안이나 머무르며 영국 박물관에 있는 대부분의 유럽 자료들을 섭렵하고 수집하여 일본으로 돌아오게 된다.³⁶⁾

그리고 1899년 오키다 타케코(Okada Takeko)라는 일본인 여성

Murdoch," p. 29.

32) Murdoch, *A History of Japan Vol. III*, p. xii

33)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p. 29-30.

34)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p. 32-34.

35) 그 예로 어니스트 W. 클레먼트(Ernest W. Clement)의 『근대 일본에 대한 편람』(*A Handbook of Modern Japan*)은 영국에서 첫 출판 이후 9쇄까지 발간되며 꾸준히 소비되었다. Ernest W. Clement, *A Handbook of Modern Japan* (Chicago: A. C. McClurg & Co., 1913)을 참조.

36)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 33.

과 결혼하여 일본에서의 삶에서 완전한 안정을 찾은 머독은 1900년 「동아시아에서의 일본과 러시아」(“Japan and Russia in the Far East”)³⁷⁾라는 글을 영향력 있는 저널인 『북아메리카 리뷰』(*North American Review*)에 실으면서 본격적인 ‘일본 연구가’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것은 영국 내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글에 좋은 인상을 받은 런던의 『타임즈』(*Times*)측에서 머독에게 일본 특파원(Japan correspondent) 자리를 제안할 정도였다.³⁸⁾ 그리고 이런 『타임즈』와 같은 공신력 있는 언론의 인정은 머독에게 자신의 글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과 확신을 부여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머독은 1901년 건강 문제로 인해 좀 더 온화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기후인 큐슈 지방의 가고시마에 있는 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이렇게 생활의 안정을 이루고 일본 연구에 대한 동기 부여가 제대로 이뤄진 이 시점부터 머독은 그의 본격적인 일본사 저술을 시작하게 된다.³⁹⁾

3. 머독의 일본사 서술 재평가와 이순신-넬슨 담론

머독의 일본사 서술에 대한 재평가

머독의 일본사 서술이 ‘진정한 역사 서술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37) 이 글은 한반도에서 일본과 러시아 간에 벌어지던 라이벌 구도의 다툼과 일본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James Murdoch, “Japan and Russia in the Far East,” *The North American Review*, Vol. 170, No. 522(1900), pp. 609-633을 참조.

38) 머독의 제자이자 친구였던 아마가타 이소오에 따르면 머독은 “역사서술에 집중하기 위해”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p. 34-35.

39)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p. 35-36.

것인가?’의 질문에는 여러 가지 상반된 답변이 가능하다. 전문 역사학의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머독의 역사 서술은 역사가가 갖춰야 할 전문성이나 엄밀성에서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머독의 책이 출간된 직후에 서구에서 발표된 여러 서평들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는 2차 자료를 인용해오는 과정에서 내용의 확인이나 주석 처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⁴⁰⁾ 동시대의 일본 역사가들의 중요한 선행 연구들은 거의 살펴보지 못했으며,⁴¹⁾ 문화사와 제도사에 취약하여 주제들을 단편적인 서술로만 처리한 경우도 많았다.⁴²⁾

그러나 역사학이 ‘전문화’되는 시점을 빨라야 레오폴트 폰 랑케(Leopold von Ranke)식의 역사학이 자리 잡는 19세기 중반 이후, 그리고 전문 역사가들이 역사의 영역을 완전히 차지하는 것을 20세기 이후라고 봤을 때,⁴³⁾ 20세기 초에 쓰인 머독의 역사 서술을 전문성의 잣대로만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직 역사학의 아마추어리즘(amateurism)이 성행하던 이 시절 머독은 많은 오리엔탈리스트들이 보여줬던 동양에 대한 편견이 가득 담긴 역사 서술들보다는 훨씬 균형 잡힌 시각에서 글을 쓰고자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진 특별한 재능인 다양한 언어 구사능력을 십분 활용하여 당시에 유럽에서 출판되었던 거의 모든 일본 관련 자료들을 비교·대조하였고, 이와 동시에 일본의 1차 사료들을 직접 참고하여 역사를 서술하고자 했다.⁴⁴⁾ 그랬기에 머독의 책이 오랜 세월동안 서양

40) K. Asakawa, "A History of Japan. Volume I. From the Origins to the Arrival of the Portuguese in 1542 A. D. by James Murdoch,"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6, No. 3(1911), p. 633.

41) Asakawa, "A History of Japan. Volume I.," p. 633.

42) K. Asakawa, "A History of Japan. By James Murdoch. Volume III., *The Tokugawa Epoch, 1652-1868*. Revised and edited by Joseph H. Longford, D. Litt.,"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33, No. 1 (1927), p. 140.

43) 설혜심, 「학문의 분화와 통섭」, 『학림』 제32집 (2011), p. 104; 임상우, 「‘과학적’ 역사학과 국가주의 역사서술」, 『역사학보』 제224집 (2014), pp. 86-87.

44) W. E. Griffis, "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 (1542-1651) by James Murdoch; Isoh Yamagata," *The*

에서 일본의 역사와 관련한 가장 신빙성 있고 권위 있는 텍스트로 통할 수 있었던 것이다.⁴⁵⁾ 머독의 『일본의 역사』는 지금의 시점에서 살펴봐도 상당히 정교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어떤 독자들이 접근하여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만큼 평이하게 쓰였다.

그리고 이러한 머독의 일본사 저술 활동과 관련해서는 앞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야마가타 이소오와의 만남을 빼놓을 수 없다. 이소오는 그에게 영어를 배웠던 제자였던 동시에, 머독이 초창기 일본사 저술을 할 때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또한 그는 일제강점기 통감부의 영문 기관지였던 『서울 프레스』(*The Seoul Press*)에 1909년 제2대 사장 겸 주필로 취임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했다.⁴⁶⁾ 이런 점에서 만약 이소오가 머독이 일본 자료를 다룰 때 보조 역할을 했다면 김주식의 서술처럼 머독의 역사 서술이 일본 편향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⁴⁷⁾ 또한 머독의 역사 서술 가운데 ‘고대’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일본 측의 입장에서 서술된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일본에 천연두가 전파된 원인을 신라에서 찾는대거나,⁴⁸⁾ 임나일본부를 실재했던 것처럼 서술하는 등⁴⁹⁾의 문제는 머독이 일본의 사료에 의존했다는 한계로 충분히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머독이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9, No. 4 (1904), p. 802.

45) Asakawa, "A History of Japan. By James Murdoch. Volume III.," p. 139.

46) 이 『서울 프레스』는 영국인 베텔(E. T. Bethell)이 발간하던 『대한매일신보』(*Korea Daily News*)에 대항하고, 서구 여러 나라에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정당화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창간한 신문이었다. 이 신문은 조선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책자나 팸플릿을 발행하여 통감부와 총독부의 입장을 홍보했다. 정진석, 「제국의 황혼 '100년전 우리는」 [175] 통감부 기관지 '서울프레스', 『조선일보』 (2010. 5. 5.) (접속일: 2018. 5. 10. UR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04/2010050402522.html)

47) 김주식, 「이순신에 대한 서구의 연구와 평가」, 『해양평론』 (2011), p. 15.

48) James Murdoch, *A History of Japan: From the Origins to the Arrival of the Portuguese in 1542 A.D. Vol. I* (Yokohama: Kelly & Walsh, Ltd., 1910), p. 192.

49) James Murdoch, *A History of Japan Vol. I*, p. 35.

일본사를 작성하기 위해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 이소오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고, 그로 인해 머독의 저술 전체가 일본에 편향된 역사 서술로 인식되는 것은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다.⁵⁰⁾

먼저 첫째로, 머독이 이소오를 제자로서 상당히 아꼈고 이소오 역시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상당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머독이 이소오가 갖고 있던 제국주의적이고 극우주의적인 성향에 동조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이소오가 일본 극우주의의 입장에서 제국의 엘리트로 성장하여 훗날 해외에 대한 일제의 대변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면,⁵¹⁾ 머독은 사회주의에 동조하며 실제로 파라과이에서 사회주의 공동체 건설에까지 참여했던 인물이었다.⁵²⁾ 그런 머독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할 때 이소오와의 사제 관계와 그로 인해 받은 도움만으로 그가 일본 제국주의의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일 가능성이 높다.⁵³⁾

50) 현재 국내에는 머독이 일본사 서술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아마가타 이소오가 공동 집필자로서 자료 수집과 집필 과정에 도움을 줬고, 그로 인해 일본 편향적인 역사서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지대학교도서관 한국관련 서양고서DB 검색시스템, 「<A History of Japan> 해제」(접속일: 2018. 1.10. URL: http://www.e-coreana.or.kr/classic/fractionate_se_04_popup.jsp?book_id=AC_ENG_0515&vol_id=01&lang_flag=e&cmd=haeje);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 『성웅 이순신-그의 생애와 업적에 대하여』(서울: 용화출판사, 2005), p. 21.

51) 아마가타 이소오(1869~1959)는 1909년 통감부 기관지 『서울 프레스』의 제2대 사장에 취임해 1923년까지 재직하며 총독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1923년 사이토 총독에게 ‘조선통치의 과거, 현재 및 장래’라는 제목의 조선통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6집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 1916년(병진년) 1월 1일 토요일」, 『한국사데이터베이스』(접속일: 2019. 1. 14., URL: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sa_030r_0010_0010_0010).

52)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 29.

53) 시슨스는 머독이 직접 쓴 글을 인용하며 그가 귀족 계층, 착취, 제국 등의 개념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머독이 쓴 글은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의 순수한 중국인 도시이자, 정부를 표면상으로 ‘관리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blood-sucking) 헛된 짓을 하고 있는 소수의 유럽인 정착자들이 함께 있는 곳이다. (...) 동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완고한 보수주의자이자 지독하게 폭력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거의 감정적, 심정적으로는

둘째로, 머독이 역사를 서술할 때 이소오의 영향력하에서 일본의 입장에 편향된 자료를 활용했다는 점 역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우선 머독이 일본 측 사료를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이소오가 개입한 것이 아니며, 도쿄 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한 제3의 인물인 무라카와 켄코(Murakawa Kenko)의 도움이 있었다. 즉, 일본 사료를 선별하는 역할은 역사 전공자인 켄코가 담당했고, 영문학자이기도 했던 이소오는 단지 그 일본 사료를 영어로 번역하는 역할만을 맡았던 것이다. 때문에 머독의 일본사 서술에서 이소오의 역할은 자료의 수집이나 선별과 같은 작업이 아닌, 번역이나 지도 정리 작업 등과 같은 부수적인 작업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⁵⁴⁾

셋째로 머독이 참고한 자료가 대부분 일본 자료였다는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⁵⁵⁾ 머독이 역사 서술에 활용했던 사료는 비단 일본의 사료만은 아니었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5개월 동안 영국 박물관에서 수집한 서양에서 작성된 일본에 대한 거의 모든 자료들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어 학자이자 역사학자였던 호머 베잘렐 헐버트의 『한국사』(*The History of Korea*)도 포함되었다. 머독은 헐버트의 책에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 전체 문단을 그대로 인용해올 정도로 헐버트의 글을 신뢰하고 많이 차용했는데, 한국에 우호적인 감정을 가졌고 고종이 임명한 조선의 외교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헐버트의 글을 ‘일본 편향적’인 자료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⁵⁶⁾

귀족이거나 혹은 귀족인 체 하는 사람들이다.”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 15.

54) James Murdoch, *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1542-1651)* (Kobe: The office of the “Chronicle”, 1903), pp. v-vi;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 39.

55) 김주식, 「이순신에 대한 서구의 연구와 평가」, 『해양평론』 (2011), p. 15.

56) 헐버트는 언어학자이자 역사학자로서 한국사를 서술할 때 지명, 인명들을 현대와 거의 차이가 없는 로마자 표기법을 통해 정확히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동국통감』, 『동사강요』와 같은 공식 사료들을 살펴보고 기타 민간 사료들까지 교차 검토하여 날카로운 사료 비판을 하기도 했다. 헐버트의 역사 서술에 대해서는

그리고 만약 머독이 일본의 사료나 다른 유럽인의 사료에만 집중했다면 머독 이전에 이순신에 대한 기록을 남긴 오리엔탈리스트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William Eliot Griffis, 1843-1928)가 그랬던 것처럼 이순신의 국적을 오해하거나 그의 이름을 일본어 발음에 가깝게 리신신(Rhisinsin)으로 표기했을 수도 있었다.⁵⁷⁾ 하지만 머독은 한국어학자이기도 했던 헐버트의 책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자료들을 비교·대조하면서 이순신과 임진왜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노력했다.⁵⁸⁾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거의 60페이지에 달하는 「12장 임진왜란(the Korean War)」을 다루면서 조선의 지명(地名)과 인명(人名)들을 모두 정확하게 한글 발음으로 로마자 표기를 하고, 부가적으로 괄호 속에만 일본식 발음을 표기했다는 점이다.⁵⁹⁾ 이는 머독이 『일본의 역사』를 단지 일본의 입장에서 그들을 위해 서술한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자료들을 선별하고 판단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침 없는 역사 서술을 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⁶⁰⁾ 그리고 12장에서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석영달, 「세계 속의 충무공 읽기-호머 헐버트의 이순신 관련 서술들을 중심으로」,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 해양』 제3호(2016), pp. 144-150을 참고.

- 57) 심지어 그리피스는 이순신을 명나라의 제독(The Chinese admiral)로 서술했다. W. E.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82), p. 134.
- 58) 훗날 머독의 책을 인용했던 벨러드는 이순신의 성과 이름을 착각하여 Yi-sun이라고 표현했지만, 헐버트를 인용했던 머독의 원작에서는 이순신의 성과 이름이 정확히 구별되어 'Admiral Yi' 라고 표기되었다. 이와 관련한 헐버트의 한국어 표기에 대해서는 석영달, 「세계 속의 충무공 읽기-호머 헐버트의 이순신 관련 서술들을 중심으로」, pp. 140-141, 144-147를 참조.
- 59) 예를 들어 김해는 Kim-hai(Kinkai)로, 임진강의 경우 'Imjin(Rinshin) river'로, 이덕형의 경우 Yi Dok-hyung(Ri Toku-kei)로 한글 로마자 표기 이후 괄호 속에 일본어 발음 표기를 했다. 머독의 책에서 임진왜란을 서술하는 부분은 Murdoch, "Chapter XII - The Korean War," *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1542-1651)*, pp. 302-359를 참조할 것.
- 60) 심지어 머독은 헐버트의 서술에 대해서도 맹목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그의 주장의 타당성을 밝히고 있다. Murdoch, *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1542-1651)*, pp.

부분은 인종주의자에 가까웠던 머독이 조선인 이순신의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여러 차례 칭찬하고, 심지어 그를 영국의 해군 영웅 넬슨(Nelson)과 비교하며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①이순신 제독은 도망가는 다수의 적군을 처단하였고, 살아남은 이들은 부산(Fusan)으로 도망가기 바빴다. 노량에서의 힘겨운 전투에서 일본 함정 다수를 나포하거나 격침시킨 이후 그는 적에 의해서도 존경을 받게 되었다.⁶¹⁾

②이것은 정말로 눈부신 시작이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은 더 위대한 성취들의 전조에 불과했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순신 제독은 히데요시 진영에서 수립한 전략이 무엇인지 예측하고 있었고, 이에 전라도 남서쪽으로 물러나 고속 기동이 가능한 함정들로 이 지역으로부터 동쪽 해안 전체를 경비하도록 했다.⁶²⁾

③일본군은 패배로 잃은 지역을 결코 다시 되찾을 수 없었는데, 이순신 제독이 일본 본토로부터의 증원군 파견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순신 제독이 활약한 이래 한반도 전체에서 나타났던 현상이었다.⁶³⁾

④[정유재란과 관련하여] 일본인들은 아마도 조선 수군이 5년 전에 그랬던 것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때의 조선 수군은 넬슨과 같은 용감한 뱃사람(seaman)에 의해 지휘되었다.⁶⁴⁾

과연 머독이 이순신에 대해 이렇게까지 서술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337, 338, 342.

61) Murdoch, *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1542-1651)*, p. 335.

62) Murdoch, *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1542-1651)*, p. 336.

63) Murdoch, *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1542-1651)*, p. 339.

64) Murdoch, *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1542-1651)*, p. 355.

머독의 이순신 담론⁶⁵⁾

머독의 역사 서술에서 임진왜란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는 것은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 일본의 역사에서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등장과 그의 조선 침략 활동은 분명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진왜란을 서술함에 있어 이순신이라는 인물도 결코 생략할 수 없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순신을 영국의 영웅 ‘넬슨’과 비교한다는 것은 동양에 대해 우생학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견해를 보여 왔던 머독이라는 인물의 표현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색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머독에게 무한한 편의와 환대를 보여줬던 일본인들에게 그들을 패퇴시킨 장수인 이순신을 높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가 아무리 균형 잡힌 서술을 하겠다고 결심했더라도 다소 지나친 감이 있다.

이런 의문은 머독이 참고한 자료들에 포함되어 있는 근대 초 일본에서 성행했던 ‘넬슨 담론’과 관계가 있다. 일본은 1868년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 근대 국가로 전환하는 메이지 유신을 단행했다. 이 메이지 유신의 주된 목표는 서양의 제국주의 열강들을 모방하여 다양한 개혁을 추구하고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었다. 그러한 개혁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는 1869년 7월 근대식 해군을 창설하였는데, 이때 모델로 삼았던 대상이 바로 영국 해군이었다. 이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Tōgō Heihachirō)를 비롯한 여러 일본의 해군훈련생들이 영국으로 수년간 유학을 가기도 했다.⁶⁶⁾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후 다양한 서양의 역사, 특히 전쟁사와 관련된 서적들이 일본에 유입되는데, 이때에도 섬나라이면서 해군 위

65) 이 부분은 ‘일본에서의 이순신 인식’에 대해 많은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는 김준배의 논문 「근대 일본 이순신(李舜臣)·넬슨(Nelson) 비교 담론의 등장과 변화」의 2장을 주로 참고하였다.

66) 정의, 「근대 일본의 서구송배와 국수주의-메이지 유신부터 청일전쟁까지를 중심으로」, 『日本思想』 제27호 (2014. 12.), pp. 290-291.

주의 국가로서 세계에 제국을 건설한 영국의 역사 관련 서적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그 중 특히 넬슨은 그 서적들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영웅이었다. 이런 넬슨의 영웅담은 곧 일본 내에서 일종의 넬슨 붐(Boom)을 일으켰는데, 여기에는 새로 편성한 일본 해군이 세계 최강의 영국 해군과 같이 부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었다.⁶⁷⁾

한편 넬슨 담론의 성행과 함께 일본 내에서는 나폴레옹의 영웅담도 성행하고 있었다. 비록 트라팔가 해전(1805)에서 넬슨에게 저지당하긴 했지만, 유럽 전역을 호령했던 서양의 인물인 나폴레옹은 일본인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였다.⁶⁸⁾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일본인들은 나폴레옹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일본의 나폴레옹’을 찾았는데, 일본에서 유일하게 세계적인 인물들과 비교할만한 했던 역사 속 인물은 히데요시였다.⁶⁹⁾ 일본인들에게 영국 침공에 실패했지만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인물인 나폴레옹과 조선을 침략하려다 실패했던 히데요시를 비교하는 것은 그를 세계사적인 영웅으로 만드는 것처럼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이다.⁷⁰⁾

여기서 문제는 히데요시를 패하게 만들었던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대한 묘사였다. 앞서 살펴본 넬슨과 나폴레옹 영웅담의 성행, 그리고 나폴레옹과 히데요시 간의 유비는 ‘이순신-넬슨’이라는 연결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다만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일본 내에서 과연 트라팔가 해전의 최종 승리자인 ‘넬슨’의 타이틀을 조선의 이순신에게 부여하고, 또 수용할 수 있었는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대단히 흥미로운 점은 1890년대 다양한 일본 문헌들에서 먼저 ‘이순신-넬슨’

67) 김준배, 「근대 일본 이순신(李舜臣)·넬슨(Nelson) 비교 담론의 등장과 변화」, p. 240.

68) 김준배, 「근대 일본 이순신(李舜臣)·넬슨(Nelson) 비교 담론의 등장과 변화」, p. 241.

69) 김광욱, 「근대 일본의 豊臣秀吉·임진왜란에 대한 인식」, 『역사와 경계』 제64집(2007), pp. 214-215.

70) 김준배, 「근대 일본 이순신(李舜臣)·넬슨(Nelson) 비교 담론의 등장과 변화」, p. 241.

담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저널리스트 가와사키 시잔(川崎紫山)이 쓴 『일본백결전(日本百傑傳)』,⁷¹⁾ 외교관 출신 오다기리 마스노스케(小田切万寿之助)가 저술한 『조선이순신전(朝鮮李舜臣傳)』,⁷²⁾ 같은 해 소라 겐자부로(曾良鉉三郎)가 발간한 『해국(海國)』⁷³⁾ 등에는 히데요시와 나폴레옹을 비교하면서 동시에 이순신을 ‘조선의 넬슨’이라고 칭하는 서술들이 나타난다.⁷⁴⁾ 그리고 1890년대에 일본 내에서 이러한 묘사가 이뤄진 것은 단순히 히데요시를 나폴레옹에 비교하기 위한 예비 관계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오히려 ‘서양에 대한 열망, 혹은 서양에 대한 경쟁심’과 같은 다른 차원의 논의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근세 이후 일본에서의 이순신 인식’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연구들을 발표하고 있는 김준배는 「근대 일본 이순신(李舜臣)·넬슨(Nelson) 비교 담론의 등장과 변화」라는 논문에서 ‘서양에 대한 열망과 경쟁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청일전쟁 이후 동북아에서 러시아와 경쟁해야 했던 일본에게 ‘해군의 역할’과 ‘서양에 대한 자신감’은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을 거치며 서양을 하나의 모범이자 따라잡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던 일본에게는

71) 川崎紫山, 『日本百傑傳』第6編(博文館, 1893), p. 67.

72) 柴山尚則, 「朝鮮李舜臣傳 : 文祿征韓水師始末」, 『偕行社記事』 82号 附録(1892), p. 42;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데이터베이스)에는 이 『조선이순신전』의 저자를 ‘시바야마 나오노리(柴山尚則)’로 표시하고 있고, 국내·외의 연구들에서 이 책의 저자를 지목함에 있어 나오노리와 함께 ‘석향생(惜香生)’이라는 인물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김준배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조선이순신전』의 저자는 오다기리 마스노스케이며, 석향생의 ‘석향(惜香)’ 오다기리가 사용했던 호(號)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朝鮮李舜臣傳 : 文祿征韓水師始末」(접속일: 2019. 1. 17. URL: <http://dl.ndl.go.jp/info:ndljp/pid/900123>); 김준배, 「『朝鮮李舜臣傳』의著述目的に關する一考察 - 小田切万壽之助の『朝鮮』との關連性を中心に-」, 『日本言語文化』 第40輯(2017), pp. 223-227을 참조.

73) 曾良鉉三郎, 『海國』 券下(曾良鉉三郎, 1892), p. 131.

74) 김준배, 「근대 일본 이순신(李舜臣)·넬슨(Nelson) 비교 담론의 등장과 변화」, pp. 243-244.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서양의 넬슨에 견줄만 한 해군 장수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안타까운 역사적 상황에서 근대 일본인들에게 서구에 대적할만한 자신감을 심어준 것은 동양의 해군 영웅 이순신이었다. 이는 러일전쟁(1904~1905)을 앞두고 남겨진 여러 기록들에서 일본 해군이 서양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계기나 대상으로 이순신을 내세웠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⁷⁵⁾

머독은 이런 일본 내의 자료들을 참고했기에, 그리고 일본인들 스스로도 그러한 담론들을 어떤 목적에서든 두드러지게 사용하고 있었기에 큰 고민 없이 ‘이순신-넬슨’ 담론을 자신의 역사 서술에 포함시키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저술 당시 일본에서 성행하던 담론을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많은 오리엔탈리스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글이 서양에서 읽힐 때 좀 더 이해가 쉽도록 서양에 잘 알려진 인물인 넬슨과 나폴레옹을 동원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여기서 더 주목해 볼 부분은 머독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이러한 이순신-넬슨 담론을 책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러일전쟁 이전인 ‘1903년’이라는 시점에 책을 출판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4. 머독 커넥션: 이순신 해외전파의 연결고리

머독이 이순신-넬슨 담론을 책에 담는 데에 있어 왜 ‘1903년’이라는 시점이 중요한 것일까?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에 머독의 저서 출판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두 개의 혼동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첫 번째로 김주식이 남긴 “머독이 어떻게 2년 뒤에 출판된 헐버트의 책을 인용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살펴보자. 김주식은 자신의 논문 「이순신에 대한 서구의 연구와

75) 김준배, 「근대 일본 이순신(李舜臣)·넬슨(Nelson) 비교 담론의 등장과 변화」, pp. 246-248.

평가」 15페이지에서 각주 14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남긴다.⁷⁶⁾

James Murdoch의 책이 1903년에 그리고 Homer B. Hulbert의 History of Korea가 1905년에 출판되었다. 그런데 한 실례를 들면, Murdoch의 책 p. 335에 있는 인용문은 Hulbert의 책 Vol. I, pp. 376-377에 있는 구절이다. 전자가 2년 늦게 출판된 후자를 어떻게 인용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⁷⁷⁾

여기서 김주식이 제기한 의문은 그가 참고한 헐버트의 책 『한국의 역사』(The History of Korea, 1905)⁷⁸⁾의 출판 시기와 머독의 『일본의 역사』(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 (1542-1651), 1903)의 출판 시기가 2년이나 늦음에도 불구하고 머독이 자신의 책에 헐버트의 책에 담긴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김주식의 헐버트 저술에 대한 추적이 다소 미흡하여 나타난 의문으로 보인다. 헐버트는 1905년에 『한국의 역사』를 서술하기 이전에 이미 1902년 『코리아 리뷰』(Korea Review)를 통해 『한국의 역사』에 포함될 많은 내용들을 연재하였다.⁷⁹⁾ 그러므로 머독이 자신의 책 335쪽에서 인용한 헐버트의 글은 『한국의 역사』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코리아 리뷰』 1902년판 11월호에서 발췌하여 인용한 글이다. 실제로 그 부분을 발췌하여 비교하여 보면 두 글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머독

76) 이 의문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의 이전 연구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다. 석영달, 「1920년대 초 영국 해군 장교의 일본사 서술 속 이순신 읽기-조지 알렉산더 밸러드의 『해양이 일본 정치사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제55집(2016), p. 215; 석영달, 「세계 속의 충무공 읽기-호머 헐버트의 이순신 관련 서술들을 중심으로」, pp. 142-143.

77) 김주식, 「이순신에 대한 서구의 연구와 평가」, 『해양평론』 (2011), p. 15.

78) Homer B. Hulbert, *The History of Korea*, Vol. 1,2 (Seoul: The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5).

79) 석영달, 「1920년대 초 영국 해군 장교의 일본사 서술 속 이순신 읽기-조지 알렉산더 밸러드의 『해양이 일본 정치사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제55집(2016), p. 215.

의 책에서 헐버트의 글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순신] 바다에서 비견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둔 주된 요인은 그가 직접 발명하고 건조한 특이한 전함 덕분이었다. 이는 거북을 닮았다고 하여 귀선(Kwi-sun) 또는 “거북선(Tortoise Boat)”이라고 불렸다. 거북이 이 함정의 모델을 제공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의 가장 큰 독창성은 거북의 등처럼 철판으로 만들어진 곡선의 갑판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병들과 노잡이들을 완벽하게 보호했다는 점이다. (...) 이런 장점은 [거북선을 적선보다] 두 배나 강력하게 만들어, 적선들은 도망가는 것조차 의미가 없었다. 이 훌륭한 배의 선체가 경상도의 해안인 고성 마을에 오늘날까지 남아있다고 한다. (...) 그 마을의 주민들은 이순신을 기리며 매년 축제를 벌이는데, 이때 그들은 항구 근처에 배를 띄워 이순신과 그의 ‘거북선’에 경의를 표한다.⁸⁰⁾

결과적으로 머독은 아직 헐버트가 『한국의 역사』라는 책을 출판하기 전에 그가 『코리아 리뷰』에 실었던 짧은 글까지 참고할 정도로 그가 입수 가능한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일본의 역사를 서술했던 것이다.⁸¹⁾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한국어학자이자 역사학자이기도 한 헐버트가 한국의 다양한 사료들을 꼼꼼하게 비교·대조하여 작성한 한국사가 머독의 책에 반영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머독의 책은 충실하게 서술된 헐버트의 한국사를 그의 『일본의 역사』에 담아 서양의 더 폭넓은 계층에 알리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이다.

80) Homer B. Hulbert ed., “Korea History Chapter VII.” *The Korea Review 1902*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2), pp. 520-521; James Murdoch, *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1542-1651)* (Kobe: The office of the “Chronicle”, 1903), p. 335.

81) 헐버트는 영국 왕립아시아학회의 한국지부(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on and Ireland, Korea Branch)의 창설 멤버 중 한 명이었기에, 한국에 방문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은 머독이라도 헐버트나 그의 글에 대한 접근은 충분히 가능했으리라 보인다. 이고은,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정기간행물 『트랜스액션』 탐색적 연구 - 1900-1924년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40권 3호 (2017), pp. 228-229.

두 번째로 국내에는 머독이 책을 출판한 순서에 대해서도 혼동이 있었다. 머독은 일본사 3부작을 출판하면서 1, 2, 3권의 순서대로 출판하지는 않았는데, 아래 도표에 삽입된 머독의 책 표지를 살펴보면 2권에 해당하는 책이 1903년, 1권이 1910년, 3권이 1926년에 출판된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책의 표지를 자세히 보면 1903년에 출판된 책에는 ‘2권(Vol. 2)’이라는 표시조차 없다. 이후에 출판된 두 권의 책에만 ‘1권(Vol. 1)’과 ‘3권(Vol. 3)’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 이는 머독이 일본사를 저술할 때 처음부터 3부작을 기획하지는 않았으며, 2권에 해당하는 첫 번째 책을 출판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1권(Vol. 1)과 3권(Vol. 3)을 기획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p>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 (1542-1603).</p> <p>BY JAMES MURDOCH, M.A., IN COLLABORATION WITH ISOH YAMAGATA.</p> <p>WITH MAPS.</p> <p>KODEN, JAPAN. PUBLISHED AT THE OFFICE OF THE "CHOSEIKAN." 1903.</p>	<p>A HISTORY OF JAPAN VOL. I FROM THE ORIGINS TO THE ARRIVAL OF THE PORTUGUESE IN 1542 A.D.</p> <p>BY JAMES MURDOCH, M.A.</p> <p>WITH MAPS BY ISOH YAMAGATA.</p> <p>PUBLISHED BY THE SHANGHAI BOOKS & PAPERS CO. 1910.</p>	<p>A HISTORY OF JAPAN VOL. II THE TOKUGAWA EPOCH 1602-1868</p> <p>BY JAMES MURDOCH, M.A.</p> <p>REVISED AND EDITED BY JOSEPH H. LONGFORD, D.Litt.</p> <p>LONDON: HADLEY PAUL, TRENCH, TRUBNER & CO. LTD. HOLDWAY ROAD - (IN THE STRAITS SETTLES, SINGAPORE) 1926.</p>
<p>1903년 출간, 2권에 해당</p>	<p>1910년 출간, 1권 (Vol. 1)</p>	<p>1926년 출간, 3권 (Vol. 3)</p>

『일본의 역사』 3부작의 각 표지)

국내에서 최초로 머독의 『일본사』 3부작의 출간 순서에 대해 언급한 명지대학교 <서양고서 DB 검색시스템>의 해제에서는 상식적

으로 1권이 먼저 출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혹은 김주식과 마찬가지로 헐버트 책과의 인용 선·후 관계를 고려하여서인지 헐버트의 인용문이 담긴 2권에 해당하는 책을 1910년에 출판된 것으로 오인하여 언급하고 있다.⁸²⁾ 그러나 위의 표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머독의 책은 분명 2권이 가장 먼저 출판되고, 1권과 3권이 나중에 출판된 것이 맞다. 이에 대해서는 머독의 제자이자 일본의 국민 작가인 나쓰메 소세키가 1911년에 쓴 「머독 선생의 『일본역사(日本歴史)』」라는 글에서도 명확히 살펴볼 수 있다.

[머독] 선생은 약속한대로 요코하마 총영사를 통해서 자신의 저서 『일본역사』를 나에게 우송하도록 조치를 취해놓아서 약 700여 면에 달하는 두꺼운 책이 얼마 되지 않아 내 손에 들어왔다. **알고 보니 이것은 단지 제1권에 불과했다. 그리고 권말에 메이지 43년(1910) 5월 발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비로소 이 책의 출판순서에 대한 나의 오해를 깨닫게 되었다. 선생은 우리 역사 가운데 포르투갈인이 16세기에 비로소 일본을 발견한 이래 오다, 도요토미, 도쿠가와 세 성을 거쳐 사마바라의 내란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이른바 서구와 교류를 시작한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를 택해서 그 부분만을 이미 출간했던 것이다. 따라서 순서상으로 보면 제2권이 맨 처음 간행된 셈이다.** 작년 5월 발행으로 되어 있는 신간은 오히려 제1권에 해당하는 상대(上代) 이후의 역사였다. 마지막 제3권에 해당하는 역사, 곧 17세기 중엽부터 유신의 변혁에 이르기까지의 연혁은 지금도 여전히 저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미완성이라고 하겠다. 게다가 작년에 나온 제1권과 앞으로 나올 제3권은 선생 혼자서 기획한 것이 아니라 '일본 아시아 협회'가 이어받아서 간행하게 되었다는 사정도 알게 되었다.⁸³⁾

82) 머독의 『일본사』의 출간 순서에 대해 국내에 가장 먼저 소개한 자료는 명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서양고서DB 검색시스템>의 「<A History of Japan> 해제」인데, 해제의 내용 자체는 친절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나, 출간 순서와 관련한 부분은 다소 부정확하다. 그 원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그의 저서 『일본사』는 생애 최대의 역작으로 1권과 2권이 1903년과 1910년에 출간되었다. 마지막 3권은 1926년에 일본에서 출간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볼륨의 번호와 출간년도가 순서상 일치하지 않아 많은 관련 연구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명지대학교도서관 한국관련 서양고서DB 검색시스템, 「<A History of Japan> 해제」(접속일: 2019. 1. 10. URL: http://www.e-coreana.or.kr/classic/fractio_nate_se_04_popup.jsp?book_id=AC_ENG_0515&vol_id=01&lang_flag=e&cmd=haeje).

이는 머독이 일본사 서술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어떤 시기의 역사를 가장 먼저 다룰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 결과라고 짐작된다. 머독이 언어적인 장벽 없이 손쉽게 살펴볼 수 있는 시기는 유럽의 자료들이 가장 풍부하고, 또 유럽의 시장에 잘 팔릴 것 같은 ‘일본이 서양과 처음으로 교류하던 시기’였을 것이다. 이런 고민과 함께 아마 머독은 ‘초창기 해외 교류의 세기(1542-1651)’라는 부제목과 함께 16-17세기에 해당하는 일본사 책을 가장 먼저 저술하고 출판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2권이 다루고 있는 시기와 출판의 시점이 바로 필자가 주목하려는 부분이다. 즉, 머독이 임진왜란을 포함하는 16-17세기라는 시기의 역사를 ‘1903년’에 출판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러일전쟁(1904~1905) 이후, 특히 쓰시마 해전(1905년) 이후 ‘도고’라는 일본을 대표할 만한 해군 장교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이순신과 넬슨을 비교하는 담론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제 일본 해군에서는 열강 가운데 하나였던 러시아 해군을 제압하고 러일 전쟁의 최종 승리를 가져온 ‘도고 헤이하치로’가 그들의 상징이자 영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 해군은 더 이상 서양에 대한 열등감을 이겨내기 위해 굳이 과거의 인물인 이순신을 소환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며 실제로 서양에 대한 승리를 이뤄낸 도고가 있었다. 때문에 도고의 등장 이후에는 일본의 서적에서 ‘넬슨’과의 비교가 이순신보다는 도고에게 좀 더 집중된다. 소세키가 러일 전쟁 직후인 1905년에 작성한 「전후 문학계의 추세」라는 글과 1911년에 작성한 「머독 선생의 『일본역사(日本歴史)』의 일부를 살펴보자.

① 아마토 정신은 진실로 자각과 자신에서 나온 커다란 외침으로 변했다. 이와 동시에 같은 일본이라고 말하더라도 말하는 의미는 마찬가지로이지만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혀 달라지게 되었다. 사람의 기분이 고양되어서 저쪽도

83) 나츠메 소세키 지음, 황지현 옮김, 「머독 선생의 『일본역사(日本歴史)』, 『나츠메 소세키 문명론』 (서울: 소명출판, 2004), pp. 317-318.

인간이라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기분이 들게 되었다. 넬슨 제독이 위대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도고(東郷) 대장(大將)도 그 이상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러한 자신과 자각을 확장해 가면, 그 반향은 모든 방면에 파급될 것이다.⁸⁴⁾

- 「전후 문학계의 추세」(1905)

② 겨우 5척의 페리 함대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몰랐던 우리들이 일본해[동해]의 해전에서 트라팔가 이후 최대의 승리를 얻었던 것에 마음이 설렜던 것이다.⁸⁵⁾

- 「머독 선생의 『일본역사(日本歴史)』」(1911)

소세키의 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에 나타난 ‘넬슨과 비견할 수 있는 도고’, ‘트라팔가 해전과 비견할 수 있는 쓰시마 해전’과 같은 담론은 점차 이순신과 관련한 담론들을 대체해갔다.⁸⁶⁾ 이제 ‘동양의 넬슨’이라는 타이틀은 주로 도고에게 주어졌으며, 이순신과 넬슨 비교 담론은 과거에 비해서 축소되어갔다.⁸⁷⁾ 그리고 이런 일본 내의 담론 변화는 1903년에 출판된 머독의 『일본의 역사』 2권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보여준다.

만약에 머독이 1903년에 임진왜란에 해당하는 시기를 담은 2권을 출판하는 대신에, 고대부터의 일본의 역사에 해당하는 1권이나 근대 일본의 역사를 담은 3권을 먼저 출판하고 그 이후에 2권을 출판하게 되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2권이 출판되는 시점이 최소 러

84) 인용문 내에서 ‘도고(東郷) 대장(大將)’의 경우 번역자가 ‘동쪽 나라의 대장’이라고 번역한 것을 필자가 윤상인의 연구를 참고하여 임의로 수정하였으며, 굵은 글씨도 필자가 임의로 표시한 것이다. 나츠메 소세키 지음, 황지현 옮김, 「전후 문학계의 추세」, 『나츠메 소세키 문명론』(서울: 소명출판, 2004), p. 273; 윤상인, 「일본 ‘국민’ 작가 나츠메 소세키와 제국주의」, 『역사비평』 통권 48호(1999), p. 245.

85) 인용문 내의 굵은 글씨는 필자가 임의로 표시한 것이다. 나츠메 소세키, 「머독 선생의 『일본역사(日本歴史)』」 p. 320.

86) 김준배, 「근대 일본 이순신(李舜臣)·넬슨(Nelson) 비교 담론의 등장과 변화」, pp. 249-251.

87) 김준배, 「근대 일본 이순신(李舜臣)·넬슨(Nelson) 비교 담론의 등장과 변화」, pp. 252-253.

일전쟁이 끝난 1905년 이후, 혹은 실제로 1권이 출판되었던 1910년 이후였다면 과연 그의 저술에서 임진왜란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순신-넬슨’ 담론이 그대로 등장하게 되었을까? 물론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다는 점에서 이는 다소 무의미한 가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머독이 생애 처음으로 자신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해줬던 일본이라는 국가에서, 정치적 지형이나 학계 내의 반응이 ‘이순신-넬슨’ 담론보다는 ‘도고-넬슨’ 담론을 추종하는 것으로 느껴졌다면 그런 분위기의 변화를 책에 반영하게 되지 않았을까?

러일전쟁이 끝나고 10년이 가까이 지난 1915년에 영국 왕립아시아학회의 한국지부(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on and Ireland, Korea Branch)에서 간행했던 『트랜잭션』(Transactions)에 실린 글을 살펴보자.

① 16세기 일본의 조선 침략은 형편없는 실패였다. 일본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의 끝없는 야심을 만족시키려는 동기에서 그것에 착수했다.⁸⁸⁾

② 일본군은 또한 조선 의병들에게 대단히 많이 당했다. 그리고 그들은[일본군은] 특히 조선의 위대한 제독 이순신에 의해 어려움에 처했다. 이순신은 일본군으로부터 제해권을 빼앗고 그들의 보급로와 퇴로를 차단했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대개 일본군이 조선군과 명나라 군을 제압했다.

③ 히데요시 사후 일본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국내의 평화를 회복하는 데에 온힘을 기울였다. [왜냐하면] 일본의 나폴레옹이 사망함으로써 일본이 혼란한 상태에 빠져있었기 때문이다.⁸⁹⁾

이 글은 머독의 제자이자, 머독의 초창기 일본사 저술에서 일본

88) Yamagata Iso, “Japanese-Korean Relation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the 16th Century,”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4 Part 2(1912), p. 2.

89) Iso, “Japanese-Korean Relation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the 16th Century,” p. 5.

사료의 번역 역할을 맡았던 이소오가 1915년에 작성한 글이다. 이소오의 글에서는 히데요시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일본의 나폴레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순신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더 이상 ‘넬슨’을 붙이지 않는다. 과거 도고 등장 이전에는 일본 내에서 ‘이순신-넬슨’ 담론이 일본 내에 대단히 성행하고 있었으며 히데요시를 나폴레옹에 비유할 때면 다들 자연스럽게 이순신-넬슨의 비유가 사용되었던 것에 반해, 도고의 등장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던 것이다.

그러나 머독은 도고가 러일 전쟁을 통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이전인 1903년에 자신의 책에서 이미 ‘이순신-넬슨’ 담론과 ‘히데요시-나폴레옹’ 담론을 다음과 같이 담고 있었다.

①정유재란과 관련하여 일본인들은 아마도 조선 수군이 5년 전에 그랬던 것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때의 조선 수군은 넬슨과 같은 용감한 뱃사람(seaman)에 의해 지휘되었다.⁹⁰⁾

②당시 일본에는 1815년과 1850년 사이에 프랑스에 존재했던 나폴레옹 전설 만큼이나 강력한 히데요시 전설이 있었다.⁹¹⁾

이러한 머독의 임진왜란과 이순신과 관련 서술은 조지 알렉산더 벨러드(George Alexander Ballard)라는 영국의 해군 중장(中將, vice admiral)이 1921년에 『해양이 일본 정치사에 미친 영향』(The Influence of the Sea on the Political History of Japan)⁹²⁾이

90) James Murdoch, *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1542-1651)* (Kobe: The office of the “Chronicle”, 1903), p. 355; 석영달, 「1920년대 초 영국 해군 장교의 일본사 서술 속 이순신 읽기-조지 알렉산더 벨러드의 『해양이 일본 정치사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제55집(2016), p. 215.

91) Murdoch, *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 p. 449.

92) George A. Ballard, *The Influence of the Sea on the Political History of Japan* (London: John Murray, 1921)을 참조.

라는 책을 저술할 때 그대로 인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 책에서 벨러드는 머독이 이순신-넬슨 비교를 1차례 사용했던 반면에, 그 비교를 7차례나 사용하면서 임진왜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즉, 1903년 머독의 이순신-넬슨 비교가 1920년대의 벨러드의 책에서도 그대로, 어쩌면 전보다 더 강하게 이어지게 된 것이다.⁹³⁾ 벨러드는 책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초기 일본사 서술은 머독의 책에 대부분 의존하였는데, 자신의 책 서문에서 머독의 역사 서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나는 17세기 이전의 일본의 사건들과 관련한 정보들은 머독[의 글]에 크게 기대고 있다. 머독의 상세하고 유익한 역사는, 내가 알기로는, 정확한 원사료를 직접 보고 편찬한 것으로서 [내가] 일본의 연대기에서 중요한 챕터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때 특히 유용했다. 그 중요한 챕터들이란 쿠빌라이 칸(Kublai Khan)의 4,500척의 대함대의 침몰이나, 16세기에 일본이 조선 및 중국과 벌인 엄청난 전투를 의미한다. 그 전투[임진왜란]에서 일본 해군과 육군의 작전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 영국에서 벌어진 모든 전쟁들이 하찮게 보일 정도의 스케일로 수행했다.⁹⁴⁾

이렇게 머독의 책에 영향을 받은 벨러드의 책은 임진왜란을 30페이지 가까이 다루면서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까지 이순신의 존재를 알리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⁹⁵⁾ 결과적으로 이순신이 세계적으로

93) 벨러드가 임진왜란을 설명하면서 ‘이순신-넬슨’ 담론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필자의 선행 연구를 참고. 석영달, 「1920년대 초 영국 해군 장교의 일본사 서술 속 이순신 읽기-조지 알렉산더 벨러드의 『해양이 일본 정치사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제55집 (2016), p. 211-218.

94) George A. Ballard, *The Influence of the Sea on the Political History of Japan*, p. vi.

95) 벨러드의 『해양이 일본 정치사에 미친 영향』이 갖는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단서로는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해당 서평들은 출판 다음 해인 1922년부터 1923년까지 영국과 미국의 학술지, 신문 등을 통해 꾸준히 나타나면서 책의 존재를 상기시켰다. Quincy Wright, “The Influence of the Sea on the Political History of Japa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6, no. 3 (1922), pp. 504-505; J. F. Steiner, “The Influence of

알려짐에 있어 머독의 역할은 험버트의 자세하고 정확한 한국사 저술과, 서양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영국의 해군 중장이라는 지위의 벨러드 사이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것이다.

5. 나가며

본 논문은 오랫동안 국내의 학계에서 소외되어왔던 제임스 머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일본사 저술이 이순신의 해외전과 과정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머독의 생애와 그의 일본사 저술의 의미는 지금껏 국내에서 그와 관련된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먼저 제임스 머독은 자신의 본국인 스코틀랜드를 떠나 삶의 터전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으로 옮기면서 부인과의 불화를 포함한 복잡한 삶의 굴곡을 겪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일본에 정착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연한 계기로 일본의 역사를 『일본의 역사』(*A History of Japan*) 1,2,3권으로 남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 3권 중 2권에서는 일본의 16-17세기의 역사, 즉 임진왜란과 이순신과 관련한 역사를 포함한 시기를 다루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이 임진왜란과 이순신의 역사를 그냥 서술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the Sea on the Political History of Japa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28, no. 3 (1922), pp. 344-346; E. T. Williams, “The Influence of the Sea on the Political History of Japa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37, no. 4 (1922), pp. 699-702; C. W. Bishop, “The Sea in the History of Japan,” *Geographical Review* 13, no. 1 (1923), pp. 151-152; *The Spectator*, January 21, “Book Review,” 1922, p. 85; *The Saturday Review*, “Book Review,” November 5, 1921, p. 538를 참고.

‘이순신-넬슨’ 비교 담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비교 담론은 비단 머독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으며, 이미 1890년대부터 일본에서 성행하던 것이었다. 19세기 말 일본은 서양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줄 동양의 해군 대표 장수로 이순신의 전설적인 역사를 활용하고자 했으며, 그 맥락에서 일본 내에 ‘이순신-넬슨’ 담론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 담론의 파급력은 그리 길지 않았다. 1905년 쓰시마 해전을 통해 러시아를 제압한 영웅 도고 헤이하치로가 등장하면서 더 이상 일본에서 굳이 이순신을 ‘동양의 넬슨’으로 전유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1905년 이후에는 일본에서 도고를 서술할 때 ‘동양의 넬슨’이라는 비유를 주로 사용하고, 이순신으로부터는 그러한 비유를 서서히 거두어갔다는 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머독은 일본 내에서 이러한 담론의 변화가 있기 전, 즉 도고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이며 아직 ‘이순신-넬슨’ 비교 담론의 성행이 절정에 달하던 시점인 1901-1903년에 책을 저술하고 출판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시점에 저술된 머독의 책이 단 한 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3부작에 달하는 책으로 저술되어 서양으로 전파되었고,⁹⁶⁾ 그의 책을 인용한 조지 알렉산더 벨러드의 책이 더욱 파급력 있게 소비되면서 서양에는 ‘이순신-넬슨’이라는 비교 구

96) 머독의 책에 대한 서평이 각주 40, 42, 44번에 소개된 3개의 서평 이외에도 『영국 역사 리뷰』(*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저널』(*Journal of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등에 더 실려 있으며, 책의 첫 번째 출판 이후 3부작까지 출판되었고 머독이 일찍 사망하지 않았다면 4권까지 출판이 계획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머독의 책이 영미권에서 상당한 인지도와 판매량을 보였으리라 짐작된다. J. H. Gubbins, “Reviews of Books: *A History of Japan from the Origins to A. D. 1542*. By James Murdoch.,”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Vol. 26, No. 102 (1911), pp. 358-360;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A History of Japan, Vol. III. The Tokugawa Epoch, 1652-1868*,” *Journal of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 No. 5 (1926), pp. 255-256; Murdoch, *A History of Japan Vol. III*, p. xviii.

도가 삭제되지 않은 채로 널리 퍼지게 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머독의 책은 일본의 자료만을 다룬 편향된 역사가 아니라, 험버트의 충실한 한국사 서술을 포함한 다양한 서양의 자료들을 함께 종합, 분석하여 다룬 역사 서술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제임스 머독은 이순신의 해외 전파 과정이나, ‘서양인이 바라본 이순신’이라는 주제에서 결코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될, 오히려 주목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인물이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던 것은 국내에서 이순신과 관련된 주제로 다양한 연구들이 이뤄졌으나, 그 관심이 특정한 분야와 목적에만 갇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역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이며, 과거 민족주의 역사학을 넘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역사학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다.

(원고투고일 : 2018.10.6., 심사수정일 : 2019.2.1., 게재확정일 : 2019.2.11.)

주제어 : 제임스 머독, 『일본의 역사』, 임진왜란, 이순신-넬슨, 히데요시-나폴레옹, 도고 헤이하치로, 호머 베잘렐 험버트, 조지 알렉산더 벨러드

〈참 고 문 헌〉

1. 1차 사료

Ballard, George A., *The Influence of the Sea on the Political History of Japan* (London: John Murray, 1921).

Clement, Ernest W., *A Handbook of Modern Japan* (Chicago: A. C. McClurg & Co., 1913).

Griffis, W. E., *Corea, The Hermit N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82).

Hulbert, Homer B., "Korea History Chapter VII.," *The Korea Review* 1902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2).

Hulbert, Homer B., *The History of Korea, Vol. 1,2* (Seoul: The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5).

Murdoch, James, "Japan and Russia in the Far East," *The North American Review*, Vol. 170, No. 522 (1900).

Murdoch, James, *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 (1542-1651)* (Kobe: The office of the "Chronicle", 1903).

Murdoch, James, *A History of Japan: From the Origins to the Arrival of the Portuguese in 1542 A.D. Vol. I* (Yokohama: Kelly & Walsh, Ltd., 1910).

Murdoch, James, *A History of Japan Vol. III The Tokugawa Epoch 1652-1868*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 Co., Ltd., 1926).

Yamagata Iso(山縣五十雄), "Japanese-Korean Relation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the 16th Century,"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4 Part 2 (1912).

川崎紫山, 『日本百傑傳』 第6編 (博文館, 1893).

DOI: <https://doi.org/10.11501/778544>

柴山尚則, 「朝鮮李舜臣伝 : 文祿征韓水師始末」, 『偕行社記事』 82号 附録 (1892).

DOI: <https://doi.org/10.11501/900123>

曾良鉉三郎, 『海国』 券下 (曾良鉉三郎, 1892).

DOI: <https://doi.org/10.11501/842842>

2. 2차 사료

Asakawa, K., “A History of Japan. Volume I. From the Origins to the Arrival of the Portuguese in 1542 A. D. by James Murdoch,”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6, No. 3 (1911).

DOI: <https://doi.org/10.2307/1834866>

Asakawa, K., “A History of Japan. By James Murdoch. Volume III., The Tokugawa Epoch, 1652–1868. Revised and edited by Joseph H. Longford, D. Litt.,”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33, No. 1 (1927).

DOI: <https://doi.org/10.2307/1838140>

Griffis, W. E., “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 (1542–1651) by James Murdoch; Isoh Yamagata,”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9, No. 4 (1904).

DOI: <https://doi.org/10.2307/1834112>

Gubbins, J. H., “Reviews of Books: A History of Japan from the Origins to A. D. 1542. By James Murdoch.,”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Vol. 26, No. 102 (1911).

DOI: <https://doi.org/10.1093/ehr/xxvi.cii.358>

Sissons, D. C. S., “James Murdoch(1856–1921) – Historian, Teacher and Much Else Besides,”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Vol. 2 (1987).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A History of Japan. Vol. III. The Tokugawa Epoch, 1652–1868,” *Journal of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 No. 5 (1926).

DOI: <https://doi.org/10.2307/3015283>

김주식, 「이순신에 대한 일본인의 연구와 평가」, 『해양문화재』 제4호 (2011).

김주식, 「이순신에 대한 서구의 연구와 평가」, 『해양평론』 (2011).

김준배, 「근대 일본 이순신(李舜臣)·넬슨(Nelson) 비교 담론의 등장과 변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담론의 영향을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제38집 (2017).

UCI: <http://uci.or.kr/G704-001690.2017..38.010>

김준배, 「『朝鮮李舜臣傳』の著述目的に關する一考察 - 小田切万壽之助の『朝鮮』との關連性を中心に-」, 『日本言語文化』 제40輯 (2017).

노영구, 「[영웅만들기] 역사 속의 이순신 인식」, 『역사비평』 통권69호 (2004).

UCI: <http://uci.or.kr/G704-000293.2004..69.005>

석영달, 「세계 4대 해전의 근거에 대한 고찰 - 국내의 '세계 4대 해전' 담론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군사』 제101호 (2016).

DOI: <https://doi.org/10.29212/mh.2016..101.273>

석영달, 「1920년대 초 영국 해군 장교의 일본사 서술 속 이순신 읽기-조지 알렉산더 벨러드의 『해양이 일본 정치사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제55집 (2016).

UCI: <http://uci.or.kr/G704-001395.2016..55.004>

석영달, 「세계 속의 충무공 읽기-호머 헐버트의 이순신 관련 서술들을 중심으로」,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 해양』 제3호 (2016).

설혜심, 「학문의 분화와 통섭」, 『학림』 제32집 (2011).

윤상인, 「일본 '국민' 작가 나쓰메 소세키와 제국주의」, 『역사비평』 통권 48호 (1999).

이고은,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정기간행물 『트랜스액션』 탐색적 연구 - 1900-1924년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40권 3호 (2017).

DOI: <https://doi.org/10.25024/ksq.40.3.201709.225>

임상우, 「'과학적' 역사학과 국가주의 역사서술」, 『역사학보』 제224집 (2014).

DOI: <https://doi.org/10.16912/khr.2014.12.224.85>

정의, 「근대 일본의 서구숭배와 국수주의-메이지 유신부터 청일전쟁까지
를 중심으로」, 『日本思想』 제27호 (2014. 12.).

UCI : G704-001748,2014.,.27.002

조덕현, 「미국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순신 제독」, 『이순신연구논총』 통권
제27호 (2017).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 『성웅 이순신-그의 생애와 업적에 대하여』
(서울: 용화출판사, 2005).

나즈메 소세키 지음, 황지현 옮김, 「전후 문학계의 추세」, 『나즈메 소세키
문명론』 (서울: 소명출판, 2004).

나즈메 소세키 지음, 황지현 옮김, 「머독 선생의 『일본역사(日本歴史)』」, 『나
즈메 소세키 문명론』 (서울: 소명출판, 2004).

杉山環, 「James Murdoch-1-書誌的研究」, 『岡山商大論叢』 18 (1983).

杉山環, 「James Murdoch-2-書誌的研究」, 『岡山商大論叢』 19 (1983).

平川麻右弘, 『漱石の師マードック先生』 (講談社学術文庫, 1984).

3. 기타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6집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 1916년(병진년) 1월 1일 토요일」,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접속일: 2019. 1. 14., URL: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sa_030r_0010_0010_0010).

명지대학교도서관 한국관련 서양고서DB 검색시스템, 「〈A History of
Japan〉 해제」 (접속일: 2019. 1. 10. URL: http://www.e-coreana.or.kr/classic/fractionate_se_04_popup.jsp?book_id=AC_ENG_0515&vol_id=01&lang_flag=e&cmd=haeje).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朝鮮李舜臣伝 : 文祿征韓水師始末” (접
속일: 2019. 1. 17. URL: <http://dl.ndl.go.jp/info:ndljp/pid/900123>).

정진석, 「[제국의 황혼 ‘100년전 우리는’] [175] 통감부 기관지 ‘서울프레스’」,
『조선일보』 (2010. 5. 5.) (접속일: 2018. 5. 10. UR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04/2010050402522.html).

<Abstract>

Propagating the Image of Admiral Yi Sun-shin to the Western World: *A History of Japan* by James Murdoch, Which is the book of playing the Role of connecting link.

Seok, Yeong Dal

Homer Bezaleel Hulbert and George Alexander Ballard have been noticed as the two main figures in the propagation of the image of Admiral Yi Sun-shin to the West. Hulbert was a 'Koreaphile' who introduced Admiral Yi to the Western world. Ballard was a high-ranking Royal Navy officer who favorably compared Admiral Yi to Admiral Nelson and otherwise touted his accomplishments. However, there is a missing link in the propagation of the image of Admiral Yi to the West between the efforts of Hulbert and Ballard. That link is 'James Murdoch.'

This study examined Murdoch who has long been marginalized in Korean academia even though his book on Japanese history has been an important part of the propagation of the image of Admiral Yi abroad. Murdoch faced many difficulties in his life. After much wandering around the world, he finally settled down in Japan where he wrote *A History of Japan*, his three-volume masterpiece on Japanese history. The second volume included 16th century Japanese history and so discussed the Imjin War in which Japan invaded Korea and in which the legend of Admiral Yi began.

What is particularly interesting about this work is that it also draws the comparison between Admiral Yi and Admiral Nelson. This comparison did not originate with Murdoch, but actually arose from Japanese sources in the 1890s.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Japanese wanted the power of the Japanese navy to surpass that of Western navies. They appropriated the legendary history of Admiral Yi in pursuit of this goal. It was in this context that the comparison between Admiral Yi and Admiral Nelson arose.

However, this comparison did not last long because of the performance of Tōgō Heihachirō in the Battle of Tsushima (1905). In this battle, Tōgō

soundly defeated the Russian navy, causing him to become a source of pride in Japan, so the Japanese had no further need to compare Admiral Yi to Admiral Nelson. However, Murdoch's history was published in 1903 before the Tōgō had achieved his famous victory, a time when the comparison between Admiral Yi and Admiral Nelson was still prevalent. Murdoch wrote about this comparison because it was so popular at the time and Ballard quoted from Murdoch's history. It was through this process that the image of Admiral Yi was propagated to the Western world more broadly.

Key words: James Murdoch, A History of Japan, Imjin war(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Yi Sun-shin(Yi Sun-sin)-Nelson, Hideyosi- Napoleon, Tōgō Heihachirō, Homer Bezaleel Hulbert, George Alexander Ballard.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0, pp.315-358
<https://doi.org/10.29212/mh.2019..110.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6·25전쟁 초기 북한군 도하작전의 실패요인 연구

- 한강 도하 사례를 중심으로 -

정상혁*



1. 머리말
2. 전쟁이전 북한군의 도하작전 준비
3. 전투사례분석 : 한강도하
4. 결론

1. 머리말

6·25전쟁 당시 북한군의 ‘선제타격작전계획’이 실패한 데는 전쟁 초기 도하작전의 지연이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전쟁 이전 여건이 불비한 가운데 국군은 이미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하천선 방어 개념을 구상하고 있었고, 강과 하천이 다수 존재하는 한반도 지형은 공격부대의 진격속도를 둔화시켰다. 북한군은 개성-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강사

문산 축선의 임진강과 춘천-홍천 축선의 소양강을 도하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국군의 주력을 포위 섬멸하는데 실패하였다. 특히 전쟁 초기 서울을 단 3일 만에 점령했음에도 한강 도하를 신속하게 완료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실책이었다. 결국 북한군의 전쟁 초기 도하작전 실패는 전쟁수행 목표였던 ‘국군 주력의 섬멸’과 ‘단기 속전속결’을 좌절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렇다면 전체 전력 면에서 국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던 북한군은 왜 도하작전에서 실패하였는가? 기존 연구들에서 주목하는 요인들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첫째, 북한군은 서울 점령 이후 전과확대를 위한 즉각적인 추격을 실시하지 않았다.¹⁾ 결국 이로 인해 국군의 주력은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여 재편성을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점에서 김일성은 한강 도하를 위해 군사적으로 중요했던 한강교 점령 임무를 맡고 있었던 105 전차여단의 임무를 전환하여 공공기관, 방송국, 형무소 등 정치적 목표들부터 우선 점수하도록 명령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과오로 인하여 북한군은 한강 교량들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들 교량들은 모두 파괴되어 버렸다.²⁾ 만약 북한군이 즉각 추격을 실시하면서 한강 교량들을 확보하였다면 도하작전은 매우 수월해졌을 것이다.

둘째, 북한군은 하천을 극복하기 위한 도하장비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한강을 도하하는 데 많은 희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³⁾ 소련 군사고문단 역시도 북한군의 도하장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병, 전차 등 중장비의 도하가 지연되었다고 분석하

1) 북한군이 즉각 추격하지 않은 이유로 서울 점령 이후의 작전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고, 김일성이 서울만 점령하면 인민봉기에 의해 전쟁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 결정과 발발』, 1996, 제7장.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비에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권』, 2001, p. 166.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漢江線 防禦와 初期 遲延作戰』, 2006, p. 226. ; 일본육군사연구보급회, 『한국전쟁 1권』, 1991, p. 143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쟁사 제25권』, 1981, p. 142.

고 있다. 특히 한강은 평균 강폭이 1~1.5km, 수심이 3.5m에 이르는 최대의 천연장애물이었기 때문에 도하장비 없이는 이를 극복하기가 어려웠다.⁴⁾

하지만 기존 연구 성과들은 북한군의 도하작전 실패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 3사단, 4사단, 105전차사단이 3일 동안 추격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구소련의 기록들이 비밀해제 되면서 밝혀진 북한군 작전계획에 의하면 북한군은 2차에 걸친 양익포위를 구상했는데, 한강을 먼저 도하해야 하는 부대는 서울을 점령한 부대들이 아니라 측방에 있었던 2사단과 6사단이었기 때문이다.⁵⁾ 또한 서울 점령부대들이 즉각 추격을 실시했다라도 한강 교량들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북한군 전차가 처음으로 서울로 진입한 시간이 6월 28일 새벽 01:30분이었는데, 6월 27일 15:30에 이미 한강 교량상에 폭약 설치가 완료되어 있었기 때문이다.⁶⁾ 당시 한강교 점령 임무를 맡은 전차부대장은 길을 몰라 헤매다가 한강에 뒤늦게 도착한 이후 교량에 설치된 폭약을 보고나서 건널 결심을 하지 못했다.⁷⁾

다음으로 도하장비가 부족했었다는 주장은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한강 도하작전에 분명 영향을 주었지만 그것만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북한군은 도하장비만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장비가 부족했는데, 그런 면에서 우선순위가 시급한 것은 전투장비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분석은 『라주바에프 보고서』와 북한 공간사에서 다수 발견할 수 있는데 그들의 도하작전 과오를 축소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한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7월에 있었던 북한

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漢江線 防禦와 初期 遲延作戰』, 2006, p. 126.

5) 육군 군사연구소, 『춘천-홍천지구 방어전투』, 2012., 석영준, “6·25전쟁 초기작전 간 ‘북한군의 작전의도 분석-김포지구전투와 춘천지구전투를 중심으로’” 『군사연구 124집』.

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北韓의 全面南侵과 初期 防禦戰鬪』, 2006, pp. 658~662.

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에프의 6·25전쟁보고서 제2권』, 2001, p. 16.

군의 금강 도하였다. 금강 도하 시에도 북한군은 도하장비가 여전히 부족했고 금강의 모든 교량들이 파괴되어 있었지만 북한 공간사에서는 금강 도하작전을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⁸⁾

물론 북한군의 뒤늦은 추격과 도하장비 부족 문제는 전체 전쟁수행 측면에서 작전수행 속도를 저하시킨 것이 사실이다. 북한군의 뒤늦은 추격은 국군의 재편성을 가능하게 했고, 항상 도하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중장비들의 도하는 어려움 속에 진행되었다. 한강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한강 도하작전의 직접적인 실패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한강 도하작전 실패요인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술적 측면에서의 북한군 도하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군은 전쟁 초기였던 한강 도하작전에서 전술적으로 서툴렀고 이것은 전쟁 초기 국면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만약 김포 방면의 북한군 6사단이 전쟁 초기부터 전술적 역량이 우수하여 신속하게 도하에 성공, 영등포 방면으로 진격했다면 한강 방어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북한군 3사단, 4사단, 105전차여단이 한강을 7월 3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 도하했다면 낙동강 진출 시점은 훨씬 당겨졌을지도 모른다.

이를 통해 볼 때, 북한군의 전쟁 초기 한강 도하작전 실패는 분석 수준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위 수준인 군사전략/작전술 차원에서 북한군의 뒤늦은 추격이나 도하장비의 부족은 북한군의 전반적인 작전태포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서 한강 도하를 포함한 군사작전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 반면에 하위 수준인 전술적 차원에서 북한군의 미흡한 전술능력은 전쟁 초기 한강 도하작전 성패 여부를 보다 직접적으로 결정하였고 전체 전쟁수행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 이전 북한군의 도하작전 준비과정과 한강 도하작전에서 북한군의 전술적 능력을 분석하는 것은 한강 도하의 실

8) 허중호, 『조국해방전쟁사 제1권』, 1983, p. 219.

패요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군이 왜 전쟁 초기 도하작전 능력이 부족했는지, 전쟁 초기 전술적인 능력의 미흡이 전체 전쟁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쟁 이전 북한군의 도하작전 준비

가. 교리

북한군은 교리에 따라 훈련하였을 것이고, 개별 전투에서 훈련한 대로 행동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6·25전쟁에서 북한군의 도하작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군의 교리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당시 북한군의 도하작전 교리는 1945년도에 출판하여 1948년에 번역된 『야전규정』과 『강행도하』가 있다. 이들 교리들은 각각 총참모부와 민족보위성에서 출판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교리들은 소련으로부터 도입된 것이고, 불과 전쟁 발발 1~2년 전에 번역되었기 때문에 실제 이를 체득할 시간은 부족하였다.⁹⁾ 더구나 교리에서 요구하는 장비들의 도입은 더욱 늦었고 이를 훈련할 시간 역시 부족했다.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훈련해야 했던 상황이었고 도하작전은 그 중에서 매우 난이도가 높은 과제에 해당했다. 상륙작전이 육·해·공군 간 수많은 사항을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도하작전 역시 공병부대 뿐만 아니라 보병, 포병, 기갑, 통신 등 육군 내 거의 모든 병과를 통합하여 수행해야 하는 작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짧은 시간 북한군이 도하작전 교리를 완벽하게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

9) 북한군 공병군관인 주영복은 매일 <병사·하사관용 공병교본, 1949년 출간>을 번역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 북한군 군관들은 번역된 소련군의 군사교범을 통해 교리를 배우고 있었다.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제1권』, 1991, pp. 95~98.

이었다. 특히 북한군은 교리를 구현하기 위한 장비가 부족했고 이를 수행하는 군관들의 능력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하작전 교리는 전쟁 이전까지 북한군이 군사력을 운용하기 위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군의 교리는 수많은 전투경험과 그로 인해 얻어진 교훈들로 만들어진 것들로서 군의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이 된다. 따라서 교리에 충실하다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이고 북한군은 교리에 따라 도하작전을 준비했을 것이다.

적의 방어 상태에 따라 북한군의 도하작전 형태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적이 방어를 갖추기 전에 신속하게 도하하는 방법과 적이 방어를 갖춘 상태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협조된 도하를 하는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하천의 넓이, 깊이, 유속 등 하천의 성질과 적의 방어 상태이다. 이렇게 지형과 기상, 적 상황에 따라 지휘관은 도하작전의 형태를 판단할 수 있다.

신속하게 도하를 하는 방법은 많은 면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북한군 교리에서는 상황이 허락한다면 되도록 신속하게 도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¹⁰⁾ 이를 위해서는 유리한 도하점을 장악하고 그 도하점을 통해서 부대를 도하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의 교리는 기동성 있는 부대가 도하점을 신속하게 점령하고 주력이 도달할 때까지 이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북한군 기갑부대 교리에도 도하작전 시 유리한 도하점을 신속하게 점령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¹¹⁾ 그러나 도하가 용이한 곳들은 상대 역시 강력한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휘관은 하천에 이르기 전에 임무분석 및 정찰을 통해 미리 전투의 목적과 기도, 부대의 임무, 전투서열, 도하방법, 화력지원, 연락조직, 적의 방어,

10) ATIS Document no. 200534, 『강행도하』, 1949년판, 1948년 9월 번역출판, p. 120.

11) 김광수, 『한국전쟁 중 북한군의 기갑운용연구』, 2004, pp. 20~21.

하천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만약 신속하게 도하할 수 있는 유리한 도하점을 탈취하는 데 실패하였다면 북한군 교리에서는 준비되고 협조된 도하, 즉 ‘강행도하’를 실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상대가 이미 하천에서 방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 신속한 도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실시한다. 강행도하를 실시할 경우에도 도하지점의 탈취는 여전히 중요한데 도하의 모든 준비가 대안의 도하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도하지점에서 북한군은 기습적으로 대안의 적을 소탕하고 교두보를 확보하여야 하고 도하장비를 비밀리에 집결 및 수집하여야 하며 병종 간 협동동작과 화력지원을 충분히 협조한 이후에 도하를 실시하여야 한다.¹²⁾

이렇게 점령한 도하지점 근처 대안에서의 중요한 활동들은 정찰과 공격계획 완성이다. 정찰은 도하지점의 지형을 분석하고 지뢰 등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이다. 북한군 교리는 도하하기 전에 부대는 반드시 정찰을 실시하여 적의 약한 지점을 판단하고 도하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³⁾ 정찰을 실시하면서 적의 약한 지점이 식별되면 이 방향으로 침투를 실시하는데, 침투부대는 화력을 유도하고 후방을 교란하며 퇴로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수단이다.¹⁴⁾ 공격계획은 공병장과 지휘관이 도하계획표를 작성함으로써 완성되고 도하 중에 사단(여단)장은 도하지휘관으로, 공병부대장이나 공병장은 도하지점의 위수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도하작업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임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¹⁵⁾

도하를 실시할 때, 북한군은 통상 넓은 전선에서 동시에 도하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허위도하점을 설치하여 적에 대한 기만대책을 강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기만대책은 적의 병력을 분산 배치하도록 하여 실제 도하 지점에 대한 적의 방어를 약화시킨다는

12)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야전규정』, 1945년판, 1948년 4월 번역출판, p. 365.

13) ATIS Document no. 200534, 『강행도하』, 1949년판, 1948년 9월 번역출판, p. 117.

14) ATIS Document no. 200534, 『강행도하』, 1949년판, 1948년 9월 번역출판, p. 121.

15)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야전규정』, 1945년판, 1948년 4월 번역출판, pp. 369~370.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적의 주의를 주도하지점으로부터 분산시키기 위해 허위도하점의 설치는 중요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¹⁶⁾

또한 도하 실시간의 화력지원을 중요시하였는데 포병, 박격포, 항공대가 화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¹⁷⁾ 주력이 도하하기 전에 반드시 대안에 교두보를 확보한 후에 도하를 실시하며 상대의 화력을 방어하기 위해 방공무기와 대전차 무기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도하 전 과정에서 중단없이 지속적인 화력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도하 시기는 대규모 화력지원 하에 주간 도하를 실시할 수 있고 야간에 은밀하게 도하를 감행할 수 있지만 주력의 도하는 야간도하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주력의 도하는 비교적 야간이나 저녁, 미명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고 있으며 저녁 시간에 도하할 때는 지정된 계선을 점령할 시간을 보장하라고 하고 있다.

도하과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넓은 전선에서 1제대가 도하하여 차후작전에 유리한 계선 점령, ② 후속 제대가 도하하며 지휘는 보병지휘관이 담당(주력의 도하는 야간이 바람직), ③ 1제대가 대안을 확보하면 야음을 이용하여 교량가설(아침에는 교량을 해체하고 도선판을 이용하여 도하)¹⁸⁾ 이를 통한 개략적인 북한군의 도하작전 소요시간은 사단 단위로 4.5~6.3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¹⁹⁾ 도하작전 형태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6)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야전규정』, 1945년판, 1948년 4월 번역출판, p. 364.

17)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야전규정』, 1945년판, 1948년 4월 번역출판, p. 367.

18)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야전규정』, 1945년판, 1948년 4월 번역출판, p. 372.

19) 보병부대는 “시” 시간에 상륙도하하고, 중장비 부대는 “시” 시간 이후 도선판으로 도하하며, 사단 주력부대는 1, 2제대가 도하 완료되는 4시간 이후에 교량을 통해 도하한다. 장성진, “낙동강 영산전투시 북한군의 도하작전 분석”, 『軍史』제78호(2011.3), p. 139.

〈표 1〉 도하작전 형태 및 방법

구 분 ²⁰⁾	도하기재	도하시기	도하제대	도하기재
상륙도하	떼(뗏목), 공격단정, 주교	교두보 형성	1제대, 전위대	보병, 관측병, 경화기
여덟도하	밧줄, 흙가마니			
수영도하	부유기재(판대기, 원목, 외투-천막, 짚주머니 등)			
도선판도하	도선판	교두보 확장	2제대 중량 초과장비	포병, 전차 탄약
교량도하	별교(뗏목다리), 부교(장비), 수중교(흙가마니)	주력도하	주력	-

출처 : 장성진, “북한군 군사교리 형성과 운용에 관한 연구, 1945~1950”, 북한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4), pp. 208~209.를 재구성

이렇게 북한군의 도하작전 교리를 살펴본 결과 도하지점 선정, 도하준비 과정, 정찰 및 침투, 화력지원, 도하시기 선택, 교량가설 까지 상당히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군은 전쟁 경험이 없었지만 전쟁 이전 비교적 우수한 교리를 보유할 수 있었다. 이것은 도하작전 교리뿐만이 아니라 북한군 전체적으로 소련군의 교리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리를 실전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부단한 훈련을 통해 이를 체득해야 했다. 북한군이 단기간 내에 이러한 교리들을 내면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나. 도하장비

북한군은 1949년 3월 평양 북방의 간리에 총 병력 1,000명 수준의 공병연대를 창설하였고 예하에 공병 1개대대, 중부교대대, 경부교대대를 두고 있었다. 이후에 북한 공병부대는 소련으로부터 장비를 도입하고 1950년 4월에 공병여단으로 증편하였다.²¹⁾ 소련측 자

20) 상륙도하 : 수륙양용장갑차와 같이 자체로 도하기능한 장비가 도하 여울도하(여덟도하) : 소하천(폭 60m 이하, 수심 1m 이하)에서 도하장비 없이 도섭 도하 헤엄도하(수영도하) : 개인용 부유기재를 이용하여 인원이 도하 배제도하(도선판도하) : 배나 문교를 이용하여 인원 및 장비가 도하 교량도하 : 부교를 설치하여 도하하는 곳 북한군 교리 22-9-2 『집단군(군단)·사(여)단』, 2009, p. 264.

료에 의하면 전쟁 발발 이전 북한군은 총 9개의 군 공병대대, 30개의 사단 공병중대가 있었는데 장비가 매우 부족하였고 대부분의 공병작업들은 수작업에 의존하는 수준이었다.²²⁾ 도하장비 역시 수량이 부족했고 수량이 적은 대부분의 도하장비는 최고사령부 예하에 있었는데, 하위 제대인 사단들은 자체 도하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사령부로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도하장비를 증원받는 형태로 운용되었다.

전쟁 발발 이전 북한 공병부대가 보유하였던 대부분 도하장비의 충당은 주로 소련의 지원이나 차관 형식으로 전투 장비를 구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도하장비 역시 마찬가지였다. 도하장비는 상륙을 위한 선박이나 문교, 부교 등을 의미한다. 아래의 도표는 러시아 외무성 문서고 자료로서 1949년 4월 28일 북한이 요청한 도하장비들과 1949년 6월 4일 소련군이 공급한 장비들인데, 물론 이후에 더 많은 장비들이 도입되었다. 여기서는 북한군이 주로 어떤 도하장비들을 사용했는가를 알 수 있다.

〈표 2〉 1949년 소련군의 북한군 도하장비 지원

구 분	요청	공급	수량단위
수송선/함교/자동이송장치 갖춘 NLP 유형	6	3	척
N2P 수송선/함교	1	1	척
“jam sea” 수륙양용 보트	6	-	대
“A-3” 보트	12	12	대
DSL형 공격상륙작전용 보트	12	12	대
LMN형 압축 보트	20	20	대
“BMK” 모터보트	6	5	대

출처 :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2004, pp. 596~601.

21) 연대장에는 장인호 대좌가 임명되었고, 연대 예하에는 공병 1개 대대(약 250명), 중도하대대, 경도하대대, 전기중대, 급수중대, 자동차 수리소, 기계수리소 등이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漢江線 防禦와 初期 遲延作戰』, p. 273.

22) 러 국방부. 김중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p. 367.

최초 교두보 형성단계에서 사용되는 상륙보트 등의 장비제원은 아래 도표와 같다. 모든 보트의 제원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은 수량이 신청되었던 LMN형 보트는 일부 정찰조 인원들을 태울 수 있을 정도의 소형 보트이고, A-3보트의 경우는 대략 1개 소대급 인원을 태울 수 있는 보트였다. 나머지 정확한 제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보트들 역시 대부분 중대급 이하에 해당하는 소부대급 도하기재들로 판단된다. 중장비들을 도하시킬 수 있는 도선판에 해당하는 N2P, NLP와 비교해보면 보트들이 적재할 수 있는 용량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전쟁 이전 소련군이 제공한 도하장비 제원 중 일부의 제원

구 분	승무원/탑승원 or 화물용량	길이	높이	중량
“A-3” 보트	10/20 or 6,000lb	20ft	1ft 4in	900lb
LMN형 압축 보트	1/5 or 1,400lb	10ft 6in	2ft 9in	95lb
NLP	5~9 / 10,000lb	23ft	2ft 8in	900lb

출처 : Gordon L. Rotman, *World War II River Assault Tactics*, 2013, p. 19.

이 자료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NLP’와 ‘N2P’ 같이 많은 인원과 장비를 도하시킬 수 있는 도선판/교량장비이다. 이러한 장비들은 주로 교두보 확장 단계나 주력도하 단계에서 운용되어 차후작전을 신속하게 전개하는데 도움을 준다. NLP는 주로 중량이 가벼운 경장비를 도하시키는 기재이고, N2P는 NLP보다 중량이 무거운 중장비를 도하시키는 기재이다.²³⁾ 이 자료를 통해 북한군이 사용한 도하장비들을 알 수 있으며 북한군 편제와 2차 대전시 소련의 도하작전 양상을 고려했을 때 NLP는 경부교대대에서, N2P는 중부교대대에서 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NLP와 N2P는 개별로 운용되면 도선

23)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은 NLP를 경부교대대에서 운용하였는데, NLP는 200~250ft 길이의 부교를 건설할 수 있는 장비로서 5~14톤의 중량의 장비를 지탱할 수 있는 장비였다. N2P는 중부교대대에서 운용하였으며 N2P는 325ft 길이의 부교를 건설할 수 있는 장비로서 30톤 중량의 장비를 지탱할 수 있었다. Gordon L. Rotman, *World War II River Assault Tactics*, 2013, p. 28.

판으로서 전차나 포병 1~2대 정도를 도하시킬 수 있는 장비이지만 이를 연결시키면 교량장비로서 활용되는 장비로서 오늘날의 문교/부교장비에 해당한다.

북한군이 보유했던 도하장비들의 정확한 수량은 알 수 없지만 여러 자료를 통해 제한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북한군이 실제 보유했던 도하장비 수량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인데 김광수의 연구는 사료 검증 및 포로 진술 자료를 통해 도하장비의 수량을 추정하고 있다.²⁴⁾ 그에 따르면 중도하장비인 N2P 수량을 총 48조로 판단하고 있고, 경도하장비인 NLP의 수량은 총 24조로 파악하고 있다. 전쟁 초기에 N2P 중 24조는 김포 방면의 6사단이, 나머지 24조는 105전차여단이 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련측 자료에서도 북한군 6사단은 N2P 부교대대와 16톤의 NLP를 증원받아 임무를 수행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1사단이 일부 공병부대를 지원받아 운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²⁵⁾

종합해보면 전쟁 초기 북한군이 보유했던 도선판/교량장비들은 N2P 총 48조, NLP 24조로 보인다. 도하장비 대부분은 김포 방면 6사단과 서울 방면 105전차여단에서 운용되었고, 경도하장비인 NLP 일부는 북한군 1사단이 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사단들의 경우 도선판이나 교량장비는 없었지만 보트 및 단정이나 나룻배, 뗏목, 부유물 등의 현지 조달 기재를 최대한 활용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도하장비의 수량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당시 북한군 군관들은 잘 인식하고 있었다. 전쟁 당시 북한군 공병부 군관이었던 주영복은 북한 측에서 요청한 수준의 도하장비를 소련군으로부터 수령 받지 못했다고 회고록에서 진술하고 있다. 주영복은 1950년 4월 중순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나진-청진 지역으로 도착한 군수장비를 접수하는

24)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 전략, 작전지휘, 동맹관계”, 2008, p. 72.

25) 러 국방부. 김중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p. 367.

임무를 맡고 이를 확인한 결과 1949년 공병국이 청구한 공병기재 수량의 5분의 1에 불과했다고 한다.²⁶⁾ 일본 육전사연구보급회의 기록에서도 북한 측이 요청한 도하장비는 4개팀 분량이었으나 실제 소련으로부터 수령한 것은 1개팀 분량에 지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⁷⁾

도하장비들의 소요를 검토한 영향력 있는 집단은 북한 내 소련 군사고문단이었다. 소련군은 북한군을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갓난아기 수준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군사 분야의 모든 결정들을 직접 담당하였다. 정병준에 의하면 소련 군사고문단은 주로 광활한 평야 지대에서의 전투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지형에는 익숙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도하장비를 충분히 요청하지 않았다.²⁸⁾

그러나 소련 군사고문단이 단순히 한반도 지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하장비를 충분히 요청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검토가 필요하다. 거의 모든 군사장비가 부족한 가운데 도하장비는 전차, 항공기, 포병 등의 전투장비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소련 군사고문단은 미군의 참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하는 항공기 폭격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했고, 그에 따라 도하장비 수량을 적게 판단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련 군사고문단은 이러한 도하역량을 고려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소련 군사고문단은 도하장비를 균등 할당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운용했다. 즉, 서울을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는 김포 방면의 6사단과 중장비가 많은 105전차여단에 도하장비를 집중 할당했던 것이다.

결국 북한군이 도하장비 부족으로 인해 전쟁목표인 단기 속전속결을 완성할 수 없었던 것은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 북한군은 한강에서 신속한 도하작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유엔군에게 시간을 허용

26)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제1권』, 1991, p. 200.

27) 일본 육전사연구보급회 편. 이원복 역, 『韓國戰爭』, 1991, pp. 55~56.

28) 정병준,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2006, p. 518.

했다. 그러나 금강에서의 도하작전을 고려한다면 단지 도하장비 부족 때문에 한강 도하작전에 실패했다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북한군은 도하장비가 없었지만 그들의 공간사에서 금강에서의 도하작전을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²⁹⁾ 또한 한강 도하 이전 소련 군사고문단과 북한군은 도하장비 부족을 이미 알고 있었고 도하장비를 돌파 지점에 집중하고 있었다. 비록 북한군이 한강과 금강에서 도하 성공 이후에 중장비 도하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각각의 개별 도하작전 성패는 북한군의 전술적 능력 발휘 여부에 따라 달랐다.

다. 훈련

전장에서의 마찰을 줄여주는 것은 훈련이다. 북한군의 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전과 같은 훈련이 관건이었다. 북한군은 전쟁 이전 가용시간이 부족했지만 소련군 교리에 따라서 많은 도하훈련을 실시하였다. 겨우 소부대급 훈련 정도를 실시하였던 대다수의 국군 부대에 비해 북한군은 대체로 연대급 훈련을 숙달할 정도로 비교적 잘 훈련된 편이었다. 전체적으로 북한군이 국군에 비해 잘 훈련된 편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도하훈련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전쟁 이전 1949년 여름과 겨울, 1950년 봄에 걸친 기간에 북한 인민군의 모든 부대는 전투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의 강도는 점차 강화되었으며 각종 검열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음 훈련이 진행되었다.³⁰⁾ 특히 4월에는 전군 차원에서의 검열이 있었다. 북한군은 38경비 1여단과 3여단을 38선상에 배치하여 경계를 전담시키면서 주력 부대는 후방에서 사단급 훈련과 보·전·포 합동훈련을

29) 허중호, 『조국해방전쟁사 제1권』, 1983, p. 219.

30)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 결정과 발발』, 1996, pp. 345~346.

실시하였다. 이러한 훈련 결과는 소련 군사고문단의 검토를 받았으며 1950년에 들어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남한 지형을 연구하면서 대규모 남침 예행연습까지 실시할 정도였다.³¹⁾

전쟁 이전에 북한군의 도하훈련은 1949년 하계 군사훈련 시기에 대대 및 연대 도하훈련을 실시하였다.³²⁾ 도하장비를 동원한 훈련은 장비의 도입 시기를 고려하면 적어도 1949년 후반기 이후부터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민군 공병장교였던 주영복의 회고록에 의하면 사단급 도하훈련은 1950년 2월 대동강에서 공병 진지들과 훈련과 함께 실시되었다. 훈련내용은 “① 도섭도하, ② 보병·경화기, 그리고 보급품을 운송하는 뗏목으로서 도하, ③ 보트에 의한 상륙도하, ④ 포차·탱크를 위한 합선 견인도하”였다.

제2차 대전 때에는 어느 나라의 공병부대에도 주교·부교 시설과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는데, 극히 원시적이었던 인민군 공병대에는 그러한 배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1946년 인민군 공병이 창설되어 소련 고문들로부터 삽·도끼 따위의 규격·무게·용도 등부터 배우기 시작한 이래로 이제 인민군 공병은 대동강만한 하천에 하루에 1개 사단 병력을 도하시킬 수 있는 부대로 성장했다. 그렇지만 이것도 바람이 없고, 비도 오지 않고, 대안에 적이 없다는 조건에서만 이뤄질 수 있었다.³³⁾

1950년 2월 북한군은 대동강 상류에서 공병 축성지대 돌파연습과 도하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 때 2개 보병사단과 105전차여단이 참가한 가운데 사단급 도하훈련을 실시하였다. 주영복에 의하면 훈련 부대는 이 때 “포병·전차를 위한 합선 견인도하”를 실시했다. 소련 군사고문단은 이를 두고 105전차여단이 6시간 이내에 한국의 평균 폭을 가진 하천을 도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하였

31) 온창일, 『한민족전쟁사』, 2001, p. 492.

32) 장성진, “북한군 군사교리 형성과 운용에 관한 연구, 1945~1950”,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4), pp. 136~137.

33)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제1권』, 1991, pp. 185~187.

다.³⁴⁾

그러나 주영복에 의하면 이것은 ‘기상에 제한이 없고 대안에 적이 없다는 조건’에서 이루어진 실전적이지 못한 훈련이었다. 즉, 도하를 위해서는 포병이 도하지점 건너편의 적들을 화력으로 제압하면서 지속적인 화력지원하에 각 병종들이 긴밀한 협조 하에 도하기재에 탑승 및 하차를 거쳐 도하를 실시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포함된 제병협동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쟁 초기 도하작전간 화력지원이 미흡했고 포병들의 도하경험이 미흡하였던 것은 훈련부족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것은 작전이 장기화되는 주된 원인 중의 하나였다. 소련 군사고문단 역시 도하작전 간 포병들이 하천 건너편 중심의 주요 고지들의 국군 화력을 충분히 제압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⁵⁾ 북한군 보병 고급 지휘관들은 포병 화력을 통제하는 데 미숙하였고 화력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안에서 노출된 보병과 공병들은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포병들의 도하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도하작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³⁶⁾

또한 실전적 훈련을 위해서는 모든 도하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도하훈련을 실시해야 했을 것이지만 1950년 2월에는 도하장비들이 부재한 상태였다. 북한군이 소련에 요청한 도하장비는 4월 블라디보스톡에서 나진 및 청진 지역으로 접수되었기 때문이다.³⁷⁾ 주영복은 2월의 대동강 도하훈련이 당시 가용한 모든 도하기재를 투입한 훈련이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제한된 수량의 도하기재였을 것이다. 주영복이 묘사한 훈련에서도 부교를 이용한 도하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도선판을 이용한 견인도하만 실시한 것은 도하기재의 부

34) Kalinov, *How Russia Built North Korean Army*(The Reporter, 1950) p. 20. ; 손장래, 『한국전쟁시 피·아 기갑운용』p. 5에서 재인용

3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비에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권』, 2001, pp. 315~317. ;

36) 러 국방부. 김중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p. 223.

37) 일본 육전사연구보급회 편, 앞의 책, p. 55.

족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도하작전을 할 수 있는 제반 훈련여건도 불비하였다. 전쟁 발발 이전 38선 지역의 교량을 신설 및 보수하는 등 다수의 작업 소요는 공병들의 훈련을 어렵게 하였을 것이다. 또한 당시 사단급 지휘관들은 차후작전에 해당하는 도하훈련보다는 당면과제인 공병 축성지대 돌파 연습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었다. 더구나 사단 공병대대는 제대로 된 도하장비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공병 작업을 수작업에 의존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북한군이 계획한 전쟁수행의 핵심이 단기 속전속결전이라는 점에서 하천이 많은 한반도 지형을 신속히 극복하기 위해 도하훈련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모든 병종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도하훈련을 위한 시간이 부족했고 도하장비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중장비 도하와 제병협동훈련을 숙달할 수 없었다. 또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작업과 훈련들로 인해 도하훈련을 실시할 여건도 불비하였고, 1950년 2월에 실시된 사단급 도하훈련도 실전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실시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군은 소련군으로부터 전수받은 교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하장비 및 훈련 부족으로 전쟁 초기 한강에서 신속한 도하작전에 실패하였다. 도하장비의 부족보다도 도하훈련의 부족은 북한군의 전술적 역량을 약화시킴으로써 전쟁 초기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도하작전 교리에 제시된 정찰, 침투, 기만, 화력지원, 협동동작 등의 원칙들은 한강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고 그 결과 북한군은 한강을 신속히 도하하는데 실패하였다. 북한군 6사단과 105전차사단은 얼마 안 되는 도하장비를 집중 운용하였지만 결국 한강을 도하하는데 실패하였고, 북한군 포병들은 한강 이남의 국군 화력을 제압하는데 실패하였다.

3. 전투사례 분석 : 한강 도하

가. 개요

북한군은 6월 28일 서울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29일부터 도하탐색 및 선견대 도하를 실시하여 30일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도하 작전을 실시하였다.³⁸⁾ 북한군의 105전차여단 같은 경우 서울에 진입하여 한강교를 점령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실제로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인민군은 부차적인 목표 달성에 시간을 낭비하였다.³⁹⁾ 이것은 정치 지도자의 개입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인민군이 서울 외곽에 접근했을 때인 6월 27일 김일성은 중앙청, 서대문형무소, 방송국 점령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이러한 목표들은 정치적인 상징성은 있을 것이지만 군사적인 가치는 낮았다. 그로 인하여 105전차여단은 김일성과 총참모장 강건이 부여한 작전 우선권 때문에 교량을 점령하지 못한 채 6월 28일과 29일 오전까지 서울 시내를 배회했다. 결국 북한군은 교량 확보는 물론이고 한강 북안의 선박들조차 제대로 탈취할 수 없었다.⁴⁰⁾ 만약 북한군이 신속하게 한강 도하지점을 점령하고 도하함으로써 국군의 주력을 추격하였다면 유엔군의 참전은 어려웠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군의 전체적인 작전계획을 고려했을 때 서울 정면의 부대들은 적절히 국군을 압박하여 견제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고, 측방에 위치한 김포 방면 6사단과 춘천 방면 2사단이 한강을 도하하

38)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 결정과 발발』, 1996, p. 321.

39) 각 사단장들은 서울에서 퇴각하는 적을 적극적으로 추격하거나 한강 도선장들을 점령하지는 않은 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모호하게 행동하였다. 또한 105땅크 여단 예하부대들도 서울을 점령한 후 3일 동안 적을 추격하지 않은 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적에게 한강의 남쪽 강변을 강화하고 교량을 파괴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에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권』, 2001, p. 166.

40) 김광수, 『한국전쟁 중 북한군의 기갑운용 연구』, 2004, pp. 29~31.

여 2차 양익포위를 완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를 위해 북한군은 김포 방면의 6사단에 가장 많은 도하장비를 할당했지만 예상 외로 도하가 늦었고, 춘천 방면의 2사단은 춘천 전투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서울 방면의 전투에 참가조차 하지 못했다.⁴¹⁾ 특히 김포 방면의 6사단은 북한군 중에 가장 많은 도하장비를 할당받았음에도 6월 28일까지 도하가 지연되는 바람에 국군의 방어선을 형성을 허용했다. 결국 6월 29일부터는 한강 주변에 대해 미 공군의 대대적인 폭격이 시작되면서 신속한 도하의 기회는 사라졌다.

1950년 6월 28일 오후 국군이 형성한 한강 방어선의 작전지역은 정면이 26km에 달하였으며 군포장-판교를 잇는 선까지 18km의 중심을 둔 지역이었다. 한강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임진강을 흡수, 황해로 흘러드는 길이 514.4km의 한반도에서 4번째로 긴 하천이다. 한강은 그 하폭이 700~1,500m이며 수심은 대체로 2~5m로서 도섭이 불가능한 상당히 규모가 큰 하천이다.⁴²⁾ 따라서 북한군이 한강을 도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도하장비와 군관 및 병사들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전쟁 이전 북한군의 준비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소규모로 구축한 다수의 교두보들을 확장하지 못하고 7월 3일까지 작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강을 도하하기 위한 통로는 5개의 교량과 6개의 나루터가 있었다. 당시 한강에서는 용산에서 노량진을 잇는 한강대교(인도교)와 경부 복선화철교(철교), 경인 상행선(철교), 하행선 철교(철교), 광진교(인도교) 등 총 5개의 교량이 있었다. 채병덕 총장으로부터 한강 교 폭파를 지시받은 최창식 공병감은 한강으로 이동해 대기하고 있던 폭파조에게 명령하여 28일 02:30경 한강 인도교와 3개소의 철교를 폭파하고, 04:00경에 광진교도 폭파했다.⁴³⁾ 그러나 경부선 철

41) 2사단의 경우 2일차에 한강을 도하하여 서울 동남쪽에 투입되기로 했지만 춘천 전투로 인해 지연되어 한강을 5일차 이후에 도하했으며 그 이후에도 서울 지역에 거의 기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강 도하작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42)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 1985, pp. 298~299.

교와 경인선 상행선 철교는 경간의 침목과 철로가 약간 손상된 수준으로서 이후 미 공군의 폭격에 의해서도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다. 한강변의 나루터는 하중리(서강~여의도), 마포(마포~여의도), 서빙고(서빙고~잠실리), 한남동(한남동~신사리), 광나루(광장동~천호동)의 6개소가 있었다. 각 나루터에는 소형 목선과 부선이 다수 존재하였고 특히 한남동 나루터는 규모가 커서 차량을 도하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⁴⁴⁾

한강선 방어작전은 국군 시흥전투지구사령부 예하 수도사단, 2사단, 7사단이 한강 방어선을 형성하여 북한군 1군단 예하 3사단, 4사단, 6사단, 105전차여단의 공격을 저지하여 7월 3일까지 지연시킨 작전이었다. 국군의 작전개념은 미 지상군이 도착할 때까지 북한군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것으로서 혼성 2사단은 신사리~이수교 정면을, 혼성 혼성 7사단은 이수교~대방동 정면을, 수도사단은 신길동~양화동 방면을,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김포 방면을 방어하였다. 북한군의 작전개념은 3사단, 4사단, 105전차여단이 서울을 공격하면서 북한군 6사단이 김포 방면에서 도하하여 국군의 후방인 경인가도를 차단함으로써 영등포에서 국군의 좌측면을 위협하고 한강방어선을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나. 김포 방면

김포 방면은 영정포~김포반도의 한강 하구 지역으로서 한강 하폭이 2~3km이고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아 간만조 시기에는 유속이 1~1.5m/s에 이를 정도로 도하가 매우 제한되는 지역이었다. 국군

43)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6·25전쟁 실패사례와 교훈』, 2004, p. 72.

44) 하중리 나루터와 한남동 나루터 건너편 여의도와 신사리 일대에는 강제고지가 없고, 각종 주정의 접안이 용이하여 교부보를 설치하는데 유리하였으므로 북한군이 도하지점으로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 1985, pp. 298.~299.

은 이러한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이 지역에 대한 국군 배치나 대비계획이 없는 상태였다. 북한군 6사단이 개성을 점령한 이후 국군을 추격하여 26일 김포 방면에 도착하자 육군본부는 철수한 1사단 12연대 2대대 병력과 각종 병과학교 후보생, 보국대대 병력으로 급히 김포지구 전투사령부를 편성하였다.⁴⁵⁾



〈그림 1〉 김포 방면 전선상황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北韓의 全面南侵과 初期 防禦戰鬪』, 2006, p. 247.

육군본부는 6사단이 도하에 성공하여 영등포로 진출할 경우 한강 방어선의 좌측면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형적 여건을 과신하여 초기에 미온적 조치만을 취했다. 초기의 김포지구 전투사령부는 대부분 행정병이나 후보생, 철수병력으로 구성된 취약한 상태였다. 이것은 북한군에게는 커다란 기회였고 6사단은 많은 도하

4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北韓의 全面南侵과 初期 防禦戰鬪』, 2006, pp. 244~246.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군의 좌측면을 위협하여 한강 방어선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공간사에 의하면 북한군 6사단은 26일 도하정찰을 실시하고 27일부터 대안에서 지원사격과 함께 본격적인 도하를 시작하였다. 북한군은 26일 주간에 도하정찰 및 선견대 도하를 계속하면서 18:00경에 약 2개 중대 규모가 수척의 어선을 이용해 하조강리-강녕포로 도하를 시도했다가 국군의 일제사격으로 격멸되었고, 석류포에서는 화물선을 끌고 접근하는 발동선(동력단정)이 국군 장갑차 37mm포에 의해 격침되었다.⁴⁶⁾ 이처럼 선발대의 주간도하가 연이어 실패하자 북한군은 26일 야음을 이용하여 소규모 침투부대를 다시 강녕포로 침투시켰고 침투에 성공한 북한군 선발대는 국군을 후방에서 기습하였다. 27일 침투부대의 화력유도 하에 북한군 주력은 각종 어선에 분승하여 한강 도하를 개시하였다.⁴⁷⁾

그러나 북한군 6사단의 도하는 25일 한강에 도착하면서 곧바로 시작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소련측 자료에 의하면 북한군은 25일 한강 도착과 동시에 도하를 개시하였고,⁴⁸⁾ 26일 06:30까지 이미 2~3개 대대, 연대 포병 2문이 도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북한군은 제한된 가운데서도 26일까지 3km의 교두보를 확보하였고, 27일에는 6사단 예하 13, 15연대 주력과 포병연대 2개 포대, 17독립포병연대 2포대를 도하시키면서 교두보를 5~6km까지 확대시켰다.⁴⁹⁾ 이를 분석해보면 26일에 도하한 병력들은 단순히 선견대 및

46) 여기서 나타난 발동선은 소련군의 BMK 계열 모터보트로 추정되며 어선들은 징발된 현지 도하기재로 판단된다.

4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 1985, pp. 257~268.

48) 6월 25일 오후 늦게 제6사단의 선두부대들이 제15보병연대 포병과 합동으로 한강을 도하하였으며 6월 26일 아침 06시 30분 무렵에는 조강리 지역에 중심 2.5km 내지 3km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권』, 2001, p. 295.

4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권』, 2001, pp. 168~169. ; 리김중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pp. 32~33.

침투부대가 아닌 3km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가 큰 병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7일에 북한군은 교두보를 확장할 수 있는 포병들이 3개 포대까지 도하한 것으로 파악되고 이를 통해 교두보를 확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군의 김포·소사·오류동 지구 지연전(8일간)으로 인해 7월 3일까지도 이 지역에 묶여 있게 되었다.

양측의 기록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요인은 김포 방면에서 도하 하였던 북한군 부대들이 도하한 이후 별다른 전투행동을 하지 못했고, 국군 역시 이 지역에 병력을 거의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한 것이 늦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은 소규모 교두보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장하는 다음 단계로 진입하지 못했다. 북한군 6사단이 포병을 신속히 도하시키고 소부대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교두보를 확장한 이후 경인가도를 차단했다면 한강선 방어를 붕괴시킬 수 있었다. 북한군 가운데 비교적 훈련수준이 우수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6사단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전술적으로 도하 작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소련 군사고문단은 김포 방면에서 북한군 포병의 도하장비 부족과 경험 미숙으로 전체적인 도하가 지연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소규모 교두보 형성 이후 북한군 6사단은 27일이 되어서야 주력 도하에 성공했지만 포병 등 중장비의 도하는 28일 야간까지도 계속되었다. 더구나 만조로 인하여 강이 4~5km까지 범람한 상태였기 때문에 포병 도하를 위해 준비한 선박의 운용이 곤란하였다.⁵⁰⁾ 뿐만 아니라 이미 도하한 포병조차 탄약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⁵¹⁾ 결국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도하를 개시했던 북한군은 28일 포병의 도하가 완료된 이후에야 진격을 재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이미 한강 이남에 한강방어선이

5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권』, 2001, p. 295.

5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권』, 2001, p. 296.

형성되고 김포지구전투사령부가 지연전을 내륙 중심에서 전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이었다.

북한군 6사단의 포병이 신속한 도하에 실패한 것은 도하장비의 부족 때문만은 아니었다. 6사단은 다른 사단과 달리 중도하장비인 N2P 24조와 경도하장비 NLP 일부를 지원받았다. 이들 도하장비들은 포병 등 중장비를 도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북한군의 도하작전 교리를 통해 유추해보면 좀 더 명확해진다.

북한군의 도하준비 모습은 『강행도하』 교범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우선 김포 방면에서 북한군 6사단이 한강을 도하하기 위해 교량을 가설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행도하』 교범 도하장비 제원에 따르면 강의 넓이가 1km일 경우 도선판은 약 8~12개가 필요하다.⁵²⁾ 그러나 한강 하류의 강폭(만조시 4~5km)과 당시 비가 와서 강물이 불어 있는 상황(소련측 자료 강폭 6km)을 고려한다면 북한군이 갖고 있었던 N2P 24조로는 교량 가설까지는 불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량 가설이 불가하였기 때문에 중장비 도하는 오늘날 문교에 해당하는 도선판 도하로만 이루어져야 했다. 『강행도하』 교범 부록 8의 장비 제원과 북한군 전체 N2P 보유량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북한군 6사단은 도선판을 최소 5개에서 최대 12개까지 보유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⁵³⁾ N2P로 제작한 도선판은 강을 도하하는데 대략적으로 동력을 가진 선박을 사용하면 30분, 밧줄을 사용하면 1시간~1시간 20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물결 1.0m/s 기준)⁵⁴⁾ 기록에 의하면 북한군은 전쟁 이전 동력선이 부족하여 대부

52) 6사단 전체 N2P 보유량(24조) ÷ 1개 도선판 조립하는데 필요한 N2P 소요량 (16톤 3개/30톤 5개/60톤 2개) = 북한군 보유 전체 도선판 수량(16톤:8개/30톤:약 5개/60톤:12개) 북한군이 보유한 N2P가 몇 톤형인지에 따라 도선판 수량이 5개, 8개, 12개로 구분 추정됨

ATIS Document no. 200534, 『강행도하』, 1949년판, 1948년 9월 번역출판, 부록 6

53) ATIS Document no. 200534, 『강행도하』, 1949년판, 1948년 9월 번역출판, 부록 8

분 밧줄을 사용하였다. 즉, 최소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준비시간을 제외한다면 이론적으로 약 1시간 30분이면(도선판 1대에 중장비 1~2대 적재 가정시) 최소 5~10대 이상의 중장비는 도하가 가능하다.

북한군 포병은 25~26일 포 2문, 26~27일 동안 포병 3개 포대를 도하시켰다. 즉, 3일 동안 포 18문을 도하시키는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것은 상당히 미흡한 수치이다. 포 18문의 수량은 북한군이 가지고 있었던 도선판 수량(5~12개)을 고려한다면 교리적으로 적어도 약 4~6시간(2~3회 왕복)이면 도하가 가능한 수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군 포병들은 도하작전 준비(도선판 조립, 적재 및 하역, 장비 결속)에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병부대의 도하는 장시간 소요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항공폭격이 도하작전을 어렵게 하였다는 점, 주간도하가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미흡한 수치로 여겨진다.⁵⁴⁾

결국 당시 북한군 전체의 도하장비 숫자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군 내에서 6사단의 도하장비 숫자는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이것은 당시 북한군 6사단이 N2P로 운용할 수 있는 도선판의 수량을 『강행도하』 교범 부록의 장비제원을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었다. 더구나 소련측 자료에 의하면 6사단은 N2P뿐만 아니라 경도하장비인 NLP도 일부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주나루터에서 얻을 수 있는 나룻배나 공격단정 위에 합판 등을 설치할 경우 도하장비를 추가로 제작할 수도 있었다.

북한군 6사단이 전쟁 당일 25일부터 도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8일이 되어서야 도하작전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도하작전에서 기술적 숙련이 부족했으며 효과적인 전술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군 포병들은 압도적인 화력 격차에도 불구하고 대안의 국군 화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했다.⁵⁵⁾ 보병과 포병의 협조는

54) 북한군은 동력선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주영복의 회고록에 따르면 1950년 2월 대동강 도하훈련시에도 밧줄을 사용한 합선 견인도하 훈련을 실시했다.

5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권』, 2001, p. 149.

통신장비 부족, 첩보공유 미흡 등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다.⁵⁷⁾ 일부 보병 침투부대들이 후방으로 침투하였지만 당시 북한군의 정찰기관이 취약하게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다. 또한 중장비들의 도하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간도하를 실시하다가 미 공군의 폭격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김포 방면에서 6사단은 1개 전차대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북한군 전차 도하는 6월 28일이 되어서야 T-34전차 2대가 최초로 출현한 것이 고작이었다. 북한군 6사단의 진격이 늦어지는 동안 6월 26일부터 미 공군이 참전하였고 6월 30일 국군 1사단 잔류 병력들은 한강을 도하하여 6사단 부대들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전개하였다.

다. 한강교 부근

한강에서 북한군의 도하공격은 6월 29일부터 흑석동, 여의도 일대에서 도하 탐색전의 형태로 시작되어 6월 30일부터 본격적인 도하를 시도하였다. 북한군은 주공인 4사단을 신촌-여의도-영등포 방면으로 투입하고 105전차사단은 주공을 직접지원토록 하였다. 조공인 3사단은 한남동-신사리-말죽거리 방면으로 투입하여 주공방향을 기만하고 이후 수원으로 진격하여 국군의 우측을 포위하고, 또 다른 조공인 6사단은 김포 방면에서 공격하여 국군의 좌측면을 포

56) “개전 초기부터 작전 제2단계(7.3~10)시까지도 조선인민군 군단에 포병참모부가 조직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는 군단이 주공 방면에 포병군을 조직하는데 있어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즉, 한강 도하에서 조선인민군은 포병을 통합하여 집중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7월 3일 영등포가 함락될 당시 북한군 4사단, 6사단, 105전차사단, 제17군단 포병연대 포병화력을 집중시킨 이후에야 영등포를 점령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영등포가 점령되자 한강 방어선이 붕괴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포병의 전술적 운용 실패는 한강 도하작전에서 중대한 과오라고 판단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권』, 2001, pp. 304~305. ; p. 330.

5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권』, 2001, pp. 416~418.

위하려고 하였다. 1사단은 수원 점령 시까지 서대문 일대에서 예비대 임무를 맡았다.⁵⁸⁾

이에 대해서 국군 혼성 2사단은 신사리~이수교 정면, 혼성 7사단은 이수교~대방동 정면, 혼성 수도사단은 신길동~양화교 정면을 방어하고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경인가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당시 국군은 병력 및 장비 부족이 심각했으며 포병 장비를 모두 한강 이북에 두고 왔기 때문에 사단별 화력이 박격포 2~3문과 기관총 2~3정에 불과한 수준이었으며 철수한 병력들을 여기저기서 모아 혼성부대로 편성하여 방어선에 투입할 정도로 취약한 상태였다.⁵⁹⁾



〈그림 2〉 한강교 부근 전선상황

먼저 여의도-영등포 방향의 지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강 사이에 여의도가 위치하고 한강 이북과 여의도 사이에 다시 밤섬이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강을 도하하기 위해서는 이들 섬들을 확보하는

58) 선두부대인 3사단은 포병연대를 남산 기슭과 신촌 일대에 배치하여 화력 지원태세를 갖추었다. 적은 도하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야포와 박격포 등 총 365문으로 편성된 포병부대들을 투입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漢江線 防禦와 初期 遲延作戰』, 2006, pp. 164~166.

5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漢江線 防禦와 初期 遲延作戰』, 2006, pp. 166~168. ; 나중남, 『군사작전을 통해 본 6·25전쟁』, 2018, pp. 77~78.

것이 중요하였다. 또한 이 지역에는 하중리나루터와 마포나루터가 위치하고 있어 북한군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도하작전을 준비하였다.⁶⁰⁾

여의도-영등포 일대에서 북한군 4사단은 105전차사단의 직접 지원을 받는 북한군의 주공이었다. 서강(하중리)-마포-한강대교 간에 배치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신촌에 위치하였다. 또한 예비로 있었던 북한군 1사단 포병연대와 122mm 곡사포를 보유하고 있는 독립 포병연대의 강력한 화력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북한군은 29~30일까지 소규모 부대를 계속 투입하였고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도하를 시도하였다.

북한군은 29일 하중리나루터에 집결한 다음 포병의 엄호 하에 뗏목을 타고 도하하여 먼저 밤섬을 확보하였다. 그런 다음 국군 수도사단 8연대가 방어하고 있는 여의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북한군은 압도적인 화력지원하에 29일에 여의도 비행장을 점령하였지만 30일에 국군이 이를 탈환하면서 양측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후 7월 1일 04:00부터 북한군은 하중리와 마포나루터에서 거룻배와 뗏목을 이용하여 부대를 여러 제파로 나누어 공격을 가했고, 이후 7월 2일 새벽에도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는 바람에 도하작전은 소강상태에 빠졌다.⁶¹⁾ 북한은 제대를 제1파, 2파, 3파로 나누어 계속해서 투입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자만 증가하였고 교두보를 확장하는 데 결국 실패하였다.

노량진-흑석동 일대에서는 북한군 3사단과 4사단이 29일부터 이촌동-한남동 일대에서 도하작전을 위한 지형정찰을 실시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최초 주도하지점(여의도-영등포 방면)을 기만하기 위한 양공이 주로 실시되었다. 북한군은 노량진-흑석동 방면에서 양공을 실시하면서 실제 도하는 양 측방의 영등포와 신사리 방면에서 실시

6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 1985, pp. 300~302.

6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 1985, pp. 312~317.

하러 하였다. 반면에 국군은 철교가 있는 노량진-흑석동 지역을 북한군의 주공으로 판단했고 이 지역에 혼성 7사단을 배치하는 한편 병력을 증원하면서 화력의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이는 북한군의 작전의도를 완전히 오판한 결과라고 할 수 있었다.

노량진-흑석동 방면에서도 북한군 3사단, 4사단은 29~30일 포격을 가하면서 소규모 부대를 계속해서 투입하였으나 연이어 국군에게 저지 또는 격멸 당했고 대부분 강변에서 격멸되었다. 북한군은 7월 1일 국군 복장으로 변장한 1개 소대를 침투시켜 대안의 국군에게 화력을 유도함으로써 교두보를 확보하고 노량진의 일부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한강 지역의 북한군은 김포방면의 6사단과는 달리 교두보를 즉시 확장하기 위한 도하장비가 부족하였으며 미 공군의 항공폭격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던 상황이었다. 계속해서 교두보 확장에 실패하자 결국 북한군은 주공을 최초 조공이었던 노량진-흑석동 방면으로 전환하고 교량 복구 작업을 시도하게 되었다.⁶²⁾ 북한군은 경부선 철교차안과 대안을 확보한 상태에서 7월 1일부터 야간에 은밀하게 서울 철로 수리반을 동원하여 교량을 보수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⁶³⁾

신사리-말죽거리 방면의 북한군 3사단은 전체의 조공으로서 한남동-신사리-판교-수원 방향으로 진격하려고 하였다. 3사단은 최초 조공으로 공격을 하다가 수원으로 진격하여 한강 이남의 국군을 포위섬멸하기 위해 기동할 예정이었다. 북한군 3사단은 사단의 작전을 위해 동작동 일대에서 침투부대를 일부 투입하고 신사리 일대에서 양공작전을 펼쳐 주공방향을 기만하려고 하였다. 북한군은 28일 오후부터 도하지역을 정찰하면서 신사리 일대에 요란사격을 실시하여 주공 방향을 기만하려고 하였다. 이는 주공지역보다 조공지역에서 1일 일찍 작전을 개시하여 주공 방향을 기만하기 위한 의도

6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 1985, pp. 324~325.

6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 1985, pp. 318~324.

였다.

신사리-말죽거리 방면에서도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북한군 3사단은 29~30일 소부대를 계속해서 투입하였지만 실패하였다. 29일에 독섬나루터에서 1개 소대 규모의 북한군이 거룻배를 타고 도하를 시도하였으며 30일 증강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반포리와 신사리 일대로 도하하기도 했다. 이에 국군은 반격하여 북한군의 도하장비를 일부 격파하면서 교두보를 위협하였다. 교두보가 위기에 빠진 것을 인식한 북한군은 주공을 도하시키기 전에 교두보 주위의 적을 소탕하기 위해 7월 1일에 1개 대대 규모의 선견대를 도하시켰다. 북한군 선견대는 나룻배를 타고 도하하여 교두보 주위의 국군을 완전히 섬멸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⁶⁴⁾ 그러나 북한군이 선견대를 중심에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부터 이 지역에서 국군은 지형을 이용한 축차진지를 편성하여 북한군의 교두보 확장을 저지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북한군 3사단은 한강 방어선의 일부를 돌파하는데 성공했지만 이후 한강 이남에서 교두보를 확장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북한군은 한강 도하에서 김포, 여의도, 노량진, 신사리 등 여러 지역에서 교두보를 구축하였지만 이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북한군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도하장비의 부족이다. 물론 포병과 전차 등 중장비를 도하시킬 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북한군은 교두보를 확보하는 동안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군 105전차사단 예하 204기계화연대의 경우 7월 1일까지 교두보를 확보하는 동안 약 35%의 전투력 손실을 입었을 정도였다. 이것은 포병이나 전차가 도하하여 교두보 안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북한군이 7월 3일 복구된 경부선 철교를 통하여 전차 4대를 도하시킨 이후 한강 방어선이 붕괴되었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의 설득력을 강

6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 1985, p. 302.

화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북한군 3사단, 4사단은 2주 후 금강을 도하할 때에는 한강 도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북한군 공간사에서도 금강 도하는 위대한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⁶⁵⁾ 금강에서도 한강 도하와 마찬가지로 교량은 파괴되었고 도하장비는 부족한 상태였다. 더구나 금강을 방어하고 있는 것은 혼성 편성된 오합지졸의 한국군이 아니라 비교적 화력이 우수한 미국 보병사단이었기에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금강 도하작전 임무를 매우 성공리에 완수하였다.

과연 어떤 점이 이러한 차이를 불러 왔을까? 그것은 북한군 도하작전의 전술적 역량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한강 도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련군 교리상에도 나와 있듯이 정찰, 화력지원, 침투부대 활용, 병종 간의 협동동작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전쟁 초기 현실은 교리에 부합하지 않았다. 북한군 역시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⁶⁶⁾ 우선 첫째, 북한군은 정찰 기관이 취약하였고 그나마 얻은 첩보도 병종 간 공유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적의 배치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많은 선견대들이 강변에서 국군에 의해 저지·격멸당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포병부대들은 중심상의 국군에 대한 첩보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화력으로 제압하지 못했다.

둘째, 북한군 포병은 하천선 대안 국군 후방 1.5~2km까지의 적 방어체계를 제압하는 것은 성공했지만 그 다음 중심상의 국군을 화력으로 제압하는데 실패하였다.⁶⁷⁾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도하구

65)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1981, pp. 174~193.

66) 박기환, “한강 도하작전에서 나타난 몇가지 문제” 민족보위성 전투훈령국, 『군사지식』8호 (1950년 8월) US NARA RG 242 Captured Enemy Document (North Korea)Doc. No. 200858

67) 소련 군사고문단은 조선인민군 포병의 과오를 지적하고 있다. “하천장애물을 도하하는 경우, 대포 및 박격포는 하천 대안의 가장자리뿐 아니라 최근점 중심 2.5~3km까지의 주요 고지들에 대해서도 사격을 실시해야 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권』, 2001, p. 315.

역에서 2~3km의 교두보를 확보했지만 이를 확장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⁶⁸⁾ 포병부대들은 보병부대와 협조하지 않았고, 지휘체계상 포병 편성이 미흡하여 화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하지 못했다. 당시 북한군 포병들이 미 공군의 공격 강화로 포 방열지역을 한강으로부터 북쪽으로 3~5km 후방에 설치하였다는 점,⁶⁹⁾ 그리고 국군이 방어 진지를 한강 뚝방이 아닌 남쪽 후방의 고지상에 배치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은 이를 심화시켰다.⁷⁰⁾ 결국 북한군 포병들은 사정거리를 벗어난 국군의 화력체계를 충분히 제압할 수 없었으며 소련측 자료들도 이 점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⁷¹⁾

셋째, 북한군은 침투부대 활용에 있어 충분히 중심으로 진출하여 화력체계, 퇴로차단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강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포병의 화력지원 범위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침투부대는 유용한 타격수단이었음에도 한강 도하작전 시 북한군은 침투부대를 중심 깊이 운용하지 않았다. 이후 북한 공간사에서 금강 도하의 성공요인이 중심 깊이 5~6km 까지 침투식 기동을 실시하여 적을 포위하고 포병을 습격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⁷²⁾ 하지만 한강 도하작전에서 북한군의 선전대 및 침투부대를 초기에 대량으로 운용하지 않았고, 그나마 운용하는 부대들도 많은 숫자가 강변에서 저지 및 격멸되었다. 또한 소규모 부대들이 도하에 성공했으나 과감하게 중심으로 깊숙하게 기동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한국군에 대한 첩보가 부족하여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1950년 8월에 북한 민족보위성 전투훈련국에서 발간

6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권』, 2001, p. 304.

6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권』, 2001, p. 196.

70) “수도경비사령부 제8연대 부연대장 중령 이현진 증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2003, p. 582

71) 적(국군)이 주요부대를 대안상의 중심 2~3km 지점에 배치함으로써 포병화력에 의해 무력화되지 않았고, 강의 도하는 자주 실패하였으며, 또한 지나치게 장기화되었다. 러 국방부. 김중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p. 223.

72) 허중호, 『조국해방전쟁사 1권』, 1983, pp. 204~212.

한 『군사지식』을 보면 북한군은 이러한 선견대 운용의 기술적 중요성을 한강 도하를 통해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⁷³⁾

넷째, 북한군은 병종 간 협동동작이 미흡하였다. 도하작전에 있어 보병, 포병, 공병의 협조가 중요함에도 각 병과들은 서로 간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통신장비의 부족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더욱 근본적인 것은 협동작전에 대한 개념이 부재했다는 사실이다. 각급 부대 포병참모부들은 보병부대 참모들과 정찰사항을 공유하지 않고 도하작전에 대해 협조하지 않은 채 빈약한 정찰정보에 기초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⁷⁴⁾ 공병은 화력의 엄호 없이 독자적으로 도하장비를 운용하다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 보병 선견대 역시 거의 모든 도하지역에서 6월 29~30일 도하를 시도하였지만 포병의 화력지원을 받지 못하여 강변에서 대부분 각개격파되었다.

라. 한강 도하 이후의 변화

북한군은 전쟁 초기의 성공으로 서울을 조기에 점령했음에도 임진강, 소양강 방면의 부대 진격이 지연되었고 특히 한강을 조기에 도하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국군의 재편성과 미군의 참전을 허용하게 되었다. 북한의 공간사 역시도 한강에서 교량이 파괴되고 나룻배 등 도하기재들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기술하고 있다.⁷⁵⁾ 이후 북한군은 한강 도하작전의 과오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실시하게 된다.

한강 도하 이후에 북한은 정찰기관을 확대하여 정찰역량을 대폭 증강시켰다.⁷⁶⁾ 특히 7월부터는 피난민으로 가장한 비정규전 부대

73) 김도일, “한강 도하시 선견대로서의 보병대대” 민족보위성 전투훈련국, 『군사지식』8호 (1950년 8월) US NARA RG 242 Captured Enemy Document (North Korea)Doc. No. 200858

7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권』, 2001, p. 425.

75)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1981, p. 142.

76)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1981, p. 170.

투입을 대폭 확대하여 적 상황에 대한 첩보 획득을 강화하였다. 또한 침투부대들을 도하 이후 중심 깊이 운용하여 포병화력진지를 소탕하거나⁷⁷⁾ 후방의 퇴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공주 전투에서도 보병대대는 공주 서남 14km 지점까지 지체 없이 우회하였으며 대전전투에서는 4사단 18연대가 산악 침투식 기동으로 후방 깊숙이 위치한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북한군은 일점양면전술에 의해 도하할 시에 정면을 기만작전을 통해 압박하고 측방으로 대규모 부대가 5~6km 이상 중심 깊이 침투식 기동을 실시하여 적의 후방을 위협하는 전술적으로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⁷⁸⁾ 정찰, 침투, 우회기동, 기만작전, 퇴로차단 등 교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철저히 지켜지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침투부대가 정확한 첩보를 통해 과감하게 행동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군은 보·전·포 협동공격에서 이전에 비해 월등히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대전 전투에서 북한군은 소부대와 포병을 활용하여 적을 무력화시킨 다음 보병과 전차, 공병 협동부대가 지속적 화력지원 하에 도하작전을 실시하였다. 이 시기 북한의 공간사는 보병과 포병의 협동작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포병의 중심상 화력체계를 강화하는 노력들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다.

북한군은 한강 도하 이후 전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금강 도하작전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군은 여전히 도하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금강 도하 간에도 도하작전 성공 이후 중장비의 도하가 1~2일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었다.⁷⁹⁾ 그러나 한강 도하에서 교두보를 확장하지 못

77)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1981, pp. 204~219.

; 허중호, 『조국해방전쟁사 1권』, 1983, pp. 197~200.

78) 북한군 교리에서 통상 우회는 공격개시 1일전 또는 공격개시 직전 수행, 집단군(군단)에서는 1개 연대, 사단에서는 1개 대대, 연대에서는 1개 중대가 우회대 임무를 수행

79)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6·25전쟁 사례와 실패교훈』, 2004, p. 126.

하고 김포 방면에서 3일간(6. 25~28), 서울 방면 한강 도하에서 4일간(6. 30~7.3)이나 지연된 것에 비해 금강에서 매우 신속하게 도하에 성공했다. 북한군은 금강 지역의 공주전투에서는 공격개시 당일(7. 14) 도하에 성공했고, 대평리전투에서는 7월 15일 야간에 본격적으로 도하를 시작하여 16일 13:30에 도하에 성공했다.⁸⁰⁾ 이것은 정찰, 침투, 기만, 화력지원, 제병협동 등의 측면에서 북한군의 전술적 능력이 한강 도하 시보다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술적인 능력은 향상되는 반면에 전투력의 손실은 계속해서 누적되었기 때문에 낙동강 방어선에서는 작전한계점에 도달하고 말았다.

전술적 차원보다 상위 수준인 상급부대 차원에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먼저 김일성은 최고사령관 명령 85호를 통해 “조국해방전쟁의 전투경험을 연구하며 보급하는 사업을 조직할 데 대하여”를 공표하면서 전투교훈 분석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영웅 칭호’, ‘전선의 영예 훈장’ 등 국가훈장을 제정하여 영웅적인 행동을 장려하였고⁸¹⁾ 지휘체계를 개편하여 최고사령관과 군사위원회 제도를 구축하고 전선사령부와 예하 1, 2군단의 참모조직과 통신기재를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소련 군사고문 25~35명을 전선 이남으로 파견하여 전선사령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⁸²⁾

80) 대평리전투의 경우 북한군 3사단은 7월 13일 대평리에 도착하여 14일과 15일 아침 산발적으로 도하를 시도하였음. 그러나 북한군 3사단은 조치원에서 미군과의 전투와 공습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재편성이 필요했고, 14일과 15일 아침의 도하는 본격적인 도하라고 하기보다 정찰 및 탐색의 성격이 강했음.

81) 허중호, 『조국해방전쟁사 1권』, 1983, p. 194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1981, p. 142.

8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05-1953년』, 2006,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

마. 금강 도하

금강은 북한군 교리에 의하면 대하천이었으며 수심은 깊고 유속은 급류에 해당하였다. 공주 지역의 금강은 강폭이 500~1,000m이고 유수폭은 200~300m, 수심은 2~5m였으며 유속은 5~10km/h였다. 대평리 지역의 금강은 강폭은 200~300m, 수심은 2~5m, 유속은 5.4~10.8km/h였다. 금강에서 미군은 12일 밤과 13일 아침 공주, 대평리, 신탄진 등 금강에 있는 4개의 교량과 모든 나루터에 있는 배를 파괴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군 4사단은 14일 아침 공주에서 강을 도하할 준비를 하였고 3보병사단과 105전차여단은 13일에 금강 북안에 도착하여 도하를 준비하였다.⁸³⁾

공주 지역에서 북한군 4사단은 강을 도하하기 이전에 정찰을 실시하였다. 북한군 정찰대는 금강 북안에서 강폭, 유속, 수심, 하상의 상태를 조사하였는데,⁸⁴⁾ 병력 배치상의 약점을 발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미 24사단 34연대는 병력이 부족하여 30km의 광정면에 병력을 배치하였기 때문에 공백지역이 많이 있었다.⁸⁵⁾

북한군은 7월 14일 08:00 미군의 방어진지에 포격을 가하는 가운데, 4사단 5, 18연대를 공주 정면으로 공격시키면서 16연대를 검상리 일대에서 은밀하게 도하시켰다. 검상리는 미군과 국군 사이의 지역으로 병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북한군은 이 지역으로 08:00~09:30까지 약 500명의 침투부대를 도하시켰고 이들은 침투 이후 후방에 위치한 63포병대대를 습격하여 와해시킨 다음 퇴로를 차단하려 하였다.⁸⁶⁾ 이에 두려움을 느낀 미군 부대들은 무단으로 철수하기 시작했고 금강 방어선은 붕괴되고 말았다. 북한군은 공격을 시작한 지 하루도 채 안 된 14일 밤 23:00에 공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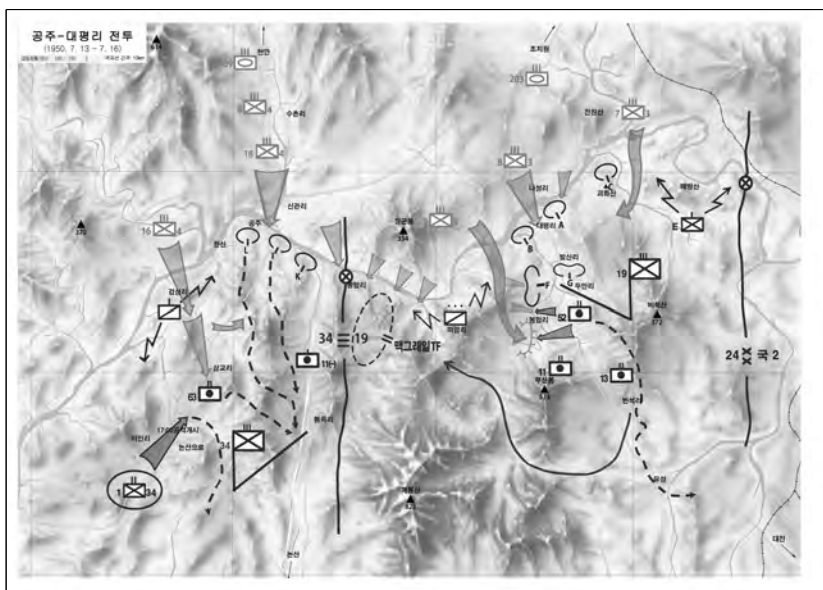
83) 國防戰史研究所, 『烏山-大田戰鬪』, 1993, pp. 137~159.

84) 國防戰史研究所, 『烏山-大田戰鬪』, 1993, p. 133.

85)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625전쟁 실패사례와 교훈』, 2004, pp. 127~128.

86) 일본 육전사연구보급회 편. 이원복 역, 『韓國戰爭』, 1991, pp. 233~234.

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림 3〉 공주-대평리 전투 (1950. 7. 13 ~ 16.)

출처 : 나중남, 『군사작전을 통해 본 6·25전쟁』, 2018, p. 102.

대평리 지역에서 북한군 3사단은 14일부터 전초전 성격의 주간 도하를 2차례 시도하였지만 격퇴당하자 야간도하를 계획하고 15일 야간과 16일 새벽에 걸쳐 도하를 실시하였다. 이 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미 24사단 19연대는 6개 중대 중 4개 중대를 전방에 배치하고 나머지 2개 중대를 예비로 보유하고 있었다.⁸⁷⁾ 이미 좌측의 미 34연대가 철수한 상황이었기에 19연대의 좌측방은 노출되어 있었고, 19연대는 후방의 예비대를 맥그레일 특수임무부대로 편성하여 좌측 상왕리 일대에 보강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9연대의 좌우 측방에는 병력 부족으로 취약한 지역들이 다수 있었다.

북한군은 정찰을 통해 병력이 약하게 배치된 지역을 파악하고 있

87) 나중남, 『군사작전을 통해 본 6·25전쟁』, 2018, p. 103.

었다. 북한군은 부강리 일대와 송원리(B중대와 수색중대 사이) 일대에 침투부대를 침투시켜 미군의 후방을 교란하였다. 정면에서 공격을 가하는 가운데 양 측방에서 병력이 약하게 배치된 지역으로 측방 도하를 실시하고 침투부대를 중심 깊이 운용하였다. 후방으로 침투한 병력은 봉암리 일대의 미군 11포병대대를 타격하고 나서 철수로를 차단함으로써 미군을 포위하였다. 결국 미군은 포위망을 뚫기 위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⁸⁸⁾

금강선에서 북한군은 교리에 나타난 것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북한군은 정찰을 통해 상대의 약한 지점을 파악하고 작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침투부대를 운용하여 신속하게 후방의 포병부대를 타격하는 한편 퇴로를 차단하여 미군의 방어선을 붕괴시켰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은 정면공격을 통해 적을 기만하면서 양 측방의 취약한 지역으로 침투부대를 집중하여 침투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침투부대들은 이전처럼 교두보에서 무기력하게 지원부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획득된 첩보를 바탕으로 미군의 후방 깊숙한 지역까지 침투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⁸⁹⁾ 뿐만 아니라 포병 화력운용 면에서 연대·대대급 수준의 보·포 협조가 이전에 비해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⁹⁰⁾

4. 결론

전쟁사를 통해 보면 전술적 성과가 전략적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략적 차원의 계획이나 조치나 전장의 마찰에 의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88) 國防戰史研究所, 『烏山-大田戰鬪』, 1993, pp. 165~167.

89)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6·25전쟁 실패사례와 교훈』, 2004, pp. 126~127.

9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권』, 2001, p. 352.

수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6·25전쟁 초기 한강 도하는 전술적인 국면이지만 북한군의 전체 전쟁 국면에서 매우 중요하였다.

북한군은 국군의 한강선 방어를 허용했기 때문에 작전목표였던 국군의 주력을 섬멸하는 데 실패했다. 전쟁 전반을 통틀어 북한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는 신속히 한강을 도하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결국 북한군은 미군의 참전을 허용하였고 또 다른 하천선인 낙동강에서 전투력이 고갈되어 버렸다. 만약 북한군이 한강을 도하했다면 '선제타격작전계획'의 1단계에서 국군 주력을 포위 섬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국군은 조직력을 상실하여 축차적인 지연전을 펼칠 수 없었을 것이고 미군의 증원 병력이 도착하기 전에 한반도는 공산화되었을지도 모른다.

한강 도하작전에서 실패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이후 국군을 즉시 추격하지 않아 한강 교량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도하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천을 도하할 때 중장비 도하가 지연되어 전체 작전템포를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은 군사전략 및 작전술 측면에서 북한이 전쟁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는 중대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전술적 차원에서 북한군은 금강 도하작전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그 결과 미 24사단은 와해되어 이후 대전전투에서 사단장까지 포로로 잡히는 수모를 당했다. 당시 미군은 금강의 모든 교량과 나룻배 등 도하기재를 파괴하였으며 북한군은 전쟁 초기와 마찬가지로 도하장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한강 도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북한군이 금강 도하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개별적인 도하작전의 성패요인은 전술적 수준의 영향을 더 받았다. 전쟁 이전 북한군은 소련군의 교범을 번역하여 우수한 교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실제 이를 체득할 시간이 부족했다. 또한 도하에 필요한 주요장비는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이를 운용

해 볼 시간이 부족했고 도하훈련 역시도 실전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수행되었다. 결국 북한군은 전쟁 초기에 도하작전을 전술적으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전쟁을 수행했던 것이다. 그 결과 임진강과 소양강 도하에서부터 이미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다.

한강 도하에서 북한군은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기회를 상실했다. 김포 방면의 6사단은 가장 많은 도하장비를 할당받고 있었는데 한강을 도하 후 영등포 방면으로 진출하여 국군의 좌측방을 위협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다. 또한 3사단, 4사단, 105전차사단은 북한군의 주력이었고 서울을 점령한 사기충천한 군대였기 때문에 국군의 패잔병들이 급히 투입된 한강 방어선을 무너뜨릴 전투력이 충분했다. 그러나 이들은 도하작전에서 소규모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를 확장하는 데 결국 실패했다. 소련군의 도하작전 교리에서 강조된 정찰, 침투, 기만, 화력지원, 제병협동 등의 전술적 원칙들은 한강에서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북한군은 김포 방면과 한강 방면에서 각각 3~4일간 지연됨으로써 전쟁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였다.

한강 도하에서의 실패를 교훈으로 하여 북한군은 전술적인 과오를 개선하였다. 그 결과 금강 도하작전에서는 소련군 교리에서 제시된 도하작전 원칙들을 구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여전히 도하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중장비 도하가 1~2일 지연된 것은 막을 수 없었지만 김포나 한강에서의 작전을 고려할 때 금강 도하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이미 국군이 축차적인 방어선을 점령하면서 지연전을 펼치고 있었고 미 공군이 이를 적극 지원했으며 미 지상군이 증원되고 있었다. 또한 북한군의 전투력 손실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었다.

정리해보면 기존 연구에서 주목했던 북한군의 한강 교량 점령 실패나 도하장비의 부족은 군사전략 및 작전술 등 상위 수준에서의 실패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 초기 소련 군사고문단이

그들의 개입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강 이남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점, 북한군 고급 지휘관들의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 신속히 추격했다 하더라도 한강 교량 파괴를 완전히 저지할 수 없었다는 점, 전투장비를 우선적으로 요청해야 했기 때문에 도하장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과오는 예견된 것이었으며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므로 한강 도하의 실패는 상기 요인과 함께 전술적 차원에서 같이 살펴볼 때 잘 이해할 수 있다. 전쟁 이전 도하장비의 수량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북한군이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해야 했던 것은 전술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군은 전쟁 초기까지 전술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던 도하작전 때문에 전쟁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비록 이후의 전투에서 북한군은 도하작전의 많은 부분을 개선하여 금강 도하를 비교적 성공리에 완수하였지만 그것은 이미 뒤늦은 조치였다. 어쩌면 도하장비 부족은 많은 요인 중 하나였을 것이지만, 북한군은 그들 군대의 역량 부족보다 장비 부족을 주된 요인으로 대신 제시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논문투고일: 2018. 10. 12., 심사수정일: 2019. 2. 1, 게재확정일: 2019.2.14.)

주제어 : 한국전쟁, 6·25전쟁, 한강도하작전, 북한군, 한강선 방어

〈참 고 문 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권』,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2권』,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05-1953년』, 2006.
- 러 국방부,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오비기획, 2002.
- 민족보위성 전투훈련국, 『군사지식』8호 (1950년 8월) US NARA RG 242
Captured Enemy Document(North Korea)Doc. No. 200858
- 박기환, “한강 도하작전에서 나타난 몇가지 문제”
- 김도일, “한강 도하시 선견대로서의 보병대대”
- 북한군 교리 22-9-2 『집단군(군단)·사(여)단』, 서울 : 정보사령부, 2009.
-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평양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81.
- 정보사령부, 『북괴군 공병운용』, 서울 : 정보사령부, 2000.
-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야전규정』, 1945년판, 1948년 4월 번역출판
허종호, 『조국해방전쟁사 제1권』,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3.
- ATIS Document no. 200534, 『강행도하』, 1949년판, 1948년 9월 번역출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戰爭史 2 : 北韓의 全面南侵과 初期 防禦戰鬪』,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戰爭史 3 : 漢江線 防禦와 初期 遲延作戰』,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2003.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 서부전선편』, 서울 : 국방부전사편
찬위원회, 1985.
- 國防戰史研究所, 『烏山-大田戰鬪』, 서울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93.
- 김광수, 『한국전쟁 중 북한군의 기갑운용연구』, 서울 : 화랑대연구소, 2004.
-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 전략, 작전지휘, 동맹관계”,
박사학위 논문, 2008
- 나중남, 『군사작전을 통해 본 6.25 전쟁』, 서울: 양서각, 2018.

-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 결정과 발발』, 서울 : 나남출판, 1996.
- 손장래, 『한국전쟁시 피·아 기갑운용』, 기계화학고, 1969.
- 온창일, 『한민족전쟁사』, 파주 : 집문당 2001
-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6·25전쟁 실패사례와 교훈』, 육군본부, 2004.
-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육군본부, 2004.
-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 『한국전쟁사 부도』, 서울: 황금알, 2005.
-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 『6.25전쟁 60대 전투』, 서울: 황금알, 2011.
- 일본 육전사연구보급회 편. 이원복 역, 『韓國戰爭』, 서울 : 명성출판사, 1991.
- 장성진, “낙동강 영산전투시 북한군의 도하작전 분석”, 『軍史』제78호(2011.3),
- 장성진, “북한군 군사교리 형성과 운용에 관한 연구, 1945~1950”, 박사학위
논문, 2014.
- 정병준,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서울 : 돌베개, 2006.
-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제1권』, 서울 : 고려원, 1991.
- Appleman, Roy E.,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 D.C : US GPO, 1960.
- Gordon L. Rotman, *World War II River Assault Tactics*, Osprey
Publishing, 2013.

<Abstract>

The Failure Factors of the River-crossing Operations
Conducted by North Korean Troops During Initial
Phase of the Korean War
- Analysing Based on the Battle of the Han-River
Crossing -

Jung, Sang-Hy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sing failure factors of the Han-River crossing operations conducted by North Korean troops in the early stage of Korean war. Commonly, there are two factors of the failure based on the strategic and operational level. Firstly, they didn't chase Korean Army in Seoul, so they couldn't secure bridges on the Han-River. Secondly, they had not enough river-crossing equipments suitable for Korean terrain.

But it is difficult to explain all aspects of unsuccessful operation. So it was necessary to assess tactical level of North Korean troops during conduct of operations. In the initial phase, they weren't prepared well for the reconnaissance, infiltration, deception and fire support of the river-crossing operation, especially in Han-River.

After the Han-River battle, the North Korean troops accomplished some improvement in the tactical capability such as Kum-River crossing operation. But, it was too late for achieving objective of the Korean War. Consequently, in order to understand Han-River crossing operation, we have to analyze strategic, operational and tactical level of conduct of river crossing operation together.

Key words : Korean War, Han-River Crossing Operation, North Korean Troops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0, pp.359-388
<https://doi.org/10.29212/mh.2019..110.10>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인천상륙의 크로마이트 작전 4가지 계획과 그 함의

이상호*

1. 서론
2. 인천상륙작전의 예비계획과 작전 준비과정
3. 군수참모부 작전 계획(LD-SL-17)과 크로마이트 계획과의 연관성
4. 크로마이트 작전 4가지 계획의 내용과 차이
5. 결론

1. 서론

한국전쟁은 북한의 기습으로 시작된 전쟁이었다. 북한의 기습에 대해 미국은 즉각적으로 전쟁에 개입했고, 이렇게 미국의 전격적인 전쟁개입은 전쟁을 내전에서 국제전으로 변화시켰다. 미국 참전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다름 아닌 인천상륙작전이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어 북진정책을 통한 북한으로의 반격이 가

*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 선임연구원

능해졌고, 전쟁의 성격이 변화되었다는 점이 이 작전이 갖는 커다란 의미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제까지 발표된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전쟁의 발발과 상륙작전의 준비과정, 상륙작전 지역을 둘러싼 논쟁과정, 상륙작전의 전개과정, 상륙작전의 결과, 상륙작전이 갖는 전사적 의미 등 인천상륙작전의 구체적 진행과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¹⁾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인천상륙작전을 둘러싼 이면사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²⁾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분류하면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전쟁 초기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킨 전환점으로 인천상륙작전을 평가하는 견해이다.³⁾ 물론 이러한 주장은

-
- 1)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3권 - 낙동강방어작전기』,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7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인천상륙작전』,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국방군사연구소, 1995; Robert D. Heintz, “The Inchon Landing: A Case Study in Amphibious Planning”, *Naval War College Review*, Spring 1998; 김광수, 「인천상륙작전은 기습이 아니었다」, 『전사』 제2호, 국방군사연구소, 1999; 서주석, 「인천상륙작전의 결정경위와 전개과정」, 『인천상륙작전 50주년 기념학술회의-한국전쟁과 인천: 평화와 협력을 위하여』, 2000; 송인영, 「인천상륙작전의 전쟁사적 평가 및 의의」, 『인천상륙작전 50주년 기념학술회의-한국전쟁과 인천: 평화와 협력을 위하여』, 2000; Allan C. Bevilacqua, “Inchon, Korea, 1950-The Landing that couldn't be done”, *Leatherneck*, September 2000; Jeffery A. Bradford, “MacArthur, Inchon and the Art of Battle Command”, *Military Review*, Mar/Apr. 2001; Rod Paschall, “A bold Strike at Inchon”, *Military History*, 2002; Malcolm W. Cagle · Frank A. Manson, 신형식 역, 『한국전쟁해전사』, 21세기 군사연구소, 2003; Jim Dorschner, “Douglas MacArthur's Last Triumph”, *Military History*, September 2005;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9.
- 2) 오동룡, 「켈로 부대장 최규봉 용의 ‘인천상륙작전 비사」, 『월간조선』 제24권 9호, 월간조선사, 2003년 9월; 조화유, 「인천상륙작전의 영웅 클라크 대위의 수기」, 『월간조선』 제26권 10호, 월간조선사, 2005년 10월; 이동원, 「미군의 월미도 원주민 학살사건」, 『말』 통권 265호, 월간 말, 2008년 7월; 이의환, 「인천상륙작전에 가려진 월미도 원주민들의 아픔」, 『황해문화』 통권68호, 새얼문화재단, 2010년 가을; 이상호·박성진, 「인천상륙작전과 팔미도 정보 작전」, 『정신문화연구』 제36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년 가을.

인천상륙작전이 완전한 기습작전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둘째, 인천상륙작전은 이미 북한 군부에 의해 예견되었으며, 중국과 소련도 미국의 상륙작전을 예상하여 이를 미리 북한에 알려주었으나, 낙동강 돌파와 경인지구 사수의 선택문제에서 북한 지도부가 낙동강 돌파를 우선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이 그동안 주장되던 기습작전이 아니라 북한의 전술상의 실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⁴⁾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인천상륙작전의 작전 계획, 즉 크로마이트 작전(Chromite Operation) 계획 자체에 대해서 거의 검토되지 않았다. 문제는 기존 연구서의 정리 차원에서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은 3가지인데 바로 100-B, 100-C, 100-D라고 알려져 있다.

먼저 미 육군군사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애플맨(Roy E. Appleman)

-
- 3) 김현기, 「인천상륙작전과 서울탈환이 한국전쟁에 미친 영향」, 『군사논단』 17, 한국군사학회, 1999년 1월; 김광수, 「인천상륙작전은 기습이 아니었는가」, 『전사』 2, 국방군사연구소, 1999년 12월; 견수찬,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논의의 검토」, 『인천역사』 제1호, 인천광역시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2004년 가을; 이선호, 「9·15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평가」, 『북한』 통권 405호, 북한연구소, 2005년 9월; 이상호, 「인천상륙작전과 북한의 대응」, 『군사』 제59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6년 6월; 조성훈, 「인천상륙작전을 전후한 맥아더 역할의 재평가」, 『정신문화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년 가을; 김광수, 「인천상륙작전과 북한군의 대응」, 『군사연구』 제130집, 육군본부, 2010년 12월.
- 4) 박명림, 「한국전쟁: 전세의 역전과 북한의 대응(1) - 1950년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략연구』 통권 10호, 1997; 박명림, 『한국 1950-전쟁과 평화』 (서울: 나남출판, 2002); 박명림, 「열전의 인천 1950년, 그리고 평화의 인천 2005년; 두 인천의 역사적 조망의 몇몇 비교범주들」 『제4회 월미평화포럼-황해, 전쟁의 바다에서 평화 교류의 바다로』 (2004년 9월 17일); 조상근, 「한국전쟁에서 중공 지도부의 인천상륙작전 예측과정」, 『군사』 제71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9년 6월.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미 북한노회문서를 통해 당시 현지 북한군 부대의 준비소홀, 무기 지급의 미흡 등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북한군의 적절한 대응이 거의 없었음이 밝혀졌다.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이상호, 「인천상륙작전과 북한의 대응」, 『군사』 제59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6년 6월.

과 슈나벨(James E. Schnabel) 등 대부분의 저서에서는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을 3개로 규정하며 (1) 100-B 계획은 서해안 인천, (2) 100-C 계획은 서해안 군산, (3) 100-D 계획은 동해안 주문진을 상륙작전 예정지로 설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⁵⁾ 이들의 저서에 따르면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은 3가지로 각각 별개의 작전 계획으로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슈나벨이 당시 합동전략기획단(JSPOG: Joint Strategic Planning and Operations Group) 단장인 라이트(Edwin K. Wright)와의 대담에서 확인한 정보로는 상륙 작전 계획에는 원산과 진남포에도 상륙할 계획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⁶⁾

국내 연구서에도 인천상륙작전의 상륙계획인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에 대한 설명에서 100-B, 100-C, 100-D등 작전 계획 3가지만을 언급하고 있다.⁷⁾

그러나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듯이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 100-A가 있지 않았을까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연구서들은 왜 작전 계획 100-A에 대해 소개하지 않았을까? 작전 계획 100-A에

5)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 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p. 489; James Schnabel, F.,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72), pp. 141~142; Allan R. Millett, *The War for Korea, 1950-1951: They came from the north*(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0), pp. 207~210; Clay Blair, *The Forgotten War - America in Korea, 1950-1953*(New York, Times Books, 1987), p. 87.

6) James Schnabel, *Ibid.*, p. 142.

7)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3권 - 낙동강방어작전기』,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70, 625~626쪽;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3, 35~36쪽; 고지마노보루 저 · 유승호 역, 『한국전쟁 전모 제1보』, 송신출판사, 1988, 239~240쪽;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4권 - 낙동강에서 압록강으로』, 전쟁기념사업회, 1992, 17~18쪽;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上, 국방군사연구소, 1995, 393~394쪽;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9, 101~102쪽; 박명립,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 2002, 399~400쪽.

대한 내용은 무엇이고, 공개하지 못할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을까? 그리고 각각의 작전 계획이 서로 다른 지역에 대한 상륙작전을 구상하고 준비되었을까?

본 논문은 맥아더기념관 소장 문서를 바탕으로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의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4가지 작전 계획의 세부 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이 제기하는 전쟁 직전에 준비되었던 우발계획 SL-17(전쟁초기인 7월 LD-SL-17로 발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기본 자료는 맥아더기념관 소장 문서 RG 6, RG 38과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 RG 165 및 RG 319 자료를 활용하였다.⁸⁾



2. 인천상륙작전의 예비계획과 작전 준비과정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이 작전이 1950년 6월 당시에 구상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계획된 것을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1944년 태평양 전쟁에서 맥아더(Douglas MacArthur)의 남서태평양사령부와 니미츠(Chester W. Nimitz)의 태평양사령부가 구상했던 일본 공략 계획인 블랙리스트 작전에서부터 1950년 6월 전쟁 직전에 도상계획으로 준비된 SL-17문서(이후 전쟁 초기 LD-SL-17로 보완)까지

8)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FECOM), 1947-1951; MA, RG 38, Papers of LGEN Edward M. Almond, Chief of Staff, SCAP, Commanding General, X Corps, FECOM;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Office of the Director of Plans & Operations, Top Secret : American-British-Canadian Correspondence;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9, General Decimal Files, 1950-1951(Top Secret) General Correspondence Relating to Training and Operations, 1950-52.

다양한 계획이 제시되었다.

그 가운데에서 태평양전쟁의 도상계획을 재구상했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웨인트롭(Stanley Weintraub)의 주장을 살펴보자. 웨인트롭은 이미 미 국방부 작전참모부장(G-3)인 볼테(Charles L. Bolte)가 전쟁 직전 북한의 남침을 예상한 다양한 우발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주장했다.⁹⁾ 물론 이 작전 계획 가운데에는 북한의 남침을 소련의 對아시아 전쟁의 하위 수준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인을 소개하고 전쟁 준비를 위한 미군의 긴급 준비 태세를 다루고 있는 다양한 작전 계획이 확인된다.

웨인트롭에 따르면 비록 국방부의 하위수준에서 제시된 구상은 아니지만,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일부 참모진 가운데 1~2명이 1944년에 작성된 연구들을 떠올렸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들고 있다. 즉 “일본과 대만에 대한 작전(Operations against Japan subsequent to Formosa)”이라고 칭하는 합동참모본부 계획 JCS 924의 부록 B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전의 상세 자료가 없었다면, 맥아더는 그렇게 짧은 기간에 크로마이트 작전을 수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웨인트롭은 평가했다.¹⁰⁾ 하지만 미 합동참모본부 기안한 JCS 924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계획이 인천상륙작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 부록 B를 확인하면 한국에 대한 상륙지역을 다양하게 언급하면서 인천 지역 역시 그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있을 뿐, 인천지역의 지정학적 분석을 한 것은 아니었다.¹¹⁾ 오히려 후술할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천상륙작전 계획의 근간이 되는 인천지역

9) Stanley Weintraub, *MacArthur's War: Korea and the undoing of an American Hero*(New York: The Free Press, 2000), p. 106.

10) Stanley Weintraub, *Ibid.*, p. 107.

11) “Operations against Japan subsequent to Formosa”(JCS 924, 1944, 6, 30),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Office of the Director of Plans & Operations, Top Secret : American-British-Canadian Correspondence, Box 454.

에 대한 정찰 자료는 JCS 924의 부록 B보다는 1949년에 미 육군 항공대와 미 해군에서 수행한 자세한 정보가 그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¹²⁾

그럼 먼저 기존에 알려져 있던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의 작성 배경에 대해 공간사를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 보자.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을 때 미 육군이 보유하고 있던 89개 사단은 1950년에는 7개 보병사단과 2개 공정사단, 1개 기갑사단으로 줄어들었다. 완전편제를 갖추었을 때 미군 1개 사단은 병력이 1만 8,804명이 되어야 하는데, 당시 각 사단의 병력은 1만 1,000~1만 3,650명에 불과했다. 해병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태평양 전쟁이 끝날 무렵 6개였던 해병사단은 약화된 2개 사단으로 줄었다.¹³⁾

1950년 6월 맥아더 장군의 전투 병력은 일본에 있는 4개의 보병사단과 7개의 대공포대대, 오키나와에 있는 1개의 보병연대와 2개의 대공포대대에 불과하였다. 그 중에서 주 전투부대는 일본 혼슈에 있는 제1기병사단과 도호쿠 및 홋카이도에 위치한 제7보병사단, 큐슈의 제24보병사단, 혼슈 서부에 위치한 제25보병사단과 오키나와에 있는 제9대공포 여단이었다. 맥아더사령부 산하 주 전투부대인 미 제8군은 1950년 6월 당시 인가 병력의 93%를 보유하고 있었다.¹⁴⁾

1950년 6월 29일 전쟁이 발발하고 난 4일 후 한강변을 시찰한 맥아더는 사단 규모의 병력으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조기에 전쟁을 승리로 종결짓는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맥아더는 작전참모부장 라이트 장군을 중심으로 육군, 해군, 공군에서 장교 8명을 차출하여 1949년 8월 창설한 합동전략기획단에 작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

12)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FECOM), 1947-1951, Box 103.

13) 고든 L. 리트먼 지음·김홍래 옮김, 『인천 1950』, 플래닛미디어, 2006, 15~16쪽.

14) James Schnabel, F., *op. cit.*, p. 80.

시켰다.¹⁵⁾ 7월 4일 육, 해, 공군 대표자가 극동군사령부 회의실에 참석하여 맥아더 원수 및 알몬드 장군과 상륙지점에 관해 토의를 하였다.¹⁶⁾ 이 자리에서 합동전략기획단은 미 제1기병사단을 주축으로 미 해병연대전투단을 상륙부대로 하고, 이와 동시에 전선 남쪽에서 미 제24사단 및 제25사단의 반격작전을 감행하는 ‘블루하츠(BLUEHEARTS)’ 작전 계획을 공개하였다. 7월 6일 맥아더는 제1기병사단장 게이(Robert R. Gay)소장에게 인천 지역에 대한 상륙준비를 지시하였다.¹⁷⁾ 공격일은 7월 22일로 정하였다.¹⁸⁾ 하지만 북한군의 급속한 공격 속도와 진격 때문에 7월 10일 블루하츠 계획은 취소되었다.¹⁹⁾

7월 23일 라이트 장군은 맥아더 원수의 지시에 따라 총사령부 각 참모부에 작전 계획 크로마이트(Chromite)를 회람시켰다.²⁰⁾ 맥아더 장군은 최우선 지역으로 인천지역을 선정하였으나, 동시에 다른 지역의 가능성도 연구하도록 지시하였다. 합동전략기획단은 인천을 비롯하여 서해안의 군산·해주·진남포 및 동해안의 원산·주문진 등 가능한 모든 해안 지역을 일단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하지만 맥아더는 구체적인 정보를 삭제한 단순한 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며 9월 15일에 크로마이트 작전을 실행할 것임으로 통보했다.²¹⁾ 맥아더는 이 보고서에서 “기습은 전쟁의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이 아시아 전쟁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한다면, 유럽의 운명은 위험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이 작전의 성공으로 10만 명의 유엔군 목숨을 건져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인천상륙작전

15) D. Clayton James, *The Years of MacArthur, Volume III-Triumph and Disaster 1945-1964*(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5), p. 448.

16) Roy E. Appleman, *op. cit.*, pp. 488~489.

17) Roy E. Appleman, *Ibid.*, p. 196.

18) D. Clayton James, *op. cit.*, p. 465.

19) James Schnabel, F., *op. cit.*, p. 192.

20) Roy E. Appleman, *op. cit.*, p. 489.

21) D. Clayton James, *op. cit.*, p. 465.

의 당위성을 강조했다.²²⁾

결국 합동전략기획단은 8월 12일 미 극동군사령부 작전 계획 100-B를 하달하였다. 크로마이트 100-B의 목표 지역은 인천-서울 지역이며 D-Day는 9월 15일이었다. 8월 15일 맥아더 장군은 라이트의 건의를 받아들여 임시계획참모진을 편성하였다.²³⁾ 이들은 극비리에 크로마이트 작전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극동군사령부 참모진으로부터 인원을 차출하여 구성하였다. 이 조직은 목적을 감추기 위해 그 명칭을 특별계획 참모부(Special Planning Staff)라고 명명하였다. 참모장에는 러프너 소장(Clark L. Ruffner)이 임명되었다.²⁴⁾

1950년 8월 23일 도쿄의 사령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는 육군 측에서 맥아더를 위시한 콜린스(J. Lawton Collins) 대장, 알몬드(Edward L. Almond) 장군, 라이트 장군이 참석하였고, 해군에서는 셔먼(Forrest P. Sherman) 제독을 비롯하여 조이(Turner C. Joy),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도일(James H. Doyle) 제독이 참석하였다.²⁵⁾ 맥아더는 적의 병참선상에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인천-서울 지역이고 한국의 수도를 다시 탈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적·심리적인 이점을 들었다.²⁶⁾

8월 24일 맥아더 장군은 일본군수지원사령부(JLC: Japan Logistical Command)를 미 극동군사령부의 주요편제부대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사령관에 웨이블(Walter L. Weible)장군을 임명했다.²⁷⁾ 일본군수사령부 예하에는 요코하마 사령부, 고베 기지 및 제 40대공포병여단이 포함되었다. 일본군수사령부의 임무는 한국작전에 군수지원을 제공하고, 미 제8군의 점령임무를 책임지면서, 일본

22) D. Clayton James, *Ibid.*, pp. 469~470.

23)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전투사 - 인천상륙작전』, 37쪽.

24) James Schnabel, F., *op. cit.*, pp. 213~214.

25) James Schnabel, F., *Ibid.*, p. 201.

26) James Schnabel, F., *Ibid.*, p. 202.

27) James Schnabel, F., *Ibid.*, p. 183.

방위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군수분야에 있어, 일본군수사령부는 일본에 주둔하면서 (1) 미 육군과 공군에 대한 군수지원(공군의 특정 전문탄약은 제외), (2) 극동군사령부 전 소요에 대한 3종과 3종 A 물자보급, (3) 현지 생산 보급물자의 보급, (4) 현지 조달 보급물자의 인수, 저장 및 불출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일본군수사령부는 179명의 장교, 24명의 준사관 및 399명의 병사로 구성되었다.²⁸⁾

맥아더 장군은 8월 26일 공식적으로 제10군단을 창설하였다. 그리고 8월 27일 유엔군사령부의 예하기구로 미 극동공군과 극동해군을 통합하여 유엔군총사령관의 지휘하에 두었다. 그리고 9월 1일 최종적으로 인천상륙작전을 크로마이트(CHROMITE)작전이라고 부여하였다.²⁹⁾ 그리고 9월 15일 예정대로 100-B계획에 맞추어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되었고,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3. 군수참모부 작전 계획(LD-SL-17)과 크로마이트 계획과의 연관성

인천상륙작전이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는 반증을 드는 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 미 육군부 군수참모부(G-4)에서 작성했다는 ‘한반도 작전 대비 군수 연구, LD-SL-17’(Logistic Study Covering Operations in Korea, LD-SL-17)이다. 이 연구의 첫 번째 계획안이 되는 SL-17을 처음으로 언급한 학자는 블레어(Clay Blair)였다.³⁰⁾ SL-17은 우발계획으로 만들어진 전쟁계

28)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1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Forces, Far East and Eight United States Army, pp. 10~14.

29) Roy E. Appleman, *op. cit.*, pp. 495~496; James Schnabel, F., *op. cit.*, pp. 214~215.

획으로 1950년 6월 19일 미 국방부에 의해 승인되었는데, 이는 북한의 침략을 가정하여 후퇴 후 부산방어선을 구축한 이후 인천에 상륙하는 계획이었다. 블레어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계획을 입안했던 커티스(Donald McB. Curtis)의 회고를 언급하며 미 극동군사령부가 이 우발계획 보고서 50부 가량을 요청하였다고 기술했다.

이를 두고 커밍스도 LD-SL-17에 대해 언급을 했으며³¹⁾, 박명림 역시 자신의 저서에서 이를 언급하였다.³²⁾ 그는 실제로 전개되고 있는 작전들이 이 계획서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인천상륙작전이 6월 25일 이전에 준비되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LD-SL-17의 일부분만을 인용함으로써 그 계획의 전체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자세히 소개하지 못했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LD-SL-17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우발계획 SL-17문서는 1950년 6월 19일에 승인되었다고 하지만, LD-SL-17문서는 1950년 7월 25일에 작성된 것으로 차기 작전을 위한 군수연구 프로그램(Mobilization Requirements Program of the Army Logistic Study for Projected Operations)이었다. 이 작전 계획은 군수참모부(G-4)에서 작성된 것으로 7월 29일 작전참모부(G-3)의 동의를 받지는 못하고 되돌려졌다. 왜냐하면 작전참모부(G-3)의 분석결과 이 작전 계획의 소요 비용이 수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³³⁾

군수참모부(G-4)의 전략군수국에서 작성한 LD-SL-17의 초안

30) Clay Blair, *op. cit.*, p. 87; 고든 L. 리트먼 지음·김홍래 옮김, 『인천 1950』, 플래닛미디어, 2006, 73쪽.

31) 브루스 커밍스 지음·김동노 외 옮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2001, 365~366쪽.

32) 박명림, 앞의 책, 185~186쪽.

33) "Memorandum for Record: Mobilization Requirements Program of the Army Logistic Study for Projected Operations"(1950. 7. 29),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9, General Decimal Files, 1950-1951(Top Secret) General Correspondence Relating to Training and Operations, 1950-52.

(Draft)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초안은 총 15매로 서론과 5장의 본문,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⁴⁾ 초안에서는 이 계획의 목적을 ‘아직 발발하지 않은 전쟁에서 작전 계획의 군수 부분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 문서의 내용은 한국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7월의 상황이 언급되고 있음을 통해 볼 때 처음 작성은 6월 25일 이전에 준비되고 있었으나 전쟁이 발발하고 진행되면서 계획의 초안도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계획의 주요 목적은 군수 제4종의 수요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계획에서 작전의 성격을 밝히고 있는데 최종 목표는 북한의 침략으로 현재 장악하고 있는 영토를 회복하고, 북한군을 격멸하며,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작전일(D-Day)의 기준을 북한이 남침한 6월 25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즉, 1951년 6월까지로 설정하고 있다. 이 작전 계획은 이미 작성된 ‘LD-SL-4’인 극동지역의 전략방어(strategic defense)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³⁵⁾

이 계획에 따르면 작전 지역은 1950년 7월 31일 경 북한이 광양-오소리-고령-대구-영천-포항 지역을 점령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는 실제 상황이 벌어졌던 7월 31일 경의 낙동강 방어선보다 더욱 축소된 지역이었다. 당시 북한군의 공군력과 해군력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엔군의 전반적인 작전은 충분한 병력 증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연작전을 수행하며 남쪽으로 철수하는

34) “Draft: Logistics Study Covering Operations in Korea(LD-SL-17)” (1950. 7), Prepared by Strategic Logistics Branch, Plans Office Assistant Chef of Staff, G-4.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9, General Decimal Files, 1950-1951(Top Secret) General Correspondence Relating to Training and Operations, 1950-52.

35) “Draft: Logistics Study Covering Operations in Korea(LD-SL-17)” (1950. 7), Prepared by Strategic Logistics Branch, Plans Office Assistant Chef of Staff, G-4.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9, General Decimal Files, 1950-1951(Top Secret) General Correspondence Relating to Training and Operations, 1950-52, Forward.

것으로 주 방어선이 안정되었을 때에 공격으로 전환하여 육상, 상륙 작전, 공수작전 등으로 실지 지역을 되찾고 전 한반도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미 공군의 임무는 육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북한 지역을 폭격할 뿐만 아니라 전술 지원을 담당하고, 미 해군은 해상 봉쇄와 육군의 작전에 따른 해안 함포 지원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지상 작전은 미군과 한국군으로 수행하고, 그 이외의 유엔국가 군대는 공군과 해군으로 제한될 것으로 가정했다. 이 계획안에는 유엔이 세계 평화를 위해 전한반도의 통일을 결의할 것이고, 이 때 한국군은 전체 병력이 약 5만 5천 명으로 5개 사단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에 북한군이 원자폭탄을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화학전이나 생물학전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³⁶⁾

이러한 가정하에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부산에 사령부를 두고 반격을 위한 병력 증강을 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다. 이후 육상작전·상륙작전·공수작전을 통해 북한군을 격파하고 빼앗긴 지역을 수복하며, 최종적으로 쏘한반도를 점령하는 것이다.

자세한 작전 계획은 다음과 같다. 1개 해병사단과 1개 보병사단으로 구성된 1개 군단으로 인천 지역에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9월 30일까지 인천항을 장악하고, 인천 동쪽에 1개 공수연대전투단을 운용하여 한강 지역을 엄호하며 서울을 수복하는 계획이다. 이후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³⁷⁾

36) "Draft: Logistics Study Covering Operations in Korea(LD-SL-17)" (1950. 7), Prepared by Strategic Logistics Branch, Plans Office Assistant Chef of Staff, G-4.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9, General Decimal Files, 1950-1951(Top Secret) General Correspondence Relating to Training and Operations, 1950-52, p. 1.

37) "Draft: Logistics Study Covering Operations in Korea(LD-SL-17)" (1950. 7), Prepared by Strategic Logistics Branch, Plans Office Assistant Chef of Staff, G-4.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9, General Decimal Files, 1950-1951(Top Secret) General

인천에 사령부 기지를 두고 10월 15일까지는 서울과 김포비행장을 확보한다. 서울과 김포공항을 확보하면 동쪽으로 진격하여 양평, 원주, 평창, 정선, 교가리(삼척) 이남(약 37.5도)의 북한군을 포위한다. 동시에 1951년 1월 31일까지는 동해와 서해에 각각 상륙작전을 시행한다. 1개 해병사단과 1개 공수연대전투단을 서해에 투입하여 평양을 점령하고, 동시에 동해안 원산에 보병사단을 상륙시켜 평양-장림-양덕-원산을 축으로 하여 이 선(대략 39도선) 아래의 북한군을 포위한다. 이후 평양에 사령부를 설치하여 북한 전역을 점령하기 위한 차기 작전을 실행한다.

이것이 작전 계획의 대체적 개략이었다. 이러한 작전 계획의 군수지원을 위해서 한국에 약 11,500명의 공군이 필요할 것이고, 한국군 사단에 대한 군수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작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투력의 증강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공군폭격대는 일본의 혼슈, 큐슈, 오키나와에 기지를 두고 전투기와 경폭격기 대대는 한국에 설치하는 것이다. 해군부대는 항구를 통한 수송보다는 육군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었고, 육군은 1개 해병사단을 포함하여 5개 보병사단으로 증강해야 했다. 하지만 1개 보병사단은 일본 방어를 위해 일본에 잔류시키도록 했다. 전투지원부대는 전방지대에 35,000명으로 증강하고, 일본의 병참관구(Communication Zone)에 6천여 명을 증강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³⁸⁾

군수지원 측면에서는 군수 1, 2, 4, 5종은 최소 30일 분을 한국에 비축하고, 3종과 3-A종은 최대 30일 수준까지 비축하며, 석유와 윤활유는 부대 단위로 10일 분을 보급해야 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군수참모부의 자체 평가에서도 LD-SL-17이라는 작전 계획은 군수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를 지원할 군수부대의 지원 측면에서

Correspondence Relating to Training and Operations, 1950-52, pp. 2~3.
 38) "Draft: Logistics Study Covering Operations in Korea(LD-SL-17)" (1950, 7), Prepared by Strategic Logistics Branch, Plans Office Assistant Chef of Staff, G-4,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9, General Decimal Files, 1950-1951(Top Secret) General Correspondence Relating to Training and Operations, 1950-52, pp. 4~5.

매우 곤란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체적인 작전에 맞춘 군수 4종 보급품(Class IV Supplies)의 장비(건설 축성자재)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었다.³⁹⁾

대략 이것이 LD-SL-17의 개략적인 내용이다. 보통 예상하듯이 작전 계획과 실행계획이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살펴본 LD-SL-17계획의 전반적인 흐름도 실제 진행된 작전 계획과는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인천상륙작전 계획은 이미 LD-SL-17뿐만이 아니라 1945년 올림픽 및 블랙리스트 계획에서도 이미 실행계획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극동군사령부는 이전의 작전 계획을 수정하여 실제 작전 계획에 준용한 것으로 보인다.⁴⁰⁾



4. 크로마이트 작전 4가지 계획의 내용과 차이

이번 장에서는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인 100-A, 100-B, 100-C, 100-D 4가지 계획을 상술하고, 각각의 내용과 그 차이점을 분석해 본다.

일반적으로 인천상륙작전의 작전 계획인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을 논할 경우에는 100-B, 100-C, 100-D 이렇게 3가지 작전 계획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작전 계획이 서로 다른 상륙작전 지역 - 각각 인천, 군산, 주문진 - 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작전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즉 각각의 작전 계획은 인천상륙작전을 기본으로 하고 낙동강 전선에서 미 8군이 북한군의 전선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으로 군산이나 주문진에 상륙

39) "Draft: Logistics Study Covering Operations in Korea(LD-SL-17)" (1950. 7), Prepared by Strategic Logistics Branch, Plans Office Assistant Chef of Staff, G-4.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9, General Decimal Files, 1950-1951(Top Secret) General Correspondence Relating to Training and Operations, 1950-52, pp. 6~7.

40) 이상호, 『맥아더와 한국전쟁』, 푸른역사, 2012, 74~80쪽.

작전을 감행하는 것이다.

그럼 먼저 작전 계획 100-A를 살펴보자. 100-A는 북한군이 남한 지역에서 진격을 멈추고 유엔군이 병력을 증강할 수 있는 단계(1단계)와 북한군에 대해 반격을 실시 할 수 있는 단계(2단계)를 거쳐 남한 지역에서 북한군을 격멸하는 단계(제3단계)를 가정한 작전 계획이다. 여기에는 유엔군이 공군과 해군의 우월성을 유지하며 북한군이 소련이나 중공으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⁴¹⁾

작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유엔군은 D-Day에 미 제10군단이 군산에 상륙하여 대전을 확보하고 부산으로부터 반격하여 대구-김천-대전을 축으로 반격하는 미 제8군과 대전에서 연결, 금강 이남의 북한군을 격퇴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후 군산과 대전 지역의 비행장을 확보하여 차기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다. 미 제10군단의 군수 지원은 일본군수지원사령부(JLC)가 맡아 수행한다. 또한 100-A에는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의 활용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즉 군산-대전 지역에 투하되거나, 아니면 바다로 군산지역으로 이동하여 미 제10군단을 지원하는 것이다.⁴²⁾ 이 계획에는 예비부대로 제3사단을 배치하고 극동군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부산이나 군산지역의 미 제8군이나 미 제10군단을 증강하도록 예정되었다. 작전 예정일은 9월 15일이다.

100-A 계획에서 사용된 관련 자료로는 1949년 12월 1일 작성된 정보보고서인 수시보고(Spot Reports)가 활용되었다. 이 계획에는 포로와 피난 및 노획문서의 처리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적의 지상군이나 해군 및 공군의 포로 심문은 미 제8군에 배속된 ADVATIS(연합국번역통역국 전선파견대)⁴³⁾에서 수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졌다.

41) "Operation Plan, CINCFE No. 100A"(1950. 8. 30),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2, p. 1.

42) "Operation Plan, CINCFE No. 100A"(1950. 8. 30),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2, pp. 2~4.

43) 연합국번역통역국 전선파견대(ADVATIS)는 다음 논문을 참조. 이상호, 「한국

또한 모든 심문보고서의 복사본 생산과 배부를 위해 도쿄의 극동군 사령부 번역통역국으로 이송하도록 규정되었다. 또한 모든 노획문서도 즉시 도쿄의 번역통역국으로 제출하도록 지시되었다.⁴⁴⁾

100-A 계획의 달성 목표는 1950년 6월 25일 승인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이에 따른 미 합동참모본부의 명령에 따라 남한에서 북한군을 일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 충분한 군사적 지원을 실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추가적인 목표가 제시되었는데 남한에서 북한군을 군사적으로 패퇴시켜 그들을 축출한 후에도, 38선 이북에 존재하는 군사력의 존재가 한국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연합의 입장에 만족할 만한 해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전은 결국 남한 지역에서 북한군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⁴⁵⁾

주요 임무로는 적의 군사력 중심지의 후방인 대전의 병참지역에 상륙작전을 전개함으로써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미 8군에 가해지는 적의 공격력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주요 작전의 장애로는 바로 날씨와 열악한 항구시설이 거론되었지만 강력한 적의 반격은 예상되지 않았다. 주요 투입부대로는 미 제1해병사단과 제2공병 특수여단, 미 제7사단,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이고 예비 병력으로 미 제3사단의 배속이 예정되었다.⁴⁶⁾

단계별 작전으로는 D-Day나 그 전에 미 제8군이 김천-대전 축

전쟁기 연합국번역통역국(ATIS)과 북한문서의 노획, 『역사와 현실』 제109호, 한국역사연구회, 2018년 9월.

44) “Annex B, Intelligence, Operation Plan, CINCFE No. 100A”(1950. 8. 15),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2, pp. 1~5.

45)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100A”(1950. 8. 30),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2, pp. 1~2.

46)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100A”(1950. 8. 30),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2, p. 2

선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이 때 미 제10군단 예하 미 제1해병사단이 근산에 상륙작전을 전개하며, 후속부대로 제2공병 특수여단과 미 제7사단이 차례로 상륙한다. 이어 미 제10군단은 50마일 내륙에 위치한 대전을 점령하고, 미 제8군과 연결하기 위해 김천 쪽인 남서쪽으로 공격한다. 이후 작전은 대전-서울 축을 따라 북진하거나 제2의 대규모 상륙작전을 전개하는 것이다.⁴⁷⁾

지휘관계로 미 제10군단은 미 제8군과 합류할 때까지 극동군사령관에 직속된다. 이후는 미 제8군 사령관의 지휘권에 귀속된다.⁴⁸⁾ 이후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은 극동군사령관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정리되었다.⁴⁹⁾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던 100-A는 유엔군사령부 작전참모부에 따르면 100-B를 위한 양동작전(feint) 계획의 일환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두 번째로 100-B 계획을 살펴보자. 이 계획은 실제 인천상륙작전으로 실행되었기에 너무나 잘 알려져 있으므로 그 개요만 간단하게 정리한다.⁵⁰⁾ 100-B 계획은 1950년 8월 12일 준비가 시작되어 수정을 거쳐 24일에 완성되었다. 이 계획은 극동군사령부 예비부대와 미 제1해병사단을 상륙작전에 동원하여 인천-서울 지역을 탈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군의 주요 병참선을 차단하고 남쪽으로는 병력 증원을 막는 것이다. 이 때 미 제8군은 남쪽으로부터 공격

47)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100A"(1950. 8. 30),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2, pp. 3~4.

48) "Catalogue of Plans and Orders", MA, RG 38, Papers of LGEN Edward M. Almond, Chief of Staff, SCAP, Commanding General, X Corps, FECOM, Box 3, Folder 2, G-3 Summary, p. 8.

49) "Annex H, Command Rel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100A"(1950. 8. 30),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2, p. 1.

50) "Headquarters X Corps War Diary Summary for Operation Chromite, 15 August to 30 September, 1950", MA, RG 38, Papers of LGEN Edward M. Almond, Chief of Staff, SCAP, Commanding General, X Corps, FECOM, Box 3, Folder 1.

을 개시하여 대구-대전-수원 선을 따라 북서쪽으로 진출하고, 서울에서 상륙부대와 연결하는 것이다. 100-B 계획의 주요 목적은 북한군을 서울-인천 이남에서 격퇴하는 것이다. 상륙부대의 조직과 임무는 1950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부 작전명령 1호에 의해 부여되었는데, 우선 상륙부대인 미 제10군단은 미 제1해병사단, 미 제7보병사단, 제92야포대대 및 제96야포대대 등으로 구성되었고, 임무는 인천-서울 지역에 상륙하여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100-C 계획을 살펴보자. 100-C는 유엔군사령관 작전명령 1-50에 따라 수립되었다. 이 작전 계획은 100-B와 마찬가지로 미 제10군단이 인천 지역에 상륙을 감행한다. 그러나 만일 미 제8군의 반격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아 김천-대전 지역으로 북서 진출에 실패할 경우 M-Day(개전일)에 미 제8군으로부터 1개 사단을 차출, 군산지역에 상륙, 대전을 장악함으로써 미 제8군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⁵¹⁾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은 군산과 대전지역에 투하되어 작전을 실행한다.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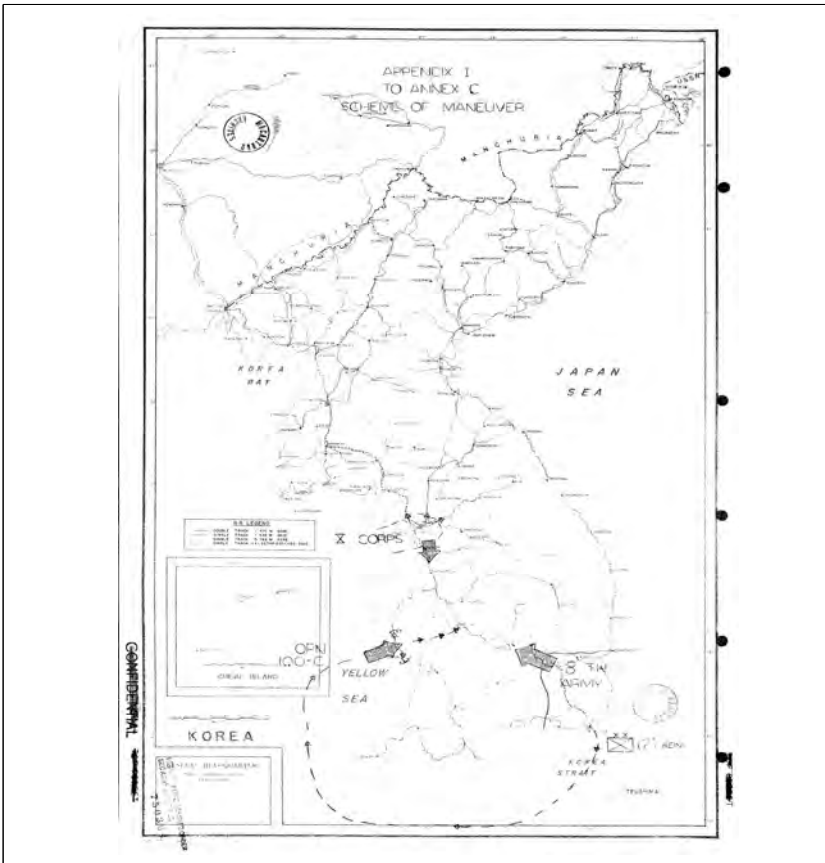
100-C의 작전개념은 다음과 같다. 작전명령 1-50에 따르면 유엔군은 적이 점령한 지역에 깊게 침투하여 서울의 병참지역을 장악함으로써 미 제8군의 대규모 공격과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작전은 부산으로 1개 사단을 이동시켜 미 제8군의 전방에 주둔한 적의 후방지역에 상륙작전을 전개하는 것이다. 군산의 상륙은 적군의 주요 병참 중심지인 대전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으로 그 목적은 미 제8군 전방에 위치한 적의 주요 보급선을 차단하고 미 제8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되었다.⁵³⁾

51)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1950. 9. 8),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3, p. 1.

52)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1950. 9. 8),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3, p. 3.

53)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제한요소로는 상륙부대의 규모가 1개 사단에 지나지 않은 소규모라는 것으로 만일 적의 저항이 완강하면 교두보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전을 장악한 상륙부대는 남서쪽인 김천지역으로의 공격을 지속하도록 계획되었다.⁵⁴⁾



[그림 1] 크로마이트 작전 100-C

100C”(1950. 9. 8),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3, p. 1.

54)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1950. 9. 8),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3,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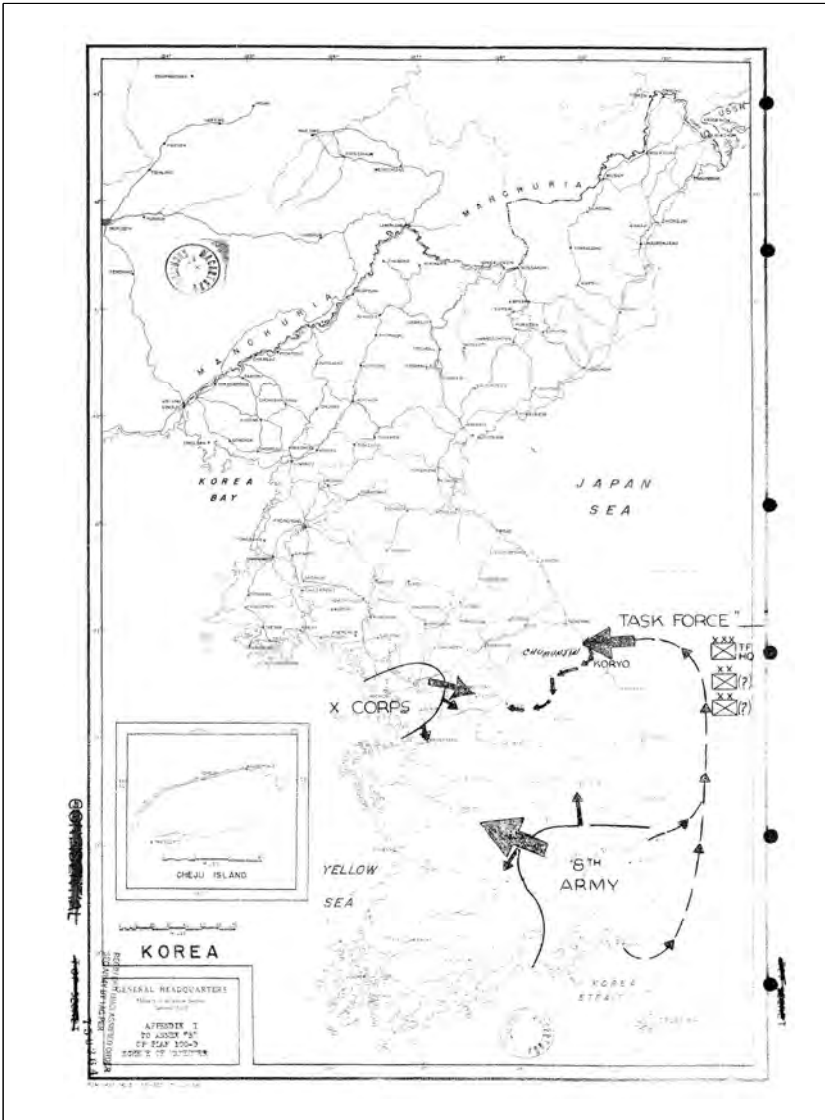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100-D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00-D는 유엔군사령부 작전명령 1호의 지시에 의해 준비되었다. 작전에 기반이 되는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 미 제10군단이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의 병참 중심부를 장악한 후 북한군을 차단하는 것이다. 다만 미 제8군의 주요 장애로 험난한 지형과 게릴라 작전을 들고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군은 소련이나 중공으로부터 주요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예상되었다.⁵⁵⁾

100-D 작전 계획은 미 제10군단이 인천지역에 상륙하고 미 제8군은 대구-김천-대전을 축으로 북서방향으로 공격을 지향하며 북한군을 격퇴하는 것이다. 여기에 강릉과 주문진 지역에 2개 사단으로 구성된 특수임무부대를 상륙시켜 동해안 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서쪽과 남서쪽으로 공격을 감행한다. 상륙부대는 미 제8군으로부터 2개 사단을 차출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 혹은 두 개 사단 모두 한국군을 활용하는 것이다. 결국 미 제10군단과 이 특수임무부대는 중부지역에서 연결하여 북한군을 포위하고, 남으로부터 북상하는 미 제8군과 연결하는 것이 작전의 주요 내용이다.⁵⁶⁾

작전 개념으로는 다른 작전 계획과 마찬가지로 1950년 6월 25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미 합동참모본부가 극동군사령부에 지시한 북한군의 격퇴를 위해 한국군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주요 상륙부대로는 최근 영덕으로부터 철수한 한국군 제3사단이 보여주었듯이 한국군 사단을 상륙정을 통해 주문진에 상륙시키는 것이다. 주요 제한 요인으로는 북한군의 낙동강 돌파 시도가 치열한 상황에서 과연 미 제8군으로부터 가용 병력을 빼낼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⁵⁷⁾

55) "Operation Plan, CINCFE No. 100D"(1950. 9. 11),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4, p. 1.

56) "Operation Plan, CINCFE No. 100D"(1950. 9. 11),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3, pp. 2~3.



[그림 2] 크로마이트 작전 100-D

57) “Annex B,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100D” (1950. 9. 11),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3, pp. 1~2.

이상으로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 100-A, 100-B, 100-C, 100-D를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는 각각의 작전 계획의 목표와 운용병력, 상륙지역 등을 구분한 것이다.

[표 1]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의 비교

	100-A	100-B	100-C	100-D
작전 계획의 목표	군산지역 상륙을 통한 금강선에서 북한군 섬멸	인천지역 상륙을 통해 서울을 수복하고 그 이남의 북한군을 포위 섬멸	인천지역에 10군단을 상륙시키고 8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 군산에 추가 상륙하여 대전 장악	강릉-주문진 지역에 특수임무부대 2개 사단을 상륙시켜 북한군을 포위하고 복진하는 8군과 연결하여 섬멸
운용병력	10군단, 187공수연대전투단 예비 제3사단	10군단	10군단, 1개 사단, 187공수연대전투단	10군단, 한국군 1~2개 사단으로 구성된 특수임무부대
10군단의 상륙지역	군산	인천	인천	인천
추가 상륙지역	-	-	군산	주문진
추가 상륙지역의 운용병력	-	-	1개 사단 187공수연대전투단	한국군 1~2개 사단
작전 계획의 완성	1950. 8. 30	1950. 8. 24	1950. 9. 8	1950. 9. 11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은 크로마이트 작전 4가지 계획은 기존에 알려진 것과 같이 개별 상륙작전이 아니라,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인천지역의 상륙작전을 기준으로 미 제8군이 반격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작전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즉 4가지 작전 계획은 개별적인 작전계획이 아니라 보조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다.

5. 결론

인천상륙작전은 확실히 수세에 몰렸던 유엔군과 한국군으로 하여금 반격을 통한 복진을 가능하게 한 성공적인 작전이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유엔군은 서울을 장악함으로써 북한군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낙동강 전선의 적군을 와해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인천항만 시설과 김포공항 그리고 철도의 중심지인 서울을 장악함으로써 복진 작전을 감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지나치게 작전의 전개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만 기존의 연구가 집중된 나머지 인천상륙작전 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내용과 그 함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의 기반이 되었다고 알려졌던 군수참모시리즈 LD-SL-17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 작전 계획은 전쟁 초기인 7월에 수정 보완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계획이 바로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에 그대로 연결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세부적인 작전 계획이 그대로 들어맞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이미 전쟁 이전 극동군사령부가 전쟁 발발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준비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부른 예단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본 논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크로마이트 작전 4가지 계획이 갖는 의미가 개별적이라기보다는 각각의 계획이 유기적 관계라는 것이다. 즉 100-A는 100-B 계획의 양동작전(feint) 계획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유사시 실제 계획으로도 활용될 수 있었던 작전이었다. 100-C 계획과 100-D 계획은 100-B 계획의 보완적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천상륙작전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만약 미 제8군이 낙동강 전선에 구축된 북한군 전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이

에 대한 보완책으로 100-C 계획에서는 군산지역에 대한 상륙을 통해 미 제8군을 대전에서 지원하는 보완 상륙 작전이며, 100-D 계획에서는 강릉-주문진 지역에 대한 추가 상륙을 통해 남한 지역 내의 북한군을 포위 섬멸하려는 계획이었다.

(원고투고일 : 2019. 1. 13., 심사수정일 : 2019. 2. 1, 게재확정일 : 2019. 2. 14)

주제어 : 인천상륙작전, 크로마이트 작전, 군수연구 LD-SL-17, 맥아더, 라이트, 극동군사령부, 합동전략기획단



〈참 고 문 헌〉

-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 MA, RG 38, Papers of LGEN Edward M. Almond, Chief of Staff, SCAP, Commanding General, X Corps, FECOM.
- NARA,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Office of the Director of Plans & Operations, Top Secret : American-British-Canadian Correspondence, Box 454.
- NARA,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9, General Decimal Files, 1950-1951(Top Secret) General Correspondence Relating to Training and Operations, 1950-52.
- 고든 L. 리트먼 지음 · 김홍래 옮김, 『인천 1950』, 플래닛미디어, 2006.
- 고지마노보루 저 · 유승호 역, 『한국전쟁 전모 제1보』, 송산출판사, 1988.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3권 - 낙동강방어작전기』,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70.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전투사 - 인천상륙작전』,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3.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국방군사연구소, 1995.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9.
- Malcolm W. Cagle · Frank A. Manson, 신형식 역, 『한국전쟁해전사』 (서울: 21세기 군사연구소, 2003).
- 박명림, 『한국 1950 - 전쟁과 평화』, 나남, 2002.
- 브루스 커밍스 지음 · 김동노 외 옮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2001.
- 이상호, 『맥아더와 한국전쟁』, 푸른역사, 2012.
-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4권 - 낙동강에서 압록강으로』, 전쟁기념사업회, 1992.
- 견수찬,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논의의 검토」, 『인천역사』 제1호, 인천광역시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2004년 가을.

- 김광수, 「인천상륙작전과 북한군의 대응」, 『군사연구』 제130집, 육군본부, 2010년 12월. DOI : 10.17934/jmhs..130.201012.69
- 김광수, 「인천상륙작전은 기습이 아니었는가」, 『전사』 제2호, 국방군사연구소, 1999.
- 김현기, 「인천상륙작전과 서울탈환이 한국전쟁에 미친 영향」, 『군사논단』 17, 한국군사학회, 1999년 1월.
- 박명림, 「열전의 인천 1950년, 그리고 평화의 인천 2005년: 두 인천의 역사적 조망의 몇몇 비교범주들」, 『제4회 월미평화포럼-황해, 전쟁의 바다에서 평화 교류의 바다로』, 2004년 9월 17일.
- 박명림, 「한국전쟁: 전세의 역전과 북한의 대응(1) - 1950년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략연구』 통권 10호, 1997.
- 서주석, 「인천상륙작전의 결정경위와 전개과정」, 『인천상륙작전 50주년 기념학술회의-한국전쟁과 인천: 평화와 협력을 위하여』, 2000.
- 송인영, 「인천상륙작전의 전쟁사적 평가 및 의의」, 『인천상륙작전 50주년 기념학술회의-한국전쟁과 인천: 평화와 협력을 위하여』, 2000.
- 오동룡, 「켈로 부대장 최규봉 용의 ‘인천상륙작전 비사」, 『월간조선』 제24권 9호, 월간조선사, 2003년 9월.
- 이동원, 「미군의 월미도 원주민 학살사건」, 『말』 통권 265호, 월간 말, 2008년 7월.
- 이상호, 「인천상륙작전과 북한의 대응-사전인진설과 전략적 후퇴에 대한 반론」, 『군사』 제59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6년 6월. UCI : G704-001528.2006..59호.001
- 이상호, 「한국전쟁기 연합국번역통역국(ATIS)과 북한문서의 노획」, 『역사와 현실』 제109호, 한국역사연구회, 2018년 9월.
- 이상호·박성진, 「인천상륙작전과 팔미도 정보 작전」, 『정신문화연구』 제36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년 가을. DOI : 10.25024/ksq.36.3.201309.288
- 이선호, 「9·15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평가」, 『북한』 통권 405호, 북한연구소, 2005년 9월.
- 이의환, 「인천상륙작전에 가려진 월미도 원주민들의 아픔」, 『황해문화』 통권68호, 새얼문화재단, 2010년 가을.
- 조상근, 「한국전쟁에서 중공 지도부의 인천상륙작전 예측과정」, 『군사』 제71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9년 6월. DOI : 10.29212/mh.2009..71.55
- 조성훈, 「인천상륙작전을 전후한 맥아더 역할의 재평가」, 『정신문화연구』 제29권 제3

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년 가을. UCI : G704-000772.2006.29.3.008
조화유, 「인천상륙작전의 영웅 클라크 대위의 수기」, 『월간조선』 26권 10호, 월간조선사, 2005년 10월.

Allan R. Millett, *The War for Korea, 1950-1951: They came from the north*(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0).

Blair, Clay, *The Forgotten War - America in Korea, 1950-1953* (New York: Times Books, 1987).

Clayton James, D., *The Years of MacArthur, Volume III - Triumph and Disaster 1945-1964*(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5).

Schnabel, James, F.,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72).

Appleman, Roy E.,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 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Weintraub, Stanley, *MacArthur's War: Korea and the undoing of an American Hero*(New York: The Free Press, 2000).

Bevilacqua, Allan C., "Inchon, Korea, 1950-The Landing that couldn't be done", *Leatherneck*, September 2000.

Bradford, Jeffery A., "MacArthur, Inchon and the Art of Battle Command", *Military Review*, Mar/Apr. 2001.

Dorschner, Jim, "Douglas MacArthur's Last Triumph", *Military History*, September 2005.

Heinl, Robert D., "The Inchon Landing: A Case Study in Amphibious Planning", *Naval War College Review*, Spring 1998.

Paschall, Rod., "A bold Strike at Inchon", *Military History*, 2002.

<Abstract>

The Implications and Four Plans of ‘Operation Chromite’, Inchon Amphibious Op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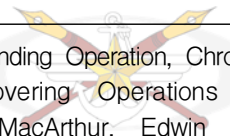
Lee Sang-Ho

This paper reviews the overall ‘Chromite Operation’ plan based on the MacArthur Memorial Collection documents and compares the details of the four operational plans. We will also look into the relevance of the contingency plan SL-17, which was prepared just before the war that some researchers had suggested, to develop in early July, LD-SL-17.

In general, when discussing the operation plan of the Inchon Landing Operation, the Chromite Operation Plan, there are three operational plans listed as 100-B, 100-C and 100-D. And these operation plans have been understood as different landing areas - Incheon, Gunsan, and Jumunjin - respectively. However, if you analyze the plan carefully, this is a misinterpretation. In other words, each operation plan is based on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and if the US 8th Army does not break the front line of the North Korean Army on the Nakdong River Front, it will undertake an additional landing operation.

LD-SL-17(Logistic Study Covering Operations in Korea, LD-SL-17) prepared by the US Army Chief of Staff (G-4), which has been known to be the basis of the Chromite Operation Plan, 17). The plan was revised in July, early in the war. But as we have seen, it is unlikely that this plan is directly linked to the Chromite operation plan, The detailed operational plan does not fit. Therefore, it is unreasonable to claim that the pre-war Far East forces in Korea already predicted and prepared for the outbreak of war.

In addition, we can confirm that each project has an organic relation that the meaning of the four chromite operation plans are optional. In other words, 100-A has a meaning as a fake attack plan of the 100-B plan, and it was an operation that could also be used as a real plan in case of emergency. The 100-C plan and the 100-D plan were complementary plans of the 100-B plan. In other words,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Plan will proceed as planned, assuming the US 8th Army, which can not break the North Korean Front along the Nakdong River, and as a complementary measure, the 100- And the 100-D plan was to annihilate the North Korean forces in South Korea through further landing in the Gangneung-Jumunjin area.



Key words : Inchon Landing Operation, Chromite Operation, Logistic Study Covering Operations in Korea(LD-SL-17), Douglas MacArthur, Edwin K. Wright, Far East Command, Joint Strategic Planning and Operations Group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0, pp.389-426
<https://doi.org/10.29212/mh.2019..110.1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한국전쟁 해전사(海戰史) 연구자료의 발굴과 그 효용성

- 영국 해군의 '작전기록'을 중심으로 -

김인승*



1. 머리말
2. 반공 유격부대 활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유엔군의 서해 도서방어 작전 연구
4. 유엔군의 서해 해상철수 작전 연구
5.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전쟁이 근현대 전쟁사 연구가들에게 있어 잊힌 전쟁(The Forgotten War)이라면, 전쟁 후반 2년여 동안의 유엔(UN) 해군 활동상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잊힌 부분 중 하나일 것이다. 인천상륙

* 공군사관학교 조교수

작전 및 흥남철수로 대표되는 전쟁 초반의 몇몇 드라마틱한 작전을 제외한다면, 후반기 대부분의 해상작전은 봉쇄(Naval Blockade)로 대표되는 지극히 정태적인 활동의 연속이었다.¹⁾ 극적인 초반부와 정태적인 후반부로 명백히 구분되는 해상작전의 특성으로 인해 자연스레 연구자들의 관심은 긴박했던 초기 1년여의 해상작전 연구에 집중되었으며, 시기적으로 더 길었던 후반기의 활동상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것이다.²⁾ 필드(James A. Field Jr.)의 분류법처럼 연구자들에게 있어 한국전쟁의 후반기 해상작전은 ‘2년 더(Two More Years)’라는 짧은 문구로 대표되는 단조롭고 지루한 활동의 연속이었다.³⁾

문제는 후반기 해군작전에 대한 학계의 낮은 관심으로 인해 같은 기간 해상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던 몇몇 역사적 활동들 역시 함께 주목받지 못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그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작전활동이 이루어졌던 서해전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38선 이북에 위치한 도서가 적어 일상적인 형태의 해군작전 이외에 여타 작전활동이 수행되기 어려웠던 동해전역과는 달리, 서해전역의 경우 얕은 수심과 연안에 위치한 다수의 크고 작은 도서의 존재로 인해 동해보다 훨씬 복잡한 형태의 유엔군 활동이 전개되었다.⁴⁾ 먼저 서해 이북지역에 위치한 도서들은 한국전쟁 후반기,

1) ADM 234/385, 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British Commonwealth Naval Operations, Korea, 1950-53*(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September, 1967), p.4.

2)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2), p.IX; Malcolm Muir Jr., “Sea Power on Call: Fleet Operations, June 1952-July 1953”, Edward J. Marolda (ed.), *The U.S. Navy in the Korean War*(Annapolis,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2007), p.348.

3) 필드는 한국전쟁기 해군작전과 관련한 기념비적 연구에서 2년여의 후반기 해상작전을 ‘2년 더(Two More Years)’라는 제목의 1개 장(Chapter)에 압축하여 기술하였다.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Chapter XII.

유엔군의 특수작전을 위한 핵심기지로 활용되었다. 특히 레오파드(Leopard) 및 울팩(Wolfpack) 등으로 알려진 반공 유격부대(Anti-Communist Guerrilla)의 활동 대부분이 이 지역 도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⁵⁾ 또한 공산군의 대단위 해상공세에 대항하기 위한 유엔 측의 방어 작전 역시 이 지역 도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51년 11월부터 1952년 초까지, 유엔군이 서해 이북지역에서 점유하고 있던 도서를 탈환하기 위한 공산 측의 대대적인 해상 공세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해상공세에 맞서, 유엔 측은 도서 방어 작전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작전을 전개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도서 중 상당수는 판도라 작전(Operation PANDORA)이라 명명되었던, 한국전쟁기 최후의 해상철수작전의 주 무대이기도 하였다. 정전협정상의 합의에 따라 유엔 측은 서해 이북지역에서 점령하고 있던 19개 도서로부터 완전 철수하여야 했다. 이에 따라 정전협정 발효일을 기점으로 10일 이내에 철수대상 도서에 위치한 45,000명에 이르는 인원과 2,300여 톤에 이르는 물자를 남측 영역으로 완전 철수하는 대규모 해상작전을 수행하였다.⁶⁾

주목할 점은, 앞서 언급한 유엔군 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 당시 서해전역에서 활동하던 해군의 작전기록이 필수적으로

4) ADM 1/27269, Report of Experience in Korean Operations, January-June 1951,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 26 July, 1951, Part I: Historical Survey, para.23; Norman Bartlett (ed.), *With the Australians in Korea*(Canberra ACT: Australian War Memorial, 1957), p.127.

5) 반공 유격부대의 영문 명칭은 1952년 10월까지는 반공 게릴라(Anti-Communist Guerrilla)로 통칭 되다가, 이후 유격부대의 조직 개편과 함께 파티잔(Partisan)으로 통일되었다. 서해지역 영연방해군의 경우 그들의 작전일지 및 정기보고서에 유격부대를 통상 전자로 기술하였기에 본고에서도 영문명에 한해 Anti-Communist Guerrilla로 표기한다. 한글 명칭의 경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2003년 발간한『한국전쟁의 유격전사』내의 명명법에 따라 반공 유격부대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6) ADM 1/24856, Korean War-Report of Proceedings 62, 1 June to 7 August, 1953, Office of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 2FE/960/2, 31 August 1953, p.2.

요구된다는 것이다. 우선 반공 유격부대의 경우 이들의 작전활동 대부분이 유엔 해군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진행되었기에, 이들의 활동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해군 측 작전기록이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도서방어 작전과 판도라 작전의 경우도 두 작전 모두 유엔 해군의 총괄책임하에 수행되었던 만큼, 이들 작전의 심층연구를 위해서는 해당시기 서해전역에서 해군작전을 담당했던 함정의 작전기록 활용이 불가피한 것이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시까지, 북위 37도선 이북에 위치한 서해전역 내 유엔 해군작전은 유엔군사령관(Supreme Commander, UN Forces) 예하 미 극동해군사령관(Commander, Naval Forces Far East)의 지휘를 받는 제95.1기동전대(Task Group 95.1)에 의해 수행되었다.⁷⁾ 영국 해군제독을 기동전대 사령관으로 하여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 해군이 여기에 배속되어 있었으며, 한국해군 소속의 초계함 일부 역시 1950년 7월 말부터 서해작전에 합류하여 연합작전을 수행하였다.⁸⁾ 제95.1기동전대의 구성이 외형적으로는 다국적군의 형태를 띠었으나 전체 전력의 상당부분이 당시 홍콩에 위치했던 극동해군기지(Far East Station)로부터 파견된 영국 해군으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서해 해군작전의 대부분은 영국군 지휘관들의 지휘통제하에 수행되었다. 따라서 한국전쟁 중 생산된 서해전역 작전기록의 대부분이 영국 해군에 의해 기록, 수집 및 보관되어 왔다. 대체로 미군 측의 작전기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했던 여타

7) 1950년 7월 3일 이후 북위 37도선 이북에 위치한 동해전역의 경우 미 해군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95.2기동전대(Task Group 95.2)가, 37도선 이남에 위치한 해역의 경우 한국해군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95.7기동전대(Task Group 95.7)가 작전을 담당하였다. Thomas J. Cutler, "Sea Power and Defense of the Pusan Pocket, June-September 1950", Edward J. Marolda (ed.), *The U.S. Navy in the Korean War*, p.22.

8) 위의 책.; ADM 234/385, 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British Commonwealth Naval Operations, Korea, 1950-53*, p.33.

유엔군 활동과는 달리, 서해전역 내 유엔군의 작전활동에 대한 기술은 영국 측 자료를 기반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인들의 한국전쟁 전반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인해 전술한 활동상을 구체적으로 조망하려는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국이 그들의 한국전쟁기 해군작전을 ‘가장 영국답지 않은 전쟁(a most un-English war)’이라 인식하면서 해당 해전사 연구 자체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⁹⁾ 그나마 1967년 영국 해군 역사기록단(Naval Historical Branch)에 의해 서해 해군작전 전반에 대한 종합연구(full-scale study)가 내부 기록용으로 발간되었으나, 이 역시도 여타 저작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후반기 작전활동 기술에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¹⁰⁾ 그나마 제95.1기 동전대의 작전활동 중 항공모함 및 함재기의 활약상이 후속 연구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이 공산군 전투기와의 교전이나 본토 내 표적에 대한 공격활동에 집중하고 있어 서해 해상활동의 전반적인 특징을 이해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¹¹⁾ 따라서 반공 유격부대, 도서방어 작전, 그리고 판도라 작

9) Edward C. Meyers, *Thunder in the Morning Calm: The Royal Canadian Navy in Korea 1950-1955*(St. Catharines, Ontario: Vanwell Publishing Limited, 1992), p.152.

10) 이 연구 역시 2년여에 이르는 후반기 해군작전을 설명하기 위해 총 12개의 장(Chapter) 중 단 4개의 장만 할애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기 해상작전을 크게 6개의 단계로 구분하고 1951년 6월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2년여의 기간을 마지막 6단계로 분류하였다. 영국 측 연구자들에 의해 해당 작전기간의 특징은 ‘장기화된 휴전협정, 해상에서의 정태적인 전쟁(static warfare on shore)’이라 명명되어 있다. ADM 234/385, 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British Commonwealth Naval Operations, Korea, 1950-53*.

11) 항공모함 및 함재기의 작전에 대한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다음의 연구들이 있다. Richard P. Hallion, *The Naval Air War in Korea*(Baltimore, Maryland: The Nautical & Aviation Publishing Company of America, 1986); John R. P. Lansdown, *With the Carriers in Korea: The Sea and Air War in SE Asia, 1950-1953*(Wilmslow, Cheshire: Crecy Publishing Limited, 1997); Brian Cull and Dennis Newton, *With the Yanks in Korea*(London: Grub Street, 2000); Graham Thomas, *Furies and Fireflies over Korea: The Story of the Men of the Fleet Air Arm, RAF and Commonwealth Who*

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위해서는 영국 해군이 한국전쟁이 생산 및 수집한 작전기록에 대한 발굴 및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전쟁 중 생산된 제95.1기동전대의 작전기록 대다수는 비밀 해제되어 영국 국립문서보관소(The National Archives, Kew)에 소장되어 있다. 이중 서해전역 내 유엔 측 활동상을 파악하는 데 특히 유용한 자료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군작전 관련 유엔 지휘부의 주요 의사결정 내용과 서해지역 사령부의 작전 상황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95.1기동전대장 및 그의 참모들(Staff Officers)이 작성한 6개월 단위 중기 보고서(Report of Experience)와 월별 보고서인 작전경과보고서(Report of Proceedings)가 유용하다.¹²⁾ 하지만 이 자료에는 매일 진행된 서해전역에서의 작전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다. 상세한 작전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제95.1기동전대 소속 함정들의 작전일지도 함께 참고해야 한다. 특히 주로 일본 사세보 해군기지에 주둔했던 기동전대장을 대신해 해상항공작전과 봉쇄작전 각각에 대한 현장지휘를 각각 전담했던 두 명의 기동분대장(Commander, Task Element)의 작전경과보고서(Report of Proceedings)가 함정들의 주요 활동내역을 상세히 정리해두고 있어 매우 유용하다.¹³⁾ 여기에 더해 함재기 조종사들의 표적정보 선정 및 공격결과와 관련한 정보 역시 연안지역 및 내륙에서의 유엔군 활동과 공산군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항공모함의 작전경과보고서 내 작전결과보고서(Debriefing

Defended South Korea, 1950-1953(London: Grub Street, 2004); David Hobbs, "British Commonwealth Carrier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Air & Space Power Journal*, 18, 4; ProQuest(Winter 2004).

12) 상기 언급된 자료들은 ADM 1-Correspondence and Papers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함정들의 작전기록과 관련해서는 ADM116-Record Office: Cases 내의 자료를 참고할 것.

Report)와 항공연락장교(Air Liaison Officer)가 작성한 전쟁일지(War Diary)를 참고하는 것이 특히 유용하다.¹⁴⁾ 이러한 1차 자료에 충실히 기반한다면 전술한 몇 가지 주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한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영국 해군의 한국전쟁기 작전기록을 바탕으로 그동안 그 중요성과는 무관하게 깊이 있게 연구되지 못한 한국전쟁기 유엔군의 활동들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것이다. 사실상 잊힌 서해전역 내 주요 활동상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환기하고, 미국 측 자료에 상당부분 의존한 채 논의되어 왔던 현행 유엔군 작전연구 정황에 확장성을 기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영국 해군의 작전기록을 바탕으로 기술 가능한 주요 연구 분야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각 분야별 선행연구 현황 및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영국 측 자료가 해당연구 발전에 기여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겠다.

2. 반공 유격부대 활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

한국전쟁기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의 특수작전을 진두지휘했던 싱글러브(John K. Singlaub) 장군의 말처럼 한국전에서의 유엔군 활동 중 반공 유격부대 활동은 ‘그중 가장 알려지지 않은 부분(the most unknown part of it)’일 것이다.¹⁵⁾ 실제 한국

14) 함재기의 작전결과보고서는 ADM 116-Record Office: Cases 내의 자료를, 그리고 항공연락장교의 자료는 WO 281-British Commonwealth Division of United Nations Force: War Diaries, Korean War를 참고할 것. 미 해병대 소속 경항공모함의 작전보고서(USMC Carrier Action Report)는 디지털화 되어 미국의 인터넷 문서보관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관련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s://archive.org/details/KoreanCombatActionReports>를 참고할 것.

15) Ben S. Malcom, *White Tigers: My Secret War in Korea*(Washington DC:

전쟁 후반부 2년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최대 2만여 명에 이르는 반공 유격부대원들이 미군의 지휘통제하에 활발한 작전활동을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상은 한국사회에 널리 소개되지 않았다. 한국인들에게 있어 유격부대 활동은 으레 공산당의 빨치산 활동이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¹⁶⁾

한국전쟁기 반공 유격부대 활동은 대부분 서해 38도선 인근 및 그 이북에 위치한 도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활동은 대체로 전전(戰前) 북한의 황해도와 평안도,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은밀히 진행되어 왔던 반공주의 청년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각자의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지속되었던 북한 내 음성적인 반공주의 운동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진행된 유엔군의 북진과 함께 급격히 양성화(陽性化) 되었다. 하지만 1950년 말, 중공군의 한국전 참전으로 이들의 북한 내 입지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반공인사 중 상당수가 남진하는 중공군을 피해 서해 인근의 크고 작은 도서로 피난하였다. 그리고 피난 후에도 같은 고향 출신 반공 청년들을 중심으로 자체 조직을 구성하고 공산군에 대한 저항 및 투쟁을 지속하였다.¹⁷⁾ 그러던 중 1951년 3월, 이들의 활약상을 전해들은 미8군(US Eighth Army)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미군 예하의 유격부대로 재조직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후 2년여에 이르는 시간동안 이들 반공 유격부대는 적군에 대한 기습 및 정보수집, 방해공작 등을 수행하며 활발한 작전활동을 지속하였다.¹⁸⁾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의 한국전쟁기 활동상은 관련 학계와 대중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해 왔다. 이는 우선적으로

Brassey's, INC., 2003), p.xi.

16) 조성훈, “증언자료의 비판적 활용 - 6.25전쟁 시기 유격대의 경우”, 『기록학연구』 제12호, (2005년 10월), p.140.

17) 반공 유격부대 조직 각각의 연원 및 초반 활동과 관련해서는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제 5장을 참조할 것.

18) Frederick Cleaver et al., “UN Partisan Warfare in Korea, 1951-1954”, Study, Operations Research Offic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6), p.1.

반공 유격부대 활동 자체가 가진 특수성에 기인한다. 당시 레오파드, 올팩과 같은 영문 코드명으로 불렸던 이들은 한국군이 아닌 미군에 의해 조직 및 운영되었던 비밀부대였다. 작전기간 동안 반공 유격부대의 존재 자체가 철저히 기밀로 분류되었기에 이들의 활동과 관련한 공식기록들은 독점적으로 미군에 의해 수집 및 작성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당시 미군에 의해 기록된 1차 자료 자체가 반공 유격부대 활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에 매우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유격부대원 대다수는 당시 자발적으로 미군 지휘하에 편입한 비정규군(irregular) 신분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작전기간 동안 유격부대원들은 미군 고문관의 느슨한 통제와 감시하에 작전활동을 폈다. 대원에 대한 인명부(lists)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으며, 북한 출신 비정규군에 대한 미군 측의 불신으로 인해 미 고문관이 부대원의 작전에 동행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었다.¹⁹⁾ 따라서 미군에 의해 수집된 관련 자료들의 대부분은 반공 유격부대 활동 연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대원들의 첩보수집보고서(Intelligence Report)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었다.²⁰⁾

물론 미군에서 작성한 보고서와 수집한 기록물 중 반공 유격부대 활동 연구에 매우 유용한 자료들도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1954년 3월 한국전쟁기 게릴라 활동의 특징(feature)에 대한 구술자료(narrative account) 수집을 목적으로 작성된 미 극동육군(US Army Forces, Far East) 전사파견대(Military History Detachment)의 보고서이다.²¹⁾ 델리(Arthur S. Daley) 중령과 모스맨(B. C. Mossman)

19) 미군 측 자료에 따르면 미군 장교가 유격 작전에 동행하기 시작한 것은 1952년 5월 1일부터이며, 그 이전 유격부대 활동은 모두 미군의 감시 및 동행 없이 수행되었다. Frederick Cleaver et al., "UN Partisan Warfare in Korea, 1951-1954", Appendix E: CHRONOLOGY OF PARTISAN CAMPAIGN, p.156. 미군 고문관의 반공 유격부대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에 대해서는 Malcom, *White Tigers*, pp.2-3을 참고할 것.

20)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pp.14-15.

소령에 의해 작성된 이 자료는, 유격부대원들의 반공 활동 배경에 대한 상세한 기술뿐 아니라, 당시 백령도와 그 인근지역에서 활동하던 몇몇 반공 유격부대 부대장과 대원들의 인터뷰 자료를 담고 있어 당시 유격부대원의 작전 동기와 열악한 작전환경, 그리고 조직 내 존재하는 부대원 간의 갈등 등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1956년 미 극동육군의 지원하에, 존스홉킨스 대학(The Johns Hopkins University)의 작전연구실(Operations Research Office)에 의해 작성된 분석보고서 역시 반공 유격부대 활동 연구에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²²⁾ 한국전쟁기 반공 유격부대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평가를 목적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방대한 미군 측 1차 자료를 바탕으로 반공 유격부대 활동 결과에 대한 다면적인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특히 유용하다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미 육군 군사연구소(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주도하에 반공 유격부대 활동에 미군 측 담당자로서 참여했던 참전 장교들의 경험을 구술자료의 형태로 정리한 기록물도 존재한다.²³⁾ 고위간부 구술사프로그램(Senior Officers Oral History Program)이라 명명된 프로젝트를 통해 미 육군은 반공 유격부대 활동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던 밴더풀(Jay D. Vanderpool) 중령 등 주요 인사들의 인터뷰 자료를 남겼다. 이들 자료는 지휘관급 시각에서 바라보는 반공 유격부대 활동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한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미군 측 자료들은 그간 반공 유격부대 활동 연구와 관련해 사실상 ‘알려진’ 유일한 객관적 자료라는 이유로 해당 연구자들로부터 일종의 바이블(Bible)처럼 간주되어 왔다. 특히 1980년대 중

21) U.S. Army Forces, Far East, 8086 Army Unit,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1951-1952”, Project MHD-3, Tokyo (March 1954).

22) Cleaver et al., “UN Partisan Warfare in Korea, 1951-1954”.

23) USA Military History Institute, Charisle, Pensilvennia, “Senior Officers Oral History Program”, (1983), (1985).

반 미국의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의해 유격부대 활동과 관련한 비밀자료들이 상당부분 공개된 이후 등장한 미국과 한국 내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진다. 우선 미국 내에서는 이들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미군 장교의 회고록을 중심으로 반공 유격부대의 활동상이 소개되기 시작했다.²⁴⁾ 이러한 회고록들은 전술한 미군 측 보고서 및 기록물의 내용에 기반해 개인적인 경험담과 유격부대 활동에 대한 사건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군 기관을 중심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했던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의 육군본부 군사연구실과 군사편찬연구소 주도하에 발간된 몇몇 반공 유격부대 관련 저작들 역시도 상당부분 앞서 언급한 미국 측의 자료에 기반하여 사실관계를 서술하고 있다.²⁵⁾ 물론 두 군기관의 연구 결과가 기존의 미국 측 입장을 단순히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군사편찬연구소에서 2003년에 발간한 저작의 경우 미국 측 자료뿐만 아니라 일부 한국군 내 공식기록과 유격대원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대다수의 기록물 및 책자까지 포괄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과거를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²⁶⁾ 따라서 반공 유격부대 활동에 대한 자료집으로서의 가치는 단연코 미국 측 자료들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의 저자 역시 인정하듯, 연구에 활용된 국내 자료들이 대부분 유격

24) Ed Evanhoe, *Dark Moon: Eight Army Special Operations in the Korean War*(Annapolis,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1995); Malcom, *White Tigers*; Donald A. Seibert, *The Regulars: An Account of the Military Career of Colonel Donald A. Seibert, USA Ret.* (Victoria, BC, Canada: Trafford Publishing, 2010); Maj. Shaun M. Darragh, "Hwanghae-do: the War of the Donkeys", US Army, (Nov. 1984).

25) 육군본부, 『한국전쟁과 유격전』(계룡대: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1994;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26) 연구를 위해 활용된 국내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 더욱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조성훈, "증언자료의 비판적 활용 - 6.25전쟁 시기 유격대의 경우", pp.141-153.

부대원들의 기억에 의존해 후술된 회고록이거나 본인들의 행적을 홍보할 목적으로 발간된 기념출판물의 형태여서 자료의 신뢰성에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²⁷⁾ 이로 인해 국내 자료의 대부분은 실상 미국 측 자료의 기술 내용을 보완하거나 교차 검증할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즉 군사편찬연구소의 저작 역시 반공 유격부대의 활동을 분석하고 평가함에 있어 전술한 미군 측 연구자료와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 측 기록물들이 한국전쟁기 반공 유격부대 활동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분히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당시 유격부대를 조직하고 운용했던 미군의 감시 능력상의 한계와 특수전 활동 특유의 예측불가능성 때문에 이들 유격부대가 수행한 다양한 임무를 모두 기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특히 서해 도서 및 근해지역에서 유엔 해군과의 직·간접적 관계하에 수행된 작전활동들은 사실상 미 육군의 공식 기록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유격부대의 활동에 있어 유엔해군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컸다는 점이다. 미군의 기록에 근거한 반공 유격부대 연구의 한계는, 앞서 언급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 보고서에도 일부 언급되어 있다.

“이 연구는 파티잔(Partisan) [반공 유격부대] 들이 활동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행한 정보제공 [항공 폭격 및 함포사격을 위한 표적 정보 제공과 유엔 지휘부가 레이더와 기타 장비들을 설치·운용하였던 도서에 대한 방어병력(a defensive force)으로서의 역할이 지니는 가치(value)에 대해 기술하지 않는다. ... 이러한 두 가지 기능들- 전선 후방에서의 정보활동 및 도서에 대한 방어-은 물론 파티잔 활동의 본래 목적과는 관련성이 적지만, 파티잔의 기여도(contribution)라는 측면에서 [파티잔 활동의] 진정한 가치는 이들 두 부분에 있을 것이다.”²⁸⁾

27) 앞의 책.

28) Frederick Cleaver et al., “UN Partisan Warfare in Korea, 1951-1954”, p.55.

위 보고서에서도 인정하듯, 미국 측의 연구에서 누락된 부분은 반공 유격부대의 역할을 평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서해 유엔 군함 및 함재기 작전활동을 위한 핵심 정보 공급자이자 유엔군의 도서방어 작전 수행에 있어 주요 전력으로서 반공 유격부대의 역할은, 미 육군의 자료에 기반해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다. 반공 유격부대원들이 공급하는 정보에 상당부분 의존해 작전을 수행하였고, 이들을 활용해 도서방어 작전을 진행했던 해군 측의 자료 없이는 연구의 객관성과 구체성 모두가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유격부대의 해군작전 지원에 대한 평가는 제95.1기동전대장 및 그 예하 함장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왔다. 가령 “[해군 작전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정보의 원천인 이 조직[레오파드 부대]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는 필수적(essential)”이라는 한 함장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 영국 해군의 작전기록상에는 정보공급자로서 반공 유격부대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있다.²⁹⁾ 또한 여기에는 “초기에는 이들[반공 유격부대원]로부터 며칠 늦은 정보를 받았으나, 버크 소령[Major William A. Burke, 레오파드 부대 사령관]이 백령도에 재임한 이래 [정보가] 매우 적기에 (timely)에 공급되고 있다”와 같이 유격부대의 정보공급 활동의 변화 및 발전에 대한 평가도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³⁰⁾

이러한 사실은 우선적으로 ‘반공 유격부대의 한국전쟁기 서해전역 유엔 해군작전 지원’이라는 종전에 검토된 바 없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영국 해군 작전기록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시킨다.

29) ADM 116/6211, HMS *Belfast*—Report of Proceedings 16 to 30 April 1951, HMS *Belfast*, 4 May 1951, para.16.

30) USS *Bataan* CVL 29, Action Report: period 15 January 1951-7 April 1951, 17 April 1951, p.VI-3.

영국군의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및 분석되어야 할 유격부대의 활동은 비단 해군작전 지원측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반공 유격부대와 서해전역 유엔 해군과의 관계가 단순한 편리공생(片利共生) 관계로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술한 내용과는 반대로 유엔 해군에 의한 유격부대 작전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 유격부대의 기지가 서해 이북지역 도서 내에 위치해 있었기에 이들의 작전활동에 있어 해군의 협조 및 지원 역시 필수적이었다. 유격부대원들의 단순한 해상이동에 대한 관리와 신원확인, 그리고 이들이 수행한 상륙작전 지원 및 지상 작전 중 직면한 위급 상황 해결을 위한 긴급지원(Emergency Call) 임무까지, 실상 서해전역 및 인접 본토지역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유격활동이 유엔 해군의 긴밀한 지원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³¹⁾ 따라서 유격부대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유엔 해군과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수적이었으며, 해군과의 협력관계 변화에 따라 유격부대 활동의 양상도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³²⁾

하지만 미군 측 자료에 기반한 기존 연구는 반공 유격부대 활동의 근간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해군과의 협조체제에 대한 분석 및 이해 없이, 유격대원들의 작전결과 보고서에 기초한 정량적 성과 - 적군의 인명피해, 파괴된 물자 수량 등-에 입각해 작전 활동을 분석·평가해왔다. 즉 과정은 생략한 채 결과에만 집중한 지극히 불균형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던 것이다. 유엔 해군의 유격부대 지원활동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도 영국 해군의 작전기록 연

31) 반공 게릴라와 서해상의 유엔 해군 간 구축된 세부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Inseung Kim, "The British Commonwealth and Allied Naval Forces Operation with the Anti-Communist Guerrillas in the Korean War: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Operation on the West Coast", PhD Thesis of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May 2018), pp.115-132 참조.

32) 실제 레오파드 부대 창설 초기, 서해 유엔해군에게 먼저 협조시스템 구축관련 회의를 제안한 쪽도 미8군 측이었다. U.S. Army Forces, Far East, 8086th Army Unit,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Supporting Document, p.50.

구는 필수적인 것이다. 특히 초기단계에서 반공 유격부대와 유엔해군 간의 협조체계 구축 및 발전 과정이 1951년 초 제95.12기동분대장들의 작전경과보고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만큼, 이 자료에 기초하여 이후 변화과정을 추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³³⁾

마지막으로 영국 해군의 자료는 상당부분 반공 유격부대원들의 기억에 의존해 후술된 그들의 활동기록들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전쟁기 유격부대원의 증언자료에 대한 조성훈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 국내에 소개된 유격부대원들의 활약상은 전과가 과장되거나 과오가 누락되기도 하고,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다.³⁴⁾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 문서를 제외하고 마땅히 교차검증이 가능한 사료를 확보할 수 없었기에 보다 사실에 가까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하지만 영국 해군의 자료를 활용할 경우 유격부대 활동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다. 전술했듯, 유격부대원들에 의해 후술된 기록 대부분이 시종일관 이들의 전공과 승고한 투쟁정신을 강조하며, 작전 중 행한 과오나 일부 대원들의 변절 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영국 해군 측 자료에 근거하면, 유격부대원들의 작전활동은 1951년 7월, 정전협정이 시작된 이래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여 동년 말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 실제, 개성에서 정전협정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발생한 유격부대원들의 급격한 사기저하로 인해 우선적으로 유격부대원들이 유엔 해군 측에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또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 약탈 활동이 급증하였으며, 이중첩자의 존재로 인해 유엔 해군작전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제95.1기동전대장이었던 몬크리에프 제독

33) 특히 ADM116-Record Office: Cases내의 벨파스트함(HMS *Belfast*), 케냐함(HMS *Kenya*), 실론함(HMS *Ceylon*)의 작전경과 보고서(Report of Proceedings)를 참고할 것.

34) 조성훈, “증언자료의 비판적 활용 - 6.25전쟁 시기 유격대의 경우”, pp.154-167.

(Rear-Admiral A. Scott-Moncrieff)은 1951년 11월 중반, “레오 파드의 활동이 최악의 상황(lowest ebb)에 이르렀다”며 그의 예하 함정들에게 가급적이면 반공 유격부대와와의 직접적인 협력관계를 자제할 것을 주문하기까지 하였다.³⁵⁾ 이처럼, 영국 해군의 기록을 활용하면 반공 유격부대 활동의 단상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영국 해군의 자료를 바탕으로 반공 유격부대의 활동과 관련된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유격부대원들에 의해 기록된 자서전상에는 작전실시 일자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오기한 사례가 적지 않다. 가령, 백마부대원들(동키-15)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작전활동 중 하나로 기억하고 있는 제2차 신미도 공격작전의 경우, 회고록상에는 작전일자가 1951년 8월 26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당시 해당 작전을 직접 지원했던 영국 해군의 작전기록에는 시행일을 10월 9일로 기록하고 있다.³⁶⁾ 또한, 미 극동사령부의 특별 명령에 따라 가도에 위치한 중공군을 생포한 날짜에 대해 백마부대 측은 1951년 11월 20일로 기억하고 있으나, 당시 공산군 포로의 호송을 지원했던 영국 해군함정의 작전기록에 따르면 이 날짜는 동년 동월 28일이었다.³⁷⁾ 유격부대 활동에 대한 사실관계의 경우 각 기동분대사령관이 남긴 작전경과보고서 내 사건요약일지(Chronological Summary of Event)를 통해 상당부분 비교분석이 가능한 만큼, 관련 연구자들의 우선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

35) ADM 116/6211, HMS *Belfast*-Report of Proceedings 14 to 24 October 1951, HMS *Belfast*, CTG 95.1's Comments, 16 November 1951.

36) 유격백마부대전사편찬위원회, 『복위 40 도산: 유격백마부대실전기』(유격백마부대 전사편찬위원회, 1979), p.205.; ADM 116/6228, Korean War-Report of Proceeding No.42, 29 September to 16 October, 1951.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s Force. FO2FE/2960/11, 16 October, 1951, p.2.

37) 유격백마부대전사편찬위원회, 『복위 40 도산: 유격백마부대실전기』, pp.253-260; ADM 234/385, 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British Commonwealth Naval Operations, Korea, 1950-53*, p.199.

다.³⁸⁾

이와 같이 종전의 기록들에 더해, 교차검증을 목적으로 영국 해군의 작전기록들도 함께 검토된다면 기존 반공 유격부대 연구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3. 유엔군의 서해 도서방어 작전 연구

1951년 11월 6일, 철산반도 남쪽에 위치한 가도, 탄도에 대한 공산군의 상륙공격 및 대화도에 대한 공중폭격이 기습적으로 감행되었다. 이로 인해 가도와 탄도가 공산군에게 점령되고 대화도에 주둔하고 있던 유격부대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³⁹⁾ 당시 서해전역 유엔 해군 지휘부는 이것이 단발성 공격이라 판단하고 경계태세 강화를 지속하지 않았다.⁴⁰⁾ 하지만 이는 유엔군의 예상과는 달리, 당시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던 서해전역 내 도서를 탈환하기 위한 공산측 해상 공세작전의 서막에 불과했다.

1951년 11월 30일 대화도에 대한 공산군의 대단위 육해공 합동 상륙작전이 감행된 데 이어 동년 12월 중순부터 황해도 연안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인 공세작전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제95.1기동전대는 백령도, 연평도, 초도, 석도 등 몇몇 주요도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북부 지역 내 도서를 공산군에게 빼앗기고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급작스런 작전환경의 변화는 유엔 해군의 최우선적인 임무조차 변경하도록 요구하였다. 실제 1951년 12월 2일, 서해 주요 도

38) 이 자료들은 대부분 ADM116-Record Office: Cases에서 찾을 수 있다.

39)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5), p.213.

40) ADM 116/6214, HMS *Ceylon*-Report of Proceedings from 13 November to 3 December 1951, Enclosure to the Commanding Officer, HMS *Ceylon*'s letter 2887/01.

서에 대한 방어가 그 어떠한 임무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명시한 유엔군 지휘부의 명령이 제95.1기동전대에 하달되었다.⁴¹⁾ 이들은 이후 약 4개월 간 공산군의 지속적인 공세에 맞서 도서방어 작전의 성공을 위해 진력을 다했으며, 공산군의 주요 도서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사라진 1952년 3월 중반 이후에도 약 8개월간 도서방어 준비태세를 지속하였다. 당시 도서방어 작전을 총괄했던 몬크리에프 제독의 말처럼, 서해 유엔 해군은 공산군의 도서 탈환작전의 시작과 함께 ‘가장 위태로운 시기(the most critical time)’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⁴²⁾

당시 유엔 해군이 도서방어 작전의 성공을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하고 모든 가용전력을 투입했던 이유는 서북지역에 위치한 도서의 확보가 유엔군의 전쟁수행에 있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1951년 말, 이곳 도서들은 한국전쟁기 유엔군 특수작전 활동의 핵심기지로 활용되었다. 전술했던 반공 유격부대 및 CIA를 비롯한 여러 유엔군 소속 요원들이 서해상의 도서를 기반으로 비밀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초도와 백령도 등 주요 도서에는 미 공군작전에 필수적인 레이더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서해전역 내 도서의 가치는 아래의 미 제5공군 정보보고서에 보다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서해상의] 모든 도서는 본토로의 정보작전(intelligence) 침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중 많은 도서가 적군에 대한 방해공작(sabotage)의 시작점이자 저항활동(resistance movements)을 지원하기 위한 기지로 이용된다. ... 이 도서들은 또한 아군 선박에게 있어 적군의 해안을 통한 물자수송을 저지할 수 있는 기지일 뿐 아니라, 곤경에 빠진(in distress) 아군 조종사의 비상착륙, 탈출 및 구조활동을 위한 기반(basic necessity)을 제공한다. ... 뿐만 아니라 초도, 백령도, 연평도에

41) ADM 1/27288, Korean War-Report of Proceedings 45, 1-22 December 1951, pp. 13-14; 유엔 지휘부로부터 하달된 서신 전문은 이 보고서의 ‘Appendix 1’을 참고할 것.

42) ADM 116/6219, HMS *Mounts Bay*-Report of Proceedings from 1 to 9 December 1951, HMS *Mounts Bay*, 10 December 1951, CTG 95.1’s Comments, 21 December 1951.

는 아군 전투기들이 청천강과 압록강 유역에서 작전을 수행한 후 기지로 귀환하는 길을 안내하는 방향지시국(D/F Station)이 있으며, 대청도와 덕적도에는 아군 폭격기에게 북한 내 표적을 안내하는 쇼란 비콘(Shoran Beacon)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초도와 백령도에는 조기경보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다.”⁴³⁾

38선을 중심으로 지구전(War of Attrition)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산군의 후방교란과 적군 핵심시설 타격을 위해 특수작전과 공중 폭격작전의 중요성이 점증하던 시기였기에, 이 두 작전 수행의 핵심 기지 역할을 했던 서해지역 도서는 그 존재자체만으로 유엔군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었던 것이다.⁴⁴⁾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도서의 소유권 문제가 정전협정의 주요 이슈가 되고, 동시에 공산군의 도서 탈환을 위한 공세가 시작되자 유엔군에 있어 도서방어 작전의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임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심지어 바틀렛(Norman Bartlett)의 주장처럼 한시적으로나마 유엔 지휘부에게 있어 도서를 둘러싼 공방이 당시 지지부진한 지상전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될(assumed)” 정도였다.⁴⁵⁾

하지만 한국전쟁사 연구에 있어 도서방어 작전이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공산 측 공세작전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공식 역사서에 언급된 일부 정보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내 학자들의 후속 연구로 인해 일정부분 퍼즐이 맞춰진 상황이다.⁴⁶⁾ 문제

43) Lawrence V. Schuetta, *Guerrilla Warfare and Airpower in Korea, 1950-1954*(Maxwell AFB, Alabama: Air University, Aerospace Studies Institute, 1964), pp.91-92.

44) ADM 1/23906, Korean Naval Operations-9 January to 8 February 1952, Office of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 104/FO2FE2/1209/1, 13 February 1952, pp. 1-2.

45) Norman Bartlett (ed.), *With the Australians in Korea*(Canberra ACT: Australian War Memorial, 1957), p.129.

46) 도서분쟁의 시작과 관련해서는 휴전협정 과정에서 주요 이슈가 된 ‘지역홍정’ 문제가 주원인이었다는 설명이 지배적이다. 휴전협정 과정에서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던 서북지역의 섬들이 개성지역 확보를 위한 유엔 측의 ‘지역홍정’의 대상

는 해당 전투의 전개과정 및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외의 대다수 연구들이 공산 측의 공세가 초기 어떤 방식과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는지, 도서지역 방어를 위한 유엔군 측 준비 및 대응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양측 간의 공방(攻防)이 정전협정의 전개와 맞물려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등, 이 해상 전투활동 연구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에 만족할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는 단순히 ‘공산군이 11월 한 달 동안 ... 14개 섬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식의, 과정과 절차가 생략된 단편적인 정보들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⁴⁷⁾ 단순히 한국전쟁의 잊힌 단면을 재조명하는 차원을 넘어, 후반기 유엔군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작전 중 하나였던 서해 도서방어 작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한국전쟁기에 수행된 도서방어 작전이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이유는, 전술한 반공 유격부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국 해군의 작전기록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도서방어 작전의 책임자였던 제95.1기동전대의 자료를 배제한 채 미국과 한국 해군 및 해병대, 그리고 일부 중국 측의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해상전투의 상세한 과정을 담아낼 수 없었던 것이다.

1951년 12월 9일, 유엔군 지휘부는 당시 육군과 해군 사이에 그 책임소재와 관련해 갈등이 있던 도서방어 작전의 최종 책임이 유엔

이 됨에 따라, 이 흥정의 명분을 없앨 목적으로 공산 측에 의해 단행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중국 측 기록은,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pp.213-215.; 한국 측 보완연구는 주로 휴전협정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년 2월), pp.94-97.;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戰爭 下』(국방군사연구소, 1997), pp.207-215 등이 있음.

47) 김보영, "유엔군의 해상봉쇄 · 도서점령과 NLL", 『한국군대사연구』Vol.62, (2012년 9월), p.150. 이는 중국군사과학원의 공식 역사서에도 마찬가지로 간략하게만 언급되어 있다.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p.215.

해군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⁴⁸⁾ 이는 곧 서해 방어 작전의 책임이 제95.1기동전대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영국군 제독의 지휘하에, 서해전역 내 위치한 모든 유엔 해군 소속 군함들과, 한국 및 미군 해병부대, 그리고 반공 유격부대로 구성된 도서방어병력(Garrison Forces)이 함께 방어작전을 전개하였다.

주목할 점은 당시 방어병력으로 파견된 미군 및 한국 해병전력이 주로 백령도, 초도, 석도, 연평도, 덕적도와 같이 본토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진 주요 도서에만 파견되었고, 실제 공산군의 위협에 상시 노출되었던 연안(沿岸)지역의 도서방어는 대체로 반공 유격부대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⁴⁹⁾ 당시 도서방어 작전의 긴급성으로 인해 연안지역 도서에 대한 공산군의 공격 및 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정보들은 대부분 유격부대원들을 통해 유엔 해군함정들에 직접 보고되었다. 신속한 함포사격 및 공중공격 지원을 위함이었다. 문제는 당시 유격부대원들이 도서방어 작전과 관련해 긴급히 유엔 해군에 타전한 정보 대부분이 유격부대 사령부를 거쳐 상부로 보고되거나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⁵⁰⁾ 따라서 공산군의 연안 지역 공세활동 및 이에 대한 유엔군의 대응과 관련한 기록들은 실상 인근 해안에 상주하며 방어작전을 지휘했던 유엔 해군 함정의 작전일지에 의해서만 상세히 기술될 수 있었다. 물론 일부

48) ADM 1/27288, Korean War-Report of Proceedings 45, 1-22 December 1951, p.15; 도서방어 작전의 책임문제와 관련한 유엔해군과 육군 지휘부 단의 갈등문제는 Ed Evanhoe, *Dark Moon: Eight Army Special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p.137 참조.

49) 당시 방어준비태세와 관련한 상세기록은 HMS *Mounts Bay*의 다음 보고서를 참조할 것. ADM 116/6222, HMS *Mounts Bay*, CTE 95.12's OP-PLAN 12-52, 'Naval Anti-Invasion Measures for West Coast Islands', 21 December 1951.

50) USS *Bairoko* (CVE-115), Action Report 9 April through 18 April 1952, 24 April 1952, p. 12; Inseung Kim, "The British Commonwealth and Allied Naval Forces Operation with the Anti-Communist Guerrillas in the Korean War: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Operation on the West Coast", pp.244-245.

도서탈환 작전의 경우 당시 작전에 직접 가담했던 방어병력들의 보고에 의해 더욱 상세한 활동기록이 남겨지기도 하였다.⁵¹⁾ 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단편적이기에 관련연구의 중심자료로 활용하기 보다는 영국 해군의 기록을 보완하거나 교차 검증하는 정도에서 그 유용성을 찾아볼 수 있다.

남은 문제는 이러한 영국 해군의 작전기록이 한국전쟁기 도서방어 작전 연구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겠다. 우선적으로 이 해상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개전 초기부터 1951년 10월 사이, 서북지역에 위치한 도서에 대한 유엔군과 공산군 간의 점령관계 변화를 확인하는 작업이 가능하다. 한국 해군이 봉쇄작전을 담당했던 37도선 이남지역의 도서점령과 관련한 기록은 한국 해군의 역사서에 대략적으로 설명이 되어있다.⁵²⁾ 하지만 제 95.1기동전대가 전담했던 37도 이북지역 내 활동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없는 상황이다. 서북지역 도서에 대한 유엔군의 본격적인 점령이 반공 유격부대의 등장과 함께 가속화된 만큼, 영국 해군의 기록을 바탕으로 전술한 미국 및 한국의 유격부대 관련 기록을 보충자료로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도서방어 작전 시작 이전, 서해전역 내 도서에 대한 점령관계 변화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유엔군에게 있어 서해전역에 위치한 도서가 지니는 가치의 변화과정에 대해 연구가 가능하다. 전쟁 초기만 해도 유엔 지휘부에게 있어 서해 도서는 작전적, 그리고 전략적 차원에서 거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1950년 말, 중공군의 개입

51) 대표적인 예가 1952년 초 한국군 해병대에 의해 작전이 시도되었던 일명 ‘호도 작전’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해병대사령부, 『해병전투사 1』(해병대사령부, 1962), pp.246-250 참조.

52)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계룡대:해군본부, 2012), pp.143-149, 169-191.

으로 유엔군이 진남포와 인천에서 철수작전을 준비할 때, 유엔 지휘부는 서북지역에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던 도서 대부분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기까지 하였다.⁵³⁾ 하지만 이후 서북지역 도서가 유엔군의 다양한 작전활동을 위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뒤이은 정전협정 시작과 공산군의 도서 탈환작전으로 인해 유엔군에 있어 이 지역 도서의 전략적 가치가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서해전역 내 도서가 지니는 가치의 변화는 이 지역에서 도서방어 작전을 수행한 유엔군 작전의 중요성에 대한 재평가와도 직결되는 만큼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이 연구는 전술한 도서 점령관계의 변화와 연계하여 검토할 경우 그간 정전협상의 결과물 정도로만 이해되어 왔던 도서공방전의 원인에 대한 추가 연구의 단초를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이 연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산군과 서해상의 유엔군 간에 발생한 해상전투의 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영국 해군의 자료를 바탕으로 공산군의 도서 탈환작전의 시작과 유엔 측의 대응, 그리고 이후 분쟁양상의 변화과정 모두를 포괄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전술한 한국 및 미국 해병부대의 도서방어 작전 관련 기록들과, 미군 측에 의해 수집된 유격부대원들의 증언내용이 더해진다면 해당 연구의 구체성과 현장감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⁵⁴⁾

53) ADM 1/27288, Korean War-Report of Proceedings 45, 1-22 December 1951, office of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 FO2FE/2960/11, 23 December 1951, p. 7.

54) 미국 해병대의 도서방어 작전과 관한 기록은 Lieutenant Colonel Pat Meid, USMCR and Major James M. Yingling, USMC, *US Marine Operations In Korea 1950-1953: Volume V-Operations in West Korea*(Washington DC: Historical Division, Headquarters, US Marine Corps, 1972), pp.53-60을 참조할 것; 공산 측의 도서탈환 공세와 관련한 반공 유격부원들의 인터뷰는 U.S. Army Forces, Far East, 8086 Army Unit,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1951-1952', Part IV. Narrative of Partisan Leaders를 참조

4. 유엔군의 서해 해상철수 작전 연구

1953년 6월 초, 유엔 지상군이 동년 5월 중순부터 시작된 공산군의 하계공세를 맞아 방어준비에 여념이 없던 시기, 서해상에서는 판도라 작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해상작전이 시작되었다.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유엔군 점령 도서로부터의 철수작전이 그것이다.

1952년 2월 3일 정전협정 제7차 참모회의(Meeting of Staff Officer)를 통해 최종 조율된 양측 간의 해양 영토분개선 합의결과에 따라, 유엔군은 정전협정 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 등 5개 섬을 제외한 황해와 경기도 경계선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도서로부터 철수할 것을 약속하였다.⁵⁵⁾ 이에 따라 유엔군은 정전 시 기존에 점령하고 있던 초도, 석도 등 핵심 도서와 17개의 작은 섬들로부터 완전 철수해야 했다.⁵⁶⁾ 정전 전까지 유엔군이 점유하고 있는 서북지역 도서에 대한 점령관계에 큰 변화가 없다면, 해당 도서로부터의 철수가 한국전쟁기 마지막에 수행되어야 할 서해 유엔 해군의 필수작전으로 사실상 결정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정전협상 진행상의 난항으로 인해 한동안 판도라 작전의 시행은 무기한 연기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전쟁포로 송환문제와 관련한 양측 간의 이견으로 인해 1952년 10월 8일 이후로 정전협정이 무기휴회 상태에 있었기에 유엔 지휘부에게도 서북지역 도서로부터의 철수는 한동안 관심 밖의 문제로 여겨졌다.⁵⁷⁾

할 것. 일부 미국의 반공유격부대 관련 저작에도 서해지역 도서분쟁에 대해 부분적으로 언급이 되어있다. 대표적으로 Ed Evanhoe, *Dark Moon: Eight Army Special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pp.124-132을 참고할 것.

55) Meeting of Staff Officers on Details of Agreement of Agenda Item 3, Held at Pan Mun Jom, General Headquarters, United Nations Command Advance, 3 February 1952, p.7.

56) ADM 1/24856, Korean War-Report of Proceedings 62, 1 June to 7 August 1953, Office of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 2FE/960/2, 31 August 1953, p.2.

하지만 1953년 4월 20일, ‘리틀 스위치(Little Switch)’라 불리던 상병(傷病) 포로에 대한 즉각적인 교환을 계기로 정전협상 과정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판도라 작전의 시행 역시 급박해지기 시작했다.⁵⁸⁾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 이전인 6월 초부터 일부 인원에 대한 이동을 시작으로 예비단계 철수(Preliminary Evacuation)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기 서해상에서 진행된 유엔 해군의 사실상 마지막 작전이 개시되기에 이른 것이다.

판도라 작전은 정전협정 체결을 전후하여 수행된 해상 작전들 중 가장 긴박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진행된 중요작전이었다. 전술했듯 한국전쟁 후반기 동안 서북지역에 위치한 도서 대부분이 유엔군에 의해 점령되어 특수작전과 항공 레이더 기지 등으로 활용되었다. 거기에 다수의 피난민과 도서방어 병력들 역시 주요 도서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철수되어야 할 인원 및 물자의 규모가 실로 막대하였다. 유엔해군 측의 추산에 따르면 이 작전을 통해 45,000명에 이르는 인원과 2,300톤에 이르는 장비에 대한 이동이 이루어져야 했다.⁵⁹⁾

문제는 정전협정 서명일로부터 불과 10일 이내에 이 모든 작전이 완료되어야 했다는 점이다.⁶⁰⁾ 특히 1953년 6월 5일, 정전협정상의 추가 협의에 따라 “협정 체결 이후 1950년 6월 25일 이전 휴전선 이남에 거주하지 않았던 민간인(civilian)의 유엔 측 영역으로의 이동(cross) 금지” 명령이 하달되면서 작전시행의 시급성이 더욱 커졌다.⁶¹⁾ 이 명령에 따르면 반공 유격부대와 그 가족, 그리고 피난

57)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戰爭 下』, pp.358-359.

58) 앞의 책, p.448.

59) ADM 1/24856, Korean War-Report of Proceedings 62, 1 June to 7 August 1953, p.2.

60) 1952년 2월 협정결과에 따르면 모든 철수가 5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명시되었으나, 1953년 7월 최종 협의과정에서 철수가 1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ADM 116/6210, HMS *Birmingham*-Report of Proceedings, 24 July to 12 August 1953, HMS *Birmingham*, 12 August 1953, para.3.

61) ADM 234/385, 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British Commonwealth Naval Operations, Korea, 1950-53*, p.266.

민 등 개전(開戰) 이전 북한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정전협정 체결 이전 반드시 남측으로의 이동을 끝내야 했다. 특히 강제적 철수에 대한 반공 유격부대원들의 저항으로 인해 기한 내에 철수작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공산 측과의 정전협정 위반관련 시비(是非), 나아가 갈등의 재발로까지 문제가 확산될 수 있었던 만큼 완벽한 작전 수행의 필요성이 그 어떠한 해상작전보다 컸다.⁶²⁾

이처럼 판도라 작전은 한국전쟁기 서해상에서 시행된 마지막 대규모 작전이라는 상징성과, 지상 작전의 영토분계선 설정 과정과는 달리 전투의 결과가 아닌 사전 합의된 바에 따라 유엔군이 점령한 영토를 공산 측에 평화롭게 이양했다는 그 이행방식상의 특수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작전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 해군의 공식 역사서에 이에 대한 내용이 일부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 수송 규모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만 담고 있어 서해전역에서 진행된 해상철수 작전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에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⁶³⁾ 그간 관련 학계와 대중들로부터 사실상 잊힌, 유엔군의 한국전쟁기 마지막 해상작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판도라 작전은 전술한 도서방어 작전과 마찬가지로 제95.1기동전대의 총 책임하에 진행되었다. 따라서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 역시도 전술한 연구 주제들처럼, 영국 해군의 작전기록에 기반하여 진행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후반기 서해작전에 대한 학계의 무관심과 미군 측 자료에 의존하여 한국전쟁기 유엔군의 활약상을 설명하려는

62) 실제 당시 유엔해군 측은 반공 유격대원이 철수에 저항하며 ‘무장 범죄집단(Armed Bandits)’이 되거나 북한에 대한 개별적 저항 활동을 지속할 것을 우려하였다. ADM 116/6214, HMS *Ceylon*-Report of Proceedings from 1 to 12 February 1952, HMS *Ceylon*, 13 February 1952, para.11; 이러한 우려는 미군 반공유격대 사령부 역시 공감하고 있었다. 해당 내용은 Cleaver et al., “UN Partisan Warfare in Korea”, p.116을 참고할 것.

63)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p.449; 한국 해군과 미 해병대가 발간한 역사서에는 판도라 작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기존의 연구정향으로 인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제대로 된 연구자체가 시행되지 못했던 것이다.

판도라 작전은 작전수행 기간상의 제한과 작전 성공의 필수성, 그리고 휴전협정 체결일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인해, 휴전협정에서 해상분계선 설정과 관련한 논쟁이 종결되고 유엔군의 서북지역 도서로부터의 철수가 결정된 1952년 2월부터 계획되고 준비되어야 했다. 그리고 정전협정 타결이 긴박해진 1953년 4월 말부터 본격적인 시행준비 단계에 들어갔으며, 정전협정 체결이 발표되기 이전인 6월 초부터 일부 유격부대원 및 피난민에 대한 철수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판도라 작전의 전체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분석시점을 1951년 말, 유엔군이 점령한 도서의 지위와 관련한 정전협정상의 논쟁이 시작된 시점부터, 정전협정 이후 철수작전이 공식 완료된 1953년 8월 초까지 확장해서 분석해야 한다. 특히 정전협정의 진행과정과 긴밀히 연계하여 해당 작전을 계획수립 단계, 그리고 계획의 시행단계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지어 도서로부터의 철수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우선 판도라 작전의 계획수립 단계를 이해하기 위해선 다시 한번 유엔군이 점령한 도서의 지위와 관련한 정전협정상의 논쟁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이 논쟁의 결과로 인해 최종적으로 1952년 2월 3일, 유엔군이 정전과 동시에 공산군 측에 양도해야 할 도서 목록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51년 10월 25일 있었던 2번째 아젠다(Agenda 2)에 대한 제7차 본회의부터 1952년 2월 3일 합의된 3번째 아젠다(Agenda 3)에 대한 연락장교 회의 사이의 정전협정 전문의 내용이 도서 지위와 관련한 이슈의 결정과정 이해에 도움이 된다.⁶⁴⁾

이후 진행된 구체적인 철수 준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연구는 온전

64) 정전협정 관련 전문은 국사편찬연구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내 휴전회담회의록을 참고할 것.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pn>(검색일: 2018년 8월 27일).

히 영국 해군의 작전기록을 바탕으로 검토될 수밖에 없다. 판도라 작전은 이 정전협상 결과의 필연적이면서도 즉각적인 산물이었다. 대대적인 도서 철수가 기존 유엔 해군의 주요 임무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작전일 뿐 아니라, 단기간 내에 실수 없이 완료되어야 했기에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제95.1기동전대사령관인 몬크리에프 제독의 지시하에 1952년 2월 중순부터 철수관련 사전조사 및 초기 계획수립이 시작되었다. 초기 계획은 실론함(HMS *Ceylon*)의 함장이자 95.12기동분대장(Commander, Task Element 95.12)이었던 스링(Captain G. A. Thring)의 주도하에 작성되었다. 따라서 해당시기 실론함의 작전경과보고서를 참고하면 초기 작전계획 수립과 관련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철수작전 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식별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시작으로 동년 3월 말에 판도라 작전이라 명명된 철수계획 초안이 마련된 만큼, 1952년 2월과 3월의 작전기록이 계획수립단계 연구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⁶⁵⁾

다음으로 판도라 작전계획의 시행과정에 대한 연구는 1953년 3월 말, 정전협상의 전환점이 된 상병포로 송환 논의의 시작을 기점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실상 판도라 작전의 초안이 완성된 후 약 1년간, 해상철수에 관한 이슈는 단 한 차례도 서해 유엔 해군의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1952년 말까지 공산군의 연안 지역 도서에 대한 공세가 간헐적으로 지속되어 유엔 해군이 도서방어 태세 유지에 집중해야 했을 뿐 아니라, 유엔 지휘부가 조기 정전협상 타결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기에 이후 판도라 작전의 진행은 사실상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이 계획은

65) ADM 116/6214, HMS *Ceylon*-Report of Proceedings from 1st to 12 February 1952, HMS *Ceylon*, 13 February 1952, para.11; ADM 1/23915, Korean War-Report of Proceedings 50, Office of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 FO2FE/2960/11, 16 March to 7 April 1952, p.7.

1952년 6월 말 초도 지역에 추가 인원 및 레이더 장비가 배치됨에 따라 한 차례 부분 수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1953년 4월 말 본격적인 재검토 시작 전까지 거의 원안 그대로의 형태가 유지되었다.⁶⁶⁾ 따라서 정전협상의 재개 시점과 맞물려 작전계획의 시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4월 20일 시작된 ‘리틀 스위치’를 계기로 판도라 작전의 시계가 빠르게 흐르기 시작한 만큼 이 시점 이후에 기록된 제95.12기 동분대장의 작전경과 보고서를 살펴보는 것이 해당 연구에 유용하다. 실제 상병포로에 대한 송환개시 직후, 서해지역 유엔 해군 지휘부와 반공 유격부대 사령부 역시 도서지역 철수 문제와 관련한 회의를 재개함과 동시에 판도라 작전 초안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시작하였다. 특히 영국 해군 소속 버밍엄함(HMS *Birmingham*)의 함장인 그리닝(Captain C. W. Greening)의 주도하에 종전의 철수 목록표(Evacuation Inventory)가 재작성되었으며, 유격부대 사령부와 협의하에 연안지역 도서로부터의 세부 철수계획도 보완되었는 바, 버밍엄함의 작전기록에 보다 집중하여 철수계획 관련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⁶⁷⁾

이후 6월 9일부터 예비단계의 소규모 철수가 시작되었다. 6월 8일, 오랜 기간 동안 정전협정을 교착상태로 몰고 갔던 송환불원포로의 송환원칙이 양측에 의해 합의됨에 따라 정전협정의 체결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제 최종서명까지 남은 과제는 실상 1951년 11월 이후 변경된 군사분계선을 재설정하는 문제뿐이었기에 전전(戰前) 북한주민들에 대한 우선적인 철수가 급작스럽게 결정된

66) ADM 116/6214, HMS *Ceylon*-Report of Proceedings from 20 June to 4 July 1952, HMS *Ceylon*, 4 July 1952, para.8; 이후 8월에 판도라 작전 관련 1차례 추가 회담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ADM 116/6220, HMS *Newcastle*-Report of Proceedings, 9 August to 5 September 1952, HMS *Newcastle*, 6 September, 1952, paras.23-24.

67) ADM 116/6210, HMS *Birmingham*-Report of Proceedings, 6 to 20 May 1953, HMS *Birmingham*, 20 May 1953, para.3.

것이다.⁶⁸⁾

이후 도서 철수과정은 흥미롭게도 이전과는 달리 정전협정의 진행과는 다소 무관하게 추진되어 갔다. 근시일 내에 정전협정이 타결 될 것이라는 믿음이 서해전역 유엔지휘부 내에 공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6월 18일 이승만 정부의 갑작스런 반공포로 석방으로 인해 공산군 측과의 예정된 협상이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철수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결국 정전협정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 예비단계의 철수는 지속하였으며, 이는 오히려 최종 임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는 영국 해군제독 클리포드(E. G. A. Clifford)의 말처럼, 유엔해군 지휘부는 협상 결렬로 인해 생긴 공백 기간을 오히려 추가적인 여유시간 정도로 인식했었다.⁶⁹⁾ 따라서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을 거쳐 8월 1일 판도라 작전의 종료보고가 있기까지 해상철수의 세부 과정은 기존에 재검토된 계획에 따라, 다소 여유롭게 진행되었다. 물론 철수에 반발하는 반공 유격부대원들로 인해 작전수행과정에 긴장감이 감돌기도 하였으나, 큰 갈등 없이 철수 완료 제한기간보다 5일 빨리 판도라 작전을 완료할 수 있었다.⁷⁰⁾

이상 언급한 판도라 작전의 실제 시행과정과 관련한 세부 기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국 해군의 작전기록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1953년 6월 이후 제95.12기동분대장이 남긴 작전경과 보고서상의 사건요약일지와 그 예하 함선의 작전일지상의 기록들을 통해 구체적인 철수 과정이 바로 확인이 가능한 만큼, 관련 연구자

68)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戰爭 下』, pp.451-461.

69) ADM 1/24856, Korean War-Report of Proceedings 62, 1 June to 7 August 1953, Office of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 2FE/960/2, 31 August 1953, pp. 2-3.

70) 유엔해군과 반공 유격부대원 간의 철수과정상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뉴캐슬함(HMS Newcastle)의 다음 작전기록을 참고할 것. ADM 116/6220, HMS Newcastle-Report of Proceedings, 13 to 30 June 1953, HMS Newcastle, 25 July 1953, paras.5-10.

들의 영국 해군의 한국전쟁기 작전기록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이 다시 한 번 요구된다 하겠다.⁷¹⁾

5. 맺음말

“1년간의 격렬하고 극적인 활동” 그리고 이어진 2년간의 “교착상태(deadlock)”라는, 한국전쟁 해군작전을 바라보는 지배적 담론으로 인해 후반기 유엔해군의 작전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 왔다.⁷²⁾ 특히 서해전역 후반기 해상활동의 경우 주요 참전국들의 한국전쟁사 연구 자체에 대한 무관심까지 더해져 그 실제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관련 연구자들로부터 거의 주목받지 못해왔다. 이로 인해 한국전쟁사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서해상의 다양한 활동들이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채, 잊힌 전쟁의 가장 잊힌 부분들로 남아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반공 유격부대 활동과 도서방어 작전, 그리고 판도라 작전 등 그동안 그 중요성과는 무관하게 깊이 있게 연구되지 못한 한국전쟁기 유엔군의 활동들을 소개하였다. 단순히 한국전쟁의 잊힌 단면을 재조명한다는 차원을 넘어, 전술한 작전 활동들이 한국 전쟁사적 측면에서 지니는 의미와 가치를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영국 해군의 작전 기록이 해당 작전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 측 1차 자료에 충실히 기반한다면 앞서 언급한 몇 가지 주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간 한국전쟁기 유엔군 활동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미국 측 자

71) 이 자료들은 역시 대부분 영국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자료 중 ADM116-Record Office: Cases에서 찾을 수 있다.

72)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p.IX.

료에 기반하여 진행되어 왔다. 이로 인해 한국전쟁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폭이 제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가 한국전쟁기 유엔군의 활동에 대한 연구에 있어 기존연구 정향의 한계를 넘어 영국을 위시한 여타 참전국 자료연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전쟁기 서해상의 주요 활동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원고투고일 : 2018.9.17., 심사수정일 : 2019. 2. 1, 게재확정일 : 2019. 2. 14)

주제어 : 영국 해군, 제95.1기동전대, 반공 유격부대, 도서방어 작전, 판도라 작전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 ADM 1/23906, Korean Naval Operations—9 January to 8 February 1952, Office of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 104/FO2FE2/1209/1, 13 February 1952.
- ADM 1/23915, Korean War—Report of Proceedings 50, Office of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 FO2FE/2960/11, 16 March to 7 April 1952.
- ADM 1/24856, Korean War—Report of Proceedings 62, 1 June to 7 August 1953, Office of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 2FE/960/2, 31 August 1953.
- ADM 1/27288, Korean War—Report of Proceedings 45, 1-22 December 1951, Office of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 FO2FE/2960/11, 23 December 1951.
- ADM 116/6210, HMS *Birmingham*—Report of Proceedings, 24 July to 12 August 1953, HMS *Birmingham*, 12 August 1953.
- ADM 116/6210, HMS *Birmingham*—Report of Proceedings, 6 to 20 May 1953, HMS *Birmingham*, 20 May 1953.
- ADM 116/6220, HMS *Newcastle*—Report of Proceedings, 9 August to 5 September 1952, HMS *Newcastle*, 6 September, 1952.
- ADM 116/6220, HMS *Newcastle*—Report of Proceedings, 13 to 30 June 1953, HMS *Newcastle*, 25 July 1953.
- ADM 116/6214, HMS *Ceylon*—Report of Proceedings from 20 June to 4 July 1952, HMS *Ceylon*, 4 July 1952.
- ADM 116/6214, HMS *Ceylon*—Report of Proceedings from 1 to 12 February 1952, HMS *Ceylon*, 13 February 1952.
- ADM 116/6219, HMS *Mounts Bay*—Report of Proceedings from 1 to 9 December 1951, HMS *Mounts Bay*, 10 December 1951, CTG 95.1's Comments, 21 December 1951.
- ADM 116/6222, HMS *Mounts Bay*, CTE 95.12's OP-PLAN 12-52,

'Naval Anti-Invasion Measures for West Coast Islands', 21 December 1951.

USS *Bairoko* (CVE-115), Action Report 9 April through 18 April 1952, 24 April 1952.

USA Military History Institute, Charisle, Pensilvennia, "Senior Officers Oral History Program", 1983, 1985.

2. 2차 자료

A. Field, Jr., James,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2).

Bartlett, Norman (ed.), *With the Australians in Korea*(Canberra ACT: Australian War Memorial, 1957).

Cleaver, Frederick et al., "UN Partisan Warfare in Korea, 1951-1954", Study, Operations Research Offic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6).

Cull, Brian and Newton, Dennis, *With the Yanks in Korea*(London: Grub Street, 2000).

Evanhoe, Ed, *Dark Moon: Eight Army Special Operations in the Korean War*(Annapolis,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1995).

Graham, Thomas, *Furies and Fireflies over Korea: The Story of the Men of the Fleet Air Arm, RAF and Commonwealth Who Defended South Korea, 1950-1953*(London: Grub Street, 2004).

Hallion, Richard P., *The Naval Air War in Korea*(Baltimore, Maryland: The Nautical & Aviation Publishing Company of America, 1986).

Hobbs, David, "British Commonwealth Carrier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Air & Space Power Journal*, 18, 4; ProQuest(Winter 2004).

Kim, Inseung, "The British Commonwealth and Allied Naval Forces Operation with the Anti-Communist Guerrillas in the Korean

- War: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Operation on the West Coast”, PhD Thesis of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May 2018).
- Lansdown, John R. P., *With the Carriers in Korea: The Sea and Air War in SE Asia, 1950-1953*(Wilmslow, Cheshire: Crecy Publishing Limited, 1997).
- Lieutenant Colonel Pat Meid, USMCR and Major James M. Yingling, USMC, *US Marine Operations In Korea 1950-1953: Volume V-Operations in West Korea*(Washington DC: Historical Division, Headquarters, US Marine Corps, 1972).
- Malcom, Ben S., *White Tigers: My Secret War in Korea*(Washington DC: Brassey's, INC., 2003).
- Marolda, Edward J., (ed.), *The U.S. Navy in the Korean War*(Annapolis,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2007).
- Maj. Shaun M. Darragh, “Hwanghae-do: the War of the Donkeys”,(US Army, Nov. 1984).
- Meyers, Edward C., *Thunder in the Morning Calm: The Royal Canadian Navy in Korea 1950-1955*(St. Catharines, Ontario: Vanwell Publishing Limited, 1992).
- 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British Commonwealth Naval Operations, Korea, 1950-53*(Ministry of Defence, Historical Branch, Naval, September, 1967).
- Schuetta, Lawrence V., *Guerrilla Warfare and Airpower in Korea, 1950-1954*(Maxwell AFB, Alabama: Air University, Aerospace Studies Institute, 1964).
- Seibert, Donald A., *The Regulars: An Account of the Military Career of Colonel Donald A. Seibert, USA Ret.* (Victoria, BC, Canada: Trafford Publishing, 2010).
- U.S. Army Forces, Far East, 8086 Army Unit,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1951-1952”, Project MHD-3, Tokyo (March 1954).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戰爭 下』, 국방군사연구소, 1997.

김보영, “유엔군의 해상봉쇄·도서점령과 NLL”, 『한국근대사연구』Vol.62, (2012년 9월).

_____,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년 2월).

육군본부, 『한국전쟁과 유격전』(계룡대: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1994).

조성훈, “증언자료의 비판적 활용 - 6.25전쟁 시기 유격대의 경우”, 『기록학연구』제12호, (2005년 10월).

_____, 『한국전쟁의 유격전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5).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계룡대:해군본부, 2012).

해병대사령부, 『해병전투사 1』(해병대사령부, 1962).

3. 인터넷 자료

<https://archive.org/details/KoreanCombatActionReports>(검색일: 2018년 8월 17일)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pn>(검색일: 2018년 8월 27일)



<Abstract>

The Usefulness of Discovering New Resources for the
Study of the Naval History in the Korean War
- Focused on the British Royal Navy's Operational Records -

Kim, In-se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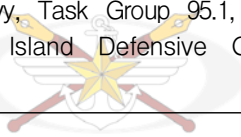
This thesis examines the usefulness of the Royal Navy's operational records for the study of the naval history in the Korean War. It particularly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the Korean War studies conducted mainly based on the primary resources produced and collected by the British Royal Navy during their operational period on the West Coa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several remarkable operations carried out by UN forces' in the western sea, which have been largely neglected regardless of their actual value.

The last two years of naval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have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unknown parts of the war. The latter part of the naval operation has been defined as a classic example of the static warfare on shore. This unspectacular and dull image of static warfare has led to the UN naval campaign being viewed with relative indifference. In addition, nevertheless of the fact that the responsibility for the west coast naval operation was virtually assigned to the British Royal Navy, this topic has received very little attention from the British. To them, the issues in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regarded as an area of very little direct interest. This indifference, obviously, has restricted our understanding of a realistic picture of the UN forces' operation on the west.

The problem is that, due to the low interest in that period,

several UN forces activities to be noted also have been nearly forgotten by the military historians. This was largely due to the fact that these activities could be only properly explained by the Royal Navy's operational records which have been rarely used. For instance, the rarely told stories about the Anti-Communist guerrilla activities, the process of island warfare, and the detailed information of the final evacuation operation from the northern west islands could be disclosed by the sources. The information in this thesis shows that several comprehensive and objective studies about the Korean War could be conducted if we fully use the British archival resources.

Key words : Royal Navy, Task Group 95.1, The Anti-Communist Guerrilla, Island Defensive Operation, Operation Pandora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0, pp.427-460
<https://doi.org/10.29212/mh.2019..110.12>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이라크 전쟁의 전쟁양상 변화 원인에 대한 고찰

- 저항의지와 정치적 행위자의 결합을 중심으로 -

김현식*



1. 서론
2. 이론적 고찰 : 유사이론 및 경이로운 삼위일체의 고찰
3. 이라크 전쟁의 양상
4. 전쟁양상 변화 원인
5. 우리에게 주는 함의
6. 결론

1. 서론

203년 이라크 전쟁에서는 국가 간 전쟁인 재래식 전쟁과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전쟁인 비재래식 전쟁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났

* 합동군사대학교 교관

다.¹⁾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과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전쟁인 재래식 전쟁과 점령국 지위를 받은 미국과 이라크 내에서 새롭게 등장한 저항세력들과의 전쟁인 비재래식 전쟁이 그것이다.

이라크 전쟁은 전쟁을 수행하던 도중 전쟁양상이 변화했다. 미국 중심의 연합군은 재래식 전쟁에서는 빛났으나, 비재래식 전쟁에서는 압도적 화력과 최첨단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열한 무기체계를 보유한 반란세력(insurgents)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다. 어떤 학자들은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고전한 이유를 제4세대 전쟁에서 찾기도 한다.²⁾ 이라크 전쟁은 비국가 행위자와의 전쟁인 제4세대 전쟁이었으나 국가 간 전쟁인 제3세대 전쟁의 수행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국가 간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현실감 있게 와 닿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Worldometers”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는 195개의 국가가 있다.³⁾ 195개의 국가들에는 정부가 있고 영토가 있다. 또한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도 마찬가지다. 과연 이렇게 많은 국가가 존재하는 가운데 비국가 행위자와의 전쟁만이 새로운 양상의 전쟁일까?

2013년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2014년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 개입하자 우크라이나는 적극적 대응을 하며 돈바스 전쟁을 실시하게 되었다.⁴⁾ 이처럼 국가 간 전쟁은 지금도 존재하고

1) 손석현, 『대반란전(COIN) 전사연구-미국의 베트남전과 이라크전을 중심으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2.

2) 조한승, 『전쟁의 삼위일체에 대한 4세대 전쟁 주창자들의 비판 고찰』, 대한정치학회, 2010, pp.145~168.

3) 국가의 수는 보는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본고에서 판단한 195개의 국가 수는 193개의 UN가입국과 2개의 국제연합 observer 국가를 포함한 수치이다. <http://www.worldometers.info/geography/how-many-count-ries-are-there-in-the-world/> (검색일 : 2018년 11월 19일)

4) 전갑기 외 3명, 『2014년 돈바스 전쟁의 작전경과 및 작전적 특성』, 육군군사연구소, 2018, p.1.

있다. 비국가 행위자들과의 전쟁양상 예측은 일부 저항세력들의 폭력으로부터 기인한 충격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비국가 행위자와의 전쟁만을 연구하는 것 보다 국가 간 전쟁이 비국가 행위자와의 전쟁으로 변화하게 된 사례의 연구는 보다 의미 있다. 이라크 전쟁에서 연합국의 훌륭한 재래식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바그다드를 조기에 점령할 수 있었고, 후세인을 몰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성공적인 군사작전 이후에 적국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양상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즉,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재래식 전쟁에서의 성공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대반란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만약, 전쟁양상이 변화한 이유를 찾아낸다면 다음의 두 가지의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반란전으로의 전이를 막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둘째, 대반란전으로 전이된다 하더라도 변화의 흐름을 읽고 대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음에 답을 해줄 수 있도록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의 재래식 전쟁 성공이 왜 대반란전으로 변화되었는지 그 원인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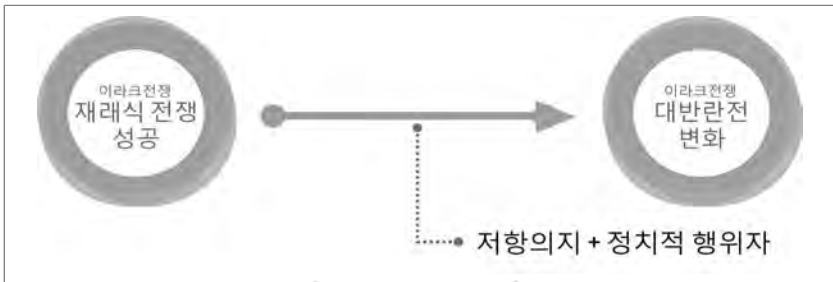
“이라크전쟁에서 미군의 재래식 전쟁 성공은 저항의지와 정치적 행위자⁵⁾의 결합으로 인해 대반란전으로 변화되었다.”

위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클라우제비츠의 경이로운 삼위일체⁶⁾

5) 본 고에서 이야기하는 정치적 행위자는 경이로운 삼위일체의 “이성”의 주된 사회적 행위자인 “정부”를 대체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세부 내용은 본 고의 4장 2절을 참고바란다.

6) 김만수 역의 전쟁론에서는 “경이로운 삼위일체(trinity)”의 번역을 “독특한 삼중성”이라 칭하였다. 하지만 대중에게 익숙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경이로운 삼위일체(trinity)”의 표현을 사용한다.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 김만수 역, 『전쟁론』, 갈무리, 2016, p.82.

를 분석의 틀로 하여 증명한다. 경이로운 삼위일체는 전쟁의 속성으로 폭력성과 우연 및 개연성 그리고 이성의 영역이 카멜레온과 같이 성질을 바꾸어가며 전쟁에 드러난다.⁷⁾ 재래식 전쟁이 종료된 이후 비국가 행위자와의 전쟁에서 경이로운 삼위일체의 요소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분석한다면 전쟁의 변화 요인을 고찰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가설

이 연구의 핵심은 전쟁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제4세대 전쟁의 시각이나, 비국가 행위자의 등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쟁의 시각처럼 전쟁 자체의 변화를 주장하는 이들과는 다르다. 국가는 여전히 유효하고 국가 간 전쟁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국가 간 전쟁이 비국가 행위자와의 전쟁으로 전환되는 이유를 찾아내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장에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대반란전과 유사한 다양한 이론을 살피고 대반란전의 시각에서 분석한 이유를 밝힌다. 그리고 가설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분석의 틀에 대해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이라크전쟁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재래식 전쟁으로부터 대반란전까지 개략적인 경과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재래식 전쟁의 성공으로부터 대반란전으로 변화된 요인의 가설을 앞에서 설명한 분석의 틀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어떠한 것이 있을지 제시

7) 위의 책, p.82.

하며 글을 마친다.

2. 이론적 고찰 : 유사이론 및 경이로운 삼위일체의 고찰

가. 대반란전과 유사한 다양한 이론의 고찰

많은 학자들은 이라크 전쟁을 주요군사작전은 차치(且置)한 가운데 이후에 있던 전쟁만을 놓고 제4세대 전쟁, 새로운 전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주장의 공통점은 2003년 5월 1일 군사작전 종료 이후로부터 이라크 전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⁸⁾ 재래식 전쟁에 대한 해석은 기피한 채 비국가 행위자와의 전쟁만을 다룬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에서 재래식 전쟁은 분명하게 나타났던 현상이며, 이를 무시하고는 이후 변화된 전쟁수행방식을 설명할 수 없다. 전쟁 중 전쟁양상이 변화되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4세대 전쟁과 새로운 전쟁의 이론으로는 이 변화를 연구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대반란전으로 정의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이와 유사한 제4세대 전쟁과 새로운 전쟁의 이론적 고찰을 먼저 실시한다.

먼저, 제4세대 전쟁이다. 이라크 전쟁의 재래식 전쟁 이후 전쟁수행방식을 제4세대 전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이라크 전쟁은 국가 간 전쟁과 비국가 행위자와의 전쟁이 혼합되어 있어 전쟁의 진화론적 관점으로 해석이 불가하다. 제4세대 전쟁이라는 용어는 1989년 윌리엄 린드(Lind, William S.)와

8) 켈도어는 『새로운 전쟁과 낡은 전쟁』에서 이라크 침공은 사실 전쟁이 아니었으며 혼란에 가까웠다고 이야기 했다. 켈도어, 유강은 역, 『새로운 전쟁과 낡은 전쟁』, 그린비 출판사, 2010, p.219. 토마스 햄즈는 『21세기 4세대 전쟁』에서 2003년 3월 당시 부시 행정부는 수행중인 전쟁의 유형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첨단 재래전으로 종결하려고 했다고 하였다. 토마스 햄즈, 최종철 역, 『21세기 제4세대 전쟁』, 경성문화사, 2008, p.18.

그의 동료들이 미국의 Marine Corps Gazette에 기고한 논문에서 처음 사용되었다.⁹⁾ 그들은 전쟁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변화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크레펠드(Creveld, Martin Van.) 역시 전쟁을 명백하게 당대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경제적 구조와 함께 진화한다고 보았다.¹⁰⁾ 햄즈(Hammes, Thomas X.) 역시 그 견해에 동의하며 전쟁의 진화에 맥을 같이 한다.

즉, 전쟁은 진화하여 그 형태가 고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라크 전쟁의 패배 원인을 진화된 형태의 전쟁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적한다.¹¹⁾ 하지만 이라크 전쟁은 비단 제4세대 전쟁의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비국가 행위자와의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 분명히 국가 간 전쟁이 존재했다. 미국의 제5군단과 제1해병원정군을 지상공격부대로 하여 “썬더런 전술”이라는 계획하에 기동전을 실행했다.¹²⁾ 이후의 전쟁양상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다. 제4세대 전쟁 주창자들이 이야기하는 전쟁의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라크 전쟁은 제3세대 전쟁과 제4세대 전쟁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점은 설명이 어렵다.

둘째, 비국가 행위자가 전쟁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 전쟁의 본질 또는 속성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제4세대 전쟁 주창자들에 의하면 전쟁의 본질과 속성이 변화했다고 한다. 하지만 본질과 속성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경이로운 삼위일체(trinity)의 비중만이 달라졌을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전쟁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보다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다음으로 새로운 전쟁이다. 새로운 전쟁을 주장한 저명한 학자는 단연 독일의 뮌클러(Herfried Munkler)와 영국의 켈도어(Mary

9) William Lind et, 『The Changing Face of War: Into the Fourth Generation』, Marine Corps Gazzate(October), 1989, pp.22-26.

10) 토마스 햄즈, 최종철 역, 『21세기 제4세대 전쟁』, 경성문화사, 2008, p.18.

11) 위의 책, pp.231~232.

12) 오정석, 『이라크 전쟁』, 연경문화사, 2014, p.174.

Kaldor)를 들 수 있겠다. 뮌클러에 의하면 새로운 전쟁은 상업화와 민영화 그리고 비대칭화를 그 특징으로 한다.¹³⁾ 그가 주장하는 새로움은 국가가 보장하는 요소들과 선긋기에서 시작한다. 즉, 비국가 행위자의 등장으로 인한 새로움을 이야기 한다.

한편, 켈도어는 새로운 전쟁은 전쟁의 목표와 전투방식, 재정조달 방식 등의 측면에서 이전의 전쟁과 구별되며 특히 새로운 전쟁의 목표는 정체성의 정치라고 한다.¹⁴⁾ 정체성의 정치란 민족, 씨족, 종교 등의 바탕에서 권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낡은 전쟁에서 국가이익에 수반한 전쟁과는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하게 다르다. 뮌클러는 전쟁의 동인을 경제적 이유에서 찾는 반면 켈도어는 정체성의 정치에서 찾는다. 하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탈냉전시대를 전후로 하여 전쟁양상을 구별한다는 것이다. 이 구별의 핵심에는 전쟁수행 주체인 “비국가 행위자”가 있다. 이들 역시 제4세대 전쟁과 마찬가지로 국가라고 하는 경계가 없어지는 전쟁의 등장이 새롭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새로운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들의 관점에서 보는 새로운 전쟁 이전의 전쟁은 클라우제비츠로부터 정의된 전쟁이다. 경이로운 삼위일체(trinity)의 개념에서 국가를 제외하니 기존의 전쟁과 다른 개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클라우제비츠의 경이로운 삼위일체(trinity)를 온전히 해석하지 못한 데 있다.

삼위일체는 변증법적인 논리전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민으로 표현되는 인간본성의 적대감, 군대로 표현되는 전쟁 현실의 가변성, 정부로 표현되는 전쟁의 정책적 속성 등으로 구성되어 변증법적 정반합의 논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¹⁵⁾ 따라서, 비국가 행위자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국가의 정부처럼 비국가 행위자에게는 “정치적 행위자”가 존재하며, 삼위일체의 정책적 속성을 지녔다는

13) 헤어프리트 뮌클러, 공진성 역, 『새로운 전쟁』, 책세상, 2012, p.70.

14) 켈도어, 유강은 역, 『새로운 전쟁과 낡은 전쟁』, 그린비 출판사, 2010, pp.22~23.

15) 조한승(2010), p.164.

것에 변화가 없다. 이라크 전쟁 중 재래식 전쟁 이후 나타난 전쟁 양상을 새로운 전쟁으로 바라보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배제하였다.

나. 대반란전

대반란전이란 “반란을 격멸하고 봉쇄하며 동시에 반란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해지는 광범위한 민간 및 군사적 노력(a comprehensive civilian and military effort designed to simultaneously defeat and contain insurgency and address its root cause)”이라고 미 교범이 정의되어 있다. 필자가 본고에서 대반란전으로 전쟁양상을 택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대반란전은 교리화된 실체이다. 비록 이 용어가 우리나라 교리에서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교리화하여 행동화 하고 있다. 특히 미군은 이라크 전쟁에서 제3기갑 여단장을 역임했던 맥마스터 대령의 “소탕-장악-구축”의 대반란전 수행을 모델화하여 작전을 실시하였다. 더욱이 대반란전 수행모델을 적용하여 2007년 증파한 이후 상황이 호전되는 모습을 목격했다. 대반란전 수행모델의 적용이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은 이라크에서의 전쟁수행방식이 대반란전이었다는 근거를 강화해준다.

둘째, 재래식 전쟁으로부터 대반란전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전쟁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해준다. 제4세대 전쟁이나 새로운 전쟁으로는 이라크 전쟁에서의 재래식 전쟁은 배제되어야 할 요소이다. 하지만 “War”의 개념보다는 “Warfare”의 개념으로서 대반란전은 이전의 재래식 전쟁을 인정하게 해준다.

이라크 전쟁은 재래식 전쟁으로부터 대반란전으로 전쟁양상이 변화한 전쟁이다. 그리고 이 전쟁양상의 변화는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를 하나의 전쟁으로 인식하며 변화의 원인을 지금부터 찾아 볼 것이다.

다. 분석의 틀

본 연구를 분석하기 위한 가설은 “이라크전쟁에서 미군의 재래식 전쟁 성공은 저항의지와 정치적 행위자의 결합으로 인해 대반란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분석해야 한다.

첫째, 저항의지이다. 부시대통령은 4월 16일 이라크 전쟁의 전쟁 승리를 선언했고, 5월 1일 주요전투작전의 종결을 선언했다.¹⁶⁾ 후세인 정권은 축출되었으며 군사전략목표는 달성되었다. 하지만 이라크 국민의 저항의지는 남아있거나 생겨나게 되었다. 저항의지가 왜 남거나 생겼으며 저항의지의 크기는 이라크 전쟁 중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석해야 한다.

둘째, 정치적 행위자이다. 위에서 언급한 저항의지는 그 의지 자체만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한편, 정치적 행위자는 의지를 모아 행위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원이나 조직을 말한다. 국가에서는 정부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국민들의 의지를 정책으로 발현하고, 선거를 통해 그들의 정책을 검증받는다. 이라크전쟁에서 주요군사작전이 종료되고 이라크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국가기반의 정치적 행위자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전이 나타난 것은 비국가 행위자로서의 정치적 행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저항의지와 정치적 행위자의 결합이다. 저항의지는 정치적 행위자와 결합하여 실체화된다. 실체화의 산물은 저항세력이다. 이들은 국가에서 군대의 역할을 담당하며 무력투쟁을 실시한다. 따라서 이라크 전쟁 주요군사작전 종료 이후의 저항의지가 정치적 행위자와 결합하여 어떤 저항세력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위의 세 가지 요소는 클라우드비츠의 경이로운 삼위일체와 매우 유사

16) 오정석(2014), pp.498~499.

한 모습을 보인다. 클라우드비츠의 경이로운 삼위일체는 아래와 같다.



〈그림 2〉 클라우드비츠의 경이로운 삼위일체(trinity)

출처 : 가알 폰 클라우드비츠, 김만수 역, 『전쟁론』, 갈무리, 2016, p.82.을 참고하여 필자가 재구성

클라우드비츠의 경이로운 삼위일체는 전쟁의 속성으로 여겨진다.¹⁷⁾ 크레펠드 등 일부 학자는 전쟁양상이 변화하며 삼위일체의 분업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¹⁸⁾하지만 필자는 각각의 행위자만 달라졌을 뿐 삼위일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그에 따라 본고의 저항의지와 정치적 행위자 및 그들의 결합은 다음과 같이 삼위일체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저항의지는 결국 국민의 폭력성이다. 전쟁론에 기술된 바에 따르면 “원시적 폭력성”은 “맹렬한 본능”으로 주로 “인민”을 향한다고 한다. 이라크 전쟁의 재래식 전쟁 종료 이후 남아있던 저항

17) 군사기본교리에서 전쟁의 속성은 이성, 감성, 지적 모험성으로 기술하고 있다. 김만수 역 전쟁론에서 기술된 지성은 이성을, 폭력성은 감성을, 우연/개연성은 지적모험성을 의미한다.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0, 군사기본교리』, 2014, pp.1-26~1-27.

18) Creveld, Martin van, 『Global Insurgency and the Future of Armed Conflict Debating fourth-generation warfare』, Routledge, 2008, p.55.

의지는 바로 이 “폭력성”과 같다.¹⁹⁾

둘째, 정치적 행위자는 결국 정부의 지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쟁론에서 언급된 주로 “정부”라고 표현된 행위자는 반드시 “정부”일 필요는 없다. 전쟁을 “순수한 지성”의 영역으로 속하게 하는 이유는 “정치적 수단”이라고 하는 종속적인 성질을 지니기 때문이다.²⁰⁾ 즉, 정부가 아니더라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자로서 지성의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론에서 행위자를 기술할 때 “주로”라는 부사가 사용되어 사고의 고착을 막은 것이다.

셋째, 저항의지와 정치적 행위자가 결합되어 파생되는 저항세력은 결국 군대의 우연 및 개연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치적 행위자는 저항의지를 통합한다. 그리고 그 의지의 실체로서 저항세력을 조직한다. 즉, 테러집단이 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테러집단은 정치적 행위자의 군대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들의 행위는 역시 우연 및 개연성의 영역에 종속된다.

위 내용을 그림으로 다시 재구성하자면 아래와 같다.



〈그림 3〉 이라크 전쟁 재래식전쟁 종료 이후의 경이로운 삼위일체

19)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 김만수 역(2016), p.82.

20) 위의 책, p.82.

폭력성을 저항의지로, 지성의 행위자인 정부를 정치적 행위자로, 우연/개연성의 행위자를 군대에서 저항세력으로 변경하였을 뿐, 경이로운 삼위일체의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다. 경이로운 삼위일체는 각각의 요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합의 변증법적 사고체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전쟁의 속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라크 전쟁의 재래식전쟁 종료 이후의 상황을 위의 분석틀로 설명할 수 있다면 카멜레온과 같은 전쟁양상의 변화 원인을 증명할 수 있다.

3. 이라크 전쟁의 양상

본 장에서는 이라크 전쟁의 진행경과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이라크전쟁 시 연합군의 작전계획은 아래의 3단계로 구분한다.

〈표 1〉 이라크전쟁시 연합군 작전계획²¹⁾

구 분	핵심작전
제1단계 : 전쟁준비 (여건조성)	·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 전환(반전) · 이라크 내부분열 유도 및 이라크군 점진적 약화 · 군사력 사전 전개
제2단계 : 결정적 작전	· 「후세인」제거(참수작전) · 지상군 조기투입, 바그다드 직접공략 · 잔여세력 격멸
제3단계 : 안정화작전	· 군사력 재배치 · 이라크 재건 및 과도정부 수립 지원

재래식 전쟁과 대반란전이라는 전쟁양상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2003년 5월 1일 군사작전 종료 발표 전과 후를 구분하여 2단계와 3단계의 작전경과를 간략하게 알아본다.

21) 합동군사대학교, 『세계전쟁사(하)』, 국군인쇄창, 2012, p.10-303-275.

가. 제2단계 결정적 작전 : 재래식 전쟁

전쟁은 후세인 참수작전으로 시작되었다. 부시대통령은 사담 후세인에게 최후통첩을 발표했다.²²⁾ 최후통첩이 만료된 2003년 3월 20일 이른 시각 부시 행정부는 15~17발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후세인이 위치한 도라농장 공격을 계획했다. 하지만 도라농장이 병커화되어 있어 이를 파괴하기 위해 F-117 전투기의 E-GBU27(Enhanced Guided Bomb Unit-27) 폭탄투하가 필요하다는 군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를 승인했다.²³⁾ 하지만 후세인 일가를 격멸하는 데 실패했다.

참수작전의 실패로 공격기도를 노출한 미군은 이라크의 남부유전 파괴를 우려하여 계획보다 빠르게 지상군의 공격을 개시하였다. 육군 제5군단과 제1해병원정군은 3월 20일 야간에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공격을 넘어 이라크 영토로 진입하였다.²⁴⁾ 공군은 지상군의 진격과 동시에 실시되었다.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라 불리는 작전명으로 이라크 정부와 국민들의 전의를 말살하고 이라크 지상전력의 이동을 제한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도록 전략폭격과 전장차단 및 전술폭격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²⁵⁾

제5군단은 주공으로서 신속하게 서부도로를 따라 바그다드로 진격했고, 예하의 3보병사단은 4월 4일 사담국제공항에 이르렀다. 4월 5일부터 기갑부대의 기동력을 활용한 썬더런 작전을 개시하며, 바그다드의 저항정도를 판단한 후 4월 7일 2차 썬더런 작전을 통해 바그다드를 함락하였다.²⁶⁾ 미군의 군사작전은 4월 15일 시점에서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4월 16일 부시 대통령은 전쟁승리를 선언했

22) President Says Saddam Hussein Must Leave Iraq Within 48Hours, <http://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3/03/20030317-7.html>(검색일 : 2018년 12월 7일)

23) Walter L.Perry et, 『Operation IRAQI FREEDOM, Decisive War, Elusive Peace』, RAND corporation, 2015, pp.59~60.

24) 오정석(2014), p.245.

25) 손석현, 『이라크 전쟁과 안정화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62.

26) 육군군사연구소, 『이라크 자유작전 미의회 보고서』, 국군인쇄창, 2013, p.66.

다. 5월 1일에는 이라크에서 주요전투작전이 끝났다고 선언했다.²⁷⁾

나. 제3단계 안정화 작전 : 대반란전

바그다드로 진군한 미군의 수는 약 25,000명 정도였다. 바그다드에 거주하는 이라크 주민이 약 600만 명이였기 때문에 1명의 미군은 240여 명의 이라크인을 감당해야 했다.²⁸⁾ 4월 9일 후세인 동상을 끌어내린 시점부터 바그다드에서의 약탈은 보다 심각해졌다. 후세인 지지세력 뿐만 아니라 여자와 어린이가 약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병력의 미군은 이러한 약탈을 저지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과정에서 후세인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축적했던 모든 행정데이터도 손실되었다.²⁹⁾ 행정데이터의 손실은 이라크로의 주권 이양에 큰 차질을 초래하였다.

이런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는 재건 및 인도지원청(ORHA: Office of Reconstruc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을 창설했다. 이라크 국민은 미군을 해방군으로 반길 것이라고 하는 낙관적 판단으로 인해 ORHA는 제대로된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내 2003년 5월 연합군임시행정청(CPA: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으로 대체되었다.³⁰⁾

미국은 유엔으로부터 결의안 1483호³¹⁾를 통해 점령국의 지위를 받게 되었다. CPA는 이라크에서 장기점령정책을 펼치기 위해 임시행정청령 1호를 발령하여 5월 16일 후세인 정권의 바트당을 해체시켰다. 그리고 5월 23일 임시행정청령 2호를 발령하여 이라크 군대

27) <http://www.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3/05/20030501-15.html>(검색일 : 2018년 12월 6일)

28) 손석현(2014), p.89.

29) 이근욱, 『이라크 전쟁』, 한울, 2011, p.114.

30) 위의 책, p.117.

31) <http://www.un.org/depts/unmovic/new/documents/resolutions/s-res-1483>(검색일 : 2018년 12월 3일)

를 무조건 해산하고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³²⁾ 이라크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바트당은 수니파가 득세하고 있었는데 바트당의 숙청은 수니파의 숙청으로 비춰지며 종파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라크 정규군의 해산 조치로 인해 약 60만 명의 군인이 실직하였으며 그들은 무기를 들고 저항세력화 되기 시작했다.³³⁾

이러한 상황의 악화를 증명하듯 2004년 3월 31일 이라크의 팔루자지에서 근무하던 블랙워터사의 보안요원이 살해되고 시체는 훼손되어 팔루자지의 남서쪽 브룩클린교에 매달렸다. 그러면서 수니파 극단주의자를 제거하고자 하는 1차 팔루자 전투가 시행되었다. 큰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저항세력들과의 타협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저항세력의 승리로 여겨져 팔루자지로 더 많은 저항세력들이 몰려들었다.³⁴⁾ 이는 2004년 11월 2차 팔루자 전투로 이어졌다. 팔루자에서 수니파와 갈등이 있었다면, 나자프에서는 시아파와의 갈등도 있었다. 미군의 철군을 주장하는 시아파 성직자들을 주축으로 나자프에서의 소요사태는 미군을 보다 곤경에 빠트렸다.³⁵⁾

2005년 탈 아파르(Tal Afar)에서는 제3기갑연대장으로 맥마스터 대령이 작전에 투입하며 대반란전(COIN: Counter Insurgency) 접근방법을 통해 성과를 거두었다.³⁶⁾ 하지만 전과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급기야 2006년 2월 22일에는 시아파의 성지인 알아스카리 사원이 폭파되며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파 내전은 보다 격화되었다.³⁷⁾

부시행정부는 결국 2007년 증파를 발표하며 대반란전의 적극수행을 천명하였다.³⁸⁾ 5개 여단전투단, 1개 육군 전투항공여단, 1개

32) Walter L.Perry et,(2015), pp.240~241.

33) Rajiv Chandrasekaran, 『Imperial Life in the Emerald City』, A Division of Random House, 2006, pp.73~77.

34) 오정석(2014), pp.558~603.

35) 위의 책, pp.604~607.

36) 육군군사연구소(2013), pp.109~112.

37) 이근욱(2011), p.207.

해병원정대, 2개 해병 보병대대, 1개 사단 본부 등의 병력을 바그다드로 증파하였다.³⁹⁾ 증파된 병력과 이라크 보안군은 합동치안초소와 전투초소를 설치하고 수니파와 시아파 지역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약 3미터 높이의 장벽을 쌓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이라크의 상황을 점차 안정화시켰다.⁴⁰⁾ 이후 2009년 1월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오바마는 2010년 8월 31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이라크 전쟁의 종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⁴¹⁾

4. 전쟁양상 변화 원인

가. 저항의지



이라크 전쟁에서 저항의지는 재래식 전쟁 기간과 대반란전 기간 그리고 대반란전 여명기(이하, Interwarfare⁴²⁾)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재래식 전쟁 기간의 저항의지는 그리 크지 않다. 그 이유는 당시 25년간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후세인 대통령의 폭군정치를 반기는 이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전쟁수행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전쟁을 결심했던 이유 중 하나는 낙관론이었는데, 이라크인들은 미국인을 해방자로 인식하여 반길 것이라고 판단했다.⁴³⁾ 따라서 재래식 전쟁기간의 이라크 저항의지는

38) <http://www.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7/01/20070110-03.html>(검색일 : 2018년 12월 7일)

39) 육군군사연구소(2013), p.119.

40) 이근욱(2011), pp.279~281.

41)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0/08/31/remarks-president-address-nation-end-combat-operations-iraq>(검색일 : 2018년 12월 7일)

42) 제1차세계대전과 제2차세계대전 사이의 기간을 "Interwar period"로 표현한다. 이라크 전쟁에서 재래식 전쟁과 대반란전 사이의 기간을 "Interwarfare"로 표현했다.

수니파를 중심으로 한 바트당과 그들을 지원하는 소수에 의해 작게 나타난다. 저항의지의 부족은 전쟁의 지속성을 떨어뜨렸다. 그 결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은 군사작전을 조기에 종결지었다.

한편, 필자가 “Interwarfare”로 표기한 이 기간 중에도 저항의지는 작았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작은 의지가 점차 증대되어 가는 시기였다. 이라크인들은 전쟁 중 보여준 미국의 첨단기술에 의한 전쟁수행방식에 감명을 받았다. 이러한 기술들이 이라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기대했다.⁴⁴⁾ 2003년 5월 1일 부시 대통령이 군사작전의 종료를 선포한 이후 시점만을 놓고 본다면 미국의 낙관론적 관점은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바그다드에 처음으로 입성했던 제3보병사단 2전투여단장이었던 데이비드 퍼킨스 대령의 견해는 이를 뒷받침해준다.⁴⁵⁾



"바그다드 입성 직후, 우리가 도시를 장악할 수 있는 계획이 완성되고 모든 자원을 사용할 준비를 완료한 상태였다면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자원을 사용할 준비를 마쳤을 때는 이미 반란세력들이 그 기회를 막아버렸다. 2003년 9월에 시작했던 계획을 2003년 4월에 시작했다면 아마 성공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라크의 군사작전 종료 후 저항의지는 점차 증대된다. 미국은 이라크의 치안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초 재건 및 인도지원청(ORHA)을 통해 이라크의 치안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정부건물은 완전히 파기되고, 소총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사무용 집기가 사라지고 감옥의 죄수들은 탈옥하였다. 사담 후세인 정권이 권력유지를 위해 축적했던 행정데이터도 사라졌다.⁴⁶⁾ 이런 상황이 지

43) 이근욱(2011), p.92.

44) 손석현(2014), p.94.

45) Dr. Donald P. Wright, Colonel Timothy R. Reese, 『On Point II』, CSI Press, 2008, p.89.

46) 손석현(2014), p.91.

속되자 이라크 국민들은 점차 그들의 분노 대상을 찾게 되었다. 후세인의 폭군정치 시절보다도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이 지속되자 그 분노는 미국을 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저항의지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재건 및 인도지원청(ORHA)은 연합국 임시행정청(CPA)으로 변경되었고, 책임자는 가너에서 폴 그래머로 변경되었다.⁴⁷⁾ 폴 그래머는 가너의 점령정책을 계속할 생각이 없었다. 이라크 장기점령정책을 시작하며 연합군 임시행정청령 1호와 2호를 통해 바트당을 청산하고 이라크 정규군을 강제해산시켰다.⁴⁸⁾ 이 사건으로 저항의지는 폭발하게 된다. 비단 이라크 내의 수니파뿐만 아니라 이라크 정규군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던 시아파 국민들도 미국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

국민들의 저항의지는 경이로운 삼위일체의 폭력성과 연결된다. 폭력성은 전쟁을 지속하는 힘을 갖게 해준다. 초기 군사작전에서 낮은 수준의 저항의지는 적어도 군사작전이 종료된 시점까지는 높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의 점령정책의 표류는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극대화시켰다. 이렇게 극대화된 저항의지는 종파분쟁으로 이어지며 점점 더 커졌다. 궁극적으로 정치적 행위자와 연결되며 대반란전이라는 새로운 전쟁양상을 만들게 되었다.

그렇다면 저항의지는 왜 생기는 것인가? 이 질문이 떠오르게 된다. 하이델베르크 국제분쟁연구소의 연례보고인 분쟁의 바로미터에 의하면 분쟁의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가장 빈번한 분쟁원인은 체제/이념이고, 그 다음은 자원, 그리고 국가권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 원인들은 1개가 독자적으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 개가 결합된 형태로 분쟁으로 실체화되기도 한다.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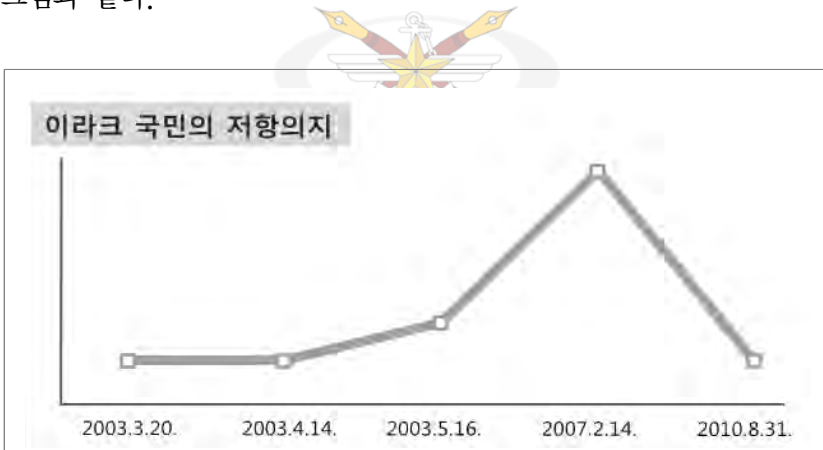
47) 오정석(2014), p.502.

48) 위의 책, p.503.

49) 하이델베르크 국제분쟁연구소, 육군군사연구소 역, 『분쟁의 바로미터 2010』, 육

이라크에서의 저항의지를 분쟁으로 바라본다면 위의 원인들을 저항의지의 척도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저항의지가 정치적 행위자와 결합될 때 비로소 분쟁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치적 행위자와의 결합 이전의 저항의지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는 치안질서로 판단할 수 있다. 치안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민은 약탈과 방화 폭행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된다. 마치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조약으로 인해 독일 국민들의 어려운 삶이 전쟁의 폭력성으로 연결되었던 것처럼 이라크 전쟁의 재래식 전쟁 이후 치안 질서 확립의 실패는 이라크 국민의 저항의지로 연결되었다.

지금까지 분석한 이라크 국민의 저항의지를 도식화하자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4) 이라크 국민의 저항의지 변화 그래프

재래식 전쟁이 진행되던 2003년 3월 20일부터 2003년 4월 14일 사이의 저항의지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치안질서의 확립실패로 점차 저항의지가 증대되던 중 임시행정청의 바트당 해산과 이라크 정규군대 해산은 저항의지를 높이는 촉매제가 되었다. 이후 2007년

2월 14일 미국은 증파를 실시하여 이라크의 치안질서를 확립하고 저항세력을 제거하며 국민들의 저항의지는 점차 낮아지게 되었다.

실질적인 재래식전쟁이 종료된 2003년 4월 14일을 기준으로 미국은 상황을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치안질서를 확립했다면 전쟁양상은 대반란전으로 변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라크 국민들의 분노와 적개심이 증가하는 때에 미국은 이를 방관하였고 이 저항의지는 점점 더 커졌다. 그리고 마침내 이 저항의지를 통제할 수 있는 집단이 나타나게 되는데 필자는 그들을 정치적 행위자로 정의한다.

나. 정치적 행위자

이라크의 주요 정치적 행위자는 크게 4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재래식 전쟁이 종료되기 이전까지 존재했던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고, 둘째는 임시행정청(CPA)의 바트당 청산으로부터 비롯된 바트당 핵심세력, 셋째는 최초 미군을 반겼지만 후세인 정권 전복 이후 미군의 철수를 주장한 무크타다 알사드르를 중심으로 한 시아파 성직자 단체⁵⁰⁾, 넷째는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며 알자르카위를 중심으로 이라크에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한 알카에다이다.⁵¹⁾ 이 정치적 행위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첫 번째,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다. 이라크 전쟁의 재래식 전쟁 양상이 나타날 시 정치적 행위자는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었다. 당시

50) 이라크에서의 종파분쟁은 이라크전쟁을 장기화 시킨 원인은 맞지만, 이라크 전쟁의 주요군사작전이 종결된 시점에서 종파분쟁이 바로 발현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시아파 성직자 단체는 수니파보다도 미군에 대한 반감이 컸다.(이라크 전쟁의 주요 군사작전이 끝나고 알사드르는 “작은 뱀이 떠나고 큰 뱀이 왔다.”고 표현하며 큰 뱀을 미국에 비유했다.

<https://www.cbsnews.com/news/muqtada-sadrs-battle-against-us/>(검색일 : 2019년 2월 7일)

51) 손석현(2014), pp.104~108.

이라크 정부는 1968년 쿠데타 이후 집권한 수니파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대통령은 1979년 이후부터 후세인 대통령이였다. 후세인 대통령은 독재정치를 펼쳤으며 대다수가 시아파(65%)로 구성된 이라크 국민들은 많은 피해를 받았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을 실시하며 시아파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많은 국력을 낭비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실직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였다.⁵²⁾ 이라크 국민들은 후세인 정권의 정책을 달갑게 받아들일 리 없었다. 비록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이전 이라크의 정치적 행위자가 후세인 정권이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은 2003년 3월 20일 침공을 개시했다. 후세인 정권은 정권유지를 목적으로 전쟁에 임했으나 압도적인 첨단과학이 접목된 연합국의 무기체계 앞에 이라크는 무릎을 꿇었다. 2003년 4월 14일 14:31분 미국의 M1A1전차가 티크리트 중심부의 광장을 점령하며 이라크의 조직적인 저항은 완전히 끝났다.⁵³⁾

두 번째, 바트당 핵심세력이다. 2003년 5월 1일 부시대통령은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선상에서 이라크 주요작전 종료를 선언했다. 이라크 전투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승리했다고 발표했다.⁵⁴⁾ 하지만 당시의 이라크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유엔에서는 미국에 점령국 지위를 부여하여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공식화하였다.⁵⁵⁾ 미국은 연합국 임시행정청(CPA)을 설치하여 이라크 통치를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앞서 언급한대로 임시행정청 명령 1호와 2호를 통해 바트당과 이라크 정규군을 해산시켰다. 이라크 국민들은 악화되는 치안 상황속에서 저항의지가 증대되었다. 하지만 아직 저항의지를

52) 손석현(2014), pp.2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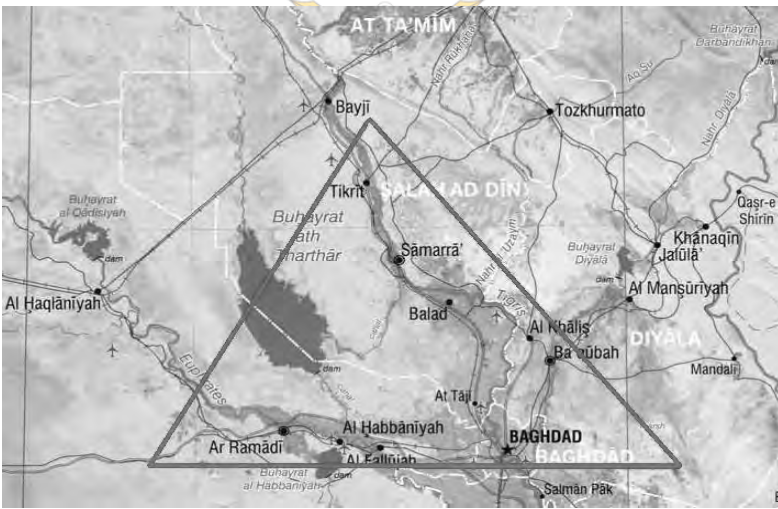
53) 오정석(2014), p.495.

54) <http://www.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3/05/20030501-15.html>(검색일 : 2018년 12월 6일)

55) <http://www.un.org/depts/unmovic/new/documents/resolutions/s-res-1483>(검색일 '18. 12. 3.)

실체화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자는 부재하였다. 실질적인 군사작전이 종료된 4월 14일부터 연합국 임시행정청(CPA)의 바트당 해산이 있었던 5월 16일까지 이라크 내 상황은 조직적인 저항운동 보다는 오히려 약탈, 방화 등으로 인하여 치안 상황이 악화되었다.

5월 16일 바트당이 해산되며 저항의지를 실체화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자가 등장하였다. 그들이 바로 바트당 핵심세력들이었다. 이들은 체제와 이념 차원에서 연합군의 점령정책에 반대하였다. 바트당을 복원하기 위해 수니파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수니 아랍 조직에게 바그다드, 라마디, 티크리트를 연하는 이른바 수니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군사 및 정보조직을 지원하며 연합군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반란세력을 지원하였다.⁵⁶⁾



〈그림 5〉 이라크 수니 삼각지대

출처 : <http://maps-of.net/iraq/sunni-triangle> (검색일 : 2019. 2. 8.)

세 번째는 시아파 성직자 단체이다.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의지는 비단 수니파뿐만 아니라 시아파에도 영향을 미쳤다. 시아파의 젊은

56) 손석현(2014), pp.104~105.

지도자 중 무크타다 알사드르는 사담 후세인 정권의 전복이라는 중요한 목표가 달성되자 미국이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⁷⁾ 최초로 반미주의를 내세운 것은 아니었지만 점차 커지는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의지가 알사드르를 중심으로 한 시아파 성직자들이라는 정치적 행위자와 만나며 실체화되기 시작했다. 시아파 성직자 단체들로 인해 구성되는 저항세력들의 활동은 최초 수니파를 향하였으나 이는 점점 극단적 반미태도로 변질되어 미국을 떠나게 한다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조직화 되었다.

네 번째는 알카에다이다. 사담 후세인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절 알카에다는 활동하지 못했다. 후세인 정권은 자신에게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은 철저히 억압했기 때문이다.⁵⁸⁾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자 알자르카위는 이라크에서 알카에다를 창설한다.⁵⁹⁾ 주로 수니파 이슬람 국가 출신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며 정치적 행위자로 들어선다. 여기에 저항의지를 가진 인원들이 이 정치적 행위자의 등장에 동조하며 저항세력화되기 시작했다.

이상에서 알아보았듯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성공적인 재래식 전쟁이 종료된 후 이라크 치안상황이 나쁘게 진행되는 가운데 바트당 핵심세력과 시아파 성직자, 알카에다는 새로운 정치적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행위자는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 경이로운 삼위일체의 지성 영역의 행위자가 되었다. 이들은 기존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며 각자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였다. 이들의 등장은 결국 또 다른 전쟁의 양상을 만들게 된 것이다.

57) 손석현(2014), p.106.

58) SSCI(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report, 『Report on postwar findings about iraq's WMD programs and links to terrorism and how they compare with prewar assessments』, SSCI 109th congress, 2006, p.63. 위자료의 원문은 <https://www.intelligence.senate.gov/sites/default/file/publications/109331.pdf>에서 찾을 수 있음.

59) 이근욱(2011), pp.219~220.

다. 저항의지와 정치적 행위자의 결합

재래식 전쟁이 종료된 시점에서 이라크 국민들은 평화의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상황악화는 저항의지를 증폭시켰다. 거기에 위에서 언급한 정치적 행위자들이 등장하였다.

먼저, 바트당 핵심당원들은 연합국 임시행정청(CPA)의 바트당 해산 명령 이후 수니파의 저항의지를 활용하였다.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도시와 굶주린 삶, 약탈, 방화 등 치안상황의 불안정을 모두 미국의 잘못으로 돌렸다. 그리고 강제 해산된 이라크 정규군대는 분노를 표출할 장소를 찾고 있던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었다. 이렇게 수니파 반란세력이 만들어졌다. 즉, 국민들의 저항의지가 바트당 핵심세력을 만나며 저항세력화 된 것이다. 이런 변화를 예견하거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던 미군은 대반란전을 시행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이미 전쟁은 대반란전의 양상으로 바뀌었지만, 그들의 대응 방식은 아직 재래식 전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알사드르를 주축으로 하는 시아파 성직자들은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통해 민병대를 만들었다. 이 민병대는 시아파 성직자라는 정치적 행위자들의 군대 역할을 수행했다. 그들은 미국의 점령에 저항했으며 한편으로는 수니파와의 종교적 대결을 병행했다. 여기에 과거부터 후세인 정권에 대항했던 비밀 군사조직인 바드르 군단이 합류했다.⁶⁰⁾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의지와 시아파 성직자들의 만남은 또 다시 반란세력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알카에다는 미국의 재래식 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이라크 내에 뿌리를 내린다. 알자르카위를 핵심으로 시리아 등 이슬람 국가 출신 수니파 인원들로 알카에다를 이라크에 창설한다. 이 알카에다는 또 다시 수니파 극단주의자의 저항의지를 포

60) 손석현(2014), pp.106~107.

섭한다. 알카에다를 핵심으로 한 저항세력은 테러와 참수 등 잔혹한 방법을 통해 반란전을 수행하였다.

결국 저항의지가 정치적 행위자를 만나며 경이로운 삼위일체를 완성하게 된다. 이를 재래식 전쟁, interwarfare, 대반란전의 단계 별로 나누어 표현하자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6〉 이라크 전쟁 단계별 경이로운 삼위일체의 변화과정

재래식 전쟁의 단계에서 이라크 국민의 폭력성 즉 저항의지는 미미했으나, 후세인 정권이라고 하는 지성과 이라크 정규군이라고 하는 우연/개연성과의 상호작용을 하며 재래식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약한 저항의지는 전쟁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

재래식 전쟁을 통해 후세인 정권이 제거되자 지성의 영역을 담당할 행위자가 없어졌다. 이 때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의지는 여전히 높지 않았다. 이라크 정규군은 아직 남아있었으나 정치적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다보니 국민들의 저항의지와 상호작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Interwarfare기간에 전쟁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정치적 행위자들이 등장하였고, 이들은 각자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며 저항의지를 이용, 반란세력을 조직했다. 여기에 악화되는 이라크 치안상황은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점차 키웠고, 전쟁의 지속성을 유지시켰다.

이제 다시 경이로운 삼위일체의 전쟁 속성이 온전하게 갖추어졌다. 비록 그 행위자의 차이로 인해 기존의 전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삼위일체가 정반합의 조화를 이루기는 했지만 명백하게 전쟁의 속성을 나타냈다. 지성과 우연/개연성을 담당하는 행위자의 변화는 완전히 다른 전쟁수행 양상을 가져왔다.

하지만 미국은 전쟁양상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결과 2004년 4월 수니파와의 충돌인 제1차 팔루자 전투가 이루어졌으며, 시아파의 마흐디군은 2004년 4월 연합군에 폭동을 일으켰다. 알카에다의 테러가 자행되며 미국의 고전은 시작되었다.

5. 우리에게 주는 함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라크 전쟁은 재래식 전쟁과 대반란전의 두 가지 전쟁양상이 존재했다. 그리고 재래식 전쟁은 대반란전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있었다. 전쟁양상의 변화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다.⁶¹⁾ 전시 우리는 북한지역으로 공격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자유화 지역에 대해서는 안정화작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라크에서의 재래식 전쟁이 대반란전으로 변화된 그 모습이 우리 한반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쟁양상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했던 미국의 실패는 우리에게 다음의 세 가지 교훈을 준다.

61) 비록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있고, 우리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정상회담 등을 제의하였다 하여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0년 9월 25일 선고, 90도 1451, 위 판결문은 <https://casenote.kr/>에서 접속할 수 있다. (검색일 : 2018년 12월 7일)

첫 번째, 성공적인 군사작전이 종료된 이후 북한 주민의 저항의지를 확인해야 한다. 저항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분쟁의 바로미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념/체제, 국가권력, 자원 등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하며 저항의지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념/체제보다도 치안질서의 확립에 있다. 나의 생활이 윤택하고 평화롭다면 저항의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라크에서 보여주었던 약탈과 불안정한 상황이 분란의 원인들과 결합하며 저항의지화 된 것이다. 따라서 저항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치안질서를 먼저 살펴야 한다.

두 번째, 저항의지가 실체화될 수 있는 정치적 행위자의 등장에 주목해야 한다. 저항의지 자체로 반란전이 일으켜지지 않는다. 저항의지를 조정하는 정치적 행위자가 등장했을 때 비로소 저항세력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차단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정치적 행위자의 등장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보듯 가장 강력한 정치적 행위자는 기존의 정권세력과 군대였다. 이들을 적대세력화시키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전쟁양상의 변화에 대한 빠른 결심이 필요하다. 주요 군사작전이 종료되면 우리는 안정화 작전으로 전환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안정화 작전은 넓은 의미의 대반란전에 포함되는 용어로 대반란전 작전 유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⁶²⁾ 이라크 전쟁에서 바라본 전쟁양상의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라크 전쟁은 대반란전으로 전쟁양상이 변화하였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소극적이었고, 점점 더 대응이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갔다. 북한지역에서도 저항의지와 정치적 행위자가 등장한다면 저항세력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들은 대반란전의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전

62) 이성훈, 「대반란전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15, p.99.

쟁양상이 변화하였을 때 2007년 미국의 증파 결심처럼 적극적인 대응을 조기에 시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6. 결론

지금까지 이라크 전쟁에서 재래식 전쟁의 성공 이후 대반란전으로 전쟁양상이 변화된 추동요인을 경이로운 삼위일체로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도출했다. 이라크 전쟁에서 재래식 전쟁 이후의 전쟁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주체가 된 전쟁이었지만 필자는 이를 제4세대 전쟁이나 새로운 전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존재로서 정치적 행위자로 바라보았다. 그에 따라 재래식 전쟁 이후의 변화된 전쟁양상을 대반란전으로 해석했다.

이 대반란전으로 변화된 요인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다. 필자는 저항의지가 정치적 행위자와 결합할 때 반란전이 발생하고 이라크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은 대반란전으로 전쟁양상이 변한다고 가설을 설정했다. 이러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클라우제비츠의 경이로운 삼위일체는 유용한 분석의 틀로서 역할을 했다. 저항의지는 폭력성과 상통하였고 정치적 행위자는 지성의 행위자였으며, 이 둘의 결합으로 나타난 저항세력은 우연/개연성의 행위자였다. 이들 사이의 변증법적 연결이 재래식 전쟁과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며 전쟁양상을 변화시켰지만, 여전히 전쟁의 속성을 구성하고 있었다.

2003년 4월 14일 티크리트에서의 작전을 끝으로 이라크 정규군의 조직적 저항은 막을 내렸고, 재래식 전쟁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이후 이라크 국민들은 미국의 능력에 감탄하며 평화로운 삶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미국의 침공 이전보다 더 피폐해지고, 약탈이 빈번하며 치안의 불안정은 가속화되었다. 이는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증대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라크 전 정권이었던 바트당을 강제 청산하고 이라크 군대를 해산시키는 등 연합국 임시행정청의 조치가 단행되자 바트당 핵심세력은 정치적 행위자로 급부상하게 된다. 여기에 저항의지를 가진 이라크의 수니파 국민들이 결합하여 저항세력을 만들었다. 시아파 성직자들도 또 다른 정치적 행위자로 등장하며 알사드르를 중심으로 이라크 시아파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결합하여 민병대와 바드르 군단 등 저항세력을 조직했다. 지난 이라크 정권에서는 억압에 의해 모습을 감추었던 알카에다도 등장한다. 알자르카위를 수장으로 알카에다는 시리아로부터 넘어온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함께 정치적 행위자로 조직을 형성하고 수니파 극단주의자들의 저항의지를 결합했다. 그 결과 테러단체를 조직하였고 이라크에서 또 하나의 반란세력으로 활동했다.

클라우제비츠의 경이로운 삼위일체에 의해 위에서 언급한 저항의지와 정치적 행위자 그리고 저항세력은 전쟁의 속성을 충족하였다. 삼위일체 속성들의 변증법적 결합은 대반란전이라고 하는 재래식 전쟁과는 다른 전쟁양상을 만들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에 위기를 초래했다. 재래식 전쟁의 성공 이후 미국은 기회가 있었으나 이 기회를 놓쳤고, 대반란전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 결과 수많은 미군과 이라크 국민들이 희생되었다. 2007년 이러한 상황을 모두 인정하면서 증파를 하게 되자 비로소 이라크 전쟁은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필자의 가설처럼 저항의지는 정치적 행위자와 결합되며 저항세력을 만들고 이는 전쟁양상을 변화시켰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3가지 교훈이 있다. 저항의지와 정치적 행위자의 결합을 차단하기 위해서 첫째, 저항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저항의지가 발생할 여지를 주지 않아야 한다. 둘째, 저항의지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행위자와 연결되지 못하도록 정치적 행위자에 대한 포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저항세력과 정치적 행위자가 결합되었다고 하

더라도 전쟁양상의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군사 및 비
군사 대응을 강화했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8. 12. 11, 심사수정일 : 2019. 2. 1, 게재확정일 : 2019. 2. 14)

주제어 : 이라크 전쟁, 전쟁양상, 대반란전, 제4세대 전쟁, 새로운 전쟁



〈참 고 문 헌〉

〈국 문〉

- 캘도어, 유강은 역, 『새로운 전쟁과 낡은 전쟁』, 그린비 출판사, 2010.
- 손석현, 『대반란전(COIN) 전사연구-미국의 베트남전과 이라크전을 중심으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 손석현, 『이라크 전쟁과 안정화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 오정석, 『이라크 전쟁』, 연경문화사, 2014.
- 육군군사연구소, 『이라크 자유작전 美의회 보고서』, 국군인쇄창, 2013.
- 이근욱, 『이라크 전쟁』, 한울, 2011.
- 이성훈, 「대반란전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15.
- 전갑기 외 3명, 『2014년 돈바스 전쟁의 작전경과 및 작전적 특성』, 육군군사연구소, 2018.
- 조한승, 『전쟁의 삼위일체에 대한 4세대 전쟁 주창자들의 비판 고찰』, 대한정치학회, 2010.
-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 김만수 역, 『전쟁론』, 갈무리, 2016.
- 토마스 햄즈, 최종철 역, 『21세기 제4세대 전쟁』, 경성문화사, 2008.
- 하이델베르크 국제분쟁연구소, 육군군사연구소 역, 『분쟁의 바로미터 2010』, 육군 군사연구소, 2012.
-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0, 군사기분교리』, 2014.
- 합동군사대학교, 『세계전쟁사(하)』, 국군인쇄창, 2012.
- 헤어프리트 뮌클러, 공진성 역, 『새로운 전쟁』, 책세상, 2012.

〈영 문〉

- Creveld, Martin van, 『*Global Insurgency and the Future of Armed Conflict Debating fourth-generation warfare*』, Routledge, 2008.
- Donald P. Wright, Colonel Timohy R. Reese, 『*On Point II*』, CSI Press, 2008.
- Rajiv Chandrasekaran, 『*Imperial Life in the Emerald City*』, A Division of Random House, 2006.

SSCI(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report, 『*Report on postwar findings about iraq's wmd programs and links to terrorism and how they compare with prewar assessments*』, SSCI 109th congress, 2006.

The White House, 『*National Archives*』

〈<http://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3/03/20030317-7.html>〉

〈<http://www.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3/05/20030501-15.html>〉

〈<http://www.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7/01/20070110-03.html>〉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0/08/31/remarks-president-address-nation-end-combat-operations-iraq>〉

United Nations, 『*Resolution 1483(2003)*』

〈<http://www.un.org/depts/unmovic/new/documents/resolutions/s-res-1483>〉

William Lind et, 『*The Changing Face of War: Into the Fourth Generation*』, Marine Corps Gazzate(October), 1989.

Walter L.Perry et, 『*Operation IRAQI FREEDOM, Decisive War, Elusive Peace*』, RAND corporation, 2015.

〈웹사이트〉

<http://www.worldometers.info/geography/how-many-countries-are-t-here-in-the-world/>

<https://jamestown.org/program/muqtada-al-sadr-religious-strategy-complicates-jaysh-almahdi-ceasefire/>

<https://casenote.kr/>

<https://www.cbsnews.com/news/muqtada-sadr-battle-against-us/>

<Abstract>

A Study on the Causes for the Change of the feature in the Iraq War

- Focusing on the combination of resistance will and
political actors -

Kim, Hyun-Sick

The Iraq war was the one in which both conventional war, which was a national war, and non-conventional war, which was a war with non-state actors at the same time. The coalition,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conducted a highly effective conventional warfare using weapons systems combined with state-of-the-art science and technology. However, contrary to expectation, the insurgency began to be organized and the warfare changed into a counterinsurgency phase. As can be seen in the Donbass war in 2014, it is hard to imagine that a war between nations will not take place in the modern era where there are 195 nations around the world.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war can change during the war. In this sense, the war in Iraq, which changed the characteristics of war, has many implication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what causes of warfare have changed in Iraq during the war".

To prove this, I have illuminated "resistance will", "political actors" and the "resistance" during the Iraq War using Clausewitz's "trinity" as a framework of analysis. The will of the Iraqi people to resist and the political actors changed during the war. After the conventional warfare, the Iraqi army was forced to dissolve, but new resistance came to the surface and the war came to a new phase. This study proved through the marvelous trinity that the war pattern changed during the Iraq war. And the cause of the change is that when the resistance will of the people is combined with the political actors, it shows the nature of the war completely. In order to minimize the resistance of the enemy countrie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security order after the end of the conventional warfare and to take measures to prevent the emergence of political actors.

Key words : Iraq war, Counter insurgency. Warfare, the 4th generation war, new wars



연구소 동정

1. 연구소 대외교류 및 활동

- 18년도 한·일 전쟁사 워크숍 학술회의
 - 일시 / 장소 : '18. 10. 24.(수) / 연구소 회의실
 - 참석인원 : 50여 명(연구소, 군사사학회, 군 및 일반연구자 등)
 - 세부진행

13:30~13:50	환 영 / 참석자 소개 및 인사
13:50~14:00	개회사 (연구소장, 日. 방위연구소 대표자)
제 1 부 사회: 온창일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14:00~14:45	6·25전쟁 중 미국 원자탄 사용 논의와 합의 · 발 표 : 최정준 (군사편찬연구소) · 토 론 : 방준영 (육군사관학교)
14:45~15:30	6·25전쟁 이전 한국의 동원정책 · 발 표 : 박종상 (군사편찬연구소) · 토 론 : 박동찬 (군사편찬연구소)
15:30~15:50	휴식
제 2 부 사회: 온창일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15:50~16:35	전후 일본의 내각안전보장기구 - 국방회의·안전보장회의·NSC · 발 표 : 지지와 야스아키 (日. 방위연구소) · 토 론 : 오일환 (아르고 인문사회연구소)
16:35~17:20	한반도 중단철도 및 압록강 연안 목재 이권 문 제에 관여한 사업가들과 러일전쟁 · 발 표 : 칸노 나오키 (日. 방위연구소) · 토 론 : 이승희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17:20~17:50	종합토론 · 진 행 : 허남성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석좌연구원)
17:50~18:00	기념패 증정 및 폐회사

○ 역대소장 자문회의

- 일자 / 장소 : '18. 11. 15.(목) / 연구소 회의실
- 참석인원 : (10대) 하재평, (12대) 김홍영
- 주요내용 : 연구소 발전을 위한 제언 및 토론

○ 18-4차 군사사 연구논문 발표회

- 일시 / 장소 : '18. 12. 5.(수) / 연구소 회의실
- 참석인원 : 50여 명(연구소, 군사사학회, 군 및 일반연구자 등)
- 세부진행

14:30~14:40	개회사,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14:40~15:30	제1주제 : 日방위성 소장 용산 군용수용지 명세도 소개 및 분석 · 발 표 : 김천수 (용산문화원) · 토 론 : 김윤미 (고려대)
15:30~16:20	제2주제 : 용산지역 일본군 주둔 부대의 변천과 그 특성 · 발 표 : 이민성 (건국대) · 토 론 : 황선익 (국민대)
16:20~16:30	휴 식
16:30~17:20	제3주제 : 1940년대 식민지 군사동원과 학도지원병 연구 · 발 표 : 정안기 (서울대) · 토 론 : 김형목 (독립기념관)
17:20~17:30	맺음말씀, 사진촬영, 폐회

- 2018년 군사편찬연구소 군사 학술교류 세미나
 - 일시 / 장소 : '18. 12. 11.(화) / 연구소 회의실
 - 참석인원 : 50여 명(연구소, 한국전쟁학회 등 군사사 연구자)
 - 세부진행

14:00~14:10	개회사, 참석자 소개
14:10~15:20	<p>○인사말씀 : 연구소장</p> <p>○기조연설 : 라종일(가천대 석좌교수)</p> <p>○제 1주제 : 북한의 서해 해상경계선 주장 변화와 남북군사협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표 : 김동엽 (경남대) · 토 론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15:20~15:40	휴 식
15:40~17:20	<p>○제2주제 : 남북한 군사합의 이행의 역사적 조망과 향후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표 : 이미숙 (군사편찬연구소) <p>○제3주제 : 중국인민지원군 철군을 둘러싼 중북 갈등과 중국의 한반도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표 : 한상준 (아주대) · 토 론 :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오규열 (서울디지털대)
17:20~17:30	맺음말씀, 사진촬영, 폐회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사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 : (일반) 02)709-3188, 3199
(군) 900-1686, 1688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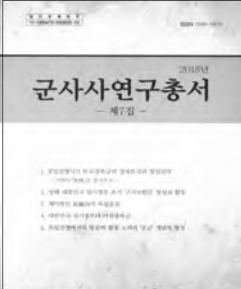
◇ 이용시간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 / 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신간 도서 소개

구 분	내 용
<p>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 (1991-2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흥주 (국제분쟁사부) • 신국판 • 2018. 10. 30.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p>이 책은 탈냉전 후 4반세기 동안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을 유엔 평화유지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협력활동으로 구분하여 부대 및 개인단위 파병을 망라하였다. 또한 이러한 파병활동을 평가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해외파병정책 수립과 장병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p> <p>그리고 한국군의 파병 배경과 명분, 장병들의 현지 활동 등에 기술하여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은 물론, 그들의 노고와 파병활동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p>
<p>군사사 연구총서 제7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경록 (군사사부) • 신국판 • 2018. 12. 30.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p>연구총서 제7집은 “독립군, 광복군, 국군의 군사적 전통”을 주제로 기획하여 임시정부의 “광복”지, 무장투쟁, 공군사, 미주독립운동, 여성광복군을 정리하였습니다.</p> <p>의병, 독립군, 광복군, 국군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적 전통을 이해하고, 일제강점기 독립전쟁을 이해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p>

구 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서부 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유엔평화유지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재 (국제분쟁사부) • 4×6배판 • 2018. 12. 28. 	<p>본 책은 1994년 8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약 12년간 아프리카 서북단 분쟁지역인 서부 사하라에서 파병부대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국군의료부대로는 최초로 파병되어 임무를 수행한 국군의료지원단의 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p> <p>유엔의 요청에 의해 파병된 국군의료지원단은 제1진부터 제4진까지 42명씩 전문의, 치과, 병리, X-ray, 방역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 유엔의 인원 감편에 따라 제5진부터 철수할 때까지 20명씩 파병되어 서부 사하라 유엔선거감시단의 유엔군과 현지 민간인 등 약 58,000여 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서부 사하라와 국군의료지원단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p>

『軍史』誌 投稿案内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 전략·군사제도·전쟁/ 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관련한 정치사·외교사·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 다. 가·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자료소개, 서평(102호부터 신설, 별도 이메일 접수), 연구동향 등
-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 다. ㄷ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계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마.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명시.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음.

바. 참고문헌은 인문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카고 스타일을 적용

사. 참고문헌 중 전자출판된 학술지 논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및 발행호수(발행연도) : 페이지수, DOI 또는 UCI 표기

예1 : UC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103호(2017):330-359,
[http:// uci.or.kr /G704-001528.2017..103.010](http://uci.or.kr/G704-001528.2017..103.010)

예2 : DO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103호(2017):330-359,
[http:// doi.org/10.12345 / imhmnd.2017.105..103.010](http://doi.org/10.12345/imhmnd.2017.105..103.010)

※ DOI 정보는 해당논문에서 식별할 수 있으나 UCI 정보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자식별정보(KCI)에서 식별할 수 있음.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지 예규를 참고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글 파일(000.hwp)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함.

※ 최초 투고시 저자 이름 삭제(파일명 포함), 이후 수정논문 탑재 시 저자이름을 포함

나. 군사지투고시스템은 인터넷에서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바로가기로 접속할 수 있으며, 논문과 투고계획서(국문 및 영문초록), 저작물이용동의서, 논문유사도 검사결과서를 탑재하여야 함.

1) 투고계획서와 저작물이용동의서의 양식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 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2)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는 한국연구재단의 KCI의 논문유사도 기능을 활용하여 결과서를 다운받아 제출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 라. 심사가 끝난 후 수정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유사도를 검사결과서, 수정문 요약본과 함께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
- 마. 세부사항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4. 원고 심사 및 고료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소정의 격려품 (기념품)을 지급함.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연락처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043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48-1667(윤재두)
- FAX : 02-709-3111
- E-mail : imhc2@mnd.go.kr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신간안내, 회원모집,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DB검색 등)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1

부분개정 2009. 11.1

부분개정 2017. 8. 1

<목 차>



제 1 조	목	적	473
제 2 조	적용대상	473	
제 3 조	적용범위	473	
제 4 조	용어의 정의	473	
제 5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474	

제 2 장 연구자와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제 6 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475
제 7 조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476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8 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477
-------	--------------	-------	-----

제 9 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477
제10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477
제11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478
제12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478
제13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479
제14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479
제15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480
제16조	판 정	480
제17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480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481
제19조	결과에 대한 조치	481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482
부 칙		48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연구 원자료”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2.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3.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4.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지식 재산을 말한다.

제 5 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자와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제 6 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한 대우를 한다.
-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보호 되어야 한다.
-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한다.
-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
-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을 견지한다.
-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

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한다.

⑨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제 7 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예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연구소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 1회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⑥ 연구소는 교육부장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구소는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 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8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5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0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

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 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위원장)은 연구편찬분야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군사사(軍事史) 분야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하여 위촉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 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 ① 최종보고서는 소장 승인을 득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질의/응답〉

Q) 연구원 본인이 작성하여 발간한 연구보고서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하여 출판할 수 있는가?

A) 중복게재와 관련된 가이드는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 지침 제5조 2항과 6조 2항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복게재를 피하려면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1차와 2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라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소속 기관으로부터 동의를 확보한 이후, 연구보고서를 출처로 표기하고 논문을 투고하여 정상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출판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

제5조 2) 다음의 경우는 중복게재로 볼 수 있다.

- ①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고찰),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
- ② 이미 게재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일부라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 ③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 단 연속논문은 제외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 편집위원장

백기인(군사편찬연구소)

☞ 편집위원(가나다순)

강창부(공군사관학교) 기광서(조선대학교)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김창석(강원대학교)
박걸순(충북대학교) 박태균(서울대학교)
손규석(군사편찬연구소) 신명호(부경대학교)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오영섭(연세대학교)
윤경진(경상대학교) 이근옥(서강대학교)
이상호(군사편찬연구소) 이신재(군사편찬연구소)
이한우(서강대학교) 전호수(군사편찬연구소)
정용욱(서울대학교)

☞ 편집간사

윤재두(군사편찬연구소)

軍 史 2019/3(第110號)

2019년 3월 8일 印刷

2019년 3월 15일 發行

發行處_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우편번호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748-1667 FAX : 709-3111

印刷處_ 국군인쇄창 (M19020214)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정경(正經) 세상

유능(有能) 안전(安全)
튼튼(튼튼)한 국방(國防)

부정청탁(不正淸탁)의 손길 나라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ilitary History

Vol. 110. 2019.3.

- Yoon, Seong-Hwan The historical reality of the battle of 'Danghang castle' during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 Jung, Weon-joo Anseung(安勝)'s Direction during the period of the Revival Movement of Goguryeo
- Shin, Seong-Jae The Unification War of the Later Three Kingdoms and the Battle of Unju
- Yun, Sung-ho Achievements and Tasks of the Researches about Goguryeo's Facilities in the area of South Korea
- Han, Jung-Soo The Formative Process and Contents of the military rites, Gyeonjangchuljeugeui(遣將出征儀) and Sahwaneui(師還儀) in the Period of the Goryeo Dynasty
- Kim, Kyeong Lok International Situation and War in Northeast Asia during early period of Joseon
- Mun, Gyeong-deuk Response System to Rebellion and Its Operation in Jeolla province
- Focusing on the defense against rebel forces in Gyeongsang province during the rebellion in the year of Musin -
- Seok, Yeong Dal Propagating the Image of Admiral Yi Sun-shin to the Western World: *A History of Japan* by James Murdoch, Which is the book of playing the Role of connecting link.
- Jung, Sang-Hyuk The Failure Factors of the River-crossing Operations Conducted by North Korean Troops During Initial Phase of the Korean War
- Analysing Based on the Battle of the Han-River Crossing -
- Lee Sang-Ho The Implications and Four Plans of 'Operation Chromite', Inchon Amphibious Operation
- Kim, In-seung The Usefulness of Discovering New Resources for the Study of the Naval History in the Korean War
- Focused on the British Royal Navy's Operational Records -
- Kim, Hyun-Sick A Study on the Causes for the Change of the feature in the Iraq War
- Focusing on the combination of resistance will and political actors -

Published by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Korea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mnd

YOU ARE CROSSING
THE
COURTESY OF 3RD ROK DIV.